
부산학생산악연맹
50
1968~2018
만남, 우정,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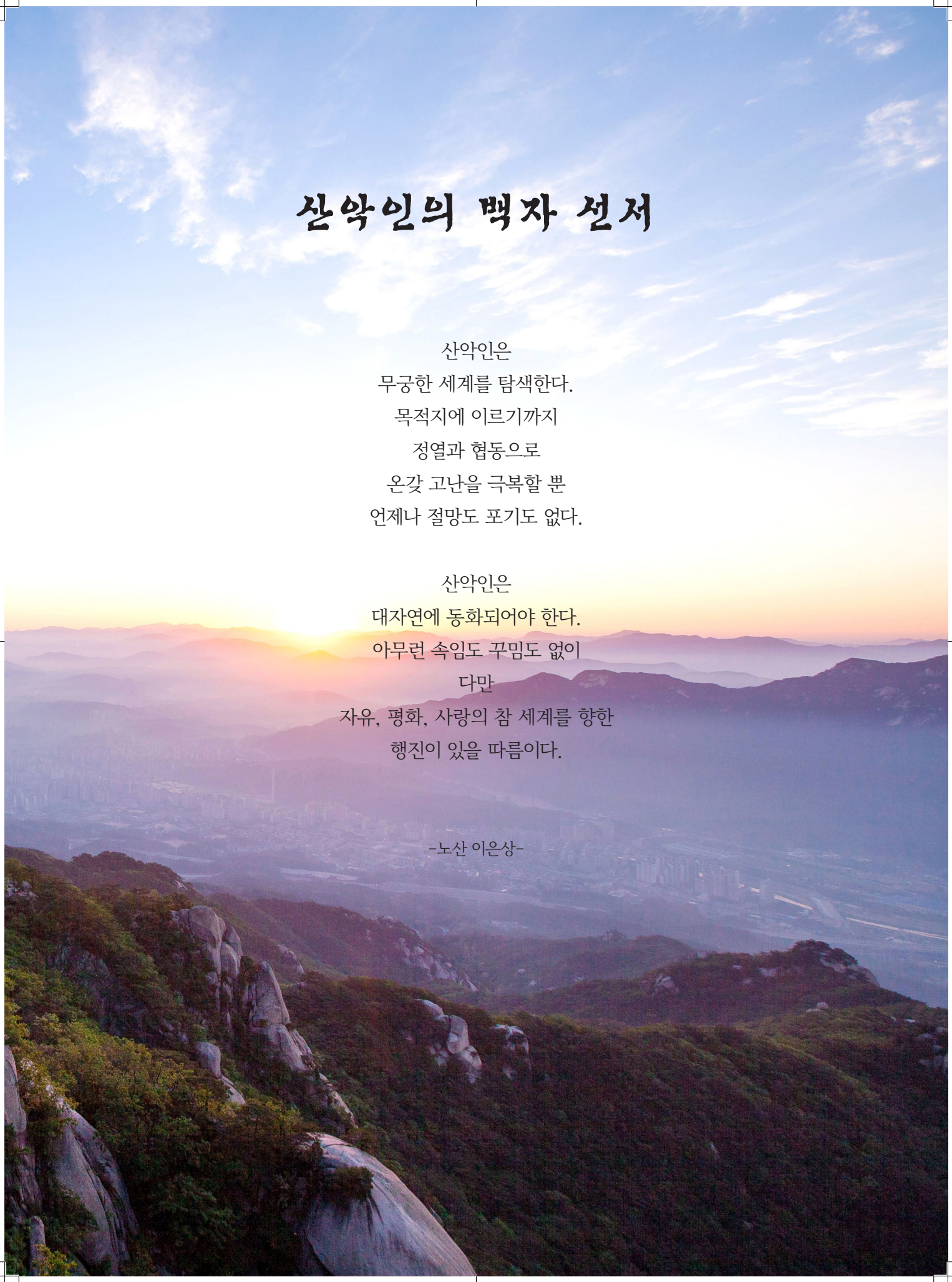
표지제자 추강 문봉현
1949년 경남 남해 출생
2005년 대한민국 미술 대상전 초대작가
2010년 국제종합예술대전 최우수작가상 수상
(현)사단법인 한국산악회 부산지부 고문



50년을 함께 걸어오고, 앞으로도 함께 할
岳友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산악인의 백자 선서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 평화, 사랑의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노산 이은상-

권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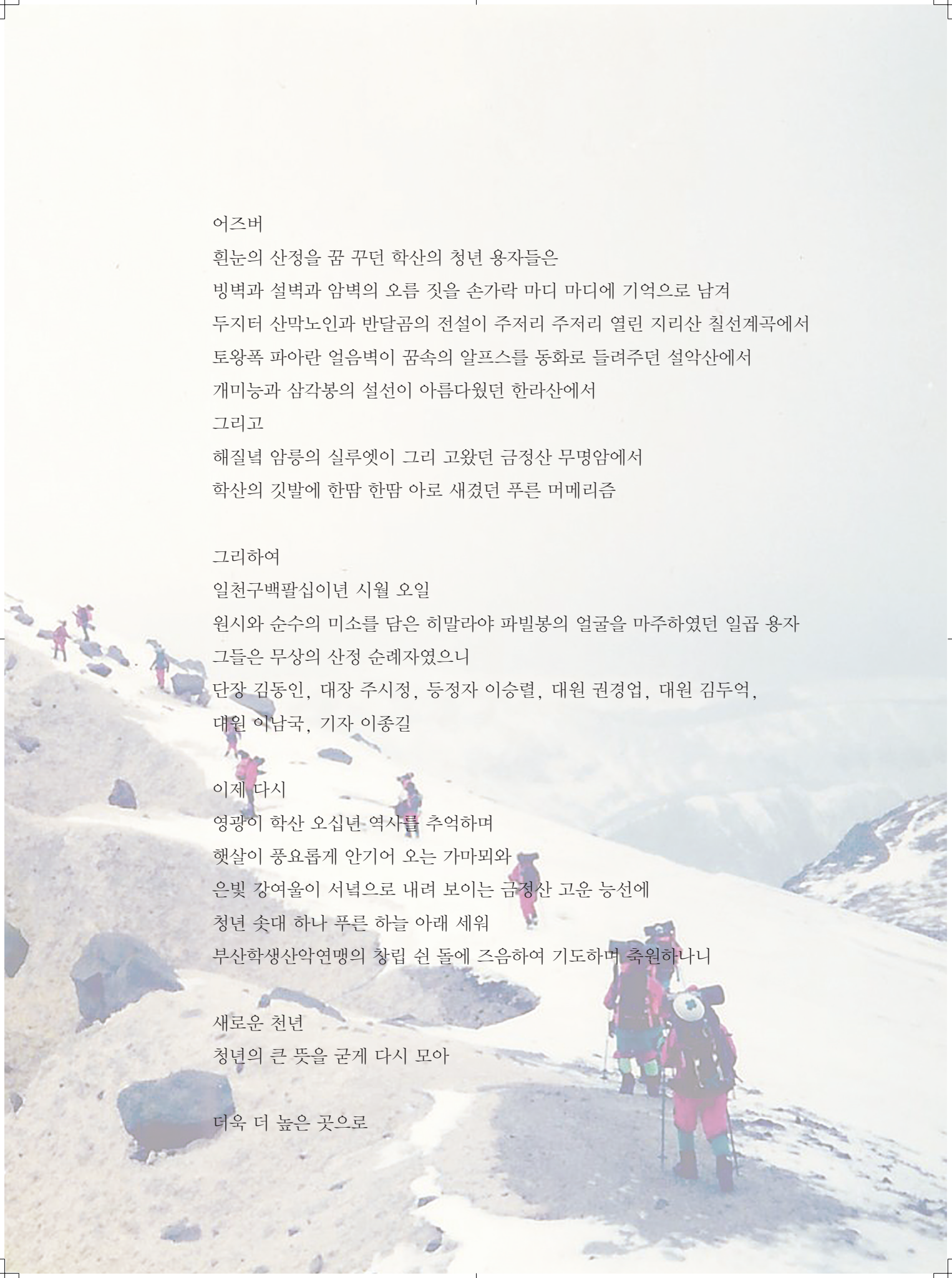
새로운 천년, 더욱 더 높은 곳으로

고문 신호진(부산교대 74)

가마뫼
삼천리 금수강산 해뜨는 동방
산맥은 강물에 강물로 몸 출렁이며
남으로 바다로 향하였나니

쇠우물뫼
은가루 흩뿌려 달빛 고즈녘히 내려 앉은 쇠우물에서
금빛 범어는 태고의 닭 우는 소리 기다리며
바람으로 바람으로 유영하였넬라

아우러 더 아우러
아름답고 축복받은 땅 가마뫼, 쇠우물뫼 대지에서
일천구백 육십팔년 삼월 삼십일일
숲의 정령과 산정의 정기를 받아들여
백합보다 순결한 청년의 산악이념을 약속하며
사랑과 자유와 지성의 케른을 쌓아
마음과 마음들을 모으니
오오 보라!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탄생이어라



어즈버
흰눈의 산정을 꿈 꾸던 학산의 청년 용자들은
빙벽과 설벽과 암벽의 오름 짓을 손가락 마디 마디에 기억으로 남겨
두지터 산막노인과 반달곰의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린 지리산 칠선계곡에서
토왕폭 파아란 얼음벽이 꿈속의 알프스를 동화로 들려주던 설악산에서
개미능과 삼각봉의 설선이 아름다웠던 한라산에서
그리고
해질녘 암릉의 실루엣이 그리 고왔던 금정산 무명암에서
학산의 깃발에 한땀 한땀 아로 새겼던 푸른 머메리즘

그리하여
일천구백팔십이년 시월 오일
원시와 순수의 미소를 담은 히말라야 파빌봉의 얼굴을 마주하였던 일곱 용자
그들은 무상의 산정 순례자였으니
단장 김동인, 대장 주시정, 등정자 이승렬, 대원 권경업, 대원 김두억,
대원 이남국, 기자 이종길

이제 다시
영광이 학산 오십년 역사를 추억하며
햇살이 풍요롭게 안기어 오는 가마뫼와
은빛 강여울이 서녘으로 내려 보이는 금정산 고운 능선에
청년 솟대 하나 푸른 하늘 아래 세워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창립 쉰 돌에 즈음하여 기도하며 축원하나니

새로운 천년
청년의 큰 뜻을 굳게 다시 모아

더욱 더 높은 곳으로





서각현판 : 서재석
서각.전각가
대륙산악회 회원
대한산악연맹 부산연맹 이사역임
캉첸중가 등반(1987년)
금정산장 관리인 역임(2003-2010년)

부산학생산악연맹 로고 변천사



1970



1978



1991



1994



2010



2017

부산학생산악연맹 가맹 대학 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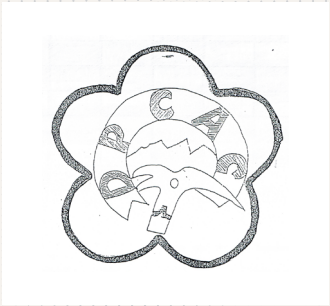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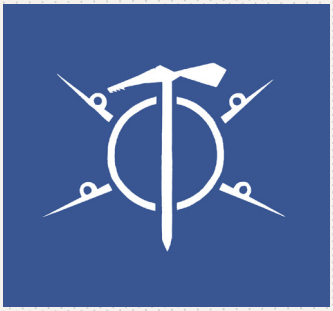
동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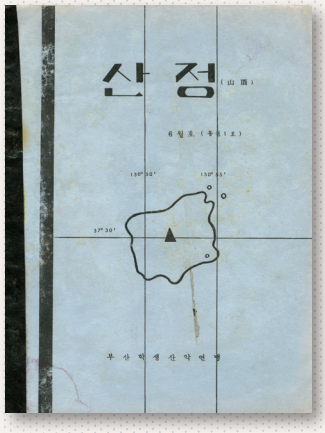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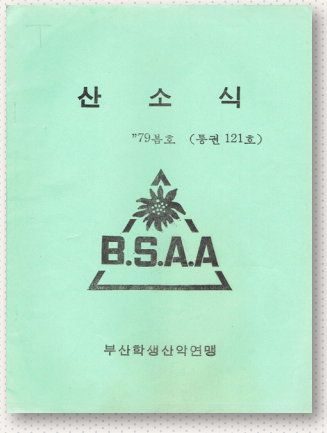
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학생산악연맹 정기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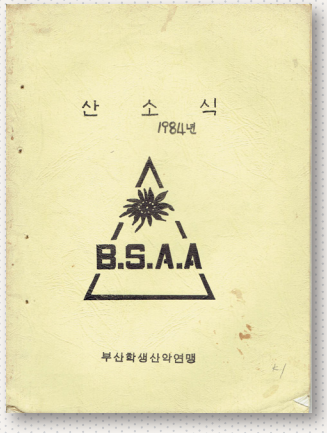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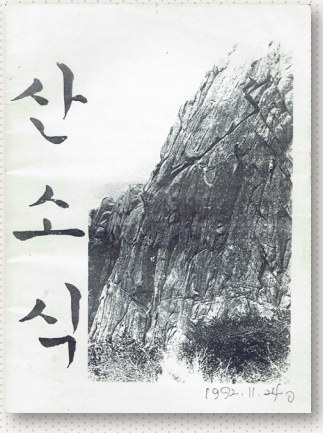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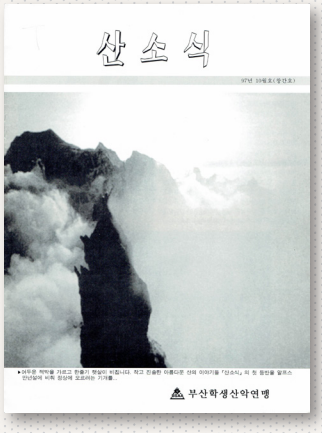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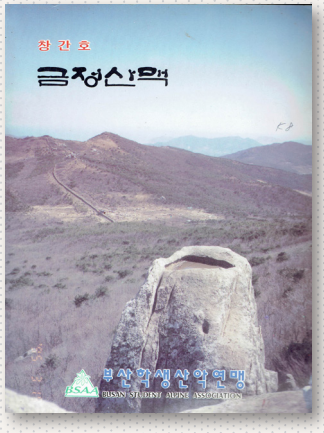

산 소 식
(1989)
B.S.A.A
부산학생산악연맹


산소식
(1990)
BSAA
부산학생산악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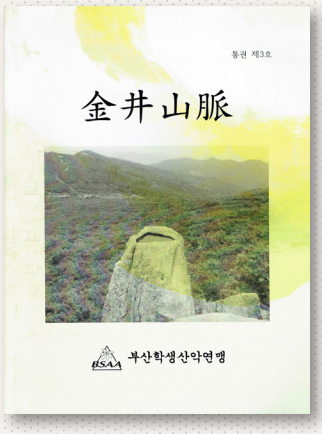

산소식
(1991)
BSAA
부산학생산악연맹


산
소
식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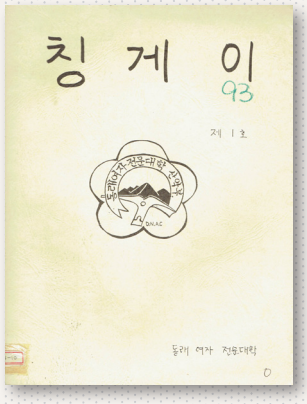

창간호
금정산맥
부산학생산악연맹


'99 금정산맥
제 2 호
부산학생산악연맹


통권 제3호
金井山脈
부산학생산악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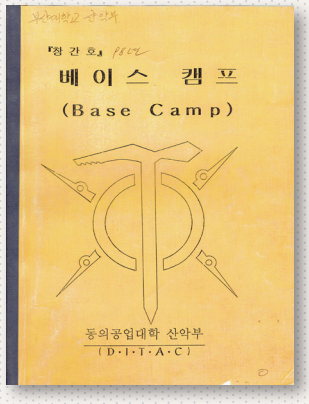

통권 5호 (ver_2016)
金井山脈
부산학생산악연맹
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

부산학생산악연맹 가맹 대학 정기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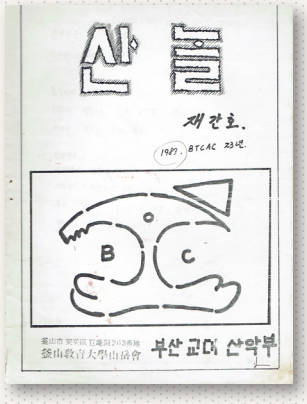




동부산대학교(구. 동래여자전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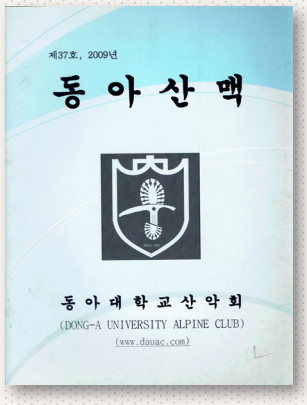
동의과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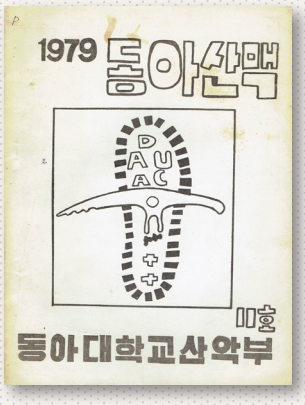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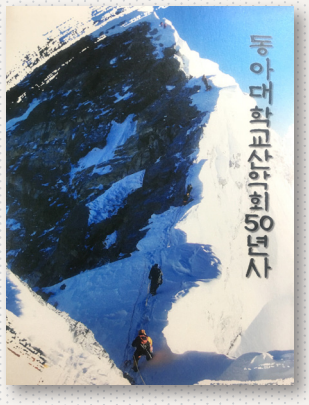


부산교육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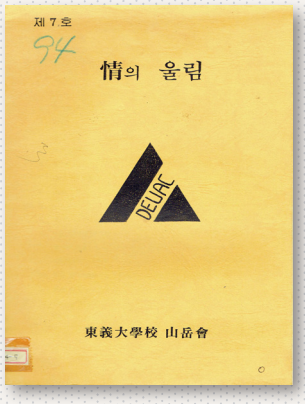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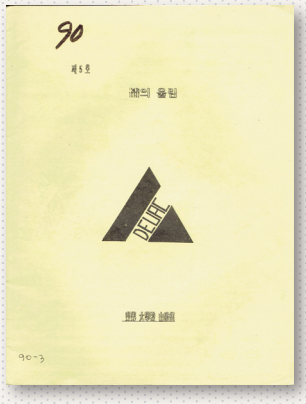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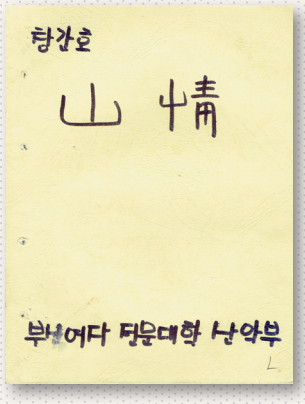
동아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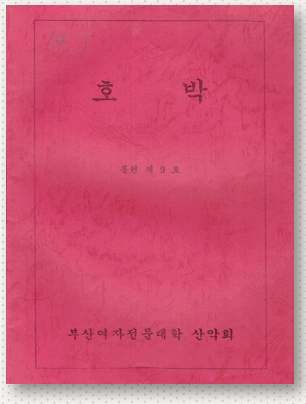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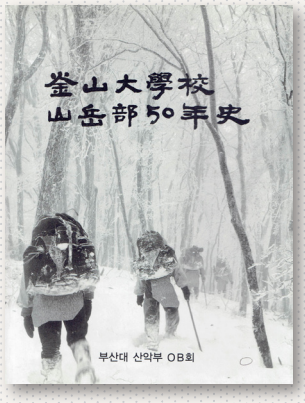
동의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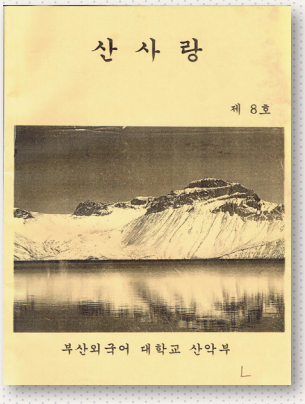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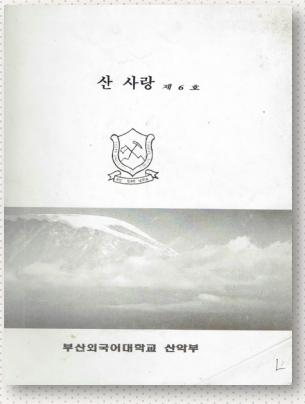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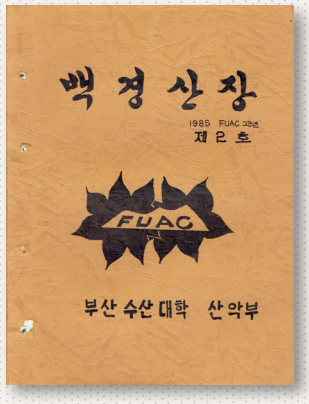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부산학생산악연맹 가맹 대학 정기 간행물





부산외국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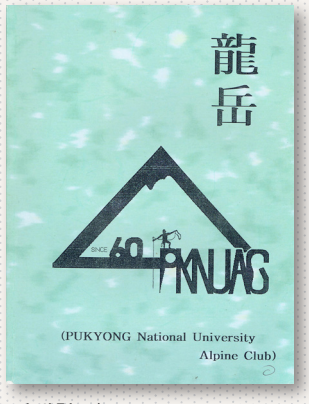


부경대학교(구.수산대학교)



부경대학교(구.수산대학교)





부경대학교(구,부산공업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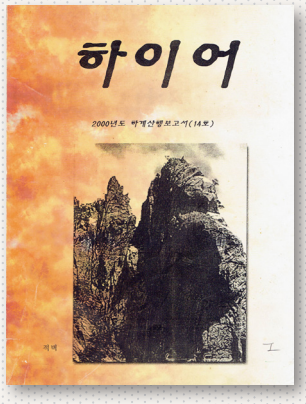




춘해보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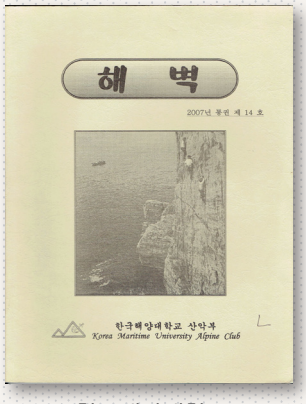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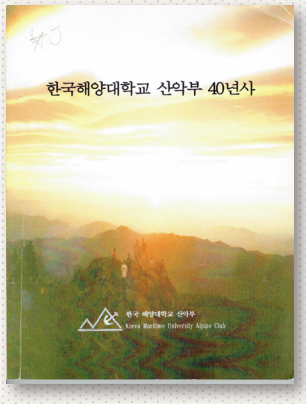




부산과학기술대학교(구. 성지공업전문대학)







한국해양대학교







역대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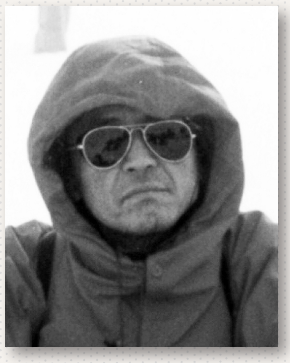
1대(1968)
김 택 진



2대(1969)
오 점 량

3대(1970~1971)
엄 익 주

4대(1972~1973)
장 두 석



5대~8대(1974~1982)
김 동 인



9대~12대(1983~1989)
이 용 달



13대(1990~1991)
최 상 문



14대(1992~1993)
황 순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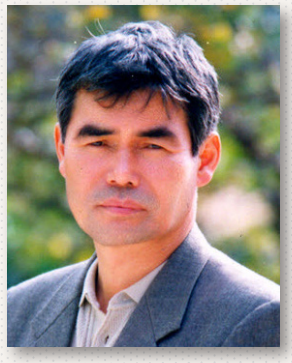
15대(1994~1995)
최 해 곤



16대~17대(1996~1999)
김 정 실



18대~19대(2000~2003)
정 성 호



20대(2004~2005)
신 호 진



21대(2006~2007)
이 동 본



22대(2008~2009)
정 민 규



23대(2010~2011)
김 치 근



24대(2012~2013)
정 지 택



25대(2014~2015)
박 병 환



26대(2016~현)
이 창 호

연맹 및 가맹 대학 팬던트


68 부산 3 회 5.25.26 학생
등산대회


72년도창립기념등산
금정산
72.4.2


1972.6.4-6
부산학생
7
등산대회


제1회
산악강좌및산악인의밤
B.S.A.A
1973.12.15-16
주최 : 부산학생산악연맹


제 5 회
대학산악부친선체전
1974 6 2
P.S.A.A.
부산학생산악연맹


제2회
부산학생연맹제
1974.12.1 금정산
BSAA
부산학생산악연맹


하계 울릉도학술조사
1975.8.19-28
BSAA
부산학생산악연맹


동계
합동훈련등반
B.S.A.A
부산학생산악연맹
동아대. 부산대. 수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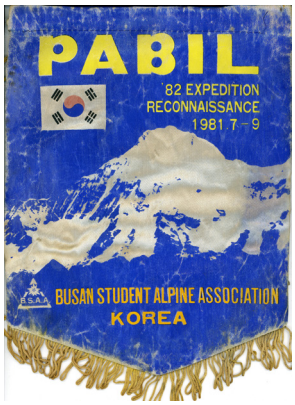

제七회
친선체육대회
B.S.A.A
부산학생산악연맹
1976.5.30


第九回親善體育大會
B.S.A.A
釜山大学校 釜山教育大学
東亞大学校 釜山工業專門学校
釜山女子大学校 盛智工業專門学校
海洋大学 釜山女子專門学校
水産大学
日時：1978. 5. 28
場所：盛智工業專門學校
釜山學生山岳聯盟


하계백운산훈련대
1978. 7. 25~8. 5
B.S.A.A
부산학생산악연맹


제 11 회
연맹제 및
이천산장 개관기념
B.S.A.A
일시 : 1978. 11. 11~12
장소 : 경남 양산군원동면장선리(배내골)
부산학생산악연맹


제 7 회 연 맹 제
B.S.A.A
일시 : 1980. 11. 29~30
장소 : 금 정 산 북 문
부산학생산악연맹


PABIL
'82 EXPEDITION
RECONNAISSANCE
1981. 7~9
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
KOREA


제13회
부산학생산악연맹체육대회
B.S.A.A
일시 : 1982. 5. 29~30
장소 : 금정산북문산장


B.S.A.A
부산학생산악연맹




동대 부대
친선체육대회
제 1 회
PUSAN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부산대학교 산악부
72.3.25

연맹 및 가맹 대학 팬던트


72.6.4 5 6
동성교교산악부


제7회 부산학생등산대회
72.6.4-6
부산교대산악부


제 8 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제11회
산악장비전시회
DAU AC
73.11.1-3
주관:동아대학교 산악부
후원:동아대학교OB산악회


제2회학내등반대회
B.T.C.A.C
76.9.19
신어산


제13회
산악장비전시회
1976.11.1-5
동아대학교산악회




第3回
山岳裝備展記念
1977.5.20-5.22
韓國海洋大學山岳部


제8회 교내등반대회


제2회
산악장비전시회
B.W.U.A
부산여대 산악부
일시: 1979.5.28 - 6.1
장소 014 강의실


제3회
산악장비전시회
B.W.U.A.C
장소 : 103 강의실(신관)
주관 : 부산여자대학 산악부
후원 : 부산여자대학 학도호국단
학생 산악 연맹


제4회
D.A.U.A.C.의밤
D.A.U.
A.C.
D.A.U.
O.B.
A.C.
1981. 2. 28
동아대학교산악부
동아대학교 O B 산악회


백경등산대회
대상산 : 영치산(1058.9m)
날 짜 : 1981. 5. 17(日)
주 최 : 수산대학산악부


제15회
산악장비전시회
D.A.U.
A.C.
1981. 11. 1~11. 5
장소 : 215강의실(상경대)
동아대학교 산악부
후원 : 동아대학교 OB산악회


신입생환영등반
장소 : 금 정 산
BWCAC
11 APR. 1982
부산여자전문대학
산 악 부


PUMORI
'83. WINTER EXP
RECONNAISSANCE
1982.8~12
BUSAN TECHNICAL COLLEGE ALPINE CLUB
KOREA


제300차기념등반
B
C
教育
대상산 작천정(언양)
주최 : 부산교육대학산악부
후원 : B.T.C.A.C.O.B회


제3회
산악장비전시회
CHCNAC
일시 : 1983. 5. 16~5. 19 (3 일간)
장소 : 본 교 3 0 1 강 의 실
주최 : 춘해간호전문대학 산 악 부
후원 : 춘해간호전문대학학도호국단·부산대학생산악연맹

연맹 및 각 대학별 팬던트


제9회
산악장비전시회
KOREA MARITIME UNIVERSITY
1983. 5. 18~5. 21
한국해양대학 산악부
지도교수 : 김 원 녕 부장 : 전 창 열
부원 : 36기 : 김흥근 · 이동민
37기 : 이종형 · 전정호 · 엄주삼 · 팽현섭
38기 : 변진규 · 이영종 · 강범우 · 임강현
39기 : 김명선 · 임용혁 · 차종채 · 김정균
윤성호 · 조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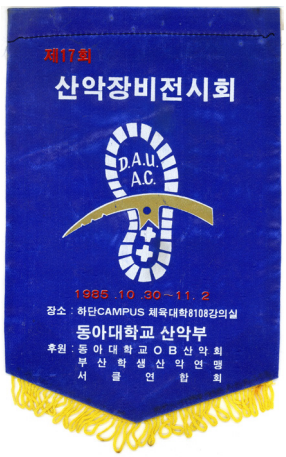

제3회
교내등반대회
일시 : 1983. 5. 20
장소 : 황령산 일원
주최 : 부산산업대학 학도호국단
후원 : 부산산업대학 산 악 부
제12회
산악장비전시회
일시 : 1983. 5. 19~22
장소 : 시청각교육관 207호전시실
주최 : 부산산업대학 산 악 부
후원 : 부산산업대학 학도호국단


제6회
산악장비 및 사진전시회
B C
일시 : 1983. 11. 1~3
장소 : 구 관 8202 강 의 실
후원 : 부산교육대학 산악부OB
부산교육대학학도호국단
15기 : 임두회 윤종진 이정휘 문진아
김미영
18기 : 양정환 이창현 김영순 송화련
정창자 조현경 박미홍
17기 : 김규삼 김종빈 박인호 송일엽
김미정 박금옥 최 경 한춘여


제18회
산악장비전시회
D.A.U.
A.C.
1984. 3. 15~3. 21
장소 : 1 CAMPUS (3. 15~3. 17)
제 1 써클집회실 (대강당 1층)
2 CAMPUS (3. 19~3. 21)
도서관 1층 로비
동아대학교 산악부
후원 : 동아대학교 OB산악회
부 산 학 생 산 악 연 맹
동아대학교 학도호국단


'85 KITA-ALPS EXPEDITION
1985. 2. 15~2. 25
PUSAN UNIV
OKAYAMA UNIV
PUSAN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산악장비전및사진전
BWCAC
일시 : 1985. 10. 25~27
장소 본 관 308 전 시 실
주최 : 부산여자전문대학산악부
후원 : 부산여자전문대학학도호국단


제17회
산악장비전시회
D.A.U.
A.C.
1985. 10. 30~11. 2
장소 : 하단CAMPUS 체육대학8108강의실
동아대학교 산악부
후원 : 동 아 대 학 교 OB 산 악 회
부 산 학 생 산 악 연 맹
서 클 연 합 회


개교40주년기념
'86 하계일본北ALPS원정등반
86. 8. 11~8. 20
주최 : 동 아 대 학 교 산 악 회
후원 : 동아대학교 OB산악회
한국산악회
초청자 : 日本中京大學山岳部


창립30주년기념
'87 東亞大學校太白山脈종주등반
'87. 7. 17~8. 10
주최 : 동 아 대 학 교 산 악 부
후원 : 동 아 대 학 교
동아대학O. B. 산악회
동아대학교직원산악회
부 산 학 생 산 악 연 맹


산악장비전 및 사진전
• 지도교수 : 황 순 칠
• 부 장 : 진 영 선
• 부 원 : 15기 정명화 김윤정
16기 염미선 박순희 김희영
홍선면 최영숙 최봉금
박미선 배현주
• 일시 : 1989. 10. 24~10. 28
• 장소 : 설 송 관 3 0 9 전 시 실
• 주최 : 부산여자전문대학산악부
• 후원 : 부산여자전문대학총학생회


개교44주년및부속병원설립기념
'90. KOREAN HIMALAYA GLACIER DOME (7.193M)
EXPEDITION
90. 8. 10~10. 8
주최 : 동 아 대 학 교 산 악 회
후원 : 동아대학교OB산악회
동 아 대 학 교 등 문 회
한 국 산 악 회


부산여대산악부

사진으로 보는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



1962년 7월 한라산 '항고'에 밥 짓는 모습
사진기증 : 김재도(부산대60)

사진으로 보는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



1961년 7월 한라산 개방기념비 앞에서(이하 부산대)



1961년 7월 한라산 개방기념비 뒤쪽북벽 오버행 현수하강



1961년 7월 한라산정상 공대산악부와 함께



1961년 7월 왕관봉에서 제주시쪽을 바라보며



1961년 10월 가야산 정상

1960s



1961년 7월 영주장에서 탐라계곡 이동중
표고버섯 재배장 관리소



1962년 1월 하늘을 오르는 다리 속리산



1962년 5월 영취산등반대(부산대 공대, 상대 합동등반 57명)



63년 1월 한라산 영주장 내부



1963년 1월 한라상 적설기등반



1967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사진으로 보는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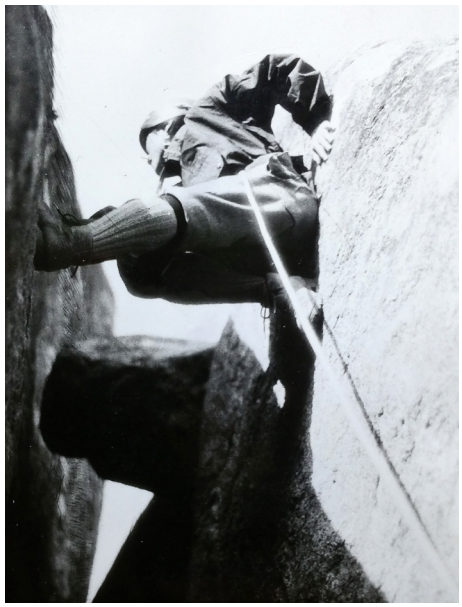
1973년 5월 부산역광장에서 등산대회 개회식 후(동아대,부산대)



1973년 7월 17일 어리목 막영지를 떠나기 앞서 A,B조 대원(동아대)



1974년 6월 부채바위 밑에서(수산대)



1974년 11월 2일 나비바위 침니를 오르는 중(동아대)



1975년 8월 연맹 합동 울릉도 학술조사 동구마을 정자나무 밑에서 연맹기 들고서



1975년 1월 11일 동계 적설기 지리산 발대식



1975년 1월 17일 동계 적설기 지리산
사태골 전진캠프 안에서



1975년 1월 17일 동계 적설기 지리산 천왕봉 정상



1975년 1월 19일 연맹 동계 적설기 지리산 모든 산앵을 끝내고 추성리로 하산 중



1976년 제5회 양산 천성산 백경등반대회(수산대)



1977년 1월 28일 연맹 동계 적설기 덕유산 삼공리 계곡에서 아이젠 꽝꽝

사진으로 보는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



1982년 5월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연맹 합동 산행



1982년 11월 파빌봉(7102m) 등정 후 환영식(부산역)



1984년 9월 연맹 추계 합동 R.C 출발 전 금정산 북문 앞



1984년 11월 금정산 북분 앞에서 연맹 합동 친선체육대회



1985년 5월 춘계합동 R.C 금정산



1985년 5월 춘계합동 R.C 금정산



1989년 5월 춘계합동 R.C 마치고 금정산장 앞에서



1989년 9월 연맹 암벽등반 기술교류회

사진으로 보는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



1991년 9월 추계합동 R.C 금정산 나비암 막영터



1993년 1월 연맹 동계 훈련 후 비선대 식당



1993년 1월 설악산 죽음의계곡 동계 합동 훈련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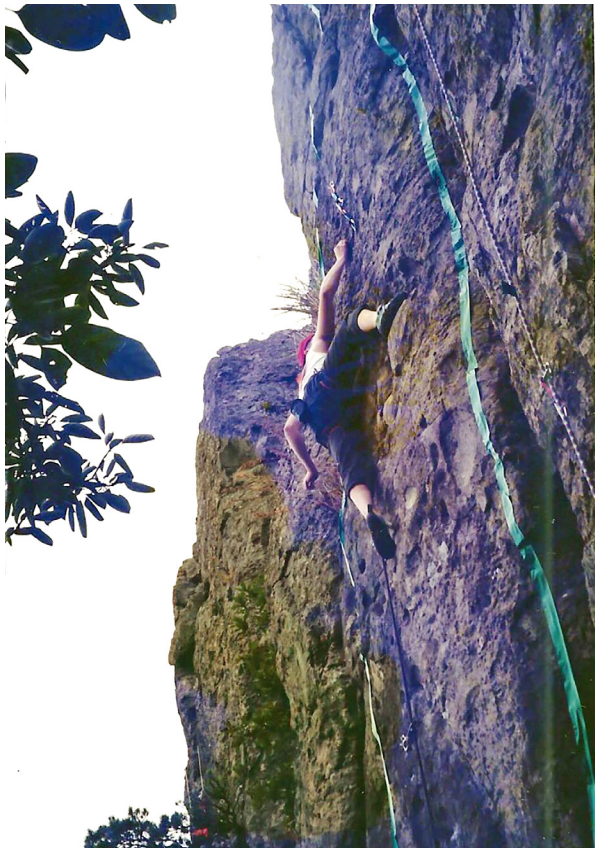
1994년 12월 백두산 동계등반 천지에서



1995년 5월 백운산 추계 합동 R.C((백운산 슬랩 후)



1996년 9월 추계 합동 R.C를 마치고 백운산 백운 슬랩 앞 공터



1997년 9월 승학산 승학암 자연암벽대회







1998년 7월 연맹 합동 백두대간 종주



1998년 연맹 동계 합동 등반 설악산 죽음의계곡 – 대청봉 워킹



1999년 연맹 동계 합동 등반 설악산 잦골 100미터폭 앞

사진으로 보는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



2001년 제1회 볼더링대회(부산역광장)



2005년 연맹 동계 합동 훈련 출발전 연맹 사무실에서



2005년 설악산 연맹 합동 훈련



2007년 연맹 합동 원정(공거얼 7719m)



2008년 연맹 동계 합동 훈련 50m폭에서



2009년 부채바위 합동 R.C



2009년 나비암 합동 R.C





2012년 무명암 릿지 티롤리안 브릿지



2012년 무명암 합동 R.C



2012년 동래문화회관 합동 인공암벽등반





2013년 산악스키 강습회

사진으로 보는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



2013년 동래문화회관 합동 인공암벽등반



2014년 연맹동계합동산행(한라산)



2014년 쓰리랑 릿지 하계합동 R.C



2014년 OL교육(등산학교)



2014년 연맹 동계 합동 훈련(한라산)



2014년 연맹 동계 합동 훈련(한라산)



2015년 연맹동계합동산행(설악산)



2015년 연맹 등산학교(백운슬랩)



2015년 연맹 등산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2016년 하계 합동 훈련 중 설악산 칠성봉



2016년 연맹하계합동산행(새천년길, 신선암장)



2017년 연맹 등산학교(백운대)

발간사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장 이 창 호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하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절망도 포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이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 지도 어언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8년 3월 30일 〈산악지식의 보급과 등산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향토 및 자연애호의 소양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산악부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창립 규약 아래 5개의 대학산악부와 6개의 고교산악부가 대청장예식장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1970년 대학부는 7개 대학으로, 고등부는 9개 고교로 늘어났지만 1973년 고등부는 부산고등부학생산악연맹으로 독립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연맹은 많은시련과 변화를 거쳐 1980년대 들어서야 지금의 17개 대학산악부가 참여하는 부산학생산악연맹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각 대학산악부 별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던 우리 연맹은 1982년 히말라야 파빌봉(7102m, 가네쉬 4봉) 원정을 통해 자아실현과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연맹 공동체적 협동심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연맹 차원의 등산학교, 하계·동계 연맹합동등반, 볼더링대회, 연맹제 등 단대산악부 간 산악지식과 활동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제 그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부산학생산악연맹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꾸리고 기념등반, 부경합동등반, 연맹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그리고 50년사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정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금이, 조광제, 박준범, 하태웅, 한강수, 김재형, 정영훈 등 편집위원들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끊임없는 기록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말보다 이렇게 정리된 하나의 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더욱 큰 느낌과 감회로 다가갈 것이라 믿습니다.

한분 한분의 선배님들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의 기록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많은 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사히 책이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화는 학생산악연맹의 모습과 활동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악인의 일원입니다.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하고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입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가 앞으로의 산악활동에 큰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 선배님과 후배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축 사



(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회장 김 경 섭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산 사랑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을 벗 삼아 신선한 산악문화를 주도하는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의 뜻깊은 날을 축하 드립니다.

늘 진취적이고 도전적 사고와 함께 활발한 산악활동으로 젊은 인재 양성과 개척 등반 등 부산산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나온 흔적과 미래를 향한 지표지인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행을 함께 축하 드립니다.

50년 세월동안 산을 향해 수만 리 달려온 역사가 또다시 내 닫는 앞날을 위한 초석이 되시고 대자연이 늘 함께 공존하며 서로의 진리를 통해 17개 대한산악단체 악우 모두가 가족과 동지가 되고 친밀함을 공유하는 부산학생산악연맹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노력하신 이창호 회장님 이하 집행부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과 연맹 50년사 발행을 부산 악계를 대신하여 축하의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악회
부산지부장 김 규 태

산에서 만나면 항상 반가운 산악동지들인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세기를 이어 온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50년사를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집념으로 부산 악계의 높은 기상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던 부산의 원로 선배를 비롯한 많은 산악인의 노력과 희생에 따른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창립규약에 산악지식의 보급과 등산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향토 및 자연애호의 소양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 산악부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고 명시한 것을 보아도 당시 창립을 주도한 원로 산악 선배들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산학생등산대회와 산악강좌 및 산악인의 밤 개최, 희말라야 파빌봉 등정 등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활동은 부산악계의 전체의 성장에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지나간 찬란한 역사 속에 연맹이란 특성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갈등 등 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오늘의 반석에 올려놓은 부산학생연맹 산악선배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처럼 각급 산악부 재학생이 감소한 시기에 50년사 발간은 새내기들에게 학생산악 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하고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원하건대 자연보호운동, 산행질서확립, 산악문화발전, 등산장비개발 등 산악운동의 전반적인 요소를 높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산악단체로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학생산악연맹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기고



창립회원
김 재 도(부산대60)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며

부산학생산악연맹이 창립된 지 어언 반세기란 세월이 지났다니 참으로 꿈만 같으며 스쳐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되살아나 감회가 새롭게 느껴진다. 50년전 우리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인 젊은 청년 시절에 겁 없이 부딪치면서 일구어냈던 학생산악연맹 결성에 관한 시작과 전말을 희미한 기억 속에서 더듬어 보면서 그 역사를 짚어 보고자 한다.

지난 1960년대 등산운동 태동기 시기의 부산지역 대학 및 고교산악부의 꾸준한 등산활동은 부산 등산계에 싱그러운 충격과 새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더욱이 경북학생산악연맹의 활발한 등산활동은 당시 경향 각지의 학생산악부에 건전한 등산을 유도하는 길잡이로 충분한 명분을 부여했다. 특히 집행부 구성에서 선후배들의 짜임새 있는 참여와 효율성 있는 운영은 다른 지방 임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지방 임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또한 교과서적인 표본 역할을 하였다.

부산 지역에서도 1960년대 초반에 학생산악활동을 주도한 부산대 산악부 출신 박진, 김재도 그리고 경북학산련 주최 전국 60km 극복등행대회에 심판위원으로 참가했던 성

산씨도 함께 합류한 3인방은 자신을 잘 알아주는 친구, 혹은 서로 뜻이 통하는 지기지우(知己之友) 사이였다. 그래서 세 사람은 1966년 12월부터 정례적인 회합을 하고는 부산학생산악연맹 결성 성공을 위한 결의를 돈독하게 다짐하면서 밑그림의 작업 구상을 시작했다.

1967년 11월 부산시내 중구청사 옆에 자리 잡고 있던 아주관광여행사에 근무하는 성산씨의 지인인 김만석 전무를 통해 김진규 부장(산정클럽)과 김경희 사장을 알게 됐다. 연맹 창립준비를 위한 추진업무 작업을 김경희 사장이 자기 사무실을 이용하라고 배려해 주었다. 그 고마운 말씀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으며 하루가 다르게 창립을 위한 업무추진의 실적이 차곡차곡 가시화되었다. 회의가 밤늦게까지 계속되면 간단한 식사까지 제공해 주시어 너무 고마울 뿐이었다.

부산대, 동아대, 수산대(부경대 전신), 한국해양대가 창립에 동참했고, 뒤늦게 부산여대(신라대 전신)까지 참여해 대학부는 일단 5개 대학이 참여했고, 고등부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쟈일크럽 최병선 회장과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고등부로는 동래고, 부산고, 경남상고, 부산공고, 배정고 등이 참가해 1968년 3월 30일 부산 남일초등학교 뒤편에 있었던 대청장 예식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한산 원로회원인 신업재 회장을 비롯하여 김택진, 오점량, 김용기, 박태권 교수가 참석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초대 회장에는 김택진 동아대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성산, 박진, 김재도 등 선배 산악인들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했다. 대표상임위원은 김태근(동아대), 학술상임위원은 윤명길(수산대), 기술상임위원은 김형대(동아대)가 임명됐다.

특별기고

당시 연맹 창립규약에는 연맹 결성의 목적을 '산악지식과 등산기술 교육과 산악활동을 진작시키고 향토사랑과 자연애호의 소양을 기르면서 각급 학교 산악부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고 명시하였다. 회관은 중앙동 소재 부산우체국 옆 국민은행 자리에 있었던 당시 베이호텔 2층의 부산대학교 학사산악회 회관을 잠정적으로 같이 사용했다. 이렇게 하여 부산학생산악연맹이 오랜 산고 끝에 출범한 것이다.

그 이후 1969년 3월 제2차 정기총회에서 오점량 부산대 교수가 회장으로 취임했고, 대표상임위원에는 최해곤(동아대 64학번), 운영위원장에는 김정실(부산대 67학번)이 임명됐다. 5월에는 연맹회지 '산소식'을 발간, 가맹단체의 동정과 등산기술 이론 등을 편집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좌천 달음산에서 하계 산간학교를 개설하여 지도위원들이 산하단체 회원들에게 이론교육과 암벽등반 초보기술을 교육했다.

1970년 3월 YWCA 강당에서 개최된 제3차 정기총회는 오점량 회장에서 엄익주 회장으로 바톤을 넘겼으며, 대표상임위원은 김정실군이 맡게 됐다. 대학부에 부산공전(현 부경대)과 부산교육대학이 가입하면서 7개 대학으로 단체가 늘었다. 고등부는 동래고를 비롯하여 경남상고, 배정고, 부산상고, 금성고, 영남상고, 동성고, 낙동고, 덕명여상으로 9개 단체가 됐다.

2년간 회장직을 맡고 연맹을 꾸려간 엄익주 회장에 이어 맡은 장두석 회장까지는 다소 활동이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1974년 김동인 회장(작고)이 취임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김동인 회장 재임 중 실시한 1982년 히말라야 파빌봉(7102m) 원정은 부산학산련이 주최하고 부산일보사가 후원한 행사로서, OB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등정에 성공한 쾌거로 기록되고 있다. 이 원정대는 부산대 OB 이승렬 대원이 정상을 밟았으

며, 권경업, 주시정, 김두억 대원 등 OB 회원 8명이 참가했다.

부산학산련은 김동인 회장에 이어 이용달, 최상문 회장 이후 학생산악연맹 출신인 OB 회원 중에서 회장직을 승계하면서 부산 지역 학생산악운동에 선도적인 기치를 들고 후배 양성을 위해 현재까지 꾸준히 매진해 왔다. 연맹의 큰살림을 맡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고군분투한 역대 회장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진정한 후배사랑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창립 50주년을 회상하면서 이미 우리들 곁을 떠나버린 성산 형님과 박진 친구와 함께 어울려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난상토론을 하면서 때로는 박장대소하던 그때 그 모습들이 눈물겹도록 그립고 못내 아쉬울 뿐이다.

앞으로 부산학생산악연맹은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선도적인 조직체로 발전하기 바라며 연맹 집행부와 각 대학 산악부 지도층 간에 친밀한 관계를 통해 최신 산악정보 및 등산기술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가맹단체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특별기고



전 부회장
최 욱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저는 부산 산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50년 동안 부산학생산악연맹의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부산학생산악연맹을 통하여 후배 여러분들과 여러해 동안 하계 및 동계 적설기 등반과 해외원정 훈련등반의 과정에서 수년 동안 고락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학생산악연맹이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아카데믹한 알피니즘의 비전을 추구하는 부산 지역 학생 산악부의 부원들이 모여 현재까지 50년 동안 부산지역 산악활동의 밑거름이 되어온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산악단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부산 학생산악연맹 회원으로서의 한없는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회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 바로 회원 여러분들이 협동하고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부산학생 산악연맹 저력의 바탕이며 이 또한 산악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맹의 집행부와 회원들은 지방 도시의 어렵고

불리한 환경(재정적, 물질적, 사회통념)에도 불구하고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이에 걸맞은 활동을 해 왔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회원들이 함께 뭉쳐 연맹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주체성을 잊지 않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학생연맹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연맹 전체 회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집행부와 회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와 회원들 간의 원활한 화합과 소통으로 여러분의 선배들이 지난 50년 동안 쌓아올린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사회적 신뢰와 권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50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앞선 산악활동을 탐구하고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연맹회원들이 합심하여 그 힘을 연맹활동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정체성은 상업 등반이 아닌 순수하고 아카데믹한 알피니즘을 추구하는 한국의 대표성을 갖는 산악단체입니다. 이러한 연맹의 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회원들은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
정 민 규(동아대 75)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 고장 부산의 진산 금정산 한적한 장소에 서너 평 정도의 밭을 가꾸고 있다. 고추, 가지, 열무랑 상추들을 봄에 심고는 일주일에 한 번쯤 밭에 들러 채소들이 자라나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열무는 특히 생명력이 강해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인데도 잘 자란다. 그러다 보니 산에서 사는 고라니, 오소리 부부와 가끔은 고슴도치도 밭에 나타난다.

시간은 흘러 우리들의 땀과 열정들이 담긴 부산학생산악연맹이 50년이라는 연륜을 맞이했다. 1968년 3월 31일 대학부 5팀, 고등부 6팀으로 창립하여 활동하다가 73년도에 고등부가 탈퇴해 나가고 대학부로써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부산학생산악연맹이 아니고 부산대학산악연맹이라는 표현이 알맞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정신을 존중하여 이름을 그대로 지닌 채 나름대로 변신에 변신을 하며 노력을 해왔다. 82년에 있었던 네팔 히말라야 가네쉬4봉(일명 파빌봉, 7102m)원정의 기록은 지방에서 처음 시도된 원정으로 당시 연맹 회장이시던 김동인 회장님의 열정과 집념이 이루어낸 작품이었지만 정작 본인이 원정대를 격려하러 네팔 카트만두에 가셨다가 현지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지면서 우리 연맹 또한 시행착오와 침체의 시기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재작년 5월경 현 이창호 회장이 공장으로 찾

아와 연맹 50년사 발간에 대해 부탁을 해와 고심 끝에 동참하기로 하여 우선 위원들을 가능하면 한 학교에서 한 명씩 참가시켜 최대한 공감대를 쌓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세가지 정도로 압축하여 우선 가장 중점적인 50년사 책 발간과 학술세미나, 창립 50주년 기념 산행과 병행하여 재경 합동 산행행사 등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막상 위원들과 한 달에 두 번씩 만나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고정된 회관이 마련되지 않아 이리저리 이동하다 보관된 자료가 거의 없어 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각 단대에 보관 중인 자료와 여러 선·후배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모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였다.

다행히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모여져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작업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창립 원로 선배님이셨던 김재도, 최욱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 후 그 뒤 총 9차례에 걸쳐 우리 연맹의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던 분들과 대담을 나누고 자료와 함께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였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마무리 작업을 2018년 3월경 정기총회와 더불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가칭 'Home coming day' 행사 방식으로 책 발간기념식도 같이 하며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돌이켜 보면 대학 1학년 때인 1975년 하계 울릉도 학술 조사대에 참가하여 울릉도에 관한 민속, 식물, 지질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던 일이며 82년 히말라야 파빌봉 원정 훈련을 하며 동계 한라산 개미능선과 지리산 칠선계곡을 오르며 원정 마무리 훈련을 받던 일, OB가 되어 참가한 1994년 동계 백두산 합동등반과 더불어 매년 각 단대 연맹인들의 우애를 다지는 동계 설악산 장기등반 그리고 2007년과 2009년에 연이어 도전했던 중국 신장위구르지치구에 위치한 공거얼(7719m)원정등반 등 우리 연맹인들의 발걸음들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작년에 3단체(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부산학생산악연맹)합동으로 중국 사천성에 있는 거니에신산(6204m)원정과 동계 북알프스 합동 훈련 등 대내외적으로 꾸준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시대는 변해 가도 미래에 대한 도전과 개척활동들을 모아 이제 우리 연맹인들의 발걸음들이 50년을 넘어 100년으로 향하는 길을 나아가고 있다.

CONTENTS

산악인의 백자선서 04

권두시(고문 신호진 부산교대74) 06

연맹 현판 및 연맹기 08

연맹 로고 변천사 09

연맹 가맹 대학 부기 10

연맹 발행 정기 간행물 12

가맹 대학 정기 간행물 14

역대 연맹 회장 18

연맹 및 가맹 대학 펜던트 20

사진으로 보는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 27

발간사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장 이창호 40

축사 (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회장 김경섭 42

한국산악회 부산지부장 김규태 43

특별기고 창립회원 김재도(부산대60) 44

전 부회장 최욱 48

고문 정민규(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 50

연혁 54

PART1.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

여명을 맞이하다(1968~1974) 64

기반을 위한 발돋움 하다(1975~1982) 76

새로운 비전을 위해 도약하다(1983~1993) 118

성장을 위한 결속을 추구하다(1994~2000) 140

미래 100년을 향하다(2001~2017) 168

PART2.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 특별기획

부산학생산악연맹 해외 원정사 **250**
부산학생산악연맹 事故死 **296**
지도 교수님을 회상하며 **302**
부산학생산악연맹 방향을 묻다 **308**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326**
- 역사 자료 모으기 운동 328
- 창립 50주년 기념 산행 329
- 창립 50주년 기념 재경 합동산행 331
-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334

PART3.
부산학생산악연맹 분야별 연혁

조직도 **340**
역대 임원진 **341**
역대 정기총회 **347**
역대 연맹제 및 체육대회 **352**
역대 춘·추계 합동산행 **356**
역대 영·호남 합동산행 **359**
역대 등산학교 **366**
역대 볼더링 대회 **385**
역대 부산학생 등산대회 수상내역 **394**
역대 합동 동계 및 하계 **402**

PART4.
부산학생산악연맹소개

가맹 대학 소개 **444**
가맹 대학 회원명부 및 정관 **506**

PART5.
부록

50년사 발간 자료 제공자 명단 **546**
50년을 축하하며 **560**
간담회 및 회의록 **574**
편집후기 **581**

연혁

연 도	일 시	연 보
1967	11월28일	발기총회(아주관광여행사)
1968	03월 30일 05월 12일 05월 12일 11월 12월	창립총회(대청장예식장) 창립기념등반(금정산 약 200여명참석) 부산학생산악연맹 사무실 이전, 연맹회지 산소식발간 노산이은상 초청산악강연(대청장예식장 약80여명참석) 동계적설기 합동 훈련
1969	03월 29일 04월 13일 05월 07월 26일~30일 10월 12월(3박 4일)	제2차 정기총회(YWCA강당) 창립기념등산(금정산4개코스 집중식등반) '산소식'발간 하계산간학교 개설(달음산 대학부 및 고등부 300여명참석) 산악인의 밤 행사(미국문화공보원 3층강당) 동계적설기 합동훈련(영남알프스)
1970	03월 28일 11월 22일 12월 20일	제3차 정기총회(YWCA교육회관 회의실) 추계합동산행(천태산) 졸업생 환송등산(김해 무척산) 부산교육대, 부산공업전문대(현 부경대) 가입, 고교 9개교
1971	03월 03월 28일	제4차정기총회(YWCA강당) 창립기념산행
1972	11월	연맹제(금정산)
1973	03월 10월 3일 12월 15일~16일	제5차정기총회(수정동 무명사진관) 제4회 대학생 친선체전(수산대학교운동장) 제1회 산악강좌 및 산악인의 밤 개최(금정산 북문) 고등부 탈퇴 부산실업전문학교(현 경남정보대학교)가입
1974	01월 03월 06월 02일 12월 01일 12월 07일 12월	연맹 동계합동산행(지리산) 제6차 정기총회(중앙동연맹사무소) 제5회 대학산악부 친선체전(수산대학교운동장) 연맹제(금정산 북문산장) 제7차 정기총회(여성회관) 연맹제(금정산)
1975	01월 10일~20일 05월 18일 07월 22일 08월 19일~26일 11월 12월 29~76년 1월 19일	동계 적설기 지리산 합동훈련등반 대학산악부 친선체전(수산대학교운동장) 부산학생연맹회관 개관식(동성빌딩) 제1차 하계 울릉도 학술조사 연맹제(금정산) 동계적설기 설악산 합동 동계훈련 등반
1976	03월 11월	제9차 정기총회(YWCA강당) 연맹제(금정산)

연 도	일 시	연 보
1977	01월2 0일~02월01일 03월 05월 27일 10월 23일 11월 12일~13일 12월 15일	동계 적설기 덕유산 종주등반 제10차 정기총회(YWCA강당) 친선체육대회(한국해양대학교운동장) 금정산 북문산장 샘터보수 연맹제(금정산) 연맹 지도위원회의(연맹회관)
1978	01월 18일~26일 04월 29일 05월 02일~06일 05월 27일 07월 25일~08월 05일 11월 11일~12일	지리산 집중식등반 및 설상훈련 제11차 정기총회(연맹회관) 춘계연맹합동훈련 친선체육대회(성지공업전문대학운동장) “82 PABIL 원정”대비 하계훈련(영남알프스일원) 연맹제 및 배내골 이천산장 개관식(배내골 산장)
1979	01월 8일~23일 03월 29일 04월 05일 05월 02일~06일 05월 24일, 30일, 31일 05월 27일 08월 03일~04일 08월 06일~20일 11월 03일~04일 11월 30일 12월 05일	“82 PABIL 원정”대비 제1차 동계 훈련(설악산) 제12차 정기총회(부산시여성회관) 식목합동 등산(배내골) 춘계합동 R.C(백운산) 전명찬 지도위원 북극탐험슬라이드 상영(해대,동원공전,성지공전) 친선체육대회(한국해양대학교 운동장) 네팔 비나야씨 초정 히말라야 원정 간담회 “82 PABIL 원정”대비 제2차 하계 훈련(영남알프스일원) 연맹제(금정산) 3단체산행(금정산) 등산심포지움 개최(히말라야 원정 파빌봉 확정)
1980	01월 18일~30일 04월 11일 05월 24일 06월 30일 08월 04일~13일 10월 09일 11월 29일~30일	“82 PABIL 원정”대비 제3차 동계 훈련(한라산) 제13차 정기총회(부산시여성회관) 연맹회관 3층에서 4층으로 이동(동성빌딩) 춘해간호전문대학(현 춘해보건대)가입 “82 PABIL 원정”대비 제4차 하계 훈련(백운산일원) 추계합동 R.C(금정산) 연맹제(금정산)
1981	01월 19일~31일 03월 20일 04월 11일 01월 07일~27일 11월 07일~08일	“82 PABIL 원정”대비 제5차 동계 훈련(한라산) 제14차 정기총회(부산시여성회관) 연맹체전(금정산) “82 PABIL 원정”대비 파빌봉 정찰 연맹제(금정산)
1982	01월~02월 04월 08일 08월 01일~11월 08일 11월 13일~14일	“82 PABIL 원정”대비 제6차 동계 훈련(지리산) 제15차 정기총회(새마당예식장) “82 PABIL 원정” 등정 이승렬(부산대74) 연맹제(금정산)
1983	05월 01일 05월 27일 11월 12일~13일	친선체육대회 및 해벽등반(한국해양대학교 운동장) 제16차 정기총회(YWCA강당) 연맹제(금정산)

연 도	일 시	연 보
1984	04월 04월 26일~27일 06월 11일 09월 22일~23일 11월 17일~18일 12월 29일~85년 01월 07일	제17회 정기총회(서면원리연구회관) 춘계합동 R.C(금정산 무명릿지 및 직벽) 친선체육대회(한국해양대학교운동장) 추계합동 R.C(금정산 쌍계봉) 연맹제 및 체육대회(금정산 북문) 연맹 합동동계산행(설악산)
1985	03월 26일 05월 18일~19일 06월 06일 09월 21일~22일 11월 16일~17일	제18회 정기총회(부산대앞 광장) 춘계합동 R.C(금정산 무명암) 친선체육대회(한국해양대학교운동장) 추계합동 R.C(금정산 무명암,부채암) 연맹제(금정산)
1986	01월 02일~05일 04월 07일 05월 10일~11일 06월 01일 08월 04일~07일 10월 01일 11월 15일~16일	연맹 동계합동산행(밀양천황산,표충사계곡 일원) 제19회 정기총회(동아대학교 학생회관) 춘계합동 R.C(금정산) 친선체육대회(한국해양대학교운동장) 연맹 하계합동산행 추계 합동 R.C 연맹제 및 체육대회(금정산)
1987	02월 08일~11일 04월 06일 05월 09일~10일 05월 31일 07월 07일~19일 08월 04일~07일 09월 26일~27일 11월 14일~15일 11월 16일~27일	합동 동계산행(밀양 석골사 및 가마골) 제 20회 정기총회(동아대학교) 춘계합동 R.C(금정산) 친선체육대회(부산교육대학교 운동장) 연맹하계합동산행 합동 암벽등반(금정산 무명암,나비암,준행암,부채암) 추계합동 R.C(금정산 준행암) 연맹제 및 체육대회(금정산) 합동 동계 이론강의(수산대학교)
1988	01월 06일~15일 03월 04월 30일~05월 01일 05월 23일 07월 03일 09월 24일~25일 11월 05일~06일	합동 동계산행(설악산) 제21회 정기총회 춘계합동 R.C(금정산) 친선체육대회(동아대학교) 기술부 암벽시범(금정산) 추계 합동 R.C(금정산) 연맹제(금정산)
1989	01월 16일~22일 04월 03일 04월 08일 05월 20일~21일 09월 23일~24일 10월 28일~29일 11월 04일~05일	합동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22회 정기총회(부산교육대학교) 친선체육대회(수산대학교 운동장) 춘계합동 R.C(금정산) 제1회 연맹 암벽등반기술 교류회 개최 추계합동R.C(백운산) 연맹제(금정산)

연 도	일 시	연 보
1990	01월 05일~11일 03월 31일 04월 28일~29일 06월 06일 07월 07일~17일 09월 22일~23일 11월 03일~04일	연맹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23회 정기총회(수산대학교) 춘계 합동 R.C(금정산) 친선체육대회(수산대학교 운동장) 연맹합동 하계등반(설악산) 제2회 연맹 암벽등반기술 교류회 개최 연맹제(금정산)
1991	01월 08일~15일 03월 30일 04월 27일~28일 06월 06일 09월 28일~29일 11월 02일~03일	연맹 동계합동훈련(설악산) 제24회 정기총회(수산대학교) 춘계합동 R.C(영남알프스, 백운산) 연맹친선체육대회(한국해양대학교운동장) 추계합동 R.C(금정산) 연맹제(금정산)
1992	01월 07일~14일 03월 27일 04월 25일~26일 05월 31일 09월 26일~27일 11월 14일~15일 11월 28일~29일	초급반 동계훈련(설악산) 제25회 정기총회(부산외대 국제회의실) 춘계합동 R.C(금정산) 친선체육대회(부산공업대 운동장) 추계합동 R.C(백운산) 연맹제(금정산) 전국대학산악연맹 5차모임 겸 체육대회(한국해양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가입, 부산정보대학가입
1993	01월 05일~11일 03월 23일 04월 17일~18일 06월 06일 09월 25일~26일 11월 13일~14일 11월 20일~21일	연맹합동 동계훈련(설악산) 제26회 정기총회(동의공업대 시청각실) 춘계합동 R.C(금정산) 친선체육대회(동아대운동장) 추계합동 R.C(백운산) 인공암벽 기술교류(경남정보대) 연맹제(금정산 남문) 동의공전(현 동의과학대 가입)
1994	01월 07일~12일 03월 30일 04월 30일~05월 01일 05월 21일~06월 11일 05월 28일 09월 24일~25일 10월 22일~23일 11월 05일~06일 12월23일~95년 1월 1일 1995년 01월 01일	연맹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27회 정기총회(경남정보대 세미나실) 춘계합동 R.C(금정산) 여학생 등산학교(3차례교육) 친선체육대회(부산공업대 운동장) 제2회 인공암벽대회(경남전문대 인공암장) 추계합동 R.C(백운산) 연맹제(금정산) 백두산 학술조사 등반 동래여전(현 동부산대학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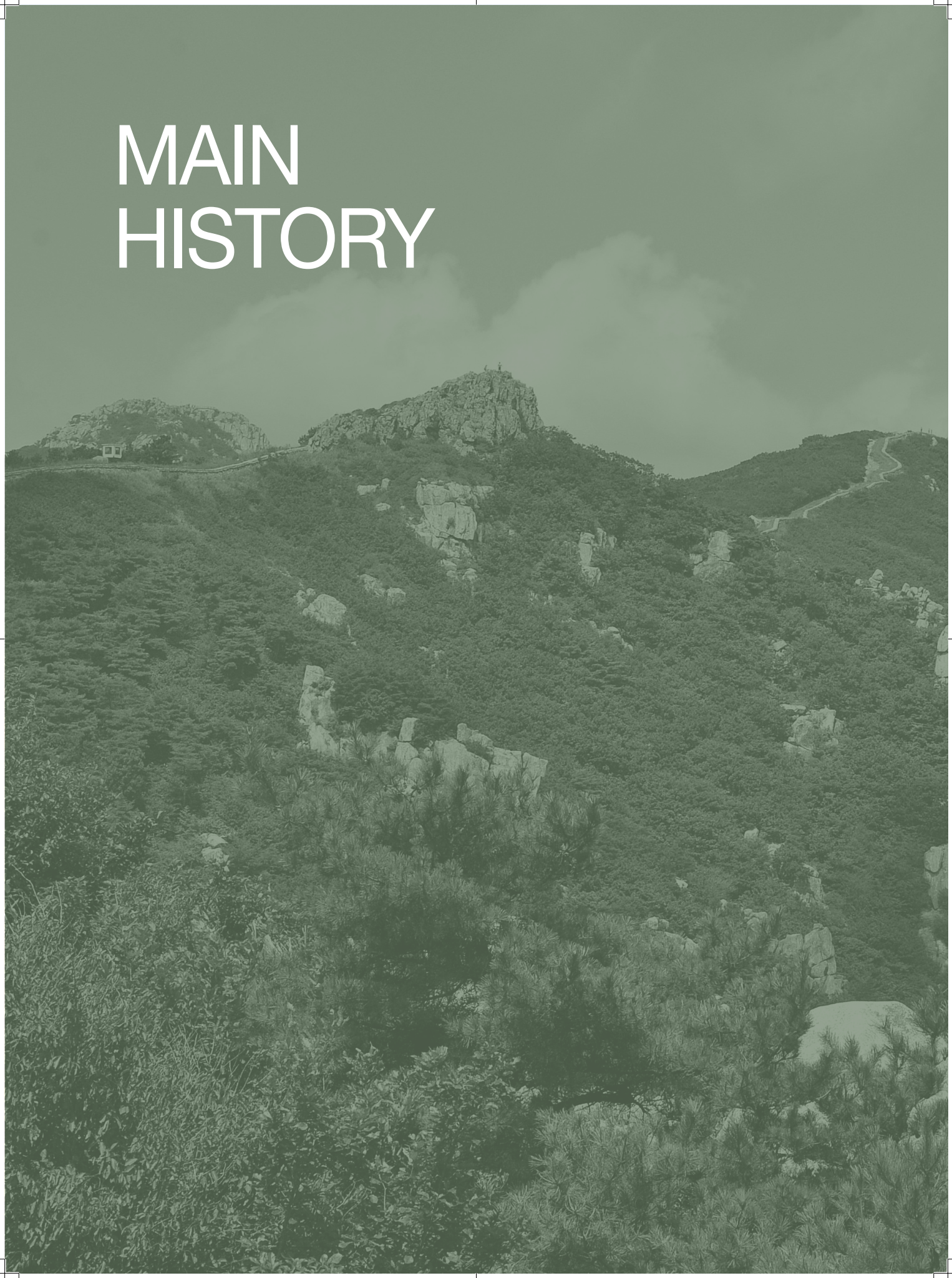
연 도	일 시	연 보
1995	01월 06일~12일 03월 26일 03월 28일 05월 07월 01일~02일 08월 11월 05일~06일 12월 21일~23일	연맹 합동동계산행(설악산) 금정산맥 창간호 발간 제28회 정기총회(동아대 교수회관) 춘계합동 R.C(백운산) 제1회 하계산간학교(황령산) 연맹 이사회 하계수련회(진하해수욕장) 연맹제(금정산) 동계등산학교 이론교육(동의공업대)
1996	01월 05일~11일 03월 28일 04월 27일~28일 06월 06일 11월 09일~10일 12월 22일~23일	동계등산학교 실기강의(설악산) 제29회 정기총회(국제신문사 중강당) 춘계합동 R.C(백운산) 친선체육대회(부산전문대 운동장) 연맹제 및 추계 합동 R.C(금정산) 동계등산학교 이론교육(동의공업대) 지산전문대학가입
1997	01월 05일~11일 03월 27일 04월 12일~13일 05월 17일 06월 01일 09월 20일~21일 10월 18일~19일 10월 11월 01일~02일 11월 30일	동계등산학교 실기강의(설악산) 제30회 정기총회(금정구청 대강당) 춘계합동 R.C(백운산) 연맹회관 개관식 (주)해강빌딩 B2층 친선체육대회(부산외국어대 운동장) 제4회 암벽등반대회(승학산) 추계 합동 R.C(금정산) 10월 산소식지 발간 연맹제(부산외국어대학교 운동장) 3단체산행(기장 달음산)
1998	01월 05일~11일 03월 26일 05월 02일~03일 06월 14일 06월 21일 07월 01일~11일 10월 31일~11월 01일	연맹 동계합동반(설악산) 제31회 정기총회(경남정보대 민석관) 춘계합동 R.C(백운산) 연맹 이사산행(천성산) 연맹 지도자 강습회(김해 정병산) 합동 백두대간 구간별 종주 연맹제(부산외국어대학교 운동장)
1999	01월 06일~12일 03월 23일 05월 08일~09일 11월 06일~07일	연맹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32회 정기총회(경남정보대 건설관) 춘계 합동 R.C(백운산) 연맹제(부산외국어대 운동장)
2000	01월 17일~23일 04월 14일 05월 20일~21일 04월,06월,08월 22~24일 10월 01일~04일 11월 04일~05일 12월 10일	연맹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33회 정기총회(동의공업대 세미나실) 춘계 합동 R.C(백운산) 장애우 안내등반(금정산,달음산,가지산) 장애우 안내등반(지리산) 연맹제(금정산) 3단체산행(금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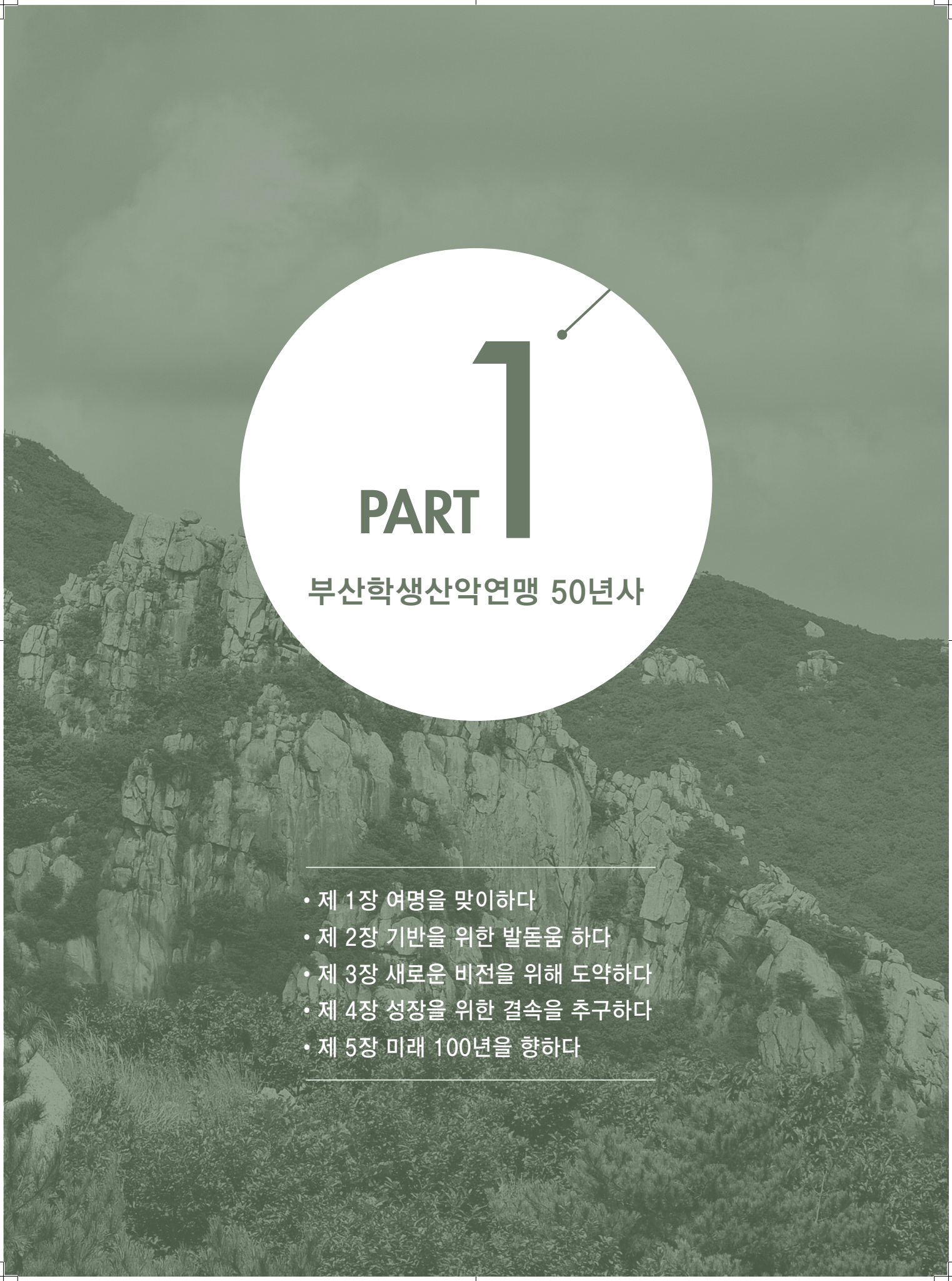
연 도	일 시	연 보
2001	01월 06일~13일 04월 04일 04월 28일~29일 11월 03일~04일 11월 18일 12월 09일 12월 26일~28일	연맹 동계합동등반(설악산) 제34회 정기총회(현대해상회의실) 춘계 합동 R.C(백운산) 연맹제(금정산) 제1회 볼더링대회(부산역) 3단체산행(장산) 연맹 동계등산학교를 위한 훈련(부산외대) 9월13일 동명대학 11월1일 동의대학교 가입
2002	01월 08일~16일 04월 12일 04월 27일~28일 10월 20일 11월 02일~03일	연맹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35회 정기총회(현대해상회의실) 춘계 합동 R.C(백운산,운문산) 제2회 볼더링대회(부산역) 연맹제(금정산)
2003	03월 23일 05월 11월 01일~02일	제36회 정기총회(현대해상회의실) 춘계 합동 R.C(백운산) 연맹제(금정산)
2004	01월 29일~02월 05일 03월 25일 04월 24일~25일 05월 08일~06월 06일 11월 13일~14일 11월 21일	연맹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37회 정기총회(현대해상회의실) 춘계합동 R.C(백운산) 여성원정대 데날리 등반 연맹제(금성초등학교) 3단체산행(기장삼각산)
2005	01월 05일~13일 02월 25일 04월 23일 10월 07일 11월 01일~02일 11월 12일 11월 20일	연맹 동계합동등반(설악산) 제38회 정기총회(초량 노블리아 뷔페) 춘계합동 R.C(백운산) 연맹회관이전(범일동) 연맹제(금성초등학교) 제1회 산악기금마련 호프데이(연산동 통속으로) 제3회 볼더링대회(동래문화회관 인공암벽)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가입
2006	01월 08일~15일 03월 03일 05월 05월 28일 11월 05일~06일	연맹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39회 정기총회 춘계합동 R.C(백운산) 영호남 합동산행(가지산) 연맹제(부산학생교육원)
2007	03월 23일 04월 12일 05월 07월 24일~08월 30일 08월 09일~21일 11월 04일~05일	제40회 정기총회 제2회 공거얼 원정기금 마련 호프데이 춘계합동 R.C(백운산) 창립40주년 기념 공거얼 1차 원정(중국 곤륜산맥) 공거얼 원정대 격려 및 트레킹 지원 연맹제(부산학생교육원)

연 도	일 시	연 보
2008	01월 27일~02월 03일 02월 25일 04월 26일~27일 06월 01일 08월 18일~21일 11월 08일~09일	연맹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41회 정기총회 춘계합동 R.C(백운산) 영호남합동산행(금정산) 공거얼 원정 대비 연맹 합동등반훈련(북한산) 연맹제(부산학생교육원)
2009	01월 18일~23일 03월 27일 04월 30일~05월 24일 05월 23일~24일 06월 07일 07월 01일~08월 11일 10월 31일~11월 01일 11월 01일	연맹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42회 정기총회(동의과학대 세미나실) 등산학교 춘계합동 R.C(백운산) 영호남합동산행(광주무등산) 공거얼 2차 원정(중국 곤륜산맥) 연맹제(부산학생교육원) 친선 체육대회(부산학생교육원 운동장)
2010	01월 23일 01월 23일~31일 03월 23일 04월 29일~05월 23일 05월 22일~23일 06월 11월 06일~07일	연맹 사무실 이전(사직동) 연맹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43회 정기총회(부경대학교 9호관 국제회의실) 등산학교 춘계 합동 R.C(백운산) 영호남합동산행(대구팔공산) 연맹제(부산학생교육원)
2011	01월 16일~23일 03월 25일 04월 30일~05월 22일 05월 21일~22일 05월 30일 07월 22일~24일 11월 06일~07일	연맹 동계합동산행(설악산) 제44회 정기총회(부산교대 영상세미나실) 등산학교 춘계합동 R.C(의령신반) 영호남합동산행(부산 장산) 연맹 하계합동산행(영남알프스) 연맹제(부산학생교육원)
2012	01월 26일~02월 02일 03월 23일 04월 22일~05월 22일 05월 21일~22일 06월 02일 07월 29일~08월 04일 08월 04일~14일 11월 04일 11월 03일~04일	연맹 합동동계산행(설악산) 제45회 정기총회(부산교대 영상세미나실) 등산학교 춘계합동 R.C(백운산) 영호남합동산행(전남 담양 금성산성) 연맹 합동하계산행(설악산) 한중일 합동 교류등반 제4회 볼더링대회(동래문화회관 인공암벽) 연맹제(부산학생교육원)

연 도	일 시	연 보
2013	01월 24일~02월 04일 02월 03일~04일 03월 22일 04월 27일~05월 19일 05월 18일~19일 07월 07일 08월 04일~11일 11월 09일~10일 11월09일	연맹동계합동산행(제주도,무주) 산악스키 강습회(전북 무주리조트) 제46회 정기총회(부산교육대 체육관) 등산학교 춘계합동 R.C(백운산) 영호남합동산행(대구 팔공산) 연맹하계합동산행(경남권) 연맹제(부산학생교육원) 제5회 볼더링대회(동의대 인공암장)
2014	01월 18일~27일 03월 21일 04월 26일~05월 18일 05월 17일~18일 06월 01일 08월 03일~10일 11월 08일~09일 11월 08일	연맹 합동동계산행(밀양얼음골,한라산) 제47회 정기총회(부산교육대 체육관) 등산학교 춘계합동 R.C(백운산) 영호남 합동산행(부산 승학산) 하계연맹합동산행(영남알프스 일원, 의령신반) 연맹제(부산학생교육원) 제6회 볼더링대회(동의대 인공암장)
2015	01월 20일~28일 03월 20일 04월 25일~05월 17일 05월 16일~17일 05월 30일 08월 02일~09일 11월 07일~08일 11월 07일	연맹 합동동계산행(설악산) 제48회 정기총회(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등산학교 춘계합동 R.C(백운산) 영호남 합동산행(전남 장성 입암산) 연맹 합동하계산행(영남알프스, 신반암) 연맹제(부산학생교육원) 제7회 볼더링대회(동의대 인공암장)
2016	01월 20일~28일 03월 25일 04월 23일~05월 15일 05월 14일~15일 06월 26일 06월 30일~07월 25일 11월 05일 11월 05일~06일	연맹 동계합동장기등반(설악산) 제49회 정기총회(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등산학교 춘계합동 R.C(백운산) 영호남 합동산행 거니에신산 원정 발대식(대구 월드컵인공암장) 영호남 합동산행 거니에신산 원정 볼더링대회(동의대 인공암장) 연맹제(부산학생교육원)
2017	01월 15일~24일 02월 17일~28일 03월 04월 29일~05월 21일 05월 20일~21일 05월 14일 06월 24일~07월 02일 07월 23일~30일 11월 11일~12일 11월 18일 11월 23일	연맹 합동동계등반(한라산) 영호남 합동 동계원정(야츠가타케 일원) 제50회 정기총회(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등산학교 춘계합동 R.C(백운산) 창립50주년 기념 산행 및 영호남 합동산행 인공등반교육(고학년대상) 연맹 합동하계산행(영남알프스일원) 연맹제 및 체육대회(금정산 오마이랜드) 창립50주년 재경 합동산행 창립50주년 학술세미나

MAIN HISTORY





PART 1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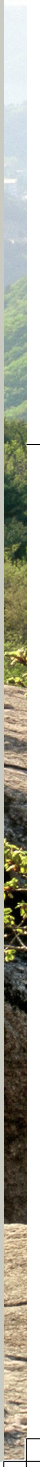
• 제 1장 여명을 맞이하다
• 제 2장 기반을 위한 발돋움 하다
• 제 3장 새로운 비전을 위해 도약하다
• 제 4장 성장을 위한 결속을 추구하다
• 제 5장 미래 100년을 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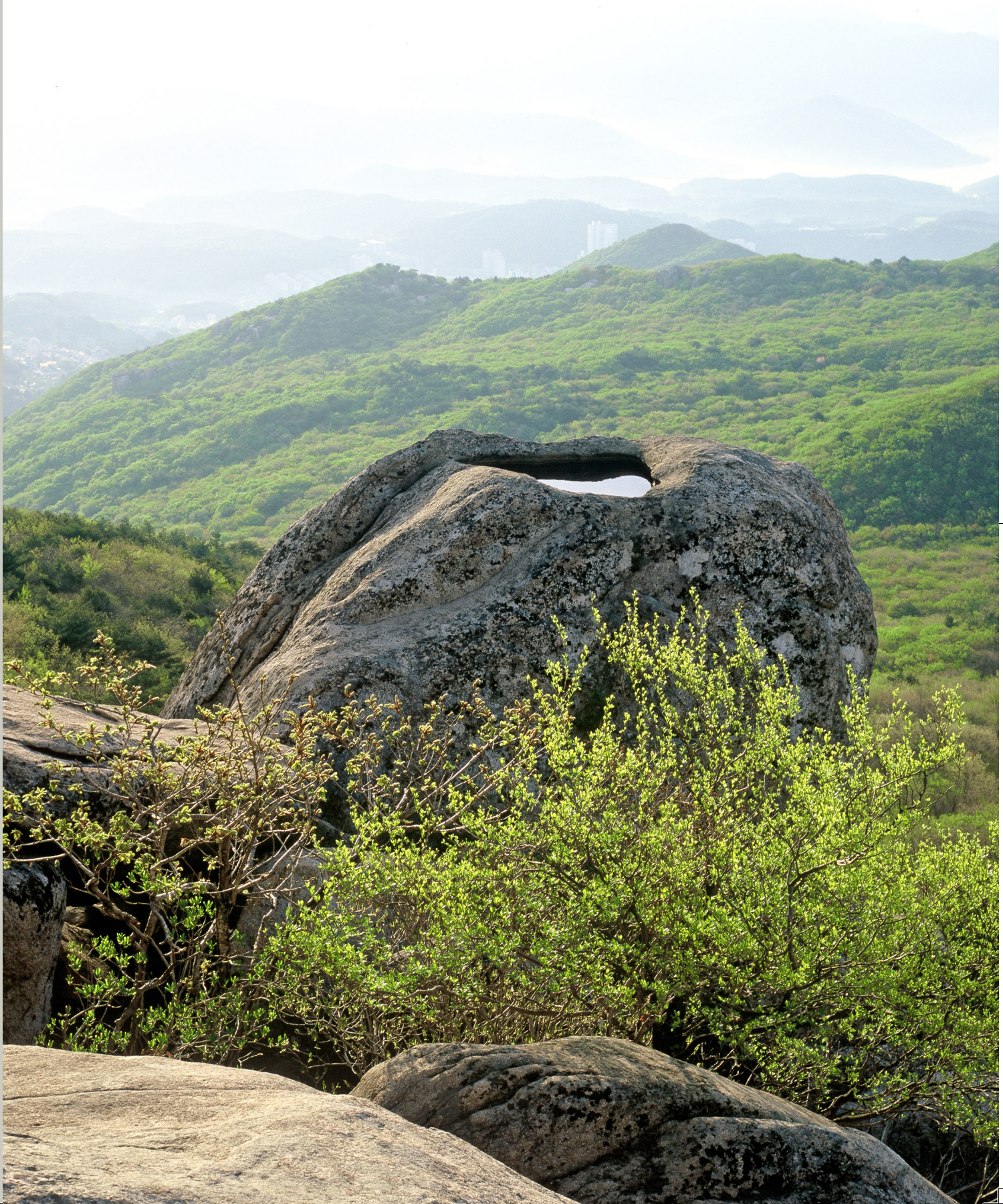
제 1 장

여명을 맞이하다

1968년~1974년

因緣으로 同行이 시작되다





‘여명을 맞이하다’ 상황보고서(1967~197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참 고
1967년 11월 28일	발기총회	아주관광 여행사	성산, 김재도, 채중권, 김정현, 김명수. 이상태	부산학생산악연맹 발족
1968년 03월 30일	제 1차 창립총회	대청장 예식장	신업재외 20여명 가맹학교 대의원 각 5명	위원장 선출
1968년 10월	임시총회			임원진교체 최해곤(동아대)
1969년 03월 29일	제 2차 정기총회	YWCA 강당	신업재외 20여명 가맹학교 대의원 각 5명	김택진회장 사의 오점량회장 대행
1970년 03월 28일	제 3차 정기총회	YWCA 강당	지도위원 및 가맹학교 대의원 각5명	회칙개정
1971년 03월	제 4차 정기총회	YWCA 강당	지도위원 및 가맹학교 대의원 각5명	회장단 유임
1972년 03월	제 5차 정기총회	수정동 무명사진관	장두석 외 위원	
1973년 03월	제 6차 정기총회	수정동 무명사진관	장두석 외 위원	
1974년 03월	제 7차 정기총회	YWCA 강당		회장단, 학생대표 유임
1974년 12월 07일	제 8차 정기총회	중앙동연맹사무소		

산행 및 훈련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참 고
1968년 05월 12일	창립기념등산	금정산	참석인원 약 200여명	첫 합동등반
1968년 12월	동계 적설기 합동훈련	영취산, 신불산 가지산, 천황산	부산대, 동아대, 수산대	천황산 사자평 고사리 학교에 학용품 전달행사 실시
1969년 04월 13일	창립기념등반	금정산		
1969년 07월 26일~30일	하계산간학교	좌천 달음산	대학 및 고등부 80여명 참석	
1969년 12월	동계 적설기 합동훈련	영남알프스 종주	대학 및 고등부 산악인	3박 4일
1970년 11월 22일	추계합동산행	천태산		
1970년 12월 20일	졸업생 환송등산	김해 무척산		
1971년 03월 28일	창립기념산행	금정산	대학부11개교54명 고등부2개교	
1974년 01월	연맹 동계합동산행	지리산	20여명	칠선계곡

기타행사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참 고
1968년 11월	노산 이은상 초청 산악강연	대청장예식장	약 80여명	
1969년 10월	산악인의 밤 행사	미국 문화공보원 3층강당		
1972년 11월	연맹제	금정산		
1973년 10월 03일	제4회 친선체전	수산대학교		
1973년 12월 15일~16일	제1회 산악강좌 및 산악인의 밤	금정산 북문		
1974년 06월 02일	제5회 친선체전	수산대학교		
1974년 12월 01일	연맹제	금정산		

추억의 낭만사진 74년7월30일 봉정암을 떠나며... 배병수(동아대72)



1968년 태동으로 동행을 시작하다

1960년대의 부산지역 대학 및 고교 산악부의 왕성한 활동은 부산 등산계 전체의 성장에 큰 힘이 되었고 꾸준한 등산활동은 부산 등산계에 싱그러운 충격과 새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독특히 했다. 특히 집행부 구성에서 선후배들의 짜임새 참여와 효율성 있는 운영은 대학산악부를 이끌어 나가는 다른 지방 임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부산의 대학에서는 부산대 공대산악부가 '60년 11월'에 생긴 데 이어 상대산악부가 '61년 10월'에 생겨 65년 부산대 산악회로 통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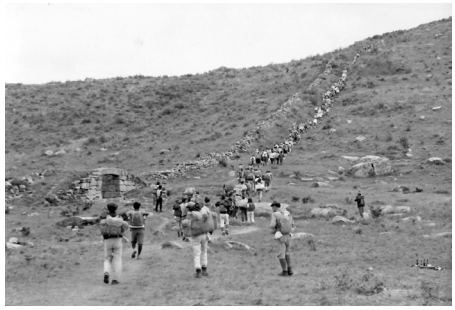
1961년 2월 23일 태백산 정상(부산대학교 상대, 공대 함께)

동아대 산악부가 '61년 11월'에 발족하였으며 뒤를 이어 수산대와 해양대, 부산여대(현 신라대)에서 산악부가 탄생하였다. 68년 3월 30일 이들 5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부산학생산악연맹의 대학부 창립단체가 되었다.

60년대 초반에 학생 등산 활동을 주도한 김재도(부산대 60), 박진(부산공대산악부 초대부장) 그리고 경북학생산악연맹 주최 60km 등행대회에서 심판위원으로 참가한 성산(대륙산악회)에 의해 1966년 하반기부터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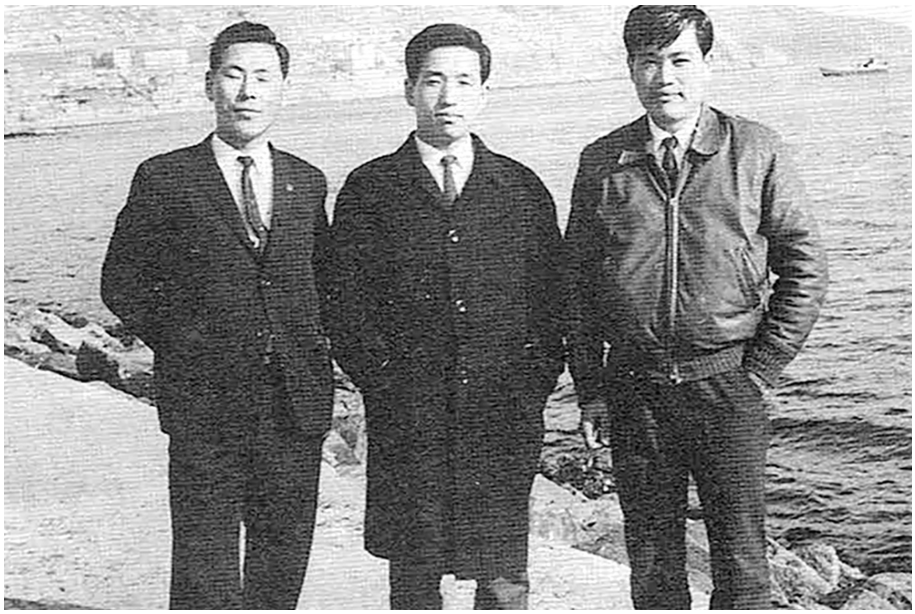
1966년 6월 25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개회식 후 충무동 광장까지 시가행진.



1967년 '제2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북문에서

나서 부산학생 산악연맹 창립을 위한 치밀한 구성을 시작하였다. 그 동기는 1958년에 결성된 대구경북학생연맹이 경북지역의 학교 산악부를 결집하면서 활발한 산악활동을 하는 것에 자극이 되어 부산에도 체계적인 학생운동을 이끌어 갈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1967년 11월 28일 부산시 중구청사 옆에 자리 잡고 있던 아주관광여행사 사무실을 성산 지도위원의 주선으로 방문하게 되어 사무실을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는 배려를 받았다. 이때부터 발기를 위한 준비를 가시화하며 시작하였고 발기총회를 하기에 이르렀다. 발기위원으로 성산, 김재도, 채중권, 김정현, 김명수, 이상태가 참여하게 된다.

발기총회를 거쳐 다음해 1968년 3월 30일 제1차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멤버 성산, 김재도, 박진

창립총회는 대청동 남일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대청장예식장에서 초대회장으로 김택진(동아대교수)교수가 맡았으며, 부회장으로 김용기, 오점량, 초대 지도위원으로 성산, 박진, 김재도, 채중권, 구철은, 박창수, 김명수가 추대되었다.

당시 재학생 대표상임위원으로 김태근(동아대61)가 맡았으며 기술상임위원으로 이종봉(부산대), 학술상임위원으로 윤명길(수산대)가 추대 되었다. 또한 창립 당시 대학산악부는 부산대, 동아대, 수산대(현 부경대), 해양대가 창립에 동참하였고 뒤늦게 부산여대(현 신라대)가 참여하였고, 고교 산악부로는 경남고, 부산고, 동래고, 배정고, 부산공고, 경남상고가 참여하여 대학부 5개와 고교부 6개, 총 11개 산악부로 창립하였다.

창립총회에는 한국산악회 원로회원인 신업재 회장을 비롯하여 김택진, 오점량, 김용기, 박태권 교수가 참석하여 격려하였고 초대회장으로 김택진(동아대 교수)을 초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고 성산, 박진, 김재도, 채중권, 구철은 등 선배 산악인들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회관은 초대회장인 김택진 회장의 중구 남포동 김택진 설계사무소 2층을 사용하였으며, 이렇게 시작한 창립은 창립 규약에서 나타나듯 '산악지식의 보급과 등산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향토 및 자연애호의 소양을 마련하여 각급 산악부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고 명시되어 창립 당시의 순수하고 진솔한 의도를 가지고 탄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총회. 앞줄 왼쪽부터 박태권 부산대 교수, 신업재 부산산악연맹 회장, 김택진 학생연맹 회장, 김용기·오점량 학생연맹 부회장. 뒷줄 오른쪽부터 성산·박진 학생연맹 지도위원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총회. 앞줄 왼쪽부터 오점량 학생연맹 부회장, 신업재 부산산악연맹 회장, 김택진 학생연맹 회장, 박태권 부산대 교수

1968년 5월 12일 창립기념산행을 개최하며 사업을 시작하다

부산학생산악연맹 발족 이후 5월 12일 창립기념 등반을 금정산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여 집중 등반 방식으로 구포, 동래온천장, 부산대학교, 범어사에서 대학부와 고등부가 각각 조를 편성해 출발, 고당봉 정상에 집결하여 다시 북문산장 광장에서 모여 연맹 발전을 위한 학생산악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11월에는 노산 이은상(전 한국산악회 회장)을 초청하여 200여 명의 부산 산악인을 모시고 대청장 예식장에서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2월에는 첫 동계적설기 합동훈련을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대학산악부가 중심이 되어 시작하였으며 마지막 야영지인 천황산 사자평 고사리학교에 학용품 전달 행사도 가지는 등 부산학생산악연맹은 힘차고 의미 있는 시작으로 태동을 이어갔다.

1969년 3월 29일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다음 해인 1969년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중구 대청동 남일국교 앞 YWCA 강당에서 한국산악회 원로회원인 신업재 외 가맹 학교 대의원이 참석하여 김택진 회장, 부회장 김용기, 오점량, 지도 위원으로 성산, 박진, 김재도, 채중권, 김명수, 이원락이 추대되었고, 대표 상임위원으로 최해곤(동아대64), 운영위원장으로 김정실(부산대67), 학술상임위원 이원영(수산대66, 현 부경대), 기술상임위원으로 백홍찬(해양대)가 추대되었다.

4월 13일 창립 1주년 기념 등산을 금정산에서 실시하였고, 5월 부산 학생산악연맹 사무실을 부산시 중구 중앙동 베이 호텔 205호로 이전하였다.

첫 '산소식'지를 발간하여 가맹단체의 동정과 등산기술 이론 등으로 편집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969년 7월 26일에서 30일(4박 5일)에 첫 하계 산간학교를 개최하다.

7월 26일에서 30일(4박 5일)에 첫 하계 산간학교를 좌천 달음산에서 개최하여 대학부 및 고등부 산악부원 80여 명이 참여하여 이론교육과 암벽등반 초보 기술을 교육하였다.

8월 김택진 회장의 사의로 오점량(부산대교수)교수가 회장을 대행하였다.
10월에는 부산 산악인 100인을 초청하여 산악인의 밤을 미국 문화공보원 3층에서 개최하였으며, 12월 동계적설기 합동 산행을 영남알프스에서 3박 4일로 대학 및 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1970년 11월 28일 토요일 제3차 정기총회와 추계 연맹합동산행을 개최하다.

YWCA 회관에서 오점량 회장에서 엄익주 회장으로 이어졌으며, 주체로 지도교수 및 가맹학교 5명씩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단 및 임원 선출, 회칙 수정, 70년도 사업 보고를 하였다. 대표상임으로 김정실(부산대)이 선출되었으며 대학부에 부산공전(현, 부경대)과 부산교육대학이 가입하여 7개 대학으로 단체가 늘었다. 고등부의 경우도 동래고, 경남상고, 배정고, 부산상고, 금성고, 영남상고, 동성고, 낙동고, 덕명여상으로 9개 단체가 되었다.

동월 22일(일) 부산 학생산악연맹 추계 연맹 합동산행을 천태산(732m)에서 실시하였다.

1970년에 발행한 '산소식' 통권 13호의 내용 중 부산 학생산악연맹의 나아가야 할 길에 관련된 글은 부산학생산악연맹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다. 주제로 "산악 리더와 대학산악부에 대한 소론"으로 부산대학교 김치중의 글을 보면 '산악 리더'라는 인물에게만 요구되는 소임 또는 자질이 존재하느냐는 의문을 가지며 산악 리더와 대학단위 산악부의 문제점과 방향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단위 산악부는 일반산악회와 고교단위 산악부와의 차이점으로, 취미단체로서의 일반산악회와 체육부로서의 자기 위치를 확보한 고교산악부와 구별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산악부가 산악부인지 산악회인지, 산악 리더의 유형은 무엇인지, 산악 리더의 리더십의 세분화, 산악 리더로서의 자질과 실력 등을 고민하면서 부산학생산악연맹은 아카데믹한 대학산악부의 리더가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1973년 고등부 탈퇴하다.

1968년 3월 대학산악부와 같이 고등부 산악부가 창립되었으나 1973년 '부산 고등부학생산악연맹'으로 탈퇴가 되었으며, 10월 3일 제4회 대학산악부 친선체육대회가 개최 되었다. 12월 5~6일 양일간 금정산 북문산장에서 '제1회 산악강좌 및 산악인의 밤'이 연맹 가맹 단위산악부 회원들과 함께 시행되었다.

1974년 12월 7일 제6차 정기총회를 거쳐 김동인 회장이 취임하다.

2년간 회장을 역임한 엄익주 회장에 이어 장두석 회장까지는 다소 활동이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1974년 김동인 회장이 취임하면서 73년 고등부가 탈퇴한 상태에서 대학산악부만으로 부산 학생산악연맹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기는 1982년 우리나라 최초 히말라야 파빌봉(7102m)해외원정을 계획하게 되었고, 명실공히 연맹의 기반을 위한 발돋움을 시작하였다.



1962년 5월 영취산등반대(부산대학교공대상대 합동등반 57명)



1963년 1월 상대. 한라산 동계 백록담 서북벽에서 정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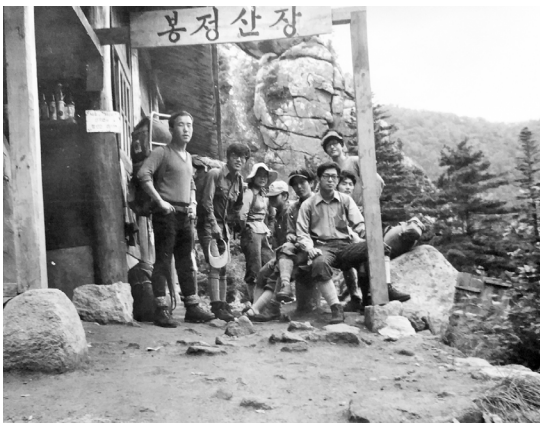
1963년 1월 한라산 영주장 내부



1963년 1월 한라산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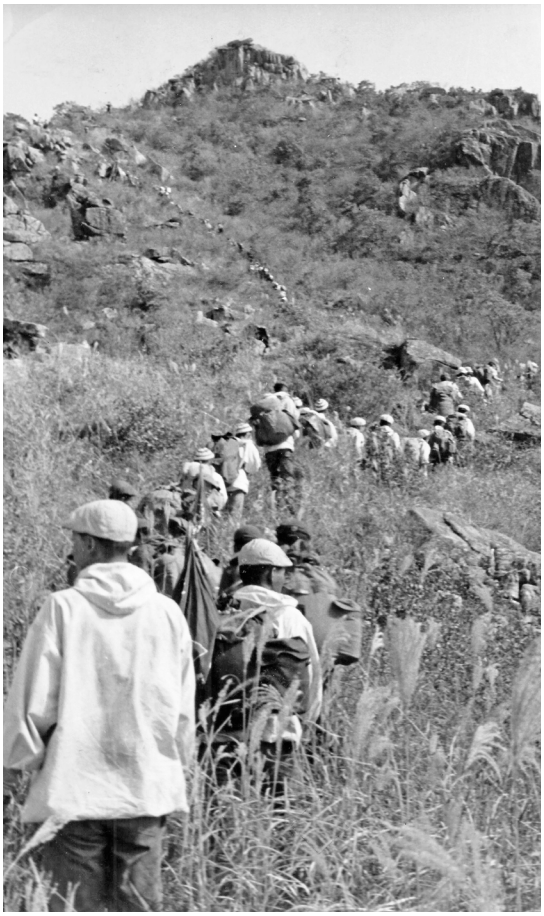


1973년 부산학생등산대회 개회식 후 동아대, 부산대



1974년 7월 봉정산장




팔공산

[60~70 사진제공 김재도(부산대), 신양수(부산대), 배병수(동아대)]

제2장

기반을 위한 발돋움 하다

1975년~1982년

挑戰을 始作하다



1982 파빌봉(7102m) 등정 이승렬(부산대74)

‘기반을 위한 발돋음을 하다’ 상황보고서(1975~1982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76년 03월	제 9차 정기총회	YWCA 강당	김동인,이기석 외	
1977년 03월	제10차 정기총회	YWCA 강당	김동인.신양수 외	
1978년 04월 29일	제11차 정기총회	연맹회관	김동인,정영섭 외	
1979년 03월 29일	제12차 정기총회	부산시여성회관	김동인,배한일 외	
1980년 04월 11일	제13차 정기총회	부산시여성회관	김동인,정민규 외	10개대학 120명
1981년 03월 20일	제14차 정기총회	부산시여성회관	김동인,김영진 외	
1982년 04월 08일	제15차 정기총회	새마당예식장	김동인,정승오 외	

산행 및 훈련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75년 01월 11~20일	동계 적설기 합동훈련	지리산 칠선계곡일원	동아대, 부산대, 수산대	칠선동,칠선폭포, 톱날능선,정상, 등선폭포,추성리,함양
1975년 12월 29일~ 1976년 01월 19일	동계 적설기 합동훈련	설악산		
1977년 01월 20~30일	동계 적설기 종주등반	덕유산	13명	영각사,남덕유,북덕유, 백련사,무주,영동
1978년 01월 18~26일	동계 집중식 등반 및 설상훈련	지리산	8명	마천,상백무,장터목, 천왕봉,칠선동계곡, 추성리,함양
1978년 05월 02~06일	춘계 연맹합동훈련			
1978년 7월 25~08월 05일	“82 PABIL원정” 대비 하계훈련	영남알프스일원	회장단 14명 학생25명	
1979년 01월 08~ 23일	“82 PABIL원정” 대비 1차훈련	설악산	9명	
1979년 05월 02~06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1979년 08월 06~20일	“82 PABIL원정” 대비 2차훈련	영남알프스일원	23여명	
1980년 01월 18~30일	“82 PABIL원정” 대비 3차훈련	한라산	21명	
1980년 08월 04~13일	“82 PABIL원정” 대비 4차훈련	백운산일원	9명	좌·우벽훈련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81년 01월 19~31일	"82 PABIL원정" 대비 5차훈련	한라산	30여명	
1981년 07월 27~09월 07일	"82 PABIL원정" 정찰		최욱, 주시정, 홍보성	
1982년 01월~02월	"82 PABIL원정" 대비 6차훈련	지리산	주시정, 정홍덕, 정민규, 이승렬, 이남국, 성환균, 임광섭, 강영희	
1982년 08월 01일~11월 08일	"82 PABIL원정" 등정	PABIL	김두억, 권경업, 주시정, 이승렬, 이남국	이승렬 등정

기타행사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75년 05월 18일	친선 체전	수산대학교	5개대학 105명	
1975년 07월 22일	연맹회관 개관식	동성빌딩		
1975년 08월 19~26일	제 1차 하계 울릉도 학술조사	울릉도		독도-우산국교-성인봉- 봉래폭포-포항-부산
1975년 11월	연맹제	금정산		
1976년 11월	연맹제	금정산		
1977년 05월 27일	친선체전	한국해양대학교		
1977년 10월 23일	금정산 북문산장 샘터보수	금정산	81명 동원	
1977년 11월 12~13일	연맹제	금정산	신양수외 48명 대양공고8명	
1977년 12월 15일	연맹 지도위원회의	연맹회관	김동인, 최일범, 김재도, 곽수웅, 최해곤	
1978년 05월 27일	친선체전	성지공전		
1978년 11월 11~12일	연맹제 및 배내골 이천산장 개관식	배내골		
1979년 04월 05일	식목합동등산	배내골	5개대학 35명	
1979년 05월 27일	친선 체전	한국해양대학교	9개대학 164명	
1979년 05월 24일 05월 30일, 05월 31일	전명찬 지도위원 북극 탐험 슬라이드 상영	해양대, 동의공전, 성지공전		
1979년 11월 03~04일	연맹제	금정산		
1979년 12월 05일	등산심포지움			히말라야 원정 파빌봉 확정
1980년 08월 03~04일	네팔 비나야씨 초청 히말라야 원정 간담회	아리랑 호텔		
1980년 11월 29~30일	연맹제	금정산	80여명	
1981년 11월 07~08일	연맹제	금정산		
1982년 11월 13~14일	연맹제	금정산		

1975년 동계 적설기 지리산 훈련등반을 하다

1. **일시** : 1975년 1월11일~20일(9박 10일)
2. **대상산** : 지리산 칠선계곡 일원
3. **등반형식** : 변형극지법
4. **목적 및 과제** : 빙벽, 설벽훈련, 비박훈련, 설동에 관한 연구, 팀웍강화
   종합검토 후 차기 산행 대비
5. **대원**

   대장 : 김동인 회장

   부대장 : 김광남, 조영준

   산행총대장 : 김태권(수산대73, 현 부경대)

   대원 : A조 김중환(부산대72), 조해례(부산대72), 김태원(부산대74),
   이기석(부산대74)

   B조 배병수(동아대72), 김용국(동아대73), 옥재수(동아대74),
   한계희(동아대74)

   C조 김선기(동아대71), 곽문영(동아대74), 이운석(동아대74),
   이은희(동아대74)

   D조 정의철(수산대, 현 부경대), 박동기(수산대, 현 부경대),
   조정호(수산대, 현 부경대)



1975년 1월 11일 부산역 광장에서 김동인 회장의 격려말씀.



1975년 1월 16일 아래합수골에서 칠선폭으로 향하는 대원



1975년 1월 17일 등선폭포에서의 빙폭훈련.



1975년 1월 17일 지리산 천왕봉(1915M)에서 회장단 일행과.



1975년 1월 18일 천왕봉(1915M)에서의 비상막영 후 지원대와 합류해서.

1975 제1차 하계 울릉도 학술 조사를 가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은 타 산악 단체와 달리 학생 및 그 졸업생들로 구성된 특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계 울릉도 학술 답사는 산악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산악 활동의 광범위한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故 김동인 회장님의 평소 의지를 실천에 옮긴 예라고 볼 수 있다. 동계 적설기 훈련을 한 바 있으며, 하계 훈련은 "배우면서 산에 오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계 학술조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다.

이러한 실행은 각 대학 산악부를 통괄하여 산악부 간의 상호 등산 지식의 교류, 각종 합동 행사를 통한 기술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 산악 발전을 위하여 기성세대보다 학생들의 올바른 등산 지식 함양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및 학교생활을 하면서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꼭 성공해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 교수님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세로 상호 친목이 아주 잘 되었으며 성인봉 등산 및 학술조사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계 울릉도 학술답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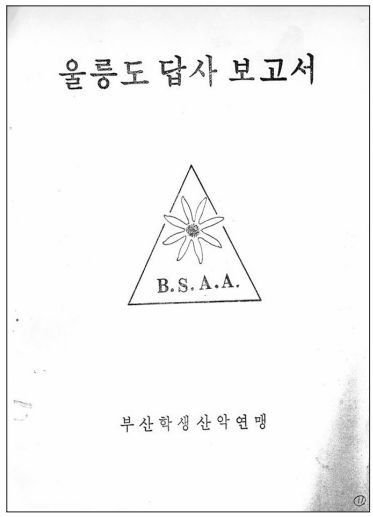
1. **일시** : 1975년 8월 19일~26일(7박 8일)
2. **대상** : 경상북도 울릉군 일원
3. **목적** : 민속조사, 식물조사, 지질조사
4. **조사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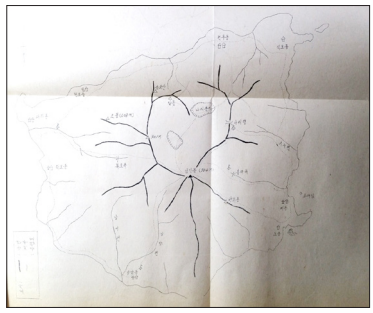
단장 : 김동인 회장
부단장 : 염정간 부회장
지도교수 허종(부산교육대), 유종목(한성여전, 현 경성대), 이원전(부산대)
지도위원 : 성산(대륙산악회), 김부갑(청봉산악회)
학생총대장 : 배병수(동아대72)

본 부 반 : 이운석(동아대74), 한계희(동아대74)
식물조사반 : 지도교수 허종(부산교대), 문덕규(동아대74), 김용국(동아대73),
신호진(부산교대74), 정민규(동아대75), 남희갑(동아대75),
정화석(부산여전75, 현 부산여대), 장정열(부산여전75, 현 부산여대)
민속조사반 : 지도교수 유종목(한성여대), 김두억(동아대71), 주시정(동아대74),
노정수(동아대74), 김양자(부산여전74, 현 부산여대), 황정환(동아대75),
김명희(부산여전75, 현 부산여대)
지질조사반 : 지도교수 이원전(부산대), 강성중(한국해양대74), 이효문(부산대74),
문갑순(부산대74), 손이화(부산대74), 이경옥(부산대75)

5. 운행일정

일 시		운 행
8월 19일	화	14:00 조방앞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발대식 17:00 포항도착
8월 20일	수	태풍으로 인하여 하루종일 대기
8월 21일	목	07:15 동해호편으로 포항 출발 17:00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 18:00 도동 우산국민학교에 여장을 품
8월 22일	금	07:00 성인봉 기념등산 개시 11:00 성인봉 도착 13:00 봉래폭포 도착 중식 16:50 우산국민학교 도착 18:00 우산국민학교 교사와 친선 야구시합
8월 23일	토	각 조사반별로 조사활동 개시 동동과 남양동 왕복조사
8월 24일	일	전 조사반 대절 선편으로 울릉도 일주 조사
8월 25일	월	조사단 자료정리 우산초등학교 교사와 친선 배구시합
8월 26일	화	08:00 청룡호로 울릉도 출발 18:00 포항도착 22:00 부산도착 후 해산







1975년 8월 20일 여인숙에서 강의에 열중.



1975년 8월 22일 울릉도 성인봉(984M)등정.



1975년 8월 23일 통구미마을 정자나무앞



1975년 8월 25일 우산초등학교 교사와 운동시합



1975년 8월 25일 도동항의 뒷 나이프릿지등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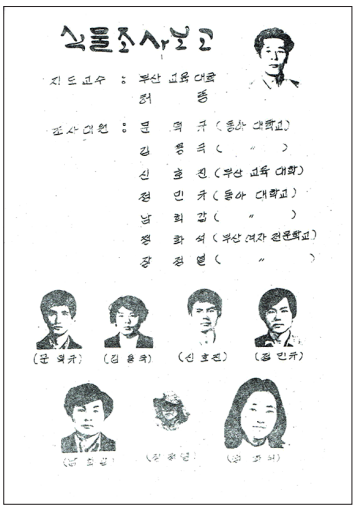
1975년 8월 25일 도동항. 뒤쪽은 청룡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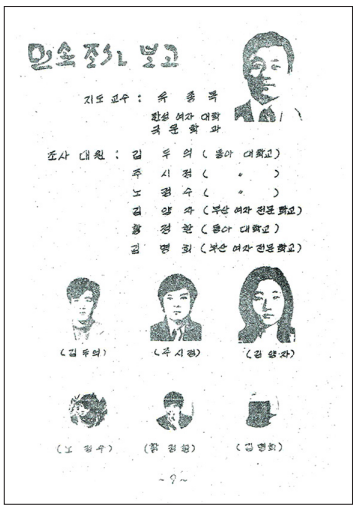
6. 보고서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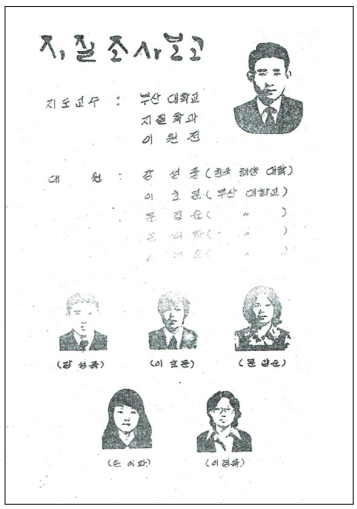
식물 조사반에서는 울릉도의 식물 환경 및 울릉도 자연환경의 특색과 특산 식물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울릉도는 독도와 더불어 동해상에 있는 고립된 화산도로써 지리, 기상, 및 기후요소의 특이성은 사회 경제적 요소와 더불어 우리나라 내륙지방보다 특색 있는 식물상을 지니게 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농산물로 쌀, 보리, 옥수수, 감자, 콩, 삼 등이 있고 임야의 경우 곰솔 향나무, 섬잣나무, 대나무, 동백 등의 상록수로 된 수목이 울창하여 각종 목재를 산출하고 있었다. 여기서 가장 특이한 점은 뱀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민속 조사반에서는 동해의 절해고도인 울릉도의 문화적 특질을 조사 발굴함으로써 이 지방 문화의 개발과 나아가서는 정치, 사회, 경제 등, 제 분야의 참고 자료로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울릉도의 세시풍속, 벼락산에 얽힌 전설, 자식을 낳게 하는 바위, 호박엿 유래 등 전해 내려오는 설화, 방언, 출생과 관련된 임신 시 금기사항, 인줄(금줄) 등 産俗 등을 조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세시풍속은 차츰 그 실행 범위가 좁아지며, 설화는 지명에 의한 설화가 많았으며 발생 연대는 매우 짧았다. 개척사에 관한 전설이 많았고, 방언은 특히 風名(바람 이름)과 船具名(배의 장비 이름), 地名에 한하여 조사하였고 産俗은 경북의 타지방과 대동소이하였다.







지질 조사반에 의하면 울릉도는 강수량이 많아서 정확한 표본을 거의 볼 수 없었고,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어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이가 적었다. 그래서 해양성 기후의 성력을 띄며 최저기온이 높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동계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난하나 강설량이 많은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기후 외에 지형에 대한 설명, 울릉도 화산도의 형성 과정 등을 조사하였다.

1975~76년 설악산으로 동계 적설기 훈련을 하다

1975년 12월 29일부터 1976년 1월 19일 21박 22일 일정으로 설악산에서 동계합동 동계등반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로는 김동인회장을 대장으로 지도위원으로 성산, 트레이너 송준송, 학생대장으로 이기석(부산대74), 김두억(동아대71), 김태권(수산대73, 현 부경대), 이승렬(부산대74), 신수정(부산대74), 문갑순(부산대74), 배상보(부산대75), 신양수(부산대75), 하재규(동아대75), 김치근(부산대75), 박영도(부산대75), 정민규(동아대75), 이성욱(수산대75, 현 부경대) 16명이 참여하여 지금은 없어진 설악동 여관촌의 경남 여관에 짐을 풀고 송준송(엑셀시오산악회)트레이너로부터 동계등반이론과 실기교육을 받았다.

1977년 동계 적설기 덕유산 종주등반을 하다

1. 일시 : 1977년 1월 20일~2월 1일(12박 13일)
2. 대상산 : 덕유산(1594m)일원
3. 등반방식 : 변형극지법
4. 목적 및 과제 : 덕유산 종주, 설상훈련 및 설동훈련, 각 단위 산악부간의 팀웍강화
5. 대원

   단장 : 김동인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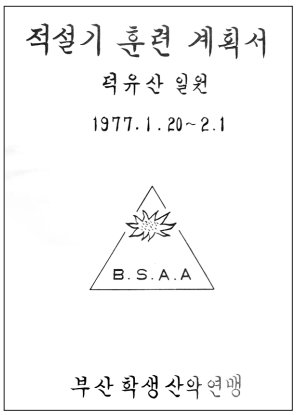
   부단장 : 염정간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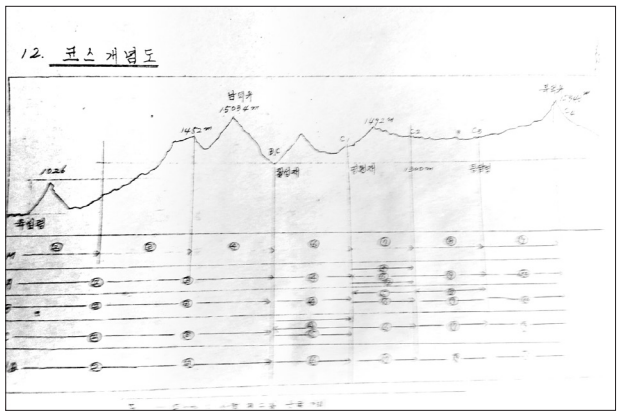
   지도교수 허 종(부산교육대), 유종목(한성여자대), 이원전(부산대학)

지도위원 : 성산(대륙산악회), 김부갑(청봉산악회)
대장 : 이효문(부산대74)
부대장 : 이운석(동아대74), 이기석(부산대74)
대원 : 김승대(동아대70), 길광호(동아대71), 김두억(동아대71),
배병수(동아대72), 이운석(동아대74), 남희갑(동아대74),
김종환(동아대74), 이효문(부산대74), 김태원(부산대74),
이수열(수산대74, 현 부경대), 배옥근(수산대76, 현 부경대)

연맹 창립 후 각 산악부에서는 12명으로 구성된 대원으로 덕유산 일대의 적설 훈련을 하였다. 고도의 기술 등반을 의미하는 적설기 등반은 본격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는 쉽게 접근하여 습득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당시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에서 부산학생산악연맹에서는 76년 지리산에 이어 덕유산에서 3차 적설 훈련 등반 훈련은 공부와 산행을 같이 하는 정통 산악인을 지향하는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의의와 기술등반가를 양성한다는 큰 뜻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덕유산은 적설량이 많을 뿐 아니라 심한 바람과 안개, 칼날 같은 능선, 폭풍설이 심한 난코스였다. 또한 이때만 하여도 적설기 장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부산학생산악연맹의 등반대는 연맹의 등반 기술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부산 산악계의 전체적인 등반기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1977년 1월 23일 남덕유 제1캠프에서
식량장비수송을 끝낸 후 공격조와



1977년 1월 22일 남덕유 직하의 첫 번째 캠프에서
본부조 및 지원조



1977년 1월 23일 1280M 고지능선 안부. 제2캠프의 눈블록 구축 중



1977년 1월 24일 남덕유산(1504m)에서의 답파식



1977년 1월 25일 1472봉 제3캠프를 떠난 직후 눈보라속에서



1977년 1월 26일 동업령 제4캠프지에서의 산중 휴일



1977년 1월 27일 14:00경 북덕유 정상(1594m)



1977년 1월 27일 북덕유 정상(1594m)에서 답파식 후

1977년 금정산 북문 산장 샘터를 보수하다.

10월 23일 시작한 샘터 보수공사는 여러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81명의 회원이 동원되어 참여하였으며 난공사 끝에 12월 16일 완공하였다. 공사감리는 부산공업전문대학교(현 부경대) 산악부 지도교수인 류종우 교수님이 해주셨다.

1977년 제5회 연맹제를 실시하다

제5회 연맹제를 11월 12일~13일(1박 2일) 양일간 김동인 회장님을 비롯하여 최일범, 전명찬 지도 위원님을 모시고 신양수(부산대75) 회원 외 48명이 참석하였고, 대양 공업고등학교 산악부원 8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다. 산신제를 올리면서 한 해 동안 무사 산행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산행에도 무사 산행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1978년 지리산 동계훈련을 가다

대 상 산 : 지리산(1915m)
일　　시 : 1978년 1월 18일~26일(8박 9일)
등반방식 : 집중식 등반
등반목적 및 과제 : I.C 및 내한훈련,설상훈련, 각 단위 산악부간의 팀웍 훈련
대장 : 신양수(부산대75)
부대장 : 김치근(부산대75)
대원 : 정홍덕(해양대74), 권헌태(동아대77), 이종민(해양대76), 이창규(부산대77), 이장한(부산대77)
지도위원 : 김옥배(부산산악회)
운　　행 : 부산-함양-마천-상백무-계곡-럿셀-I.C-장터목산장-천왕봉-칠성동계곡-위합수-아래합수-추성리-함양-부산

연맹회관에서 합숙하고 회장님댁에서 손수 해주신 국밥으로 아침을 먹고 부산역에서 결단식을 마치고 염정관부회장과 부대, 동대 학생들의 환송

을 받으며 함양으로 출발하였다. 웃백무에 B.C를 설치하였으나 눈과 얼음이 없었지만 2개조로 출발하였다. 하동바위에서 한신계곡(제4계곡)으로 김옥배지도위원, 김치근, 권헌태 대원이 등반하였으며, 한신계곡에서 능선을 지나 한신계곡(제3계곡)으로 신양수대장, 이창규, 이장한 대원이 등반을 하였다. 21일 제 4일째 김동인회장, 정홍덕, 이종민 대원이 합류하였고, 김동인회장이 사온 고기로 저녁 식사 후 김옥배 지도위원이 간단한 안전벨트 제작법을 설명해 주었다. 26일 제9일째 오후 6시경 연맹회관 도착 후 저녁 식사 후 회관에서 반성회를 가지고 해산하였다. 계획보다 예비일 2일과 칠선동 계곡에서 1일을 벌어 3일이나 당겨진 등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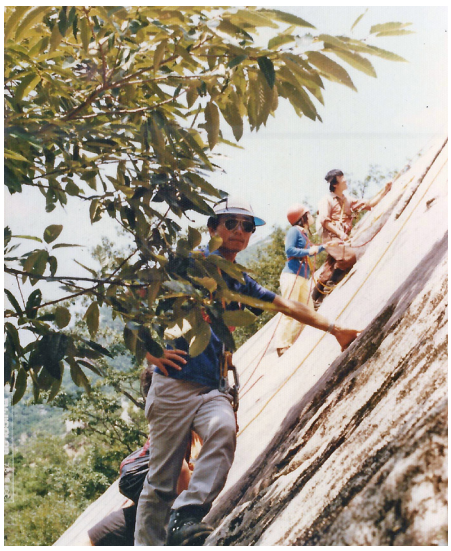
1978년 7월 25일~8월 5일 "82 PABIL(7102m) 원정" 대비 하계 훈련을 가다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1982년도 히말라야 파빌봉 원정 등반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당시 세계적인 등반 추세를 따라 우리나라도 등산의 대중화와 질적 향상 그리고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아울러 히말라야 등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시점으로 연맹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1975년 김동인 회장 취임으로 본 연맹은 도약의 단

1978년 하계 훈련을 마치고



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연맹이 10년의 흐름 속에서 고난과 역경도 많았지만,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부산 산악계의 역군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알차게 연맹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초석을 다지기위한 시작이며 연맹의 장래를 더욱 희망차게 하는 의미와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경남 밀양을 기점으로 영남알프스에서 하계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의 목적은 해외 원정을 대비한 제1차 하계훈련과 단위 산악부 간의 단결 즉, 팀워크 강화를 주로 하였으며, 그 효과는 교육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되었다. 출발전 부산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거행하고 많은 고문들의 환송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출발하였다. 당시 훈련대장으로 최욱 지도위원, 학생장으로 이동분(부산교대75), 이종민(해양대76), 문봉수(동아대77), 이남국(경남공전77, 현 경남정보대), 장문일, 박광효(동아대78), 문승춘, 강영희(부산여대78, 현 신라대) 등 14명이 참여하였다. 강사로는 김옥배(부산산악회), 성산(대륙산악회), 곽수웅(대륙산악회)등이 참여하였다.


1978년 하계 훈련 중 백운 슬랩에서(최욱 부회장)

교육내용으로 등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과 자세, 등반호흡, 등산기상, 매듭법을 김옥배 강사가 실시하였고 독도법을 성산, 고산등반, 체력관리, 식량에 대하여 곽수웅 강사가 담당하여 교육하였다. 또한, 회장님과 김옥배 강사, 대원들과 함께 식량과 등산에 대하여 여담과 아울러 식량 개발에 관한 제반 이야기도 나누었다.

당시 하계훈련대 학생장이었던 이동본(부산교대75)의 훈련 후기의 내용을 보면 히말라야 등정을 위하여 세 가지 조건을 피력하였다. 첫째 개인적인 조건 즉,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서는 산을 향하는 절대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필연적인 마음 없이는 히말라야

등정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개인의 집합적인 조건으로 단결이다. 그것은 정신적, 물질적인 단결이다. 현재 1인의 힘이나 부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대원들 간의 긴밀한 단결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 물질적인 요소로는 장비이다. 인적인 요소에 필수적으로 물질적 요소인 장비가 주어져야 한다고 후기에 기록으로 남겼다.

1978년 5월 28일 연맹 체육대회 개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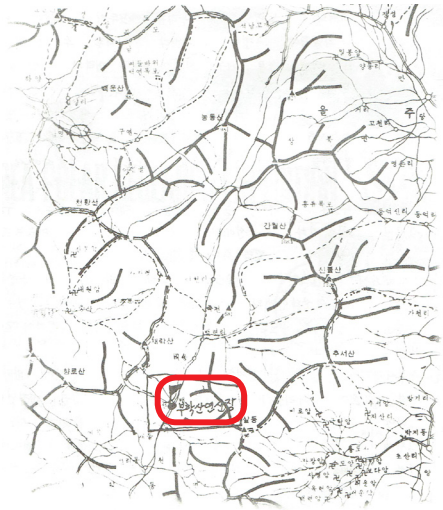


친선 체육대회를 성지공업전문학교(현 부산과기대) 운동장에서 회장님, 자문위원, 고문 등 많은 내빈을 모시고 부산대학교, 동아대, 해양대, 수산대(현 부경대), 성지공업전문학교(현 부산과기대), 부산여자대(현 신라대)등 100여 명의 선수들이 자기 학교의 명예를 걸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가졌다. 대회 종목으로 축구, 배구, 3000m 단축마라톤 3종목을 하였다. 축구에서는 성지공업전문학교(현 부산과기대)가 우승, 배구에서도 성지공업전문학교(현 부산과기대)가 우승하였다. 단축마라톤에서는 수산대(현 부경대)이 1위로 골인하였다. 대회 진행에 있어서 시간의 부족으로 많은 종목은 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기는 하였지만 모든 선수가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하였다. 우승은 수산대(현 부경대)가 종합우승을 하였으며, 여자부에서는 부산여자대(현 신라대)가 전 종목을 석권하였다.

1978년 11월 11일 배내골 부산학생연맹 산장 개관식을 가지다.

숙원 사업이었던, 배내골 안 장선리에 대지 120평에 연건평 약 30여 평의 아담한 산장을 가지게 되었다. 300연맹인의 소망이며 산악인 전체의 바램이던 것이 김동인 회장님의 뜨거운 배려와 노력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산장은 영취산, 신불산, 가지산, 운문산, 백운산, 천황산, 능동산, 재약산의 산꾼들이 모인 동부 경남의 요람이었을 뿐 아니라 영남산악인의 희망의 대상이던 계곡에 안식처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김동인 회장님의 희생과 진정한 산악인의 표상으로 평가되었으며, 말 없는 희생적 교훈은 우리 부산학생산악연맹인의 핏속에 스며들어 영원히 그 뜻을 기억할 것이다.





1979년 5월 27일 해양대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김동인 회장님의 개회사와 김임식 고문님의 격려사로부터 시작하여 제일 먼저 부산대학과 수산대학(현 부경대)의 축구 경기가 김임식 고문님의 시구로 개시되었다. 남대부 6개 대학과 여대부 2개 대학 총 164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경남공전(현 경남정보대학교)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당시 체육대회에 참여한 경남공전 정 기태(일부 내용 발취) 회원이 소감을 기록으로 남겼다.

"각 산악부의 경기 매너는 정말로 젊은이답게 참신했다.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젊음에 대해서 재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젊음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고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음을 또한 깨달았다."

연맹 체육대회는 젊은 혈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많은 연맹인들로 하여금 산악인이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정열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산악인으로서의 윤리와 부산학생산악연맹인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참다운 산악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 1월 8일~23일 "82 PABIL(7102m) 원정" 대비 제1차 동계 설악산 훈련을 실시하다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인 히말라야 원정 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 동계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원정을 위한 제반 계획인 대상산 결정과 원정대 선정을 위한 국내 훈련 지침 등 모든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당시 윤곽이 덜 잡힌 상태지만 우선 방학에 접어들어 훈련을 먼저 실시하였다.

대상지 : 설악산 일원

일자 : 1979년 1월 8일~23일(15박 16일)

목적 및 과제 : 바리에이션 루트의 답사 및 연구
고산등반을 위한 체력훈련
내한 훈련 하중훈련, 구조훈련, 비박훈련
각종 국산 장비와 식량의 활용 검토 및 개선 방안

운행일정 : 운행원칙으로 04:00 기상, 06:00 행동개시, 16:00 행동중

단 장	최욱(전 부회장)
대 장	권경업(지도위원)
부 대 장	김두억(동아대71)
대원 1조	김두억(동아대71), 이창규(부산대77), 이남국(경남공전77, 현 경남정보대), 이정구(부산교대78)
대원 2조	최욱(지도위원), 김윤대(동아대73), 조광호(해양대77), 김영선(부산여대78, 현 신라대) 이장한(부산대77)
대원 3조	권경업(지도위원), 주시정(동아대74), 하문근(부산대78), 강영희(부산여대78, 현 신라대), 우성만(부산교대76)
대원 5조	신호진(부산교대74), 김영헌(부산대77), 박광효(동아대78), 조영인(경남공전, 현 경남정보대)
대원 6조	박영도(부산대75), 강점식(경남공전78, 경남정보대), 박승태(부산교대), 조인호(경동공전, 현 동의대)

지, 20:00 취침. 운행은 4인1조로 조별 운행을 하며, 현지상황에 따라 대장 또는 조장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다.

날 짜	일 수	운 행 내 용				
1월 8일	1	부산-남교리				
9일	2	12탕입구-복숭아탕-막탕				
10일	3	막탕-대승령-1580고지				
11일	4	대승령-귀청				
12일	5	귀청-대청				
13일	6	대청-중청-희운각				
14일	7	희운각-양폭-비선대				
15일	8	산중휴일				
16일	9	비선대-와서대-소토왕골				
17일	10	소토왕골 I.C 훈련				
18일	11	조	18일	19일	20일	21일
		1조	대기조	형제골	설악골	구만골
19일	12	2조	형제골	설악골	구만골	
20일	13	3조	구만골	형제골	설악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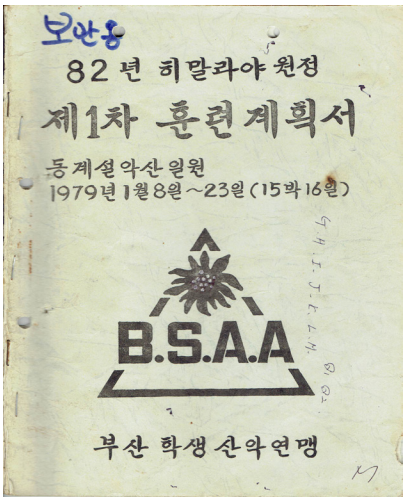
당시 귀청으로 가는 중간에 대원1명 우성만 대원이 발이 미끌어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대열의 맨 뒤에서 휙스시킨 자일이 약 20m가량 아래로 내려가 버렸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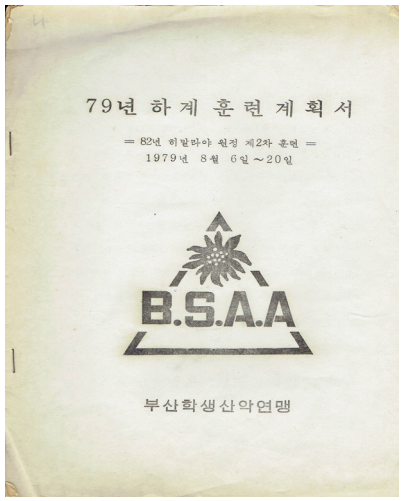
대장, 부대장, 각조 조장은 즉시 구출작업을 하러 내려갔으며 약 40분 만에 구출에 성공하였다. 다행히 크게 상처는 없었고 약간의 외상을 입어 응급치료를 위해 텐트를 설치하고 버너를 피우고 더운 물 끓이는 등 만반의 준비로 돌보았으며 가까운 장소에 막영을 하였다.

1979년 8월 6일~20일 “82 PABIL(7102m) 원정”대비 제2차 훈련을 실시하다

8월 6일부터 20일(14박 15일) 일정으로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2차 훈련을 실시하였다. 동부 경남의 산악활동 요람지인 천황산, 운문산, 가지산, 영취산 일원에서 가상적인 히말라야 등반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해외 원

정을 대비한 기본 체력 및 팀워크 강화, 하중. 수송. 보급 훈련, 조난구조훈련, 베리에이션 루트 적응훈련 등 해외 원정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1980년도 1월 18일~30일 "82 PABIL(7102m) 원정" 대비 연맹 합동 3차 훈련을 한라산 적설기 등반을 실시하다.

1980년 파빌봉 원정대비 한라산 훈련 출발 전 여객 터미널



1월 18일부터 30일(12박 13일) 일정으로 한라산(1950m) 적설기 등반을 실시하였다.

제주도에 도착 시 흐리고 간간이 비가 내리는 날씨로 실망과 눈이 녹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탐라계곡에 B.C를 설치를 하였다. 단장으로 김동인 회장, 부단장으로 최욱(부회장, 지도위원), 산행대장 김두억(동아대71), 부대장 이승렬(부산대74), 지도위원으로 곽수웅(대륙산악회), 전명찬(청봉산악회), 권경업(부산크라이머스)이 참여하였고, 대원은 4개조로 나누어, A조 이승렬(부산대74), 이기석(부산대74), 정기태(경남공전79, 현 경남정보대), B조 주시정(동아대74), 이종민(한국해양대76), 이남국(경남공전77, 현 경남정보대), C조 김대원(경남공전74, 현 경남정보대), 성환균(성지공전77, 현 부산과기대), 강영희(부산여대78,현 신라대), D조 정홍덕(한국해양대74), 정민규(동아대75), 배한일(수산대78, 현 부경대) 총 21명이 참가하여 운행 8일째인 1월 25일 정상 공격을 실시하였다. 전 대원들은 20kg의 배낭을 지고 최욱 부단장의 인솔로 장구목 설사면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설사면 등반 시에는 조별로 운행하여 심설 기술을 익히면서 각 조는 능선을 향하여 전진하여 오전 10시 15분에 전 대원 능선에 도착 후, 서북벽을 향하여 전진 12시 50분에 정상에 도착 답파식을 마쳤다. 이후 백록담 분화구 설사면을 글리세이딩하여 백록담으로 내려선 뒤 왕관능 쪽으로 하산을 시작하였고 허리까지 빠지는 눈으로 하산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루 산중 휴일을 실시한 후 10일째인 27일부터 철수하였다. 29일 부산으로 오는 배를 타기로 한 전날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힘들게 승선권을 구입하여 정들었던 한라산을 뒤로하고 부산을 향해 출발하였으며 다음날 30일 환영 나온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연맹 사무실에서 해산하였다.



1980년 한라산 윗세오름 능선에서



한라산 IC 훈련

1980년 “82 한국 PABIL 원정대”제4차 훈련을 백운산일원으로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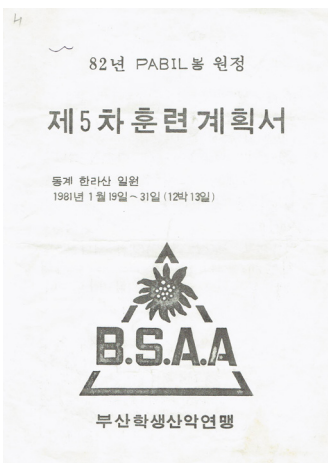
제 4차 훈련을 경남 백운산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8월 4일부터 13일(9박 10일)의 일정으로 체력 및 지구력 연마와 고소 등반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 및 연마, 행동 및 정신의 팀워크 강화를 목표로 실시하였다. 훈련대의 대장으로 최욱 지도 위원, 대원으로 주시정(동아대74), 이승렬(부산대74), 이기석(부산대74), 정민규(동아대75), 성환균(성지공업전문대77, 현 부

산과기대), 배한일(수산대78, 현 부경대), 강영희(부산여대78, 현 신라대) 대원이 훈련에 참가하였다.

1981년 "82 한국 PABIL(7102m) 원정대" 제5차 한라산 일원으로 훈련을 가다

히말라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고의 훈련으로 5차를 맞이하였으며, 12박 13일의 일정으로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한라산(1950m)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5차 훈련은 한라산 일원에서 가상적인 히말라야 등반 방식으로 강훈련을 실시하였다. 등반 방식으로 변형 극지법 및 Party 별 운행 방식으로 베리에이션 루트의 답사 및 연구, 고산 등반을 위한 체력훈련, 설중훈련, 내한 훈련, 구조 훈련, 비박 훈련, 각종 국산 장비와 식량의 활용 검토 및 개선방안의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히말라야 꿈을 위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착실히 다져가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각 대학교 산악부의 지도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가 있었다. 참여한 지도교수로 최상문(부산대), 이구환(부산여대, 현 신라대), 김순갑(한국해양대), 김정실(경남공업대, 현 경남정보대), 김석배(부산여전, 현 부산여대), 정경애(춘해간전, 현 춘해보건대)의 여러 지도교수님의 참여와 격려가 있었다.

대원으로 단장 김동인 회장, 대장 최욱 부회장, 지도 위원 곽수웅, 김두억(동아대71), 권경업(지도위원), 대원 A조 주시정(동아대74) 박찬일(해양대79) 김태용(해양대), B조 정민규(동아대75) 임광섭(해양대78) 최태식(성지공전80, 현 부산과기대), C조 홍보성(부산공전74, 현 부경대) 정기태(경남공전79, 현 경남정보대) 이행윤(동의공전, 현 동의과학대), D조 임영철(해양







1981년 파빌봉 원정 제5차 한라산 훈련를 위한 부산 제주간 배안



1981년 파빌봉 원정 제5차 한라산 훈련 출발전 부산역



1981년 용진각 산장에서

대77) 강미진(부여대78, 현 신라대) 강영희(부산여대78, 현 신라대) 박명철(성지공전80, 현 부산과기대)이 참여하였다. 등반은 부산을 출발해 제주 탐라계곡에 B.C 설치 후 용진각, 장구목, 한라산 등반을 하였다.

1981년 파빌봉(7102m) 정찰을 가다.

1981년 7월 27일 부산학생산악연맹(회장 김동인)은 '82년 히말라야 가네쉬 히말 4 峰(일명 파빌봉(7102m)) 원정을 위한 정찰대의 발대식이 있었다. 격려해 주기 위해 모든 사람의 긴장감 속에 장도를 염려해 주는 전송을 받으며, 부산지역의 유일한 단일팀이라는 원정의 기치를 들고 밤 11시 기차로 서울로 향하여 정찰대가 출발하였다. 정찰 예정일은 50일이었으며 C2까지 정찰 예정이었다.

당시 정찰대원으로 최욱 부회장, 주시정(동아대74), 홍보성(부산공전74, 현 부경대)으로 발대식 후 서울로 해서 7월 30일 방콕으로 향하여 8월 1일 카트만두에 도착하였다. 카트만두에서 항공 화물을 받고, 정찰 허가서와 트레킹 허가서를 받아 데오라리에서 카르카로, 셀둥을 거쳐 8월 22일 드디어 빙하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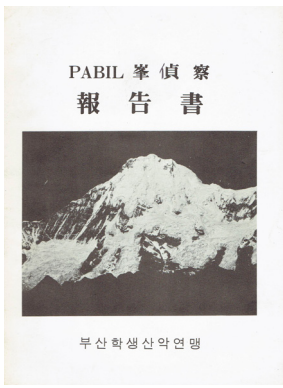
운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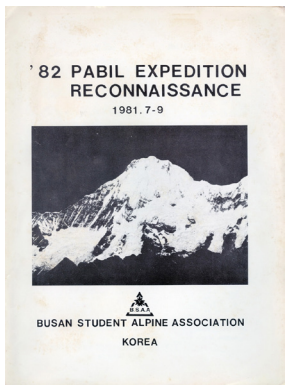
1981년 7월27일(고대하던 발대식)-7월28일(네팔 비자를 받다)-7월30일(김포공항에서 방콕으로)-8월1일(카트만두에 도착하다)-8월3일(항공화물이 도착하다)-8월5일(공항에서 짐을 찾다)-8월7일(정찰허가서를 받다)-8월8일(다시 트레킹 허가를 받다)-8월11일(최종 장비점검)-8월12일(카트만두에서 트리슬리바잘로)-8월13일(셀턴으로 가는 길)-8월14일(데오라리에서 카르카로)-8월15일(카르카에서 카르카로)-8월16일9카르카에서셀둥으로)-8월17일(셀둥에서 흰둥마을로)-8월18일(가교작업을 포기하고 능선길로)-8월19일(흰둥에서 능선으로)-8월21일(구름속을 헤메다)-8월22일(드디어 빙하에)-8월23일(B.C를 정하다)-8월24일(B.C의 첫날밤)-8월26일(B.C를 철수하다)-8월27일(지도에 없는 빙하 호수를 보다)-8월28일(드디어 네부루 마을에 도착)-8월29일(외줄을 타고 강을 건너다)-8월31일(지루한 카르카의 끝)-9월2일(트리슬리에 머물지 않고 카트만두로)-9월3일(무사히 돌아온 것이 꿈만 같이 느껴지는 아침이다)-9월7일(비행기로 출발)

빙하 도착 당시의 상황을 최욱 부회장의 기록으로 보면

"오늘은 아침부터 안갯속을 헤맨다. 가파른 암봉을 오르내리며 밈마는 앞에서 길 뚫기에 고생이 많다. 보성군이 앞에서 길을 잡는다. 잠시 안개가 걷히는 틈으로 밑을 보니 빙하가 보인다. 이곳이 B.C이다.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고 빙하의 양쪽 옆에는 깎아 놓인 듯한 절벽이다. 한참 동안 빙하가 내려가는 길을 찾아 헤매는데 밑에서 보성군의 고함소리가 들린다, 빙하가 내려가는 길이 뚫린 것이다"









베이스 캠프 맞은편에 길이 1000m 넘는 폭포



베이스 캠프 도착 하루전 파빌봉 찾는 길에서

이렇게 부산을 떠난 지 27일 만에 목표지인 B.C에 8월 22일 일요일 도착한다.

"약 2시간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니 한적한 카르카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우리들의 B.C 예정지이다. 일본대의 C1보다 약 300m는 위쪽인데 C2와 ABC로 가는 루트가 빤히 보이는 곳이다(해발 4,500m). 서둘러 B.C를 설치하고 비에 적은 옷을 갈아입는데 멀리서 눈사태 소리가 포성처럼 들려온다. 잠시 구름이 걷히는 틈으로 C2 루트가 험하게 보인다. 밈마의 말에 의하면 일본대와 미국대의 장비들이 빙하 속에 묻혀 있다고 한다. 아무튼 결코 쉽지는 않을 루트인 것만 은 틀림없다"

8월 26일 B.C를 철수하다.

"예정대로 돌아가는 길은 네부루 쪽으로 길을 잡았다. 프랑스 대가 들어온 루트가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출발하였다.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일단 B.C에서 목동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천길만길 오르내리기를 수차례 나침반도 소용없이 앞길이 절벽, 계곡, 바위 등이 계속 나타났

BC근처 피크에 다 함께 올라서서



정찰대의 BC풍경





BC를 기점으로 주변에 정찰 활동 중



구름 낀 파빌봉

다. 오늘은 적당한 막영지를 잡아 천막을 치는데 ...”

이틀 뒤 8월28일 네부루 마을에 도착하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출발하였다. 아침에 일찍 날이 개었을 때 주위를 살펴보니 저 멀리 셀퉁이 보이고 맞은편에 흰둥마을의 집들이 조약돌처럼 보인다. 앞쪽 능선 뒤편이 네부루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얼마를 내려갔을까 갑자기 시야가 트이고 올 때에 흰둥마을에서 본 네부루 마을이 발아래 펼쳐진다. 고함소리가 절로 나온다. 뛰듯이 비탈길을 내려가 폭포에서 세수를 하고 지긋 지긋한 거머리들을 떼어낸다.”

9월 7일 비행기를 타다.

“9월 4일 타이항공으로 비행기 예약을 하려고 하니 이미 7일 앞에까지 전부 예약이 되었으나 타이항공 회사 직원에게 소개장을 받아 간 것이 도움이 되어 다음날 무사히 예약을 마치고 9월 7일 비행기로 출발하였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카트만두여 안녕히!”

BC를 찾아가는 도중 캠프지에서 거머리 방지를 위해 다리에 비닐을 감고



정찰 BC 도착 수 구름낀 파빌봉을 배경으로



당시 파빌봉 정찰 대장이었던 부회장 최욱 대장은 정찰 중에도 단 하나의 신념으로 임했다고 한다. 어쨌든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분의 도움을 도저히 저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1982년도 무사 등반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부산 지역의 유일한 단일팀으로 히말라야에 도전을 위한 정찰대라는 뜻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보며, 이후 10월 24일 정찰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원정 결행이 더욱더 확고해졌다고 본다.

1982년 1월~2월 파빌봉(7102m)원정대비 제6차 훈련을 지리산 칠석계곡으로 가다.

주시정(동아대74), 정홍덕(해양대74), 정민규(동아대75), 이승렬(부산대74), 이남국(경남공전77, 현 경남정보대), 임광섭(해양대76), 강영희(부산여대78, 현 신라대)

1982년 창립 15주년 1982년 가네쉬히말 4 峰 파빌봉(7102m) 등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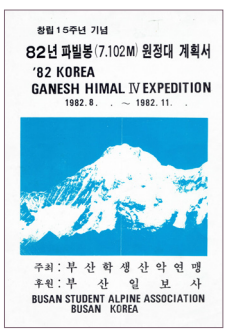
1. 일시 : 1982년 8월 1일~11월 8일
2. 대상산 : 가네쉬히말 4 峰 파빌봉(7102m)단장 : 김동인 회장
   지도교수 : 최상문(부산대)
   지도위원 : 김두억(동아대71), 권경업(지도위원)
   대장 : 주시정(동아대74)
   대원 : 이승렬(부산대74), 이남국(경남공전77, 현 경남정보대)
   보도 : 이종길(부산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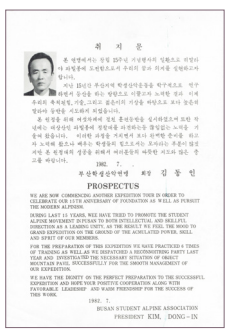
1982년 포스트몬순기에 부산학생산악연맹의 김동인 회장이 거금 5천만원을 쾌척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 파빌봉(7102m) 원정을 꾸리게 되었다. 파빌봉은 네팔 중부의 가네쉬 산군에 있는 네 번째 봉우리로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7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산이다. 이 산은 네팔 정부가 중공과의 국경분쟁으로 입산을 금지했으나 1978년에 해금되면서 일본대가 남면으로 초등정을 했고 80년에는 프랑스대가 2등을 했다. 그러므로 본 연맹의 원정은 이 산의 세 번째 등정을 노리고 있었다. 원정대가 카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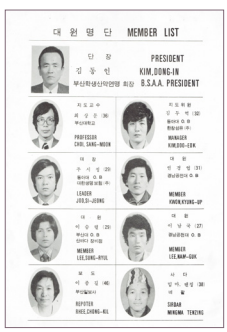
두를 떠나 12일 만에 베이스캠프(4225m)에 도착한 것이 9월 20일. 이들도 고줌바캉팀과 마찬가지로 캘커타로 보낸 등반 물자의 통관이 지연되어 예정보다 운행이 늦어지고 있었다. 다음날부터 등반을 개시한 원정대는 12일 만에 3캠프(6370m)를 설치하고 10월 5일 정상 공격에 나섰다. 공격조는 이승렬(부산대)대원과 도르지, 아지와 셰르파 등 3명. 이들은 이틀 전에도 정상공격을 시도했었으나 이대원의 고소장애로 후퇴했었다. 새벽 6시에 마지막 캠프를 떠난 일행은 8시간 30분이라는 긴 등반 끝에 드디어 오후 2시 24분 정상에 올랐다. 이것은 고줌바캉팀보다 앞선 것으로 지방팀으로는 최초의 히말라야 등정으로 기록되었다.


1982년 파빌봉 이승렬 등정(부산대64)

당시 김동인 회장의 원정 취지를 살펴보면, 부산학생산악연맹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로 히말라야 원정에 도전하였으며, 본 연맹의 꿈과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지난 15년간 부산지역 학생산악운동을 학구적으로 연구하면서 등산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축적된 힘, 기술, 그리고 젊은이의 기상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히말라야 등반을 시도하게 되었음을 목적으로 두었다. 당시 등정 보고서를 내지 못한 관계로 당시 파빌봉 정상 등정한 이승렬(부산대 74) 대원의 회고 내용과 당시 언론기사를 내용으로 등반 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창립 15주년 기념
82년 파빌봉(7,102M) 원정대 계획서
'82 KOREA
GANESH HIMAL Ⅳ EXPEDITION
1982. 8. . ~ 1982. 11. .
주최 : 부 산 학 생 산 악 연 맹
후원 : 부 산 일 보 사
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
BUSAN KOREA


PROSPECTUS


대 원 명 단 MEMBER LIST


운 행 일 정
가 맹 학 교 명
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

파빌봉 정상 등정한 이승렬(부산대)의 회고내용

1. 출국 – 베이스캠프

"82년 부산학생산악연맹 히말라야 파빌봉 원정대"를 정식 명칭으로 하여 대장 주시정(동아대74), 김두억(동아대71), 이승렬(부산대74), 이남국(경남공전77), 권경업(지도위원), 이종길(부산일보기자) 이렇게 6명이 히말라야 마나슬루 산군의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해발 7,102m의 파빌봉(정식 명칭 가네쉬히말 4봉)을 향해 그해 여름 출발하였다.

기억도 아슴푸레 하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고자 한다.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우리가 부친 짐이 벌크화물로 인도로 보냈는데, 거의 한 달가량 늦게 도착하여 당시 김두억(동아대71)대원이 인도로 짐을 찾으러 떠나고 우리는 당시 한국산악회 회원이었던 김인섭씨가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 격인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일정이 늘어지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들어 할 수 없이 안나푸르나의 호숫가로 이동하여 짐이 올 때까지 텐트나 현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때 할 일이 없어 근처의 호수에서 뗏목을 빌려 타고 수영하고 노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우연히 홍콩에서 관광 온 아가씨와 만나 주변의 산에 등산도 같이 다녀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 아가씨와 놀러 다닌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체력단련이 되어 등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카라반 또한 장렬하여 7,000m 봉에 올라가는데 무려 18일간이 소요되었다. 이 역시 무리함의 극치인데 당시 산행정보가 없으니 대상 산을 찾다가 우연히 일본대가 초등한 파빌봉 보고서를 구한 것이 이 산을 선택한 계기가 되었는데 아마 7,000m 봉 올라가면서 이 정도 대규모 카라반을 꾸린 팀은 우리 팀을 제외하고 전무후무하리라 생각되었다.

2 .베이스캠프 – C1

베이스캠프는 해발 3,500M 지점에 설치하고 등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베이스의 위치가 음지라서 항상 추웠던 기억이 나고 거의 하루걸러 눈사태가 일어나 계곡으로

쓸려 내려가서 장관을 연출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등반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등반은 처음부터 만만찮아 C1가는 중간에 40m쯤 되는 빙벽이 있었는데, 말이 빙벽이지 커다란 얼음덩어리였다. 막상 붙어보니 정상적인 등반이 불가하였다. 거기다 고소인지라 호흡이 가빠 1m 올라가고는 심호흡을 하고 한참을 쉬어야 할 판이었다. 뒤에 몇 번 다녀보니 조금 나아졌는데 처음 빙벽에 붙었을 때 전 대원들이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벌벌 기다시피 하여 올라갔다. 빙벽 좀 한다고 폼 잡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그때의 창피함이란...
C1의 위치는 다행히 평평한 지점에 텐트를 칠 수가 있어 다행이었는데 내 기억으로 베이스에서 1,000m 정도 위인 해발 4,500m 정도였다.

3. C1-C2

원래는 C3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짐이 한 달이나 지체되었고 포스트몬순이라 언제 날씨가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등반대장인 권경업(지도위원)의 과감한 결단으로 캠프를 하나 줄여 속공전략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문제는 당시 정상 공격조로 이남국(경남공전)이 내정되었으나 C1을 오르다 고산병을 만나 구토를 하는 등 컨디션이 엉망이 되어 할 수 없이 이승렬(부산대)이 대신 오르게 되었다.
C1에서 C2까지 무려 1,400m나 표고차가 나는 거리를 하루에 올라야만 하였다. 설악동에서 대청봉까지를 해발 5,000m 위에서 하루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법하다.
계획 자체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으나 문제는 공격조가 이남국대원이 아닌 내가 선발된 점이었다.
정상 공격이란 의욕 충만하고 자신감을 갖고 올라야 하는데 나의 경우는 거의 살아남기에 초점이 맞춰진 격이 되어버렸다.
C1을 새벽 5시에 출발하였는데 셰르파 두 사람은 C2를 설치해야 한다며 출발 한지 한 시간 만에 사라져버리고 혼자서 방향도 잘 모르고 올라가는데 정말 정상 공격보다 더 힘든 산행이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니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온몸이 동태가 되는 것 같았다. 그 뒤로는 거의 죽기 살기로 C2를 찾아 올라가는

데 체력이 고갈되어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처지가 될까 봐 올라가는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저녁 6시가 넘어 C2에 도착했는데 거의 초주검이 되어 텐트에 쓰러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알파 미로 한 밥은 도대체가 먹을 수가 없어 정말 한 숟가락 딱 뜨고는 그만 나가떨어져 버렸다.
복숭아 통조림이 두 개 있었는데 내일 정상 공격 때 먹을 생각으로 그 와중에도 미련하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판단이 되었다.

4. C2-정상

그래도 정상 공격 날은 날씨도 좋고 컨디션도 많이 돌아와서 왕년의 잘 나갈 때의 기량과 체력을 발휘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다.
특히 정상 직하의 설벽은 거의 60도 이상의 급경사로 약 300~500m 이상을 확보자일도 없이 각자 단독으로 올랐는데 다행히 눈이 잘 얼어 있어 설벽 등반 방식으로 오를 수 있었다.
여기서도 두고두고 있지 못할 기억이 있었는데 그동안 고도에 익숙해져서 별 고도감 없이 오르고 있었는데 설벽을 거의 100m 정도 남겨둔 빙벽 중간에서 도대체 다리가 저려 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할 수 없이 중간에 피켈로 눈을 쓸어내고 엉덩이를 정말 1/3만 걸치고 피켈로 확보한 뒤 조금 쉬게 되었는데, 그때 실수로 슬링 테이프를 놓쳐버렸는데 그게 눈앞에서 뱀처럼 슬슬 기어 내려서 수십 미터를 흘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때야 처음으로 산 밑을 내려다보았는데 내 발끝을 시작으로 천길 낭떠러지에 확보도 없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다시 등반하기 위해 몸을 돌리려니 다리가 덜덜 떨리는게 정신이 없었다. 그로부터 남은 100m는 어떻게 올랐는지 그 추운 날씨에 등에 땀이 다 났다.
초등은 아니지만 아무도 오른 흔적이 없는 정상을 등정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이 매 고비마다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능선에 오르려면 높이 80~100m 가량의 암벽이 오버행 상태로 병풍처럼 둘러싼 곳을 돌파해야 하는데 경험 많은 셰르파들이 그때 정말 진가를 발휘하였다. 거의 좌우 몇 백 미터의 수직 벽 사이로 유일하게 골루와르로 보이는 통로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것이었다. 나는 눈을 씻고 봐도 벽으로만 둘러싸인 곳을 그들은 찾아냈다.

그러나 그곳도 올라봐야 아는 법,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다행히 보기와는 달리 올라보니 부채바위 보다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한 시간여 정도 만에 능선에 오를 수가 있었다. 벽 밑에서 잠시 휴식을 하며 복숭아 통조림을 나누어 먹었는데, 정말 사소한 것이 큰 계기가 된다는 것을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것이, 먹을 것이라고는 내가 들고 간 복숭아 통조림 2개가 전부였다. 셰르파 두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고 오히려 짐이 된다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단다. 그래서 통조림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그 둘이 나누어 먹었는데 정말 그때 그 통조림을 안 먹었으면 못 올라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고소에서 거의 열두 시간 동안 노동하면서 먹었던 유일한 음식이었으니, 그때 내 배낭에는 침낭 하나 카메라 2개(이종길 기자가 부탁한 신문에 낼 정상 사진 찍을 니콘 카메라와 내 소형 카메라) 우리 대원들 이름을 쓴 알루미늄 바(권경업 선배가 정상에 오르면 박아 놓고 오라고 매직펜으로 대원들 사인을 받아 준 것) 정도였는데도 꽤 무거웠었다.

능선에 올라서서도 계속 신경을 곤두서게 하였는데 능선에서 정상을 보니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맥이 탁 풀리는 것이 저길 갈 수 있을까? 만약 간다 하더라도 오늘 중에 C2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온갖 상념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마 그때 능선에서 정상이 멀리 느껴진 것은 착시현상이었는지 능선에 있는 50-60m정도 높이의 설능을 2개 넘어가니 그 뒤로 1시간여 후에는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82년 10월 5일 새벽 2시에 기상하여 4시에 텐트를 나서 6시간 30분의 사투 끝에 10시 30분에 파빌봉 정상에 섰다.

다행히 날씨는 맑고 투명하여 주위 경치를 잘 볼 수 있었는데 바람은 엄청 세차게 불어와 땀이 식으면서 추위가 몰려와서 카메라 셔터 누르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주위에 산밖에 안 보였는데 정상에 오르니 저 아래 티베트 쪽 일대에 빙하가 마치 계단식 논처럼 뻗어있고 가까이는 가네쉬히말 산군이 빙하 너머로 우뚝 솟아있고 멀리는 마나슬루 일대의 산들이 발밑에 끝없이 펼쳐져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였다.

정상의 공간은 너무 좁아 2명이 제대로 서 있을 공간이 안 되어 서둘러 사진 몇 장을 찍고 무비카메라로 정상에서 360도 파노라마를 찍은 뒤 서둘러 하산을 시작했다.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 정상 등정 후 하산하여 C1에 거의 다 와 갈 때 마중 나온 셰르파 중 하나가 내 배낭을 대신 지고 가다가 크레바스에 빠져 죽을 뻔하였다. 자일을

내려보내 겨우 끌어 올렸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올라온 이 셰르파가 그 와중에도 배낭을 뒤져 정상 필름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와 나를 감동시켰다. 다행히 뒤에 배낭도 찾았었다.

5. 후기

원정은 무사히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호사다마라고 당시 부산학생연맹 회장이면서 원정 경비 일체를 내놓았던 김동인 회장은 등정 성공을 축하해 주러 카트만두까지 왔다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일이 많이 발생하였었다.

김동인 회장이 쓰러지면서 원정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며, 정상에서 찍은 비디오는 그 뒤 초량의 어느 현상소에 현상을 맡겼다가 돈이 없어 못 찾고 내버려 뒀다가 결국 행방이 묘연해졌고, 원정보고서도 제대로 못 내고 그렇게 끝나버렸다.

그래도 이번 원정은 부산 산악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따른 성장통인 셈인데 당시에는 모두 해외원정 경험이 없는 초보들이 되다 보니 각자의 어깨에 놓인 주위의 어마어마한 기대나 책임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1982년 파빌봉 등정 후 부산역에서 환영회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파빌봉(7102m) 등정에 대한 기사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파빌봉 원정의 의의(부산일보 기사)

"부산학생산악연맹의 「82히말라야 원정대」가 지난 8일 히말라야의 거봉 파빌(일명 가네시 히말)을 정복했다는 사실은 부산산악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세계에 떨친 쾌거였다. 일반 전문 산악인으로 구성된 팀도 아니고 재정 지원이 보장된 대학 단독 팀도 아닌 복합 원정팀이 히말라야에 도전한다는 그 자체가 다른 지방에선 엄두도 내기 힘든 일. 그만큼 히말라야에의 도전에는 고도의 기술과 장기간에 걸친 대원 훈련, 엄청난 원정 비용 등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파빌봉 등정에 성공한 부산 원정대의 경우도 10년 넘게 진통을 겪은 끝에 도전에 나설 수 있었다. 당시 부산의 젊은 산악인들은 「히말라야를 부산산악인의 힘으로 정복하자」고 다짐했으며 이러한 열기가 부산학생 산악연맹을 중심으로 영글어 갔던 것. 또한 연맹을 이끌어 온 김동인 회장의 거금의 희사가 없이는 오늘의 성공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게 부산산악인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이번 원정대원 뿐 아니라 많은 젊은 산악인들이 전지훈련을 해왔으며 이들은 모두 히말라야의 만년설에 도전, 정상을 정복하려는 의지를 불태우며 땀을 흘렸었다. 원정대의 소망은 이뤄졌다.

이제 부산 원정대가 히말라야의 거봉 파빌의 무릎을 끊게 함으로써 이제 부산의 히말라야 원정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된 것이다."

부산산악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부산일보 기사)

- ▶ 구철회(대한산련부산연맹회장) – 마음 죄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격 성공을 했다니 무어라고 기쁨을 다 나타낼 수 없을 지경이다. 어려운 여건 아래서 원정대의 뒷바라지를 해온 김동인 학생산악연맹 회장의 노고와 대원들의 집념에 감사를 드린다.
- ▶ 김재도(부산학생산악연맹지도위원) – 너무 반갑다. 피나는 노력과 시련과 집념의 결정이다. 부산산악인의 저력이 히말라야에서 뛸 수 있다는 걸 만천하에 입증해 준 쾌거다.

▶ 최상문(부산학생산악연맹 지도교수) – 예비 정찰을 마치고 지난 8월 27일 카트만두에서 귀국했다. 예정보다 늦게 공격에 나섰으나 정상 정복에 성공했다니 무한히 기쁘다.

정상에 오르기 까지(부산일보 기사)

"부산학생산악연맹은 이번 원정을 위해 포스트 몬순기인 81년 8월 3명의 정찰대원을 파견했으며 그보다 앞서 79년 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설악산 일원에서 4차례의 강도 높은 적설기 및 2차례의 하계 훈련을 한 바 있다. 대원 6명 중 지도교수인 최상문씨(36·부산대)를 제외하면 모두가 등산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들.

주시정 대장(29·동아대OB·대한생명보험)은 지난해 현지정찰을 했으며 김두억 지도위원(32·동아대OB·한창섬유)과 권경업대원(31·지도위원)은 79년과 80년 동계훈련에 각각 대장을 맡았던 에이스들.

이승렬대원(29·부산대OB)과 이남국대원(27·경남공전OB)은 6차의 전지훈련과 원정 계획에 참가하여 그들이 맡은 업무를 무사히 마친 억척같은 산사나이들이다."

"부산학생산악연맹 82년 파빌봉원정대는 지난 7월 22일 발대식을 갖고 8월 4일 카트만두로 향발, 홍콩과 방콕에서 일부 장비를 보강한 뒤 현지에 도착했다. 약 보름간의 장비 및 식품재 포장 등의 준비를 끝낸 다음『9월 8일 상오 7시부터 캐러밴을 시작한 대원들은 이날 하오 3시 트리술리 바잘


登山日報 1982년11월9일 火요일 [12]

파빌峰7102m

82년10월5일 하오2시26분

"여긴頂上"목멘환호

온갖 苦難도 일순간에 풀려

안개사이로 마나슬루등 히말라야 峻峰이 첩첩이…


登山日報 1982년11월12일 金요일 [12]

파빌峰7102m

300m突破에 2시간

6,720m서 점심은 북숭아등 과일통조림 3개

氷雪·바위와 死闘 8시간30분


登山日報 1982년9월20일 月요일 [1]

네팔서 맞붙은 韓·日등반대

파빌峰 先登다툼

百80km의 캐러밴에 나서

大田자일클럽 고줌바 캉도전

隊員 최고 28명서 단독까지 다양… 日·佛각 9개隊로 최다

에 도착하여 에오라리 국교에서 1박 했다. 5일째인 12일에는 해발 3830m 지점인 마출몰라봉을 지나 셀툼에 도착, 계속된 강행군의 피로를 풀었다. 대원 5명과 사다, 셰르파, 우체부, 포터 등 총 1백6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81년 프랑스 원정대가 공격 캠프 C1을 설치했던 해발 5200m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정상 공격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들은 당초에 정상 공격보다는 2주일 가까이 공격이 늦어져 10일 하오에야 정상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베이스캠프의 순조로운 설치로 공격을 2일 앞당겨 감행,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부 산 일 보

1978년12월28일 未요일

부산學生山岳聯 히말라야 挑戰

"우리도 征服자신"

82년에 「壯途」목표

財政문제 해결 來1월 冬季훈련 돌입

◇부산학생산악연맹이 단독원정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의 영봉 히말라야 (오른편이 에베레스트)◇

이상과 같이 파빌봉의 등정은 해외 원정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연맹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작고한 김동인 회장은 동계훈련 경비와는 별도로 82년 히말라야 원정에 필요한 경비 5천만 원 예산 중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대원의 체격에 관계없는 장비는 하나씩 구입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셨다. 그러한 열정으로 4년간 매년 100만원씩을 투자하면서 부산학생산악연맹을 이끌어 오셨다. 이러한 희생과 열정은 부산학생산악연맹이 82년 히말라야에 도전, 성공을 거둔다면 이에 더 큰 영광이 없다고 한 김동인 회장의 희생과 열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기회가 되었다.


釜山日報

1982년11월16일 火요일 【12】

가두판 서 1개월

파빌봉

繁華街 가운데를 소가 활보

낮잠시간때는 인력거꾼까지 돈많이 준다해도 거절

태풍때문에 貨物도착 늦어져 出發연기

제3장

새로운 비전을 위해 도약하다

1983년~1993년

共有할 歷史를 만들다





1990년 학생등산대회 후 체육대회

‘새로운 비전을 위해 도약하다’상황보고서(1983~1993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83년 05월 27일	제16차 정기총회	YWCA 강당	이용달,권헌태 외	
1984년 04월	제17차 정기총회	서면원리연구회관	이용달,김영학 외	
1985년 03월 26일	제18차 정기총회	부산대학교 앞 광장	이용달,이창호 외	
1986년 04월 07일	제19차 정기총회	동아대학교 학생회관	이용달,이반형 외	8개대학 82명
1987년 04월 06일	제20차 정기총회	동아대학교 학생회관	이용달,최태식 외	12개대학 102명
1988년 03월	제21차 정기총회	동아대학교 학생회관	이용달,안호덕 외	
1989년 04월 03일	제22차 정기총회	부산교육대학교	이용달,강성구 외	
1990년 03월 31일	제23차 정기총회	수산대학교 강당	최상문,차광훈 외	11개대학
1991년 03월 30일	제24차 정기총회	수산대학교 강당	최상문,이윤현 외	11개대학
1992년 03월 27일	제25차 정기총회	부산외대 국제회의실	황순철,하태웅 외	14개대학 100여명
1993년 03월 23일	제26차 정기총회	동의공업대 시청각실	황순철,김병진 외	14개대학 100여명

산행 및 훈련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84년 04월 26~27일	춘계합동 R.C	금정산	12개대학 57명	무명릿지 및 직벽
1984년 09월 21~23일	추계합동 R.C	금정산	8개대학	쌍계봉
1984년 12월 29일~ 1985년 01월 08일	합동 I.C 및 종주	설악산	4개대학 10명	십이선녀탕,막탕,대승령, 수렴동,쌍폭,봉정암,죽음 의계곡,잦은바위골 I.C
1985년 05월 18~19일	춘계합동 R.C	금정산	50여명	무명암
1985년 09월 21~22일	추계합동 R.C	금정산	10개대학 78명	무명암,부채암
1986년 01월 02~5일	동계합동훈련	천황산, 표충사계곡	14명	무명릿지,무명직벽, 부채암,나비암
1986년 05월 10~11일	춘계합동 R.C	금정산	6개대학 74명	
1986년 08월 04~07일	하계합동산행	금정산	4개대학12명	무명암,준행암,부채암, 나비암 암벽훈련
1986년 10월 01일	추계합동 R.C		30명	
1987년 02월 08~11일	동계합동산행	밀양석골사 및 가마골	6명	밀양,석골사, 선녀폭 운문산
1987년 05월 09~10일	춘계합동 R.C	금정산	78명	

산행 및 훈련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87년 07월 07~19일	하계합동등반	설악산	61명	설악골,천화대,염주길,흑범길,서북주능,화채봉,칠선골,울산암,용아장성
1987년 08월 04~07일	합동암벽등반	금정산	12명	무명암,나비암,준행암,부채암
1987년 9월 26~27일	추계합동 R.C	금정산	72명	준행암
1988년 01월 06~15일	합동 동계산행	설악산	47명	
1988년 04월 30일~05월 01일	춘계합동 R.C	금정산		
1988년 07월 03일	기술부 암벽시범	금정산		
1988년 09월 24~25일	추계합동 R.C	금정산		
1989년 01월 16~22일	합동 동계산행	설악산	48명	염주길,건폭골,용소골,칠선골,대청봉,공룡능선,화채능선
1989년 05월 20~21일	춘계합동 R.C	금정산	10개대학	
1990년 01월 05~11일	합동동계산행	설악산	12명	죽음의 계곡,용소골,잦골,대청봉
1990년 04월 28~29일	춘계합동 R.C	금정산	8개대학	
1990년 07월 07~17일	합동하계등반	설악산	39명 4개조운행	천화대,화재봉,장군봉,적벽,울산암
1990년 09월 22~23일	제2회 암벽등반 기술교류회	한국해양대학교		
1991년 01월 08~15일	합동동계훈련	설악산	17명	
1991년 04월 27~28일	춘계합동 R.C	금정산	11개대학80여명	
1991년 09월 28~29일	추계합동 R.C	금정산		무명암,부채암
1992년 01월 07~14일	동계훈련(초급반)	설악산	14명	
1992년 04월 25~26일	춘계합동 R.C	금정산	9개대학 56여명	
1992년 09월 26~27일	추계합동 R.C	영남알프스 백운산	11개대학	
1993년 01월 05~11일	합동동계훈련	설악산	14개대학 100여명	
1993년 04월 17~18일	춘계합동 R.C	금정산	10개대학 90여명	
1993년 09월 25~26일	추계합동 R.C	백운산 슬립	12개대학 100여명	
1993년 11월 13~14일	인공암벽 기술교류회	경남정보대학		

기타행사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83년 05월 01일	친선 체육대회	한국해양대학교	6개대학	
1983년 11월 12~13일	연맹제	금정산	11개대학	
1984년 06월 11일	친선체전	한국해양대학교	8개대학	
1984년 11월 17~18일	연맹제	금정산	102명	
1985년 11월 16~17일	연맹제	금정산	78명	
1986년 06월 01일	친선체전	한국해양대학교	8개대학 96명	
1986년 11월 15~16일	연맹제 및 체육대회	금정산	114여명	
1987년 05월 31일	친선체전	부산교육대학교	116명	
1987년 11월 14~15일	연맹제 및 체육대회	금정산	97명	
1987년 11월 16~27일	합동 동계이론강의	수산대학교	43명	
1988년 05월 23일	친선체전	동아대학교		
1988년 11월 05~06일	연맹제	금정산		
1989년 04월 08일	친선체육대회	수산대학교	11개대학	
1989년 11월 04~05일	연맹제	금정산		
1990년 06월 06일	친선체육대회	수산대학교	150여명	
1990년 11월 03~04일	연맹제	금정산		
1991년 06월 06일	친선체육대회	한국해양대학교	10개대학73명	
1991년 11월 02~03일	연맹제	금정산		
1992년 05월 31일	친선체육대회	부산공업대	13개대학 120여명	
1992년 11월 14~15일	연맹제	금정산		
1992년 11월 28~29일	전국대학생산악연맹 5차모임 겸 체육대회	한국해양대학교		
1993년 06월 06일	친선체육대회	동아대학교	12개대학 120여명	
1993년 11월 20~21일	연맹제	금정산	15개대학 100여명	남문

1983년 5월 27일 제16차 연맹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1983년 5월 겨울 Y.W.C.A회관에서 실시된 제16회 정기 총회에서 이용달 교수님을 부산학생산악연맹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병석에 계시는 김동인 회장님은 지난해 “히말라야 파빌봉 등정”성공 등 많은 업적을 남김으로써 부산학생산악연맹으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지방 산악회 활동의 기수 자리를 굳히게 하는 업적으로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당시 임원진도 개선하였으며 참고로 부회장으로 부산대학교 최상문 교수가 내정되어 전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와 1983년도 예산 및 행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1984년 부산학생산악연맹 춘계 · 추계 합동 R.C를 하다.

연맹 합동으로 실시된 춘계·추계 합동 R.C는 연맹인의 기술 등반 능력을 함양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춘계 합동 R.C 대장으로 김영학(수산대79, 현 부경대), 부대장으로 엄주삼(한국해양대81)을 주축으로 실시되었다. 춘계 합동 R.C로 금정산 무명암 일원에서 4월 26일에서 27일 1박 2일로 조별 로테이션 방식으로 남. 여 5조 총 남자 16명, 여자 20명이 참여하였다. 당시 예상치 못하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암장에 비해 인원이 많아 로테이션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의료와 구조가 편성되지 않은 아쉬운 점을 남겼다. 추계 합동 R.C로 금정산 쌍계봉에서 9월 22일에서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총 15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여 기술 등반에 많은 실력 향상을 보였다.

1984년 12월 부산학생산악연맹 합동 동계훈련을 실시하다.

12월 29일부터 1985년 1월 8일 10박 11일 설악산(1708m)으로 동계훈련을 실시하였다. 산행대장으로 김영학(수산대79, 현 부경대), 부대장 엄주삼(해양대81), 대원으로 전정호(해양대82), 임두희(부산교육대81), 김영순(부산교육대83), 송일영(부산교육대83), 최미순(부산여전84, 현 부산여대) 총 7명이 참여하였다. 준비 장소인 수산대(현 부경대) 산악부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여러 연맹 회원의 전송을 받으며 중앙선 기차에 몸을 싣고 출발하였다. 날씨가 동계답지 않게 좋았으며, 강원도 원동을 지나 남

교리 십이 선녀탕을 시작으로 출발하여 서북주능과 대청을 걸쳐 능선 종주를 실시하였다. 적설량은 날씨가 좋아 그리 많지가 않았다. 훈련 중 1985년 새해 아침을 맞아 각자 소망을 빌었으며 건폭, 쌍폭, 희운각, 죽음의 계곡, 잦은 바위골 등 계곡에서의 설상훈련과 빙벽훈련 등 훈련을 실시하고 무사히 강원도 강릉의 목욕탕에 몸을 풀고 훈련을 마무리하였다.

1987년 금정산 북문에서 15차 연맹제와 체육대회를 실시하다.

부산학생산악연맹 가맹 대학 11개 대학 114명이 참여하여 산행과 함께 연맹제를 11월 15일부터 16일 1박 2일로 실시하였다. 산행은 식물원입구에 집결하여 동문을 지나 무명암, 나비암, 북문 산장에서 산행을 끝내고 각자 북문 앞에 텐트를 치고 연맹제 준비를 하였다. 김상문 부회장(부산대 지도교수)의 주도하에 연맹제를 실시한 후 회원들 모두 집결하여 레크리에이션을 가져 연맹인들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일요일 오전 회원들을 팀으로 나누어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북문산장 및 샘터주위의 청소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1987년 연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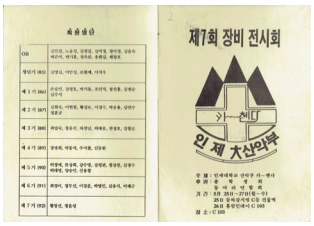
1987년 체육대회





1988년 각 단대별 장비전시회를 가지다.

연맹의 가맹단체들은 80년부터 90년까지 각 대학별로 축제 기간을 이용하여 산악부만의 행사로 산악장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산행 및 암벽 장비, 서적, 사진 등 다양한 산악부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설명하였다. 또한 학교 외벽을 이용한 하강을 보여주는 등 여러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산악부에 대하여 여러 학생에게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며, 회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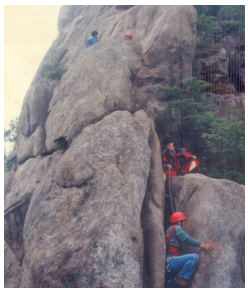


1988년 춘해간전(현 춘해보건대) 장비전시회, 인제대 장비전시회 초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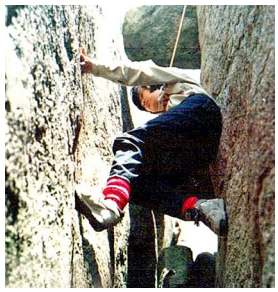
1989년은 부산학생연맹의 기술부 산행이 눈에 띄게 많은 활동을 하였다.

총 5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차 산행으로 3월 31일부터 4월 1일 금정산 무명직벽을 이상수(수산대86, 현 부경대), 차광훈(부산교대87), 오우섭(해양대88) 회원이 실시하였고, 2차 산행으로 4월 28일부터 9일 금정산 부채암에서 이상수(수산대86, 현 부경대), 신병건(부산교대86), 정우근(부산교대86), 오우섭(해양대88) 회원 참여, 3차 산행으로 5월 12일부터 13일 금정산 부채암에서 이상수(수산대86), 차광훈(부산교대87), 황인철(동아대88), 권광호(부산공대88, 현 부경대), 이상주(춘해88), 오우섭(해양대88) 회원 참여, 4차 산행으로 5월 19일부터 20일 금정산 무명릿지

1989년 무명암RC



1989년 나비암RC



1989년 무명암 티롤리안 브릿지



및 부채암에서 이상수(수산대86), 안남주(경남공전88, 경남정보대), 정명화(부산여전88, 현 부산여대), 김영희, 오우섭(해양대88) 회원 참여, 5차 산행으로 6월 2일부터 3일 금정산 부채암에서 이상수(수산대86, 현 부경대), 권광호(부산공대88, 현 부경대), 차광훈(부산교대87), 송진철 회원이 참여하여 기술부 산행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대학산악인의 정신 배양과 함께 R.C기술교류를 통한 연맹인의 구심점 배양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89년 제1회 부산학생산악연맹 암벽등반기술 교류회를 개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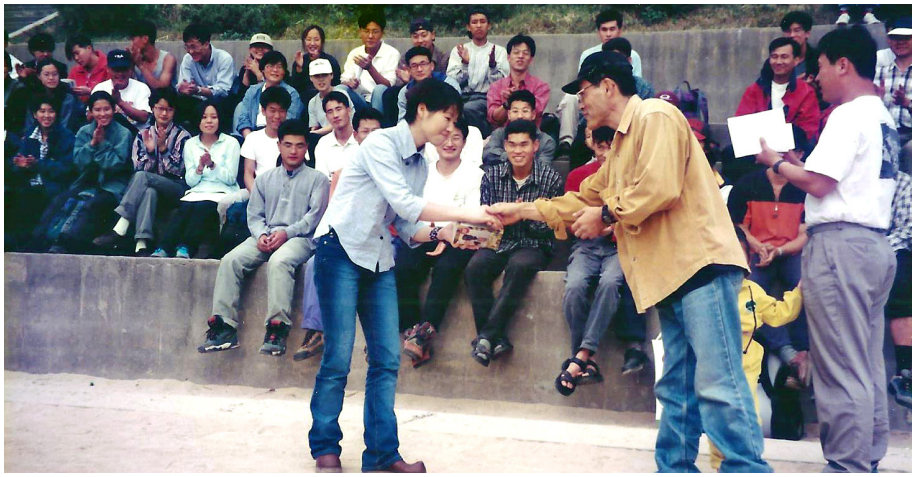
연맹인의 기술 등반의 활성화로 인하여 연맹에서도 암벽등반 기술 교류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맹인의 구심점을 배양하고 기술 등반의 교류, 대학산악 정신 배양 등의 취지로 1989년 9월 23일에서 24일 1박 2일의 여정으로 금정산 무명암 부산학생산악연맹길(학연길, 난이도 5.11a)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연맹 회장이신 황순철 대회장과 강승구(수산대84, 현 부경대) 대표 상임의 심판장, 심판으로 양정환(부산교대82), 김규태(부산대82) 회원이 심판으로 참여하였다. 참여 인원은 7개 대학 22명이 참여하였고 남자회원은 학생산악연맹길(학연길), 여자회원은 기존코스(소금길)에서 실시하였다.

등반 방식은 추첨에 의한 2인 1조의 Leading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먼저 무명막영터에 집합하여 산중 시험을 실시하였고 2일째인 24일 암벽등반 기술 교류회를 실시하였다. 산중시험에서는 정인숙(동주여전88, 현 동주대)이 전체 50점만점 47점의 최고득점으로 우승하였으며, 암벽등반의 경

1989년 제1회 기술교류회 전 금성초등학교에서





1989년 제1회 기술교류회 시상식

우 예절, 장비, 자세, 기술,시간등 50점 만점으로 실시하여, 등반상 이윤형(해양대88), 감투상 원선희(부산교대89), 노력상 전일섭(경남공전86, 현 경남정보대),인기상 이은정(동주여전88, 현 동주대), 공로상 이상수(수산대86, 현 부경대), 차광훈(부산교대87), 완등상으로 이윤현(해양대88), 권광호(부산공대88, 현 부경대), 신병건(부산교대86), 강성석(부산교대87), 김경태(부산대88)등 시상하였다.

처음 실시하는 대회라서 전 학기 때부터 구상하고 준비 하였다. 9월 16일부터 17일 코스개척을 쏟아지는 빗속에서 강승구, 이상수, 차광훈 회원이 답사 및 등반 테스트를 하였고, 9월 21일에서 22일 등정하면서 볼트 설치 및 등반루트를 점검하였다. 비록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다음부터는 더 성숙하고 발전적인 계기가 되고 서로 성장에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리라 다짐하면서 교류회를 가졌다.

1990년 제25회 부산학생등산대회를 주관하고 참여하다.

5월 12일부터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금정산 일원에서 한국산악회 부산지부와 KBS 부산 방송본부 주최로 부산학생산악연맹이 주관하여 등산대회를 실시하고 참여하였다.

대학부 심판위원장인 최상문 교수(부산대학교)와 심판위원으로 안호덕(부

산대82), 김규태(부산대82), 김덕순(부산여전82, 현 부산여대), 김준철(경남공전83, 현 경남정보대), 박향숙(동주여전84, 현 동주대), 강승구(수산대84 현 부경대), 김석수(부산교대86)이 활동하였으며 4인 1조로 종주식 등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참여대학으로 부산교육대, 수산대, 부산대, 동아대, 경남공업전문대, 부산여자전문대, 춘해간호전문대, 동주여자전문대, 부산공업대 총 50여 명이 참여하였다. 운행 일정으로 12일 시민회관 개회식을 시작으로 외송 국민학교에서 고담봉 도착, 준행암 R.C, 캠프파이어 후 취침하였으며, 13일 기상하여 식사 후 이론 시험을 실시하고 O.L 시험 후 동문 출발 금정국민학교에 도착하고 시상 및 폐회를 하였다. 당시 남대부 우승은 동아대학교, 준우승은 수산대학교가 수상하였고 여대부의 우승은 부산여자전문대학 준우승은 경남공업전문대학에서 수상하였다.

1990년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북문에서 단체사진



1990년 부산학생등산대회 북문 막영터에서



1990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산행모습





1990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이론시험



1990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장비검사



1990년 연맹합동하계등반을 하다.

7월 7일부터 17일까지 10박 11일로 설악산(1708m)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하계는 남. 여 특성을 두어 조를 편성하였다. 그러다 보니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짓궂은 날씨와 어수선한 운행과 더불어 조당 많은 인원이 편성되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점도 있었지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대원들 간의 화합이 잘 안 되는 오점이 발견되기도 하여 서운한 점도 많은 연맹 하계 합동 산행이 되었다.

대원은 총 5조로 나누어 편성하여 조별 운행을 하였다. A조 김경원 대장(수산대85, 현 부경대)과 대원으로 박용길(수산대86, 현 부경대), 김후성(부산교대89), 장정웅(한국해양대), 주상일(수산대, 현 부경대), 김부근(한국해양대90), 임만식(한국해양대), 박종규(부산대90) 8명의 대원으로 설악골 베이스캠프를 시작으로 천화대, 권금성, 화채봉, 대청봉, 희운각, 마등령, 금강굴, 장군봉, 적벽, 칠형제봉, 울산암 R.C 후 설악골 베이스캠프로 복귀하였다.

B조의 경우 산행대장 김종서(해양대87), 대원으로 이상수(수산대86, 현 부경대), 소자호(해양대89), 정병화(인제대89), 이영기(수산대, 현 부경대), 임동호(부산대90), 양현도(부산교대90), 김만호(해양대90), 이규(해양대90) 총 9명의 인원으로 수렴동계곡으로 시작으로 용아장성, 봉정암, 희원각 설악골 베이스캠프 후 염라길, 천화대, 칠형제봉, 장군봉, 마등령, 희운각, 대청봉, 화채능, 흑범길 후 베이스캠프로 운행하였다. C조의 대장으로 박용표(수산대86, 현 부경대) 대원으로 김주식(인제대86), 최현(수산대89, 현 부경대), 박동석(인제대89), 최석민(수산대90, 현 부경대), 임원록(해양대90), 정원섭(해양대90), 신상수(해양대90), 박종화(부산교대90) 9명의 대원으로 남교리 십이선녀탕을 시점에서 대승령, 서북주능을 거쳐 중청, 희운각, 설악골 베이스캠프 후 칠형제 릿지, 장군봉, 비선대, 적벽 R.C, 천화대 릿지 후 석주길, 흑범길 후 베이스캠프로 복귀하였다.

D조로는 대장 임정순(춘해간전88, 현 춘해보건대), 장소라(춘해간전88, 현 춘해보건대), 박순희(부산여전99, 현 부산여대), 배현주(부산여전89, 현 부산여대), 최봉금(부산여전89, 현 부산여대), 권숙경(부산여전90, 현 부산여대), 박경은(춘해간전90, 현 춘해보건대), 박미정(부산여전90, 현

부산여대), 류상희(인제대90), 우경애(춘해간전90, 현 춘해보건대), 강승구(수산대84, 현 부경대)의 11명의 대원으로 남교리 십이선녀탕을 기점으로 서북주능, 대청, 희운각, 설악골 베이스캠프 합류 후 천화대, 오세암, 수렴동, 용아장성, 봉정암, 공룡능선, 마등령을 거쳐 설악동 베이스로 복귀하는 코스로 운행하였다. 마지막 E조 대장으로 이상주(춘해간전88, 현 춘해보건대), 박미선(부산여전85, 현 부산여대), 김희영(부산여전89, 현 부산여대), 이경희(춘해간전88, 현 춘해보건대), 원선희(부산교대89), 강미영(춘해간전90, 현 춘해보건대), 한영숙(춘해간전90, 현 춘해보건대), 손소영(부산여전90, 현 부산여대), 박소영(부산여전90, 현 부산여대), 강수영(인제대90), 이순애(춘해간전90, 현 춘해보건대), 이상수(수산대86, 현 부경대) 12명의 대원이 참여하여 설악산 소공원 신흥사를 시작으로 내원골, 황철봉, 마등령, 공룡능선, 희운각으로 설악로 베이스캠프로 이동 후 천화대, 오세암, 수렴동, 용아장성, 봉정암, 칠형제봉릿지, 장군봉을 거쳐 설악골로 베이스캠프로 돌아오는 운행을 하였다. 이렇듯 총 5조 41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80년대 들어서면서 여학생 회원의 증가를 뒷받침하듯 여학생의 참여 인원이 20여 명으로 당시의 상황을 잘 대변하는 하계 등반 합동 산행이었다.

1990년 제2회 부산학생산악연맹 암벽등반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다.

연맹 주최로 9월 22일에서 23일 양일간 한국해양대학교 해벽 '마켄나'에서 대회장 최상문회장 주최로 심판장 황순철 부회장, 심판 위원으로 정승오(해양대79), 이성규(수산대80, 현 부경대), 엄주삼(해양대81), 김규태(부산대82), 진행위원장 차광훈(부산교대87) 대표상임위원, 진행위원으로 이상수(수산대86, 현 부경대), 김종서(해양대87), 김선철(해양대87) 등이 대회를 주최하고 운영하였다. 등반 방식으로 추첨에 의해 1일 on sight 톱로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가 대학으로 부산교육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부산대, 경남공전, 부산여전(현 부산여대), 춘해간전(현 춘해보건대), 인제대, 동의대 10개 대학 총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22일 첫째 날 남자 예선(기존과 조개길 17m, 5.106b) 실시하여 완등자 3명이었고, 여자예선(포세이돈길 하단부 10m, 5.8)을 실시하여 완등자 10명이었

고 그중 본선 진출자 남자 10명, 여자 9명이 선발되었다. 저녁 식사 후 소강당에 집합하여 본선 진출자 통보와 이론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대회는 1회와 다르게 자유토론을 실시하였다. "자유등반이 대학 산악부에 미치는 영향과 그 수용 자세"라는 주제로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하여 대학 산악부로서의 아카데믹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도 되었다. 둘째 날 아침 기상과 함께 태종대와 운동장 구보와 오리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조식 후 해벽에 도착 여대부 본선부터 시작하여 대회를 실시하였다. 여대부의 코스로는 포세이돈 하단부 약 11m(5.9a)로 완등자로 원선희(부산교대89), 배현주(부산여전 89, 현 부산여대)이 완등하였고, 남대부의 본선은 석양길과 기존 중간 루트 17m(5.11a)로 진영상(동의대 85)이 완등하였다. 수상내역으로 남자부는 1위 진영상(동의대 85), 2위 김후성(부산교대89), 3위 최기영(경남공전89, 현 경남정보대)가 받았으며, 여대부의 1위 원선희(부산교대89), 2위 배현주(부산여전89, 현 부산여대), 3위 이상주(춘해간전88, 현 춘해보건대)이 수상하였다.

1990년 제2회 기술교류회 한국해양대학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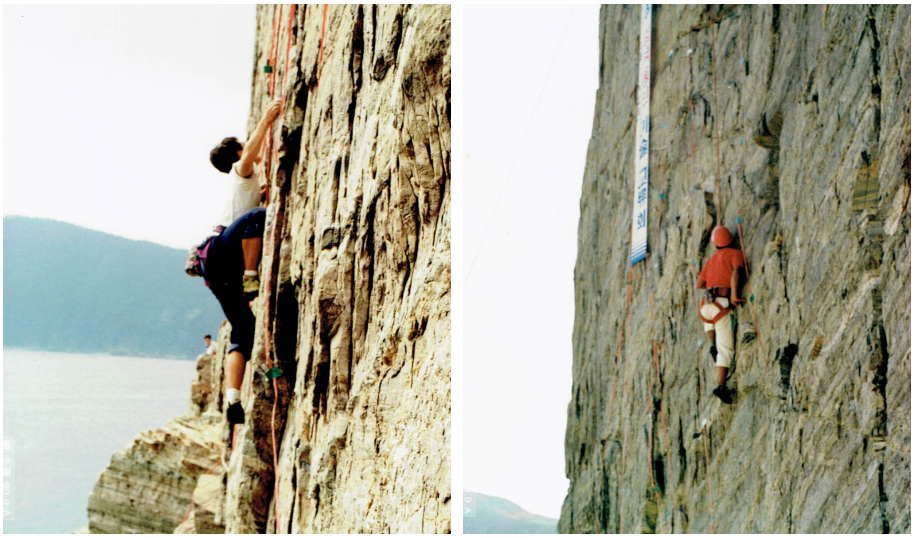
1990년 제2회 기술교류회 해벽에서 선수의 RC



1990년 제2회 기술교류회 해벽에서 대회를 지켜보는 회원들







1990년 제2회 기술교류회 해벽에서 선수의 RC

또한 단체상으로 부산교육대, 이론시험으로 수산대, 노력상으로 김부근(해양대 90), 한영숙(춘해간전90, 현 춘해보건대)이 수상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축구시합과 각 단대 장기자랑 시간을 가진 후 해산하였다.

1991년 부산학생산악연맹 춘계 합동 R.C를 영남 알프스 일원의 팀별 산행과 백운대 슬랩을 하다.

4월 27일부터 28일 연맹 산하 12개 단대의 지도교수 OB 및 재학생 총 80여 명이 참여하여 합동 산행을 실시하였다.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출발 지점을 달리하여 마지막 베이스캠프인 백운대로 모이는 방식으로 표충사 팀은 한국해양대 6명, 부산공업대 3명, 동주여전 2명이 한 팀으로 밀양역에서 표충사, 고사리분교, 천황산, 얼음골, 백운대 코스로 운행하였고, 석남사 팀은 부산교육대, 경남공전, 동주여전 2명, 춘해간전, 부산교육대로 언양에서 석남사, 쌀바위, 가지산에서 백운대코스, 석골사 팀은 부산여전, 동아대, 인제대, 부산대 팀으로 밀양에서 석골사, 딱발재, 운문산, 아랫재에서 백운대로 오는 코스로 종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운행되었다. 다음날 28일 기상구보와 함께, 좌벽, 우벽, 중앙벽, 숨은벽 4개 조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숨은벽은 어프로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간단한 중식 후 해산하였다.



1991년 영남알프스 간월재 산행모습

1991년 연맹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6월 6일 한국 해양대학교 운동장에서 경남전문대학(현 경남정보대), 동아대, 동주여전(현 동주대학), 부산공업대(현 부경대학교 용당), 부산대, 부산여전(현 부산여대), 수산대(현 부경대 대연), 인제대, 춘해간전(현 춘해보건대), 한국해양대 10개 대학 총 73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다. 09:00 집합하여 개회식 후 남녀 혼성 축구와 여자 발야구 경기를 하였으며, 점심 식사 후 해대 인공홀 등 등반 시범도 있었다. 14:00 남녀 혼성 피구 및 달리기. 씨름(남자 5명, 여자 3명)를 하였다. 16:00 마라톤을 운동장에서 방파제-앵카탑을 여자 1바퀴, 남자 5바퀴 - 방파제- 운동장 코스로 진행하여 남자 일등은 김철훈(해양대 87), 여자 우승은 차영순(동주91)이 차지하였다. 17:00 종합우승 남자 해양대 여자 동주여전 아차상 부산여전을 시상한 후 폐회하였다. 이후 뒤풀이가 이어졌다.

1992년 부산학생산악연맹 동계 초급반 훈련을 실시하다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1월 7일부터 14일 7박 8일의 일정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초급반 동계 훈련을 실시하였다. 기초 설상 및 빙벽훈련과 팀워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1학년 초급반 A조와 B조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첫 날부터 많은 눈이 내려 죽음의 계곡까지 러셀을 하면서 가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초급반 강사로 정광용(해양대88), 이윤현(해양대88), 고문희(동아대88)이 지도하였고 총 23명의 대원이 참가하여 훈련을 받았다. 피켈 명칭부터 사용법, 설상 보행법, 피켈 쥐는 법, 글리세딩방법, 제동방법 등을 훈련하였다. 또한 W.K 훈련은 4개 조로 나누어 운행하였다. 그중 3조의 대원으로 김석수(부산교대86), 남현욱(부산공대86, 현 부경대), 이형순(부산여전90, 현 부산여대), 김형준(부산공대91, 현 부경대), 손상전(동아대91), 정대성(동아대91), 장선희(동주여전91, 현 동주대), 정영숙(부산여전91, 현 부산여대) 8명으로 양폭, 설악골, 좌골, 범봉을 거쳐 설악골, 좌골, 희운각, 양폭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하였다. 마지막 날 우수 훈련대원으로 이재규(동아대91)과 강윤경(부산여전91, 현 부산여대)에게 선물 증정을 하고 마무리하였다.

1992년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설상 및 IC 훈련







1992년 동계 훈련 후 단체사진



1992년 전국대학산악연맹 5차 모임 겸 체육대회를 11월 28일에서 29일 1박 2일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개최하다.

1992년 초에 서울 경인지역의 한국 대학산악연맹 재학생을 중심으로 산악운동의 정체를 거부하며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대학산악부가 지금 변화와 발전의 몸짓을 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규모의 대학산악연맹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시 재학생회장 주체로 8월 23일 서울 경희대 합숙소에서 첫 모임을 가져 각 지역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전국대학산악연맹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인지역 한국 대학산악연맹(K.S.A.F)은 1971년 3월에 발족하였으며 현재 50개 대학이 가맹되어 있으며, 충청북도학생산악연맹(C.B.S.A.F)은 1982년 출범하여 현재 7개 대학이 가맹, 대전충남학생산악연맹(.D.C.S.A.F)은 1990년 4월에 출범하여 현재 19개 대학, 전라북도 학생산악연맹(J.B.A.S.F)은 1963년에 10개 대학산악부가 창립하였으며 현재 9개 대학 가맹,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K.J.S.A.F)은 1961년 출발하여 현재 23개 대학,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은 1957년 2월 결성된 후 그 일원으로 활동하던 중 1985년 대구경북대학산악연맹(T.K.U.A.F)이란 명칭으로 경북 학생산악연맹에서 재출범한 후 현재 8개 연맹과 2개의 준 연맹이 있다. 경남학생산악연맹(G.S.A.A)은 1990년 3월 30일 경남대, 경상대, 경상의대, 창원대, 창원기능대, 창원전문대, 울산대, 울산전문대 등 8개 대학이 모여 창립하였으나 현재 6개 대학 가맹, 강원학생산악연맹은 결성된 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하였으며, 제주는 연맹이 결성되어 있지는 않았다. 첫 만남이라 상견례를 하고 9월 5일 충북 ㈜태인에서 개최되는 전국 대학산악인 지도자 강습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2차 모임은 9월 5일 당시 한국 대학산악연맹 회장인 이인정 회장의 회사인 충북 ㈜태인에서 있었다. 참석자로는 한국 대학산악연맹의 양은숙(이화여대89),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의 박헌주(전남대86),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의 김기범(영진전문대87),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하태웅(인제대88), 충북학생산악연맹의 이동순(서원대87), 충남학생산악연맹의 김효겸(충남대86), 전북학생산악연맹의 이종하(원광대89), 경남학생산악연맹의 이인우

(창원대86), 강원학생산악연맹의 김익준(관동대87), 제주대 산악부의 김영균(제주대87)등이 모여 밤샘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명칭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가칭 전국 대학산악연맹 창립 준비 위원회로 정하고 차기 모임에서 발족하기로 하였다.

3차 모임은 9월 30일 대전 충남대 산악부실에서 있었다. 이때 전국 대학산악연맹 결성을 위한 준비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전국 대학산악인 체육대회 개최를 의결하였다.

4차 모임은 10월 20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렸고, 5차 모임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 해양대에서 전국 산악인 체육대회를 겸해 열렸다. 이 모임에서 1993년도 재학생 임원진이 교체되어 준비 위원장으로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재학생 회장인 박도영(목포대87)을 선출하였다.

이후 7차 모임이 93년 3월 26일 고려대에서 열렸고, 8차 모임이 5월 27일 광주에서, 9차 모임이 7월 5일 전북대에서, 임시 회의가 8월 21일 서울 동궁예식장에서 10차 모임이 9월 11일 경북대에서 11차 모임이 11월 18일 한림대에서 열렸다. 제2차 전국 대학산악인 체육대회에 12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으나 이후 활동이 미약하여 동력을 끌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때 다진 전국 단위의 대학산악인 간 우정은 추후 활발한 동기 모임 등으로 이어지며, 현재 영호남 합동등반의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1993년 인공암벽 기술교류는 계속 이어졌다.

11월 13~14일 양일간 경남전문대학 인공암장에서 황순철 대회장 이하 김태권 대회 본부장을 필두로 기술 등반 보급의 활성화와 가맹단체 간의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예선인 13일 오전에는 비가 와서 선수들이 많이 미끄러워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오후에는 날이 개어 여자 예선을 치르기도 하였다. 14일 결승의 결과를 보면 남자 일반부 1위 박원형(경남공전85, 현 경남정보대), 2위 동의대학교 OB, 3위에 이남국(경남공전77, 현 경남정보대)이 수상하였고 남자 대학부에서는 1위 박용진(동의공전 93,

현 동의과학대), 황태웅(동아대 92), 3위 조벽래(동아대 88), 여자대학부 1위 김남희(동주여전93, 현 동주대), 2위 서은영(동아대 92), 3위 정인숙(동주여전 88, 현 동주대), 장려 서춘경(춘해간전93, 현 춘해보건대)이 수상하여 부산학생 산악연맹 간의 인공암벽 등반 기술교류회를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1993년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좌담회를 실시하다.

산악부의 신입부원 및 재학생 수의 부족과 탈퇴, 재학생의 부재 등 단대마다 고민이 되는 것을 부산학생산악연맹에서 현안을 다루어 처음으로 좌담회를 실시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연맹 내에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여 현재의 연맹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같이 의논하고자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당시 좌담회에 참여한 회원들의 당시 내용을 그대로 올려 당시 연맹인들의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

김병진(동아대88) "과거의 산악부는 현재보다 산 자체를 더욱 중시하였고 어떻게 보면 종교화했다고 보이며 산악부 자체 규율을 엄격히 하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옛날보다 장비라든가 물질 면에서 앞서지만 사람 수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정열도 선배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산악부원들의 확보가 가장 문제인 것 같다. 산악부의 모습도 이런 신입 부원 확보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우섭(해양대88) "산악부의 현재는 너무 암벽 등 산에 오르기 위한 것 자체에만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면과 같은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선후배간에도 당위성을 제시하고 후배의 수긍을 이끌어 내어야 하며 너무 강압적인 지시는 불만 사항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연맹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활동이 너무 부실하다. 조직체의 내실이 필요하다."

전혜정(동래여전90, 현 동부산대) "동기들 간에도 암벽이나 워킹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암벽보다는 워킹으로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인숙(동주여전88, 현 동주대)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실내 인공암장에 눈을 돌려봄직도 합니다. 그리고 산에 직접 오르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 봄 직합니다."

김미옥(동아대88)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산악부의 모습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부산대88) "일본에 가 보았는데 일본은 등산문화가 많이 뿌리내린 것이 생계에 대한 걱정이 적어서인것 같다. 우리도 생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 좀 더 다른 경험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유영재(부산전문대89, 현 부산과기대) "산악부원의 수는 시대의 흐름을 많이 따르는 것 같다."

김영미(부산교육대92) "등산인구도 많아지고 또한 암벽의 기술 및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산악부 자체는 침체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학 산악부의 성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주말 산행에 가치를 부여하여야 하나 1박 2일을 꼬박 산악부에 투자하는데 부담감을 느낀다. 그리고 산악부가 자체 추구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못하는 사람도 모두 포용하는 산악부 자체 내의 성격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산에 가냐 하는지를 질문하면 그냥 가야한다는 식의 대화의 결핍증, 즉 대학산악 문화 자체의 부족성이 탈퇴자를 낳는 원인인 것 같다."

성낙윤(부산공업대92, 현 부경대) "산악부 신입부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입부원의 탈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탈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행 자체보다는 산악부 자체에 대한 회의가 더 많고 특히

선후배 간의 관계에 대한 불만, 인간 대 인간의 대화보다는 산악부 전통을 너무 앞세우는 체계로 인하여 진실한 대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결국 복종과 수동적으로 성취감을 느껴 탈퇴하므로 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탈퇴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류보현(동아대89) "15개 연맹에 속한 산악부들이 팀의 특징이 없는 것 같다. 서로 강한 자기의 개성을 확실히 한다면 어떤 성격 규정에서 오는 방향 상실성도 없어지리라 생각한다."

정영훈(부산대92) "가끔 작은 배낭을 메는 건 수치로 여기고 비난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다른 단대가 하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연맹이 좀 더 모이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찬(부산공업대93, 현 부경대) "연맹 주체의 주말 산행, 즉 대장 한 명과 기수별의 산행을 한다면 좀 더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장

성장을 위한 결속을 추구하다

1994년~ 2000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



2008년 백운대에서('사람과 산'에 소개된 연맹)

‘성장을 위한 결속을 추구하다’상황보고서(1994~2000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94년 03월 30일	제27차 정기총회	수산대학교	최해곤,박준범 외	15개대학 100여명
1995년 03월 28일	제28차 정기총회	동아대 교수회관	최해곤.김부근 외	
1996년 03월 28일	제29차 정기총회	국제신문사 중강당	김정실,정경두 외	15개대학 100여명
1997년 03월 26일	제30차 정기총회	금정구청 대강당	김정실.임동환 외	16개대학 150여명
1998년 03월 26일	제31차 정기총회	경남정보대 민석과	김정실,장종욱 외	
1999년 03월 23일	제32차 정기총회	경남정보대 건설관	김정실.임성오 외	
2000년 04월 14일	제33차 정기총회	동의공업대 세미나실	정성호.김환세 외	

산행 및 훈련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94년 01월 07~12일	동계합동훈련	설악산	14개대학 100여명	죽음의계곡,용소골,토막골,토왕폭
1994년 04월 30일~05월 01일	춘계합동 R.C	금정산	13개대학80여명	무명암,부채암,장군암
1994년 09월 24~25일	제2회 인공암벽대회	경남정보대	90여명	
1994년 10월 22~23일	추계합동 R.C	백운산	12개대학50여명	
1994년 12월 23일~1995년 1월 1일	백두산 학술조사 등반	백두산	15명	북경,연길,백두산,장백폭포,천지,송하,연길
1995년 01월 06~12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80여명	토왕골,죽음의계곡,잣골,토막골,육담폭
1995년 05월	춘계합동 R.C	백운산		
1995년 08월	하계산간학교	금련산수련원		
1996년 01월 05~11일	동계등산학교 실기강의	설악산	14개대학 66명	죽음의계곡,용소골
1996년 02월	산악스키강습	무주		
1996년 04월 27~28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1996년 11월 09~10일	추계합동 R.C	금정산	9개대학 78명	
1997년 01월 15~11일	동계등산학교 실기강의	설악산	14개대학 66명	초급,중급으로 운영,양폭B.C,죽음의계곡,용소골,잣은바위골,칠선골,토왕골
1997년 4월 12~13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1997년 9월 20~21일	제4회 암벽대회	승학산	12개대학 70여명	
1997년 10월 18~19일	추계합동 R.C	금정산	3개대학 40여명	
1997년 11월 30일	3단체산행	기장 달음산	3개단체 50여명	
1998년 01월 05~11일	동계합동등반	설악산	12개대학 50여명	
1998년 05월 02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11개대학 70여명	초급,중급으로 나누어 R.C
1998년 06월 14일	연맹 OB 산행	천성산		내원사-정상-미타암-백동마을
1998년 06월 21일	지도자 강습회	김해 정병산	대학부장급,이사진 15명	독도법,의료,운행,장비

산행 및 훈련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98년 06월 27일	백두대간 합동 종주발대식	동의공업대 세미나실	15개대학 70여명	종주대발대식 백두대간 이론강좌, 지원금전달
1998년 07월 1~11일	백두대간 구간별 종주	백두대간 구간종주	12개대학 46명	지리산에서 설악산 저항령까지 총 7구간 동시산행, 완료
1998년 07월 25~26일	백두대간 종주 보고회	간월산 자연휴양림	재학생20여명 졸업생30여명	
1998년 09월 26~27일	제 5회 암벽등반대회	무척산일대 암장	선수36명외 30여명	
1998년 11월 29일	3단체 합동산행	금정산일원		어린이대공원-남문
1999년 01월 06~12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15개대학 72명	초급6개조, 중급3개조 로 나누어 죽음의계곡, 용소골,토막골 등
1999년 05월 08~09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2000년 01월 17~23일	합동동계훈련	설악산		
2000년 04월~10월	장애우 안내등반	금정산,달음산 가지산,지리산		
2000년 12월 10일	3단체산행	금정산		

기타행사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1994년 05월 21~06월 11일	여학생등산학교			3차례 교육
1994년 05월 28일	친선체육대회	부산공업대학교	100여명	
1994년 11월 05~06일	연맹제	금정산		
1995년 03월 26일	금정산맥 창간			창간호
1995년 07월 01~02일	제1회 하계산간학교	황령산	강사 : 김정실,정민규 이상주,이기석,김규태 권경업,정오철	강의,비디오상영, 분임토의,캠파이어 설문조사
1995년 8월	연맹이사회 하계수련회	진하해수욕장		
1995년 11월 05~06일	연맹제	금정산		
1995년 12월 21~23일	동계등산학교 이론교육	동의공업대		등산예절,등반사,동계막영 버브기술등반,매듭법 등
1996년 06월 06일	친선체육대회	부산전문대	110명	
1996년 11월 09~10일	연맹제	금정산	73명	
1996년 12월 22~23일	동계등산학교 이론교육	동의공업대	70명	
1997년 06월 01일	친선체육대회	부산외국어대학교	70명	
1997년 10월	산소식발간			
1997년 11월 01~02일	연맹제	부산외국어대 운동장		
1997년 11월 20일	각 대학 재학생 부장 연석회의	연맹회관		
1998년 10월 31~11월 01일	연맹제 및 체육대회	부산외국어대 운동장	15개 90여명	
1998년 12월 21~22일	동계산간학교	동의공업대학	15개대학 50여명	산악강좌, 비디오상영, 응급처치 등
1999년 11월 06~07일	연맹제	금정산		
2000년 11월 04~05일	연맹제	금정산	100여명	

1994년 12월 23일~1995년 1월 1일 백두산 학술조사 등반을 하다

'94 부산학생산악연맹 백두산 동계동반'
'94 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
MT. BAEK-DU WINTER SEASON CLIMBING

1994년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최해곤 회장 재직 당시 민족의 산 우리나라 최대의 산인 백두산 등반을 88년부터 시도하다가 몇 번의 좌절을 겪었으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여러차례 개칭을 거쳐 마침내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 3월 정기총회의 이사회 안건으로 인준되어 여러 선후배의 격려 속에 출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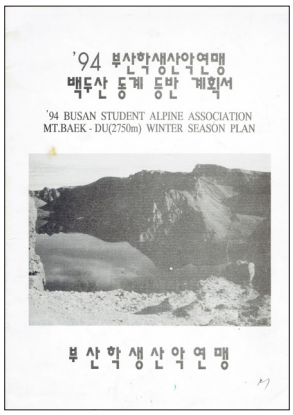
이번 백두산 등반은 앞으로 여러 악우들의 고산 거벽 등반의 초석이 될 것이며 연맹의 발전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첫 시작의 발걸음으로 5월 28일에서 29일 1박 2일의 양산 다방리에서 범어사 간의 야영과 암벽등반 훈련을 시작으로 밀양 백운산 등 장기 등반 훈련을 가졌다. 5차의 합동훈련 및 5차의 육상훈련을 실시 한 후 백두산 등반을 출발하였다. 당시 대표 상임위원인 박준범(부경대 89)은 등반을 준비하며 그동안 연맹의 암울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선배들의 맥을 잇고 또한 자라나는 우리 후배 악우들의 '흰 산'의 염원을 다지기 위하여 고군분투 열심히 준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선후배의 염원이 담긴 등반대는 '94 부산학생산악연맹 백두산 동계 등반대'라는 이름으로 백두산(2750m)를 이도백하에서 천문봉을 빙벽, 설벽, MIX CLIMBING 루트로 1994년 12월 20일부터 29일 9박 10일의 여정으로 황순철고문의 지도로 14명의 악우가 등정할 수 있었다.

1994년 베이스캠프에서 바라본 장백폭포



당시 정민규(동아대

75) 대장의 '천지에 올라 눈물로 부른 애국가'라는 주제로 국제신문을 통해 감동을 전하고 있다.



등반개요

등산대명 : 94 부산학생산악연맹 백두산 동계 동반'
'94 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 MT. BAEK-DU WINTER SEASON CLIMBING

대상산 : 백두산(2750m)

등반루트 : 이도백하천문봉, 빙벽, 설벽, MIX-CLIMBING

기간 : 1994년 12월 23~1995년 1월 1일(9박 10일)

대원 :

지도교수	황순철	부산여전(현 부산여대)지도교수	수송포장	박준범	부산공업대89(현 부경대)
대 장	정민규	동아대75	재 정	초라미	부산교대92
등반대장	이상헌	경남전문대77(현 경남정보대)	장 비	박범식	동아대92
행정섭외	하태웅	인제대88	장 비	박용호	부산전문대93(현 부산과기대)
촬 영	정지택	경남전문대77(현 경남정보대)	식 량	전윤주	부산공업대90(현 부경대)
촬 영	최화영	부산공업대89(현 부경대)	식 량	박선희	춘해간전92(현 춘해보건대)
의 료	구희정	춘해간전92(현 춘해보건대)	기 록	한달권	부산외대88
의 료	최가현	부산여전93(현 부산여대)			

목적 : 백두산 천문봉 및 천지 등반
전대원 장백폭포등반
백두산 자연보호 및 생태계연구
용정동포 마을 방문
금정산과 백두산의 만남

훈련보고

1994.3.30. 제 27차 부산학생산악연맹 정기총회에서 '94 부산학생산악연맹 백두산 학술조사 원정안 의결 통과

1994.6.4~6. 영남 알프스 일원으로 1차 합동 훈련실시
1994.7.2~3. 낙남정맥 김해 신어산으로 2차 합동훈련
1994.8.27~28. 금정산 3차 합동훈련실시
1994.10.1~3. 제 4차 훈련을 고헌산, 가지산, 백운산RC에서 실시
1994.10.25. 1차 육상훈련을 부산교육대에서 실시
1994.11.2. 2차 육상훈련 실시
1994.11~13. 제 5차 훈련을 금정산 야간산행을 실시
1994.11.19. 제3차 육상훈련
1994.11.25. 제4차 육상훈련
1994.12.2. 제5차 육상훈련
1994.12.10~11. 6차 합동훈련으로 금정산 종주 산행
1994.12.15. 원정대 발대식
1994.12.23. 원정대 출국

운행보고

일 자	운 행 일 지
1994년 12월 23일	부산(08:20) 서울(10:30) 북경
12월 24일	북경(08:20) 장춘(20:10) 연길(25일 05:30)
12월 25일	연길 송강 두견산장
12월 26일	두견산장 고산스키 훈련장 흑풍구 기상대 천문봉 기상대
12월 27일	기상대 천문봉 흑풍구 두견산장 온천장 B.C구축
12월 28일	B.C 장백폭포 B.C
12월 29일	B.C 장백폭포 , 건폭 B.C 철수 장백산장
12월 30일	장백산장 (JEEP) 장백산 입구 송강 연길
12월 31일	연길(09:50) 심양
1995년 01월 01일	심양(11:20) 서울(15:30) 부산

1994년 길림 조선족자치주 관광성 간부와 면담



1994년 두견산장 로비에서





1994년 두견산장 앞



1994년 흑풍구 능선 워킹



1994년 천문봉 아래 합수, 합토식 후 기념촬영



1994년 천문봉 기상대에서

당시 백두산 천지에서 일출의 벅찬 감동을 한달권(부산외대88)회원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백두산 해돋이! 만물을 소생시키고 미지의 세계를 일구듯 서광을 비추는 형상은 천 길 낭떠러지에 몰아쳐 오는 눈보라 초차 따뜻하게 밀리는 신비의 힘을 지닌 대자연의 동화이다. 동그랗게 떠오른 해를 뒤로 한 대원들마다 백두산 정기를 받아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며 괜스레 웃음 띠고 촬영 대원 화영이는 일출 풍경을 놓칠세라 천문봉 맨 꼭대기에 파노라마 작업에 한창이다. 모두 상쾌한 기분이다. 어디에 견줄 수 없는 대자연의 진리 앞에 조그만 가슴은 더없이 넓어진다"

1994년 천문봉에서 바라본 장군봉



1995년 1월 1일 백두산 일출



1994년도 제1차 여학생 등산학교를 실시하다.

90년 대 이후 계속해서 여학생 재학생이 많아지는 데 비하여 여학생을 전담으로 교육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하였고, 특히 여학생을 리더로 배출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학생 등산학교를 실시하게 되어 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연맹의 여학생회에서는 여학생의 등산학교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연맹 여학생회 이사였던 김희영(부산여전89) 주최하에 5월 21일부터 6월 12일 3주간 정체된 여대부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학년의 리더십 배양, 저학년의 산에 대한 기본자세와 정신관 확립. 단 대별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차 교육으로 5월 21일부터 22일 1박 2일로 실시되었고, 강사진으로 김희정(수산대83, 현 부경대), 김재숙(동주여전88, 현 동주대), 김희영(부산여전89, 현 부산여대), 김선옥(동주여전90 현 동주대), 이동현(부산여전92, 현 부산여대), 김지영(동주여전92, 현 동주대), 김운정(동주여전92, 현 동주대)등이 구성되었으며 재학생인 교육생으로 김영희(동주여전93, 현 동주대), 김남희(동주여전93, 현 동주대),최영선(동주여전93, 현 동주대), 오수미(부산여전93, 현 부산여대), 최가현,(부산여전93, 현 부산여대) 김지영(동주여전92, 현 동주대), 김현영(부산여전94, 현 부산여대), 최영란(부산여전, 현 부산여대) 8명이 참석하였다.

1차 교육은 금정산 무명암과 장군암에서 실시되었고 기초 암벽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산악부원들과 신입생 모두가 암벽 등반에 퍽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도의 부족으로 기술 습득으로 아직은 많은 것을 배우고 정보 교환을 하며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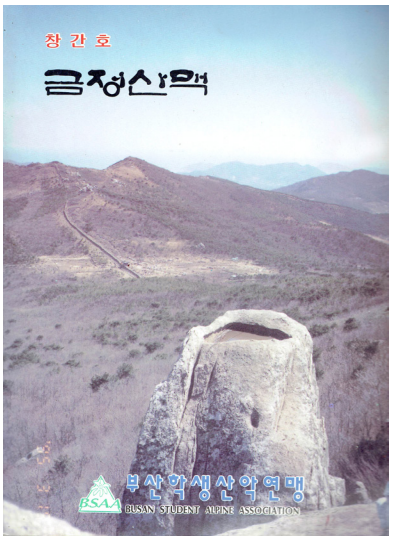
2차 교육은 6월 4일부터 6일 2박 3일로 강사진으로 김인숙(동아대82), 김희정(수산대 83, 현 부경대), 김희영(부산여전89, 현 부산여대), 이동현(부산여전92, 현 부산여대)이었고 교육생으로 서춘경(춘해간전93, 현 춘해보건대), 김미옥(동주여전93, 현 동주대), 이은경(동주여전93, 현 동주대), 최영선(동주여전93, 현 동주대), 정현경(동주여전, 현 동주대), 권미

영(동주여전, 현 동주대), 김현영(부산여전94, 현 부산여대), 김지영(동주여전92, 현 동주대), 김혜인(부산여전, 현 부산여대), 정영자(부산교대), 한유희(부산교대) 모두 12명이 참여하여 백운산과 영남알프스에서 교육하였으며 2학년들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교육생의 암벽등반이 산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교육하였지만 실제로 부원들의 산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체력관리가 부족하였다. 또한 장비 계획과 식량 계획이 미흡하였고, 지도와 실제 지형을 비교해 가는 것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3차 교육은 6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 과정으로 금정산 대륙암과 무명릿지, 무명직벽 등반을 하였으며 강사진으로 문진아(부산교대81), 김인숙(동아대82), 김희정(수산대83, 현 부경대), 김희영(부산여전89, 현 부산여대), 조삼덕(부산여전85, 현 부산여대), 이동현(부산여전, 현 부산여대)의 강사로 교육생은 문지환(동래여전, 현 동부산대), 문영미(동래여전, 현 부산여대), 이지영(동래여전, 현 부산여대), 최가현(부산여전, 현 부산여대), 오수미(부산여전, 현 부산여대), 김지영(동주여전92, 현 동주대), 김현영(부산여전94, 현 부산여대), 최영란(부산여전, 현 부산여대), 김미옥(동주여전, 현 동주대), 김남희(동주여전93, 현 동주대), 김소연(동주여전, 현 동주대), 김영희(동주여전93, 현 동주대), 초라미(부산교대90) 총 15명이 참여하였다.

3차 교육에서는 기술 등반과 암벽등반 중 비상 막영 사태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자주 접하는 바위라 소홀히 대한다든지, 번거롭다고 별거 아니라는 무사안일주의 생각으로 확보를 등한시하는 것 등을 고치고 언제나 안전을 실천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은 토요일 인원보다 일요일 당일로 참석하는 교육생이 많아 등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나비암으로 이동하여 볼더링을 Top-Roping 방식으로 Rotation 등반을 하였다.

1995년 부산학생산악연맹의 맥이 되어줄 '금정산맥'학술지를 창간하다.



'금정 산맥'은 '산소식'의 새 이름이다. 1995년도 상임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되었으며 과거 연맹 소식의 전달과 교류를 위한 「산소식지」가 이제 연간 발간되는 학술지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금정산을 모태로 하는 연맹인들의 삶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말로 '금정 산맥'이 탄생하였다. 당시 발간위원장인 최해곤회장(동아대64)의 발간사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연맹의 회지인 '산소식'은 모든 행사와 산악계의 활동을 알리는 의미로 직접 검은 잉크를 묻히면서 통행금지 시간 임박한 시간까지 등사판을 밀면서 책을 만들어 학교별로 배부하였다. 비록 조그마한 책자로 처음에는 두달에 한 번, 분기별로 만들어 연맹이나 산악계의 소식을 알차게 전달하였고,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영역을 폭넓게 취급하며 성장해 왔다. 이에 연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형적인 것보다 내실적인 면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적 연구를 하면서 등산도 이제는 심도 있는 학문의 영역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로 '금정산맥'을 발간하게 되었다. 나아가 부산학생산악연맹의 독특한 영역을 가지기를 바라며 남보다 더 많이 땀 흘려 노력해서 여러 회원도 발전하고 연맹도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1995년 부산학생산악연맹 행사에 관한 연맹인의 의견을 조사하다.

1995년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였고 그동안 많은 행사가 년마다 실시되고 있었다. 그중 크고 작은 행사들도 있고 최근의 행사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행사는 선후배의 발자취요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흔적과 역사를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사를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원 부재 현상이나 연맹 고

유의 산악문화 빈곤 등에 대하여 연맹 스스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여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기 위해 조사 연구를 편집부에서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 및 대상은 편집부에 모여 설문지를 만들어 11월 21일 동의공업전문대학(현 동의과학대)에서 제13차 연맹회의 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2월 5일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한 14차 회의 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53부가 회수되었고 학번 분포는 89학번에서 94학번 까지로 94학번이 33명 62.2%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1) 춘·추계 합동 RC에 관한 건으로 연맹체의 증가와 함께 연맹인의 양적 팽창, 그리고 연맹 행사의 실질적 내실이 대두되고 있는 춘. 추계 합동 RC의 의견을 보면 이론과 RC의 병합훈련을 가장 선호한다고 47%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포괄적 등산 일반 이론교육, 순수 연합 등반, 기수별 RC 훈련,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전적인 분위기를 보아도 순수 연합 등반보다는 교육적인 면으로 치중하여 단대 부원의 자질 향상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대학 산악부의 아카데믹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술부의 활동에 대한 발전적 의견으로는 서술식 답변을 받았으므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가장 두드러지는 의견으로 기술부 차원의 이론적 정립의 필요성과 체계적인 교육, 기록의 보관 등을 지적했고, 저학년과 기술부 요원이 아닌 다른 사람도 알고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다.

3) 부산학생 등산대회에 관한 의견으로는 첫 번째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학생 등산대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너무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54.7%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다음으로 '현행대로 계속 실시'가 32%로 나타났다. 두 번째 채점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심판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57%, '공정하다'가 11.3%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세 번째로 부산학생 등산대회의 실시가 무의미하다고 답한 사람

에 대한 별도의 질문으로 어떤 내용의 등산대회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채점 내용과 근거를 제시, 정보 유출 조심, 전국 대회 양식과 비슷하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의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였고, 현행대로 계속 실시하자고 답한 대부분이 '공정하다'와 기타로 분산되어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대회 운영진에 신뢰를 할 수 없고 경기 진행 상황 사항은 형식적이고 마지막 결과도 공정하지 못하여 회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연맹 합동 RC에 대한 의견으로는 필요하다 32%보다는 단대 자체적으로 해결되므로 필요 없다가 47%로 더 많이 나왔다.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5) 인공암벽에 관한 의견으로 그동안 실시 자체에도 부정적인 소리가 많았던 반면 여론조사에서는 현재의 추세이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47%로 많았고 필요 없다고 답한 사람은 20%로 나타났다. 답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대회에 바라고 싶은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80%가 대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6) 연맹에서의 해외 원정에 관한 개인적 견해로는 찬성 64.2% 반대 20.8%로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이유로는 분위기와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자신의 원정 참여 의사를 직접 밝히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단대의 여건이 어려우면 규모나 재정 면에서 연맹의 힘을 모으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현재 연맹의 자금적 능력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하여 국내의 산에 눈을 돌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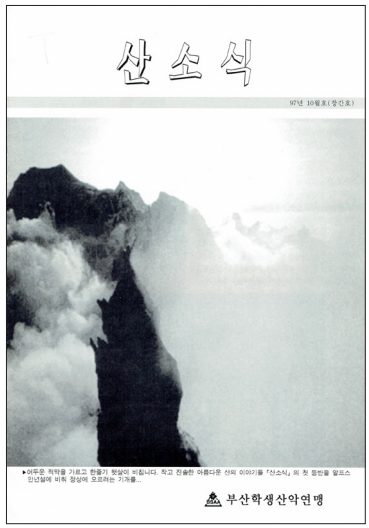
7) 연맹 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관한 의견으로는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이 65%이고 회의적인 의견이 13% 나왔다.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의 의견 중 기금 조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 제시하였는데 '행사나 바자회 개최' 'OB, YB의 협력으로 현금을 성의껏 조달' 'OB의 지원금 확보' '금정산에 만들자' '회관의 필요성을 알리자'등의 의견이 있었고 대소사를 함에 있어 구심점에 대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금 조성보다 우선 연맹인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며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먼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특이한 점으로 고학년의 경우 긍정이 높았고 저학년의 경우 소망적인 답과 무응답의 분위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획은 연맹의 현실의 처지와 연맹인 자신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실시되었고, 부산학생산악연맹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공존되는 연맹인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1997년 10월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편집부원을 결성하여 격월로 '산소식'을 발간하다.

연맹인들이 활동한 산의 이야기와 산을 가보고 싶어하는 악우들에게 산의 정보와 산행 지침이 적혀 있는 책자로 연맹 결속의 장으로 아우러지고자 하였다. 또한 일 년에 한 번 나오는 '금정 산맥'의 희소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맹의 여러 행사 및 소식, 축하 사연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자 격월로 '산소식'지를 발간하였다. 당시 김정실 회장을 필두로 편집위원으로 김미성(동주여전95, 현 동주대), 최경진(부경대93), 이호식(해양대94), 임동한(동아대93), 박지연, 한달권(부산외대88), 장경미(부산여전97, 현 부산여대), 정민정(부산대97) 등이 활동하였다. 내용으로 회원 동정, 배워봅시다 코너, 행사 및 각종 소식, 탐방, 문화가 산책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산 소 식
97년 10월호(창간호)
부산학생산악연맹


산소식 편집위원

제4회 암벽등반대회를 승학산에서 실시하다.

1997년 9월 20일에서 21일(1박2일) 제4회 암벽등반대회를 승학산에서 11개 단대가 참여하여 가맹 대학교 서로 간의 기술교류와 연마의 장이 되었



1997년 제4회 암벽등반대회(승학산)

다. 클라임을 하기에 최고의 날씨로 신선한 가을바람에 구름으로 적당히 가리어진 햇볕이 순조로운 대회 진행을 예고하듯 보였다. 대회는 남대부, 여대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여대부는 참가 선수 15명 중 6명, 남대부는 22명 중 11명이 예선을 통과했다. 난이도를 보면 여대부는 예선 5.8 결승은 5.9 남대분 예선 5.9 결승은 5.10이었다. 여대부의 경우 대부분 96.97학번이 대부분 참여하여 고학번 여성이 없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여대의 결과로 결승 코스가 시작이 접근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이곳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되었다. 우승은 고현선(동아대96), 준우승 박현주(동아대96), 장려상 김미성(동주여전96, 현 동주대) 선수가 차지하였다. 남대부의 결승은 우승은 김일형(동의공전93, 동의과학대학교) 준우승 최경진(부산공업대96, 현 부경대)이 차지하였다. 이어 일반부에서는 정광호(동아대90)선배는 '디디면 올라간다'할 정도로 너무 쉽게 오르셨고, 하정호(경남공전79, 경남정보대학교) 선배의 발레를 방불케하는 멋진 클라이밍 솜씨, 정민규(동아대75)선배의 나이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패기의 도전, 이기석(부산대74)선배의 폴짝 두발로 뛰어오르는 모습은 그날의 하이라이트였다. 모두 선수 못지않은 박수를 받았다. 예전보다 OB 참석률이 저조하고 인공암벽이 아닌 자연암벽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종전과는 다른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연맹의 친목을 다지고 기술 연마를 통해 해외 원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1997년 11월 1일부터 2일(1박 2일) 제26회 연맹제를 지내다.

매년 금정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맹의 행사로 이번에는 산불 예방과 자연보호의 기치 아래 금정산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남산동 소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였다. 날씨의 변덕처럼 운동장 사용 문제로 조그만 실랑이를 벌인 끝에 보금자리(텐트)가 하나, 둘 불을 밝혀져 20여 동이 쳐졌다. 내외빈 10여 명과 OB, YB 모두 모여 제단 앞에 추위를 감수하며 엄숙한 분위기로 김정실 회장님의 무사 산행의 감사와 기원을 담아 산신제를 올렸다. 회장의 초헌으로 시작되어 모든 연맹인들은 고당할매에 대한 무속의 믿음으로 연맹의 결속과 각 대학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이후 연맹 회관을 마련해준 홍보성(부경대74) 회원에게 감사패 증정을 실시한 후 레크리에이션의 서막을 불꽃놀이로 시작하였다. 오랜만에 연맹인들의 격식을 떠난 선. 후배들 간 화합의 한마당이었으며 김정실 회장의 '완행열차'는 강추위를 날려버리는 메가톤 급 무대였다. 연이어 학번 순 장기자랑으로 연맹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 이후 기수별 기나긴 레퍼토리에 새하얀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이튿날 새벽 운동장 관리인의 고함소리와 기상나팔로 기상과 아침 준비를 하였고, 임동한대표 상임위원이 운동장 관리인을 설득시켜 편을 나누어 축구, 발야구, 족구 등 체육대회를 겸한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의 의의는 연맹제를 산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였고 이벤트 회사의 섭외 등 많은 준비를 하여 그동안 마음은 있어도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런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참석률은 저조하였고 홍보부족, 운동장 섭외 미숙, 행사 진행 미숙과 지각 등은 앞으로 연맹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겼다. 또한 여전히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늦은 시간까지의 술자리는 술에 겨운 OB 선배들의 행사 참여 저조와 뿔뿔이 흩어지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아쉬운 시간이 되었다.

1997년 3단체 친목 합동 산행을 11월 30일 실시하다.

1996년 이어 2번째로 3단체 즉, 대한산악연맹 부산연맹, 한국산악회 부산지부,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합동 산행을 기장 달음산에서 실시하였다. 작

년에 이어 실시하는 행사로서 부산산악단체 거봉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우의를 다지고 산악문화에 관한 진지한 토론과 대화를 나누었다. 손을 맞잡고 올라간 달음산의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시원함처럼 서로 모든 산악인에게 귀감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 하자는 다짐을 3개 단체 50여 명의 산악인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998년 부산학생산악연맹 합동 백두대간을 종주하다.

백두대간은 합동 종주에 대한 안건이 1998년 3월 이사회에서 안건이 거론되어 통과됨에 따라 실행에 옮겼다. 재학생 연맹 회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의견 수렴 및 예상인원을 점검하여 4월 백두대간을 7개 구간으로 확정하여 참가인원을 모집하여 5월 구간별 대장을 확정 지어 추진하였다. 그 후 발대식 후 산행은 4, 5구간을 제외한 5개 구간 대장정의 길을 6월 30일 저녁 9시 길을 나선 후 7월 12일 여정을 마치고 회장님의 배려로 35명의 많은 참여자와 함께 간월산 휴양림에서 성대한 백두대간 보고회를 가지면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종주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산하를 종주 답사하면서 민족애 및 조국애를 기르고 산경표에 기록된 사자 분수령을 이해하고 확인. 백두대간의 개념을 정립, 연맹 합동산행을 통해 유대감 강화와 자질 향상 및 독도 능력 배양, 정신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1998년 백두대간 출발 전 부산역에서



부산학생산악연맹 '98 백두대간 종주

운행개요

구 간	일 자	코 스	대 장	대 원
제1구간	98년 7/1~8 8일	천왕봉-노고단-백운산-육십령	이성원 (부산외대94)	임경혁(동부산97), 최낙현(부산대98) 박수정(동아대98), 조혜진(춘해대98)
제2구간	98년 7/1~11 11일	육십령-추풍령	남정모 (동아대94)	심형기(부산교대97), 박소영(인제대97) 백광윤(부산대98)
제3구간	98년 7/1~9 8박9일	추풍령-은치재	구동희 (부경대 용당94)	임광주(동부산97), 이동철(동아대98) 오희진(춘해대98), 정은경(부경대용당98)
제4구간	98년 7/5~12 7박8일	은치재-죽령	정성철 (동의공대94)	이수석(동의공대95), 박대영(동의공대98) 정혜옥(부산여대95), 박영옥(동의공대98)
제5구간	98년 7/3~9 6박7일	죽령-소백산-태백산-피재	김영근 (부산대94)	서은숙(부산여대97), 김성배(동아대98) 문병현(부산대98), 배병철(동부산98)
제6구간	98년 7/1~9 8박9일	피재-대관령	임동한 (동아대93)	박희순(동아대98), 박중하(부산대98) 이연화(춘해대98)
제7구간	98년 7/3~11 8박9일	대관령-신배령-단목령-대청-진부령	김재연 (부경대93)	유현진(부경대94), 장종욱(부경대93) 변주영(부경대94), 조윤정(부경대98) 이미현(부경대98), 오지철(부경대98)

구간별 산행 일지를 일부 정리

제1구간 박수정(동아대98) 대원의 기록 : 잠깐의 소나기가 그치고 작은 고리봉으로 발길을 옮긴다. 사람들이 뜸한 곳이라 길이 좁아진다. 작은 고리봉 정상에 도착해 모두 천왕봉을 찾는데 성원 선배 혼자 반야봉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묘봉치에서 판초로 임시 천막을 만들고, 간간이 내리는 비를 피해 배낭으로 바람을 막은 후 중식을 한다. 만복대로 오르는 길은 어렵지 않지만, 발목을 다친 경혁 선배가 뒤로 처진다. 겨우 만복대를 올라 돌탑에서 사진을 찍고.....정령치에 도착하여 물을 구하고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고 겨우 고리봉에 올랐다.





제2구간 남정모(동아대94)대원의 기록 : 천우신조라 운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능선으로 바람이... 정상은 좁은 암릉 지대고 전망이 꽤 좋다. 멀리 우두령으로 이어진 도로가 한눈에 들어온다. 오른쪽으로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그지없이 시원하다. 화주봉으로 향해 내려서는 길은 다소 위험하다. 30m 70도 이상 경사의 암릉 지대다. 길은 다시 20분 정도 한참을 내려가다가 오름이 시작된다. 이제는 날씨가 좋다. 커다란 뭉게구름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 잠시 해를 가릴 때만 고생 덜하고 갈 수가 있었다.

1998년 태백산에서





1998년 용문산에서



1998년 장성봉에서

제3구간 정은경(부경대98) 대원의 기록 : 오늘의 운행이 내일의 하산을 결정한다고 대원들을 격려하며 대야산을 향해 오른다. 가파른 경사를 경사와 고정로프를 잡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지만 무한히 1시간 만에 대야산을 오르고 오늘의 운행을 결정짓는 대야산 암릉 구간을 통과하는데 문장대의 암릉에 비하면 아주 쉬운 정도에 불과했다... 군데군데 나타나는 급경사가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불란치재까지 1시간 30여 분 만에 내려와서 봉우리를 두 개 넘어 버리미기재 도로에 12시가 좀 넘어서 도착했다.

제4구간 박영옥(동의공대98, 현 동의과학대) 대원의 기록 : 포암산 정상에는 표지석이 있었으며 20분을 내려간 갈림길에도 이정표가 있어 길 찾기에는 그리 문제가 없다. 시그널만 찾으면 대미산 정상에 도착하니 돌탑 위에 표지석이 있다. 대미산을 지나 눈물샘을 발견하여 목을 축이고 차갓재에 도착하니 철탑만 있고, 무덤은 풀 때문인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고 막영지로

1998년 추풍령부근에서



1998년 정화산에서



적합하지 않아 조금 더 가서 헬기장과 물소리가 들려 50m 아래에 계곡이 있었다. 막영지로 선택하여 얼른 집을 지었다.

제 5구간 김영근(부산대94)대원의 기록 : 5구간 중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함백산이네 이 산을 오르는 데도 그리 힘이 든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오고, 여러 가지로 도로를 지나치고 너덜겅 지대를 만나 쉬엄쉬엄 정상으로 향한다. 조금 가파르다. 그러나 세찬 바람에 아무 생각이 없다, 정상이다. 낡은 건물이 두어 채 있고 봉우리엔 레이더가 서 있다. 이렇게 세찬 바람을 맞아보기 처음이다... 밤이 깊었다. 잠을 자야 하지만 무작정 조금 더 걷고 싶어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걷는다. 그리고 트럭을 잡아 태백시내로 들어온다. 태백역 앞에 있는 국민학교 교정에서 막영하며 반성회를 가지며 진하게 한 잔씩 마신다.

제6구간 모든 대원이 기록을 상호 보완하여 정리함 :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수량이 풍부했다. 계속해서 지루한 잡목 지대를 지나면서 기복이 심한 능선을 타고 나아갔다. 드디어 차 소리가 들리면서 자병산이 훤한 이마를 보여주었다. 백봉령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6시 반 백봉령 도착, 갑자기 무시무시한 폭음이 들렸다. 자병산에서 시멘트를 채취하는 한라 시멘트 발파 현장이다... 이제는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틀이면 대관령에 닿는다. 모두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지도에서 살피며 신기해하면서도 끝나면 지도를 태우자고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한다. 내일을 위해 우리는 발파 폭음 소리를 자장가 삼가 좋은 꿈을 꾸기 바라며 몸을 뉘었다.

제7구간 이미현(부경대98)대원의 기록 : 만월봉을 지나 응복산에 이르렀다. 응복산에서 왼쪽으로 가야하나 하며, 앞만 보고 가다가 정면에 나 있는 길로 잘못 들어설 수도 있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갈림길에서는 주의하라고 하였다. 응복산에서 40여 분가량 내려가니 심마니터와 물터가 있었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바로 약수산으로 향했다. 오후 6시에 나무 막대기가 서 있는 약수산에 도착하여 뒤 팀을 기다렸다 구룡령으로 향했다. 아주 가파른 내리막을 1시간 동안 걸어 내려가 구룡령에 도착하여 간이 휴게소 뒤편에 텐트를 치고 취침하였다.




1998년 백두대간 준비하는 모습

이번 백두대간을 준비하면서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한없는 내실을 다져 보았고, 우리의 지리적 인식을 올바로 느낀 숙연한 자리가 되었다.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패기는 여기가 시작일 뿐이며 잠재한 능력을 연구 발전시켰다. 또한 후배들에게 바른 산악 지식을 지도하는 훌륭한 선배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취적인 사고 아래 각자의 일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부산학생 산악연맹인으로서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도 제5회 암벽 등반대회를 개최하다

1998년 제5회 암벽 등반대회




1999년 연맹의 도약을 위한 '1988년~1997년 단대 동·하계 보고서를 분석하다.

1999년 학술. 편집부 주관으로 사소한 산행이라도 세심하게 기록하여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 준다는 의미로 연맹 산하 각 학교에서 예전부터 작성되어왔던 단대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단대 보고서들도 함께 보관해 오고 있지만, 말 그대로 보관만 되어 있을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고서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정은 많은 연맹인의 가슴에 안타까움과 현실적 괴리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거나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버릴 수도 보관할 수도 없는 지저분한 종이로 남아 있는 보고서들을 모아 10년간의 주제들에 대한 여러 변화를 분류하여 표준을 제시하고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기록하여 남기고자 실시하였다.

분석 분류로는 동계와 하계로 분리하여 하계는 보고서에 다른 등반 방식, 대상산 및 기간, 등반목적 내용 분석과 작성 요령에 중점을 두었으며 동계는 대략 등반 대상지 및 등반 코스의 변화, 연맹 합동훈련, 동계 장비들의 변천사 순으로 나열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그중 등반코스의 변화에서는 각 단대별 기록을 토대로 기록된 등반 대상지 및 종주코스, 빙벽훈련 장소들을 모아서 통계 방식으로 간추렸다. 또한 예전과 지금의 물가의 차이들도 함께 정리하였다.

하계의 내용을 5개 대학을 선택하여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계의 경우 설악산이 전체 대상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오대산에서 설악산 능선 종주가 인기가 있었다. 거벽 등반 훈련으로 북한산 인수봉과 선인봉이 많이 차지하였다. 그 와중 1996년부터 국립공원의 야영 및 취사가 금지되어 대학별로 하계 대상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산대는 1997년 하계의 경우 낙동정맥 종주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등반 기간은 10일에서 20일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15일 정도로 등반 방

식으로는 능선 종주와 릿지등반 및 암벽등반을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등반 목적은 장기 등반을 통한 선후배 간의 팀워크 강화, 장기등반을 통한 체력 및 인내력 배양, 집중적인 벽 등반을 통한 기술 습득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기본적인 목적이었다.

식단으로 미역국, 북엇국, 된장찌개 순으로 주로 식단이 이루어졌다. 이는 아마도 간편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부산대의 청국장, 동아대의 물김치 등도 있었다. 간식은 당연히 햄, 초코파이, 사탕, 연양갱이 거의 빠지지 않는 메뉴이었다.

보고서 작성요령으로 순서는 거의 비슷하였으며, 제일 먼저 인사말과 등반 개요, 대원 명단, 운행 일지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2000년 장애우 안내등반을 실시하다

2000년 봄 새로운 부산학생산악연맹 재학생 집행부가 발족되면서 새롭게 시도한 산행을 하였다. 당시 연맹 집행부로 정성호 회장을 필두로 기획이사 조광제(동아대82), 재학생 대표상임 김환세(해양대95), 재학생 기획 이승용(부산대95)을 비롯한 연맹인들이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등반 행사이였으며, 특히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내 등반이었다.

영광 재활원 (부산 반여동 소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대상 (신체적으로 활동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인원)으로 선발하였다.

전체 일정은 총 4단계로 실시하였으며, 강도가 약한 금정산부터 시작하여 달음산, 가지산을 거쳐 단계적으로 예비 등반을 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산행에 적응과정을 거친 후 최종 목표인 지리산 천왕봉 등정에 성공하였다. 인원 규모와 등반 속도를 감안하여 일반 등산객이 적은 평일을 택하여 산행 하였으며, 이는 재학생 학생산악연맹 대원들의 시간 배려로 가능하였다. 참가 인원은 매번 변동이 있었으나, 각 단 대별 재학생들의 많은 참가로 지원되었으며, 참가한 장애우 수보다 약 1.5~2배수의 인원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등산로 입구까지 차량 배정은 재활원에서 지원해 주었고, 재활원 인솔 교사 및 직원분들이 항상 같이 참여하였다.

이승용(부산대95)회원의 기록

산행 일정

▶ 1차 산행

4월 즈음 봄날, 금정산 북문 코스 (카톨릭 목장 - 북문 - 고당봉 - 카톨릭 목장)

장애우들에게는 생애 첫 등산 경험이며, 산행에 익숙해지기 위한 적응 1차 등반이었으며, 카톨릭 목장까지 차량으로 진입하여 북문을 지나 고당봉까지 왕복하는 코스였다. 고당봉 정상 근처에 바위 구간은 일반인도 위험한 구간이라 안전을 위해 고정 로프를 설치하는 등 별도 관리를 하였다.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한 등반이었지만, 첫 등반 이후 참가한 장애우들도 좋은 경험에 매우 만족하고 반응이 의외로 좋았고 다음에 또 가고 싶다 하여 일단은 성공하였다. 등반에 참가한 재학생들도 봉사 활동을 한 뒤의 뿌듯함에 보람을 느끼고 해산하였다.

▶ 2차 산행

6월 어느 날, 달음산 당일 코스

첫 등반 이후로 우리 연맹 재학생 인원들도 재차 참석이 높아지고, 평일 수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차 산행 이후 장애우들이 산행에 적응되어 운행 속도가 많이 좋아짐. 연맹 재학생들과 서로 친해지면서 산행 분위기도 좋고 서먹함은 전혀 없어짐. 일부 장애우 중에 선물을 준비해 온 친구들도 있었다.

▶ 3차 산행

8/21~8/23 가지산 (석남터널 - 석남재 1박 - 가지산 정상 - 석남사 2박)

텐트를 치고 막영을 시작한 첫 산행이다. 차량 접근이 좋은 석남재를 첫 막영지로 하여 자칼텐트 5동을 치고 하룻밤을 보낸 뒤 곧장 가지산 정상으로 향한다. 하룻밤을 같이 보낸 터라 산행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친구가 되었다. 무더위를 뚫고 도착한 가지산 정상. 정상에서 석남사로 내려오는 내리막은 언제나 길고 지루한 것 같다. 어렵게 내려온 하산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시원한 계곡물! 석남사 아래 계곡 가에서 발을 담그고 피로를 풀었다.





가지산 정상 부근



가지산 정상 부근



가지산 등산 막영 및 휴식하는 모습





가지산 등산 막영 및 휴식하는 모습



가지산 등반 운행하는 모습



가지산 등산 막영 및 휴식하는 모습

▶ 4차 산행

10/1~10/4 지리산 (거림 - 세석산장 1박 - 천왕봉 – 로타리 산장 2박 - 중산리 3박)

드디어 2000년 장애우 안내 등반의 최종 목표인 지리산 등반이 시작되었다. 세석평전까지 접근하기 가장 가까운 코스인 거림을 시작으로 1박지인 세석산장으로 향한다. 의외로 체력 소모가 많아서 선두와 끝의 차이가 많은 가운데, 등반대 후미는 밤 11시경에 겨우 도착했다. 어쨌든 낙오자 없이 무사히 세석산장에 도착, 하룻밤을 보냈다. 둘째 날, 오늘은 천왕봉 정상 정복을 하는 날. 무거운 배낭을 지고 장애우들 손을 잡고 3인 1조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운행을 하여 장터목 산장을 지나 통천문을 통과하니 어느덧 늦은 오후 천왕봉 정상에 도착한다. 아~ 여기까지 오기 위해 그동안 지나온 6개월간이 꿈처럼 지나간다. 해가 지기 전에 신속히 로타리 산장으로 이동하여 둘째 날 막영지에 도착한다. 산장 근처 바위틈에 비박하며, 이번 산행의 목표 달성을 스스로 자축한다. 셋째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조심조심 중산리까지 내려온다. 중산리 민박집에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짐을 풀고 즐거운 밤을 보낸다.

산행에 황순철 고문, 정민규(동아대), 하정호(경남정보대)선배님이 같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 중산리로 격려차 정성호 연맹 회장이 방문하였다.

지리산 정상 천왕봉에서







지리산 천왕봉에서



지리산 장터목 산장에서



지리산 로타리 산장에서



지리산 산행 중 휴식









제5장

미래 100년을 향하다

2001년~2017년

偉大한 길 함께 同行하기





2013년 금정산 무명암 근처(등산학교)

'미래 100년을 향하다'상황보고서(2000~2017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2001년 04월 04일	제34차 정기총회	현대해상 대회의실	정성호,손석용 외	110여명
2002년 04월 12일	제35차 정기총회	현대해상 대회의실	정성호,손기성 외	
2003년 03월 23일	제36차 정기총회	현대해상 대회의실	정성호,백광윤 외	
2004년 03월 25일	제37차 정기총회	현대해상 대회의실	신호진 외	80여명
2005년 02월 25일	제38차 정기총회	초량 노블리아부페	신호진,김태철 외	70여명
2006년 03월 03일	제39차 정기총회	초량 노블리아부페	이동본,최정호 외	
2007년 03월 23일	제40차 정기총회	초량 노블리아부페	이동본,박용주 외	
2008년 02월 25일	제41차 정기총회	초량 노블리아부페	정민규,윤정민 외	
2009년 03월 27일	제42차 정기총회	동의과학대 세미나실	정민규,이세현 외	100여명
2010년 03월 23일	제43차 정기총회	부경대학교 9호관	김치근.이호주 외	
2011년 03월 25일	제44차 정기총회	부산교대 영상세미나실	김치근,박성환 외	
2012년 03월 23일	제45차 정기총회	부산교대 영상세미나실	정지택,김시라 외	
2013년 03월 22일	제46차 정기총회	부산교대 체육관	정지택,김민성 외	
2014년 03월 21일	제47차 정기총회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박병환,박종홍 외	
2015년 03월 20일	제48차 정기총회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박병환,김희석 외	80여명
2016년 03월 25일	제49차 정기총회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이창호,이재훈 외	
2017년 03월 30일	제50차 정기총회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이창호,이재훈 외	

산행 및 훈련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2001년 01월 06~13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2001년 04월 28~29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80명	
2001년 11월 18일	제1회 볼더링대회	부산역	200여명	
2001년 12월 09일	3단체산행	장산		
2001년 12월 26~28일	동계등산학교 훈련	부산외국어대학교		
2002년 01월 08~16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2002년 04월 27~28일	춘계합동 R.C	백운산,운문산		
2002년 10월 20일	제2회 볼더링대회	부산역		
2003년 05월	춘계합동 R.C	백운산		
2004년 01월 29일~02월 05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13명	
2004년 04월 24~25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2004년 11월 21일	3단체산행	기장 삼각산		
2005년 01월 05~13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16명	
2005년 04월 23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50여명	
2005년 11월 20일	제3회 볼더링대회	동래문화회관 인공암벽		
2006년 01월 08~15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31명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2006년 05월	춘계합동 R.C	백운산		
2006년 05월 28일	영호남합동산행	가지산		
2007년 05월	춘계합동 R.C	백운산		
2007년 07월 24일~08월 30일	창림40주년 기념 공거얼 1차원정	중국 곤륜산맥		
2008년 01월 27일~02월 03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2008년 06월 01일	영호남 합동산행	금정산	총160명	
2008년 08월 18~21일	공거얼 원정대비 연맹 합동등반훈련	북한산	14명	인수봉 대슬립, 인수A, 벗길,취나드B,
2008년 04월 26~27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50명	
2009년 01월 18~23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30명	
2009년 05월 23~24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100여명	
2009년 06월 07일	영호남 합동산행	광주 무등산	총250명	
2009년 07월 1일~08월 11일	창림40주년 기념 공거얼 2차원정	중국 곤륜산맥		소기선,오세인, 서상호 등정
2010년 01월 23~31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26명	
2010년 06월	영호남 합동산행	대구 팔공산		
2011년 01월 16~23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22명	
2011년 05월 21~22일	춘계합동산행	의령신반	100여명	
2011년 05월 30일	영호남 합동산행	대구 팔공산	총150명	
2012년 01월 26일~02월 02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28명	
2012년 05월 21~22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2012년 06월 02일	영호남 합동산행	담양 금성산성		
2012년 07월 29~08월 04일	설악산	25여명	25명	
2012년 08월 04~14일	한중일 합동 교류등반			
2012년 11월 04일	제4회 볼더링대회	동래문화회관 인공암벽		
2013년 01월 24일~02월 04일	동계합동산행	제주도, 무주	37명	
2012년 02월 03~04일	산악스키 강습회	무주 리조트		
2013년 05월 18~19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80여명	
2013년 07월 07일	영호남 합동산행	대구 팔공산		
2013년 08월 04일~11일	하계합동산행	경남권	35명	
2013년 11월 09일	제5회 볼더링대회	동의대학교 인공암장	50여명	
2014년 01월 18~27일	동계합동산행	밀양얼음골,한라산		
2014년 05월 17~18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80여명	
2014년 06월 01일	영호남합동산행	승학산	총145명	
2014년 08월 03~10일	하계합동산행	영남알프스,의령신반	19명	석골사,운문산,가지산, 능동산,간월산,신불산, 아리랑릿지,쓰리랑릿지, 영축산,신반암
2014년 11월 08일	제6회 볼더링대회	동의대학교 인공암장	35명	
2015년 01월 20~28일	동계합동산행	설악산	19명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2015년 05월 16~17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60여명	
2015년 05월 31일	영호남 합동산행	전남 장성 입암산	25명	
2015년 08월 02~09일	하계합동산행	영남알프스, 신반	15명	영축산,아리랑릿지, 쓰리랑릿지,신불산,간월산, 백운슬랩,신반암,병풍암
2015년 11월 07일	제7회 볼더링대회	동의대 인공암장	23명	
2016년 01월 20~28일	동계합동장기등반	설악산		
2016년 05월 14~15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2016년 06월 30일~07월 25일	영호남 합동 거니에신산 원정			
2016년 11월 05일	제8회 볼더링대회	동의대 인공암장		
2017년 01월 15~24일	동계합동산행	한라산		
2017년 02월 17~28일	영호남 합동 동계원정	야츠가타케일원		
2017년 05월 20~21일	춘계합동 R.C	백운산		
2017년 05월 14일	창립50주년 기념산행 및 영호남 합동산행	금정산	3단체	
2017년 06월 24일~07월 02일	인공등반교육			고학년
2017년 07월 23~30일	하계합동산행	영남 알프스일원		
2017년 11월 18일	창립 50주년 재경합동산행	인왕산	40여명	

기타행사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2001년 11월 03~04일	연맹제	금정산		
2002년 11월 02~03일	연맹제	금정산		
2003년 11월 01~02일	연맹제	금정산		
2004년 11월 13~14일	연맹제	금성초등학교		
2005년 11월 01~02일	연맹제	금성초등학교		
2006년 11월 05~06일	연맹제	부산학생교육원		
2007년 11월 04~05일	연맹제	부산학생교육원		
2008년 11월 08~09일	연맹제	부산학생교육원	80여명	
2009년 04월 30일~05월 24일	등산학교		22명 수료	
2009년 10월 31일~11월 01일	연맹제 및 체육대회	부산학생교육원	200여명	
2010년 04월 29일~05월 23일	등산학교			
2010년 11월 06~07일	연맹제	부산학생교육원		
2011년 04월 30일~05월 22일	등산학교		49명	
2011년 11월 06~07일	연맹제	부산학생교육원		
2012년 04월 28일~05월 22일	등산학교			

기타행사

일 자	내 용	장 소	참석자	비 고
2012년 11월 03~04일	연맹제	부산학생교육원		
2013년 04월 27일~05월 19일	등산학교		69명 참가	
2013년 11월 09~10일	연맹제	부산학생교육원	80여명	
2014년 04월 26일~05월 18일	등산학교		75명 참가	
2014년 11월 08~09일	연맹제	부산학생교육원	80여명	
2015년 04월 25일~05월 17일	등산학교		50여명	
2015년 11월 07~08일	연맹제	부산학생교육원	73명	
2016년 04월 23일~05월 15일	등산학교			
2016년 11월 05~06일	연맹제	부산학생교육원		
2017년 04월 29일~05월 21일	등산학교		교육생25명	
2017년 11월 23일	창립50주년 학술세미나	동의과학대 세미나실		오마이랜드
2017년 11월 11~12일	연맹제 및 체육대회	금정산		

무명참 릿지 뜀바위(2009년 5월 등산학교 교육중)



2000년대 부산학생산악연맹 여학생회 활동이 왕성해지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부산학생산악연맹에서는 여학생의 회원가입이 늘어나면서 여학생의 OB 활동도 왕성하게 되었고, 여학생 활동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당시 산악부에 여학생은 남자 사이에 몇몇 정도 되었으나 여자대학의 산악부 활동의 왕성한 활동은 OB의 회원 수 증가뿐 아니라 재학생의 회원 증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에 재학생의 지도를 각 단대에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모이면서 재학생의 활동 지원을 도모하자는 의견으로 여학생회가 결성되었으며 초기 회장으로 정금이(춘해보건대81)로 시작하여 2대 회장으로 차월준(부산여대82), 3대 회장으로 김인숙(동아대82) 회원이 회장을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다. 창립 당시의 회원으로 각 단대 대학에 소속된 여학생, 동주대, 부산여대, 춘해보건대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활동 사항으로 여학생 등산학교, 체육대회, 합동산행, 산악문화발전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 호프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부산학생 산악연맹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여학생 합동산행(금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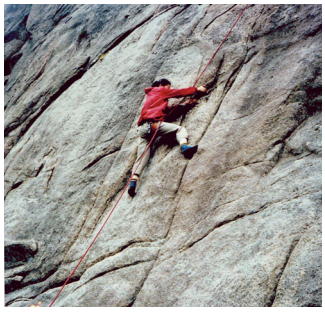




여학생 합동 R.C(신반암, 백운산, 부채암)













2006년 4월 7일 여학생회
제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여학생 체육대회(성지초등학교)

여학생회 행사로 2번에 걸쳐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여학생인 관계로 대부분 자녀와 동반한 행사로 여학생만의 특이한 행사로 보인다. 1회는 삼락체육공원에서 2회는 성지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여학생 간의 합동산행 및 암벽등반, 스키강습회, 삼랑진 딸기밭 야유회 등 많은 활동으로 여학생 간의 화목과 단합의 교류의 장을 가졌다.

여학생 합동산행(가덕도, 금정산)





2004년 연맹 합동 동계를 가다

2004년 1월 5일부터 12일 7박8일 일정으로 설악산으로 연맹 동계훈련을 가졌다. 전상은(부산교대85)회원의 책임 하에 강사진으로 조벽래(동아대88), 김재연(부경대93), 조교로 강대희(부경대99), 변정훈(동의공대99, 현 동의과학대)의 지도하에 합동 동계 훈련을 실시하였다.

설악동 C지구에 B.C를 설치하고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소토왕골과 토왕골, 비룡폭포, 토막골, 잦은바위골에서 빙벽 및 설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참여대원으로 초급반 이형탁(부산교대04), 오세인(동아대04), 김도현(동의공대04, 현 동의과학대), 박수경(동아대04), 정대영(부산교대00), 김동구(동의공대01, 현 동의과학대), 임정아(부산교대03)로 7명이 참여하였고, 중급반으로 김태환(부경대00), 김태철(부경대00), 전혜영(부경대01), 김남구(동아대01) 4명이 참여하여 결속력 강화와 자질향상을 이루는 훈련이 되었다.

먼저 간 악우 김도현(동의공대04, 현 동의과학대)의 산행 후기를 글로 남겨본다. "겨울 설악산, 버스를 타고 설악산을 갈 때까지만 해도 내 머리 속에는 하이얀 눈으로 뒤덮인 설악산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눈 덮인 설악산은 볼 수 없이 아쉬웠지만 7박8일 동안 함께 해준 선배님들, 동기들이 있어서 즐거웠다. 첫 날 얼음을 밟으며 얼음을 깨는 게 마냥 즐거웠고 계속 얼음을 찍으며 얼음을 밟고 하여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하계 때는 가지 않는 토왕, 잦골, 토막 등을 동계 설악산에 와서 갈수 있었고 동계훈련에 와서 좀 더 설악산을 같이 알아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새삼스럽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서배님과 강사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도와준 동기들에게도 고마웠다. 그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산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2004 여학생회 여성원정대 데날리(6194m) 원정

2000년 이후 여학생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하여 각 단대별 여학생의 경우는 원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학생만 있는 대학에서는 설산

이나 거벽원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 그리하여 여학생회 팀의 원정에 대한 갈망과 노력으로 2004년 부산여성원정대(Busan Woman's Expedition to MT. Mckinley)가 결성되었다.

대원으로 김인숙(동아대82), 구희정(춘해간전92, 현 춘해보건대), 유향미(동주여전96, 현 동주대)결성되어 2003년 10월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점으로 동의의료원 강당에서 발대식을 한 후 2004년 5월 등정에 이르게 되었다. 훈련은 체력훈련과 합숙훈련, 개인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12회 훈련을 가진 후 2004년 5월 8일부터 6월 6일 30여 일간의 여정으로 West Buttress 루트로 등정하였다. 당시 C1까지 50kg의 짐과의 사투와 C1에서의 가상 악화 및 폭설로 3일간 텐트 안에서 동양화 공부 3시간 텐트 밖 눈 치우기 2시간의 연속으로 3일이 지난 후 C2로 이동하였다.

2004년 데날리 여성원정대 김인숙대원(동아대)



데날리 여성원정대 구희정대원(춘해보건대)



데날리 여성원정대 유향미대원 (동주대)



베이스캠프 가는 길



마지막 캠프에서 정상 등정까지는 대원들의 고산증세와 체력의 저하로 김인숙 대장(동아대82)만 정상을 등정할 수 있었다. 당시 김인숙 대장의 경우 여러 원정에서 참여는 했지만 정상 등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 등정은 본인의 평소 염원을 이루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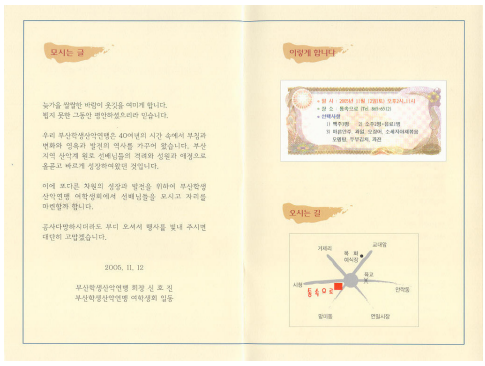
2005년과 2007년 부산학생산악연맹 여학생회 주최 호프데이를 실시하다.

제 1회 '산악문화의 발전을 위한 호프데이'를 개최하다.

우선 부산학생산악연맹 여학생회에서는 당시 침체된 산악문화의 발전과 부산학생산악연맹인 및 부산의 타 단체산악인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05년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호프데이를 실시하여 많은 연맹인 뿐만 아니라 부산의 여러 산악인이 참여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행사 주관으로 전체 기획 및 진행 정금이(춘해간전81, 현 춘해보건대), 기획담당 윤영숙(춘해간전86, 현 춘해보건대), 총무담당 차월준(부산여전82, 현 부산여대), 섭외 및 홍보담당 김덕순(부산여대82)과 정인숙(동주여전88, 현 동주대), 주방담당 김인숙(동아대82), 전산담당 문진숙(동주여전91, 현 동주대), 사진 유향미(동주여전96, 현 동주대), 기록 및 보고서 작성 문진아(부산교대81), 행사 준비팀 단체 티 구입 김희정(수산대83, 현 부경대)등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호프데이 행사는 비록 여학생회에서 주관하였지만 연맹인 전

2005년 제1회 산악 문화활동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데이 현수막 및 여학생회원







체의 행사였다. 당시 김덕순(부산여전82, 현 부산여대)의 기록을 보면 '끝까지 도운 분, 짬을 내서 도운 분, 얼굴 보러 오신 분, 한잔하러 오신 분' 이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행사를 치렀다고 한다" 이 기록을 보더라도 모든 연맹인 뿐만 아니라 부산악계의 모든 선·후배가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였으며 처음 취지에 맞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후원금 포함 400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연맹에 발전기금으로 200만 원을 기탁할 수 있었다.

제2회 '공거얼 원정기금마련을 위한 호프데이 행사를 실시하다.

2007년 부산학생산악연맹 공거얼 원정기금 마련을 위하여 제2차 호프데이를 여학생회 주최로 다시 실시되었다. 당시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파빌봉 원정 이후 원정에 대해 계획을 하던 중 2007년 대망의 원정계획이 수립되

2005년 제2회 산악 문화활동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데이









었다. 이에 여학생회에서는 원정기금 마련의 목적으로 2007년 4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부산대학교 인근 호프집에서 실시한 행사는 이동본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연맹의 선후배뿐만 아니라 부산 악계의 여러 선후배님을 모시고 실시하였다. 여기서 모여진 수익금은 전액 공거얼 원정을 위한 기금으로 연맹에 전달되었다. 이렇듯 부산학생산악연맹 여학생회는 연맹의 크고 작은 대소사에 항상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2005년 연맹회관을 부산 범일동소재 콜핑건물로 이전하다.


2005년 연맹사무실 이전제를 올리는 신호진 회장


2005년 연맹사무실 이전 참가한 회원들


2005년 연맹사무실 이전 참가한 내빈 및 회원들



2005년 연맹사무실 이전 현판식

2006년 5월 28일 부산학생산악연맹 주최 영호남 합동산행을 시작하다

영호남 합동산행은 이동본회장 재임당시 주관하여 대구·경북학생연맹과 연락 후 5월 28일 본 연맹에서 주관하여 영남알프스일원인 가지산, 운문산, 능동산 등을 종주하는 산행을 실시하였다. 산행 후 간단한 다과와 화합의 시간을 가진 후 모두 한 줄로 서서 돌아가며 악수를 하며 마지막의 아쉬운 순간의 여운을 남기는 뜻깊은 산행이 하였다. 이후 이 행사는 2회로 거창 가조의 의상봉을 대구경북학생연맹 주최로 실시하였고, 3회는 부산학생산악연맹이



2006년 5월 영호남합동산행 후 화합의 시간

주관하였고, 이때부터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이 참여하여 명실공히 영호남 학생산악연맹의 합동산행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 뜻깊은 행사는 지금까지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영호남 화합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2007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40주년 기념 공거얼(7719m) 1차 원정을 가다.

중국 곤륜산맥의 Kongur(7719m)봉은 곤륜산맥과 파미르를 통틀어 최고봉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7,500m를 넘는 고도와 낙석, 잦은 눈사태 등이 등반을 어렵게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곤륜산맥의 무즈타그아타와 코스쿨락을 등반한 팀은 있으나, Kongur을 등반한 팀은 없었다. 이에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원정대가 성공하면 한국 최초 특히 등반 난이도가 높아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미지의 산으로 등반하는 것으로 등반 가치가 매우 높은 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등정대는 실패했지만 이는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젊은 패기와 열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연맹인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며 연맹 창립 40주년의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7월 24일부터 8월 30일(37박 38일) 일정으로 시작하였으며, 등반 루트로 북면 신루트, 원정단장으로 이동본(부산교대75), 원정대장 김



2007 공거얼(7719m)전진 캠프에서 캠프1을 등반중인 대원들

규태(부산대82), 원정부대장 최태신(부산교대84), 수송 민영도(부산대84), 행정 전상은(부산교대85), 등반대장 김석수(부산교대86), 의료 이정호(경성대92), 식량 김재연(수산대93, 현 부경대), 촬영 및 기록 백광윤(부산대98), 식량 김태철(부경대00), 장비 이성환(부경대00)에 의해 등반하였다.

등반 목적으로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40주년 기념과 가네쉬히말4봉(파빌봉 7102m)등정 25주년 기념과 함께 연맹회원의 화합과 기술교류, 해외 고산등반 능력 배양을 함양하였다.

대원명단



단장 이동본
(부산교대75)



대장 김규태
(부산대82)



부대장,촬영 최태신
(부산교대84)



포장,수송 민영도
(부산대84)



회계,행정 전상은
(부산교대85)



등반대장,장비 김석수
(부산교대86)



의료 이정호
(경성대92)



식량 김재연
(수산대93, 현부경대)



촬영,기록 백광윤
(부산대98)



식량 김태철
(부경대00)



장비 이성환
(부경대00)

운행일정

일수	일 자	일 정	비 고
1	2007년 07월 24일	부산-북경-우루무치	출국, 항공기
2	07월 25일	우루무치-카쉬카르	항공기, 전용 차량
3	07월 26일	카쉬카르	현지식량구입
4	07월 27일	카쉬카르-게즈-Base Camp	전용 차량, 낙타·나귀 및 도보
5	07월 28일	제1데포지	식량 및 장비 데포
6	07월 29일	Camp1설치	
7	07월 30일	Base Camp	산중 휴일
8	07월 31일	제2데포지(4300m)	식량 및 장비 데포
10	08월 01일~02일	Base Camp	산중 휴일
11	08월 3일	Camp1	
12	08월 04일	Camp2 루트개척	
13	08월 05일	동굴	식량 및 장비 데포
15	08월 06일~07일	Camp1	산중 휴일
16	08월 08일	Camp2 설치	
17	08월 09일	Camp3 루트개척 및 물량수송	
18	08월 10일	Camp2	물량 수송
19	08월 11일	Camp3설치-Camp2	
20	08월 12일	C2-C1-B.C.	
22	08월 13일~14일	산중 휴일	
23	08월 15일	Camp1	
24	08월 16일	Camp2	
25	08월 17일	Camp3	
26	08월 18일	Camp4 루트 정찰	
27	08월 19일	Camp3	산중 휴일
28	08월 20일	Camp4 루트 정찰	
29	08월 21일	C3-C2-C1-B.C.	
31	08월 22일~23일	B.C. 및 장비정리	
32	08월 24일	B.C.-게즈-카쉬카르	낙타·나귀 및 도보 전용 차량
35	08월 25일~27일	카쉬카르	
36	08월 28일	카쉬카르-우루무치	항공기
37	08월 29일	우루무치-북경	항공기
38	08월 30일	북경-부산	입국, 항공기



2007년 공거얼 1차원정
폴란드 원정대와 함께
(고소적응을 위해 축구시합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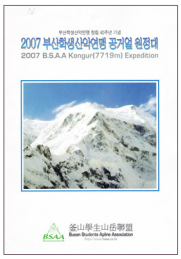
C1에서 C2로 전진



카시카르 시내 마트에서
식량 구입 후



C2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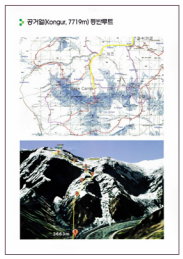












공거월 원정대 격려 및 트레킹을 위하여 일명 '고구려 연구팀'이 1차 원정에 참여하였다. 기간은 2007년8월 9일부터 21일 12박13일 일정으로 황순철 고문, 신호진(부산교대74), 정진육(부경대74),정승오(한국해양대79),박병환(동아대81),이경숙(경남공고 산악부 지도교사) 참가하여 1차원정의 등정성공을 기원하며 참여하였다.

베이스캠프에서 바라본 Kongur 전경. 중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정상



2007년 8월 20일 C4 루트정찰(5인의 특공대). 날씨 : 가스-잠깐반짝-가스와 바람

C4 루트정찰(5인의 특공대) 기록 : 김석수(부산교대86)

가스와 바람 그리고 바람에 실려온 눈가루들이 텐트를 다닥다닥 때려 모두 움직이기를 꺼리는 날씨다. 요즘 들어 날씨가 좋은 날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등반시즌의 끝인듯 하다. 텐트가 튼튼하게 제작되고 치기도 깊고 든든하게 잘쳐져 세찬 바람이 매일 반복되어도 아직 한번도 보수를 안했다. 10:20분경 과감히 삼중화를 신고 밖으로 나오니 산 전체가 가스로가득하고 가끔 희끗희끗하게 우리가 가야 할 루트가 보일 뿐이다.

재연이가 스나그를 세 개나 박아놓은 얼음덩어리는 빙하 덩어리의 겉부분이어서 밤마다 한덩이씩 떨어지는 그 빙하가 될지도 모르다는 생각에 저 안쪽의 얼음에 확보물을 설치하라고 하고 그 스나그 세 개는 회수했다. 조금 안쪽의 얼음에 스나그를 설치하니 마음은 조금 안정이 되나 바로 옆에 빙하를 양쪽으로 가르는 가느다란 크래바스가 있어 찜찜하다. 태신형은 조금 안정해 보이는 부분으로 달려가더니 그대로 점프를 하여 넘어버린다. 순간적으로 모두 놀랐다. 하지만 여기 말고는 넘어갈 부분이 없다. 지금가지 계속 따라만 오던 폴란드팀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러시안 루트의 크럭스 구간이라 비스듬한 설벽이라 러셀이 필요하고 설벽도 100m이상 길게 상당한 경사도를 가지고 서 있고 가스가 끼고 바람이 심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태신형과 영도형이 선두를 바꿔가며 설벽을 따라 오르는데 갑자기 태신형이 "억!"하면선 손을 내민다. 허리까지 히든 크래바스에 빠져서 혼비백산한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하체가 쏙 빠져들어갔으니 놀랄만하다. 사진을 찍고 크래바스를 들여다보니 시커먼게 엄청 깊다. 너무 놀란 부대장님 때문에 내려가자는 쪽으로 모두의 의견이 모아진다. GPS로 마킹을 하니 6093m±13m로 표시된다. GPS로 우리의 길을 표시하면서 내려오다 각 픽스 지점을 마킹하고 C3로 내려온다. 남아있던 대원들이 연유를 끓여줘서 맛있게 마셨다.

대장님과 부대장님은 날짜와 날씨 그리고 대원들 체력 관계 등이 복잡하게 섞여서 머리가 아픈가운데 전 대원들을 텐트로 불러 모은다. 부대장님의 장황한 현재 상황 설명이 길게 이어지면서 대장님이 각 대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각 대원들에게 현재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하는데까지 계속을 등반을 해보자는 의견과 정상 등정에 대한 목표가 떨어졌으니 이쯤에서 매듭을 짓자라는 두가지 의견 중 의사표시를 한 결과 내일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09 Kongur(7719m)봉 2차 원정을 성공하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높이에 국한되지 않고 그곳에 이르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우리의 앞길은 더욱 험난하다"



2009년 공거얼 정상 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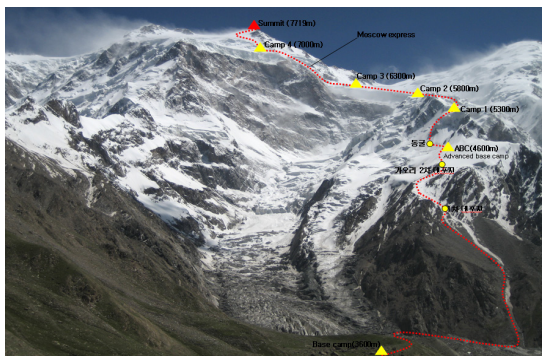
원정동기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해보면 2009년 당시 부산학생연맹이 태동한지 41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국 대학산악연맹 중 최초의 합동 원정인 1982년 파빌봉 원정을 성공한지 27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각 대학별 원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합동 해외원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2007년 공거얼 원정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후 각 단대별로 활발한 해외원정 등반이 이루어졌다.

그런 시점에 연맹의 가맹단체 해외 원정의 대상지로는 유럽의 알프스 3대 북벽등반. 인도의 마나파르밧, 구소련의 파미르산, 미국의 요세미티 대암벽 등반을 하였다. 이에 부산학생산악연맹은 역사와 전통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계적인 대학산악연맹의 수준이 되고자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항상 노력하였다. 이에, 2006년 연맹집행부에서는 여러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중국 곤륜산맥의 Kongur(7719m)봉 해외 원정 등반의 대장정을 떠나게 되었다. 기나긴 사투를 벌이며 혼신의 힘과 정열을 불태웠지만 기상

2009년 공거얼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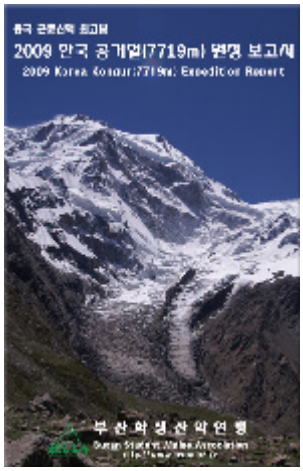


2009년 공거얼 등정 루트



악화와 정보 부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현재의 산악등반 흐름은 등정주의보다는 등로주의가 더 비중 있는 등반으로 인정하는바, 2007년 때의 함성과 정열을 한데 모아 한층 축적된 기술과 배양된 체력을 바탕으로 2년 전 못다 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힘을 합쳤다.



한국 최초 등정이라는 목표와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원 단체 기술교류를 위해서도 우리 원정대는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부산의 여러 산악 선·후배들의 도움으로 이번 '2009 한국 공거얼(7719m)원정대'를 꾸리게 되었다.

원정대의 선발된 대원은 10명으로 등반 루트로 러시아 루트(Russia Route)로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11일(41박 42일) 일정으로 원정단장 정민규(동아대75), 지도 박병환(동아대80), 원정대장 김규태(부산대82), 원정부대장 전상은(부산교대85), 등반대장 김석수(부산교대86), 장비 손대익(동의과학대91), 행정 백광윤(부산대98), 수송 소기선(인제대03), 식량 오세인(동아대 04), 기록 및 촬영 주형철(동의과학대05), 의료 서상호(부산교대07)의 대원들로 2007년 때의 함성과 정열을 한데 모아 한층 축적된 기술과 배양된 체력을 바탕으로 2년 전 못다 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힘을 합쳤다.

2009년 BC에서 빙하를 배경으로 연맹 가맹 대학부기



2009년 BC에서 빙하를 배경으로



2009년 BC에서 8월 철수준비 전 장비점검





2009년 공거얼 원정 등정 축하 환영식



2009년 BC에서 공거얼 원정 등정 축하 케이크

원정대로 선발된 10명의 대원은 개인의 실수가 조직의 책임으로 알고 강력한 팀워크 구성을 위하여 수차례 장기 등반 훈련을 진행하였고, 대상산의 정보 파악을 위하여 학문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드디어 대원 소기선(인제대03), 오세인(동아대04), 서상호(부산교대07) 3명의 대원이 2009년 7월 27일 16시 54분 등정에 성공하였다. 이 등정 결과는 학생산악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 최초 등정, 첫 해외 원정인 재학생 대원이 등정 성공의 뜻깊은 의미의 결과를 남기는 성공을 거두었다.



원정대명

1)국문명 : 2009 한국 공거얼(7719m) 원정대

2)영문명 : 2009 Korea Mt.Kongur(7719m) Expedition

대상산

공거얼(Kongur 7719m) : 동경 75.3°, 북위 38.6°

중국 신강-위구르 자치구내 서곤륜산맥

등반루트 : 러시아루트(Russia Route)

기 간

2009년 7월 1일 ~ 2009년 8월 11일(41박 42일)

등반방식 : 극지법과 알파인 스타일

대 원 : 원정단장 정민규 외 10명



고 문 박병환(동아대 80)
1986 일본북알프스 원정
1987 태백산맥종주 및 토왕폭등반
1996 마나파르바트 등반
현)부산학생산악연맹 기획운영부회장



원정대장 김규태(부산대 82)
1989 동계 토왕폭, 좌우벽 연장등반
1989 아이거북벽 등정
1992 초오유 정찰대장
2007 공거얼(7719m)원정대장



원정부대장 전상은(부산교대 85)
1997 일본 북알프스등반
2002 중국 사천성 쥬산(6410m) 정찰
2004 중국 사천성 쥬산(6410m) 원정대원
2006/07 한국 쥬산(6410m) 원정부대장
2007 공거얼(7719m)원정 행정담당



등반대장 김석수(부산교대 86)
1988 백두대간 단독종주
1992 파미르고원 코르제네프스카야봉 등정(7105m)
2001 미국 요세미테 등반
2004 한국 쥬산(6410m) 원정 등반대장
2006/07 한국 쥬산(6410m) 원정 등반대장. 등정
2007 공거얼(7719m) 원정 등반대장



장 비 손대익(동의과학대 91)
설악산 및 지리산 장기등반 다수
부산학생산악연맹 합동 동계훈련 강사
1991년 빅월클라이밍스쿨 수료
2003년 동계 토왕폭 등반



행 정 백광윤(부산대 98)
설악산 및 지리산 장기등반 다수
부산학생산악연맹 합동 동계훈련 강사
2007 공거얼(7719m)원정 촬영 및 기록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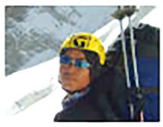
수 송 소기선(인제대 03)
2003 낙남정맥 종주(확인필요)
설악선 및 지리산 장기등반 다수



식 량 오세인(동아대 04)
설악산 및 지리산 장기등반 다수



기록·촬영 주형철(동의과학대 05)
설악산 및 지리산 장기등반 다수



의료 서상호(부산교대 07)
설악산 및 지리산 장기등반 다수



정부연락관 아디
중국 신강 등산협회
무즈타그아타 등반 다수(정부연락관)
2007 공거얼 등반(정부연락관)
2009 무즈타그아타 등정



요리사 위젯
중국 신강 등산협회
무즈타그아타 등반 다수(쿡)
2007 공거얼 등반(쿡)
2009 무즈타그아타 등반(쿡)

운행일정

일수	일 자	지 역	교 통	운행내용
1	07월 01일	부산–베이징 –우루무치	항공기	출국,우루무치 시내호텔에서 숙박
2	07월 02일	우루무치–카쉬카르	항공기	카쉬카르 도착 후 선박화물 확인, 1차 현지 식량구입
3	07월 03일	카쉬카르	차량	2차 현지 식량구입, 패킹
4	07월 04일	카쉬카르–게즈	차량	정부연락관 합류, 포터 수배 후 베이스로 출발
5	07월 05일	게즈–베이스캠프	트레킹, 당나귀	베이스캠프 구축
6	07월 06일	공거얼 (7719m)등반	등반	빙하구간, 너덜지대 지형정찰
8	07월 08일		등반	전진캠프(4800m) 구축
10	07월 10일		등반	C1 루트작업
13	07월 13일		등반	C1(5200m) 구축
15	07월 15일		등반	휴식, 후발대(4명)베이스 입성
16	07월 16일		등반	전진캠프로 식량, 장비 운송
17	07월 17일		등반	C1식량 및 장비, 운송
18	07월 18일		등반	C2루트 작업 및 C2(5800m)구축
20	07월 20일		등반	1차 정상공격에 필요한 식량 장비 C2로 운송완료
21	07월 21일		등반	C3 루트작업(플라토 빙하 고정로프 설치작업)
24	07월 24일		등반	C3(6200m) 구축
25	07월 25일		등반	C4 루트작업(모스크바 익스프레스 고정로프 설치 작업)
26	07월 26일		등반	C4 루트작업 완료, C4 구축
27	07월 27일		등반	정상공격, 정상등정(대원 3명)
29	07월 29일		등반	베이스캠프로 하산 완료
30	07월 30일		당나귀, 차량	개인정비, 휴식, 서상호 대원 현지 병원 입원 및 치료
32	08월 01일		등반	전진캠프에 있는 장비, 식량 철수
34	08월 03일		등반	전진캠프에 있는 장비, 식량 철수
37	08월 06일	베이스–게즈 –카쉬카르	트레킹, 차량	베이스캠프 철수, 카쉬카르 시내호텔 도착
38	08월 07일	카쉬카르	차량	휴식, 서상호 대원 퇴원
39	08월 08일	카쉬카르	차량	장비 정리 및 패킹
40	08월 09일	카쉬카르–우루무치 –베이징	항공기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숙박
42	08월 11일	베이징–부산	항공기	귀국

등반목적

1)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42주년 기념
2) 부산학생산악연맹 가네쉬 히말 4봉(파빌봉 7102m) 등정 27주년 기념
3) 해외 고산 등반 능력 배양 및 한국 최초등정을 통한 산악인 위상 확립
4)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원 단체 기술교류 및 협찬사와 우호관계 확립

결과

1) 등 정 자 : 대원 소기선(인제대03), 오세인(동아대04), 서상호(부산교대07)
2) 등정일시 : 2009년 7월 27일 16시 54분
3) 등정결과 : · 학생 산악운동의 활성화 도모
· 한국 최초 등정
· 첫 해외원정인 재학생 대원이 등정 성공

등반일지

2009년 7월 5일 베이스캠프구축. 날씨 : 맑음

구간다르 → 베이스캠프(3600m)

당나귀 울음소리에 한숨도 못 자고 7시에 일어났다. 어제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바로 앞에 공거얼 산의 웅장한 모습이 대원들의 눈에 들어왔다. 실제로 보니 그 거대함을 말로 표현을 못 했다. 2시간여를 당나귀를 타고 내리고 하다가 넓은 초원에 도착했다. 바로 베이스캠프다. 하나둘 대원들이 베이스캠프에 도착하고 현지인들이 들고 온 짐을 정리했다. 이어서 천막을 치기 위해 양과 당나귀들의 배설물들을 치우고 식당 천막과 대원들이 쉴 수 있는 천막 1동씩을 치고 나니 두통을 호소하는 대원들이 한 명씩 늘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작업을 했더니 몸도 지치고 두통도 심해졌다. 서상호 대원이 상태가 안 좋아 구토 증세를 보였다. 다들 컨디션이 안 좋아 많이 먹지 못한다. 각자 일과를 마치고 하나둘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한다.

2009년 7월 6일 전진캠프 빙하지형 정찰. 날씨 : 흐림

BC → 빙하지형 정찰

08시 30분 기상
11시 정찰조 출발(백광윤, 소기선, 오세인, 주형철, 서상호)

17시 30분　가오리(2007년 C1) 바위 밑 도착
21시 20분　B.C 복귀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린 거 같더니 해가 들어오기 전에는 꽤 쌀쌀하다. 어제 일찍 잠을 자서 상태는 호전됐다. 다들 약간의 고소로 두통이 있는 것 같지만 괜찮아 보였다. 오늘은 가오리 밑 부분까지 정찰 겸 고소 적응 차 갔다 오기로 했다. 초원지대를 지나 바로 올라가면 너덜지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빙하지대가 나왔다. 서상호 대원이 컨디션이 안 좋아 초반부터 뒤처진다. 길을 표시하기 위해 돌을 쌓으며 지나갔다. 조심조심 발을 떼며 1시간가량 빙하를 지나고 나니 이번엔 너덜지대가 나온다. 너덜지대 때문에 대원들 모두 힘들어하고 짜증을 낸다. 그렇게 오르다가 눈이 쌓인 곳에 도착했다. 눈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 삼중화로 갈아 신고 아이젠을 착용했다. 겨우 베이스캠프에서 관측했던 전진캠프 설치 지역에 도착했다. 막사 도착해 보니 눈도 쌓여 있고 자리 고르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 일단 김규태 대장에게 무전으로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베이스캠프로 하산하기로 했다. 가파른 설사면에 눈이 녹으면서 상당히 미끄러웠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니 김규태 대장이 양고기를 준비해 주었다. 처음 맛보는 양고기, 기름기와 특이한 냄새로 대부분의 대원들이 많이 먹지 못했다.

2009년 7월 7일 고정로프설치. 날씨 : 흐림, 늦은 오후 비

BC → 데포지 → BC

쿡인 위젯이 고소증세로 밥을 못 했다. 고소는 피해 갈 수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그렇게 아침을 차려 먹고 전진캠프 구축과 캠프1 루트 작업에 필요한 4박 5일 치의 식량과 장비를 정리 해 놨다. 그리고 약간의 짐을 추가해 현지인을 써서 짐을 데포지까지 옮기기로 했다.
어제보다 한 시간가량을 단축해서 눈이 쌓인 지역에 도착했다. 삼중화를 갈아 신고 고정로프 설치를 위해 데포지로 향했다. 어제 하산하면서 미끄러진 지역에 고정로프를 설치하고 내려와서 데포지에 고정로프를 설치하는데 안전하게 설치할 만한 확보물이 없어서 하켄으로 바위틈에 고정로프를 설치했다. 아디와 위젯, 현지인들이 가지고 온 짐을 데포지에 두고 서둘러 하산했다.

2009년 7월 8일 전진캠프설치. 날씨 : 맑음, 오후에 눈

BC : 김규태

BC → ABC : 백광윤, 소기선, 오세인, 주형철, 서상호

06시 30분 기상
08시 30분 BC 출발
21시 20분 전진캠프 도착 및 텐트설치(4600m)
23시 취침

새벽 일찍 일어나신 김규태 대장이 밥과 국, 계란을 해두셔서 텐트 안에서 배불리 먹었다. 아침이 되면 몇몇 대원들이 두통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장비를 챙겨서 08시 30분 드디어 ABC로 출발을 했다.

빙하가 녹아서 그런지 쌓아 두었던 돌탑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들 무사히 빙하를 건너고 너덜지대로 올랐다. 서상호 대원이 컨디션이 좋은지 속도를 낸다. 신발을 갈아 신고 눈이 시작되는 곳을 오르기 시작했다. 오세인 대원의 삼중화 지퍼가 터진다. 초반부터 장비에 문제가 생겨 고생한다. 몇 걸음 못 가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가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오리 윗부분에 도착해서 긴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쉬었다. 백광윤 대원이 한 시간 정도면 가면 되니까 힘내자고 동생들을 격려한다. 한 시간 남았다는 말에 서상호 대원이 선뜻 러셀을 하겠다며 앞장을 서기 시작한다. 흐리던 날씨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다. 대원들도 많이 지친 듯하다. 서상호 대원 대신 백광윤 대원이 러셀을 하며 커다란 바위가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다. 드디어 12시간여 만에 전진캠프 사이트에 도착했다. 고도를 1000m 가까이 올려 대원들 모두 두통을 호소했다. 라면과 햇반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늦은 밤, 잠을 청했다

2009년 7월 9일 짐 수송. 날씨 : 새벽 눈, 오전 대체로 맑음, 오후 흐리고 눈

BC : 김규태
ABC 보수 : 백광윤, 주형철
짐 수송 : 소기선, 오세인, 서상호

08시 30분 기상
10시 10분 소기선, 오세인, 서상호 대원 데포지로 출발
18시 작업조 도착
23시 취침

새벽에 내린 눈으로 텐트가 눈에 덮여 답답한 느낌에 잠을 설쳤다. 아침에 일어나니 전 대원이 두통을 호소하며 일어나지 못한다. 원정 경험이 있는 백광윤 대원도 두통이 심한 것 같다. 힘들게 밥을 하고 누룽지를 먹지만 입맛이 없는지 얼마 먹지 않고 수저를 내려놓는다.
소기선, 오세인, 서상호 대원이 짐 수송을 위해 데포지로 출발했다. 백광윤 대원과 주형철 대원이 C1 고정로프 설치 작업을 가야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텐트 보수작업을 하기로 했다. 짐 수송조 대원들이 가오리로 내려가는데 전진캠프에서 가오리를 보면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 내려가는 건 올라올 때랑 달리 15분이면 내려간다. 고도가 낮아지니 대원들의 상태도 좋아졌다. 가오리를 올라가는데 소기선, 서상호 대원은 어제 올라갔던 길과 다르게 오른쪽 눈이 쌓인 곳으로 올라가고 오세인 대원은 왼쪽으로 갔다. 눈이 쌓인 지역이 눈이 녹아 허리까지 빠진다. 그런 곳을 러셀하며 올라가니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2시간여 만에 전진캠프에 도착하니 백광윤 대원과 주형철 대원이 텐트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다 같이 보수작업을 마치고 어제보다 편안하게 넓은 텐트에서 편안히 잘 수 있었다.

2009년 7월 10일 C1루트작업. 날씨 : 맑음, 오후 늦게 흐림

BC : 김규태

C1 루트작업 : 백광윤, 오세인

짐 수송 : 소기선, 주형철, 서상호

어제보단 한결 편하게 기상했다. 오늘도 데포지에서 전진캠프로 짐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두 개조로 나눠서 수송조와 캠프1 루트작업을 하기로 했다. 먼저 소기선, 주형철, 서상호 대원이 짐 수송을 위해 데포지로 내려갔다. 잠시 후 백광윤, 오세인 대원이 루트 작업을 위해 픽스 로프 한 동을 들고 동굴로 향했다.
전진캠프에서 C1루트 작업을 위해 가는 길이 좋지 않다. 중간중간 세락과 낙석이 떨어진 흔적들이 있다. 날이 좋아 정오쯤이면 눈이 녹아내린다. 눈사태 위험 구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동굴에 도착해서 장비를 내려놓고 고정로프 설치 작업을 한다. 작업을 하기 위해 오세인 대원이 픽스 로프를 자르려 하는데 잘 잘리지 않아 힘을 주는 순간 줄이 잘리면서 잡고 있던 왼손을 같이 찔러 버렸다. 순간 장갑을 벗고 상처를 확인하니 출혈이 심했다. 백광윤 대원이 모자를 벗어 지혈을 하고 전진캠프로 하산하기로 한다.
오세인 대원이 도착해서 상태를 보고 지혈을 위해 간단히 치료를 했다. 속살까지 베어 일단 베이스캠프로 내려가기로 하고 소기선 대원이 동행해서 두 대원만 베이스캠프로 내려가기로 했다.

2009년 7월 11일 C1루트작업. 날씨 : 맑음, 오후 늦게 흐림

BC : 김규태, 오세인

C1 루트작업 : 백광윤, 주형철, 소기선

BC → C1 : 소기선

소기선 대원은 베이스캠프에서 조식을 먹고 09시 30분쯤 전진캠프로 향했다. 혼자 올라가고 배낭에 짐이 없어 쉬지도 않고 비상 텐트까지 갔다. 비상 텐트에서 한참을 쉬고 전진캠프로 향했다. 전진캠프에서 동굴로 가는 가파른 곳은 어제 고정로프를 설치했었다. 동굴에 도착해서 백광윤 대원이 바위가 있는 중간 확보 지점까지 올라갔다. 바위에 하켄을 설치하고 이어서 주형철 대원이 올라갔다. 수없이 많은 크레바스가 베이스캠프의 빙하지역까지 이어져 있다. 소기선 대원이 17시에 전진캠프에 도착해서 텐트 정리하고 작업 나간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대원들이 하강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지만 안개가 많이 껴 잘 확인이 안 됐다. 해가 지고 대원들이 내려오자 물을 끓이고 랜턴을 들고 마중 나갔다.

2009년 7월 12일 C1 루트작업. 날씨 : 흐림, 오후 눈 안개 많음

BC : 김규태, 오세인

ABC → C1 루트작업 → ABC : 백광윤, 소기선, 주형철, 서상호

눈을 뜨니 8시가 다 되었다. 어제 늦게까지 등반을 해서 대원들이 피곤했다.
대원들이 동굴로 향하고 백광윤 대원이 어제 설치한 고정로프를 이용해서 고정로프 한 동을 더 설치하기 위해 올라갔다. 이어서 주형철 대원이 올라가고 소기선, 서상호 대원이 바위벽 확보지점까지 올라갔다. 다시 주형철 대원이 백광윤 대원을 뒤따라 올라갔다.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가 끝인 줄도 모르고 서상호 대원과 소기선 대원이 남은 구간을 올라갔다. 이제 30~40분쯤 걸어 올라가 텐트를 설치해야 하지만 안개 때문에 5m 도 보이지 않아 철수하기로 했다.

2009년 7월 13일 C1 설치. 날씨 : 흐림

BC : 김규태, 오세인

ABC → C1 : 백광윤, 소기선, 주형철, 서상호

출발 준비를 마치고 10시 30분쯤 C1으로 출발했다. 전진캠프에서 빠르면 동굴까지 1시간 정도가 걸린다. 이어서 동굴에서 설벽이 끝나는 곳까지는 3시간 정도 쥬마링을 해야 한다. 대원들 모두 설벽구간을 올라서자 안개가 낀다. 백광윤 대원이 먼저 길을 확인하기 위해 올라갔다. 잠시 후 뒤따라 대원들이 올라가는데 커다란 눈덩이가 앞에 박혀있다. 잠시 후 배낭을 내려놓고 쉬는데 현재 위치에 텐트를 설치하기로 한다. 18시에 저녁을 먹고 수다를 떨다 잠을 자기로 한다. 무전으로 김규태 대장이 내일은 베이스캠프로 철수하라고 한다. 대원들이 두통을 걱정해 혈액순환 약과 비타민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

2009년 7월 14일 베이스 하산. 날씨 : 새벽에 눈, 맑음

후발대 출발 : 박병환, 전상은, 김석수, 손대익

부산교대 → 김해공항 → 북경 → 우루무치 → 호텔

BC : 김규태, 오세인

C1 → ABC → BC : 백광윤, 소기선, 주형철, 서상호

대원들의 컨디션이 좋다. 전진캠프에 도착하니 새벽에 내린 눈으로 텐트가 반쯤 무너져 있다. 서둘러 보수 작업을 하고 다시 하산했다. 가오리에 도착하니 현지인들이 언제 옮겨놨는지 카고백이 한가득 쌓여 있다. 데포지 위에 친 비상용 텐트는 멀쩡하다. 대원들이 몇 번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나서야 빙하 구간에 도착했다. 빙하 지역이 끝나는 곳에 오세인 대원이 대원들을 마중 나와 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 반갑게 인사한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할 때쯤에는 김규태 대장이 대원들을 마중 나가 격려 해 준다. 짐을 정리하고 대장이 손수 만든 양고기 김치볶음밥으로 허기를 채운다.

반면 후발대로 출발하는 4명의 대원은 금일 한국을 출발하기로 되어 있다. 박병환 지도, 전상은 부대장, 김석수 등반대장은 교사로 학교 문제로 출국이 늦었고, 손대익 대원은 회사 연차 문제로 14일이 지난 오늘 출발하게 됐다.

2009년 7월 15일 산중휴일, 백광윤 하산, 후발대 베이스 합류. 날씨 : 맑음

우루무치 → 카쉬카르 → 게즈 → 베이스캠프

새벽에 일어나 카시에 도착하니 영어 가이드 Mr.마가 나와 있다. 먹을 것, 맥주, 과일, 프로판가스 등을 부탁하여 준비한다. 위그루족 소요사태 이후 가스 충전이나 가스통 취급이 어렵다고 한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게즈로 향하는데 중간에 우파르 마을에 들러 과일과 낭을 하고 양루도 샀다.
게즈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하고 검문소 저편에 백광윤 대원과 아디가 있었다. 반갑게 포옹을 하고 잡담하고 점심 먹고 백광윤 대원은 부산으로 우리는 베이스캠프로 출발했다.
드디어 베이스캠프에 도착해 먼저 들어온 대원들과 반갑게 포옹을 하고 시원한 맥주를 한잔했는데 속이 떨리면서 좋지 않다. 잠시 자고 저녁밥과 양고기를 먹고 내일 등반을 위해 천막에 불을 껐다.

2009년 7월 16일 전진캠프로. 날씨 : 맑음

BC → ABC : 김석수, 소기선, 오세인, 주형철, 서상호
BC → 임시 tent : 전상은
BC : 김규태, 박병환, 손대익

쌀쌀한 날씨에 눈이 떠졌다. 밥과 어제 남은 양고기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가져가야 할 짐과 장비 목록을 점검 후 전진캠프로 출발했다.
1차 데포지를 지나 임시로 쳐놓은 비상용 텐트에 도착했다. 침낭과 짐을 분배해서 넣고 약 40분 정도 오르니 가오리 데포지에 도착했다. 전진캠프에 도착하니 이전에 친 텐트 자리가 눈이 녹으면서 엉망이 되어 버렸다. 강한 바람이라도 불면 당장이라도 날아갈 듯 무너져 있었다. 서둘러 주위의 바위와 돌들을 정리해서 자리를 만들고 다시 쳤다.

2009년 7월 17일. 날씨 : 오전 맑음, 오후 늦게 흐림

ABC → C1 : 김석수, 소기선, 주형철
ABC → 가오리 데포지 짐 수송 : 오세인, 서상호
임시 Tent → ABC : 전상은
BC → ABC : 박병환, 손대익
BC : 김규태

07:00 대원들이 아침 준비로 부산하다.
08:40 오늘의 일과를 시작했다.

전진캠프에 있던 5명 모두 가오리 데포지로 짐 수송을 위해 내려가 ABC와 C1, C2 루트설치에 필요한 장비들을 골라 담았다. 개인당 20kg 이상 담았으니 100kg 이상 올린 것이다. C1으로 가는 조가 짐 욕심을 많이 낸다. 무거운 짐과 고정로프가 눈 속에 묻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힘들게 동굴에 도착한 후 김석수 등반대장이 반 정도의 짐을 동굴에 데포시키고 올라가자고 한다.
바위확보지점에서 옆으로 트레바스하는 구간에 소기선 대원이 먼저 갔다. 확보물 중 숏스나그는 완전히 빠져있고 롱스나그는 반쯤 박혀있다. 등반대장에게 보고하고 한 구간 더 올라가니 양쪽에 설치한 확보물이 다 빠져있었다. 3일 사이에 얼음이 많이 녹았다. 이제 수직에 가까운 구간인데 도저히 올라갈 용기가 안 나 등반대장에게 또다시 보고했다. 김석수 등반대장이 바위에 배낭을 매달고 금히 달려왔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등반을 하며 올라가 중간중간 박혀있는 확보물들을 다시 박아 넣었다. 그나마 맨 위의 확보물 2개는 확실하게 끝까지 박혀있어 다행이었다.
확보물 보수를 마치고 텐트 설치를 위해 C1으로 가고 등반대장은 짐을 가지러 내려 가야했다. 등반대장의 배낭을 대신 메고 C1에 가니 주형철 대원이 따뜻한 물을 준비해 놓았다가 두차례나 쥬마링한 등반대장에게 건내 준다.

2009년 7월 18일. 날씨 : 맑음 → 흐림(안개)

C1 → C2 → C1 : 김석수, 소기선, 주형철(루트개척, C2설치)
ABC → C1 : 손대익, 서상호(식량 다수 수송)
ABC : 박병환, 전상은, 오세인(가오리 데포지 → ABC 식량 장비 수송)
BC : 김규태

09시 10분 C2루트 개척 출발
14시 40분 C2도착 및 텐트 설치
15시 50분 C1출발
17시 20분 C1도착

아침 운행이 관건이다. 조금 춥더라도 눈이 녹지 않아 바닥이 딱딱해 걷는 게 오히려 편하다. C2 루트작업을 시작한다. 빤히 보이는 곳인데 1시간 30분 이상 걸려서 도착했다. 이 구간의 위험 구간은 소기선 대원이 고정로프를 설치했다. 이후로 짐이 없다는 이유로 러셀을 전담하고 C2까지 간다. C2로 가는 길은 크레바스와 설사면 고개를 넘고 넘어 어디가 끝인지 몰라 정신이상이 생길 정도다.
17:20 C1에 도착하니 ABC에서 손대익, 서상호 대원이 올라와 있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놓았다. 김규태 대장에게 무전으로 필요 물품을 ABC에서 동굴까지 수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내일 10:30 에 동굴에서 만나기로 했다.

2009년 7월 19일. 날씨 : 맑음 - 흐림 - 눈(밤)

C1 → C2 → C1 : 손대익, 서상호(짐 수송)
C1 → 동굴 → C1 : 김석수, 소기선, 주형철(짐 수송)
ABC → 동굴 → ABC : 오세인, 아디, 위젯(짐 수송)
ABC : 박병환, 전상은
BC : 김규태

손대익, 서상호 대원의 보충으로 Camp가 아침부터 활력이 넘친다. 09:00 C2로 가기 위해 손대익, 서상호 대원이 C1의 모든 짐과 텐트 1동을 넣어 국내 훈련 등반보다 더 많이 넣고 힘겹게 출발한다.
09:30 전진캠프로부터 물품을 받기로 한 김석수, 소기선, 주형철 대원이 동굴로 하강을 시작한다. 내려가면서 확보물을 확인하니 롱스나그만 힘을 쓰고 나머지 확보물들은 이미 헐렁헐렁한데 나사선으로 버티고 있었다.
11:10 동굴에 도착해서 짐을 받아보니 의외로 많다. 무거운 짐을 지고 쥬마링을 하려니 발목이 비틀어지고 프로트로 킥을 해야 하니 발가락과 발목 무릎이 자기 멋대로 돌아간다.
16:00 소기선, 주형철 대원이 자기들 짐을 C1에 놔두고 물과 마실 것을 만들어 쥬마링 끝나는 부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석수 등반대장이 올라오자 물을 건넸다.
19시쯤 C2로 갔던 손대익, 서상호 대원이 돌아왔다. 따뜻한 꿀물로 피로를 풀고 텐트에서 휴식을 취했다.

2009년 7월 20일. 날씨 : 맑음 → 약간 흐림

C1 → C2 : 김석수, 손대익, 소기선, 주형철, 서상호

ABC → C1 : 전상은, 오세인

BC → ABC : 김규태

BC : 박병환

10:00 C3 설치를 위한 짐을 패킹한 후 손대익 대원의 러셀을 출발로 일과를 시작한다. 무게가 장난이 아니다.

C2 근처에 이르자 안개가 끼고 눈이 내렸다. 눈은 잠시 후에 걷혔으나 가스는 계속되었다. 대원들이 처음 경험하는 5800m의 고소에 힘들어한다. 오히려 베이스캠프에서 고소증세로 고생한 서상호 대원은 베이스캠프 이후로 고소증세 없이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저녁을 먹었지만 허기를 달래기 위해 22:10분 라면으로 야식을 먹고 내일 일정에 대해 회의를 시작했다.

2009년 7월 21일 플라토 빙하 루트작업

C2 → C3 루트작업 → C2 : 김석수, 손대익, 소기선, 주형철, 서상호

C1 : 전상은, 오세인

ABC → C1 : 김규태

BC : 박병환

다들 피곤했는지 기상이 조금 늦었다. 손대익 대원과 서상호 대원이 러셀과 루트공작을 위해 먼저 출발을 하고 뒤에 김석수, 소기선, 주형철 대원은 식량과 고정로프, 텐트 등 여분의 장비를 챙겨 뒤따르는데 앞서 출발 한 대원들이 크레바스 때문에 진행이 늦었다. 지형 정찰을 하며 손대익 대원과 서상호 대원이 크레바스를 넘으며 전진한다.

무너진 세락을 통과해볼 생각으로 등반대장이 빙벽장비를 주섬주섬 챙기고 자일 두 개를 소기선 대원과 서상호 대원에게 주며 확보를 보라고 한다. 1시간여의 조심스러운 등반으로 건너편 등성이에 올라설 수 있었다. 이제는 어떻게 대원들이 건너오고 다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돌아올 방법을 강구 하다가 일단 중간 확보물을 회수하고 트롤리안브릿지로 넘어오기로 결정을 내렸다. 힘들게 등반을 하던 중 자일에 쓸리던 커다란 낙빙이 손대익 대원에게 떨어졌다. 그 충격에 등반이 불가능해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등반대장과 손대익 대원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쥬마와 레더를 이용해 겨우겨우 등반대장이 있는 등성이까지 올라갔다. 이후 손대익 대원은 이미 탈진상태여서 힘든 상황이었다. 케블러로프로 트롤리안브릿지를 만들고 건너편에 확실하게 고정하라고 말 한 후 손대익 대원의 링비너를 케블러로프에 걸고 등반대장이 하강기로 천천히 고정로프를 풀어주면서 천천히 보내주기로 했다. 그 순간 손대익 대원이 밑으로 쑥 내려가면서 등반대장이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늑골에 부상을 입는다. 손대익 대원의 발이나 손이 조금 높은 얼음 덩어리에 올라설 수 있는 위치에 서자 등반대장의 하강기에 여유가 생기고 겨우 매듭을 풀었다. 이로써 하강으로 생긴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손대익 대원이 했던 방법대로 건너오고 있는데 약 3m 가량 남겨두고 갑자기 등반대장의 몸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추락한다. 다행히 눈이 쌓여 있는 곳에 떨어져 다치지 않고 추슬러서 대원들 있는 곳에 도착했다.

신속했지만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 눈 때문에 시야도 가리고 올라 올 때 생긴 발자국도 사라진 지 오래다. 서로 위로하고 치하하고 대장께 무전을 보내니 24:30분 정말 긴 하루였다. 배가 고팠지만 간식으로 허기를 채웠다.

7월 22일 휴식, 식량 공급. 날씨 : 맑은 후 눈오다 갬

C2 : 김석수, 손대익, 소기선, 서상호
C2 → C1 : 주형철
C1 → C2 → C1 : 오세인
C1 → C2 → ABC : 김규태, 전상은
BC : 박병환

새벽에 김석수 등반대장이 늑골에 통증이 심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푹 쉬라고 했지만 10시에 밥 먹으라고 서상호 대원이 부른다. 텐트 바닥이 엉망인 관계로 2~3명은 텐트 보수를 하고 2명은 C1에서 올라오는 수송 조를 마중 나가기로 했다.

12:00경 소기선, 서상호 대원이 C1에서 올라오고 있는 대원들을 마중 나갔다. C2에서는 텐트 안에 있는 짐을 모두 꺼내 매트 위에서 말리는데 햇볕이 따가울 정도다. 마중을 나간 대원들은 김규태 대장과, 전상은 부대장의 배낭을 받아 메고 오세인 대원을 선두로 올라가는데 눈

보라가 친다. 대장 부대장, 오세인 대원이 C2 에 도착해 현재 플라토빙하의 상황을 의논한다. 18:00경 대장님으로부터 ABC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무전이 왔다. 20:00경 저녁 식사 후 내일 일정을 의논했다. 의논 끝에 등반대장이 내일은 세락 무너진 곳에 가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내려오기로 했다.

2009년 7월 23일. 날씨 : 맑음 → 흐림 → 눈

C2 → C3루트작업 : 김석수, 손대익, 소기선, 서상호
C1 → C2 : 오세인, 주형철
ABC → BC : 김규태, 전상은
BC → 박병환

이미 짐은 모두 올라있어 거의 빈 몸으로 오르는데 대원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없다. 부서진 세락 앞에 서는데 약 3시간가량 걸렸다. 무너진 세락 앞에서 등반대장이 대장과 무전을 하고 대원들과 의논해서 결정 되는 대로 등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의논을 시작했다. 김석수 등반대장이 아직 체력이 회복 안 된 손대익 대원에게는 이곳과 모스크바익스프레스까지 등반을 하지 말라고 한다. 소기선 서상호 대원에게 물었더니 건너가 보겠다고 한다. 그러면 등반대장이 고정로프를 깔아주기로 하고 그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결국 지나가는 길을 모두 고정로프를 설치하고 짐을 트롤리안브리지로 옮기게 만들었다. 건너오는 것을 고려해 중간 중간 확보물 설치에 신경을 많이 쓰며 등반했다. 차례로 소기선 대원과 서상호 대원이 쥬마를 이용해 건너면 등성이에 올라섰다.

텐트로 돌아오니 오세인, 주형철 대원이 와 있고 저녁도 해놓았다. 그것도 양고기와 김치를 볶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저녁을 먹고 잠시 쉬다가 내일 일정에 대해 의논하고 필요한 물품을 적으라고 하니 생각도 못 한 것들이 막 나온다.

2009년 7월 24일 C3 설치. 날씨 : 맑음

C2 → C3 : 김석수, 소기선, 오세인, 주형철, 서상호
C2 → ABC : 손대익

BC → ABC : 박병환
BC : 김규태, 전상은

07:00 기상
11:20 세락 도착
14:00 세락 건너기 완료
15:20 C3 자리 도착
16:20 Tent 사이트 도착 완료

30분 늦게 기상해서 아침밥을 준비한다. 위의 텐트 사람들은 모두 개인 짐을 패킹하고 텐트를 걷고 있다. 다 같이 아침 식사를 마쳤다. 밥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간단히 말하고 손대익 대원은 ABC에 내려가 있기로 했다.
지금은 짐이 별로 없지만 세락 앞에 가면 짐이 많아진다. 세락을 넘어서 조금만 가면 된다고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6000m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아마도 다들 힘들 것이다.
쥬마링으로 세락을 건너고 트롤리안브릿지로 짐을 끌어 당기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든다. 7~8차례의 짐 끌어당기기가 끝나고 주형철 대원과 등반대장이 쥬마링으로 세락을 건넜다. 대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자 눈사태나 세락의 위험이 없어 보이는 설원에 C3를 설치하기 위해 텐트사이트를 다졌다. 반듯하게 설치된 텐트를 보니 기분이 좋다. 너무 플라토 초입에 텐트를 설치했나? 날씨도 좋았는데 힘들어도 좀 더 올라갈 걸 그랬나 보다.

2009년 7월 25일 모스크바익스프레스 돌파. 날씨 : 맑음

C3 : 김석수, 소기선, 오세인, 주형철, 서상호
BC : 박병환, 김규태, 전상은, 손대익

09:00 출발. 13:00 설벽 등반 시작
20:00 설벽작업 마침, 하강. 22:20 C3 도착

고도 6000m에서 자고 일어났지만 다들 컨디션이 좋은 듯하다. 다만 정상 능선에 해가 가려 오전 09시가 넘어야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에는 템트 밖으로 나가기 싫을 정도로 춥다. 아침을 먹고 고정로프 작업을 하기 위해 설사면을 따라가지만 생각보다 너무 멀다. 한참을 올

라 가파른 설벽 앞에 도착했다. 설벽은 별로 길어 보이지 않았으나 올라서 보면 설벽이 엄청 길게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크레바스와 같은 턱이 있고 그 너머에 엄청 긴 설벽이 있었다. 설벽에 햇살이 좌르르 흐르고 표면에 윤기가 도는 것이 각도는 40° 정도로 등반대장이 고정로프 설치를 위해 설벽을 올라섰다. 최근 2~3일 동안 날이 좋아 눈사태의 위험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 바위에 확보물을 설치했다. 뒤이어서 대원들이 차례로 쥬마링으로 올라왔다. 6800m에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쥬마링 하기가 쉽지 않다. 하강을 시작할 때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한 구간이 100m씩 되다보니 한 사람이 하강할 때 다른 사람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모두 하강을 완료하니 23:30이었다. 텐트에 도착하니 24:30이다. 늦은 밤 스프를 끓여 지친 몸을 달래고 침낭 안으로 들어갔다.

2009년 7월 26일 C4 설치. 날씨 : 맑음

C3 → C4 : 김석수, 소기선, 오세인, 주형철, 서상호
BC : 박병환, 김규태, 전상은, 손대익

09:10 출발. 13:00 짐 매단 곳. 14:00 크럭스 끝부분
16:00 150m 설벽 완료. 18:00 설벽 끝부분에 집결
20:00 빙하 넘어 집결. 21:00 Tent 더 다지기
23:00 C4 완성. 24:30 석식완료, 등정회의. 01:00 취침

배낭이 없어 대원들의 몸이 가볍다. 어제보다 한 시간가량이나 단축해서 모스크바 익스프레스 급경사의 설사면에 도착했다. 서둘러 한 사람 한 사람 쥬마링을 시작했다. 각자 어제 데포 시킨 짐을 찾고 등반을 계속했다.
어제 최종 확보지점에서 30m쯤 올라가자 소기선대원이 서상호 대원에게 올라오라고 신호를 보낸다. 바위와 눈 사면이 섞인 지역을 벗어나자 위쪽으로 길게 뻗은 설사면이 보였다. 중간에 크레바스가 있을지 몰라 김석수 등반대장이 등반에 나섰다. 100m가량을 오르던 등반대장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되었는지 대원들에게 한 명씩 올라오라고 한다. 얼음 구간 30m 정도를 등반하던 김석수 등반대장이 왠지 클라이밍다운으로 하강을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왼쪽으로 돌아가면 설사면이 나온다는 것이다. 왼쪽으로 돌아가서 확보물을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대원들도 뒤따라 강빙 구간을 넘어갔다.
얼마나 올라 왔을까 고도 7000m에 캠프4를 설치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몇 발자

국 못가서 다들 숨을 고른다고 정신이 없다. 텐트를 치기 위해 자리를 고르고 저녁 식사 후 회의를 가했다.

2009년 7월 27일~28일. 날씨 : 맑음, 정상부근 강풍, 안개

C4 → Summit → C2 : 소기선, 오세인, 서상호

C4 → C2 : 김석수, 주형철

BC → ABC : 박병환, 전상은, 손대익

BC : 김규태

06:45 출발. 16:54 정상등정 20:50 환한 귀환.
20:52 슬립. 04:20 눈굴에서 비박.
08:00 C3 도착. 11:50 출발. 15:00 C2 도착.

새벽이 부산하다. C4 대기조는 정상 등정하는 대원들의 물과 음식을 데우고 정상 등정조는 신발신고 장비 챙긴다고 정신이 없다. 소기선, 오세인, 서상호 세대원을 어슴푸레한 새벽에 정상 등정을 위해 C4를 출발했다. 대원들이 떠나고 난 후 밤새 세 대원들 편하게 재운다고, 그리고 아침을 준비해 먹인다고 고생한 등반대장과 주형철 대원이 같이 잠시 취침에 들었다.
소기선, 오세인, 서상호 대원 10m 간격씩 안자이렌을 하고 출발한 지 3시간여 만에 바위가 드러난 능선 부분에서 베이스캠프와 첫 번째 교신을 하였다. 잠시 후 베이스에서 공격조가 관측 됐는지 진행 방향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온다.
넓고 완만하게 펼쳐진 설사면 중간중간 크고 작은 크레바스들이 입을 벌리고 있다. 크레바스 때문에 왼쪽으로 크게 돌아가기로 했다. 운이 좋은건지 서상호 대원의 감이 좋은 건지 크레바스 바로 옆을 지나면서도 발을 내딛는 곳마다 발이 안 빠지고 크레바스를 피해 나갔다. 소기선 대원이 자리를 옮기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강빙 구간에 미끄러진다. 서둘러 오세인 대원과 서상호 대원이 피켈로 제동을 잡는다. 다행히 서상호 대원이 제동을 걸어 멈출 수 있었다. 강빙의 가파른 설사면 때문에 오세인 대원이 위험하다며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한다. 막상 올라 와보니 얼음 구간이 생각보다 짧았다. 한 명 씩 돌아가면서 러셀을 했다. 한 시간가량 올라서니 멀리 정상능선과 넓은 평원이 나타났다.
정상 부근에 날씨가 안 좋아 보인다. 고도 7500m 지역 서서히 가스가 찬다. 바람도 강해지고 눈이 조금씩 날린다. 7600m를 넘어서자 가스가 차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다. 서상호 대원

이 GPS를 켜서 방향을 잡는다. 설상가상으로 오세인 대원이 구토 증세가 나타난다. 초반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더니 고소적응이 안 된거 같다.
대원이 세명이라 혼자 내려보낼 수도 없고 두 대원이 남고 한 명만 정상에 올라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올라왔을까 완만한 경사의 설사면이 이어지고 가스가 차서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에 현재 서 있는 곳보다 높은 곳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서상호 대원도 멈추어 서서 GPS 를 확인한다.
"GPS 상으로는 여기가 정상봉우리로 표시되는데 GPS가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GPS상으로는 현재 서 있는 곳이 정상봉우리다. 그런데 문제는 대원들 앞으로 아직도 평평한 설사면이 이어져 있는 것이다.
"대장님 현재 가스가 워낙 많이 차서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만 평평한 능선위입니다. GPS 상으로 정상봉우리가 맞는데 설사면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고도는 7680m로 정상보다 조금 모자라게 나옵니다. 이상"
"현재 GPS에 나타나는 좌표를 불러 달라. 이상"
"현재 불러준 좌표가 정상이 맞다. 동일정상인데 앞쪽의 봉우리와 뒤쪽의 봉우리 두 봉우리가 동일 정상이다. 대원들이 서 있는 곳은 앞쪽의 봉우리 같다. 이상"
16시 54분 정상등정이다. 11시간 동안의 크레바스와 강빙 구간, 악천후를 뚫고 재학생 세 명이 공거얼 정상에 섰다. 서둘러 기념촬영을 했다. 마침 베이스에서 김규태 대장으로부터 무전이 온다.
"가스가 걷히는 것 같으니 남쪽으로 조금 더 진행해서 뒤쪽봉우리에서도 사진촬영을 하기 바란다. 이상"
서상호 대원 선두로 남쪽으로 갔다. 서상호 대원이 GPS로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을 헤치고 올라서서 GPS에 마크 버튼을 눌렸다. 오세인 대원이 주저앉더니 기침과 또다시 구토를 한다. 베이스에 철수하겠다고 무전을 보낸다. 내려오면서 강빙구간을 피하려 보니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게 크레바스다. 크레바스지 역을 지나 처음 베이스에 무전을 보냈던 바위 능선 초입 부분이 눈에 보인다. 베이스에서도 이제 관측이 안 된다고 조심해서 하산하라는 무전이 왔다.

2008년 창립 40주년 '사람과 산' 책에 부산학생산악연맹 소개되다

2008년 정민규회장 시절 부산학생산악연맹의 40주년을 맞이하여 '사람과 산' 부산 주재 기사로 당시 활동하던 백진국(동아대85)에 의해 연맹 활동 사항이 소개되었다.

"자유! 도전! 무한!" 이라는 구호아래 당시 정민규 회장의 알피니즘 강의에 대한 글을 인용해 보면 "학문과 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이제 막 산을 배워가는 젊은 산악인으로 온몸으로 알피니즘을 체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알피니즘은 도전과 자기희생의 숭고한 인간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외에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활동 사항과 업적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창립 당시의 내용과 히말라야 원정대 가네쉬4봉 일명 파빌봉(7102m)을 이승렬(부산대) 대원의 등정, 공거얼원정 등정, 학생연맹에 소속된 각 대학부의 해외 원정에 대한 소개, 학생연맹 출신의 홍보성(부경대74), 서성호(부경대98)의 연맹 외에서도 히말라야원정 등정 성공 등 대외적으로도 학생연맹 출신들의 활약상에 대하여 기사화하였다.

이러한 꺼지지 않은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열정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여전히 푸르고 푸른 학생연맹의 젊은 피로 산악계에서 대내외적인 밑걸음이 되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2008년 '사람과 산' 부산학생산악연맹 소개


자유! 도전! 무한!

내 두 다리가 그리는 삶을 사랑하라

창립 40주년 맞은 부산학생산악연맹



2005년 부터 2015년 재학생 해외활동 '청소년 오지탐사대' 'UIAA 국제 청소년 캠프'를 다녀오다

2001년부터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코오롱 스포츠가 후원으로 대학생들의 도전정신과 등반지 탐사, 문화교류, 봉사활동 등으로 대학생 대상 모집 후 선발 과정을 거친 후 떠나게 되었다. 남미 볼리비아의 안데스산맥 외 아틀라스산맥, 카프카스산맥, 천산산맥 등 남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가리지 않고 오지를 탐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해외 탐사는 대학생들에게 특히 산악부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세계 각지의 험준한 오지를 함께 탐사함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UIAA 국제청소년 캠프 또한 등반과 교육을 통해 함께 우의를 다지며 산악리더십을 키우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맹에서 참석한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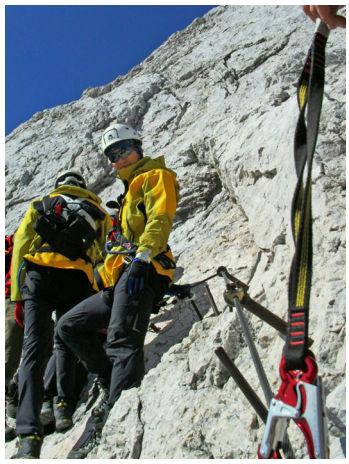
청소년 오지탐사대를 다녀오다

연 도	참여자	참여장소	기 간
2005	임정아(부산교대03)	네팔 마칼루지역	07월 23일~08월 18일
	이석호(동아대80) 지도위원 김남구(동아대01) 대원	파키스탄 파미르 고원 마운틴 판(mt. FAN)	07월 22일~08월 10일
2006	박정태(인제대03)	티벳 리엔칭탕굴라산맥 치즈피크	07월 20일~08월 10일
2008	배현석(한국해양대 05) -대원 송경빈(부경대 08) -대원	호주 태즈매니아	07월 23일~08월 07일
	박정태(인제대03)	아프리카 르웬조리봉	
2009	박성환(부산대 06) -대원	캐나다 유콘	07월 22일~08월 08일
	이세현(한국해양대 04) - 대원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및 메루 일원	07월 21일~08월 08일
2010	장병길(부산대 06) -부대장	유럽 슬로베니아 율리안 알프스	07월 19일~08월 09일
	김행구(부경대 81) -탐사대장 이호주(부경대 05) -대원 정진희(부산대 08) -대원	아프리카 우간다 르웬조리	07월 18일~08월 05일
	고은빈(부산대 06) -부대장	중국 청해성 깡션카산 및 치롄산맥	07월 18일~08월 05일
	지혜진(부산교육대 08) -대원	티베트 니엔칭탕굴라 산맥 치즈봉 및 나무초호수	07월 19일~08월 11일
	김민성(부산대 09) -대원 이경영(동아대 09) -대원	파키스탄 k2 곤도고로라	07월 19일~08월 10일
2011	김현미(부산대 09) -대원	아프리카 우간다 르웬조리, 케냐 케냐산	07월 19일~08월 07일
	이창선(부산대 06) -대원	남미 페루 안데스 와이와시 산군 및 디아블로 무도봉	07월 19일~08월 07일

연 도	참여자	참여장소	기 간
2012	조수아(부산대 11) –대원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산맥 존 뮤어 트레일(John Muir Trail)	07월 19일~08월 14일
	최민수(한국해양대 10) –대원 전재민(인제대 12) –대원	중국 칭하이성 쿤룬산맥 위주봉(6178m)	07월 20일~08월 11일
	백진국(동아대 85) –탐사대장 신창용(부경대 12) –대원	중국 쓰촨성 쓰구냥 산군 등반 및 동티베트 탐사	07월 20일~08월 12일
	조형석(동아대 10) –대원	몽골 알타이 산맥	07월 18일~08월 06일
2013	이재훈(부경대 12) –대원 배가영(한국해양대 12) –대원	유럽 조지아 카프카스 산맥(KAVKAZ)	07월 13일~08월 01일
	김석수(부산교육대 86)–탐사대장 김나원(동아대 09) –대원	중국 칭하이성 곤륜산맥 옥주봉(6,178m)	07월 19일~08월 09일
2015	박희진(동아대 12) –대원	파키스탄 카라코람산맥 히스파패스, 러쉬피크	07월 23일~08월 13일

탐사대명칭	참가자	탐사 대상지	탐사기간
2005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	임정아(부산교대 03) – 대원	네팔 마칼루 지역	07월 23일~ 08월 18일
	8/04 숨 쉴 때마다 허파꽈리에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사다가 밟은 이중화 자국에 내 발을 내디디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무렵 메라피크가 바로 눈앞에 보인다. 먼저 도착한 A팀을 바라보며 마지막 정상 언덕길을 오르는데 마지막 몇 걸음이 어찌나 그렇게 어려운지. 도착하자마자 두 다리를 뻗어 버린다. 이용석 형이 수고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데 그제야 감격이 밀려왔다. 무수히 많았을 고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정상공격까지 결정해주신 대장님과 함께 등반하면서 도움을 준 사다에게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다. 기념촬영을 마치고 멀리 에베레스트, 로체, 마칼루와 히말라야 메라피크 남봉에서 둘러보는데 말로만 듣던 그 봉우리들을 내 눈 속에 직접 담을 수 있음이 그 자리에 있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석호(동아대 80) –지도위원 김남구(동아대 01) –대원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 마운틴 판(mt. FAN)	07월 22일~ 08월 10일
2008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	배현석(한국해양대 05) –대원 송경빈(부경대 08) –대원	호주 태즈매니아	07월 23일~ 08월 07일
	7/27 송경빈 걸으면서 둘러본 태즈매니아의 작게 흐르는 시냇물이나 호수는 보석에 비유하면 붉은 루비색을 띠어서 독특한 느낌을 주었다. 제임스가 설명하기를 나무들이 많고 토양의 영향을 받아 붉은색을 낸다고 했다. 가까이 들여다보아도 정말이지 깨끗한 물이었다. 그리고 숲을 지나며 형용할 수 없는 막 짜낸 듯한 연한 우유의 비릿한 향이 코끝을 스칠 때는 정신이 몽롱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지나는 길 곳곳에 남겨진 동물의 배설물들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즐겁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 했던 점은 동물들이 사람을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는 모습이었다.		

탐사대명칭	참가자	탐사 대상지	탐사기간
2009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	박성환(부산대 06) –대원	캐나다 유콘	07월 22일~ 08월 08일
	2차 트레킹 출발일 오늘 트레킹을 계획대로 와서 내일도 처음 계획과 같이 출발하기로 했는데 그 코스를 보자니 거리도 암담하고 늪지대로 예상되는 코스 하며 일단 길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암담하다. 혼자라면 갈 엄두도 안 나겠지만 우리 믿음직한 동료들이 함께 가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잠을 청한다. 내일은 조금 더 파이팅도 자주 하고 좀 더 얘기도 많이 나눠야지. 오늘로 또 하루가 지나가서 우리의 귀국 날이 하루 더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니 씁쓸하다. 이 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려 노력해야지 나의 소중한 대장님, 부대장님 그리고 나의 동료들, 하루 하루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도 좋다.		
	이세현(한국해양대 04) – 대원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및 메루 일원	07월 21일~ 08월 08일
	7/26 요 며칠 운행하면서 킬리만자로 정상의 빙하가 계속 보였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구름이 끼더니, 계속 하늘이 흐려서 해가 보이질 않는다. 오바복을 입고 운행을 해도 덥지 않았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라바타워를 통해 바란코캠프로 가는 팀과 갈림길에서 고도를 높이지 않고 바로 바란코캠프로 가는 팀으로 나누었다. 나는 라바타워를 통해 가게 되었는데, 라바타워는 용암이 분출하면서 굳어져 하나의 큰 바위가 된 것 같았다. 시간상 라바타워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잠깐 쉬었는데, 이곳에도 캠프지가 있었다. 물어보니, 이곳 캠프지에서 바로 빙하를 통해 올라가는 루트가 있다고 한다. 우리가 갈 곳은 바란코캠프 이곳에서 가는 길이 이제 쭉 내리막길이었다. 4,600m까지 고도를 올리고 다시 3,900m로 내려가는 길. 올라온 높이가 너무 아쉬웠다. 그대도 내심 조금의 고소적응이 잘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즐겁게 내려간다. 다시 내려가는 길에는 웅장한 용암 협곡의 장관이 펼쳐졌다. 빙하가 흐르며 물도 흘렀고, 세네시오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고도가 4,600m 정도에 해가 들지 않는 부분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도 있었다.		
2010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	장병길(부산대 06) –부대장	유럽 슬로베니아 율리안 알프스	07월 19일~ 08월 09일
	장병길(부산대) 슬로베니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율리안 알프스 트리글라브국립공원은 최고봉 트리글라브(Triglav, 2864m)를 중심으로 2000m 이상의 봉우리들의 즐비한 거대한 산군이다. 대략 2000m를 기준으로 아래로는 울창한 숲과 꽃들이 우거져 있고, 위로는 하얀 바위봉우리들이 명확한 색감의 경계를 짓고 있다. 석회암질의 바위들이라 낙석이 잦고 너덜지대가 많다. 빙하가 녹은 물이 협곡을 이루는 곳이 있으며 넓은 초목지대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트리글라브 산군의 첫인상은 아찔함이었다. 우뚝 솟은 석회암질의 하얀 암봉들 사이로 가파른 협곡이 지난다. 트리글라브산 정상은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워 맑았다가도 금방 천둥, 번개가 치거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지도에 표시된 촘촘한 점선은 위험한 구간임을 나타내는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여 가파른 등산로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위험 구간에서 안전벨트와 확보줄 등 장비를 착용하고 비아페라타 방식으로 등반을 했다.		

탐사대명칭	참가자	탐사 대상지	탐사기간
2010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	 		07월 19일~ 08월 09일
	김행구(부경대 81) –탐사대장 이호주(부경대 05) –대원 정진희(부산대 08) –대원	아프리카 우간다 르웬조리	
	정진희(부산대) 마지막 정상 직전의 캠프에서는 다들 안 그런 척했지만 힘들어했습니다. 정상을 가는 날, 장비가 충분하지 않아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정상아래 이름 없는 봉우리에 우리만의 이름을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다들 울 것 같고 서러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으니 괜찮다며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산 길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숯에 끓여 숯 맛이 한껏 나는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북어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 밍밍한 북엇국을 먹지도 못한다는 것에 너무 아쉽고 대원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대학 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경험과 배움을 가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진 탐사 기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대원들과 연락을 하고 그때의 짧다면 짧은 추억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짧아도 깊은 추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르웬조리! 비록 정상은 가지 못했지만, 정상보다 더 값진 것들을 얻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07월 18일~ 08월 05일
	 		
	고은빈(부산대 06) –부대장	중국 청해성 깡션카산 및 치롄산맥	

<table>
<tr><th>탐사대명칭</th><th>참가자</th><th>탐사 대상지</th><th>탐사기간</th></tr>
<tr><td rowspan="3">2010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td><td colspan="2">고은빈(부산대)
대원들이 성상 구간에서의 첫 등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고 없이 캠프1까지 등반을 잘 하였다. 점심때쯤 도착하여 행동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캠프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상 공격을 시작하였다.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대원들 모두 고산증에 적응이 된 상태였고 다들 컨디션이 좋아서 13명 모든 대원이 4,728m 미답봉을 등정하였다. 등정 후 캠프1로 내려와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BC로 돌아왔다.
하루를 BC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우리의 계획이었던 두 번째 미답봉을 향해 출발하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BC에서 가는 거리가 아주 멀었고, 또한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좀 있어서 많은 대원이 조금 힘겨워하였다. 또한 정상을 공격하기 전에 크레바스가 많은 빙판 구간을 가야 해서 고정로프를 설치하고 주마를 이용하여 대원들 모두 다 함께 정상을 공격했다. 역시나 다들 힘들어서 했지만 13명 모두 정상 등정을 하였다.
   </td><td>07월 18일~
08월 05일</td></tr>
<tr><td>지혜진(부산교육대 08) -대원</td><td>티베트 니엔칭탕굴라 산맥 치즈봉
및 나무초호수</td><td rowspan="2">07월 19일~
08월 11일</td></tr>
<tr><td colspan="2">지혜진(부산교대)
눈발이 날리고 치즈봉 정상이 뿌옇게 보이긴 했지만 1차 정상공격이 시작되었다. 치즈봉을 오른 적이 있는 티벳대원 쓰남타시는 아무래도 오늘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기상이 안 좋은 날에 정상에 오른다면 더욱 성취감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오늘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0도가량의 설벽에 주마링으로 대원 모두가 올랐다. 하지만, 더욱더 심해지는 화이트아웃과 눈발로 인해 한 치 앞도 구분할 수가 없었다. 아쉽지만 우리는 다음의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대장님 말씀처럼 아무리 올라가도 정상에 닿질 못했다. 그리고 위험한 구간도 많았다. 크레바스가 여러 곳 있었는데 대장님께서 크레바스 구간에 표시를 하시고 눈에 띄게 파놓으셨다. 크레바스를 뛰어넘을 때는 얼마나 무섭던지 빠지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다. 고정된 로프에 비너를 걸고 계속 올랐다. 그리고 드디어 정상 부근 칼날능선에 도달했다. 여기서는 쌓인 눈이 계속 무너져내려 전진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정상부근에서는 주마로 겨우 올랐다. 드디어 정상이다!!!
   </td></tr>
</table>

<table>
<tr><th>탐사대명칭</th><th>참가자</th><th>탐사 대상지</th><th>탐사기간</th></tr>
<tr><td rowspan="3">2010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td><td>김민성(부산대 09) – 대원
이경영(동아대 09) – 대원</td><td>파키스탄 k2 곤도고로라</td><td rowspan="3">07월 19일~
08월 10일</td></tr>
<tr><td colspan="2">김민성(부산대)
몇 걸음 걷고 주저앉아 '세월아 내 세월아~'하기를 여러 번. 그저 동공이 풀린 채로 오름짓 하고 있다. 그때 뭐가 '쌩~'하고 지나간다. 대장님이다. 5.680M의 곤도고로라 패스 정상. 우리가 모두 최고가 되는 순간을 가슴만이 아니라 사진기에도 담아주시기 위해 먼저 날라 가신다. 드디어 정상이다. K2와 브로드피크를 배경으로 만세를 하고는 그대로 뒤로 벌러덩 누워버린다. 그렇게 한참 숨을 고르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대원들을 보며 나도 얼른 그 사진들 속에 원래 마치 풍경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담겨간다. 쓱 둘러보니 힘들었던 오름짓의 어둠은 사라져가고 8월 1일 최고의 순간. 빛나는 태양이 우리를 비춰준다. 저 멀리 구름 모자를 쓴 K2, 브로드피크, 마셔브롬, 가셔브롬 봉우리까지 턱이 빠진 것 처럼 입을 벌리고 탄식조차 나오지 않는 감동에 빠져들다 생각한다. 산을 오르는 이들 모두 각자의 가치가 다를 텐데 그들은 그 가치의 보석을 얻었는지, 나는 그 가치를 얻었는지 되물어본다. 그리고 느낀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으로 느끼며. 내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있다. 다른 누군가의 보석도 다른 누군가가 밟았던 저 땅도 부럽지 않다. 오로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경영(동아대2009)
오늘은 천국이라는 PAIJU캠프에 가는 날이다. 가는 길은 너무나 뜨거워서 7부 바지를 입은 용선이 오빠의 종아리를 뻘겋게 익힐 정도였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빨래와 샤워를 할 수 있다는 엄청난 곳! 가는 길에 저 멀리 K2가 보였고 트랑고타워도 보았다. 트랑고타워. 정말 멋있다. 저렇게 높은 곳을 어떻게 오를까. 인간이란 참 대단한 생명체이다. 드디어 도착한 PAIJU캠프. 정말 낙원이었다. 설산을 보면서 샤워를 했다.
 
  </td></tr>
</table>

<table>
<tr><th>탐사대명칭</th><th>참가자</th><th>탐사 대상지</th><th>탐사기간</th></tr>
<tr><td rowspan="4">2011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td><td>김현미(부산대 09) –대원</td><td>아프리카 우간다 르웬조리, 케냐 케냐산</td><td rowspan="2">07월 18일~
08월 05일</td></tr>
<tr><td colspan="2">김현미(부산대)
그렇게 산을 오르다 보니 후덥지근했던 아프리카에서 만년설을 만났다. 지구에서 가장 덥다는 적도에서 만난 만년설.
누구나 경험해 보지 못하는 희소가치를 지닌 그곳. 나와 대원들은 그곳, 르웬조리 5109m 마르게리타 봉에서 얼싸안고 엉엉 울었다.
르웬조리 등반 이후 케냐산 등반이 이어졌다. 고소와 싸우느라 힘이 빠지고 먹을 거 앞에선 사족을 못 쓰는 내가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던 고산. 또 다른 봉을 정복하기 위한 또 다른 산행. 걱정과 달리 고소에 적응한 우린 4985m 레나나봉에서 일출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자연이 허락해 주어야 등반이 가능한 고산 정상. 자연이 주는 선물 고산병. 우리 아프리카 청춘이다. 팀은 해냈다.</td></tr>
<tr><td colspan="2"> 
그림 부주쿠 산장으로 가는 도중 찍은 사진.
 
그림 케냐산 정상 레나나봉에서
부산대 산악부 부기를 들고 있는 모습.</td></tr>
<tr><td>이창선(부산대 06) –대원</td><td>남미 페루 안데스 와이와시 산군
및 디아블로 무도봉</td><td rowspan="2">07월 19일~
08월 07일</td></tr>
<tr><td colspan="2">이창선(부산대)
이상하게도 이러한 고통이 귀중해 짐과 동시에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점차 고통은 사라져갔다. 사람의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몸소 체험하게 되는 하루하루였다. 역시 어떤 일이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통증을 즐기고 난 후 다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다. 운행 중에 보이든 아름답던 청록 빛깔의 호수, 영화 속에서나 보던 설사면 에서의 아발란체, 4000m 고도에서의 넓게 펼쳐진 평야, 눈앞에 눈 덮인 봉우리가 보이는 고도에서의 온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사는 페루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현재를 즐기고 있는 12명의 팀원과 대장님들. 약 2주 동안의 꿈만 같던 시간은 그렇게 지나갔다.</td></tr>
</table>

<table>
<tr><th>탐사대명칭</th><th>참가자</th><th>탐사 대상지</th><th>탐사기간</th></tr>
<tr><td>2011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td><td colspan="2"> 
</td><td>07월 19일~
08월 07일</td></tr>
<tr><td rowspan="4">2012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td><td>조수아(부산대 11) –대원</td><td>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산맥
존 뮤어 트레일(John Muir Trail)</td><td rowspan="2">07월 19일~
08월 14일</td></tr>
<tr><td colspan="2">8/8 휘트니 밑에서 맞은 별 사탕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면 휘트니가 보인다. 하지만 스위치백으로 된 그 길이 어찌나 먼 지 지그재그 스위치백이 미워진다. 그러던 중에 우박이 떨어진다. 별 사탕보다 큰 우박이 두두둑~!! 겨우 휘트니 삼거리까지는 도착했지만 커다랗고 거센 우박을 몸으로 견디기에는 너무 아팠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급한 대로 은박 매트로 우박을 피했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우박을 피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인 것에 대해 또 한 번 감사함을 느낀다. 정말 고도가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가 자주 일어났다. 그 큰 자연 아래 인간은 참 작아 보인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녹인다.</td></tr>
<tr><td>최민수(한국해양대 10) –대원
전재민(인제대 12) –대원</td><td>중국 칭하이성 쿤룬산맥 위주봉
(6178m)</td><td rowspan="2">07월 20일~
08월 11일</td></tr>
<tr><td colspan="2">7/24 아름다운 쿤룬, 하지만 힘든 우리들
일정 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고소적응으로 어떤 날보다 힘든 날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속적응의 시간이 베이스캠프에서는 더욱 길고 힘 드리라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다. 고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원들도 하루빨리 고소에 적응하여 12명 다 같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싶다. 소소한 소원이지만 너무나도 밝은 별 빛을 보니 기도를 하게 된다. 낡아 보이는 침대에 누웠다. 웬일인지 오늘은 잠이 오질 않는다.
   </td></tr>
</table>

<table>
<tr><th>탐사대명칭</th><th>참가자</th><th>탐사 대상지</th><th>탐사기간</th></tr>
<tr><td rowspan="4">2012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td><td>백진국(동아대 85) –탐사대장
신창용(부경대 12) –대원</td><td>중국 쓰촨성 쓰구냥 산군 등반
및 동티베트 탐사</td><td rowspan="2">07월 20일~
08월 12일</td></tr>
<tr><td colspan="2">구채구와 차자구하평을 지나 야쿠고개에서 고소적응 훈련을 마치고 따구냥산과 얼쿠냥산 정상에 올랐다. 두 산 모두 해발고도가 5000m 이상인 곳으로 한국에서 접한 산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초입에서는 울창한 나무들이 무성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은 관목과 풀들이 자라고 정상부에는 식생이 자라지 않고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마 다들 오지탐사대를 지원하는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이런 대자연의 모습을 집적 피부로 느끼고자 함일 것이다. 내가 쓰구냥산군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경험한 것은 바로 얼쿠냥산 정상공격 때 바라본 새벽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이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은 아직도 눈에 선할 정도로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다. 이번 탐사의 가장 큰 목표였던 따구냥산 과 얼쿠냥산을 오른 우리 팀의 다음 일정은 공가산 빙하트레킹과 야라설산 트레킹이었다.</td></tr>
<tr><td>조형석(동아대 10) – 대원</td><td>몽골 알타이 산맥</td><td rowspan="2">07월 18일~
08월 06일</td></tr>
<tr><td colspan="2">어느새 국경지대에 도착했다. 이미 여러 텐트가 쳐져 있는걸 보니 캠핑장 인 듯하다. 우리가 신기한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 공복에 시달렸던 우리는 행동이 빠르다. 어느새 텐트를 치고 밥이 익기를 기다리고 있다.</td></tr>
<tr><td rowspan="3">2013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td><td>이재훈(부경대 12) –대원
배가영(한국해양대 12) –대원</td><td>유럽 조지아 카프카스 산맥(KAVKAZ)</td><td rowspan="3">07월 13일~
08월 01일</td></tr>
<tr><td colspan="2">4,200m 위치한 white church를 가려 움직였다. 배낭에 날진 통 하나만 챙겨 10:00에 출발했다. 50분 만에 도착한 이곳은 카즈베기 정상이 마치 우리 집 뒷동산 마냥 너무 가까워 보였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의 카즈베기 정상아래 사진을 찍고 부푼 기대를 안고 내려왔다.
정상을 가기 전, 저녁 7시부터 이른 잠을 청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새벽 2시에 그렇게 맑았던 하늘에서 함박눈이 쏟아져 부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대원들...3시가 되어도 4시가 되어도 눈이 멈추지 않자 우리의 안전을 위해 정상 공격 취소. 코앞의 정상을 두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치지 않는 7월의 눈바람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우린 가야만 했다. 자연은 역시 하늘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하늘 앞에 용서를 구했다.“준비되지 않은 채 바라기만 해서 죄송 합니다.” 떠나 버린 애인을 붙잡는 심정으로 대원 모두 꼭 다시 오리라는 또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하산 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 시간도 쉽지만은 않았다. 뺨을 때리는 우박과 쏟아지는 비바람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td></tr>
<tr><td colspan="2">   </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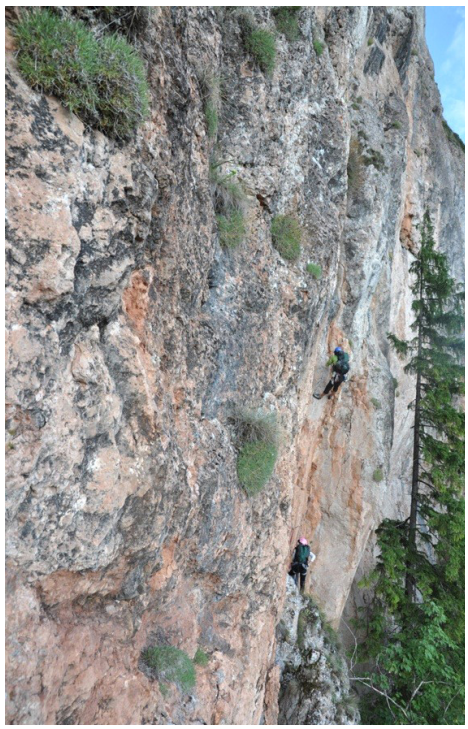
<table>
<tr><th>탐사대명칭</th><th>참가자</th><th>탐사 대상지</th><th>탐사기간</th></tr>
<tr><td rowspan="3">2013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td><td>김석수(부산교육대 86) –탐사대장
김나원(동아대 09) –대원</td><td>중국 칭하이성 곤륜산맥
옥주봉(6178m)</td><td rowspan="3">07월 19일~
08월 09일</td></tr>
<tr><td colspan="2">베이스캠프 도착 다음 날. 어김없이 고소적응을 위한 근교 산행이 시작되었다. 2시간여를 올라가서 설산이 보였다. 3시간쯤 올라가자 아이젠을 차란다. 아이젠을 차고서부터는 내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 두 번째 휴식까지만 해도 다른 대원들을 챙기고 포도당을 챙겨주고, 노래를 불러줄 만큼 괜찮았는데... 세 번째 휴식 때 아이젠을 차고서부터 두통과 구역질이 치밀기 시작했다. 황민아 대원과 대장님, 나, 이렇게 셋이서 맨 뒤에 처져서 올라가는데 위장에 든 것은 없는 데 구역질은 치밀고, 다른 대원들이 말하던 뒤통수가 쪼개질 듯한 두통과 내 속의 장기 두 개가 울렁울렁 거리는 것을 동시에 느꼈다. 아무것도 없는 희고 흰 설산만 바라보며 걷다 보니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갈 만큼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어떻게 어떻게 올라는 갔다. 그 와중에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고, 여기가 5780인데 옥주봉은 6,200m이다. 나는 옥주봉도 꼭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자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이 혼미해도 아무리 자주자주 쉬어도, 가야 한다는 확신은 분명했다.
아직도 2013 오지탐사 중국곤륜팀의 화합은 어느 팀보다도 좋다.
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즐거웠고 감사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 쭉 이어가고 싶다. 곤곤! 파이팅!</td></tr>
<tr><td colspan="2"> 
</td></tr>
<tr><td rowspan="2">2015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td><td>박희진(동아대 12) –대원</td><td>파키스탄 카라코람산맥 히스파패스,
러쉬피크</td><td rowspan="2">07월 23일~
08월 13일</td></tr>
<tr><td colspan="2">고산에서 제일 높다는 러쉬레이크(4694m)에 도착했다. 내일은 러쉬피크(5098m) 마음의 봉우리를 오른다. 처음엔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왜냐면 Youth A팀에 인도팀과 파키스탄팀과 Youth B팀에 몽골팀, 키르기스스탄팀이 있었다. Youth B팀은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인도팀과 우리 팀이 유일한 성인팀. 그런데 인도팀은 최초등정 이러면서 자기들의 봉우리 이름을 지어서 탐사를 갔다. 아차피크(6053m)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역량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마음 한편으로 들었다. 근데 러쉬레이크에 도착하는 순간. 내가 오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높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나에게는 엄청난 경험이 될 텐데 고작 높이에 집착하다니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 한심하다고 내 자신을 생각했다. 드디어 러쉬피크 가는 날. 모두 컨디션이 좋다. 이제는 고산에 어느 정도 적응했나보다. 머리도 안 아프다. 그렇게 천천히 올라갔다. 여기는 눈산도 아니고 돌산이다. 그렇지만 올라가니까 주변에 여러 산이 한눈에 보이고 그 경치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td></tr>
</table>

탐사대명칭	참가자	탐사 대상지	탐사기간
2015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	카메라 셔터를 엄청 눌렸던 것 같다. 정상에서 현수막으로 사진도 찍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다. 다 같이 사진 찍고 그랬는데, 이제 대장님과 지도위원님께서 일부러 우리 먼저 올라가서 우리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배려해주셨다. 그래서 각자 한마디씩 했는데 우는 대원도 있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서운하다는 대원, 함께해줘서 고맙다, 산이 좋아서 여기 왔는데 사람이 더 좋아졌다. 아직 내려가야 끝이지 끝난 게 아니라며 웃기는 대원도있었고, 그렇게 우리끼리 시간을 갖고 내려갔다.  		07월 23일~ 08월 13일

UIAA 국제청소년 캠프를 다녀오다

연 도	참여자	참여장소	기 간
2009	황유진(부산교대)	루마니아 비카즈 협곡(BICAZ GORGE)	08월 15일 ~ 08월 23일
2011	김나원(동아대 09)	마케도니아	08월 21일 ~ 08월 27일
2013	조형석(동아대 10)	키르키즈스탄 레닌봉	07월 26일 ~ 08월 21일
2014	박종홍(부경대 11)	조지아 mt. kazbek	07월 18일 ~ 08월 06일
2015	맹규노(동아대 12)	조지아 mt. kazbek	07월 24일 ~ 08월 03일

탐사대명칭	참가자	탐사 대상지	탐사기간
2009 UIAA 루마니아 캠프	황유진(부산교대)	루마니아 비카즈 협곡(BICAZ GORGE)	08월 15일~ 08월 23일
	황유진(부산교대) 12명을 나누어 4팀을 만들었다. 4팀이 각자 다른 루트로 올라가 정상에서 만나 하산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민철이를 선등으로 소현 언니, 나 순서로 64m 길이의 3피치의 루트를 올라가는데, 루트 입구에 도착한 시간이 5시 30분이었다. 이곳은 해가 늦게 지는 편이었으므로 2~3시간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는 콘스탄틴의 말에, 등반을 시작했다. 먼저 민철이가 선등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민철이가 볼트를 찾아가며 선등하면서 정신없을 텐데도, 그 와중에 낙석위험이 있는 돌멩이는 저멀리 던지고 '낙석'이라고 중간중간 외쳤다. 소현이 언니가 뒤이어 출발하면서 퀵도르를 내 자일에 걸어주었다.		

<table>
<tr><th>탐사대명칭</th><th>참가자</th><th>탐사 대상지</th><th>탐사기간</th></tr>
<tr><td rowspan="2">2009
UIAA
루마니아
캠프</td><td colspan="2">민철이도 소현이 언니도 아무말 없이 묵묵히 올라가길래 생각보다 쉬운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내가 등반하고 나서 보니, 살아야겠다는 생각하며 올라가다 보면 말이 안 나오는 것이라는 걸 느꼈다. 퀵도르를 회수해 야 하는데 도저히 힘이 없어서 볼트 부분만 빼고 내 앞 자일에 걸어놓고 올라가기도 했다.</td><td rowspan="2">08월 15일~
08월 23일</td></tr>
<tr><td colspan="2"> 
S2 루트 첫 피치 등반 중인 민철이, 소현 언니
난이도 – 4a Ⅳ(UIAA),
루트 길이 64m 3피치</td></tr>
<tr><td rowspan="2">2011
UIAA
마케도니아
캠프</td><td>김나원(동아대 09)</td><td>마케도니아</td><td rowspan="2">08월 21
~27일</td></tr>
<tr><td colspan="2">아름다운 호수 옆에 우뚝 솟은 자연 암벽에서 등반을 했다.
해가 작렬하기 전에 아침 일찍 서둘러 등반을 시작했다. 바위 재질이 바스러지는 석회질과 단단한 종유석이 함께 공존하는 특이한 암질의 암장이었다. 열심히 등반을 마치고 바로 옆 호수에 몸을 풍덩 던질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암장이다. 다음날은 등반 안내 담당인 ‘블라디미르’ 씨의 배려로 변경된 계획에 따라 다음날 그리스로 이동했다. 그리스! 새하얀 대리석제 신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리스 신화의 발상지! 그런 멋진 곳에서 등반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의 메테오라(METEORA)암장으로 갔는데 우리를 이리로 안내한 ‘블라디미르’가 자신이 본 바위 중 최고의 바위라며 극찬을 하던 그곳이었다. 족히 150~200m는 돼 보일 법한 큼지막한 바위들이 한두개도 아니고 수십개가 밀집되어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다. 그 많은 루트 중 멀티피치를 처음 접하는 대원이 있어 무난한 난이도를 등반하기로 하였다. 총 피치는 3피치. 한 피치에 대략 40m가 넘는 다소 긴 피치등반이었다. 멀리서 보기엔 많이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붙어보니 바위 전체가 흙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 홀더가 좋아 어렵진 않았다. 마지막 볼트를 지나 다소 완만한 언덕이 나왔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정상이 보였다.</td></tr>
</table>

탐사대명칭	참가자	탐사 대상지	탐사기간
2011 UIAA 마케도니아 캠프	대장님께선 블라디미르, 키레, 히릿, 보네, 모테와 함께 어려운 루트를 등반하러 가셨다. 부러웠지만 5.12금 루트라는 말에 따라나서겠단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그날 저녁은 우리 팀이 대접했다. 배도 부르고 즐거운 등반도 했던 하루라 쏟아질 듯한 별을 보며 충만한 행복감에 잠을 청했다. 다음날은 그리스의 '빌리'라는 암장으로 이동했다. 이곳의 루트들은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빌리의 첫인상은 다소 '험악한 강도'같은 느낌이었다.		08월 21 ~27일
			
2013 UIAA 레닌 PEAK	조형석(동아대 10)	키르키즈스탄 레닌봉	07월 26일~ 08월 21일
	8월 8일 * 다시 ABC로!! 오늘이 ABC로 가는 마지막 날이다. 이제 일정상 다시 BC로 왔다가 ABC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첫 번째 ABC와는 반대로 이제 베리 헝그리 산행에 몸이 적응도 됐고(그렇다고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다 잘 먹고 배부른 산행이 백만 배 더 좋다.) 본격적으로 정상을 향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다. 몇 일 전에 왔던 길이라 그런지 주변 풍경에 대한 감흥은 덜했다. 오늘은 출발도 아침에 했지만 운행속도도 빨라져서 2시쯤 ABC에 도착하였다. 내 ABC 텐트 파트너인 상훈이와 나란히 짐을 풀고 ABC에서 제공해주는 면 요리를 먹고 텐트에 누워서 여유를 즐겼다. ABC는 화장실이 정말 일품이었다. BC와 같은 땅을 파서 만든 푸세식 화장실이지만 천막을 치우면 눈앞에는 레닌피크와 옆 능선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런 멋진 풍경을 보며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될까?. 레닌 피크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C2 까지는 수많은 크레바스와 눈사태 위험 구간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 C2는 출발시각 이 새벽5시였기에 일찍 자야했다. 내일도 무사히 C2에 도착할 수 있기를...		
			

<table>
<tr><th>탐사대명칭</th><th>참가자</th><th>탐사 대상지</th><th>탐사기간</th></tr>
<tr><td rowspan="3">2014 UIAA
조지아 캠프</td><td>박종홍(부경대 11)</td><td>조지아 mt. kazbek</td><td rowspan="3">07월 19일~
08월 09일</td></tr>
<tr><td colspan="2">7/25(금)
등반 6일차. 드디어 정상공격의 아침이다. 배낭을 꾸리고 있으니 약간의 눈발이 날린다. 날씨가 마냥 맑지는 않지만 공격을 하기에는 지장이 없을 듯하다.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어제와 같은 조로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배낭은 훨씬 가벼웠지만 발걸음은 그렇지 않았다. 전날에 잠을 잘 못 잔 것도 있지만 한걸음 한 걸음이 살면서 가장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걸음이었기에 그랬던 것 같다. 광준이가 등반 도중에 “와, 형님 뒤에 경치 좀 보세요.” 하는데 나에게는 경치를 볼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잠깐잠깐 쉬는 시간마다 그저 사탕과 물을 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바빴다. 정상을 약 300m를 앞두고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욕심이 들어서 내 발걸음 숫자만 세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눈앞의 자일과 발자국만을 보면서 올라갔다. 눈앞에 10분만 가면 도착할 것만 같이 가까이 있는 정상이 어찌 그리도 다가가기 힘든지 정말 야속했다. 능력만 되면 그냥 바로 직등을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징그럽게 돌아서 올라갔다. 이윽고 정상을 오르기 100m 전 언덕에 도착해서 정상을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루의 피켈에 몸을 의지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이 왠지 인류의 진화를 나타내는 것만 같은 이상한 상상이 들었다. 모두가 몸이 구부정한 채로 비슷한 옷을 입고 정상에 다가갈수록 허리가 펴지며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진화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윽고 정상에 서서 허리를 펴면 진화가 완성되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도 완전체가 되어야지 하는 다소 어이없는 생각을 하며 휴식을 마치고 정상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정상에 도착(12:10) 하니 먼저 도착한 민규와 성취감이 우리를 반겼다.
   </td></tr>
<tr><td rowspan="2">2015 UIAA
조지아 캠프</td><td>맹규노(동아대 12)</td><td>조지아 mt. kazbek</td><td rowspan="2">07월 24일~
08월 03일</td></tr>
<tr><td colspan="2">7/31(금) 캠프3→Summit(5047m)→캠프3
서밋데이다. 오늘은 새벽에 일어날 때 다른 때보다 컨디션이 엄청 좋았다. 잠도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고, 아침에 모닝똥도 나왔다.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였다. 아침을 간단하게 호박죽과 캔 통조림으로 해결하고 6시가 조금 지나서 운행을 시작하였다. 3개의 팀으로 나누어 갔는데, 첫 번째는 부대장과 다른 외국인들과 가고,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외국인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장님, 지도위원님, 주라와 나머지 우리 팀 대원들이었다. 배낭도 가볍고, 날씨도 좋았던지라 숨도 헉헉거리지 않았다. 안자일렌으로 운행을 하고, 몇몇 크레바스 구간을 통과하니까 정상 앞부분 넓은 테라스에 도착했다. 이곳은 해발 4900m 정도 되는 곳인데 정상까지 높이가 100m가 되는 구간은 경사가 너무 급해서, 마치 하이원스키장의 중상급 코스와 맞먹을 정도였다.</td></tr>
</table>

탐사대명칭	참가자	탐사 대상지	탐사기간
	이 구간부터는 피켈이 필요했다. 앞에 먼저 가던 부대장이 있던 조는 Z모양으로 빙빙 둘러서 정상을 갔는데, 우리 팀은 선두로 가던 스페인 친구가 직등으로 등반을 해서 조금 힘이 들었다. 피켈을 설상면 위에 찍으면서 한 시간 가까이 걸었을까? 정상에서 부대장과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이 보였다. 날씨가 너무 흐리고 화이트 아웃이 낀 탓에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날씨가 흐려서 뒤에 오는 우리 팀 대원들이 정상에 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원래 정상에서 우리 팀 대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날씨가 춥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일단 하산을 하였다. 하산을 하다가 4,900m 지점에서 우리 팀 대원들을 만났다. 나는 대원들이랑 같이 정상까지 등반하고 싶고,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서 외국인들한테 'one more summit'라고 외쳤다. 그러자 부대장도 같이 가겠다고 하였다. 대장님과 지도위원님은 아이젠이 좋지 않아서 먼저 하산하시고, 정상까지 나, 장비선생님, 쇼타, 석현, 나원, 부대장 순으로 등반을 하였다. 처음 정상 갈 때보다 힘은 들진 않았지만 날씨가 너무 걱정이었다. 화이트 아웃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앞에 지나간 발자국들을 보면서 정상까지 걸어갔다. 아까와 같이 한 시간 가까이 걸으니까 정상에 도착했다. 날씨가 흐리고 정상 앞의 풍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대원들과 함께 오른것 자체가 기분이 좋았다. 정상에서 다시 산악회기와 대산련기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고 다시 하산하였다.		
2015 UIAA 조지아 캠프	  		07월 24일~ 08월 03일

2009년부터 한·중·일 대학생 교류등반에 참여하다.

2007년부터 (사)한국산악회, (사)일본산악회 및 중국등산협회 회장들이 합의한 3국 대학생 등반문화 교류와 창의적 등반문화 지도자 양성을 취지로 시작된 한중일 교류등반(Korea China Japan Student Summit)에 본 연맹에서는 2009년부터 참여하여 연맹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재학생들에게 서로 함께 모여, 줄로 묶고 확보를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생을 이어갈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참가자 명단

기 간	대상지	이 름	소 속
2009년 08월 18일~28일	중국 옥주봉(6178m)	지혜진	부산교대
2010년 05월 12일~18일	일본 북알프스(2701m)	조미희	인제대
2011년 08월 12일~18일	북한산, 대둔산	박동익	인제대
2012년 08월 07일~14일	중국 신농정(3106m)	유창윤	동아대
2014년 08월 06일~14일	북한산	김민철	인제대

대의명칭 : 2012 한·중·일 대학생 교류등반대
대상지 : 중국 무한시 와 신농가 국가 자연보호구 일원
기간 : 2012년8월 7일~14일(8일간)
대원 : 하성현, 이현수, 김동규, 민진주, 황승예, 우민아, 유창윤(동아대11), 차미랑, 이채영, 주종인

날 짜	장 소	활동 내용	거리/소요시간
8월 07일	무한 공항 도착	중국지질대학 환영만찬	63km/1h
8월 08일	무한	캠퍼스 탐방, 시내관광, 등반준비	
8월 09일	무한-이창-흥상	D5712편 기차로 이동(우창 – 이창동), 버스로 이동(이창동 – 흥산), 소군촌 관광지구 관광	466km/6,3h
8월 10일	흥산현 – 황량진	관광지구에서 등반 거행의식 공작계곡 산행 또는 장군주 지구 산행	26km/8h
8월 11일	흥산현 – 고람진 – 신농정	양하구 암벽 하강 시범 조천후 래프팅 체험	6-8h

날 짜	장 소	활동 내용	거리/소요시간
08월 12일	신농정-자귀(쯔구이)	신농정(3106m) 등산 경연대회 버스를타고 자귀(쯔구이)까지 이동	159km/4.2h
08월 13일	자귀(쯔구이)-무한	중국 지질대학 훈련센터 참관 D5864, 13:20 출발 기차로 이동 15:34 무한 도착	373km/5.2h
08월 14일	한국 일본 등반대 출국	중국지질대학 책임자가 배웅	

기록 : 유창윤(동아대11)

사실 한·중·일 세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 간의 등반기술이나 시스템 등을 교류한다는 취지의 등반대를 알게 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올해 한·중·일 교류등반대의 일정을 받아들고는 약간 실망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원 하기 전 강도 높은 훈련과 본 일정으로 등반기술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전 기수에 참여했던 선배들에게 들어왔었고, 붙임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성격인지라 산이라는 매개 없이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첫 만남, 생전 처음 보는 친구들과 섞여 앉아 서로 되지 않는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니 아주 사소한 것에 웃기도 하며 서먹함도 조금씩 사라지고 조금은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말보다는 웃음이 웃음보단 정신을 놓은 춤사위와 노래가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며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열심히 노래를 따라 불렀던 캠프파이어의 밤. 빽빽한 산행 일정이 계속되었다면 갖지 못했을 이런 여유들이 오히려 앞으로의 교류를 위한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비록 등반대의 일정이 끝나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인연과 교류는 계속될 것입니다. 8일간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 산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봅니다.









2014년 한중일 한·중·일 대학생 합동 교류 등반을 북한산 인수봉에서 실시하다









2010년 1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부산학생산악연맹 사무실을 현재의 실내체육관에 자리를 잡다



2010년 연맹사무실 이전 현판식(사직동 실내체육관)

그동안 본 연맹의 사무실이 없이 단대 산악부의 부실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으로 연맹의 사무실은 모든 연맹인들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사무실 부재로 자료 및 기타 장비와 집기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연맹 사무실에 대한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던 중 연맹제에 모인 선.후배의 바람으로 현재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의 실내체육관 215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판 글씨는 당시 금정산 북문 산장지기로 있던 서재석님이 제호하셨고 현판식 후 저녁식사와 재학생 동계합동 산행 환송식을 가졌다.

2013년 산악스키 강습회를 가지다

2월 3일부터 4일(1박 2일) 전라북도 무주 리조트에서 동계훈련과정이며 산악스키 저변확대, 재학생 친목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강사진으로 정순천(동아대80), 차월준(부산여대82), 성기진(동아대85), 정인숙(동주대88), 김지성(부산대89) 5명이 강습을 맡았다. 참여 인원으로 김진석(인제대12), 박동익(인제대08), 김성겸(인제대12), 전재민(인제대12), 손창식(인제대12) 김정은(춘해보건대11), 이재희(부산대09), 백선태(부산대09), 서정화(부산대12), 강동중(부산대12), 정옥진(부산대), 유예진(부산대), 김민성(부산대09), 박수우(동의대), 김시라(동아대09), 장민규(동주대), 장세영(동주대12), 맹규노(동아대12), 조형석(동아대10), 박은영(부산대), 임기영(동의대12), 김동구(동의과학대01), 이상일(부산대08), 유창훈(동아대11), 윤지윤(춘해보건대12) 총 27명의 연맹 회원들이 참석하여 본 강습회의 목적인 재학생 친목 및 산악스키 저변확대에 크게 이바지를 하였다.



2013년 산악스키 강습회(무주 리조트)

2014년 하계 합동 장기등반을 가다

명　칭 : 2014 부산학생산악연맹 합동 하계 장기등반
대상산 : 경상남도권 산(영남알프스 일대산, 신반암)
대　원 : 임기영 외 18명
　　임기영(동의대12), 임지원(동의대13), 이창욱(동의대14)
　　강은진(동의대14), 안상민(동의대14), 황원정(동의대14)
　　김난희(경정대14), 오원탁(해양대12), 민인덕(부경대14)
　　김성수(부경대14), 박수현(동주대14), 한성희(경성대12)
　　차지환(경성대14), 홍유원(춘해대12), 전이정(춘해대14)
　　전현후(춘해대14), 류재강(경정대14), 정진열(경정대82)
기　간 : 2018년 8월3일~10일(7박 8일)
목　적 : 단결, 협동, 인내를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OB & YB 합동 등반을 통한 여러 단대 선·후배간의 교류 활성화

운행일정

날짜(요일)	일 정	막영지	비 고
08월 02일(토)	패킹	없음	연맹회관
08월 03일(일)	석골사, 운문산, 아랫재	아랫재	시외버스
08월 04일(월)	운문산, 아랫재, 가지산, 석남고개, 능동산, 배내고개	배내고개	
08월 05일(화)	배내고개, 간월산, 신불산, 신불재	신불재	
08월 06일(수)	아리랑릿지	신불재	
08월 07일(목)	쓰리랑릿지	신불재	
08월 08일(금)	신불재, 영축산, 통도사, 신반암	신반암	대절버스
08월 09일(토)	신반암	신반암	
08월 10일(일)	오전 신반암, 오후 귀가	귀가	

등반후기

임기영(동의대12)

대원으로 다닐 때는 몰랐지만 대장이 되어서 장기등반을 하게 되니 마냥 즐겁지만 않은 하계가 되었다. 작년에 연맹 하계를 갔을 땐 그렇게 즐거웠던 릿지, 텐트 생활, 워킹이었지만 대장이 되고 나니 하나하나 생각해야 하고 대원들이 다치지는 않을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뒤처지는 대원들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이번 등반은 대장 및 조장들의 역량이 낮아 OB 선배님들의 손을 많이 타는 하계가 되었다. OB 선배님들의 관심들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름만 '부산학생산악연맹'이 아닌 모자라도 자율적으로 YB끼리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가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산행을 하는 말 그대로의 부산학생산악연맹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OB 선배님들의 걱정하는 마음과 더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YB 산행은 YB 대장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만 하지 외부의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이 하계 운행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되었다. 릿지 등반을 하던 도중 폭우로 인하여 비상탈출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기상 악화나 대원들이 대장이라면 항상 등반을 하기 전에 개념도에서 탈출로도 숙지해 둬야만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언제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지







막으로 많은 OB 선배님들께서 YB들이 연맹합동 산행을 갈 때 인원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맹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흐름을 볼 때 대학교에 들어와서 산악부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나가는 상황이다. OB 선배들만큼 YB 회장,부장들도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YB 숫자가 많이 줄고 그만큼의 실력도 예전보다 많이 하향되어서 해가 갈수록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학산악부는 말 그대로 동아리인 만큼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하게 산을 좋아하고 즐기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원수에 집착하지 않고 소수일지라도 올바른 산악부의 정신을 가진 후배들이 산행한다는 것에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배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산행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6월 1일 영호남 합동산행을 승학산 일원에서 가지다

산행대장 백진국을 토대로 부산학생산악연맹,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등 총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호남 합동 산행을 승학산 일원을 산행하였다. 영·호남 합동 산행은 각 지역의 명산을 연맹 순서대로 돌아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산행하며 영호남 악우들의 우정과 화합을 돈독히 하는 의미 있는 산행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올해는 본 연맹에서 주최하였으며, 서로 알면서도 자주 보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산이라는 같은 공감대가 있어 산행하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꽃마을을 지나 잘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130여 명이 오른 승학산 정상. 낙동강, 몰운대 그리고 구름 너머 신항만 부두까지 서부산의 경치와 시원한 바람이 영호남 산악인의 마음에 충분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2015년 설악산으로 동계합동장기등반을 가다

명칭 : 2015 부산학생산악연맹 합동 동계 장기등반
대상산 : 설악산(1780m) 일원
대원 : 이재훈(부경대12) 외 13명
이혜정(경성대15), 황유경(경성대15), 김난희(경정대14), 임기영(동의대12), 강은진(동의대14), 이재훈(부경대12), 김인엽(부경대13), 민인덕(부경대14), 서정화(부산대12), 박지훈(부산대12), 김건하(부산대12), 최형택(부산대15), 이규철(해양대14), 권경래(해양대15)
강사 : 김규태(부산대82), 김재연(부경대93), 전상은(부산교대85), 백광윤(부산대98), 송경빈(부경대08)
기간 : 2016년 1월20일 ~ 28일(8박 9일)
목적 : 단결, 협동, 인맥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OB & YB 합동 등반을 통한 연맹 선.후배간의 교류 활성화
폭포 등반을 통한 빙벽등반에 대한 열망 고취

운행일정

날짜(요일)	일 정	막영지
01월 02일(수)	부산 설악산소공원 소토왕골	-
01월 21일(목)	소토왕골	소토왕골
01월 22일(금)	소토왕골	소토왕골
01월 23일(토)	소토왕골 소공원 비선대 잦은바위골	잦은바위골
01월 24일(일)	잦은바위골	잦은바위골
01월 25일(월)	잦은바위골	잦은바위골
01월 26일(화)	잦은바위골	잦은바위골
01월 27일(수)	잦은바위골 비선대 하이디밸리	하이디밸리
01월 28일(목)	하이디밸리 부산	

대장총평

이재훈(부경대12)

이번 훈련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재연 선배가 대원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다르고 그 흥미에 맞게 산에 다니는 이유,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는 등반을 통해서 좀 더 힘든 산행에서 재미를 느끼고, 다른 이는 텐트 생활에서, 도 다른 사람은 그냥 같이 산행을 하는 그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서로 다른 부분이 산행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작은 흥미조차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부산대 14학번 지훈이가 먼저 하산하게 되었을 때 배웅해 주는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끈끈한 동기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앞으로의 삶에 큰 방향성을 얻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개인의 실력을 기는 것은 혼자서 훈련하고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장기합동산행은 그것을 떠나서 힘든 것을 서로 경험하고 도와주고 공감함으로써 협동심을 기르고 이기심을 버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위하고 같이 재미있을 수 있는 산행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설악산 토왕폭 IC 훈련

2016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학생산악연맹 합동 원정대를 발족과 거니에신산(6204m)을 오르다

2015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12월 5일부터 6일(1박 2일)의 일정으로 원정대 추진 회의를 하였다. 본 연맹 김규태 회장(부산대)과 백광윤 이사(부산대)가 참여하였으며,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 홍종국 회장외 3명, 광주·전

남학생산악연맹 김경자 회장 외 3명이 참석하여 대상산 선정 및 기타 의결 사항을 논의하였다. 대상산으로 중국 사천성 리탕고원 사로리산 격섭신산(6204m)으로 비교적 쉬운 대상지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고산등반 경험을 통하여 산악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학생산악연맹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였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내재된 회의였다.



2016년 영호남 3개학생산악연맹 합동산행 발대식

원정개요

원정대명 : 2016 영호남 합동 거니에신산(6204m)원정대
대 상 산 : 중국 사천성 리탕고원 사로리산 거니에신산(6204m)
등반루트 : 동남릉
원정기간 : 2016년 6월 30일~7월 25일(26일간)
원정목적 : 21세기를 이끌어갈 글로벌 산악 리더쉽 고양
지역을 벗어나 함께하는 산악문화 형성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 지역 학산인 유대 강화
등반방식 : 극지법
원정대원 : 김동국, 이정현, 백광윤(부산대98) 외 13명
본 연 맹 : 이재훈(부경대12), 한진석(부산대13), 김인엽(부경대13),
박지훈(부산대14)

등반훈련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영호남 합동 원정추진안 의결	2015년 05월 31일	전남대수련원입암산	영호남 합동등반
원정대 추진회의	2015년 12월 05일~12월 06일	하동군	
1차 훈련	2016년 03월 19일~03월 20일	거창군 현성산 금원산	
2차 훈련	2016년 04월 08일~04월 10일	곡성군 동학사 일원	
원정대원 회의	2016년 05월 04일	순천시 베네치아호텔	분야별 계획 관련
체력테스트	2016년 05월 05일	순천시 팔마체육관	
원정대 추진위원회의	2016년 05월 13일	구례군	
3차 훈련	2016년 05월 27일~05월 29일	밀양시 영남알프스일원	
김재명추진위원 방문	2016년 06월 01일	제주도	이정현, 이재훈
원정대원 합숙	2016년 06월 20일~06월 27일	대구 스타디움일원	
영호남 합동등반	2016년 06월 26일	대구스타디움 암벽등반장	
원정대 발대식	2016년 06월 26일	대구스타딩무 암벽등반장	
원정대 출국	2016년 06월 30일	인천공항	














등반일지

정상 공격 첫날 컨디션이 좋지 않다 아무도 밟지 않은 땅, 길이 열릴까!

정상 도전 첫날, 미답의 땅을 향해 오전 2시인가 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하라며 깨우는 목소리에 정신을 추스르려 애를 쓴다. 김인엽(부경대) 대원이다. 이 시간에 혼자 일어나 다른 대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 모양이다. 비록 마른 누룽지를 물에 끓인 한 끼이지만 묵묵히 궂은일을 하는 후배의 정성이 느껴진다. 고맙다. 7월 13일. 드디어 정상 공격에 나서는 날이다. 공격조는 이정현(46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순천대 산악회OB) 총 대장님과 백광윤(37부산부산대 산악부OB)대장, 나, 이재훈(부경대), 박철융(계명대), 김인엽(부경대), 차호진(경일대), 최병광(순천대) 등 8명. 하지만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다. 3,900m 베이스캠프에서부터 시작된 두통이 더 심해진 것 같다. 고소(高所)예방약을 먹기도 했지만 별로 소용이 없는지 통증은 하루종일 계속되고 있다. 여기는 해발 5,400m 캠프2. 하얀 설원 위에 설치한 캠프2는 정상 도전을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휴식처이다. 그동안 베이스캠프와 캠프1, 캠프2를 오르내리며 어느 정도 고소적응은 끝난 상태이다. 지금까지 여정도 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2, 3일 정도가 우리 원정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며

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루트를 찾아 정상 공격에 성공한다면 내일이나 모레 후발조도 정상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현, 김동국(50, 대구경북성광고OB), 백광윤 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대원들이 여러 차례의 정찰을 통해 어느 정도의 루트파인딩(route finding)과 픽스 로프(fix rope)작업은 끝낸 상태다. 하지만 정상 부근에는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택한 남릉코스는 어느 외국팀도 밟아보지 못한 미답의 경지이다.

거니에신산은 그 품을 우리 대한민국 학생 산악인들에게 열어줄까.

발대식 때만 해도 사기 하늘을 찔러 3일간 10시간씩 캐러밴 이동도 즐거움

3일간의 캐러밴, 베이스캠프로 그러고 보니 우리 원정대가 한국을 떠난 지도 벌써 보름이 다 되어 간다. 지난 6월 26일 대구에서 영호남 학생산악연맹 거니에신산 합동원정대 발대식을 할 때까지만 해도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당장 달려서라도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다. 선배 산악인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정상을 밟고 돌아오자고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의 격려를 받으며 30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다시 집결했다. 벅찬 가슴을 안고 중국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成都)에 도착해 다시 3일간의 캐러밴을 시작했다. 청두에서 리탕까지는 버스로, 그 이후엔 7대의'빵차'(包車)로, 대원들의 짐과 식량, 장비를 가득가득 싣고 티베트자치구까지 이어진 318 천장공로(川藏貢路)를 따라 서쪽으로 서쪽으로 달렸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강행군이었지만 피곤한 줄을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지난 반년 이상 고락을 함께하며 훈련을 해온 동료들이 함께하는 길이었고, 바깥 풍경 또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초원과 산들, 고산 곳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야크 떼들, 눈이 부실 정도로 맑은 하늘과 구름, TV 화면에서나 보았던 티베트마을과 사람들의 이색적인 모습들...

힘든 캐러밴을 거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게 될 거니에신산 산기슭 마을 장납향에 도착한 것이 3일 오후였다. 지나간 날들이 벌써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진다.

방향 종잡을 수 없는 화이트 아웃. 캠프 내려와 밥도 잊고 기절한 듯 잠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화이트 아웃'오늘 출발 예정 시작은 오전 3시. 식욕은 없었지만 힘을 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누룽지 몇 숟가락을 억지로 떠 목구멍으로 넘긴다. 무거운 몸을 움직여 주섬주섬 장비를 챙긴다. 재훈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인다. 배낭을 가지고 텐트를 나오니 이미 3시 40분. 늦었다. 속도를 빠르게 해 눈길을 밟아 나간다. 짧은 시간에 어제 해놓았던 러셀(눈을 밟아 다져 놓는 일) 지점까지 도착했다. 하지만 내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은 데다 날씨까지 나쁘다. 기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순 없지만 내 몸은 영하 10℃ 이하로 내려간 것처럼 얼어붙는다. 반쯤 정신이 나가서 머릿속에는 잠 생각뿐이다.

동이 텄지만 날씨는 최악이다. 화이트 아웃(white out) 상태여서 날이 밝아도 지형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른 길을 찾아보지만 비슷한 길을 왔다 갔다 하기만 한다. 결국 컨디션이 나쁜 나와 재훈이는 먼저 하산하고 나머지 대원들만 운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캠프2로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더 멀게 느껴진다. 발이 푹푹 빠지고 자꾸 넘어진다. 힘들게 내려와 텐트에서 휴식을 취한다. 누워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다른 대원들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역시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운행을 계속 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하기야 화이트아웃으로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상태였으니... 캠프1로 내려가 하루를 푹 쉬고 다시 공격조를 꾸리기로 했다. 고소와 추위에 지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캠프1로 도착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푹 쉬자고 했지만 다들 피곤했는지 각자 텐트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드는 것 같다. 나도 누워있다 기절한 듯이 잠에 빠진다.

푹 자고 난 후 가뿐하고 식사도 뚝딱 날씨마저 쾌청...온몸에 짜릿한 전율

생일날 등정의 기회를 주는 걸까 7월 15일. 어제 하루를 쉬어서인지 갑자기 몸이 가뿐하다.

오전 4시 잠에서 깼는데도 개운하기 이를 데 없다. 잠자리에서 발을 차고 벌떡 일어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병광이가 만들어준 닭죽 맛이 최고다. 오늘이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일정상 오늘 성공하지 못하

면 다시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정현 총대장과 나, 김인엽, 장용익(목포해양대) 등 4명으로 팀을 꾸린다.

오전 5시 장비를 챙기고 캠프1을 나선다. 모든 대원의 가벼운 발걸음을 보니 빠른 시간내에 캠프2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날씨도 좋고 오늘은 모든 것이 도와주는 것 같다. 이대로 정상공격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하늘에서 선물로 등정할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오전 9시 40분 캠프2에 도착, 배낭을 가볍게 하고 간식으로 배를 채운 다음 다시 출발한다. 러셀 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저번 정상 공격 때 새벽에 올라온 능선에 도착했다. 지난번엔 화이트 아웃으로 구분이 안 되었지만 지금 보니 정상으로 가는 주 능선은 크레바스(빙하나 눈 골짜기의 깊은 균열) 건너편에 있었다. 대장님이 저 능선까지 가기 위해선 스노 브릿지(크레바스 사이에 눈으로 다리처럼 연결된 부분)를 통과해 커니스(능선에서 바람 때문에 눈이 처마처럼 만들어진 부분) 사이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신다. 온몸에 찌릿하고 전율이 온다. 내가 하는 것이다! 잘할 수 있겠지?

눈 계단 만들어가며 크레바스 통과... 마지막 2천m 깊이 칼날 절벽에 후퇴

눈앞이 아찔, 천 길 낭떠러지가...몸에 줄을 묶고 출발한다. 스노 브릿지가 설마 무너지지는 않겠지? 과감하게 발을 딛는다. 문제없이 잘 넘어간다. 이제 능선을 올라가기 위해 시도한다. 갑자기 발이 푹 꺼진다. 발을 빼니 아래쪽이 비어 있는 것같다. 크레바스다! 머리가 하얘진다. 무섭다. 푹 꺼지면 어떡하지? 심장이 뛴다. 뒤에서 대장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피켈을 이용해 눈을 긁어보아 다지라고 하신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시키는 대로 한다. 눈 계단을 만들어 올라선다. 같은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 거의 다 올라왔다. 내가 이것을 넘어섰구나! 하지만 능선으로 올라서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다. 눈앞, 바로 발아래가 아찔한 절벽이다. 깊이가2천m는 될 것 같다. 내가 올라 서 있는 부서질 듯한 눈의 능선은 사람 한 명 겨우 설 수 있는 칼날 능선이었다. 대장님이 따라 올라오셨지만 암담하기는 마찬가지. 우리 실력으로 이 능선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저승사자와 인사하는 것과 같다. 대장님이 베이스캠프와 교신한다. “칼날 능선을 만났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산 후 다른 루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발길을 되돌려 오던 길을 되짚기 시작한다. 오

후 4시 캠프2에 도착하니 갑자기 피곤이 몰려온다... 우리의 거니에신산 도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해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역시 산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생소한 대상지여서 정보가 많이 부족했고 우기라 시기도 좋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지만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실망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2017년 영호남 학생산악연맹 합동 원정대 야츠가다케 (2899m)산을 가다

부산학생산악연맹에서는 2012년 1월까지 매년 동계등반 대상지를 설악산으로 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제재로 설악산 내에서 텐트 생활을 못하고 적설량도 매년 기복이 심해서 설상훈련과 빙벽훈련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2017년 2월 동계등반을 한라산으로 결정하고 밀양 얼음골에서 빙벽등반을 훈련하던 중, 한라산 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적설량이 기준치에 모자라서 등반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해 설상훈련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행정편의적인 입산규제 등으로 국내산에서의 동계 훈련 등반이 까다로워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대상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연맹도 마찬가지였다. 광주 전남의 경우에도 설악산 양폭산장에 B.C.를 설치하였는데 죽음의 계곡에서 훈련을 마친 후 베이스인 양폭산장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양폭의 공단직원이 눈이 많이 온다고 소공원으로 무조건 하산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약 15명 일행은 짐을 다시 꾸려 소공원까지 하산하였고 다음날 매바위로 이동해 등산교육을 하던 중 이틀간의 무리한 운행으로 故 노광기(조선이공대 88) 강사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구·경북학생연맹의 경우에도 국내산에서 동계훈련의 어려움을 이심전심 느끼고 있었다.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2015년도 2월에 오정현(목포해양대12) 외 광주전남 YB 7명을 인솔하여 일본 야츠가다케로 동계훈련을 다녀왔던 오철식 회원이 일본의 설산을 적극 추천하면서 차기 등산학교 동계반을 일본의 야츠가다케로 정리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차라리 3개 학생산악연맹이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1회 영·호남합동 거니에신산 해외원정을 준비하며 어느 한쪽에서 의견이 나오면 협조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제2회 영·호남합동등반 추진을 위한 사전 모임을 3개 학생산악연맹이 따로 모여 실시

한 기록은 없지만 영·호남합동등반을 동계 일본 설산에서 하는 것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의 산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한국의 겨울 기온이 따뜻해 빙폭이 얼지 않고 적설량도 많지 않은 데다 악천후 일기예보에 따라 무조건 하산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정책이 산악 훈련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 상황에서 고육지책이기도 하였다.

등반개요

대의명칭 : 2017. 영호남합동 동계 원정등반
주　　최 :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 부산학생산악연맹
주　　관 : (사)광주전남등산학교
대 상 산 : 일본 야츠가다케(2899m) 일원
기　　간 : 2017년 2월 17일(금)~28일(화) 11박 12일
목　　적 : 영호남 산악인 화합 및 교류
　　제 38회 광주전남등산학교 동계반 운영
　　일본 설산 야츠가다케 등반

원정대원

- 박재철, 문종국 외 41명(광주·전남 17, 대구·경북 22, 부산3, 기자1 / 남36, 여7)
- 등산학교 수강생 총 14명(남12, 여2/ 일반7, 지도자 7)
  본연맹 이재훈(부경대12), 김성수(부경대14), 최지현(동의대 16)
  개교식 : 2017년 2월 16일(목) 19:00,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사무실
  수료식 : 2017년 2월 25일(토) 16:00, 적악산장 주차장

등산학교 교육 및 교육내용

과 목		교육내용
동계 이론 강의	동계등반장비	동계등반 장비의 조건, 설, 빙벽 장비, 일반장비, 전문장비, 기타장비, 장비 사용법 등
	동계등반개론	겨울산의 특성, 겨울산에서의 생활, 동상과 저체온증 겨울산의 위험(지형의 변화, 눈사태), 기타 특수한 상황 등
	고산에서의 영양 및 건강관리	고산에서의 신체반응, 음식물 섭취와 소화, 고소에서의 영양관리, 고산에서의 신체활동 등

과 목	교육내용
동계산행기술	장비사용법, 막영 및 취사, 보행법
설상등반기술	설사면 보행법, 픽켈사용법, 설벽등반기술, 럿셀, 안자일렌, 글리세이딩, 활락정지
빙벽등반기술	프랑스식 등반 기술, 프론트 포인팅 등반 기술 설, 빙벽에서의 확보법
종합훈련	2박 3일 능선 종주 등반
문화체험	일본 나고야(2박 3일)

운행일정

운행원칙 : 05:00 기상, 07:00 교육시작, 16:00 교육종료, 19:00 석식,
20:00 이론교육, 21:00 분임토의, 22:00 취침.

<table>
<tr><th rowspan="2">시간</th><th colspan="4">합숙 및 원정준비</th><th colspan="8">야츠가다케 등반</th><th colspan="3">문화체험</th></tr>
<tr><th>14화</th><th>15수</th><th>16목</th><th>17금</th><th>18토</th><th>19일</th><th>20월</th><th>21화</th><th>22수</th><th>23목</th><th>24금</th><th>25토</th><th>26일</th><th>27월</th><th>28화</th></tr>
<tr><td>05</td><td rowspan="2"></td><td colspan="3">–</td><td colspan="8">기상</td><td rowspan="3">적악산장
→
미노토구치</td><td rowspan="3">문화체험 2일차</td><td rowspan="3">문화체험 3일차</td></tr>
<tr><td>06</td><td colspan="3">기상 및 아침운동</td><td rowspan="3">호텔조식</td><td colspan="7">조식(취사)</td></tr>
<tr><td>07</td><td colspan="3">조식(취사)</td><td>BC구축</td><td>대동심계곡</td><td>마리시뎅사와오다키</td><td>아카다케정상(2,899m)</td><td>예비일(악천후)</td><td>종합훈련(3개조분리)</td><td>BC철수</td></tr>
<tr><td>08</td><td rowspan="7">학산사무실집결 및 이사</td><td rowspan="3">식량 및 장비구입</td><td rowspan="3">짐패킹</td><td>최종점검</td><td rowspan="7">자고야
→
미노트구치
→
행자산장(BC)</td><td rowspan="3">BC구축</td><td rowspan="7">대동심계곡</td><td rowspan="7">마리시뎅사와오다키</td><td rowspan="7">아카다케정상(2,899m)</td><td rowspan="7">예비일(악천후)</td><td rowspan="7">종합훈련(3개조분리)</td><td>BC철수</td><td rowspan="2">미노토구치
→
나고야</td><td rowspan="6">문화체험 2일차</td><td rowspan="6">문화체험 3일차</td></tr>
<tr><td>09</td><td rowspan="2">광주
→
김해공항</td></tr>
<tr><td>10</td><td>행자산장
→
적악산장</td></tr>
<tr><td>11</td><td rowspan="2">중식(취사)</td><td rowspan="2">중식</td><td rowspan="2">막영 및 중식</td></tr>
<tr><td>12</td><td rowspan="3">문화체험 1일차</td></tr>
<tr><td>13</td><td rowspan="3">식량 및 장비구입</td><td rowspan="3">짐패킹</td><td rowspan="2">김해공항</td><td rowspan="2">마리시뎅사와오다키</td></tr>
<tr><td>14</td><td rowspan="2">평가 및 소감문 작성</td></tr>
<tr><td>15</td><td>계획서 점검</td><td>김해
→
나고야</td><td>나고야
→
김해공항</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시간</th><th colspan="4">합숙 및 원정준비</th><th colspan="8">야츠가다케 등반</th><th colspan="3">문화체험</th></tr>
<tr><th>14화</th><th>15수</th><th>16목</th><th>17금</th><th>18토</th><th>19일</th><th>20월</th><th>21화</th><th>22수</th><th>23목</th><th>24금</th><th>25토</th><th>26일</th><th>27월</th><th>28화</th></tr>
<tr><td>16</td><td></td><td></td><td></td><td></td><td rowspan="2">BC 구축</td><td colspan="6">장비철수, 교장이동</td><td>수료식</td><td rowspan="5">문화 체험 1일차</td><td rowspan="5">문화 체험 2일 차</td><td></td></tr>
<tr><td>17</td><td colspan="4" rowspan="2">석식(취사)</td><td rowspan="2">공항 → 호텔 공항</td><td colspan="7" rowspan="2">석식 및 휴식</td><td rowspan="3">김해 공항 → 광주</td></tr>
<tr><td>18</td><td>석식</td></tr>
<tr><td>19</td><td colspan="2" rowspan="2">동계 이론 강의</td><td>개교식</td><td>석식</td><td colspan="6">이론교육</td><td rowspan="2">문화 체험 준비</td></tr>
<tr><td>20</td><td>이론 강의</td><td>장비 및 인원 점검</td><td colspan="7">분임토의</td></tr>
<tr><td>21</td><td colspan="4">분임토의</td><td colspan="7">교무회의</td><td>분임 토의</td><td>해산</td></tr>
<tr><td>22</td><td colspan="14">취침</td></tr>
</table>

2017년 영호남 학생산악연맹 합동 야츠가다케 원정












등반일지

이재훈(부경대12)

2월 24일 금, 맑음 (교우자고야 – 아미다다케 – 아카다케 – 교우자고야)

마지막 일정을 다녀왔다. 역시 러셀은 힘들다. 아미다다케에 믹스등반으로 짧은 3피치를 오르고 정상에 오른 다음 아카다케 방향의 능선에 내려서서 점심을 행동식으로 해결하고 3조가 간 루트로 나, 교정이형, 노철이 이렇게 3명이 다시 출발했다. 우리 앞에 2인조 한 팀이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하루에 4번 이상 그 루트를 등반했다고 한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믹스 등반을 하고 정상에 오르고 부기를 찍으려는데 배터리가 없다. 그렇게 하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

2017년 연맹 등산학교를 실시하다

일　　시 : 2017년4월29일~5월21일
장　　소 : 동래인공암장, 천태산, 금정산, 밀양백운암
학 교 장 : 이석호(동아대80)
학　　감 : 안명선(동주대82)
책임강사 : 하태석(동명대86)
교육대상 : 부산학생산악연맹 소속 대학 산악부 신입생 및 재학생

교육인원 : 21명

이두영(부산대16),류승태(부산대17),윤용철(부산대17),함송이(부산대17),지혜민(부산대17),박지훈(해양대17),박민혁(해양대17),이조현9해양대17),조동기(동의대17),황지선(동의대17),김아영(춘해보건대17),이유정(춘해보건대17),남효정(경성대17),하재형(경성대17),임윤하(경성대17),황상동(동아대17),하잔목(동아대17),강동욱(동아대17),김태진(동아대17),박상준(동아대16)

교육일정

주차	일 자	운 행	교육내용
1주	4월 29일~30일	부산시 체육회관 동래인공암장	입교식, 이론 및 실기 교육 스포츠 클라이밍

지혜민(부산대17)

아침에 다 같이 부실에서 만나 짐을 싸서 택시를 타고 동래 문화회관으로 갔다.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짐을 풀고 기다리다 다른 학생들이 다 도착해서 하태석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수선배가 알려주시는 스트레칭을 하고 외벽등반을 시작했다. 먼저 성수선배가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쉽게 올라가셔서 완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한 1미터를 남겨두고 힘이 빠져서 완등을 하지 못했다. 항상 등반할 때 조금을 남겨두고 힘이 빠져서 완등을 하지 못하는 거 같아서 너무 아쉽다. 앞으로 부실암장에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힘을 더더 길러야겠다!!! 암튼 그렇게 조원들과 외벽등반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밀면을 시켜 먹었는데 아무래도 주문할 때 인원수가 많다보니 헷갈리기도 했고 돈을 걷을 때도 미하선배가 힘들게 한명씩 다 걷으시느라 바쁘신 거 같았다. 다음엔 좀 더 도움이 되어 드려야겠다. 암튼 그렇게 다 같이 맛있게 점심을 먹고 민철 선배와 함께 실내 암장에서 운동을 했는데 민철 선배는 클라이밍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신 거 같아서 존경스러웠다. 나도 앞으로 무언가 할 거면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외벽등반을 두 번 더 하고 동기, 선배들과 놀다가 집합을 하고 사진을 찍고 정리하고 마무리 했다. 끝나고 당연히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갈 줄 알았는데... 진석 선배가 걸어가자고 하셨다. 사실 처음엔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힘들고 걸어가면서 다 같이 얘기도 하고 재밌었다. 그런데 걸어가던 중 암벽화 한 짝이 떨어졌는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앞으로 장비를 꼼꼼하게 챙기고 개인 장비를 잘 간수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조원들 이름도 다 외우고 아주 조금이라도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거 같았고 많은 교훈을 얻은 거 같다.



주차	일 자	운 행	교육내용
2추	5월6일~7일	천태산	응급처치, 막영교육, 실기교육

이소명(춘해보건대15)
차를 가지고가서 힘안들이고 막영지까지 갔지만 강사님들과 교육생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다. 작년에는 공원에서 응급처치 교육과 텐치는 법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캠핑장이었다. 나는 점심을 먹기위해 아침에 사두었던 김밥을 가지고 우리조가 모여있는곳에 갔는데 우리조 사람들이 음식을 안가져와서 다음날 먹을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우리조가 너무 불쌍했지만 돈까스김밥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밥을 먹고 응급처치 교육이 시작되었다. 미하와 함께 삼각건과 붕대를 열심히 준비했기때문에 교육생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따라할때마다 뿌듯했다. CPR교육을 하기 위해 전문 강사님께서 오셔서 교육을 해주셨다. 애니를 이용해서했는데 설마 1000번을 계속해서 할까~ 한번은 쉬었다가 하겠지 했는데 진짜 연속해서 가슴압박을 1000번하게 되었다. 정말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500번이 넘어가고 700번을 할 때 쯤에는 내가 1000번하고 만다하는 생각으로 살릴수있다!!하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자격증을 꼭 따서 응급인 사람을 살리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민 선배가 텐트와 배낭패킹을 교육하는 동안 저녁을 준비했는데 부회장님께서 닭을 준비해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밤에 캠프파이어를 만들어주셔서 고기도 구워먹고 고구마도 구워먹으면서 선배,후배들과 술도먹으면서 많이 친해질수있는 기회가 되었던것같다.



3주	5월13일~14일	금정산	무명릿지, OL, 창립 50주년 기념산행참여

이규철(해양대14)
오늘은 금정산에서 OL 강의가 있는 날이다. 일명 독도법인데 대통령기 산악대회에 나가게 되면 하는 종목이다. 2년 전에 독도법을 배워서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데 길을 잘 가다가 한 번 크게 알바를 해서 체크포인트를 못찍었던 기억이 있다.
산을 다니면서 OL 강의를 듣고 1명씩 출발한다고 한다. 왠지 알바를 엄청 할 거 같은 느낌이...
한명씩 한명씩 아이들이 사라지고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긴장을 하며 출발을 했다.

주차	일 자	운 행	교육내용

시작지점으로 가서 무난하게 클리어를 하고, 그 다음은 첫번째를 찾는데, 오! 바로 찾았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찍으려는데 번호가 이상하다... ㅎㅎㅎ 마지막 포인트를 찾았다. 완전 이득... 내가 방향에 대한 감각이 심각하다는것을 느끼며 첫번째 포인트를 찾아 산행을 시작했다. 한번 제대로 찾으니 쭉 산길따라 가면 나오는 느낌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보물찾기하는 느낌도 나고 게임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산행을 마치고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식사를 했다. 2년전에도 영남합동산행에서 목해대를 만나 재미있게 대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목해대랑 만났다. 역시 이 두 학교는 학교이야기를 하면 이야기에 꽃이 핀다... 목해대쪽에 4학년이 오지 않아 실습이나 취업 등 이야기를 하지못해 아쉽지만, 1학년 2명이 왔길래 같이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렇게 3주차 등산학교가 끝났다. 우리학교 1학년 두 명은 13일날 했던 무명릿지등반 덕분에 산행에 흥미를 느낀거 같아 다행이었다.



4주	5월20일~21일	석남사, 백운암	워킹 및 백운 슬랩등반,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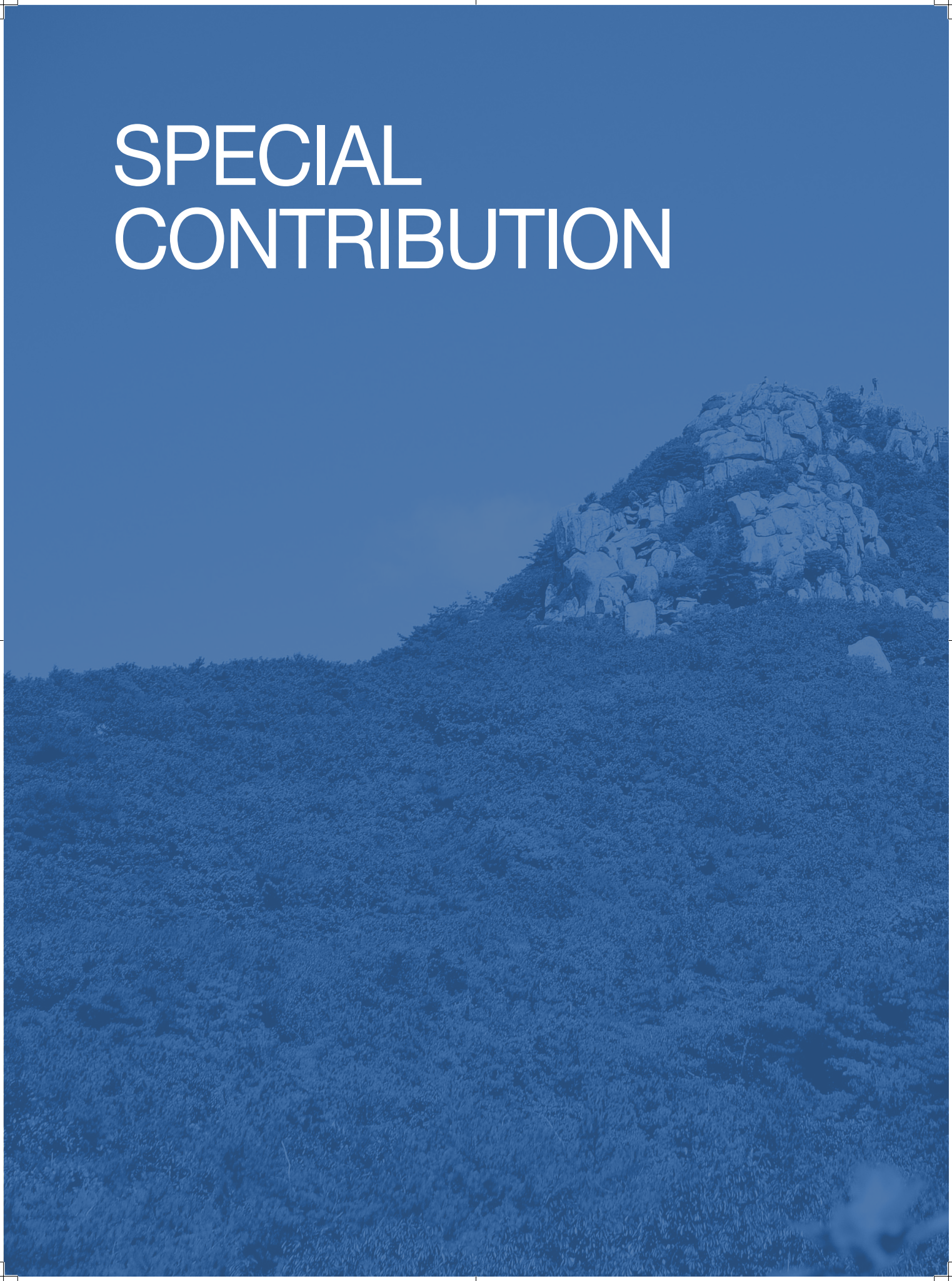
조동기(동의대17)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정신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텐트 밖으로 나가 아침을 맞았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 퍽 괜찮은 날씨였다.
교육생들은 간단한 스트레칭 후 구보를 뛰었다. 나도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뒤 거의 맨 뒤에서 함께 발을 맞췄다. 동기들을 천천히 살펴봤다. 피곤해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지만 누구하나 요령을 피우진 않았다. 힘들었지만, 마지막 인원까지 모두 포기하지 않고 구보를 끝냈다.
아침을 먹고 졸업 등반을 위해 백운대 슬랩으로 향했다. 나는 어깨를 다쳐서 함께하지 못했다. 산 아래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면 "1조!" "2조!" "3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깨를 다치지 않았으면 함께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혼자서 열외되어 편하게 있다는 미안함이 교차했다.
4주간의 교육이 무사히 끝이 났다. 교육을 위해 힘써주신 하태석 강사님, 진석이형 성수형 창욱이형 OB선배님들과 사랑하는 상민이형, 우리 조 난희 선배 정희 선배 선재 선배 그 외에 강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

주차	일 자	운 행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생 20명. 혹자는 위험하고 힘든 등반을 하는 우리를 불나방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나는 우리를 기러기라고 생각하고 싶다. 기러기는 뒤쳐지는 동료를 격려하고 지친 선두를 응원하는 우리와 가장 닮은 새다. 어제 밤 잔을 부딪히며 약속했던 것처럼, 오래오래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만 리를 날아갈 기러기 같은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SPECIAL CONTRIBUTION



PART 2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
특별기획

- 제 1장 부산학생산악연맹 해외 원정사
- 제 2장 부산학생산악연맹 사고死
- 제 3장 지도 교수님을 회상하며
- 제 4장 부산학생산악연맹 방향을 묻다
- 제 5장 창립 50주년 행사

제 1 장

부산학생산악연맹 해외원정을 돌아보다

특별기획 1

世界를 우리 품안에





2014년 아콩가구아(6962m)

연맹대학 해외원정연표

년 도	원정대명	대상산 (높이m)	원정대원		비 고
			대 장	대 원	
1985 가을	부산교육대학교 한국히말라야 투쿠체 원정대	투쿠 체 (6920m)	신호진	이동본, 임두희 양정환	임두희, 양정환 등정
1986 여름	동아대학교 개교 40주년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	일본 북알프스 (3010m)	정민규	박병환, 조규진 이영주, 정명교	박병환, 조규진, 이영주, 정명교 등정
1989 여름	경성대학교 개교33주년 알프스 3대북벽원정대	알프스 3대 북맥	신은규	고영성, 윤동훈 노재일	
1989 7/21 ~23	89 부산대 알프스 아이거북벽 원정대	아이거 북벽 (3970m)	강양훈	김규태, 김성훈 민영도, 지도:임송봉, 이종봉 최상문(지도교수)	
1990 여름	동아대학교 90 한국히말라야 그레이샤돔 원정대	그레이샤돔 (7193m)	정민규	이석호, 김인숙 윤종호, 백진국	백진국 등정
1990 겨울	인제대학교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	일본 북알프스 (3010m)	이만성	이만성	
1991 여름	춘해보건대학교 일본 북알프스원정대	일본 북알프스 (3010m)	유용미	윤영숙, 박복남	
1991 여름	부산여자대학교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	일본 북알프스 (3010m)	차월준	이미선, 조삼덕 허두남, 염미선 정명화, 박소영	
1991 겨울	경남정보대학교 일본 북알프스, 조가사키해벽등반	일본 북알프스 (3010m)	정진열	이민수, 온재륜 정진열	
1992 여름	부산교육대학교 92 한국 파미르원정대	코르제네프스카야 (7105m) 코뮤니즘 (7495m) 포봉(6300m)	신호진	최상룡, 임두희 양정환, 최태신 김대홍, 김석수 박진규, 차광훈 강성석, 이재천	코르제네프스카야: 양정환, 김석수, 이재천 등정 포봉:양정환, 최태신 이재천, 김대홍, 박진규 강성석 등정
1993 여름	부산대학교 93 하계 일본북알프스 조가사키 원정대	일본북알프스 조가사귀해벽	김경태	김지성, 심진용 서정동, 정영훈 정인철, 이창환	
1993 여름	93 경성대학교 요세미테 원정대	요세미테	윤동훈	손종우, 주경식 박승엽	
1993 여름	93 동의대학교 요세미테 원정대	요세미테 국립공원	정헌태	권태현, 진영상	

년 도	원정대명	대상산 (높이m)	원정대원		비 고
			대 장	대 원	
1993 여름	부산공업대학교 93 한국 인도 히말라야 원정대	팝수라(6451m) 다람수라 (6445m)	홍보성	김영택, 정대길 남현욱, 서대원 권광호, 한태운, 구진국	
1994 여름	동아대학교 천산산맥 칸덴그리 원정대	칸텐그리 (7010m)	조벽래	황인철	
1995 여름	부산여자전문대학 대만옥산	대만옥산 (玉山 3952m	차월준	최봉금, 오수미 김현영	
1995 여름	부산여자대학교 키나발루 원정대	키나발루 (4101m)	정명화		
1995 여름	동아대학교 95 하계 카나발루 원정대	키나발루 (4101m)	정광호	이재규	정광호, 이재규 등정
1995 여름	경남정보대학교 카자흐스탄 천산산맥 칸덴그리 원정대	천산산맥 칸덴그리 (7010m)	김기형	김기형	
1995 겨울	인제대학교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	일본 북알프스 (3010m)	정병화	주지철 외 1명	
1996 봄	96 동아대학교 마나파르비트 Ⅰ, Ⅱ봉 원정대	마나파르바트 Ⅰ, Ⅱ (6794, 6771m)	정민규	길광호, 이석호 박병환, 이종언 조벽래, 정광호 이재규, 김태완, 진동철	조벽래, 이재규 등정
1996 여름	동주대학교 다테야마, 쯔루기다께	다테야마 쯔루기다께 (2999m)	김지영	이미옥, 김미성 유향미, 박성미 하태웅(인제대)	
1996 여름	1996 부산전문대학 포베다 원정대	포베다 (7439m)	홍종표	이민수, 박종일 유영재, 이상호 박용호, 염수정	
1996 가을	96 경남전문대학 OB산악회 쉬블링 원정대	쉬블링 (6543m)	박민호	이남국, 정지택 김상민, 최기영 정현국, 최호승 김영진, 정진열, 정성룡	정진열, 김영진 최호승 등정
1997 봄	경남정보대학교 아이거, 마테호른, 몽블랑 원정대	아이거(3970m) 마테호른 (4478m) 몽블랑(5642m)	정진열	정진열	
1997 여름	부산교육대학교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	일본 북알프스 (3010m)	이동본	문진아, 전상은	
1999 여름	인제대학교 아이거서릉, 뮌히봉 원정대	뮌히봉(4009m) 아이거(3970m)	하태웅	하태웅 박준범(부경대89)	하태웅 박준범 등정

년 도	원정대명	대상산 (높이m)	원정대원		비 고
			대 장	대 원	
2001 겨울	춘해보건대학교 코타키나발루 원정대	코타키나발루 (4101m)	정금이	김희정(수산대) 유용미, 김명선 구희정, 조혜진, 최준백	김희정, 구희정 조혜진, 유용미 등정
2001 봄	2001 부경대학교 데날리 원정대	데날리 (6194m)	구진국	김태춘, 허기용 이윤구	구진국, 허기용 이윤구 등정
2001 여름	2001 부산교육대학교 산악회 요세미테 등반대	요세미테 국립공원 일대	이동본	최태신, 김석수 신병건, 차광훈 배효일, 장병재	엘캡 노즈, 엘캡 이스트 버트레스, 하프돔 북서벽 완등
2001 여름	부산대학교 코타키나발루 원정대	키나발루 (4101m)	–	차동주, 이충한, 성경직 박재덕, 이정희, 김치근 이영주, 이병림, 이병수	
2003 겨울	2003 동아대학교 일본 북알프스 등반대	일본 북알프스 산군	오종일	김성배, 박수정 전승주, 장재용, 김인숙	
2004 겨울	2004 부산교육대학교 1차 쥬산원정대 (세계초등을 위한)	쥬산 (6410m)	임두희	양정환, 전상은 김석수, 신병건 차광훈, 배홍, 배효일 장병재, 최민수	
2004 봄	부산학생산악연맹 2004년 데날리 부산 여성 원정대	데날리 (6194m)	김인숙	구희정, 유향미	김인숙 등정
2004 봄	2004년 부경대학교 데날리 원정대	데날리 (6194m)	박준범	장종욱, 서성호, 소진호 강대희, 안소현	
2005 겨울	부산교육대학교 2차 쥬산원정대	쥬산 (6410m)	임두희	양정환, 김석수 배홍, 장병재, 최민수	
2006 여름	동아대학교 가셔브룸 원정대	가셔브룸 I (8068m) 가셔브룸 II (8035m)	이석호	정민규, 조벽래 김정곤, 김인숙 백진국, 김남구	가셔브룸 I : 조벽래 등정 가셔브룸 II : 백진국, 김남구 등정
2007 겨울	부산대학교 중국 쓰구냥산 원정대	쓰구냥산 (5038m)	신양수	이충한. 신양수, 이정희, 김강태, 하정호	
2007 겨울	부산교육대학교 3차 쥬산원정대	쥬산 (6410m)	최태신	전상은, 김석수 김재연, 서동업 조창렬, 전혜영, 이형탁	김석수, 서동업 조창렬 등정
2008 여름	동아대학교 6대륙 최고봉 원정1차 엘브루즈 원정대	엘브루즈 (5642m)	정순천	이석호, 조광제 성기진, 조벽래 김태완, 김남구 이영민, 차월준(부여대)	이석호, 조벽래 김태완, 김남구 등정
2008 여름	부산대학교 엘브루즈 원정대	엘브루즈 (5642m)	신양수	성경직, 이희태 김영현, 김강태, 하정호	김영현, 김강태 등정
2010 봄	2010 동아대학교 에베레스트 원정대	에베레스트 (8848m)	성기진	조벽래, 장재용, 김남구	조벽래, 장재용, 김남구 등정

년 도	원정대명	대상산 (높이m)	원정대원		비 고
			대 장	대 원	
2010 겨울	부산대학교 창립 50주년 기념 동계아마다블람원정대	아마다블람 (6856m)	김규태	김강태, 김지성, 김석수 (교대), 백광윤, 이종록 장병길, 허문철, 김민성	김지성, 이종록 김성수, 허문철
2012 겨울	2012 동아대학교 킬리만자로 원정대	킬리만자로 (5895m)	김정곤	이석호, 조광제 김성배, 김남구 김혜경, 이용순	이석호, 조광제 김정곤, 김남구 김혜경, 이용순 등정
2014 여름	부산대학교 알프스 원정대	아이거(3970m) 마테호른 (4478m) 몽블랑(5642m)	김강태	박문옥, 신수정 김강태, 문수근 김석수(교대86) 김지성, 백광윤 김민성, 이재희	
2014 겨울	부경대학교 아콩카구아 원정대	아콩카구아 (6962m)	최진호	신창용	
2014 겨울	인제대학교 북해도 요테이산	요테이산 (1898m)	전재민	전재민, 김진석 김민철	
2014 겨울	동아대학교 아콩카구아 원정대	아콩카구아 (6962m)	김남구	김나원, 조형석 유창윤, 윤중수 김인숙	조형석, 유창윤 윤중수, 김인숙 등정
2015 여름	부산교육대학교 알프스 원정대	유럽알프스 일원	신병건	김수진, 김석수 박종화, 서동업 배효일, 최민수 안소연, 김은총 김정규, 양정환	치마그란데 북벽 치마오베스트 치마피콜라 완등 몽블랑, 아이거 미텔레기릉 뮌히 등정
2015 여름	동아대학교 칼스텐즈 원정대	칼스텐즈 (4884m)	조벽래	조벽래	조벽래 등정
2016 봄	동아대학교 데날리 원정대	데날리 (6194m)	정순천	성기진, 조벽래 이행순, 김태완 진동철, 황태웅 장재용, 맹규노	조벽래, 이행순 김태완, 진동철 황태웅, 장재용 맹규노 등정
2017 여름	부산대학교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	쯔루기다케 (2999m) 원정대	이창규	박문옥, 성경직 이희태, 이영석 이효문, 노은두 양경희, 신종철, 하정호	
2017 겨울	부산교육대학교 태국 크라비 등반대	태국 크라비 일원	신병건	김정규, 김수진 김석수, 서동업	

원정개요	**부산교육대학교 1985 한국 히말라야 투쿠체 봉 원정대**
일 시	1985년 8월 5일 ~ 1985년 9월 15일
대 상 산	투크체 봉 (6920m)
원정대원	신호진, 이동본, 임두희, 양정환
원정내용	등반 소요기간 고작 8일 1985년 가을 시즌에는 부산교육대산악회가 네팔 히말라야에 원정대를 파견했다. 이 원정대가 도전한 투쿠체(6920m)는 다울라기리1봉(8167m) 북동쪽에 위치한 봉으로 산의 이름은 동쪽 기슭에 있는 다카리 종족의 마을 투쿠체에서 따온 것이다. 1965~1968년 미국대에 의해 여러 번 등정 됐다는 설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1970년 봄 일본 와세다대학 팀에 의해 초등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 후 12개 팀이 도전, 6개 팀이 정상에 올랐다. 이 원정대는 신호진(31) 대장과 이동본(29) 임두희(23) 양정환(22) 대원 등 4명이 참가했는데 대원 모두가 히말라야 초행이었다. 캐러밴 도중 촬영 장비를 도난당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8월 27일 해발 4350m에 베이스캠프를 세웠다. 같은 해 봄 시즌 청주대산악부가 오른 '북릉 루트'를 택한 이들은 9월 1일 5200m에 캠프1을, 다음날 캠프2(6100m)를 설치했다. 등반 시작 8일 만인 9월 4일 임두희 양정환 대원이 고소포터 앙 도르제 셰르파, 겔부 셰르파와 함께 오전 7시 40분께 정상에 섰다. 부산교육대는 히말라야 첫 원정에서 투쿠체 한국 제2등, 그리고 이 산의 통산 9번째 등정팀으로 기록됐다.
원정내용	  
원정결과	1) 등정 성공(임두희, 양정환, 셀파 앙 도루지, 겔부) 2)고산 등반을 통한 고소에서의 운행 경험 3)네팔 주민의 풍습과 문화의 이해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개교 40주년 1996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
일 시	1986년 여름
대 상 산	일본 북알프스(3010m)
원정대원	정민규, 박병환, 조규진, 김영주, 정명교
원정내용	 

원정개요	경성대학교 개교 33주년 1989 알프스 3대 북벽 등반대
일 시	1989년 8월 1일부터 30일(29박 30일)
대 상 산	Eiger North Face, Metterhorn North Face. Grandes Jorasses North Face.
원정대원	신은규, 고영성, 윤동훈, 노재일
원정내용	원정보고서가 없는 관계로 계획서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당시 원정대장인 신은규 대원의 산행 취지문의 글을 올린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가슴속엔 하나의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은 언제나 흰 구름 속에서 웅지를 감추고 있었고 거센 눈보라로 인간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3대 북벽'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며 그 산의 실체를 찾아 헤메던 날이 그 얼마였습니까. 알피니스트들의 동경의 산이며 우리 가슴속에서 갈망하던 그 산의 실체를 찾아 우리의 하나 된 힘과 의지로 그 산을 오르기 위해 이제 먼 길을 떠나려 합니다. 산오름에서 삶과 죽음의 귀로에 서기도 할 것이며 인간 한계의 마지막 선을 넘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이기에 그 모든 것은 극복하고 정상을 향해 또 한 걸음을 올릴 것입니다. 운행계획 8월1일-6일 서울에서 Eiger 북벽 B.C 도착하여 식량, 자료구입, 현지적응, 루트정찰, 자료검토 등 8월7일-11일 Eiger North Face 등반(현지기후 및 사정에 따른 예비일) 8월12-14일 Eiger North Face B.C - Metterhorn North Face B.C 자료수집 및 현지 정찰 8월15-19일 Metterhorn North Face 등반 8월20-22일 Metterhorn North Face - Grandes Jorasses B.C 자료 검토 및 현지 정찰 8월23-27일 Grandes Jorasses North Face 등반 8월28-30일 Grandes Jorases B.C 출발하여 서울도착

원정개요	**부산대학교 1989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
일 시	1989년 7월 4일 ~ 1989년 8월 17일 (44박 45일) 등반기간 7월21-23일(2박3일)
대 상 산	ALPS 3대 북벽 가. Eiger북벽(3,970m)-Heckmair Route 나. Matterhorn북벽(4,478m)-Schmit Route 다. Eiger북벽(3,970m)
원정대원	강양훈, 김규태, 김성훈, 민영도 지도위원 : 이송봉, 이종봉, 최상문, 김무부
원정목적	좀 더 험한 산에 대한 도전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1990 한국 히말라야 그레이샤몸 원정대**
일 시	1990년 8월 10일 ~ 1990년 10월 8일
대 상 산	그레이샤몸(7,193m)
원정대원	정민규, 이석호, 김인숙, 윤종호, 백진국
원정목적	가. 동아대학교 개교 44주년 및 부속병원 설립기념 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산군의 지형조사 및 학술연구 다. 등반에 의한 국위선양
원정내용	속공전략, 국내 두 번째 등정 1990년대를 맞아 히말라야에서 가장 먼저 부산 산악계에 보내온 낭보는 동아대학교산악회의 글레이셔돔(7193m) 등정이었다. 안나푸르나 3봉(7555m)과 같은 산줄기에서 서쪽으로 강가푸르나(7455m)를 사이에 두고 솟아 있는 이 산은 1964년 일본대에 의해 남서면으로 초등 됐다. 1984년 강릉 합동대가 북면 루트를 통해 한국 초등을 일궈냈다. '글레이셔돔'이란 산 이름은 1956년 세계 3대 미봉 중의 하나인 마차푸차레(6993m) 정찰을 위해 안나푸르나 남쪽 빙하로 들어온 영국의 로버츠가 빙설로 덮인 둥근 모양의 산을 발견하고 명명한 데서 비롯됐다. 그 후 1986년 네팔 정부가 타르게 캉 이란 이름을 붙였다. 1990년 가을 시즌 이 산에 동아대 팀은 정민규(34) 대장과 이석호(28) 등반대장, 김인숙(26,여) 윤종호(24) 백진국(23) 등 모두 5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단출한 원정대였다. 이 원정은 동아대학교 개교 44주년 및 부속병원 설립기념 사업으로 추진됐다. 9월 2일 해발 4600m의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이들은 6년 전 강릉팀과 같은 북면으로 등반루트를 택해 속공등반에 나섰다. 9월 2일 캠프1(4600m), 4일에 캠프2(5200m), 6일에 캠프3(6200m), 그리고 7일에는 6400m에 캠프4를 세워 등정 시도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8일 새벽 4시께 윤종호 백진국 대원과 고소포터 2명이 캠프2를 떠나 정상을 향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도차 1000m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상을 고도차를 불과 200여 m 남겨두고 돌아섰다. 1차 등정에 실패한 이들은 등반시작 8일 만인 9월 10일 2차 등정을 시도했다. 새벽 3시 40분께 백진국 대원이 고소포터 사르키 노르부 라마, 앙다와 세르파와 함께 캠프3를 떠났다. 오전 8시께 1차 등정시도 때 돌아섰던 지점을 통과, 출발 9시간 만인 낮 12시 40분께 정상에 올랐다.

원정내용	   

원정개요	**춘해보건대학교 1990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
일 시	1991년 8월 1일 ~ 8월 3일
대 상 산	일본 북알프스(3010m)
원정대원	유용미, 윤영숙, 박복남
원정목적	 

원정개요	경남정보대학교 1991 일본 북알프스, 조가사끼해벽등반
일 시	1991년 겨울
대 상 산	일본 북알프스(3010m), 조가사끼해벽
원정대원	이민수, 온재륜, 정진열
원정목적	 

원정개요	부산교육대학교 1992한국 파미르 원정대
일 시	1992년 7월 20일 ~ 1992년 8월 23일
대 상 산	가. COMMUNISM PEAK (7495m) 나. KORJEPSKAYAR PEAK (7105m) 다. FOUR PEAK (6300m)
원정대원	임원규, 김정규, 신호진, 최상룡, 임두희, 양정환, 최태신, 김태홍, 김석수, 박진규, 차광훈, 강성석, 이재천
원정목적	가. 세계의 지붕인 파미르 일원의 코뮤니즘봉(7495m)과 코르제네프스카야봉(7105m) 및 포봉(5300m)의 등정 나. 국제 산악 교류를 통한 부산교육대학산악부의 등반 기술 강화 다. 중앙 아시아의 문화, 역사, 관습, 환경의 연구 마. 중앙아시아 한국계 학교의 제반 교육환경 조사 바. 재 소련 한국 교포 방문
원정결과	1) 코르제네프스카야 봉(7105m) 등정(92.8.9. 13:15) (등정자:양정환, 김석수, 이재천) 2) 포봉(6300m) 등정 (92.8.15 16:30) (등정자:양정환, 최태신, 김대홍, 박진규, 강성석, 이재천) 3) 코뮤니즘 봉(7495m) 등정 실패, Camp 3(6800m)까지 진출 (대원:임두희, 김석수)
원정내용	부산교대OB 산악부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파미르고원의 코뮤니즘봉(7495m)과 코르제네프사카야봉(7103m) 및 딥샤르봉(5300m)등 3개봉의 연속등정에 나선다. 이 등반대가 계획대로 등정에 성공한다면 한국등반사상 히말라야봉 3연속 등정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원정내용

오는 18일 출국, 32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최고봉인 코뮤니즘봉의 도전에 나설 92한국파미르원정대(대장 신호진 38)는 부산시내 일선 초등교사 10명과 재학생 1명으로 구성돼 새싹들에게 도전 및 개척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적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대원들은 타지크공학구의 두산베 현지 한국계 학교를 방문, 초등학교 전 과정의 국정교과서를 전달하고 러시아중앙아시아제국의 문화 역사를 현장체험, 2세 교육의 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출국 후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딥샤르 2천m 지점까지 버스와 경비행기로 이동해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고소적응을 마친 후 29일 첫 번째 코스인 딥샤르봉 정상을 등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시 딥샤르캠프로 돌아와 헬리콥터로 5시간 정도 소요되는 모스키비나캠프(4200m지점)로 이동, 다음달 7일과 15일에 각각 코르제네프스카야봉과 코뮤니즘봉을 오를 계획이다.
현지 사정에 따라 2개 조로 나뉘어 등정할 코뮤니즘봉의 경우 10일 베이스캠프설치(4200m),11일 캠프1(5100m), 12일 캠프2(6200m), 13일 캠프3(6600m), 14일 캠프4(6800m), 15일 정상에 태극기를 꽂을 예정이다.

정상루트인 이번 코뮤니즘등반루트에 베이스캠프~캠프1구간이 상습 눈사태 지역이고 캠프4~0정상은 경사 60도에 길이 700~800m의 험난한 설벽으로 난코스로 알려 입수,11일 상오에 고정자일을 이용해 서둘러 이 지역을 통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뮤니즘봉은 1932년 소련과학아카데미에 의해 발견돼 당시 실권자인 스탈린에 의해 스탈린봉으로 불렸으나 53년 그의 사후 공산주의 종주국의 표상이라 해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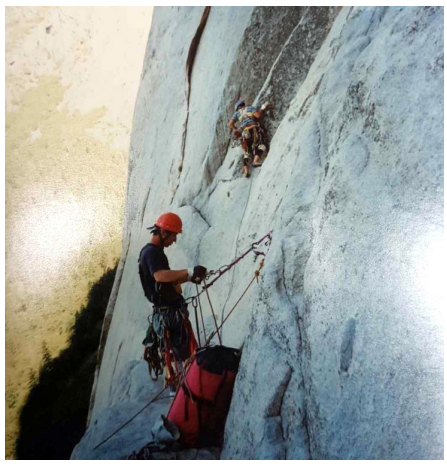
이번 등정에 나서 부산교대산악부는 85년 히말라야 투크체봉(6920m)등정에 성공했고 지난 3년간 설악 토왕봉과 소백 및 태백산맥을 종주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쌓아왔다.



원정개요	**부산대학교 1993 하계 일본 북알프스, 조가사키 원정 등반대**
일 시	1993년 7월 30일 ~ 1993년 8월 10일
대 상 산	일본국 북알프스 및 조가사키 해벽
원정대원	김경태, 김지성, 심진용, 서정동, 정영훈, 정인철, 이창환
원정목적	가. 히말라야 원정을 대비한 고산훈련 나. 암벽 기술 향상 다. 일본 산악계 추세 파악
원정내용	

원정개요	**경성대학교 1993 요세미티 원정대**
일 시	1993년 7월 20일 ~ 1993년 8월 27일(37일)
대 상 산	AMERICA CALIFORNIA YOSEMITE NATIONAL PARK 가. EL-CAPITAN (THE NOSE) 나. EL-CAPITAN (SALATHE WALL) 다. HALF - DOME (REGULAR NOTRHWEST FACE)
등반방식	2-3인 1조 등반
원정대원	원정대장 : 윤동훈 대원 : 손종우, 주경식, 박승엽
원정내용	7.20~22 부산 - 서울 -LA도착-FRESNO-YOSEMITE 7.23~28 B.C 설치, THE FOLLY 등반 EL-CAPITAN 의 EAST BUTTERESS등반 7.29~8.1 EL-CAPITAN(THE NOSE) 등반 8.4~12 HALF-DOME등반 8.13~17 EL-CAPITAN(SALATHE WALL YOSEMITE) 등반 8.18~25 LA체류, 배낭여행 8.26 서울도착 길고 때로는 힘든 약 40여일간의 기간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보다는 대원 각자가 서로 다른 느낌으로 많은 것을 얻으리라 생각한다. 짧은 일지를 돌아보면서 벌써 많은 일들을 추억하여 언젠가 다시 있을 우리들의 산행을 생각해 보면서 도와주신 여러분께 말로나마 감사드린다.

원정개요	**동의대학교 1993 요세미티 원정대**
일 시	1993년 6월 20일 ~ 1993년 8월 1일
대 상 산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반방식	2~3인 1조 등반
원정대원	정현태, 권태현, 진영상
원정목적	가. 세계적인 거벽 등반을 통한 등반기술 향상 나. 개척적인 해외 원정 등반의 발판 마련 다. 동의대학교 산악회의 팀웍 강화
원정결과	1) EL CAPITAN의 SALATHE WALL과 THE NOSE, EAST BUTTRESS 코스 등반 2) MIDDLE CATHEDRAL의 EAST BUTTRESS 등반 3)HALF DOME의 DIRECT NORTH WEST FACE코스 15피치까지 등반(완등실패) 4) 운행일정 6.20~23 부산-서울 LA-BAKER FIELD-FRESNO-YOSEMITTE 6.24~30 오전 캠프4로 이동하여 오후 스완슬립등반, 캠프4벽 정찰 '로얄아치'정찰, '워싱턴 칼럼'등반, 'EAST BUTTRESS'등반 'SWAN SLAB'등반 7.1~7 EL-CAPITAN 등반(35피치까지 등반) 7.8~11 장비정비와 세탁 B.C-HALF DOME-B.C 5) 우리는 일반적인 등반 방식에서 탈피하여, 나름대로의 독특한 등반 방식을 다양하게 구사하여 등반의 폭을 넓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원정개요	**부산공업대학교(현 부경대) 1993 한국 인도 히말라야 원정대**
일 시	1993년 6월 2일 ~ 1993년 7월 14일(43일간)
대 상 산	인도, 히마찰 히말라야 팝수라(6.451m) 다람수라(6.455m)
원정대원	홍보성, 김영택, 정대길, 남현욱, 서대원, 권광호, 한태운, 구진국
원정목적	가. 개교 70년 기념 사업 나. 히말라야 거벽등반 다. 등반지 확대 라. 인도 및 국제 산악인과의 교류증진 및 국위선양
원정내용	부산공업대 OB산악회(현 부경대학교 산악회)는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 쿨루 산군에 있는 두 개의 침봉 다람수라(6445m), 팝수라(6451m)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 원정에는 서승일(50) 단장과 홍보성(38) 대장을 비롯해 김영택(37) 정대길(32) 남현욱(27) 서대원(26) 권광호(26) 구진국(26) 한태운(25) 등 모두 9명이 참가했다. 원정대는 전년에 이미 한 차례의 정찰을 실시, 운행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바라시그리빙하를 거쳐 6월 21일 두 침봉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4200m에 베이스캠프를 건설했다. 이어서 아이스폴 지대를 통과, 4700m에 전진캠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등반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먼저 다람수라 북벽 초등을 노리고 캠프1(5200m), 캠프2(5750m)를 설치하고 6월 26일에는 권광호 한태훈 두 대원이 캠프3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6,000m 부근의 캠프3 예정지를 불과 100여m 남겨뒀을 때 갑자기 표층눈사태가 발생, 등반 중이던 권광호 한태운대원을 1,200m 아래로 쓸고 내려갔다. 캠프1과 캠프2에 머물고 있던 대원들이 수색에 나서 건너편 빙하지대로 추락한 두 대원을 구조, 전진캠프로 이동했다. 권 대원은 무릎 골상을 입었고 한 대원은 찰과상으로 두 대원 모두 중상은 아니었다. 원정대는 다람수라 등반을 포기하고 두 대원을 후송할 헬리콥터를 기다리는 동안 팝수라 등반에 나섰다. 하지만 두 대원의 사고로 팀의 사기가 저하돼 다음을 기약하고 등반을 포기하고 말았다. 비록 등반은 실패로 끝났지만 높이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산을 찾아 벽등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1994 천산산맥 칸덴그리 원정대**
일 시	1994년 여름 7월 15일 ~
대 상 산	칸덴그리(7010m)
원정대원	조벽래, 황인철
원정내용	원정보고서가 없는 관계로 당시 조벽래 대원의 기행문을 대신 올린다 우리가 등반한 산은 구 소련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위치한 칸텐그리(7010m,)라는 봉으로 히말라야산맥이 북으로 뻗어 천산산맥을 이루고 칸텐그리는 이 산맥의 제2봉의 7,000m 이상의 고봉 중 세계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7월 15일 출발하여 가스로 인하여 출발 시 일이 꼬이기는 했지만 베이스 캠프로 가는 여정은 잊을 수 없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와 꽃이 만발한 대평원, 그리고 끝없는 빙하와 하얀산, 귀가 멍할 정도의 헬기 소리를 끝으로 우리는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 3,000m의 대암벽과 정상에서 날리는 눈구름이 우리를 압도하였다. 고소증으로 인해 숨이 차고 머리도 아프다. 3일째는 머리를 잡고 뒹굴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우리를 괴롭혔다. 캠프1, 캠프2, 캠프3으로 고도를 높일 대마다 계속되는 두통과 숨참 그리고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으로 인해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걷고, 쉬고, 먹고, 자고, 등반14일재 되는 7월30일 정상공격에 나섰다. 캠프3에서 정상까지는 수직 고도차 1,100m의 암릉이다. 발가락 감각은 없고 강한 바람과 눈보라로 고개를 들수 없을 지경이었다. 결단을 내려야 했다. 눈앞의 정상이냐, 하산이냐, 늦은 시각의 등반은 곧 비박을 의미했다. 무도했다. 다시오자 밤 10시가 되어 캠프3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날밤 끔찍한 구조작업을 벌여야 했다. 조난한 2명을 완전히 구조한 것이 새벽 4시로 힘든 하루였다. 8월 31일 하산을 결정하고 날씨가 호전되기를 8일간 기다린 후 하산하였다. 6년동안의 산행을 정리하고자 준비한 산행이 비록 등정은 실패했지만 후회와 미련은 없다,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지금도 칸텐그리에는 바람이 불고 있겠지.....  

원정개요	**부산여자대학교 1995 대만 옥산 등정 원정대**
일 시	1995년 7월 15일 ~ 1995년 7월 20일 (6일)
대 상 산	대만 옥산(3997m) 및 용동 암장 일원
원정대원	차월준, 최봉금, 오수미, 김현영
원정목적	가. 히말라야 극지등반 사전 훈련 나. 고산 등반시 기술 훈련 및 고소 적응 훈련

원정목적	다. 장기 산행을 통한 체력 안배 연구 라. 대원간의 팀웍 강화 마. 해외 문화 접목 바. 해외 암장 적응 훈련
원정내용	운행일정 7.15 부산-서울 7.16 서울-중정국제공항-아리산-고봉산장 7.17 고봉산장-타타가안부(2708m)-대산벽-배운산장-옥산정상(3997m)-배운산장 7.18 배운산장-아리산도착-기륭-용동캠프 7.19 용동캠프-용동암장 RC- 용산사-타아페이캠프 7.20 타이페이캠프-고궁박물관, 충렬사 -중정국제공항-서울-부산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1995 하계 키나발루 원정대**
일 시	1995년 여름
대 상 산	키나발루(4101m)
원정대원	정광호 이재규
원정내용	 

원정개요	**동주대학교 1996 다테야마 쯔루기다케 원정대**
일 시	1996년 여름
대 상 산	다테야마 쯔루기다케(1995m)
원정대원	김지영, 이미옥, 김미성, 박성미, 유향미, 하태웅(인제대)
원정내용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1996 마나파르바트 Ⅰ·Ⅱ 원정대**
일 시	1996년 8월 10일 ~ 1996년 9월 30일(52일간)
대 상 산	동아대학교 인도 가르왈 히말라야 마나파르바트 Ⅰ·Ⅱ
원정대원	길광효, 정민규, 이석호, 박병환, 이종언, 조벽래, 정광호, 이재규, 이태완, 진동철
원정목적	가. 동아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등반 나. 마나파르바트 1봉 미답봉 등반 및 2봉 미답릉 루트 등반 다. 동안대-인도 합동대 등반을 통한 국제 교류 및 국위선양
원정내용	마나파르바통2봉 동릉 루트 초등 1996년 대학산악회 두 팀이 인도지역을 찾았다. 인도 서부 가르왈히말라야 강고트리 산군의 북부에 깊숙이 자리 잡아 등반대들이 별로 찾지 않던 마나파르바트산군에 동아대학교 산악회가 진출한다. 이들은 마나파르바토1동(6794m) 초등과 2봉(6771m) 루트 초등을 노렸다. 그러나 이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1봉은 1970년 인도대에 의해 북서릉으로 등정된 바 있었다.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원정에는 길광호(45) 부단장과 정민규(41) 대장을 비롯해 이석호(35) 부대장, 박병환(36) 등반대장, 이종언(33) 조벽래(27) 정광호(26) 이재규(25) 김태완(25) 진동철(24) 대원 등 총 10명이 참가했다.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1996 마나파르바트 Ⅰ·Ⅱ 원정대
일 시	1996년 8월 10일 ~ 1996년 9월 30일(52일간)
대 상 산	동아대학교 인도 가르왈 히말라야 마나파르바트 Ⅰ·Ⅱ
원정대원	길광효, 정민규, 이석호, 박병환, 이종언, 조벽래, 정광호, 이재규, 이태완, 진동철
원정목적	가. 동아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등반 나. 마나파르바트 1봉 미답봉 등반 및 2봉 미답릉 루트 등반 다. 동안대-인도 합동대 등반을 통한 국제 교류 및 국위선양
원정내용	공식적으로 인도와 합동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 대원 1명과 네팔인 고소포터 4명을 고용했다. 원정대는 1봉과 2봉의 등반루트가 6400m 안부에서 동릉과 서릉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 부근에 마지막 캠프를 설치하고 두 봉우리를 등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8월 26일 바스기탈에 베이스캠프(4800m)를 설치한 이들은 31일에는 5100m에 전진캠프를 구축했다. 곧바로 다음날 캠프1(5470m), 9월 3일에는 칼린디빙하가 거의 끝나는 지점인 5800m에 캠프2가 설치됐다. 9월 9일 2봉을 향해 등정조가 출발했으나 눈사태로 후퇴했고, 다음날 1봉 등정조도 강풍으로 돌아섰다. 9월 11일 새벽 4시께 1봉에 대한 2차 등정을 시도했다. 길광호 김태완 진동철 대원과 고소포터 1명이 6,470m까지 진출했으나 판상눈사태와 커니스의 붕괴로 진 대원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사고가 발생, 결국 후퇴하고 말았다. 다음날인 9월 12일 새벽 4시 20분께 전날의 사고로 1봉 등정을 포기하고 2봉 공략에 나섰다. 등정조는 조벽래 이재규 대원과 고소포터 1명으로 구성됐다. 새벽 5시 30분께 안부를 통과, 오후 3시께 마침내 2봉 정상에 섰다. 이들은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며 1995년 인도 팀에 이어 이 산의 재등에 성공했다.   

원정개요	경남전문대학 1996 OB산악회 쉬블링 원정대
일 시	1996년 8월 28일 ~ 1996년 10월 4일
대 상 산	인도 히말라야 가르왈 쉬블링(6543m)
원정대원	이남국, 정지택, 최기영, 최호승, 정현국, 김영진, 정진열, 박민호, 정성룡, 김상민
원정목적	가. 고경산악회(경남전문대 OB 산악회)창립 20주년 기념등반 나. 경남전문대학 개교 31주년 기념등반 다. 고소에서의 벽등반이 주는 인간 한계와 정신력 극복 라. 짧은 트레이닝 기간의 효율적 운용 연구 마. 산악회의 단결과 단합의 결실창조

원정내용

쉬블링 북벽 실패, 서릉 루트로 한국 2등

한국대가 1994년부터 네 차례나 도전, 1995년 단국대 팀에 의해 서릉 통상루트로 등정된바 있는 인도 가르왈히말라야 강고트리지역에 있는 쉬블링(6543m)에 경남전문대산악회가 도전장을 냈다. 정지택(38) 단장과 박민호(31) 대장을 비롯해 이남국(39) 정진열(33) 정성룡(28) 김상민(27) 최기영(27) 최호승(24) 정현국(20) 김영진(20) 대원 등 총 10명으로 원정대를 구성했다. 이 팀은 등반루트를 난이도가 높은 북벽으로 잡았다.

9월 5일 타포반에 도착, 베이스캠프를 건설한 이들은 다음날 4,650m에 전진캠프를 구축하고 12일부터 북벽 등반을 시작했다. 등반시작 3일 만인 15일 5,200m의 크레바스 속에 캠프 1을 설치했으나 갑작스런 폭설과 눈사태를 만나 눈에 묻히기 직전에 탈출, 구사일생으로 하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장비와 식량 절반 이상을 분실한 원정대는 북벽을 포기하고 서릉으로 등반루트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9월 19일 서릉 공략을 시작한 이들은 그날로 5,500m에 캠프 1을 세웠다. 21일에는 정진열 최호승 김영진 대원이 정상 등정에 나서 5,950m의 가파른 바위 밑에서 비바크를 감행했다. 다음날 새벽 4시 30분께 비박지를 출발한 이들은 8시간 50분간의 등반 끝에 오후 1시 20분께 정상에 섰다.
이로써 경남전문대산악회 팀은 단국대 팀에 이어 쉬블링 한국 두 번째 등정팀으로 기록됐다.





원정개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6 포베다 원정대**
일 시	1996년 7월 15일 ~ 1996년 8월 10일(27일간)
대 상 산	중앙아시아 천산산맥 포베다 봉(7439m)
원정대원	홍종표, 이만수, 박종일, 유영제, 이상호, 박용호, 염수정
원정목적	가. 개교 20년 기념 포베다 원정등반 나. 히말라야 8,000m급 원정을 대비한 등반 다. 중앙 아시아 한민족 탐방
원정내용	등반시작 18일 만에 등정 같은 해 여름 1992년부터 구소련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열고 있는 천산국제캠프에 부산정보대 OB산악회 팀이 참가했다. 박종일(30) 대장을 비롯한 5명의 대원은 유한(34) 대장이 이끈 우석대 팀과 천산산택 최고봉 포베다(7439m) 등정을 목표로 합동으로 등반에 나섰다. 7월 23일 북릉을 향해 등반을 개시한 두 팀은 이날 캠프1(4200m), 24일(5000m), 29일에는 5,800m에 캠프3을 세웠다. 30일 강풍을 뚫고 6,500m에 캠프4를 설치한 원정대는 악천후로 두 차례의 실패 끝에 8월 7일 7,000m 지점에 마지막 캠프인 캠프5에 도착할 수 있었다. 9일 새벽 5시 10분께 부산의 김인호 대원이 우석대의 한왕룡 고용석 대원과 함께 마지막 캠프를 출발, 9시간 35분만인 오후 2시 45분께 정상을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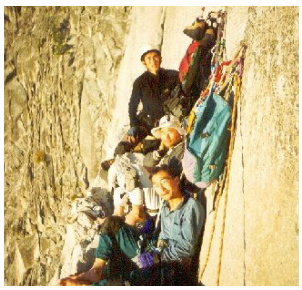
원정개요	경남정보대학교 1997 알프스산맥 등반대(아이거, 마테호른, 몽블랑) 원정대
일 시	1997
대 상 산	아이거(3970m), 마테호른(4478m), 몽블랑(5642m)
원정대원	정진열
원정내용	

원정개요	춘해보건대학교 2001 키나발루 원정대
일 시	2001년 1월 3일 ~ 7일(4박 5일)
대 상 산	코타키나발루(4095m)
원정대원	정금이,김희정(수산대),유용미, 구희정, 김명선, 조혜진, 최준백
원정내용	

원정개요	**부경대학교 2001년 고산회 맥킨리 원정대**
일 시	2001년 05월10일 ~ 06월 05일(27일간)
대 상 산	데날리(MT. MCKINLEY, 6194m), WESTERN LIP & WEST BUTRESS 미국 알래스카주 데날리 국립공원
등반목적	히말라야거봉 등반을 대비한 고소등반 기술획득 및 적응
원정대원	대장 구진국 대원 : 김태훈, 허기용, 이윤구
원정내용	2001년 05월 10일 부산-서울-시애틀-앵커리지-와실라 2001년 05월 10일~05월 12일 와실라 현지 식량 구입 및 장비 점검 2001년 05월 13일 와실라-탈키트나-랜딩포인트-C1 2001년 05월 14일~05월 16일 C1-C3 2001년 05월 17일~05월 19일 C3-C4-B.C(맥킨리시티:김태훈대원 고소증세 하산) 2001년 05월 20일~05월 21일 B.C-C5-B.C(식량 및 장비 데포) 2001년 05월 22일~05월 24일 B.C-C5-C6-C5(식량 및 장비 데포) 2001년 05월 25일 C5-C6 2001년 05월 26일~05월 27일 1차, 2차 정상 공격(정상등정 : 구진국, 허기용) 2001년 05월 28일~05월 30일 C6-C5-B.C-랜딩포인트-탈키트나-와실라 2001년 05월 31일~06월 02일 와실라 체류 2001년 06월 03일 귀국(앵커리지-시애틀-서울-부산) 첫날 렌딩포인트에서 과연 무사히 맥킨리 정상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한 등반이 어느새 C6 하이 캠프였습니다. 정상에 서는 순간 하염 없이 부퉁켜 안고 울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도 알 수는 없지만... 다시 꿈을 가져 봅니다. 정상 등정후 설맹으로 앞을 볼 수 없던 순간에도, 화이트 아웃으로 겁을 먹던 순간에도 무사히 맥킨리 원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구진국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고산증세로 정상을 같이 하지 못한 태훈이형, 원정 훈련도중 개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춘표형, 윤구형 그리고 모든 선, 후배님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원정개요	**부산교육대학교 2001 YOSEMITE 등반대**
일 시	2001년 7월 25일 ~ 2001년 8월 20일
대 상 산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원 가. YOSEMITE Half Dome "North West Face" VI,5.9,A2(수직높이 549m,24피치) 나. YOSEMITE El-Capitan "The NOSE" VI, 5.11, A2(수직높이 900m, 34피치) 다. YOSEMITE El-Capitan "East Buttres" 5.10b (13피치) 라. YOSEMITE 계곡 주변의 암벽 마. 미국 서부의 여러 암벽
원정대원	이동본, 최태신, 김석수, 신병건, 차광훈, 배효일, 장병재
원정목적	가. YOSEMITE 등반을 통한 대원들의 등반 역량 및 팀웍 향상 나. YOSEMITE 등반 방식 및 기술습득 다. 세계 암벽 등반의 메카인 YOSEMITE 거벽 등반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2003 동계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
일 시	2003년 1월 12일 ~ 2003년 1월 24일
대 상 산	일본 북알프스 산군
원정대원	오종일, 김성배, 박수정, 전승주, 장재용, 김인숙
원정목적	가. 더 높은곳을 향하는 다우악의 정신 확인 나. 히말라야 등반 능력 배양 다. 일본 산악인과의 교류 증진 1.12일 부산에서 오사카항으로 출발 1.13일 오사카 - 신호타카 도착하여 막영완료 후 등반일정회의 1.14일 산호타카-케이블카 이동-드안루투 확인 후 출발-서수산장- 피라피드 피크 - 막영지 도착 1.15일 피라피드 피크-서수고악(2908m)-적암악(믹스 클라이밍 지대, 하강) 1.16일 천구-3,168m봉 도착 1.17일 오수고악정상-수고악산장 1.18일 학택악-북수고악-북수고소옥-남악방향정찰-복귀 1.19일 2841봉-남악소악 1.20일 남악소옥-청평소옥-백출소옥 1.21일 백출소옥-신호타카 야영장 1.22~23일 예비일 1.14일 신호타카야영장-오사카 1.15일 부산도착  

원정개요	세계 초등정을 위한 부산교육대학교 산악회 2004 쥬산(6410m) 원정대
일 시	2004년 1월 4일 ~ 2004년 1월 29일
대 상 산	중국 사천성 쥬산(6410m), 사천성 감목주 서장 자치구내 조정현
원정대원	신호진, 임두희, 양정환, 전상은, 김석수, 신병건, 차광훈, 배홍, 배효일, 장병재, 최민수, 김정규
원정목적	가. 부산교육대학교 개교 43주년 및 PNUEAC 창립 37주년 기념 나. 중국 사천성 대설산맥의 쥬산 세계 초등 다. 중국 현지 초등학교 방문을 통한 초등 교육 환경 조사 라. 중국 산악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부산교육대학교 산악회의 위상 제고 마. 중국의 문화, 역사, 관습의 조사 및 연구

등반루트	신루트 개척
원정내용	빙하에서 수영하기... 최선을 다했으나 등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빙하에서 일주일간 수영하기!!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 악몽이었다. 1월 4일 새벽부터 원정은 시작되었다. 인천을 거쳐 성도에 도착한 지 3일 만인 1월 7일, 우리 원정대는 3,900m의 베이스캠프에 도착하였다. 보통의 히말라야 원정에 비하면 매우 빠른 캠프 설치다. 캠프 정리와 장비 점검으로 하루를 보낸 원정대는 1월 9일 쥬산산신께 고하며 무사 산행을 기원하는 산제를 시작으로 캠프 공략에 나서 Camp1(4900m)과 Camp2(4800m)를 무난하게 설치했다. Camp1과 Camp2 구간은 어지럽게 널려있는 바위들이 눈에 덮여 있어 가슴까지 빠지는 눈을 헤쳐 가느라 속도는 고사하고 진이 다 빠졌다. 산 넘어 산이라던가? 곧바로 정상으로 가는 길목인 한새재에 Camp3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Camp2와 Camp3 구간의 설사면 위에 버티고 서있는 만년 빙탑은 쥬산 처녀 귀신의 시퍼런 이빨을 연상케 했다. 그 아래를 지나는 길은 몇 개의 목을 내놓아 할 만큼 위험한 코스였다. 원정대를 위협하는 악마의 이빨에서 굶주린 침이 흘러내렸다. 보지 말았어야 할 악마의 눈사태는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이었다. 쥬산의 산신은 빙탑 끝에서 거대한 눈사태를 만들어 보이며 우리를 위협했다. 눈사태를 보고도 그 아래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안전한 빙하로 내려가 빙하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회 코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빙하가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음을 우리는 일주일간 뼈저리게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빙하는 크고 작은 빙탑들을 만들어내고 가로로 질서 없이 갈라지며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크레바스를 수없이 만들어 내고 있었다. 빙하폭 2Km의 중간에 Camp3를 설치한 원정대는 한새재를 향하여 빙하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로 찾기를 시작하였다. 하루, 이틀, 시간이 허비되고 미로 찾기에 실패한 공격조의 허탈한 답신이 도착하면서 Base Camp는 긴장과 허탈감에 희뿌연한 담배 연기와 뒤덮인 안개로 적막의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다. 빙하에서 6일째 되던 날, 공격조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다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우리 원정대는 사다리를 준비하지 않았다. 중국의 어느 원정대도 사다리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2년 전의 정찰등반에서도 빙하를 통과하는 코스는 제외되었었다. 대나무를 이용하여 사다리를 제작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그것도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이제 준비된 식량과 가스도 며칠 밖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던가? 1월 17일 12:00의 교신에서 빙하에 휙스 작업이 완료됐다는 교신이 들어왔다.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일인가? 한새재에 Camp4가 설치되면 남은 것은 정상공격이다. Base Camp에는 갑자기 활기가 솟았고 3~4일이면 결판이 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흥분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음날 새벽 4시에 기상하여 6시에 출발하기로 하고 일찍 잠이 들면서 등정 후의 캠프 철수를 위한 철수조를 올려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의 교신은 또다시 우울한 소식이었다. 빙하를 넘어 빙하였다. 전날 설치한 휙스 위쪽이 한새재로 알고 올라갔으나 그 위로 또다시 빙하가 펼쳐져 있었다. 빙하의 중간에 서서 코앞에 정상으로 가는 한새재를 바라보며, 하루는 오른쪽으로, 다음날은 왼쪽으로 또다시 미로를 더듬으며 일주일이 흘렀다.

원정내용

그날 밤 10시...
원정대는 결정타를 맞고 말았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Camp2에서는 너무도 간절한 양정환 부대장의 공격조 호출이 밤새 이어졌다.
"여기는 Camp2, 석수야 눈 온다. 일어나라."
"여기는 Base, Camp3응답해라."
"병재야 일어나라."
루트 작업에 지친 공격조가 폭설을 모르고 잠이 들었을 경우 눈이 텐트를 뒤덮어 통풍이 안 되는 날은 구조요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질식사로 이어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던가?
다음 날 아침.
석수의 교신과 함께 날아온 인사말
"Good Morning!!"
포근하게 잘 잤단다.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산 넘어 산, 빙하 위에 빙하, 일주일간 빙하를 헤매며 지친 대원들, 그리고 폭설...
주 산의 처녀신은 우리를 그렇게 묶어버렸다.
"캠프를 철수한다. 2일간에 걸쳐서 주의해서 안전하게 철수하길 바란다."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솔직히 누군가 좀 더 해보자고 항변하길 바랐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등정보다는 대원 모두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들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했다.
대원들은 여신의 얼어버린 오줌 밭에서 모든 기력을 소진해버렸다.

우리 부산교육대학교 산악회는 원정기간 동안 대원 모두가 끈끈한 가족애로 뭉쳤었다.
공격조와 지원조는 자연스럽게 갈라졌으며 누구도 불만없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
그동안 수차례의 해외원정에서 완벽에 가까운 성공을 거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했었다. 이번 원정의 실패는 우리 산악회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무사산행을 기원하며 기다려준 가족들과 산악회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계, 산악계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원정개요	부산 여성 2004 데날리 원정대
일 시	2004년 5월 8일 ~ 2004년 6월 6일(30일간)
대 상 산	데날리(Mt. Mckinley)
원정대원	김인숙, 구희정, 유향미
기 타	5월 8일~8일 부산-동경-시애틀-와실라 5월 10일~11일 와실라 현지준비 5월 11~28일 등반 5월 29일~6월 4일 철수 6월 5일~6일 와실라-잉커리지-시애틀-동경-부산







원정개요	**부경대학교 2004 데날리 원정대**
일 시	2004년 5월 2일 ~ 2004년 5월 27일 (26일간)
대 상 산	데날리(Denali-가장높은산) 또는 데날리 (MT. MCKINLEY)
원정대원	박준범, 장종욱, 서성호, 소진호, 강대희, 안소현
원정목적	가) 개교 80주년 기념 나) 대연, 용당 캠퍼스 산악부 및 O.B산악회 통합기념 다) 산악스키 등반
원정결과	가) 5,600m 데날리패스 위 (약 18,400 feet) 나) 전원 산악스키 등반 및 하강
원정내용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염원속에 추진된 데날리 원정은 학교통합과 산악회의 장기적인 해외원정사업에 있어서 시발점이자 원동력이 되는 역할을 가진 중요한 원정이었다. 모든 대원들은 이같은 사항을 인식하며, 지난해 8월 첫 훈련산행에 이어서 주말훈련, 동계훈련, 스키훈련 등 15차례에 걸친 훈련산행과 구보와 수영 등 개인별 트레이닝을 거쳐 원정에 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데날리 원정에 임하였다. 데날리(6194m)는 극지방 가까이 위치하여, 히말라야의 고도에 비하여 1,000m이상의 고소와 추위를 경험할 수 있는 산이나, 등반에 관한 모든 루트관리와 운영이 철처하게 레인저체제로 시스템화되어 움직이므로, 유사시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부담률이 적고, 세계적으로 많은 등반가들이 히말라야의 전초전대상지로서 선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등반기간 중 우리는 철저한 안전수칙과 당초 등반목적과 스타일에 따라서 운행하였으며, 혼연일체가 되어 HIGH-CAMP(5200m)에서의 운행까지 대원들 모두 등정에 대한 열의와 자신감이 충만하여 있었다. 그러나, 데날리패스(약 5600m)의 강풍으로 인하여 1차 시도실패 이 후 , 날씨와 식량문제, 한국원정대 안동대와 대전원정대의 조난 구조활동 등으로 더 이상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산을 결정하게 되었다.   사진은 1km 미터 자일앞에서 환자(대전원정대 조대장) 하강 준비중 5,240m에서 4,330m까지 자일에 매달아서 환자를 내려보냄.(헬기가 위까지 못올라옴) 등반기간 내 대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였으며, 모든 결정은 대장이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원정내용

비록 정상을 밟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체험적인 몇 가지 수확이 있음을 알리고 싶다.

첫 번째, 산악스키등반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왔다.
준비단계에서부터 스키초보자인 전 대원들은 짧은 스키교육만으로 적응할 수 있을 지와 등반에 있어서 체력적인 이익과 하산시의 안전성등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나누었지만, 실제 경험으로 스키보행으로 많은 크레바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실제 설피등을 착용한 외국원정대원의 위험한 상황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설피보행을 하는 국내 타 원정대원들에 비하여 시간과 체력을 월등히 단축할 수 있었으며, 가장 우려하였던 하산문제역시 쉽게 적응하여 엄청난 시간단축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식단에 있어서의 도전이었다.
아침과 점심식단의 대부분을 현지에서 구입하였고,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한 빵과 치즈, 롤빵을 주로 하여 구성하였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포만감과 자극성이 없고, 입맛을 맞추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름데로의 적응방법을 터득하고 난 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며, 조리시간의 단축과 청결함,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단, 계획보다 빵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부분 더욱 연구하여 보완하고 한국에서부터 입맛 길들이기가 시작된다면 운행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세 번째, 외국 원정대의 안전운행과 휴머니즘, 클린마운틴등 선진의식에 대한 공감이다.
운행시 철저한 안자일렌, 유사시를 대비한 보조자일 휴대, 스크류 휴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여유로움, 티끌하나 남기지 않는 청결의식 등 등반자 또는 산악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의식. 사고발생시 하이캠프과 맥킨리시티의 수많은 등반가들과 레인저들이 밤을 새워가며 자신들의 운행을 뒤로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번째, 대원건강일지를 기록하여 타원정시 대원 컨디션에 대한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비자발급시의 행정처리와 영문서류, MP3플레이어를 통한 음성녹음, 동영상 촬영, 미국내 마켓에서의 식량 및 장비 구입원가를 그대로 기록하여 앞으로 맥킨리를 준비하는 타원정대에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2006 가셔브룸 원정대
일 시	2006년 6월 10일 ~ 2006년 8월 20일(72일)
대 상 산	가셔브룸 I (8068m), 가셔브룸 II (8035m)
원정대원	정민규, 조벽래. 김정곤, 김인숙, 백진국, 김남구
원정내용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6대륙 최고봉 원정 제1차 2008 엘브루즈 원정대**
일 시	2008년 7월 23일 ~ 2008년 8월 3일(12일)
대 상 산	유럽대륙 최고봉 엘브루즈(5642m)
원정대원	정순천, 조광제, 이석호, 차월준, 성기진, 조벽래, 김태완, 김남구, 이영민
원정목적	가. 동아대학교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나. 6대륙 최고봉 등정 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기념 라. 부산학생산악연맹과의 합동 등반
등반방식	알파인 스타일 및 산악스키 등반
원정내용	7월 23일 부경으로 출발하여 모스코바 도착. 수속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7월 24일 메네랄리보디 도착하여 박산에서 식량 구입 후 박산계곡 진입 호텔 도착 7월 25일 체켓봉을 향해 출발. 체켓봉을 올라가는 동안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중간중간본인의 페이스대로 휴식도 하고 넓은 들판에 흐드러진 들꽃들을 감사하는 것도 하나의 별미였다. 12시 50분경 정상에 도착하였다. 도착할 때까지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7월 26일 엘브루즈 등반 기점인 배럴에 도착하였다. 리프트에서 내린 후 카고백을 숙소인 콘테이너에 이동 후 고소 적응을 위해 숙소를 나섰다. 퓨리엇 산장에서 휴식과 사진 촬영 후 배럴에 다시 도착 7월 28일 케이블카를 이용 아자우 도착하여 내일의 성공적 등반을 위하여 배럴에 도착 7월 29일 배렁에 도착한 후 날씨가 스토우 샤워가 내리고 강한 눈바람이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그래도 1차 정상공격을 시도하였다. 대원 9명과 함께한 타 산악회 세분, 그리고 현지 가이드를 포함한 가이드 4명, 대구팀 등 총 19명이 새벽에 정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계속되는 진눈깨비와 바람이 앞을 막아 쉽지 않은 등반으로 눈물을 머금은 하산을 실시하였다. 무리한 도전은 실패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추스르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7월 30일 2차 정상공격 실시. 여전히 칼날 같은 바람이 흩날리고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엘브루즈의 고도를 헤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정상에 도착 “100m, 20m, 30m, 10m, 5m,.... 정상이다. 엘브루즈의 정상이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원정개요	**부산교육대학교 쥬산(Zhushan 6410m) 2004, 2005, 2006, 2007 원정대**
일 시	2006년 12월 28일 ~ 2007년 1월 29일(32일)
대 상 산	쥬산(Zhushan 6410m)
원정대원	최태신(대장), 전상은(부대장), 김석수(등반대장), 김재영(식량), 서동업(장비), 조창렬(수송), 전혜영(의료), 이형탁(기록,촬영) : 8명
원정내용	1차 원정은 산악회의 대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규모가 성대했다. 등반대원이 12명이고 재정도 든든했으며 주위의 관심도 뜨거웠다. 그러나 정보의 부재라는 커다란 벽을 넘지 못하고 광활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빙하 안에서 크레바스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등반했지만 무섭게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깊고 넓은 크레바스에 막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5,000m까지의 루트 개척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실패라는 결과에 주위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졌고 산악회의 재정은 열악해지면서 2차 원정은 소수 정예로 꾸리자는 말이 조심스럽게 왔다 2차 원정은 2005년 1월 2일 1차 원정 후에 나온 소수정예의 의견으로 6명 대원이 비장한 각오로 2차 원정을 떠났다. 1차 원정경험을 바탕으로 낙빙의 위험은 있지만 크레바스가 적은 루트를 선택하여 빠른 속도로 루트를 개척하면서 고도를 높여나갔다. 5,600m에 캠프4를 설치를 위해 악전고투를 하던 중에 배홍(84)대원이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커다란 물집을 달고 난감해 한다. 하는 수 없이 배홍 대원을 내려보내고 장병재(96)대원과 둘이서 작업을 계속 해 나갔다. 5,920m를 고도계가 가리키는 지점 암.설벽에 붙어 있을 때 아래에서 확보를 보던 장병재 대원에게서 "형님 자일이 끝입니다"라는 말이 들려온다. 준비해온 Fix Rope, 슬링 200m 모두 사용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일까지 끝이란다. 그런데 약 60~70m의 암벽이 수직으로 버티고 서 있었다. 2주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현기증이 일어난다. 애써 웃으면서 만약에 있을 다음 원정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 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3차 원정을 드디어 2006년 12월 28일 부산에서 성도로 출발하였다. 쥬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의 1차 원정과는 다르게 세 번째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출발하는 마음가짐까지도 이제는 제법 여유가 묻어난다 06.12/28 부산-인천-성도 06.12/29 성도-마서 물품구입, 마서 입성, 쓰촨성 등산협회와 행정 절차 완료 06.12/30 마서-2호영지-금산반점-2호영지 고소적응훈련 06.12/31 2호영지-케이블카(하)-케이블카(상)-2호영지 고소적응훈련 07.1/1 2호영지-케이블카(상)-BC BC로 짐 수송, BC 설치 07.1/2 BC-C1-BC C1짐 수송, C1 터다지기, BC 고소적응 07.1/3 BC 고소적응 07.1/4 BC-C1 C1 설치 07.1/5 C2 설치 07.1/6 C2 짐 수송 07.1/7 C2 짐 수송 07.1/8 C2 3명은 짐 수송, 3명은 캠프3 루트작업 07.1/9 C2-C3-C2 6명 캠프3 짐수송, 1명 텐트 보수공사, 1명캠프

원정내용

07.1/10 C2 전 대원 휴일
07.1/11 C2-C3 캠프3로 올라가는 날
07.1/12 C3-C4-C3 캠프4 아직 설치 안 되고 루트공작
07.1/13 C3-C4-설벽작업-C3 설벽 중간에 Fix Rope설치
07.1/14 C3-6,000m 능선아래 직벽도달-C3
07.1/15 ABC로
07.1/16 휴일
07.1/17 C3 눈사태로 캠프3이 없어짐
07.1/18 ABC에서 짐 올리는 날
07.1/19 C4 건설하는날
07.1/20 능선까지 루트공작(능선아래 직벽에 길 내는 날)
07.1/21 정상등정
새벽 4시에 모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면서 시계를 보니 6시 5분이다. 정상부근 크레바스 위를 왼쪽으로 100~150m 정도 트래바스하면 정상 아랫부분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위쪽으로 250m 길이의 자일로 3피치 정도 오르면 정상이다. 정상은 약간 비스듬하나 평평한 형태였고 정상부분 맨 끝에 첨탑이 서 있었다. 15시 48분 정상에 도착하여 무전기를 꺼내 캠프4에 있는 대장, 부대장에게 "지금 정상에 앉아 있다 오버"라고 김석수 대원이 무전을 보냈다. 교신을 끝내고 정상 촬영을 하였으나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태극기나 중국기가 펄럭거려 하는 수 없이 주저앉아 손으로 잡고 두발로 누르면서 촬영을 하였다.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2010 에베레스트 원정대**
일 시	2010년 3월 26일 ~ 5월 29일
대 상 산	세계 최고봉 Mt. Everest(8848m) 네팔 쿰부 히말라야 위도 27도, 경도 86도
원정대원	성기진, 조벽래, 장재용, 김남구
원정목적	가. 세계 최고봉 등정 나. 6대륙 최고봉 연속 등정
원정결과	조벽래, 장재용, 김남구 대원 등
원정내용	"2010년 5월 17일 09시 50분 한 평 남짓한 세상의 용마루, 뚜렷이 보이는 마칼루와 초오유 멀리 보이는 캉젠충가...드디어 오른 것인가. 정산에서 나는 환하게 웃는 것인지 숨이 입을 통해 자지러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후배가 즐겨 부르던 노랫말이 좌뇌에 사이렌을 울려 댔고 급기야 이날은 오고야 말았다. 3월 26일 이날 또한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항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 우리의 장도를 환송했다. 12시간을 날아서 도착한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하여 31일 행정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상행 카라반을 시작한다. 카라반은 쿠클라(Lukla, 2600m)에서 시작하는데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경비행기는 저곳에 착륙이 가능 할까 싶은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어렵사리 들어가 안착한다. 벌레 몇 마리가 들어앉아 있는 듯 윙윙거리는 귀를 붙잡고 카라반은 시작되었다.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에 숨이 막히는 것인지 갑작스러운 고도 상승으로 호흡이 힘든 것인지 분간 할 수 없었지만, 아름다운 광경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웠고 고소증세를 말끔히 치유했다. 히말라야 아침 햇살을 흠뻑 맞으며 걷고 있는 나는 꿈속 어딘가에 있음이 분명하였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여기까지만... 4월 8일 카라반 9일째 드디어 원정대는 베이스캠프로 입성한다. 낯선 이방인을 맞는 에베레스트의 인사는 살갑지 않았다. 베이스캠프로 입성하던 날 처음으로 우리를 반기는 것은 숨 막히는 호흡곤란이었다. 4월 11일 라마제를 정성스럽게 지냈으며 두려운 마음은 급히 안정하여 절대자의 힘을 빌려 다음날 새벽 4시 역사적인 에베레스트 첫 등반이 시작된다. 숨이 멎을 듯한 호흡에 한 걸음 떼기가 힘들었다. 기세 좋던 의지는 보기 좋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곧이어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광선 같은 에베레스트의 강한 햇빛을 속수무책으로 저항 없이 받으며 굴욕적인 하산을 한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에베레스트와의 첫 만남이었다. 4월 23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는 등 일상의 사소한 모든 행위가 제약을 받는 가운데 원정대는 올 시즌 최초로 캠프3에 오르게 된다. 기침을 격하게 해서 갈비뼈가 부서진 것 같은 느낌, 몸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먹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역설..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부여잡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다. 오를 수 있을까? 보기 좋게 이겨내고 싶다. 우리는... 현실보다 강하므로 강풍으로 캠프 4에서 이틀 대기한 후 5월 16일 20시 50분 모두가 잠들 시간 원정대는 대망의 정상으로 향한다. 부르트고 찢어진 입술, 벌겋게 충혈된 눈, 새까맣게 탄 코, 검게 탄 피부, 그러나 빛나는 눈빛... 그 눈 빛 하나를 담보로 정상 등정을 감행한다.

원정내용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정상은 히말라야를 그리던 젊은이의 신기루인가? 사방의 어두움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뚫고 가는 절대 고독의 두려움을 안고 에베레스트 동릉과 남릉이 만나는 발코니에 들어선다. 5월 17일 오전 09:50분 그날은 마치 나를 오랫동안 기다린 듯한 느낌이었다. 지구의 용마루에 올라 여기를 오르려 겪었던 모든 힘든 것들을 내려놓았다.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눈물이 얼어 눈을 찌른다. 하산하였다. 내안의 모든 힘은 공중분해 되었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알지 못하는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였고 혼미한 정신을 부여잡고 캠프 4로 하산을 마친다. 붉은 오줌을 갈기고 20시간. 죽음의 등반을 마친다.  

원정개요	**"부산대산악부창립50주년기념" 2010 부산대산악부동계아마다블람 원정대**
일 시	2010년 12월 17일 ~ 2011년 1월 14일
대 상 산	아마다블람 (6812m)
원정대원	김강태, 김규태(82), 김지성(89), 김석수(86), 백광윤(98), 이종록(06), 장병길(06), 허문철(09), 김민성(09)
원정목적	가. 부산대학교상악부창립50주념 기념등반을 통한 등반 활동 고취 나. OB회원과 YB회원들의 교류강화 및 합동 등반 활성화 다. 고산 기술등반 경험축적 라. 부산지역 대학산악부 최초 등반 대상산
원정내용	지난 1월 14일, 하얗게 만년설이 쌓인 네팔 쿰부에 위치한 '히말라야 아마다블람' 의 정상. 이름만 들어도 춥고 높을 것 같은 이곳을 이종록(기계공4)씨와 장병길(나노메디컬 3)씨가 밟았다. 지난해 12월, 2010년 우리 학교 산악부 창립 50주년을 맞아 졸업생을 포함해 총 9명의 대원이 원정등반을 떠났다. '히말라야 아마다블람'의 높이는 6,856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의 2,750m에 비교하면 이곳은 백두산의 약 2.5배의 높이다. 또 아마다블람은 세계 3대 미봉 중 하나로 '어머니의 진주목걸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가 유명하다. 이종록 씨는 "에베레스트를 보면 웅장하고 압박감이 느껴지죠"라며 "그러나 아마다블람은 양 옆 봉우리가 안으로 감싸는 모양이라 품에 안기는 듯한 느낌이에요"라고 올랐을 때 당시를 회상했다.

원정 내용

원정 등반이 계획된 후 약 15개월 동안 대원들은 훈련에 매진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체력이다. 종록 씨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학교 대운동장에서 매일 10km를 달렸어요"라고 말했다. 장병길 씨 역시 "한 달에 두 번 25kg 무게의 배낭을 메고 등산을 했어요"라며 "실제 배낭은 15kg 정도지만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는 체감 무게가 25kg 정도거든요"라고 고된 훈련을 설명했다.

고산지대의 낮은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는 등반복 역시 중요하다. 병길 씨는 "4,600m에 있는 베이스캠프의 온도가 영하 15℃였죠"라며 "'이러다가 죽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전문 등반복 6겹을 껴입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고산지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극한의 기온보다도 고산병이라고 입모아 얘기했다. 고산병으로 고생했다는 이종록 씨는 "고산병에 걸렸을 때의 기분은 전날 과음한 뒤 아침에 일어난 듯한 느낌이에요"라며 "고산병을 그냥 두면 뇌에 물이 고이는 뇌수종이나 폐수종에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지대로 내려가야 해요"라고 고생담을 늘어놓았다. 또한 건조한 고산지대의 날씨 때문에 입술이 트는 것 역시 신경 써야 한다. 장병길 씨는 "보통 산을 오르다 보면 땀이 나기 마련인데 아마다블람을 등반할 때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라며 "이런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쉽게 찢어지고 피가 나기 쉽죠"라고 설명했다.

29일간의 원정등반 동안 식량 문제와 배설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식량문제에 대해서 이종록 씨는 "버너를 들고 가기 때문에 산 위에서도 일회용 밥, 수프 등 쉽게 끓여 먹는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은 무겁기 때문에 들고 갈 수가 없다고. 이 씨는 "물은 눈을 녹여서 마셔요"라며 "눈을 녹여보니 만년설이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순백의 눈에 대한 환상이 깨져 버렸죠"라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배설문제에 대해서 장 씨는 "베이스캠프까지는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라며 "그 뒤 캠프에서부터는 딱히 화장실이 없어요"라고 쑥스러워했다.

공부와 함께 원정등반을 준비해야 했던 두 사람은 순전히 "가고 싶어서" 갔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금은 긴 원정등반 준비로 미뤄졌던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며 "기회가 된다면 북미의 최고봉 알래스카의 데날리산을 등정하는 것이 목표죠"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2012 킬리만자로 원정대**
일 시	2012년 1월 7일 ~ 2012년 1월 18일
대 상 산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5,895m)
원정대원	김정곤, 이석호, 조광제, 김성배, 김남구, 김혜경, 이용순
원정내용	지난 2010년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동아대학교 산악회가 새해 첫 등정 지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5895m)를 선택했다. 이를 위해 7일 김해공항에서 환송식을 하고 부산을 출발 케냐 나이로비를 거쳐 탄자니아에 들러 간 뒤 킬리만자로 미랑구 루트를 오를 예정이다. 본격적인 등반은 9일부터 이루어지며 등반 예정이었다. 1월 9일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저 멀리 킬리만자로가 보인다 '적도의 기적' 킬리만자로. 정상 부근에 만년설이 선명하게 보인다. 'KILLIMANJARO NATUONAL PARK'라고 적힌 큰 철문을 통과하여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였다. 산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흔적을 꼭 남기기 위해 산장 방명록에 기록하고 출발하였다. 이렇게 한 후 산에 올라야 산에 올랐다는 증거가 남고 등정 certification이 발급된다고 한다. 첫 번째 산장 도착 고도 2,700m 1월 10일 만다라 일출을 보고 사진 촬영을 한 후 출발 런치 포인트 도착하여 점심 식사 함. 고도 3,370m 고도가 3,000m를 넘어서면서 나무들의 키가 작아졌다. 호롬보 산장 도착. 고도 3,780m 1월 11일 산장에서 가만히 휴식을 위하는 것보다 짧은 산행으로 고소적응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2~3시간 산행을 함. horombo hut에 올라가면 마웬지봉으로 가는 길과 kibo hut가는 길로 나누어지는데 마웬지봉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여 오르기 시작. 최종 목적지 zebra rock 도착하여 사진 촬영 후 하산 후 호롬보 산장 도착 1월 12일 산장 출발하여 kibo hut를 도착하여 어김없이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휴식 1월 13일 키보산장 출발하여 Gilman's point를 지나 눈을 밟으며 걷기를 2시간 정상에 도착했다. 앞서간 사람은 뒷사람을 기다리고 뒷사람은 앞서간 사람을 쫓아가며 다 함께 정상에 도착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미치도록 차가운 새벽공기를 이겨냈고, 터질듯한 심장 박동을 참아냈다. 온몸의 에너지는 남김없이 소멸되어 제 몸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을 이겨냈다. 우리가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정상에 선 것이다"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2014 6대륙 최고봉 원정 제4차 아콩카구아 원정대
일 시	2013년 12월 26일 ~ 2014년 1월 19일(25일간)
대 상 산	남미 최고봉 Mt. Aconcaqua (6962m), 북면 루트
원정대원	김남구, 김나원, 조형석, 유창윤, 윤중수, 김인숙
원정내용	12월 26일 인천을 거쳐 밴쿠버, 토론토 도착 12월 27일 산티아고에서 멘도사 도착 12월 28일 잉카 익스캐디션 방문하여 환전하고 등반허가서 발급, 카고 패킹하여 짐을 재분배 하는 등 등반을 위한 준비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냄 12월 29일 멘도사에서 콘푸렌시아 도착 12월 30일 메디칼 테스트 실시. 고소 적응 차원에서 1,000m의 고도차이가 있는 플라자 프란시아를 다녀옴. 세계 3대 거벽에 속하는 아콩카구아 남벽의 베이스 캠프이며 북벽 노말 루트를 등반하는 사람들일 남벽을 보기 위해 한 번씩 왕래하는 곳이라 한다. 12월 31일 BC(플라자 데 뮬라스)도착 1월 1일 산중휴일 1월 2일 BC – C1(캐나다캠프) – C2(니도 데 곤돌레스) 도착 1월 3일 C2 - BC 1월 4일 산중휴일 1월 5일 BC – C1(캐나다캠프) – C2(니도 데 곤돌레스) 1월 6일 C2 - C3(콜레나 캠프) 1월 7일 C3출발하여 정상 - C3 1월 8일 C3 - BC  

원정개요	부산대학교 2014 알프스 원정대
원정내용	 

원정개요	인제대학교 2014 북해도 요테이산 원정대
대 상 산	요테이산(402m)
원정대원	전재민, 김진석, 김민철
원정내용	 

원정개요	부경대학교 2014 아콩카구아 원정대 2014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C. Aconcagua Expedition
일 시	2014년1월 15일 ~ 2월 21일
대 상 산	아콩카구아(Aconcagua, 6,962m, 남위 32° 39′ 20″ 서경 70° 00′ 57″) 남아메리카대륙 최고봉(안데스 산맥) 북면 노멀루트(North Face Normal Route)
원정대원	최진호, 신창용
원정목적	1) 고산 등반 능력 배양 2) 등반을 통한 판단력과 정신력 수양 3) 등반 지식과 고산 경험 축적 4) 재학생의 해외 고산 등반시도와 사기 증진
원정내용	산악부에 들어와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산에 대해 배우며 흰 산에 대한 동경이 마음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재학생 두 명이 뜻을 모아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흰 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세찬 눈보라와 손끝 발끝에 추위로 다가왔고 산의 위대함과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정상에 오르지 못했으나 그로 인해 수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대원이 사고 없이 무사히 귀환한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며 협동하고 배려했습니다. 경험이 미약하여 하나하나 따져보고 토론하고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만하지 않아야하며 철저한 준비와 팀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또한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조언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남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재학생들의 도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준비기간에 자주 불러서 지도해주시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신 73학번 정진육 선배님, 찾아오셔서 응원과 격려해주신 89학번 박준범 선배님, 94학번 김태훈, 구동회, 홍춘표, 조정민, 이강식 선배님, 95학번 손직상 선배님, 99학번 변창우 선배님, 00학번 김태철 선배님, 05학번 이호주 선배님, 집으로 초대해주시고 참석해서 응원해주신 92학번 성낙윤 선배님, 98학번 이지연, 박진화, 정은경 선배님, 00학번 김수원, 김은주 선배님, 출국 전 서울에서 격려해주신 71학번 주학수 선배님, 76학번 김광수 선배님,

원정내용	77학번 송장복 선배님, 88학번 서대원 선배님, 92학번 박근찬 선배님, 99학번 강대희 선배님, 선녀폭에서 원정훈련을 지도해주시고 출국 전 숙식을 제공해주신 93학번 김재연 선배님, 02학번 전혜영 선배님, 이른 아침 나오셔서 노포동까지 배웅해주신 부산교대 전 상은 회장님, 격려 보내주신 한국산악회 신호진, 김규태 선배님, 부산대학교 산악부 김규태 선배님, 건강하게 돌아오라며 따뜻하게 응원해주신 서성문 형님, 아낌없는 지원해주신 사단법인 서성호기념사업회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찬 바람이 불던 아콩카구아 원정은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돌아온 한국에는 어김없이 봄이 와 새순이 돋아나고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번 원정을 계기로 재학생은 더 분발하고 더불어 선배님들과 함께 원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부경대학교 산악회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정개요	**부산교육대학교 투쿠체 원정 30주년 기념 “2015 알프스 등반대”**
일 시	부산교육대학교 2015년 8월 4일 ~ 2015년 8월 24일
대 상 산	유럽 알프스 일원 가. 이탈리아 돌로미테 치마 그란데 북벽 나. 스위스 마터호른(4477m) 회른리릉 다. 스위스 아이거(3970m) 미텔레기릉 라.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4807m) 마. 샤모니 지역 암벽, 빙벽
원정대원	신병건, 김수진, 김석수, 박종화, 서동업, 배효일, 최민수, 안소연, 김은총, 김정규, 양정환
원정목적	가. 알프스 등반을 통한 대원들의 등반 역량 및 팀웍 향상 나. 산악회 활동의 활성화 및 알피니즘의 의미 고찰 다. 유럽의 산악 문화 견학 및 탐방
원정내용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2014 년 12 월 19 일 알프스 등반 대원 모집 공고문(?)을 산악부 밴드와 카페에 올렸습니다. 4 명으로 시작한 대원이 최종 11 명이 되었습니다. 대원이 늘어날수록 주말 산행 참여 인원수도 많아졌습니다. 2015 년 1 월 동계 등반은 9 명이 참가하였고 20 여년 만에 토왕폭을 등반하기도 했습니다. 2015 년 1 학기 정기, 비정기 산행을 합쳐 25 번의 산행을 했으며 개인별로 주중에 2~3번 훈련을 하고 카페 훈련 일지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원정내용

7월 18일 여러 선후배님들과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알프스 등반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격려와 함께 많은 후원금으로 등반대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8월 4일 부산을 출발하여 인천-도쿄-비엔나-뮌헨을 거쳐 돌로미테까지 참으로 먼 여정으로 알프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팀의 1차 목표였던 돌로미테의 치마 그란데 북벽(코미치 루트)과 치마 오베스트(데무스 루트), 치마 피콜라(옐로우 엣지 루트) 등반은 무난히 성공했습니다. 치마 그란데 북벽의 경우 알프스 6대 북벽의 하나로서 등반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치마 오베스트의 경우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등반 정보가 많이 부족했지만 무리 없이 등반을 잘 마쳤고, 치마 피콜라 옐로우 엣지 루트는 벽에서 비박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2차 목표였던 아이거 미텔레기릿지, 뮌히도 성공적으로 등반을 했습니다. 미텔레기릿지는 6명이라는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정상 비박을 감행하면서 멋지게 성공하였고, 뮌히 역시 노멀루트를 통한 4,000m 급 등반이었지만 등반 루트 자체가 재미와 등반성을 두루 갖춘 곳이었습니다 . 3차 목표였던 마터호른과 브라이트호른은 날씨가 좋지 않아 결국 포기했고, 4차 목표였던 몽블랑은 5 명이 무사히 등정을 했습니다. 몽블랑 등정은 3Mont 루트로의 실패를 딛고 이룬 것이라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의 80% 이상 달성했다고 보면 아주 성공적인 원정 등반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알프스 원정 등반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정대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셨는데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신 선후배님들의 덕이 큽니다. 원정에 직접 참여해서 대원들을 늘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도해주신 김정규, 양정환 선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 등반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반대 총무로서 모든 예약과 회계 처리, 대원들의 식사까지 다 맡아주신 수진 선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싱싱한 체력으로 후배들을 이끌고,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알프스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준 우리 동기 석수도 정말 감사. 운행을 맡아서 궂은 일도 마다않고 선후배들 모두를 잘 챙겨준 종화, 세 아이의 아빠임에도 알프스 등반에 과감(?)하게 참여하여 멋진 등반을 펼친 동업, 원정 기간 내내 차분하게 기록하고 정리하며 본인 나름의 등반 스타일을 구축한 민수, 대원들에게 무한한 웃음과 집밥 못지않은 맛있는 음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효일, 원정 가기 전부터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했던, 그 덕분인지 야크처럼 알프스에서 뛰어다녔던 은총, 중국에서 오자마자 훈련에 참여하고 원정대 통역에 대원들 식사 준비에 그래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소연. 모두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원정에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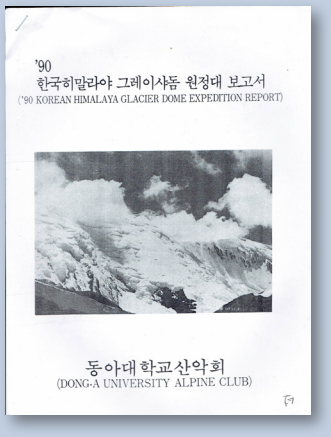
2015 년 알프스 원정 등반은 우리 부산교대산악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산악회 최초의 알프스 등반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알프스는 알피니즘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등반 대상지 또한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2차, 3차 계속해서 알프스 등반을 계획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알프스 등반을 통해서 주말 산행 및 동·하계 등반이 더욱 충실해졌고 회원들의 등반 역량도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업 및 원정대 경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컸을 재학생이 2명이나 참가하여 등반 경험을 쌓아서 우리 산악회의 앞날도 밝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정 등반대의 슬로건으로 사용했던 '팀으로 하나되고 열정으로 질주하라 '처럼 2015 알프스 등반 이후에도 질주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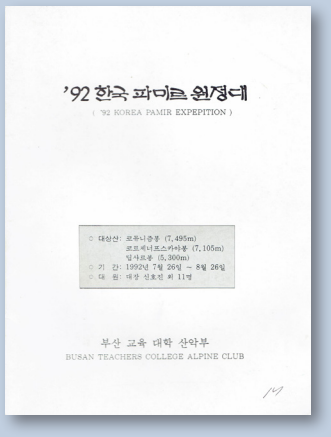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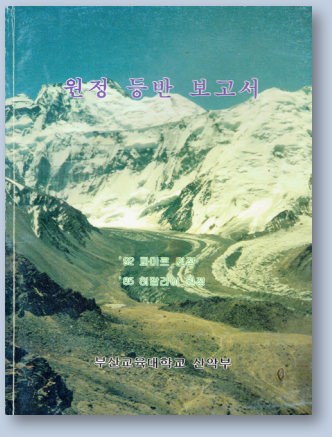
원정내용	 

원정개요	동아대학교 2016 데날리 원정대
일 시	2016년 5월 28일 ~ 2016년 6월 11일
대 상 산	북미 최고봉 Mt. Denali(6194m)
원정대원	조벽래, 정순천, 성기진, 이행순, 김태완, 진동철, 황태웅, 장재용, 맹규노
원정목적	가. 동아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나.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창립 60주년 기념 다. 동아대학교 산악회 6대륙 최고봉 등정 완성
원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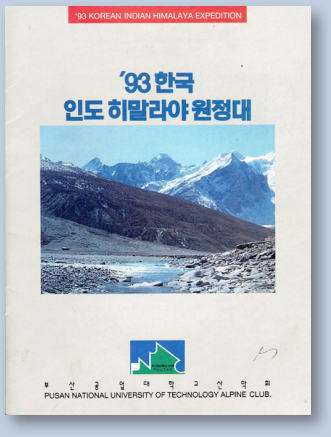
가맹 대학 해외원정 계획서 및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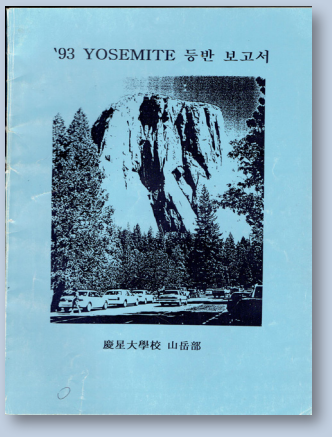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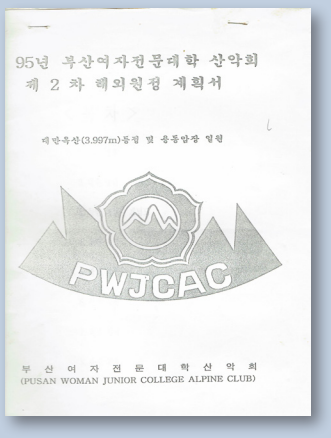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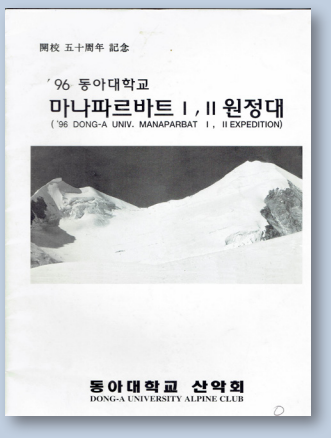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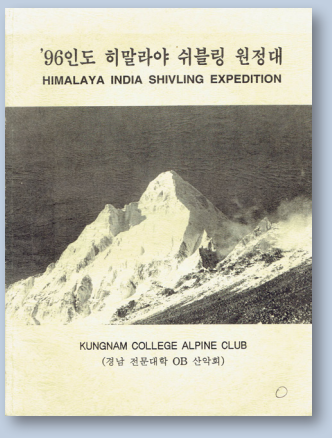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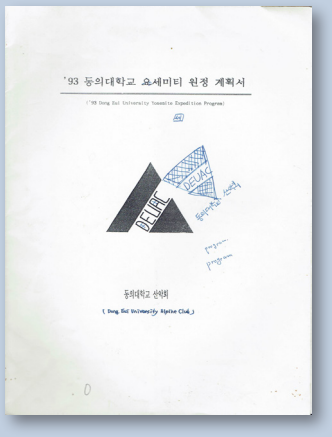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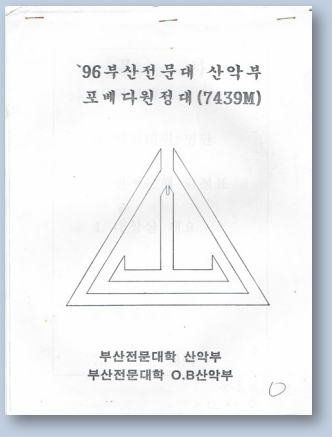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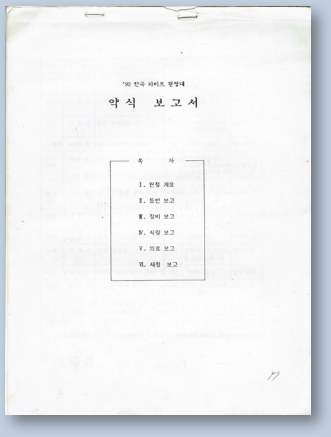
가맹 대학 해외원정 계획서 및 보고서


'93 동의대학교 요세미티 원정 계획서

동의대학교 산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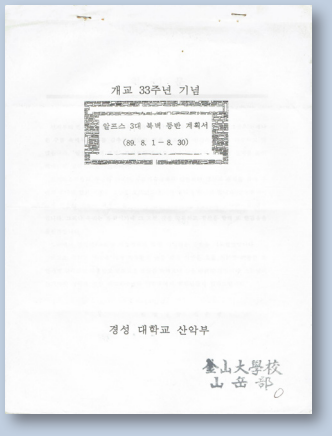

'96부산전문대 산악부
포베다원정대(7439M)

부산전문대학 산악부
부산전문대학 O.B산악부


'96 한국 히말라야 원정대
약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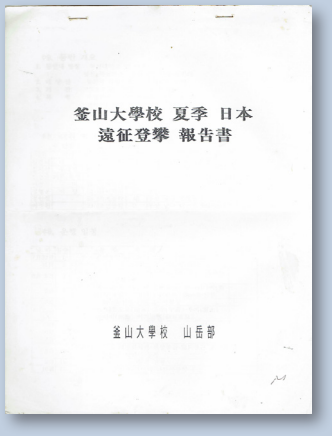
목 차

I. 원정 개요
II. 등반 보고
III. 장비 보고
IV. 식량 보고
V. 의료 보고
VI. 재정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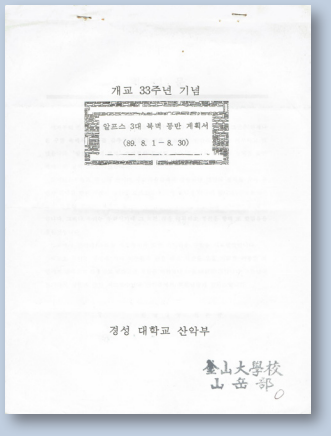

개교 33주년 기념
알프스 3대 북벽 등반 계획서
(89. 8. 1 - 8. 30)

경성 대학교 산악부

釜山大學校 山岳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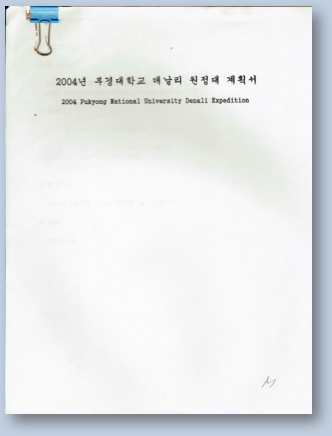

釜山大學校 夏季 日本
遠征登攀 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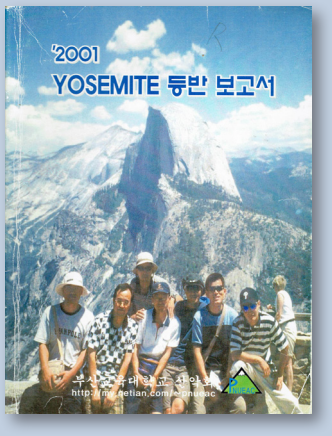
釜山大學校 山岳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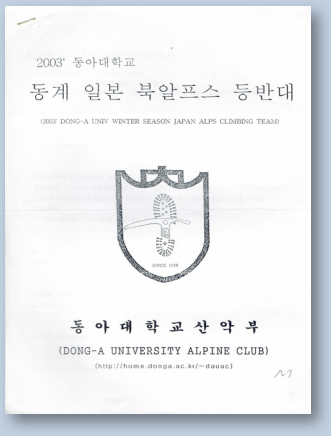

개교 33주년 기념
알프스 3대 북벽 등반 계획서
(89. 8. 1 - 8. 30)

경성 대학교 산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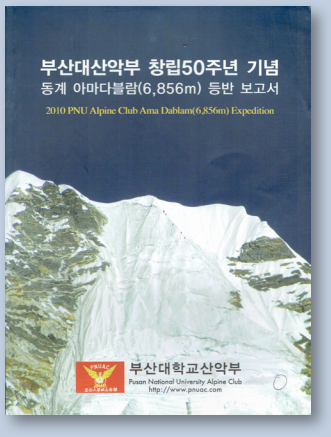
釜山大學校 山岳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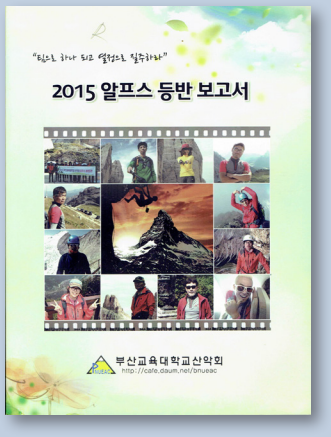

2004년 부경대학교 매날리 원정대 계획서
2004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enali Exp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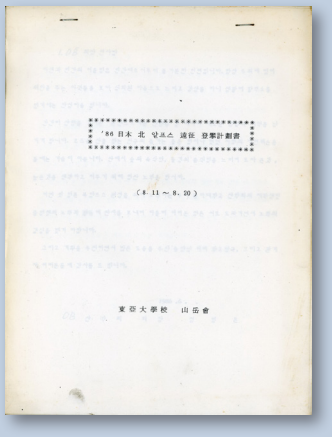

'2001
YOSEMITE 등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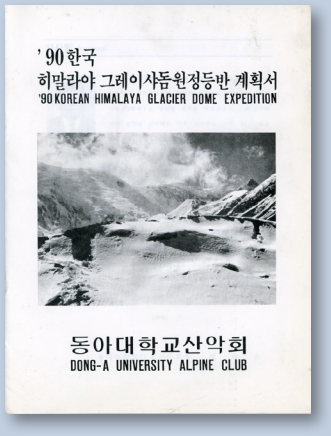

2003' 동아대학교
동계 일본 북알프스 등반대
(2003' DONG-A UNIV WINTER SEASON JAPAN ALPS CLIMBING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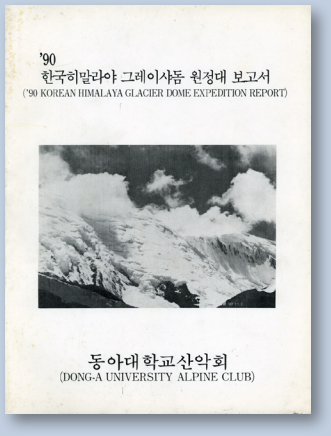
동 아 대 학 교 산 악 부
(DONG-A UNIVERSITY ALPINE CLUB)
(http://home.donga.ac.kr/~dau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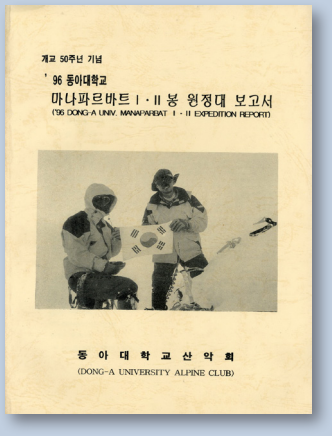

부산대산악부 창립50주년 기념
동계 아마다블람(6,856m) 등반 보고서
2010 PNU Alpine Club Ama Dablam(6,856m) Expedition
부산대학교산악부
Pusan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http://www.pnua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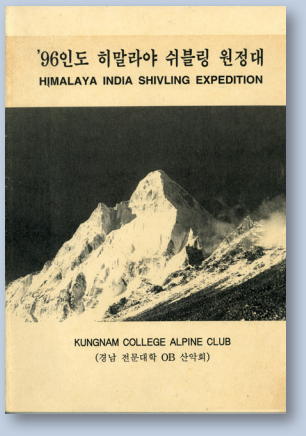

2015 알프스 등반 보고서
부산교육대학교산악회
http://cafe.daum.net/pnu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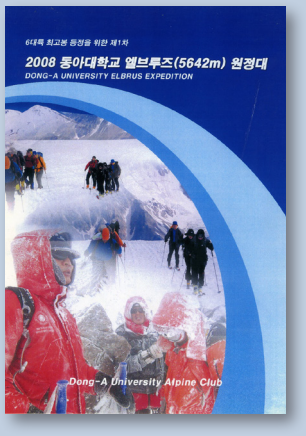

'86 日本 北 알프스 遠征 登攀計劃書
(8. 11 ~ 8. 20)
東 亞 大 學 校 山 岳 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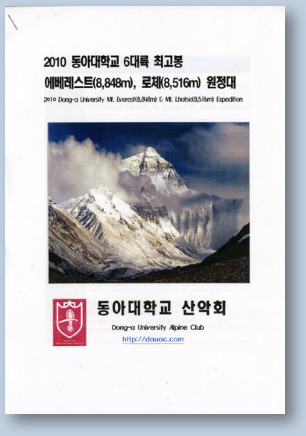

'90 한국
히말라야 그레이샤몸원정등반 계획서
'90 KOREAN HIMALAYA GLACIER DOME EXPEDITION
동아대학교산악회
DONG-A UNIVERSITY ALPINE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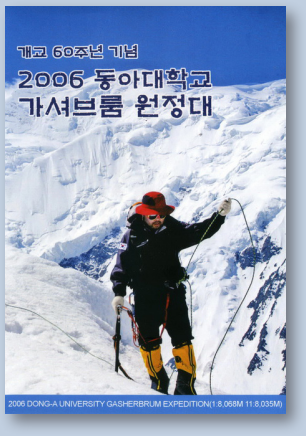

'90
한국히말라야 그레이샤몸 원정대 보고서
('90 KOREAN HIMALAYA GLACIER DOME EXPEDITION REPORT)
동아대학교산악회
(DONG-A UNIVERSITY ALPINE CLUB)


개교 50주년 기념
'96 동아대학교
마나파르바트 I · II 봉 원정대 보고서
('96 DONG-A UNIV. MANAPARBAT I · II EXPEDITION REPORT)
동 아 대 학 교 산 악 회
(DONG-A UNIVERSITY ALPINE CLUB)


'96인도 히말라야 쉬블링 원정대
HIMALAYA INDIA SHIVLING EXPEDITION
KUNGNAM COLLEGE ALPINE CLUB
(경남 전문대학 OB 산악회)


6대륙 최고봉 등정을 위한 제1차
2008 동아대학교 엘브루즈(5642m) 원정대
DONG-A UNIVERSITY ELBRUS EXPEDITION
Dong-A University Alpine Club


2010 동아대학교 6대륙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 로체(8,516m) 원정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Dong-a University Alpine Club
http://dauac.com


개교 60주년 기념
2006 동아대학교
가셔브룸 원정대
2006 DONG-A UNIVERSITY GASHERBRUM EXPEDITION(1.8.068M 11.8.035M)

제2장

부산학생산악연맹 事故死

특별기획 2



먼저 간 악우에 대한 묵념

산이 좋아서 산이 되었는지, 50년의 긴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사고가 있었고 그중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악우도 있었다. 이제 시간 속에서 잊혀져가는 일들이겠지만 연맹 50년의 事故死를 정리해보며, 먼저간 악우들을 다시 한번 추모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산을 사랑했던 마음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못다 한 꿈이지만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피어나기를 염원해 본다.



부경대학교

대 상 산 : 밀양 천황산 일원
일　　시 : 1983년 4월 9~10일(1박 2일)
사 고 자 : 故 김종필(83)

간월산을 넘기 전에 텐트를 치고 데리러 오라고 하고, 김종필 대원과 같이 조금씩 걸어갔다. 김종필 대원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쉬게하고 대장이 배낭을 2개 가지고 10~20m 정도에 배낭을 두고 다시 와서 김종필 대원을 부축해서 배낭있는 곳까지 가는 방법으로 3~4번을 하는 중에 배낭을 벗어 놓고 오니까 김종필 대원이 지정한 장소에 없어서 약 30~40분 정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배낭 있는 곳까지 와서 다른 대원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여 만일을 대비해서 제 배낭을 지고 막영지 쪽으로 가는 도중 대원들을 만나서 다시 텐트로 내려가서 개인 침낭, 우의, 비상식량, 구조장비, 텐트를 가지고 밤새 찾았으나, 악천후로 찾지 못하고 날이 밝아짐으로써 찾을 수가 있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대 상 산 : 설악산
일　　시 : 1992년 7월 14일
사 고 자 : 故 장용호(92)

설악산 하계등반 중 장군봉에서 적벽으로 이동 중 추락사

부산대학교

대 상 산 : 설악산 천화대 Ridge 상의 왕관릉, 하강지점 앞
일　　시 : 1983년 1월
사 고 자 : 故 장기섭(82)

막영터 주위는 10도 경사 이내이며 10m 정도 떨어져 눈이 쌓여 있는 나무숲 주위는 15~20도 경사이며 주위의 바위에는 눈이 얕게 깔려 있었다. 갑자기 눈이 미끌리는 소리와 '탕' 하는 소리가 들리며 이후 작은 돌이 구르는 소리와 함께 기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10m정도 내려오니 계곡으로 쓸린 자국이 있어서 주위를 뒤지며 10m 정도를 나아가니 시커먼 물체가 보여 얼른 다가가 보니 애타게도 찾던 기섭이 얼굴은 절벽에 두 발은 계곡으로 향하고 등을 땅에 뉜 채 대답없이 누워 있는 게 아닌가! 정신을 차려 기섭의 심장 박동과 호흡 맥박을 살펴보니 이미 모든 기능이 정지상태이며 가슴 부위에 약간의 온기 만이 있었다. 재빨리 옆에 무릎을 꿇고 심장 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침낭 하나에 기섭의 몸을 감싼 뒤 옆의 소나무에 확보시키고 우리도 확보를 한 뒤 대청에 뜬 무심한 달만이 허허로운 대지를 비추며 외로운 빛을 발하는 것을 공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땅에 쪼그려 앉은 채 이 밤을 지새웠다.

부경대학교

대 상 산 : 설악산 토왕성 폭포
일　　시 : 97년 1월 16일 토왕성 폭포
사 고 자 : 故 박상희(91)

박상희 대원이 선등으로 올라가고 확보는 박주현 대원이 봤다. 박주현 대원이 하단 정상에 도착한 시간이 09시였다. 생각보다 낙수가 너무 심해서 상단 등반은 초임에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09시 40분 상단 초입에 도착. 얼음이 하단과는 다르게 서로 만족할 정도였다. 휴식 후 10시에 고 박상희 대원이 출발. 상단 중간부분에 도착한 후부터는 확보 보는 박주현 대원과는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15시경 고 박상희 대원이 상단 테라스 부분에 도착해서 등반준비를 하려 했으나 정상까지 오르기로 해서 계속 확보를 봤다. 16시부터 등반 자일이 진척이 전혀 없고 큰 낙빙이 16시 40분까지 계속해서 떨어졌다. 그리고는 16시 40여 분에 1.5M 넓이의 거대한 낙빙과 함께 중단으로 추락했다.

춘해보건대학교

대 상 산 : 금정산 준행암
일　　시 : 2001년 3월28일
사 고 자 : 故 김재현(2000)



신입생 암벽훈련 하기 전 먼저 선등 연습 중 준행암 코스 중 오버로 된 곳을 올라가다 뒤로 추락하면서 당시 핼멧을 쓰고 있었지만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불의의 사고 발생. 부산대 병원으로 헬기 이송 후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투병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였다.

동명대학교

대 상 산 : 미국 데날리
사 고 자 : 故 이상명(89)

미국 데날리에서 단독등반 중 사망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대상산 : 영남알프스 얼음골 계곡
일　시 : 1993년 12월경
사고자 : 故 이상엽(92)

겨울 영남알프스 산행 중 실족사 하였다. 계곡에 있는 이상희 대원을 찾기 위해 단대 선후배들이 약 2주간의 계곡을 샅샅이 뒤져서 주검을 발견하였다. 군 휴가 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주검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었다.

부경대학교

대상산 : 에베레스트 남동릉
일　시 : 2013년 5월 21일
사고자 : 故 서성호(98)

故 서성호 대원은 김창호 대장과 함께 2013년 세계 최초로 비행기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해발 0m지점부터, 캬악, 사이클, 클라이밍으로 정상까지 오르는 무동력 등반으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후 하산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였다.

한국 에베레스트 등반 사상 처음으로 무산소 등정에 성공하였기에 동료 대원들은 산소 사용을 권유했지만 그의 의지 또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등

정 후 하산 도중 인공산소를 사용하면 무산소 등정으로 인정받지 못함).

특히 2006년 봄 시즌 북동릉 루트(중국령 티베트)를 통해 이미 한 차례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였고 그래서 그의 등반 능력을 믿었기에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더라도 회복될 것으로, 또 그의 강한 정신력을 믿었다.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의 대원으로 2006~2011년 8000미터급 12개 봉우리를 등정한 등반 능력이 뛰어난 고산 등반가였다. 김창호 대장과 2008~2011년 4년간 8000미터급 봉우리 10개를 함께 오른 환상적인 등반 파트너였으며 10개 봉우리 중 마칼루(8463m)를 제외한 9개 봉우리(로체, 마나슬루, 다울라기리1봉, 캉첸중카, 낭가파르바트, 시샤팡마, 안나푸르나1봉, 가셔브롬1봉·2봉, 초오유)를 무산소 등정한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였다.

故 서성호는 이러한 등반경력을 인정받아 2012년엔 체육발전유공자 정부포상으로 맹호장을 수훈하며 차세대 산악인으로 산악계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인재여서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였다.

현재 (사)서성호기념사업회에서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제3장

지도교수님을 회상하며

특별기획 3

恩惠에 대한 感謝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황 순 철(전 부산여자전문대학 지도교수)

참 행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험한 길도 괘이치 않고 잘 다녔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편하고 쉬운 길만 찾아다녔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우리 학교의 산악부 지도교수를 담당한 때가 '82년도였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앞산도 오르고 뒷산도 오르고, 영취산도 오르고 지리산도 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단순한 소풍이었다. 1박 2일이건 3박 4일이건 그것은 단순히 좀 멀리 간 소풍이었을 뿐이었다.

이런 내가 산악전문인을 지향하는 산악부의 지도교수는 사실 좀 망설여지는 일이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 일단은 같이 즐기자는 심정으로 지도교수를 덥석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생산악연맹이라는 조직이 있는 줄도 몰랐다. 지도교수를 맡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런 조직이 있는 줄 알게 되었고, 점차 함께 어울려 갔다. 그리고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회장도 없는 연맹, 처음에는 의아했다. 그러나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OB 선배들은 아직 사회적으로 제 위치를 굳힐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었고, 그리고 연맹활동을 지원해 줄 사람도 없는 형편이었다. 연맹 바깥에서 활동을 지원해 줄 회장을 찾아 나섰어도 다들 은근히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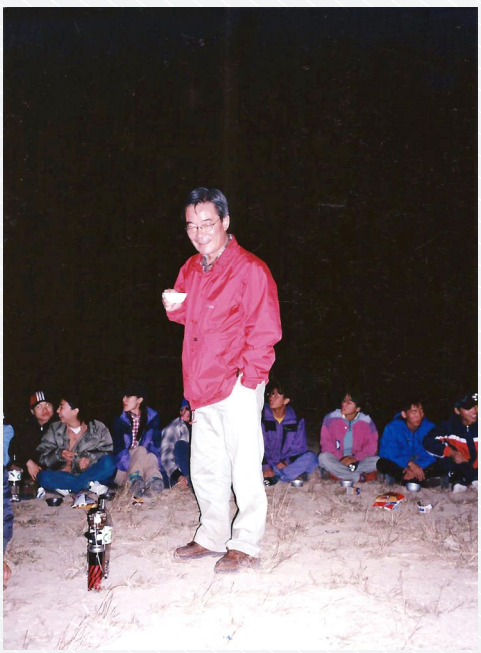
담을 느끼고 사양하였다. 연맹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부담을 느낀 것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즐기자는 심정으로 맡았던 우리 학교 지도교수에서, 연맹의 YB들과도 함께 어울리면서 으슥한 골목길 식당에서 소주도 자주 마셨고, 텐트 안에서 소주를 마시는데 번갈아 가면서 밖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 모두에게 담배를 하나씩 권하면서, 나하고 같이 있을때는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산행도 함께 즐겼다. 그때의 리더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82학번들이었다.

82학번들은 정말 대단한 YB 선배들이었다. 암벽, 빙벽, 설벽, 워킹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후배들을 가르치고, 산행에서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면서 후배들이 본받게 하였다. 설악골에 폭우가 내렸을 때, 82학번 YB 김규태의 완벽한 안전지도는 두고두고 잊혀지질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보면서 암벽, 빙벽, 설벽, 워킹 등, 등산의 많은 분야에서 나도 많이 배워나갔다.

이렇게 즐기면서 따라 다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맹회장을 맡게도 되었다. 그리고 다음 회장에는 반드시 연맹출신 회장을 모시기로 하고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연맹출신으로서 최초로 최해곤 회장님이 초대되었다. 그 이후로는 연맹회원들의 활동은 더욱 밝고 활발하게 발전하였다. 최해곤 회장님 취임 이후, 모든 연맹회원의 단합은 더욱 굳건해졌고 자존심도 더욱 꿋꿋해져 갔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위해 봉정암까지 기와를 져 나르던 일, 영영 잠든 친구를 안타까워하던 일, 히말라야에서 잠들어 돌아오지 않는 친구를 그리워하던 일... 그러면서 8천 미터 봉 몇 개를 올랐던 친구를 축하하던 일. 슬펐던 일, 즐거웠던 일, 참 많은 기억이 그대로 살아 있다. 학생연맹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안타까웠던 일, 슬펐던 일, 그리고 즐거웠던 일들은 항상 내 기억 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대청봉에서 서북주능을 뒤돌아보면, 저 느긋한 능선이 왜 그렇게 힘들었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한 걸음 한걸음 모두가 힘든 길이었다. 그러나 그 힘들었던 길을 다 지나서 돌이켜 보면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그렇지 않을까? 학생연맹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간절하다.

한국의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기백, 학생연맹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도교수는 부산학생산악연맹입니다

정 경 애(전 춘해보건대학교 지도교수)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운동이라면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산악부지도 교수라는 것은 언감생심일 것입니다. 근데 산악부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30여 년을 맡아 왔습니다. 하여 산악부 순기능은 둘째였고 학생이라는 순기능만 강조한 지도교수였습니다.

학생들과 산행을 하지 않았으니 지도교수의 역할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교수를 장기집권한 그 대담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고 생각 해 봅니다. 그것은 장담하건대 '부산학생산악연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은 OB와 YB가 함께하는 산악단체로 춘해보건대 학생뿐 아니라 부산의 대학산악부 학생 모두를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 산악전문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떠나 OB는 YB의 든든한 선배였고 YB는 OB의 대를 이을 착실한 후배였습니다. 이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교수는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지면을 빌어 춘해보건대학교 산악부 지도교수 자리를 오랫동안 대신해 주신 부산학생산악연맹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역사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 50세를 공자는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즉 세상의 근본 이치를 깨닫는 나이라는 말이지요.

조직의 50년은 세상의 근본 이치를 하나하나 새겨 후배들에게 이음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은 50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선후배 간의 상승작용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산악인으로서의 변모가 변화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장

부산학생산악연맹의 방향을 묻다

특별기획 4

산악부 활동기간에 따른 산행행동에 관한 연구 및
연맹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부산학생산악연맹이 1968년 연맹활동을 시작하여 2017년 현재 17개 단대로 50여 년간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이 50주년을 맞이하여 산악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학생산악연맹 활동을 한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직의 몰입, 산에 대한 태도 및 산에서의 행동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추구하는 웰빙이 국민의 새로운 삶의 형태로 확산되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위한 여가 스포츠의 활동인구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장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의 여가·관광 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근로시간의 단축 및 토요 휴무제 등 제도적으로 확대된 자유시간 덕분에 여가·관광 활동을 즐길 기회도 많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양적인 증가와 함께 여가의 패턴 또한 더욱 다원화·복합화 될 것이다.(이진형, 2005)

자연스포츠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활성화된 종목은 등산이라 할 수 있다. 등산 활동은 참여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수행되며 참여 동기 또한 다양하다. 스포츠 활동의 참여 동기는 신체적 건강함을 추구할 뿐 아니라 성취감, 즐거움,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심리적 안정을 추구(김종순, 2010)하는데 있으며,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생활에서 쌓인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분출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켜 밝은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은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극기력을 기르며, 점점 개인화의 추세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협동정신 등을 함양시킴으로써 사회적 자기실현이 가능한 인간교육의 역할을 한다.(신원섭, 김태운, 1998)

산악인의 등산 참여경험에 따라 여가 정체성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따라서 개인은 여가활동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아울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웰빙 지각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김종순, 원형중, 2014). 등산을 통해 얻은 경험이 개인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면 그 사람은 등산에 대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등산 경험을 통해 등산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불만족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학생산악연맹 조직문화를 한 번 뒤돌아보고, 학생산악연맹의 내제적인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좀 더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생산악연맹 악우들의 산악부에 대한 태도, 몰입, 친환경적인 행동 등을 통해 앞으로 부산학생산악연맹 활동을 개선해나가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부산학생산악연맹 악우들의 일반적 특성 및 산에 관한 특성을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 및 산에 관한 특성에 따른 등산 몰입, 등산생각 및 친환경 행동에 관해 파악한다.
3) 부산학생산악연맹에 대한 연맹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조직의 활성화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산악인의 등산몰입, 등산생각 및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3월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지역에서 등산 활동에 참

여 중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200명으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29명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10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총 161명의 자료가 연구목적에 따라 통계 처리되었다.

3. 측정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모든 문항과 변인들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1) 등산 몰입

여가몰입은 정용각(1997)이 수정 개발한 척도를 근간으로 한 김홍재(2012)와 이동준 및 황지현(2014)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인 5점 척도로 총 8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는 인지적 몰입과 행위적 몰입으로 구성되었다.

2) 친환경 행동

태도는 어떤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에 관한 결정과 관련된다. 환경보존과 관련 있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태도를 환경태도라 정의할 수 있다(김종순, 2010). 본 연구에서는 김종순(2010)이 개발한 도구로 15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환경 행동을 많이 한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부산, 경남, 전남, 전북지역에서 대학산악부 활동을 실시한 사람들에게 연구목적 및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각 설문 문항이 가지는 의미와 내용에 대해 이해시키며 작성법을 시범 보이고 설문지 배포 및 회수에 대한 협조문과 함께 설문지 216부를 배부하였으며, 연구의 설명문에

는 목적, 절차, 자료수집과정 참여 동의 및 철회결정, 연구 참여의 비밀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문에 동의한 19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회수율은 88.4%였으며, 이 중 결측 문항이 많은 2부를 제외한 189부만을 분석하였다. 이는 예측변수들의 정보역량 변인의 예측력을 기준으로 G power프로그램을 실시 한 결과, 중간 effect size를 기준으로 하여 R2=.15, 유의수준=.05, u=4(통제변수 2개, 예측변수 2개)로 하였을 때 129명 일 때 power=.95로 나타나 제2종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05로 본 연구에서 포함된 191대상자수는 구조방정식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양측검정 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특성에 따른 산악부 정서적관여, 등산몰입, 등산에대한 생각, 친환경 행동 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2) 정서적 관여, 등산몰입, 등산에 대한 생각, 친환경 행동 각 영역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정서적 관여, 등산몰입, 등산에 대한 생각, 친환경 행동에 관한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등산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08명으로 67.1%, 여자 53명 32.9%였으며, 직업은 109명 67.7%가 있으며, 기혼자가 95명 59.0%이다.

표 1. 일반적 특성 N=161

내 용		N	(%)
성별	남	108	67.1
	여	53	32.9
연령	(18세~72세)	38.31±18.84	
혼인	미혼	62	38.5
	기혼	95	59.0
혼인	기타	4	2.5
직업	있음	109	67.7
	없음	52	32.3
동호회 활동	예	86	53.4
	아니오	74	46.6
기술수준	스킨스쿠버	5	3.6
	스키	10	6.2
	자전거	19	11.8
	트레킹	10	6.2
	골프	23	14.3
	기타	37	23.0
	초보자	21	13.0
	중급자	52	32.3
	상급자	10	6.2
	전문가	2	1.2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스킨스쿠버	16	9.9
	스키	6	3.7
	자전거	14	8.7
	트레킹	14	8.7
	골프	4	2.5
	생각없음	8	5.0
	기타	9	5.6

산악부 가입연도는 80, 90년대 학번이 가장 많았으며, 활동기간은 평균 12.3년 정도 되었으며, 지금도 1년에 15회 정도는 등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부가입은 모든 사람이 잘 한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동료 및 지인의 정, 재미있고 보람되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어, 사회적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산악부 관련 내용 N=161

내 용		N	(%)
산악부입회동기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76	47.2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2	19.9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분을 유지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33	20.5

내 용		N	(%)
산악부입회동기	개성 있어 보이고 멋있어서	21	13.0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17	10.6
	특별히 가입할 곳이 없어서	3	1.9
	기타 :	7	4.3
산악부가입결과	잘한 일	161	100
	잘못한 일	0	
잘한이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어	49	30.4
	등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알게 되어	36	22.4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됨	40	24.8
	동료 및 지인의 정	80	49.7
	학교생활에 도움이 됨	4	2.5
	취업에 도움이 됨	7	4.3
	재미있고 보람되어	50	31.1
	기타 :	3	1.9
산악부가입년도	60년대	4	2.5
	70년대	7	4.3
	80년대	41	25.2
	90년대	44	27.0
	2000년대	17	9.8
	2010년대	48	29.4
활동기간	(0~58년)	12.29±13.54	
등반횟수	(0~190회/년)	15.35±24.96	
현재 학생산악연맹 활동에 점수(0~100점)		66.42±19.64	
본인의 학생산악연맹 활동에 점수(0~100점)		46.04±29.94	
연맹 기여도	매우크다	3	1.9
	크다	17	10.6
	보통이다	58	36.0
	낮다	38	23.6
	매우낮다	45	28.0
앞으로 기여정도	적극 참여	31	19.3
	적당히 참여	25	15.5
	상황 가능할 때 참여	86	53.4
	특정한 행사에 참여	12	7.5
	참여의사 없음	7	4.3
기여도에 미치는 요소	직장	8	5.0
	가족	14	8.7
	나의의지	62	38.5
	경제적 여유	16	9.9
	시간적 영유	48	29.8
	체력 및 건강	11	6.8
	기타	2	1.2
학생산악연맹의 변화	지금보다 훨씬 발전	11	6.8
	지금보다 발전	66	41.0
	지금처럼	29	18.0
학생산악연맹의 변화	약간퇴보	27	16.8
	훨씬 퇴보	2	1.2
	잘 모르겠다	26	16.1

2. 정서적 관여, 등산몰입, 등산생각, 친환경 행동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한 정서적 관여, 등산몰입, 등산생각, 친환경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당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친환경적 행동 3.30±0.53, 등산생각 2.96±0.39, 등산몰입2.86±0.20, 정서적 관여 2.85±0.6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정서적 관여, 등산몰입, 등산생각, 친환경 행동

문항	내 용	문항 당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1	정서적 관여(20)	2.85±0.63	14.25±2.63
2	등산 몰입(32)	2.86±0.20	22.90±4.20
3	등산 생각(68)	2.96±0.39	50.40±7.39
4	친환경적 행동(60)	3.30±0.53	49.51±5.53

3. 일반적 특성과 정서적관여, 등산몰입, 등산생각, 친환경 행동에 관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산악부 몰입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232, p=.001). 연령이 높을수록 산에 대한 정서적 관여도가 높았으며(t=-2.091, p=.038), 활동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정서적 관여(t=-3.432, p=.001)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등반횟수가 25회이상/년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산에 대한 몰입점수(t=-2.241, p=.026)가 높았다. 본인의 학생산악연맹 활동에 대한 점수가 50점 이상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산악부몰입(t=-4.460, p=<.001)과 산에 대한 생각(t=-3.157, p=.002)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산악연맹 기여도가 높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서적관여(t=-5.268, p=.006), 산악부몰입(t=12.947, p=<.001), 산에 대한 생각(t=15.66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관여, 등산몰입, 등산생각, 친환경 행동에 관한 결과

내 용		정서적 관여		산악부 몰입		산에 대한 생각		산에서의 행동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성별	남	14.73±2.73	3.387/.001	23.63±4.26	3.232/.001	51.15±7.65	1.899/.059	49.43±5.50	−0.272/.786
	여	13.28±2.12		21.42±3.69		48.83±6.63		49.68±5.64	
혼인	미혼	14.16±2.89	−0.527/.599	23.58±4.18	1.617/.108	51.08±7.94	0.816/.416	49.79±5.79	0.257/.797
	기혼	14.39±2.48		22.46±4.26		50.08±7.16		49.56±5.36	
직업	있음	14.50±2.69	1.69/.093	22.87±4.38	−0.127/.899	50.59±7.58	0.450/.639	49.61±5.62	0.813/.750
	없음	13.75±2.44		22.96±3.84		50.00±7.03		49.31±5.39	
연령	39세이하	13.81±2.47	−2.091/.038	23.23±3.79	0.962/.337	50.40±7.09	0.008/.993	49.57±5.18	0.136/.892
	40세이상	14.67±2.72		22.60±4.55		50.39±7.70		49.45±5.86	
활동기간	9년이하	13.63±2.47	−3.432/.001	22.37±4.14	−1.78/.077	49.40±6.87	−1.950/.053	49.67±5.39	0.321/.748
	10년이상	15.01±2.63		23.55±4.24		51.66±7.83		49.39±5.71	
등반횟수	24회	14.11±2.56	−1.416/.159	22.55±4.29	−2.241/.026	49.96±7.56	−1.569/.119	49.35±5.46	−0.757/.450
	25회	14.87±2.87		24.43±3.42		52.30±6.36		50.20±5.86	
현재 학생산악연맹 활동에 점수	49점이하	13.85±2.37	−.735/.464	21.45±4.12	−1.718/.088	47.65±9.12	−1.819/.071	48.20±5.34	−1.163/.247
	50점이상	14.31±2.68		23.16±4.16		50.84±7.06		49.74±5.55	
본인의 학생산악연맹 활동에 점수	49점이하	13.88±2.37	−1.661/.099	21.40±3.72	−4.460/.000	48.46±6.79	−3.157/.002	49.32±5.57	−0.464/.644
	50점이상	13.57±2.81		24.20±4.14		52.07±7.51		49.73±5.52	
기여도	높음	15.40±2.998	5.268/.006	25.60±4.67	12.947/.000	54.25±8.06	15.667/.000	49.70±5.90	1.877/.156
	보통	14.72±2.961		24.00±4.08		53.21±7.76		50.55±5.55	
	낮음	13.65±2.121		21.45±3.60		47.51±5.67		48.73±5.36	

4. 학생산악연맹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항목

학생산악연맹의 장점으로는 선후배 간의 정, 학생산악연맹의 OB활동의 문제점으로는 OB관심부족, 학생산악연맹의 YB활동의 문제점으로는 공부와 취업, 학생산악연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

문항	내 용	1순위	2순위	3순위
1	학생산악연맹의 장점	선후배간의 정	산악인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심	부산시내 17개 단대 연합동아리
2	학생산악연맹의 OB 활동의 문제점	OB관심부족	정기적인 참석부족	시대흐름에 대한 개선부족
3	학생산악연맹의 YB 활동의 문제점	공부와 취업	힘든 일 기피하는 사회적 추세	현실에 맞지 않는 체계
4	학생산악연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	연맹의 보다 폭넓은 친교와 나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

5. 학생산악연맹 발전 및 개선을 위하여 바라는 점

학생산악연맹 발전 및 개선을 위하여 바라는 점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많이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수별 운영 및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회원의 대부분이 가족이 생기므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산악부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추세를 반영한 이미지 개선 등의 내용을 가장 많이 응답해 주었다.

내 용
• 기수별 운영 및 소규모 모임 활성화
• OB회장의 적극적인 리더쉽 및 단대회장들과의 정기적인 유대관계
• 산악부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요즘 추세의 변화가 필요
• YB,OB 합동 연맹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 연맹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
• 관행을 버리고 창의적인 모임으로의 변화
• 기술등반의 숙련화 및 전문성을 중시한 인재를 양성
• 신입 모집 때 일정기간 단대 ob와 협력하여 관리
• 다양한 산행계획과 프로그램(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 단대의 활성화가 곧 연맹활성화

Ⅳ 결론

본 연구는 급변하는 조직문화에서 산악부의 조직문화를 한 번 뒤돌아보고 산악부의 내제적인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좀 더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며,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산악회외 다른 동호회 활동을 53.4%에서 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80, 90년대 학번이 가장 많았으며, 활동기간은 평균 12.3년 정도 되었으며, 지금도 1년에 15회 정도는 등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80년대 학번들이 지금까지 연맹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악부가입은 모든 사람이 잘 한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동료 및 지인의 정, 재미있고 보람되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어, 사회적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악부 가입은 인생에서 가장 활동적인 대학생활 동안 가장 의미 있는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에 대한 정서적 관여는 남성이 활동기간이 10년 이상인 그룹이 부산학생산악연맹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높았으며, 산악부 몰입은 남성이 등산 횟수가 년 25회 이상인 그룹이, 본인의 학생산악연맹 활동에 점수가 높은 그룹과, 부산학생산악연맹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몰입도가 높았다. 산에 대한 생각은 학생산악연맹 활동에 점수가 높은 그룹과, 부산학생산악연맹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높았다.

학생산악연맹의 장점으로는 선후배 간의 정과 같은 인간관계에 우선을 두었으며, 학생산악연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 학생산악연맹 발전 및 개선을 위하여 바라는 점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많이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수별 운영 및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회원의 대부분이 가족이 생기므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산악부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추세를 반영한 이미지 개선 등의 내용을 가장 많이 응답해 주었다.

그러므로 부산학생산악연맹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이 생기므로 가족들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을 개발하여 선후배간의 정을 고려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Ⅴ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부산학생산악연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악부 가입은 모든 사람이 잘 한 것으로 대답하였으므로 산악부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자부심과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졸업 후 산악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에 사람들이 부산학생산악연맹에 상황이 가능할 때 참여할 의사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연맹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상황이 가능할 때 자연스럽게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산악연맹의 장점으로는 선후배 간의 정을 꼽았다. 그러므로 산후배간에 정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수별 운영과 같은 소규모 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학생산악연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1순위로 선정하였으므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종순(2010) 등산경험과 친환경행동을 통해본 한국적 등산의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종순 원형중(2014) 등산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장소애착 그리고 친환경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3(5), 365-379.

신원섭 김태운(1998) 월악산 국립공원 이용객의 자연에 대한 심리태도 수준이 공원관리인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 2(1), 65-78.

이진형(2005) 레크레이션 전문화연구: 미국의 연국동향과 국내방향,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 28, 67~78.

부록. 활성화방안을 위한 설문참여자 한마디

- **연맹 동기모임** 활성화, 각 단대에 만연한 냉소주의, 배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맹회장과 **OB회장의 적극적인 리더쉽**이 필요. 단대모임이 활성화된 곳은 연맹활동도 더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선배님들의 배타주의가 아직도 80년대 후배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70년대 학번 선배님들이 기여도만큼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후배들을 대하고, 단대별 자생이 어려운 후배들이 마음 편하게 연맹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합니다. 뒤돌아서서 서로 욕하는 관행도 과감히 벗어버리든 아니면 침묵을 하든지. 기본적인 예의를 가져야 후배들도 진정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연맹 선후배 간 교류를 펼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지금은 뭐가필요하고 절실한지 잘 모르겠으나 다시 산을 탈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 적극적인 홍보
- **산악부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요즘 추세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웹 또는 모바일 커뮤니티 형성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0대인 저도 어떤 글 적으려면 선배들 눈치 보이는데 YB가 맘 편히 일상을 공유하고 번개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 **연맹에서 합동으로 YB,OB 암벽등반이나 등산... 자주 했으면 합니다.**
- 활동을 안 해서 연맹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50년사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기수별 운영 및 소규모모임**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 정기적 산행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 기수, 서열 파괴
-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우리는 산악인을 꿈꾼다
- 다양성을 인정하고 단대의 입장만 내세우지 않는....
- 관행을 버리고 창의적인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연맹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연맹하면 생각나는 것이 힘들다,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대만 중요하다 등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쪽에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연맹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연맹 YB 회장을 할 사람이 없고 그럴 역량을 가진 사람이 더더욱 매년 사라지고 있다.
- 활동에 대한 홍보 OB, YB 유대관계를 위한 노력
- OB회원의 권위의식이 아직 남아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갈망이 없는 듯 참여도가 떨어짐
- **선 후배간의 정기적인 모임**이나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각 단대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 학생산악연맹활동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해 잘 알지 못함. 또한 우리 단대의 활동이 거의 없고, 아는 선후배가 없어 가기가 꺼려지고, 참가하려 해도 명분도 없고, 먹고 사느라 바쁘다 보니 옛날처럼 산에 대한 열정도 많이 없어짐.
- 회원범위 및 기준 정리, 발전추구에 대한 공감 분위기 조성





- **동기모임/활성화**
- **상호연계 활동, 기술등반의 숙련화**
- **대학산악부답게 전문성을 중시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요즘 젊은 세대들의 여가 활동생활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그에 맞는 **맞춤식 산악 활동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요즘 젊은 세대들의 여가 활동 생활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만큼 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입 모집 일정기간 단대 OB와 협력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역할분담을 강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뀔 필요성과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연맹간에 의사소통**이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 **기술등반**에 관해 더 알고 싶습니다.
- OB들의 활동을 위해 다양한 산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B 들처럼 산행하기 힘든 점, 아이들을 데리고 산행에 참여 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행을 계획, 다양한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 현실에 맞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
- 선후배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 대학 산악부인 것만큼 전문성을 중심을 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연맹의 임원진은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 **단대의 활성화가 곧 연맹활성화**의 기초, 연맹집행부의 역할분담 강화, 재학생 없는 단대를 아주 힘들겠지만 연맹 차원에서 많은 인적자원요망(특히 신입생모집부터 일정 기간까지 단대 OB와 협력하여 관리 필요), 대학산악부답게 전문성을 중시한 폭넓은 인재 양성, 연맹회장과 단대 OB회장과의 정기적인 유대관계 필요, 연맹의 미래 비전은 깨어있는 연맹인 모두의 움직이는 단합된 힘
- 원로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친목 모임을 꾸준히 유대 하시기 바랍니다.
- **연맹회장과 단대 OB 회장사이의 정기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다양한 산행계획과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통적인 관념이나 체제를 현실에 맞게 바꿔서 선후배 간에 서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학생산악연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OB, YB 모두 단합되어 연맹의 미래에 이바지하면 좋겠습니다.
- **OB, YB의 단합이 될 수 있는 행사** 필요
- 단체를 주도하는 OB 회원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단체의 미래인 YB 회원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순기능을 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 OB와YB의 협력
- 젊은 세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요즘 세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OB회원들의 활동을 위해 더 나은 계획이 필요하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전통적인 관념이나 체제를 현 세대에 맞게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 등반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OB회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 전통적인 관념이나 가치를 현재에 맞춰(적당히) 선후배 간에 격차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 YB일 때처럼 산행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OB들의 활동을 위해 산행계획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행과 행사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OB회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연맹집행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전문산악인 양성에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단대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큰 변화보다는 조금씩 **선후배 간 소통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 연맹인 모두 단합이 될 수 있는 행사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5년 연맹합동 동계(설악산)



제5장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특별기획 5

- 50년사(年史) 자료 모으기 운동
- 창립 50주년 기념산행 및 영호남 합동산행
- 창립 50주년 재경 합동산행
- 창립 50주년 학술 세미나




B.S.A.A
Since1968 !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 재경합동기념산행
일시 : 2017년 11월 18일 장소 :서울 인왕산 일원 주관 :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사업회


Since 1968 ! 부산학생산악연맹


Since 1968 !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 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산악인 남선우 초청강연회 / 토론회]
DIT

부산학생산악연맹인들과 함께 만드는 50년사(50年史) 자료 모으기 운동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역사자료를 수집합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 위원회에서는 연맹의 50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억은 기록되어야 역사가 되고, 하나의 새로운 산악문화가 됩니다. 50년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연맹인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연맹인의 기억을 들려주세요. 연맹 역사의 한사람인 여러분의 한 걸음이 잠든 역사를 깨우는 큰 울림이 됩니다. 이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 역사의 스토리, 제보, 유물 등 모든 부산학생산악연맹 역사의 한순간을 기다립니다.

▶ **수집기간** : 2017년 5월 31일까지.
▶ **수집대상** : 연맹과 관련된 문헌, 사진, 고지도, 기념품, 출판물, 개인기록, 구술자료 등.(수집한 자료는 다시 돌려 드립니다)
▶ **자료제공자 예우** : 제공자이름 기재, 기념품, 파일자료 등 증정.
▶ **문 의 처** :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위원회
진행위원장 : 정 민규 010-6768-8340
간 사 : 하 태웅 010-9637-8848

▶ 50년사 편집위원명단

50년사 추진위원장	이 창호 회장
발 간 위 원 장	정 민규 고문
발 간 위 원	정진열(경남정보대), 박종대(경성대), 신병건(부산교대) 정순천(동아대), 이광희(동의대), 박명오(동의과학대) 문재원(동주대), 정진육(부경대), 홍종표(부산과기대) 하정호(부산대), 최윤선(부산여대), 한강수(부산외대) 김민걸(인제대), 이상주(춘해보건대), 신기석(해양대)
편 집 위 원 장	정 금이
편 집 위 원	조광제(동아대), 박민호(경남정보대), 신기석(해양대) 하태웅(인제대), 한강수(부산외대), 정영훈(부산대) 박준범(부경대), 배효일(부산교대), 김재형(부산과기대) 김난희(경남정보대), 황원정(동의대)

BSAA 부산학생산악연맹
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
http://www.bsaa.kr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 기념 산행 및 영호남 합동산행



영호남 학생산악연맹은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해마다 지역을 순회하며 합동산행을 실시해 오고 있다.

1. 일시 : 2017년 5월 14일(토요일)
2. 장소 : 부산 금정산 일원
3. 참석 : 부산학생산악연맹 악우,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회장 김태효), 전남광주학생산악연맹(회장 류재강)
4. 일정 : 금정산 산행은 범어사 입구에서 기념촬영 후 출발해 금샘과 고당봉 정상을 오르고 북문을 지나 동문으로 해서 산성마을의 '오마이 랜드'에 집결하여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시 간	운행구간
10:00~12:00	범어사매표소-범어사-북문-금정산-고당봉
12:10~12:30	고당봉-북문
12:30~12:30	점심식사
13:30~14:30	북문산장-무명암-동문-산성마을-오마이랜드
14:30~15:00	기수별 집결 및 행사준비
15:00~16:00	행사
16:00~16:20	설문조사
16:20~16:30	폐회 및 뒷정리


Since 1968 ! 부산학생산악연맹
S.A.A 창립 50 주년 기념산행 / 영호남 합동산행


Since 1968 !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 주년 기념산행 / 영호남 합동산행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 재경 합동산행

부산학생산악연맹이 어느덧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를 축하·기념하면서 재경 연맹 회원 간의 친목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재경 부산학생산악연맹 산행을 실시하였다.

대 상 산 : 인왕산(338m)(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대　　장 : 심진용(부산대87)
날　　짜 : 2017년 11월 18일(토)
참석인원 : 김영선(부산여대 현 신라대78), 박문옥(부산대68), 정상태(부산대68), 이승렬(부산대74), 노은두(부산대79), 심진용(부산대87), 고은빈(부산대2006), 허문철(부산대2009), 김민성(부산대2009), 배한일(부경대78),안광수(부경대78), 남현욱(부경대78), 박용길(부경대78), 정승오(한국해양대79), 최민수(한국해양대2010),정민규(동아대75), 박광효(동아대78), 최태동(동아대82), 조광제(동아대82, 부산팀 준비위원장), 김정곤(동아대82), 이용수(동아대84), 김태웅(동아대92), 김나원(동아대09), 전병화(부산과기대88), 백석인(부산과기대81), 홍종표(부산과기대82), 정금이(춘해보건대81), 이재훈(부경대 2012 재학생대표)
코　　스 : 경복궁역 3번출구 출발(10:10) → 버스이동 → 부암동뒷능선 초입(10:40) → 기차바위 → 인왕산정상 → 사직공원(13:30) → 체부동잔치집(13:40)

이날 처음으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된 산행으로 부산과 재경악우들의 역전의 용사들이 반가운 만남으로 시작하여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윤동주 문학관에서 바람과 시인을 잠시 감상한 후 쌀쌀한 날씨를 맞이하면서 산행을 시작하였다. 예정된 운행코스대로 부암동 주민센터를 지나 기차바위, 치마바위를 지나 인왕산 정상에 도착하였다. 당연히 단체사진을 위해 준비한 현수막을 중심으로 촬영한 후 선바위. 인왕사 코스로 하산하여 뒤풀이 장소로 집결하였다. 재경팀에서 미리 장소를 예약하여서 편하고도 정말 가슴이 뭉클한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먼저 부산대 박문옥선배님의 말씀과 건배사로 시작하여 모든 참여 회원들이 건배사와 악우의 정을 느끼는 한말씀은 산행에 참여한 모든 마음을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게 하였으며 그냥 연맹이라는 끈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특히 파빌봉 등정하신 부산대 이승렬 선배님의 환영사, 정민규 선배님의 50주년행사 추진위원장의 협조사는 여전히 연맹인으로서 정 그 자체였다.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였음을 앞으로도 하나로 나아갈 것이라는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되었으며 발전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BSAA
Since1968 !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 재경합동기념산행
일시 : 2017년 11월 18일 장소 :서울 인왕산 일원 주관 :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사업회

모시는 글

존경하는 여러 선후배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만남의 정을 확인하고,
뜻 깊은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 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산악인 남선우 초청강연회
O.B/Y.B 토론회]

토론주제 : 연맹의 발전적 변화, 활성화방안

1. 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18:00 ~
2. 장소 : 동의과학대학교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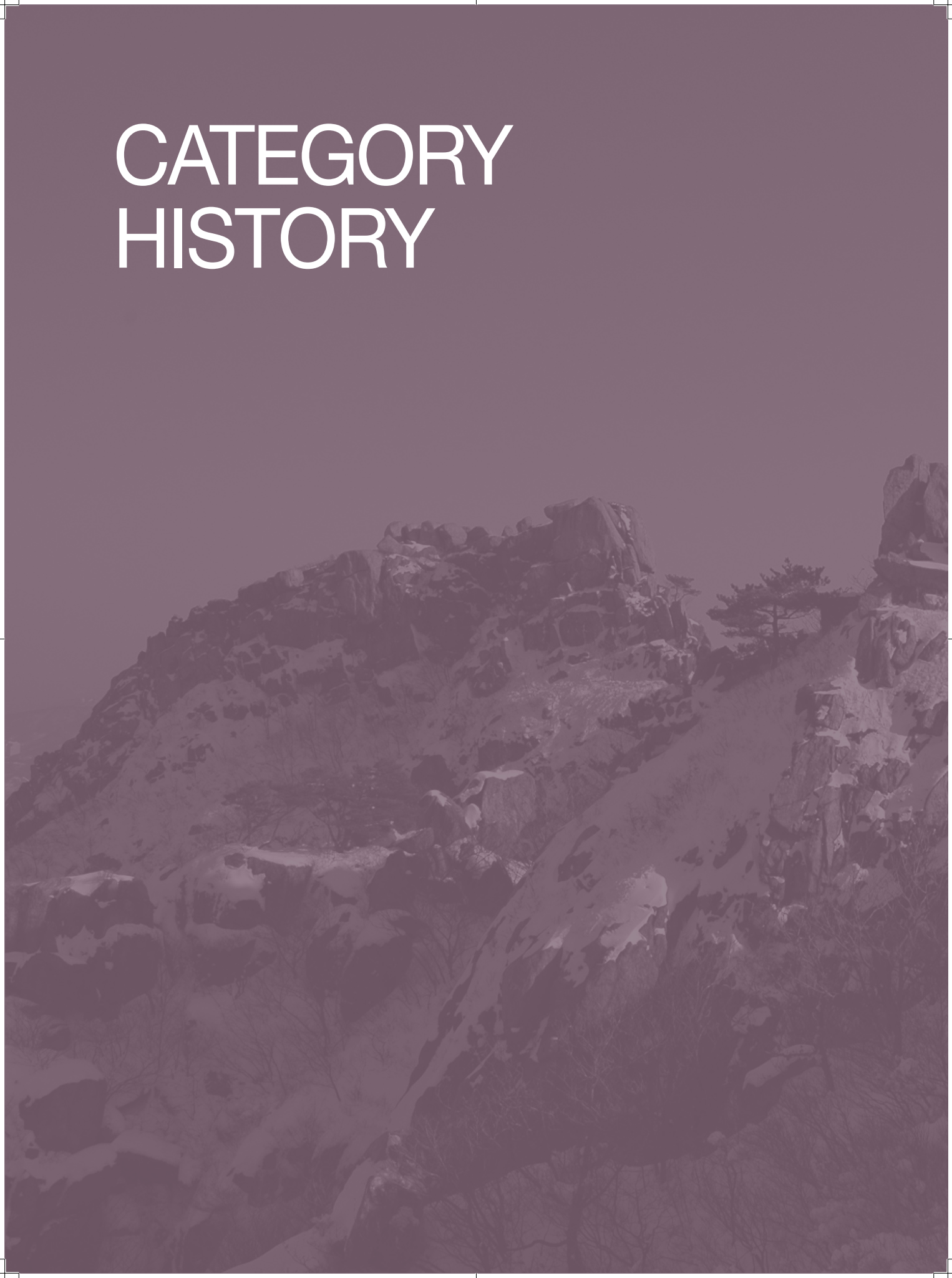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50주년 기념사업회


Since 1968 !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 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산악인 남선우 초청강연회 / 토론회]
DIT


남선우
B.S.A.A


DIT
B.S.A.A

CATEGORY HISTORY



PART 3

부산학생산악연맹
분야별 연혁

• 제1장 조직도, 역대임원, 정기총회
연맹제 및 체육대회
춘□추계합동산행
역대 영호남 합동산행
• 제2장 등산학교, 볼더링대회
역대 부산학생 등산대회 수상내역
• 제3장 연맹 동계 및 하계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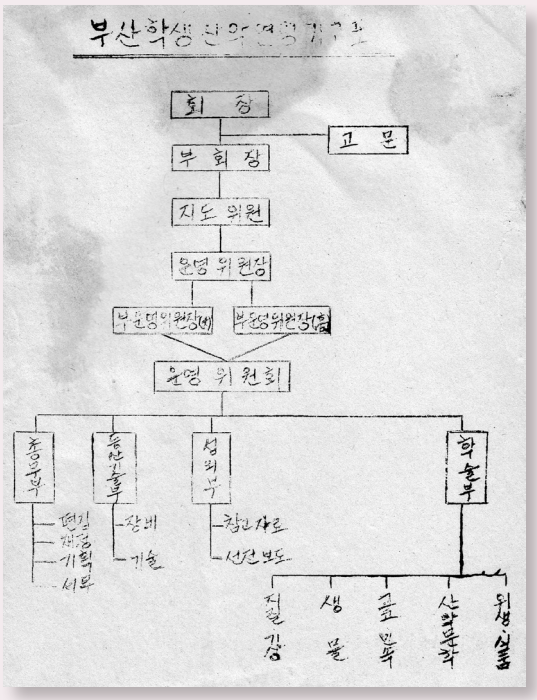
- 조직도
- 역대 회장단 및 임원진
- 역대 정기총회
- 역대 연맹제 및 체육대회
- 역대 춘·추계합동산행
- 역대 영호남 합동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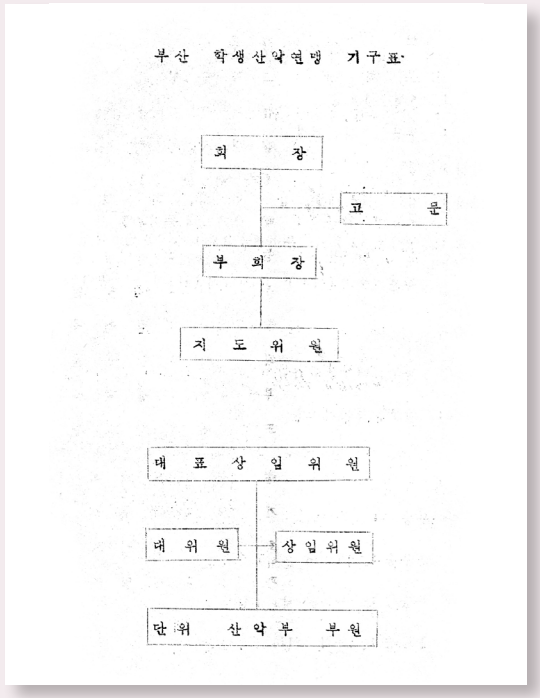


2014년 무명암 암부(등산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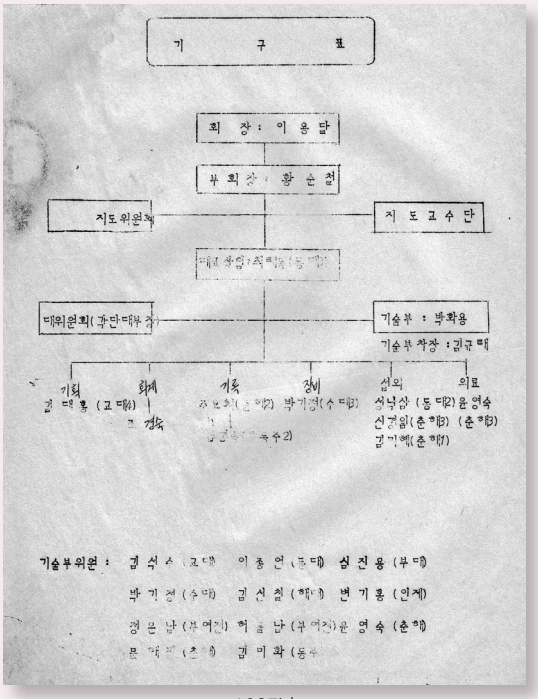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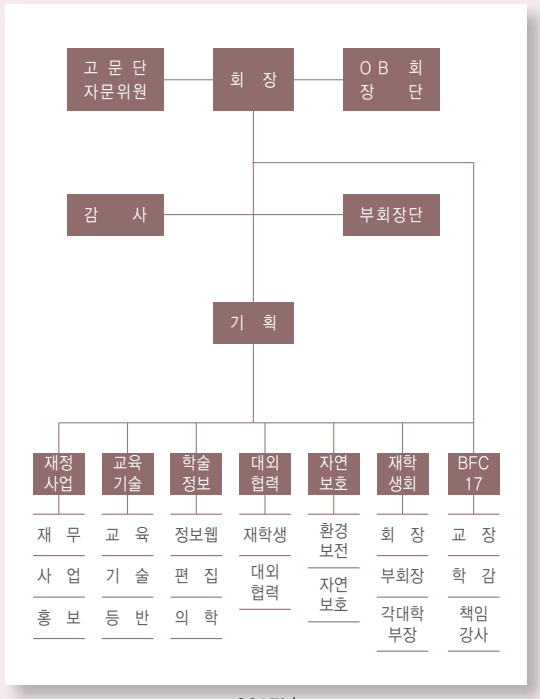
1973년



1975년



1987년



2017년

역대 임원

1. 회장단

연 도	회 장	부 회 장	자문위원, 지도위원, 고문
1968	김택진	김용기, 오점량	지도위원: 성산, 박진, 김재도, 채중권, 구철은, 박창수, 김명수
1969	오점량	김용기	지도위원: 성산, 박진, 김재도, 채중권, 김명수, 이원락
1970	엄익주	김용기	지도위원; 성산, 박진. 김재도, 채중권, 김명수, 이원락, 박창수
1971	엄익주	이원락, 김재도	지도위원: 성산, 백의인, 채중권, 정병근, 김정심, 김명수, 최해곤, 강용기
1972	장두석	이원락, 김재도	지도위원: 성산, 백의인, 채중권, 정병근, 김정심, 김명수, 최해곤, 강용기
1973	장두석		
1974	김동인	고영준, 염정간	
1975	김동인		
1976	김동인		
1977	김동인		
1978	김동인	최일범, 김옥배	자문위원: 염정간, 최병선, 성산, 이원락, 김부갑, 최욱, 김재도, 김덕구, 김연준 지도위원, 곽수웅, 최해곤, 김문식, 전명찬, 권경업
1979	김동인	최욱, 김재도	곽수웅, 최해곤, 배종순, 김두억, 전명찬, 권경업 자문위원 : 단대지도교수
1980	김동인	최욱, 김재도	곽수웅, 최해곤, 배종순, 김두억, 전명찬, 권경업 자문위원 :단대지도교수
1981	김동인	최욱, 김재도	자문위원: 홍순박, 김희정, 장태원, 고우열, 천영복, 김학곤, 김종수, 최일범, 염정간, 김옥배, 김부갑, 성산, 최병선, 김덕구, 김대성, 유판수, 박규환, 박정인 지도위원: 최해곤, 곽수웅, 배종순, 김두억, 전명찬, 권경업
1982	김동인		
1983	이용달	최상문	
1984	이용달	최상문	이승영, 황순철, 류종우, 이상주, 박성국, 박영철, 김원영, 이흥기, 김상용, 김영신, 박준영, 오계환
1985	이용달	최상문, 김재도	이승영, 황순철, 류종우, 이상주, 박성국, 박영철, 김원영, 이흥기, 김상용, 김영신, 박준영
1986	이용달		
1987	이용달		
1988	이용달		자문위원: 각 단대지도교수

역대 임원

연 도	회 장	부 회 장	자문위원, 지도위원, 고문
1989	이용달	최상문, 황순철	자문위원: 각 단대지도교수
1990	최상문	황순철	자문위원: 각 단대지도교수
1991	최상문	황순철	자문위원: 각 단대지도교수
1992	황순철	최해곤, 김정실	자문위원: 각 단대지도교수
1993	황순철	최해곤, 김정실	자문위원: 각 단대지도교수
1994	최해곤	김정실, 정성호	감사: 김태권
1995	최해곤	김정실, 정성호	감사: 김태권, 이승렬
1996	김정실	배병수, 김태권	자문위원: 각 단대지도교수
1997	김정실	배병수, 김태권	감사: 정민규, 이승렬
1998	김정실	주시정, 홍보성 이동본, 정영섭	자문위원: 각단대OB회장 감사: 이승렬, 정민규
1999	김정실	주시정, 이병식 이동본, 성경직	자문위원: 각단대OB회장 감사: 이승렬, 정민규
2000	정성호	정민규, 이승렬	감사: 정지택, 김영택
2001	정성호	정민규, 이승렬	자문위원: 각단대OB회장 감사: 정지택, 김영택
2002	정성호	신호진, 정민규 김치근, 정지택 정진육, 정금이	감사: 하정호, 정승오
2003	정성호	신호진, 정민규 김치근, 정지택 정진육, 정금이	감사: 하정호, 정승오
2004	신호진	정지택, 김치근 임두희, 정금이	감사: 정승오 자문위원: 이병식, 정진육, 이승렬, 정민규, 주시정, 이동본
2005	신호진	정민규, 김치근 임두희, 정금이	감사: 정승오 자문위원: 이병식, 정진육, 이승렬, 정민규, 주시정, 이동본
2006	이동본	박병환, 한달권 임두희, 차월준	감사: 정승오 자문위원: 정진육, 정민규, 김치근, 김영택, 이남국
2007	이동본	박병환, 한달권 임두희, 차월준	감사: 정승오 자문위원: 정진육, 정민규, 김치근, 김영택, 이남국

연 도	회 장	부 회 장	자문위원, 지도위원, 고문
2008	정민규	박병환, 최태식, 하호근, 최태신	자문위원: 이병식, 이기석, 정진육, 홍보성, 주시정, 정영섭 김치근, 이남국, 박광효, 정금이, 하호근 감사: 정승오, 유영근
2009	정민규	박병환, 최태식, 하호근, 최태신	자문위원: 이병식, 이기석, 정진육, 홍보성, 주시정, 정영섭 김치근, 이남국, 박광효, 정금이, 하호근 감사: 정승오, 유영근
2010	김치근	박병환, 안호덕, 정진열, 차월준, 임용일	감사; 박민호, 최태신 자문위원, 이기석, 정진육, 주시정, 홍보성
2011	김치근	박병환, 안호덕, 정진열, 차월준, 임용일	감사; 박민호, 최태신 자문위원, 이기석, 정진육, 주시정, 홍보성
2012	정지택	김규태, 안명선, 유영근, 정진열, 임용일, 한강수	자문위원: 주시정, 홍보성, 최태식 감사: 안호덕, 전상은
2013	정지택	김규태, 안명선, 유영근, 정진열, 임용일, 한강수	자문위원: 주시정, 홍보성, 최태식 감사: 안호덕, 전상은
2014	박병환	김규태, 유영근, 정진열, 임용일, 신병건, 이상주	자문위원: 홍보성, 최태식, 주시정 감사: 안명선, 강승구
2015	박병환	김규태, 유영근, 정진열, 임용일, 신병건, 이상주	자문위원: 홍보성, 최태식, 주시정 감사: 안명선, 강승구
2016	이창호	강양훈, 조광제, 박상희, 전상은, 정대율, 하태석, 이상주, 손대익	정금이, 안명선, 안호덕, 유영근, 이남수, 정진열, 차월준, 최태신 임용일, 신병건
2017	이창호	강양훈, 조광제, 박상희, 전상은, 정대율, 하태석, 이상주, 손대익	정금이, 안명선, 안호덕, 유영근, 이남수, 정진열, 차월준, 최태신 임용일, 신병건

역대 임원

2. 임원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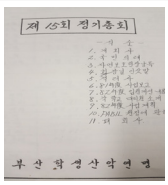
연 도	임 원 명 단	대표상임(재학생회장)
1968	이종봉, 윤명길	김태근
1969	이원영, 백홍찬	최해곤
1970	김용구, 박수자, 박맹언	김정실
1971	김용구, 박수자, 박맹언	김정실
1972	김용구, 박수자, 박맹언	엄창규
1973	김태권	이수일
1974	배병수, 남기진	김태권
1975	이운석, 이기석, 이종익, 한계희	배병수
1976		이기석
1977		신양수
1978	이종민, 박영철, 이장한, 원귀현, 이상영, 김승희, 장정미	정영섭
1979		배한일
1980	서종갑, 노은두, 정기태, 강영희, 심혜경, 조흥석, 박승태, 김영학	정민규
1981	박병환, 김휘순, 이채경, 하영관, 김수분	김영진
1982	신병찬, 김호관, 김정순, 최춘희, 이범애, 홍순철, 김상호, 이혜숙, 박원일	정승오
1983	유영근, 이원준, 문현주, 정영백, 노계화, 송희련	권헌태
1984	엄주삼, 전정호, 임두희, 김해림, 반은숙, 박민호	김영학
1985	이성규, 박천수, 신은규, 온재륜, 염희경, 성미향, 최미순, 박향숙	이창호
1986	박화용, 최태신, 정영화, 허둘남, 신기석, 박미선	이반형
1987		최태신
1988		안호덕
1989	차광훈, 김윤정, 고문희, 이은정, 오우섭, 이상수	강승구
1990	이상수, 김종서, 배현주, 정병화, 송근형, 정태권, 박복남, 고문희, 백순녀 강은지, 박미선, 안선철, 이경희	차광훈
1991	안남주, 하태웅, 원선희, 남현욱, 김홍균, 박소영, 이순애	이윤현
1992	권광호, 이경순, 이중환, 노충기, 정오철, 강윤경, 김현진	하태웅
1993	김태권, 정진열, 이승렬, 정대길, 정인숙, 한달권, 안진환, 전상은, 김인숙 이성규, 이미선, 이만성, 배락환	김병진

연 도	임 원 명 단	대표상임(재학생회장)
1994	정민규, 최태식, 이승렬, 이상헌, 이성용, 전상은, 정승오, 하태웅, 이성규 김희영, 김재숙, 한달권, 전혜정	박준범
1995	정민규, 김호관, 김규태, 민애란, 한달권, 배락환, 하태웅, 김지영, 조광제 정승오, 이승환, 이상주	김부근
1996	하정호, 박준범, 김규태, 김희정, 문진숙, 정경두, 이병석, 배락환, 이병석 최가현, 전종용, 전상은, 정승오	정경두
1997	하정호, 박준범, 김규태, 김희정, 문진숙, 정경두, 이병석, 배락환, 이병석 최가현, 전종용, 전상은, 정승오	임동환
1998	조광제, 차광훈, 정대길, 안호덕, 문진숙, 임용일, 한달권, 최가현, 오용조 김규태, 소자호, 박종일, 박명오, 이병식, 김명희	장종욱
1999	조광제, 김규태, 안호덕, 박명오, 오용조, 최가현, 하태웅, 문진숙, 김명희 한달권, 김부근, 박종일, 임용일, 정대길, 박선희	임성오
2000	조광제, 정경두, 유향미, 오용조, 구희정, 박명오, 박준범, 김부근, 박영태 하태웅, 김명희, 임용일, 김명선, 한달권	김환세
2001	박민호, 정진열, 유향미, 박준범, 박영태, 구희정, 하태웅, 이성원, 조대현 김부근, 정경두, 김민경, 김명희	손석용
2002	박민호, 차광훈, 김희정, 김명희, 정진열, 김인숙, 정경두, 한달권, 김덕순 박준범, 이순미, 박종일, 진영상, 김철훈, 하태석, 하태웅	손기성
2003	김인숙, 정진열, 박명오, 김희정, 정인숙, 차광훈, 한달권, 박준범, 이언화 김희영, 배락환, 하태석, 하태웅	백광윤
2004	한달권, 정종구, 차월준, 신병건, 이창호, 하태웅, 정진열, 하태석	없음
2005	김규태, 한달권, 조벽래, 차월준, 신병건, 이창호, 하태웅, 정진열, 하태석 전상은, 문진숙, 천상일	김태철
2006	장은정, 박상용, 유영근, 하호근, 이미옥, 우경애, 전윤주, 이이영, 천상일 정진열, 김석수, 차광훈, 김규태, 박주영, 박민호, 홍종표, 하태웅	최정호
2007	장은정, 박상용, 유영근, 하호근, 이미옥, 우경애, 전윤주, 이이영, 천상일 정진열, 김석수, 차광훈, 김규태, 박주영, 박민호, 홍종표, 하태웅	박용주
2008	하태웅, 정진열, 박민호, 천상은, 전윤주, 전상일, 구희정, 장재용, 백광윤 이이영, 홍종표, 정경두, 이정호	윤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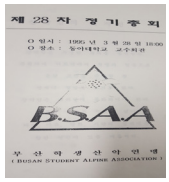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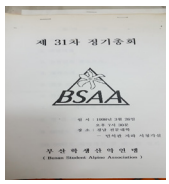
역대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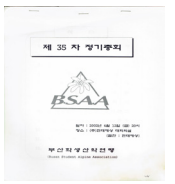
연 도	임 원 명 단	대표상임(재학생회장)
2009	하태웅, 정진열, 전상은, 전윤주, 천상일, 구희정, 윤계욱, 백광윤, 홍종표 이정호, 장재용, 최정호	이세현
2010	전상은, 김석수, 하태석, 배락환, 박준범, 정인숙, 권태현, 최기영, 천상일 윤계욱, 이정호, 백광윤, 최정호, 윤정민	이호주
2011	전상은, 김석수, 하태석, 배락환, 박준범, 정인숙, 권태현, 천상일, 윤계욱 이정호, 백광윤, 김동천, 최정호, 윤정민	박성환
2012	정현태, 박상희, 김석수, 하태석, 권태현, 박준범, 문재원, 손대익, 구희정 이정호, 임동환, 홍성환, 김운나, 백광윤, 최정호, 박정태, 윤정민	김나원
2013	정현태, 박상희, 김석수, 하태석, 권태현, 박준범, 문재원, 손대익, 구희정 이정호, 임동한, 홍성환, 김동구, 백광윤, 최정호, 박정태, 윤정민	김민성
2014	박상희, 정현태, 김석수, 권태현, 김재형, 문재원, 정경두, 김병진, 백광윤 정기식, 최정호, 백정숙	박종홍
2015	박상희, 정현태, 김석수, 권태현, 김재형, 문재원, 정경두, 김병진, 백광윤 정기식, 최정호, 백정숙	김희석
2016	권태현, 백순녀, 김재형, 정경두, 김병진, 백광윤, 정기식, 최정호, 김동구 김남구, 백정숙, 권용석	이재훈
2017	권태현, 백순녀, 김재형, 정경두, 김병진, 백광윤, 정기식, 최정호, 김동구 김남구, 백정숙, 권용석	이재훈

역대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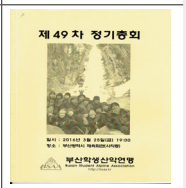
회 차	연 도	회 장	대표상임	주최장소	비 고
발기총회	1967년 11월 28일			아주관광여행사	
1	1968년 03월 30일	김택진	김태근	대청장예식장	
2	1969년 03월 29일	오점량	최해곤	YWCA 강당	
3	1970년 03월 28일	엄익주	김정실	YWCA 강당	
4	1971년 03월	엄익주	김정실	YWCA 강당	
5	1972년	장두석	엄창규	수정동 무명사진관	
6	1973년 03월	장두석	이수일	수정동 무명사진관	
7	1974년 03월	김동인	김태권	중앙동사무소	
8	1974년 12월	김동인	배병수	부산시여성회관	
9	1976년	김동인	이기석	YWCA 강당	
10	1977년	김동인	신양수	YWCA 강당	
11	1978년 04월 29일	김동인	정영섭	학생산악연맹회관	
12	1979년 03월 29일	김동인	배한일	부산시여성회관	
13	1980년 04월 11일	김동인	정민규	부산시여성회관	
14	1981년 03월 20일	김동인	김영진	부산시여성회관	
15	1982년 04월 08일	김동인	정승오	새마당예식장	
16	1983년 05월 27일	이용달	권헌태	YWCA 회관	
17	1984년 04월	이용달	김영학	서면원리연구회관	
18	1985년 03월 26일	이용달	이창호	부산대학교 앞 광장	
19	1986년 04월 07일	이용달	이반형	동아대학교 학생회관	
20	1987년 04월 06일	이용달	최태신	동아대학교 학생회관	
21	1988년 03월	이용달	안호덕	동아대학교 학생회관	
22	1989년 04월 03일	이용달	강승구	부산교육대학	
23	1990년 03월 31일	최상문	차광훈	수산대 강당	
24	1991년 03월 30일	최상문	이윤현	수산대 강당	
25	1992년 03월 27일	황순철	하태웅	부산외대 국제회의실	

역대 정기총회

회 차	연 도	회 장	대표상임	주최장소	비 고
26	1993년 03월 23일	황순철	김병진	동의공업대 시청각실	
27	1994년 03월 30일	최해곤	박준범	경남정보대 세미나실	
28	1995년 03월 28일	최해곤	김부근	동아대 교수회관	
29	1996년 03월 28일	김정실	정경두	국제신문사 중강당	
30	1997년 03월 26일	김정실	임동환	금정구청 대강당	
31	1998년 03월 26일	김정실	장종욱	경남정보대 민석관	
32	1999년 03월 23일	김정실	임성오	경남정보대 건설관	
33	2000년 04월 14일	정성호	김환세	동의공업대학교 세미나실	
34	2001년 04월 04일	정성호	손석용	(주)현대해상 대회의실	

회 차	연 도	회 장	대표상임	주최장소	비 고
35	2002년 04월 14일	정성호	손기성	(주)현대해상 대회의실	
36	2003년 03월 23일	정성호	백광윤	(주)현대해상 대회의실	
37	2004년 03월 25일	신호진	부재	(주)현대해상 대회의실	
38	2005년 02월 25일	신호진	김태철	초량 노블리아뷔페	
39	2006년 03월 03일	이동본	최정호	부산교대영상세미나실	
40	2007년 03월 23일	이동본	박용주	부산교대영상세미나실	
41	2008년 02월 25일	정민규	윤정민	부산교대영상세미나실	
42	2009년 03월 27일	정민규	이세현	동의과학대 세미나실	
43	2010년 03월 23일	김치근	이호주	부경대학교 9호관국제회의실	
44	2011년 03월 25일	김치근	박성환	부산교대영상세미나실	

역대 정기총회

회 차	연 도	회 장	대표상임	주최장소	비 고
45	2012년 03월 23일	정지택	김시라	부산교대영상세미나실	
46	2013년 03월 22일	정지택	김민성	부산교육대 체육관실	
47	2014년 03월 21일	박병환	박종홍	부산광역시체육회관	
48	2015년 03월 25일	박병환	김희석	부산광역시체육회관	
49	2016년 03월 25일	이창호	이재훈	부산광역시체육회관	
50	2017년 03월	이창호	이재훈	부산광역시체육회관	



1986년 04월 07일
제19차 정기총회



1986년 04월 07일
제19차 정기총회 이용달 회장



1986년 04월 07일
제19차정기총회 김영명 교수





1997년 3월 26일 제30차 정기총회



2015년 3월 20일 제48차 정기총회



2016년 3월 25일 제49차 정기총회



2017년 3월 30일 제50차 정기총회



2016년 3월 25일 제49차 정기총회



2015년 3월 20일 제48차 정기총회



2016년 3월 25일 제49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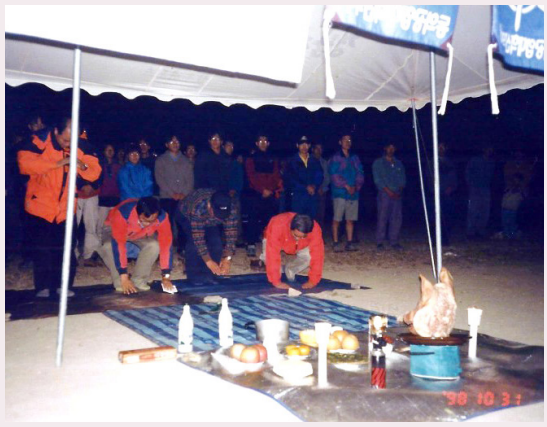
역대 연맹제 및 체육대회

연 맹 제				체 육 대 회	
연 도	회 장	대표상임	장 소	일 자	장 소
1973년	장두석	이수일	금정산	10월 03일	수산대학교(현 부경대 대연캠퍼스)
1974년 12월	장두석	김태권	금정산	06월 02일	수산대학교(현 부경대 대연캠퍼스)
1975년 11월	김동인	배병수	금정산	05월 18일	수산대학교(현 부경대 대연캠퍼스)
1976년 11월	김동인	이기석	금정산		
1977년 11월 12~13일	김동인	신양수	금정산 북문	05월 27일	한국해양대학교
1978년 11월 11~12일	김동인	정영섭	원동군 이천리	05월 27일	성지공전(현 부산과기대) 운동장
1979년 11월 03~04일	김동인	배한일	금정산 북문	05월 27일	한국해양대학교
1980년 11월 29~30일	김동인	정민규	금정산 북문	04월 11일	금정산
1981년 11월 07~08일	김동인	김영진	금정산 북문		
1982년 11월 13~14일	김동인	정승오	금정산북문		
1983년 11월 12~13일	이용달	권헌태	금정산북문	05월 01일	한국해양대학운동장
1984년 11월 17~18일	이용달	김영학	금정산북문	06월 11일	한국해양대학교
1985년 11월 16~17일	이용달	이창호	금정산북문	06월 06일	한국해양대학교
1986년 11월 15~16일	이용달	이반형	금정산 북문	06월 01일	한국해양대학교
1987년 11월 14~15일	이용달	최태신	금정산 북문	05월 31일	부산교육대학교
1988년 11월 05~06일	이용달	안호덕	금정산 북문	05월 23일	동아대학교
1989년 11월 04~05일	이용달	강승구	금정산 북문	04월 08일	수산대학(현 부경대 대연 캠퍼스)
1990년 11월 03~04일	최상문	차광훈	금정산 북문	06월 06일	수산대
1991년 11월 02~03일	최상문	이윤현	금정산 북문	06월 06일	한국해양대학교
1992년 11월 14~15일	황순철	하태웅	금정산	05월 31일	부산공업대

연 맹 제				체 육 대 회	
연도/일시	회 장	대표상임	장 소	일 자	장 소
1993년 11월 20~21일	황순철	김병진	금정산 남문	06월 06일	동아대학교
1994년 11월 05~06일	최해곤	박준범	금정산 북문	05월 28일	부산공업대(현 부경대 용당)
1995년 11월 05~06일	최해곤	김부근	금정산 북문		
1996년 11월 09~10일	김정실	정경두	금정산 북문	06월 06일	부산전문대학
1997년 11월 01~02일	김정실	임동환	부산외대 운동장	06월 01일	부산외대 운동장
1998년 11월 07~08일	김정실	장종욱	부산외대 운동장		
1999년 11월 06~07일	김정실	임성오	부산외대 운동장		
2000년 11월 04일	정성호	김환세	금정산 남문		
2001년 11월 03~04일	정성호	손석용	금정산		
2002년 11월 02~03일	정성호	손기성	금정산		
2003년 11월 01~02일	정성호	백광윤	금정산		
2004년 11월 13~14일	신호진	부재	금성초등학교		
2005년 11월 01~02일	신호진	김태철	금성초등학교		
2006년 11월 05~06일	이동본	최정호	부산학생교육원		
2007년 11월 04~05일	이동본	박용주	부산학생교육원		
2008년 11월 08~09일	정민규	윤정민	부산학생교육원		
2009년 10월 31~11월 01일	정민규	이세현	부산학생교육원	11월 01일	부산학생교육원 운동장
2010년 11월 06~07일	김치근	이호주	부산학생교육원		
2011년 11월 06~07일	김치근	박성환	부산학생교육원		
2012년 11월 03~04일	정지택	김시라	부산학생교육원		
2013년 11월 09~10일	정지택	김민성	부산학생교육원		
2014년 11월 08~09일	박병환	박종홍	부산학생교육원		

역대 연맹제 및 체육대회








회 부산학생 산악연맹 연맹


2009
부산 학생산악연맹 동산역교
부산 학생 산악연맹 연맹제




회 부산학생 산악연맹 연맹
일시:2016.11.5(토)
장소:금정산 학생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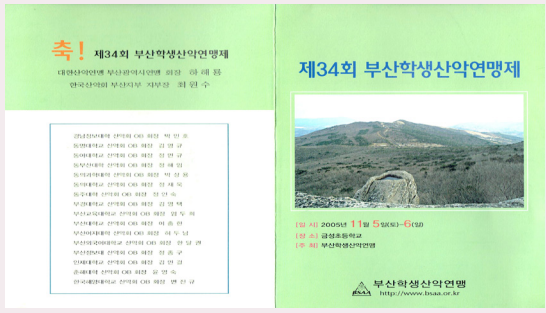











축! 제34회 부산학생산악연맹제
제34회 부산학생산악연맹제
부산학생산악연맹

역대 춘계·추계 합동산행

추 계				추 계	
연도/일시	회 장	대표상임	장 소	일 시	장 소
1970년 11월 22일	엄익주	김정실		11.22	천태산
1971년	임익주	김정실			
1972년	장두석	이수일			
1973년	장두석	이수일			
1974년	김동인	김태권			
1975년	김동인	배병수			
1976년	김동인	이기석			
1977년	김동인	신양수			
1978년	김동인	정영섭			
1979년 05월 02~06일	김동인	배한일	백운산		
1980년	김동인	정민규			
1981년	김동인	김영진			
1982년	김동인	정승오			
1983년	이용달	권헌태			
1984년 04월 26~27일	이용달	김영학	금정산 무명암	09월 22~23일	금정산 쌍계봉
1985년 05월 18~19일	이용달	이창호	금정산 무명암	09월 21~22일	금정산 무명,부채암
1986년 05월 10~11일	이용달	이반형	금정산 일원바윗돌	10월 01일	금정산 준행암
1987년 05월 09~10일	이용달	최태신	금정산	10월 01일	금정산
1988년 04월 30~ 05월 01일	이용달	안호덕	금정산	09월 24~25일	금정산
1989년 05월 20~21일	이용달	강승구	금정산 무명암	10월 28~29일	백운산
1990년 04월 28~29	최상문	차광훈	금정산		
1991년 04월 27~28일	최상문	이윤현	영남알프스,백운산	09월 28~29일	금정산
1992년 04월 25~26일	황순철	하태웅	금정산일원	09월 26~27일	영남알프스, 백운산
1993년 04월 17~18일	황순철	김병진	백운산	09월 25~26일	백운산
1994년 04월 30~05월 01일	최해곤	박준범	금정산	10월 22~23일	백운산
1995년	최해곤	김부근	백운산	10월 01일	백운산
1996년 04월 27~28일	김정실	정경두	백운산	11월 09~10일	금정산
1997년 04월 12~13일	김정실	임동환	백운산	10월 18~19일	금정산
1998년 05월	김정실	장종욱	백운산		
1999년 05월 08~09일	김정실	임성오	백운산		
2000년 05월 21~22일	정성호	김환세	백운산		
2001년 04월 28~29일	정성호	손석용	백운산		
2002년 04월 27~28일	정성호	손기성	백운산,운문산		
2003년 05월	정성호	백광윤	백운산		
2004년 04월 26~27일	신호진	부재	백운산		

추 계				추 계	
연도/일시	회 장	대표상임	장 소	일 시	장 소
2005년 04월 23일	신호진	김태철	백운산		
2006년 05월	이동본	최정호	백운산		
2007년 05월	이동본	박용주	백운산		
2008년 04월 26~27일	정민규	윤정민	백운산		
2009년 05월 23~24일	정민규	이세현	백운산		
2010년 05월 21~22일	김치근	이호주	백운산		
2011년 05월 21~22일	김치근	박성환	의령신반		
2012년 05월 21~22일	정지택	김시라	백운산		
2013년 05월 18~19일	정지택	김민성	백운산		
2014년 05월 17~18일	박병환	박종홍	백운산		
2015년 05월 16~17일	박병환	김희석	백운산		
2016년 05월 14~15일	이창호	이재훈	백운산		
2017년 05월	이창호	이재훈	백운산		



1989.05.20.~21. 춘계합동R.C(무명암 릿지)



1997.04.12.~13. 춘계합동R.C(백운산)



1995.10.01. 추계합동R.C(백운산)



1997.04.12.~13. 춘계합동R.C(백운산)

역대 춘계·추계 합동산행





1995년 10월 01일 추계합동



2014년 5월 춘계합동 R.C



2015년 5월 백운슬랩 하강준비중



2016년 5월 백운슬랩 하강전단체샷



2017년 5월 백운슬랩 교육중

역대 영호남 합동산행

일시/주관	회 장	대상산
2006년 05월 28일 부산학생산악연맹 주관	이동본	영남알프스 가지산-운문산-능동산 능선종주

부산학생산악연맹 이동본회장이 대구경북연맹과 연락하여 대구경북과
부산학생산악연맹 2개 연맹으로 처음 실시하게 됨









2007년 대구. 경북학생연맹 주관	이동본	거창 가조 의상봉
2008년 06월 01일 부산학생산악연맹 주관	정민규	금정산

2008년부터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학생산악연맹 3개연맹이 참여하게 됨







역대 영호남합동산행

일시/주관	회 장	대상산
2009년 06월 07일	정민규	무등산







2010년 05월 30	김치근	대구 팔공산






2011년 05월 29	김치근	부산 장산 반여초–철탑–억새밭길–정상–너덜–반여초





일시/주관	회 장	대상산
		
2012년 06월 02일	정지택	전남 담양 금성산성 금성중학교–담양온천–시루봉–연대봉– 구장군폭포–북문–담양온천–금성중학교
		
		

역대 영호남합동산행

일시/주관	회 장	대상산
2013년 07월 07일	정지택	대구 팔공산





2014년 06월 01일	박병환	승학산 꽃마을-승학산-동아대 하단캠퍼스








일시/주관	회 장	대상산
2015년 05월 31일	박병환	전남 장성 입암산 전남대수련원–은선동삼거리–갓바위–북문– 남문–은선동삼거리–전남대수련원






2016년 06월 26일	이창호	대구 월드컵 인공암벽장 인공암장–청계사–만보정–대덕산–인공암장






2017년 05월 14일	이창호	금정산 범어사주차장–북문–금샘–고당봉– 동문–오마이랜드






제2장

- 역대 등산학교
- 역대 볼더링대회
- 역대 부산학생등산대회 수상내역

BFC11 부산학생산악연맹 Fun Climbing school

’ 2011 B.S.A.A FUN CLIMBING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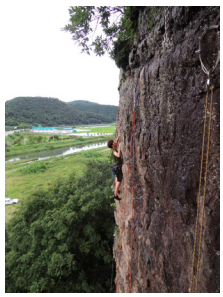
주최 : 부산학생산악연맹 / 후원 : 부산소재 17개 대학산악부 /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bfc11
협찬 :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한국산악회 부산지부, OK아웃도어 연산점, 클라임코리아 주식회사
연락처 : 학교장 이기석 010-3855-3371, 학감 이남수 010-3202-0912, 책임강사 백광윤 010-7475-4414
참가문의 : http://www.bsaa.or.kr 및 각 대학 산악부에 문의하십시오.

역대 등산학교

연혁

<table>
<tr><th>년 도</th><th>기 간</th><th>교 장</th><th>학 감</th><th colspan="2">강 사</th><th colspan="4">수 료 자</th><th colspan="3">운 행 일 정</th></tr>
<tr><td rowspan="11">2009</td><td rowspan="11">2009. 4.30 ~5.24 (4주)</td><td rowspan="11">이기석 (부산대 74)</td><td rowspan="11">정진열 (경정대 82)</td><td rowspan="11">정진열 (경정대82)
이남수 (부경대82)
박상희 (경정대85)
김흥국 (부산대85)
하태석 (동명대86)
정광호 (동아대90)
천상일 (동아대91)
구희정 (춘해대92)</td><td rowspan="11">백광윤 (부산대98)
소진호 (부경대98)
정기식 (동명대01)
최정호 (해양대01)
백정숙 (춘해대02)
박정태 (인제대03)
윤정민 (부산대03)
이세현 (해양대04)</td><td>부산대</td><td>LG파워콤</td><td>동아대</td><td>부산교육대</td><td>일자</td><td>교육 내용</td><td>교육 장소</td></tr>
<tr><td rowspan="3">정진희 (08)
김민성 (09)
백선태 (09)
이재희 (09)
허문철</td><td rowspan="3">김민선
김준호
이해주
조다은</td><td rowspan="3">이경영 (09)
박수진 (09)
황윤재 (09)</td><td rowspan="3">지혜진 (08)
황유진 (08)
유석영 (09)</td><td>4.30 (목)</td><td>입교식</td><td>동래구 인공암벽장</td></tr>
<tr><td rowspan="3"> 
  </td><td>5.3 (일)</td><td>슬랩등반</td><td>원동 천태산</td></tr>
<tr><td>5.7 (목)</td><td>인공암벽 이론, 실기</td><td>동래구 인공암벽장</td></tr>
<tr><td>5.10 (일)</td><td>릿지 등반</td><td>금정산</td></tr>
<tr><td>5.14 (목)</td><td>응급처치</td><td>동래구 인공암벽장</td></tr>
<tr><td>한국 해양대</td><td>인제대</td><td>동의대</td><td>무소속</td><td>5.16 (토)</td><td>오리엔 티어링</td><td>금정산 북문</td></tr>
<tr><td rowspan="4">윤성환 (06)
반동희 (07)
윤하석 (08)</td><td rowspan="4">박용형 (08)
김태원 (09)</td><td rowspan="4">성기석 (04)</td><td rowspan="4">장성현</td><td>5.17 (일)</td><td>직벽 등반</td><td>금정산 부채바위</td></tr>
<tr><td>5.21 (목)</td><td>인공암벽 이론, 실기</td><td>동래구 인공암벽장</td></tr>
<tr><td>5.23 (토)</td><td>선등 연습, 실전 등반</td><td>백운산</td></tr>
<tr><td>5.24 (일)</td><td>백운산 우벽 등반</td><td>백운산</td></tr>
<tr><td rowspan="15">2010</td><td rowspan="15">2010. 4.29 ~5.23 (4주)</td><td rowspan="15">이기석 (부산대 74)</td><td rowspan="15">정진열 (경정대 82)</td><td rowspan="15">하태석 (동명대86)
김석수 (교대86)
권태현 (동의대89)
천상일 (동의대91)
정광호 (동아대90)
손대익 (동과대91)
소진호 (부경대98)
백광윤 (부산대98)
백정숙 (춘해대02)</td><td rowspan="15">윤정민 (부산대03)
이세현 (해양대04)
이호주 (부경대05)
반동희 (해양대07)
지혜진 (교대08)
허문철 (부산대09)
김준호
김민선</td><td rowspan="2">김시라 (동아대 09)</td><td colspan="3" rowspan="2">  </td><td>일자</td><td>교육 내용</td><td>교육 장소</td></tr>
<tr><td>4.29 (목)</td><td>입교식</td><td>동래문화 회관소극장</td></tr>
<tr><td>5.2(일)</td><td>슬랩등반</td><td>원동 천태산</td></tr>
<tr><td>5.6(목)</td><td>인공암벽 이론, 실기</td><td>동래구 인공암벽장</td></tr>
<tr><td rowspan="11" colspan="4">  </td><td>5.8(토)</td><td>야영법</td><td>금정산</td></tr>
<tr><td>5.9(일)</td><td>릿지 등반</td><td>금정산</td></tr>
<tr><td>5.13 (목)</td><td>응급처치</td><td>동래인공암 벽장</td></tr>
<tr><td>5.15 (토)</td><td>오리엔 티어링</td><td>금정산 북문</td></tr>
<tr><td>5.16 (일)</td><td>직벽 등반</td><td>금정산</td></tr>
<tr><td>5.20 (목)</td><td>인공암벽 이론, 실기</td><td>동래구 인공암벽장</td></tr>
<tr><td>5.22 (토)</td><td>슬랩등반, 선등연습</td><td>백운산</td></tr>
<tr><td>5.23 (일)</td><td>우벽 등반</td><td>백운산</td></tr>
<tr><td>2011</td><td>2011. 4.30 ~5.22 (4주)</td><td>이기석 (부산대 74)</td><td>이남수 (부경대 82)</td><td>백광윤 (부산대 98) 외 11명</td><td></td><td colspan="4">김연경 외 38명</td><td>4.30 (토)</td><td>입교식</td><td>금련산 청소년 수련원</td></tr>
<tr><td rowspan="3">2011</td><td rowspan="3">2011. 4.30 ~5.22 (4주)</td><td rowspan="3">이기석 (부산대 74)</td><td rowspan="3">이남수 (부경대 82)</td><td rowspan="3">백광윤 (부산대 98) 외 11명</td><td rowspan="3"></td><td colspan="4" rowspan="3">김연경 외 38명</td><td>5.1(일)</td><td>실기교육</td><td>금련산 청소년 수련원</td></tr>
<tr><td>5.7(토)</td><td>오리엔티어링, 응급처치</td><td>금련산 청소년 수련원</td></tr>
<tr><td>5.8(일)</td><td>실기교육</td><td>금련산 청소년 수련원</td></tr>
</table>

<table>
<tr><th>년 도</th><th>기 간</th><th>교 장</th><th>학 감</th><th>강 사</th><th></th><th>수료자</th><th>운행일정</th><th></th><th></th></tr>
<tr><td rowspan="4">2011</td><td rowspan="4">  </td><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4">백광윤
(부산대 98)
외 11명</td><td rowspan="4"></td><td rowspan="4">  </td><td>5.14
(토)</td><td>막영</td><td>금정산
무명암</td></tr>
<tr><td>5.15
(일)</td><td>릿지등반</td><td>금정산
무명암</td></tr>
<tr><td>5.21
(토)</td><td>실기교육</td><td>의련 신반
병풍암</td></tr>
<tr><td>5.22
(일)</td><td>실기교육,
수료식</td><td>의련 신반
병풍암</td></tr>
<tr><td rowspan="11">2012</td><td rowspan="11">2012.
4.2
~5.22
(4주)</td><td rowspan="11">정지택
(경정대
77)</td><td rowspan="11">양정환
(부산대
82)</td><td rowspan="11">하태석
(동명대 86)
외 20명</td><td rowspan="11"></td><td>1조</td><td>2조</td><td>3조</td><td>4조</td><td>일자</td><td>교육 내용</td><td>교육 장소</td></tr>
<tr><td>박혜문
이원지
전재민
임기영
박동선
강다영</td><td>박지헌
김유진
장민규
김현우
이재훈
이유정
허성주
김남희</td><td>이해광
심용태
임은정
문상기
최병렬
강민영
하송희
이유리</td><td>서성호
오승현
이성애
김지영
신창용
천혜리
유근열
서수민</td><td>4.28
(토)</td><td>입교식 및
장비착용법,
매듭법 교육</td><td>부산교육대
학교
2체육관세
미나실</td></tr>
<tr><td></td><td></td><td></td><td></td><td>4.29
(일)</td><td>실기교육</td><td>천태 슬랩</td></tr>
<tr><td></td><td></td><td></td><td></td><td>5.5(토)</td><td>독도법,
막영법</td><td>천주교
목장</td></tr>
<tr><td></td><td></td><td></td><td></td><td>5.6(일)</td><td>릿지등반</td><td>금정산</td></tr>
<tr><td colspan="2">5조</td><td colspan="2">6조</td><td>5.12
(토)</td><td>응급처치</td><td>부산교육
대학교
2체육관세
미나실</td></tr>
<tr><td>윤지윤
양주동
김나희
김진석</td><td>이수림
맹규노
한예향
이우람</td><td>이다솜
강승희
김용준
박종호</td><td>이주환
강나래
허다빈
박상수</td><td>5.13
(일)</td><td>스포츠
클라이밍</td><td>동래 인공
암벽장</td></tr>
<tr><td></td><td></td><td></td><td></td><td>5.19
(토)</td><td>슬랩등반</td><td>백운산</td></tr>
<tr><td></td><td></td><td></td><td></td><td>5.20
(일)</td><td>슬랩등반</td><td>백운산</td></tr>
<tr><td rowspan="11">2013</td><td rowspan="11">2013.
4.27
~5.19
(4주)</td><td rowspan="11">정지택
(경남정
보대79)</td><td rowspan="11">양정환
(부산대
82)</td><td rowspan="11">김석수
(교대86)
정진열
(경정대82)
하태석
(동명대86)
권태현
(동의대89)
구진국
(89)
백광윤
(부산대98)
김태철
(부경대00)
김동구
(동과대01)
이호주
(부경대05)
정장현
(부경대07)
최진호
(부경대07)
박상희</td><td rowspan="11">송경빈
(부경대08)
정기식
전재민
(부산대08)
이상일
(부산대08)
김시라
(동아대09)
김민성
(부산대09)
최민수
(해양대10)
김민정
(춘해대11)
이정은
(부산대11)
박명오
(동과대92)
김희석
(해양대12)
백정숙
(춘해대02)
정광호
(동아대90)</td><td colspan="4">정현수 외 59명</td><td>일자</td><td>교육 내용</td><td>교육 장소</td></tr>
<tr><td colspan="4" rowspan="3"> 
  </td><td>4.27
(토)</td><td>입교식</td><td>교대</td></tr>
<tr><td>4.28
(일)</td><td>천태산
슬랩등반</td><td>천태산</td></tr>
<tr><td>5.4
(토)</td><td>오리엔
티어링</td><td>금정산
남문</td></tr>
<tr><td></td><td></td><td></td><td></td><td>5.5
(일)</td><td>릿지등반</td><td>금정산
무명릿지</td></tr>
<tr><td></td><td></td><td></td><td></td><td>5.11
(토)</td><td>스포츠
클라이밍</td><td>동의대
수덕전</td></tr>
<tr><td></td><td></td><td></td><td></td><td>5.12
(일)</td><td>스포츠
클라이밍</td><td>동래인공
암벽장</td></tr>
<tr><td></td><td></td><td></td><td></td><td>5.18
(토)</td><td>슬랩등반</td><td>백운슬랩</td></tr>
<tr><td></td><td></td><td></td><td></td><td>5.19
(일)</td><td>수료식</td><td>백운슬랩</td></tr>
</table>

년 도	기 간	교 장	학 감	강 사		수료자				운행일정		
2014	2014. 4.26 ~5.18 (4주)	정지택 (경남정보대79)	신병건 (교대 86)	정경두 박명오 이경직 정준식 홍유원 유정아 백정숙 김석수 구희정 오원탁 박희진 정봉준 김민철 백광윤 백선태 유예진 박기완 이소미	김지성 백순여 김재숙 김병진 임동한 장재웅 김연주 안효진 김재형 정진열 임기영 한성희 이유리 정기식 하태석 김희석 류정헌 안소연 김학기	1조	2조	3조	4조	일자	교육 내용	교육 장소
						황인영 민인덕 장주리 손지아 김은총 손경욱 이용민 박지은 임지원	류재강 김성수 이다연 임환석 배금랑 전이정 채지훈 차지환	이창욱 공태연 황소희 권현수 백동채 김유진 김세훈 전혜인 박지혁 윤준규	김욱현 이승현 김지나 김태경 환원정 조수민 강철민 김상우 변채원 박진주	4.26 (토)	입교식	사직 체육회관
										4.27 (일)	스포츠 클라이밍	동래인공 암벽장
										5.3 (토)	응급처치	동의대 수덕전
										5.4 (일)	천태산 슬랩등반	천태산
										5.10 (토)	오리엔 티어링	금정산 남문
						5조		6조		5.11 (일)	릿지등반	무명릿지
						조호준 강은진 조현지 안유신 최현우	허수정 박석민 한지훈 박수현	안상민 곽동호 박지훈 이지예 이한결	박중겸 이태인 김민승 김난희	5.17 (토)	워킹	백운산
										5.18 (일)	슬랩등반	백운산
2015	2015. 4.25 ~5.17 (4주)	박병환 (동아대 80)	김석수 (교대 86)	권태현 (동의대 89)		33명				일자	교육 내용	교육 장소
										–		
2016	2016. 4.23 ~5.15 (4주)	이석호 (동아대 80)	안명선 (동주대 82)	하태석 (동명대 86) 반동휘 (해양대 07) 이재희 (부산대 09) 최민수 (해양대 10) 박종홍 (부경대 11) 맹규노 (동아대 12) 김희석 (해양대 12) 이재훈 (부경대 12) 강동중 (부산대 12) 류정헌 (경정대 13) 안효진 (해양대 13) 김인엽 (부경대 13) 한진석 (부산대 13)	박지훈 (부산대 14) 김난희 (경정대 14) 손지아 (과기대 14) 조수민 (춘해대 14) 황소희 (춘해대 14) 강은진 (동의대 14) 황원정 (동의대 14) 권경래 (해양대 15) 김건하 (부산대 15) 황유경 (경성대 15) 이혜정 (경성대 15) 전미하 (춘해대 15)	과기대	부산대	경성대	동의대	일자	교육 내용	교육 장소
						이정민 조재혁 이원준 박수민 김상현 정기수 조강원 송승욱 조민규	오진욱 박동구 이지우 안정희 하유정 문채민	김민균 허윤 김민기 황선재	박준형 변기환 김만기 최지현	4.23 (토)	OT, 이론교육	부산 체육회관
										4.24 (일)	인공암벽	동래구 인공암벽장
										4.30 (토)	응급처치, 막영법	물금 캠핑장
										5.1 (일)	워킹, 슬랩 등반	천태산
						부경대	해양대	부산교대	춘해대	5.7(토)	오리엔 티어링	금정산 남문
						배민찬 이지환 허윤혁 김강민	염문식 배성은 이상우	채치훈 이한결	박주휘 이소명	5.8(일)	릿지등반	금정산
									동아대	5.14 (토)	워킹	백운산
									박용민	5.15 (일)	슬랩등반, 수료식	백운산

<table>
<tr><th>년 도</th><th>기 간</th><th>교 장</th><th>학 감</th><th colspan="2">강 사</th><th>수료자</th><th colspan="3">운행일정</th></tr>
<tr><td rowspan="11">2017</td><td>2017.
4.29
~5.21
(4주)</td><td>이석호
(동아대
80)</td><td>안명선
(동주대
82)</td><td rowspan="11">하태석
(동명대
86)
외 18명</td><td rowspan="11"></td><td>조동기
(동의대 17)
외 22명</td><td>일자</td><td>교육 내용</td><td>교육 장소</td></tr>
<tr><td colspan="3" rowspan="10">  </td><td rowspan="10">  </td><td>4.29
(토)</td><td>입교식,
이론교육</td><td>부산
체육회관</td></tr>
<tr><td>4.30
(일)</td><td>스포츠
클라이밍</td><td>동래
인공암장</td></tr>
<tr><td>5.6
(토)</td><td>응급처치,
막영교육</td><td>황산체육
공원</td></tr>
<tr><td>5.7
(일)</td><td>슬랩 등반</td><td>천태산</td></tr>
<tr><td>5.13
(토)</td><td>릿지 등반</td><td>금정산
무명릿지</td></tr>
<tr><td>5.14
(일)</td><td>오리엔
티어링</td><td>금정산
다목적광장</td></tr>
<tr><td>5.20
(토)</td><td>석남사 –
백운산 워킹</td><td>백운산</td></tr>
<tr><td>5.21
(일)</td><td>슬랩 등반,
수료식</td><td>백운산</td></tr>
<tr><td rowspan="11">2017</td><td>2017.
6.24
~7.2
(2주 4일)</td><td>이석호
(동아대
80)</td><td>안명선
(동주대
82)</td><td rowspan="11">책임강사
하태석
(동명대
86)</td><td rowspan="11"></td><td rowspan="3">김성수(부경대14) 외 19명</td><td>일자</td><td>교육 내용</td><td>교육 장소</td></tr>
<tr><td>4.23
(토)</td><td>인공 등반
이론 교육
및 실기교육</td><td>금정산
나비암</td></tr>
<tr><td>4.24
(일)</td><td>인공 등반
실기 교육</td><td>부채암
북벽</td></tr>
<tr><td colspan="3" rowspan="10">  </td><td rowspan="10">  </td><td>4.30
(토)</td><td>인공 등반
실기 교육</td><td>부채암
남벽</td></tr>
<tr><td>5.1
(일)</td><td>인공 등반
실기 교육</td><td>부채암
남벽</td></tr>
</table>

등산학교 등반일지

2011 등산학교 일지 부산교육대 11 학번 김연경

처음 등산학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4주가 언제 다 지나가나 했는데 벌써 3주 차가 지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다. 시원하면서도 섭섭하다. 사실 1학년 때는 제대로 배우면서 산행을 한 것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등산학교를 통해서는 짧은 시간동안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인 것 같다. 물론 근육의 통증과 푸석푸석해지는 피부를 감수해야하지만...

3주 차 등산학교는 스포츠 클라이밍 수업을 마치고 처음 무명릿지로 자연암벽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 홀더가 많은 스포츠 클라이밍에 2주째 익숙해져 있었는데 자연 암벽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우선 산행의 시작은 무명릿지 근처 막영터로의 워킹이었다. 큰 배낭을 지고 워킹을 하는 건 오랜만이라 내 체력의 한계가 처음부터 느껴졌다. 점점 사색이 되어가면서 막영터에 도착했다. 도착해서는 조끼리 라면으로 점심을 때웠다. 그리고 나서 김석수 선배님의 오리엔티어링을 듣게 되었다. 독도법은 듣기만 많이 들었지 배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선배님의 설명을 들어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헤맸다. 우리 조가 세 번째로 출발했고 처음의 자신만만했던 모습과 달리 가도 가도 1지점 표시가 보이지 않자 우리 조원들은 점점 지쳐갔다. 결국 한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범어사로 내려갈 뻔하다 강사 선배님을 만나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 길 잃은 우리를 찾아낸 선배님이 너무너무 신기했다. 선배님은 우리가 1지점도 제대로 찾지 않고 2지점을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셨다. 다음에는 독도법을 숙지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우리 조가 마지막으로 원위치로 돌아온 뒤 무명릿지를 잠깐 다녀올 사람들만 릿지로 향했고, 나는 너무 지쳐서 그 시간 동안 쉬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각자 챙겨온 반찬들로 맛있는 식사를 했다. 별것 아니라도 산에서 먹는 것은 항상 배로 맛있는 것 같다. 그 후 알코올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잠깐 가지고 텐트 속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우리 조는 부경대에서 가져온 커다란 텐트 덕분에 조원 모두가 들어가 잘 수 있었다. 그런데 하루 동안 너무 무리해서 인지 아무리 잠자리에 들려 용을 써도 삭신이 쑤셔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이때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일요일 아침. 새벽 4시에 기상해서 후발대인 나는 아침을 먹은 것과 텐트 등 모든 장비를 정리하고 무명 릿지로 향했다.혜정 언니 말로는 돌길로 된 능선이라며, 무섭지 않다고 해서 걱정을 덜고 있었는데... 역시 나에겐 무리였나 보다. 발끝에 힘을 집중해 다리를 펴서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만 경사진 바위를 오르려 하면 끙끙거렸다. 그걸 생각하면 빌레이를 봐 주신 선배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린다. 또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고소공포증이 더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 바위 밑을 바라보면 어찌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지 한참을 발을 못 떼고 망설이다 겨우 발걸음을 떼곤 했다. 릿지를 하는 동안은 '자일의 정'이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나에게 묶인 자일이 얼마나 나에게 위안을 주고 의지할 수 있게 해 주는지를 느꼈다. 앞으로 자일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 소중하게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다. 등반 중 전상은 선배님의 모습이 보였다. 선배님은 내가 쓰고 있던 헬멧을 보시고 관심을 보이시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헬멧이 선배님이 예전에 쓰셨던 헬멧이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여러 시간에 걸쳐 무명릿지를 등반한 후 마지막 코스인 뜀바위만이 남은 순간이었다. 뜀바위에 대해서는 은진 언니에게 익히 들었던 지라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멋지게 뛰어보겠다 다짐했는데... 결국 김석수 선배님과 연결된 줄에 묶여 겨우 뛸 수 있었다. 다음에는 꼭 한 번에 멋지게 뛰리라!

릿지 등반을 끝낸 후 마지막으로 2~3시간 정도의 워킹을 앞두고 있었다. 이미 릿지에게 체력이 고갈될 대로 된 나에겐 워킹이란 말이 사형선고처럼 들렸다. 1조 조원이고 속도가 가장 느려서 맨 앞에서 워킹을 했는데, 점점 혼이 빠져나가는 듯 사색이 되어갔다. 주위에선 괜찮냐고 걱정의 말들을 해 주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어쩐지 1학년 때보다 더 체력이 약해진 것 같다. 너무 힘들어하는 나를 부경대 소진호 선배님께서 보시고는 배낭을 바꿔 매 주셨다. 그때는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렸다.ㅠㅠ 드디어 워킹 끝~! 우리가 도착한 곳에는 김정규 선배님이 와 주셔서 지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항상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챙겨주셔서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이번 3주 차 등산학교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것 또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마지막 남은 4주 차 산행을 더 잘, 보람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 3일밖에 안 남았네... 하하

2015 등산학교 일지 해양대 15 학번 정인권

백운산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한 뒤 아침을 간단히 먹고 7시 10분에 부실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이미 패킹을 거의 해놓았기 때문에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부실에 들어가 보니 챙겨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었고 챙기다 보니 가방의 부피가 너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부피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가방에 있는 짐을 꺼내 다시 넣는 작업을 두어 번 반복했다. 가방 부피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9시 전에 도착했지만 조금 더 일찍 일어났었으면 하는 후회가 남았다.

선배님들과 교육생들이 교대역 그리고 사직에서 모두 탑승한 뒤 버스는 백운산이 있는 밀양으로 향했다. 버스안에서 선배님들은 교육생들에게 산가를 가르쳐주었다. 2 주차 천태산에 갔을 때 배웠던 '자일의 정 '을 포함해서 '아득가 ' 그리고 '산아가씨 '를 배웠다.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나도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쉬운 노래였고 산에 가서 부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백운산에 도착해보니 YB 회장 희석이형이랑 해대 선배 민수형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형들에게 인사를 하고 버스에서 짐을 내리고 선배님들의 말에 따라 행동하였다. 책임강사님이 교육생들을 3개의 조로 나누고 텐트를 치라는 명을 내렸다. 우리 4조는 강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텐트를 무사히 칠 수 있었다 . 하지만 책임강사님은 우리에게 텐트를 걷으라는 명을 내렸고 우리는 햇빛이 쨍쨍거리는 날씨 속에서 빠른 속도로 텐트를 걷었다. 당연히 다시 한번 텐트를 치라는 명을 받고 텐트를 쳤을 때 나는 처음보다는 빠른 속도로 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임강사님이 우리에게 고생시키는 게 아무 이유가 없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나는 책임강사님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우리는 가볍게 백운산을 등반하기로 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어택을 꺼내고 조끼리 모인 다음 일렬로 등반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등반했던 코스는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었다. 숨이 가쁘기는 했지만 풀잎 냄새가 코로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중간중간에 푸른색으로 덮

힌 산을 보며 웃으면서 산에 올라갈 수 있었다.

내려오면서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 부러진 나무 덩어리를 들고 내려왔지만 주위에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저녁은 냄비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었다. 밥이 설익어서 씹기가 조금 불편했지만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그런지 크게 신경쓰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대충 그릇을 닦고 선배님들이 치신 천막 밑에 모여앉았다 . 거기서 우리는 등산학교에서 느꼈던 4주간의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4조 조장으로서 조원들을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감정을 느꼈고 4주간의 시간이 빠른 것도 같고 느린 것도 같아 기분이 묘했다. 서로의 소감을 말한 뒤 OB 선배님들이 가져오신 술과 음식들을 먹으며 마지막 등산학교의 밤을 보냈다.

2016년도 등산학교 부경대 13학번 김인엽

부산 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1주차 - 4월 23일(토), 24일(일)

4월 23일 등산학교 첫째 날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대강당에 12시 30분까지 모인다.

등산학교 올 때마다 작년을 회상하게 되는 것 같다. 작년 교육생들이 이번 보조강사로 참가를 하고 늠름해진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물론 나도 그 중 일부이겠지만.

등산학교 교재를 펼쳐 다시 한번 이론을 살펴본다. 내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조금씩 보인다. 등산학교는 신입생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매번 배워가는 것도 엄청 많은 것 같다.

간단한 이론, 가치관, 매듭 수업을 마치고 내일을 위해 해산을 한다.

4월 24일 등산학교 둘째 날

부산 동래 인공암장에 아침 8시 30분까지 모인다.

항상 이곳에 올 때마다 송진 가루가 난리다. 신입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홀더달기에 바쁘다. 보조 강사들 각자 임무가 주어지고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교육에 임한다. 교육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자신에 대한 부족함은 끝이 없는 것 같다. 다시한번 가르치면서 배우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점심시간 내가 속해있는 조에서는 점심 메뉴로 김밥과 라면을 먹기로 했었다. 하지만 우

리는 김밥만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코펠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사가 개입하지 않고 자립강생을 지향했었지만 이번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김밥이 했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이번 기회로 신입생들이 하나 더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오후 교육이 한창이다. 그러던 중 OB선배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이신다. 3시에는 등산학교 입교식이 있다. 우리는 3시에 맞춰 입교식에 임하였고 그 뒤로는 간단히 교육을 하고 마친다. 아침에 달아놓은 홀더를 수거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줄에 매달리기 전 모든 상황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계획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주변을 정리하고 해산한다.

2017년도 5월 20일 부산대학교 17학번 윤용철

8:50 AM, 출발하기 위해 가방을 메는데 텐트가 들어있는 녀석의 존재감을 느낀 순간 '어?응?'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 여자가 아닌가 봐요...'라고 중얼거리며 나와 비슷한 질량을 들어 올리고 있는 혜민이를 보니 불평하려던 입이 다물어졌다. 일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무겁게 느껴지진 않는데 아마 그런 무게의 가방과 산을 오르는 건 처음이었기에 느꼈던 심리적 압박감도 있었던 듯싶다. 정확히 12시에 성남사에 도착해서 잠깐 화장실을 들린 뒤 산을 올랐는데 시작과 동시에 송이가 비틀거리는 게 보였다. 자일 및 코펠등의 잔짐이 들어 있는 가방이 상당히 부담되었던 모양인데 송이의 가방을 중간중간 살짝 밀어주며 올라가는데 예전에 어머니와 산에 올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상당히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먼 산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이란... 그 뒤에서 어깨를 풀며 비슷한 표정의 짓고 있던 내 얼굴도 떠올랐다. 뭐 중간에 송이를 지나쳐가 맨 앞의 저번처럼 맨 앞의 예비군들의 엉덩이만 바라보며 산을 올랐기에 크게 도움을 주진 못했지만 말이다. 먼저 목적지에 올라 기다리고 있으니 성수선배가 송이를 챙겨서 올라오셨는데 남다른 선배의 자상함을 느낄 수 있었다. 거기서 잠깐 점심을 먹고 암벽에만 익숙했는지 이럴 거면 왜 여기 올라왔냐는 산악부의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몇몇 동기의 불평과 함께 하산했다.

5월 21일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2km가량의 조깅을 했다. 사실 뛰는 중간 빠른 걸음으로 걸어 봤는데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느릿한 페이스

로 뛰었다. 약간 빠르게 줄넘기를 돌리는 수준의 산소 소모량이라 가볍게 몸을 풀 수 있었다. 동구선배의 증언에 의하면 작년엔 훨씬 강도 높게 뛰었다는데 올해의 강사님들에 대한 애정이 더더욱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에 음식이 조금 남아 1학년답게 모조리 내가 짬처리 해버렸는데 배가 묵직해서 이거 오늘 암벽 잘 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번 천태산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낮은 편이라 수월하게 오를 수 있었다. 다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였는지 오르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 3피치에서 좋아했던 사람 이름 3번 부르고 노래 한곡 뽑으라는 오더를 받았는데, 빌어먹게도 둔하기 짝이 없는 나의 뇌는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자의 이름마저도 깔끔하게 잊어버렸다. 덕분에 그 자리에서 아무 여자 이름이나 대충 지어내 세 번 지른 다음 짤막하게 노래를 부르고 들어왔다. 기념사진 한 방 찍고 긴 거리를 하강했는데 장갑이 없는 상태로 밑에서 교육생 보호 목적으로 약간의 텐션을 걸어준 자일을 내려오는 것은 조금 스트레스받는 일이었다. 자일이 너무 빡빡하고 손바닥이 화끈거려 하강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후 수료식을 했는데, 우리 대학에서 상품을 휩쓸게 되어 기뻤다. 내가 받은 상품은 회색 헬멧이였는데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지만 암장비 계열을 원했기에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이제 헬멧 때문에 머리가 근질거릴 걱정은 조금 덜게 된 것은 기쁜 일이다. 매번 나의 주말을 강제로 반납하게 만들었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주간의 등산학교가 이로써 끝나게 되었다. 이래저래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더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하지만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선배들로부터 계속 배울 수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 등산학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착실하게 배워 나중에 병아리 같은 후배들이 안전하게 산을 오를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작은 다짐을 하며 여기 마침표를 찍는다.





2009년
등산학교











2010년
등산학교


2010
제2기 부산학생산악연맹 하계등산학교






2010
제2기 부산학생산악연맹 하계등산학교


2010
제2기 부산학생산악연맹 하계등산학교

2011년
등산학교







2012년
등산학교






2012 BSAA FUN Clim
▲ 주최 : 부산학생산악연맹




2012 BSAA FUN Climbing School (B.F.C. 12)

2013년
등산학교


Bsaa Fun Climbing school






2013 BSAA FUN Climbing School(B.F.C. 13)


2013 BSAA FUN Climbing School(B.F.C. 13)

2014년
등산학교











2015년
등산학교











2016년
등산학교











2017년
등산학교










2017 부산학생 산악연맹 등산학교
일시:2017.4.29~5.21(토,일)
주최:부산학생 산악연맹 후원:(사)서성호 기념사업회

역대 볼더링대회

볼더링은 한정된 짧은 높이의 바위에서 로프 같은 확보 장비 없이 매트만 깔아서 등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매트를 크래시패드(Crash Pad) 또는 볼더링 매트(Bouldering Mat)라고 하며, 바닥에 깔아 추락이나 루트 정상에서 뛰어내릴 때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용어의 유리는 알피니즘이 번창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874년경 프랑스 퐁텐블로(Fontainbleau) 지역에서 볼더링이 시작되었으며, '블루 클라이머들(Bleau climbers)'이라 불리는 이들이 스포츠로 처음 등록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내에 볼더링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서울의 클라이머들이 프랑스 퐁텐블로를 다녀와 불암산 일원에서 처음 볼더링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 스포츠 클라이머들은 볼더링을 통해 근력 강화와 등반기량을 향상시키는 효과에 고무되어 볼더링 횟수를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역사적 토대로 보면 부산학생연맹의 볼더링대회 제안배경은 연맹인의 상호간의 등반기술 교류 및 유대 강화를 위해 연맹 차원에서 실시하여 왔던 '자연암장에서의 암벽대회'와 단위 산악부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였던 '인공암벽대회'가 선수 계층에 대비한 비선수의 상대적 소외감과 흥미유도의 실패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재학생을 중심으로 R.C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등반 실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고난이도의 자연암장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안되어 실시되었다.

이에 제1회인 2001년의 볼더링대회는 2001년 부산학생산악연맹의 활성화와 대외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당시 정성호 회장님의 선봉으로 정진열(경남정보대82) 기술이사의 4개월간의 준비를 위한 노력, 박민호 기획이사, YB대표상임위원인 부산외대 손석용 등의 발로 뛰는 홍보와 협찬을 이뤄낸 노력의 결과에 의해 부산역 광장에서 전국규모의 면모를 갖춘 1회를 시작으로 현재 8회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볼더링대회 개최연혁

회 차	연 도	장 소	회 장	수상자명단
1	2001년 11월 18일(일)	부산역광장	정성호	**남자부** 1위 천상일 (동의대 91) 2위 김명수 (경정대 97) 3위 박일균 (동과대 96) 4위 신병건 (교육대 86) 5위 박만교 (부산대 81) 6위 이승용 (부산대 95) 7위 박대영 (동과대 98) **여자부** 1위 유향미 (동주대 96) 2위 구희정 (춘해대 92) 3위 박수빈 (동주대 00) 4위 안소현 (부경대 01) 5위 황선희 (동주대 99)
2	2002년 10월 20일(일)	부산역광장	정성호	
3	2005년 11월 20일(일)	동래문화회관 인공암벽	신호진	
4	2012년 11월 04일(일)	동래문화회관 인공암벽	정지택	
5	2013년 11월 09일(토)	동의대 인공암장	정지택	
6	2014년 11월 8일(토)	동의대 인공암장	박병환	**남자부** 1위 정봉준 (동아대) 2위 안상민 (동의대) 3위 김민철 (인제대 **여자부** 1위 한성희 (경성대) 2위 황원정 (동의대) 3위 강은진 (동의대)
7	2015년 11월 07일(토)	동의대 인공암장	박병환	**남자부** 1위 동의대 한태수 (동의대) 2위 부경대 박원규 (부경대) 3위 부산대 김건하 (부산대) **여자부** 1위 교육대 안소연 (부산교대) 2위 동의대 강은진 (동의대) 3위 부산대 권예솔 (부산대)
8	2016년 11월 05일(토)	동의대 인공암장	이창호	**남자부 시상** 1위 차지환(경성대) 2위 박준형(동의대) 3위 허 윤(경성대) 장려 박수민(부산과기대) 끈기 박용연 **여자부 시상** 1위 안정희(부산대) 2위 김가형(부경대) 3위 하유정(부산대) 특별상 김희정(부경대83)

제1회 부산학생산악연맹 볼더링대회를 2001년 11월 18일 부산역 광장개최하다.

당시 부산학생산악연맹이 동구 초량동 한미해상빌딩 5층에 위치에 있는 관계로 부산역 광장에서의 장소 대여를 시도하여 동구청의 협조로 총 17개 대학의 남.여 78명의 선수가 참가하였고, 결승전으로 남자부 28명 여자부 16명 진출하였다. 수상결과로는 남자 7명, 여자 5명을 시상하여 많은 참여로 인하여 연맹인간의 기술교류와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부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개최하여 부산역을 오가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호응과 관심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는 등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대회가 잘 이루어졌으며 호응도 아주 좋아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 있었으며 산악인구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는 장으로 만들었다고 보인다.

1. 대회요강

대 회 명 : 제2회 부산학생산악연맹 볼더링 대회
일　　시 : 10월 20일 일요일 08:30 ~ 07:00
장　　소 : 부산역 광장
주　　최 : 부산학생산악연맹
참가자격 : 부산학생산악연맹 산하 17개 대학산악부 OB, YB
참가신청 : 2002년 10월 12일

2. 대회개요

경기종별 : 남자부, 여자부(OB, YB통합)
경기규정 : 대한산악연맹 등반경기규정 적용한다.
출전순서 : 예선전은 컴퓨터에 의한 추첨(당일발표)
준결승 및 결승전은 예선 및 준결승 성적의 역순에 의한다.
준 비 물 : 암벽화, 쵸크색, 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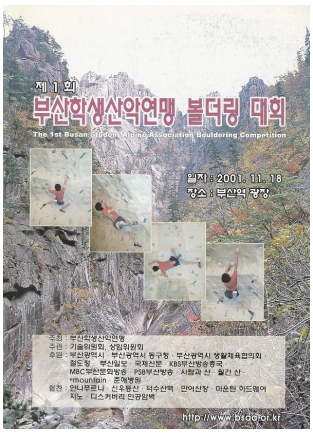
3. 시상내역

남자부

1위 - 장학금 300,000원, 상장　2위 - 장학금 200,000원, 상장
3위 - 장학금 100,000원, 상장　4위 - 상품, 상장,
5위 - 상품,상장　6위 - 상품　7위 - 상품

여자부

1위 - 장학금 200,000원, 상장　2위 - 장학금 150,000원, 상장
3위 - 장학금 100,000원, 상장　4위 - 상품, 상장　5위 - 상품, 상장







제2회 부산학생산악연맹 볼더링 대회를 2002년 10월 20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하다.

비가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는 개최되었으며 열기도 대단하였다. 더구나 1회 대회를 기반으로 2회에서는 각 단대의 관심과 협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심으로 연맹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찬조와 협찬도 많았음이 2회 대회의 특징이고 연맹의 자랑이라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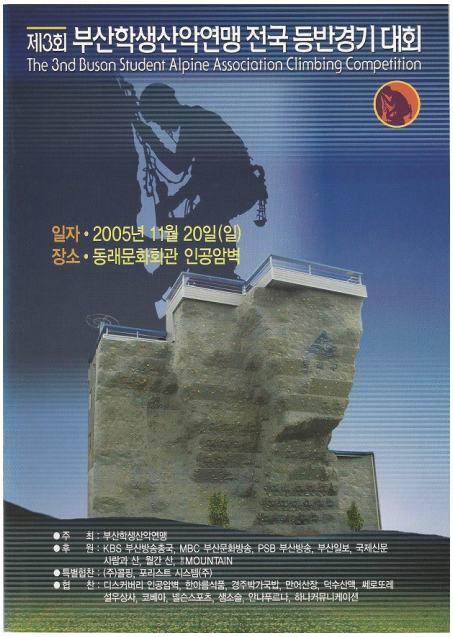




제3회 부산학생산악연맹 볼더링 대회 2005년 11월 20일 동래문화회관인공암장에서 개최하다.

2회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하던 대회를 부산학생산악연맹의 내부적인 이유로 2년간 개최를 못 하다가 2005년 정민규회장 재임시절 제3회 대회를 동래구 동래문화회관 인공암장의 오픈기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하였다. 동래문화회관 인공암벽장은 부산에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 왔던 부산 최초의 국제규격 인공암장이었다. 이번 대회는 준공검사 완료 후 1주일이 채지나지 않아 개최되어 더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국대학산악연맹 산하 대학산악부 전국 등반경기대회의 이름으로 일부 수정되어 개최되었으며 분야도 구분하여 난이도와 속도경기를 구분하였으며 장학금 액수도 많아지는 등 체계적인 대회를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11월이라 날씨도 다소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예선,준결선,결승 3회전으로 실시되어 남자부에서는 김명수, 이우경,김자하선수가 여자부에서는 김인경, 고정연선수가 예선과 결선류트를 모두 완등하여 슈퍼 파이널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특히 김자하 선수는 3회전 모두 완등하여 관중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속도전에서도 남자부는 김명수 여자부는 임혜경 선수가 우승하였다.

이번대회는 총 19명의 선수가 참여하였으며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출전하여 전국대회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위상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제4회 부산학생산악연맹 볼더링 대회를 2012년 11월 4일 동래문화회관 인공암장에서 개최하다.

2005년 제 3회대회를 마치고 6년간의 공백을 깨고 정지택 회장재임 시 부산학생연맹의 현실적인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볼더링 대회를 다시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큰 의미를 가진 대회였다. 제4회 대회부터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의 면모가 아닌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연맹인을 위한 대회로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장 배 대회로 개최되었으며 연맹인의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제5회 2013년 11월 9일 동의대 인공암장에서 볼더링대회를 개최하다.

5회 대회부터 부산학생산악연맹인 만의 대회이면서 11월의 대회 날짜로 인하여 날씨가 춥다는 여론과 함께 동의대학교 인공암장 오픈기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해서 동의대학교 인공암장에서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다.







제6회 2014년 11월 8일 동의대 인공암장

11월 8일 토요일 동의대 암장에서 아침 9시 30분에 집결하여 12시까지 예선을 걸쳐 오후 1시부터 본선을 진행하였다. 대회를 마친 후 바로 연맹제 행사로 부산학생교원으로 이동하였으며, 시상은 연맹제때 실시하였다.








제 7회 2015년 11월7일 동의대 인공암장









제8회 2016년 11월 5일 동의대 인공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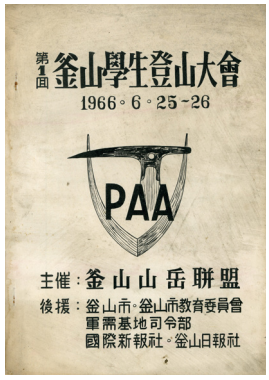
역대 부산학생등산대회 수상내역

연 월 일	대 회 명	대 상 산	수 상
1966년 06월 25 ~ 26일(1박 2일)	1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부산상고	남고부: 경남상고 남대부: 부산대A
1967년 06월 24 ~ 25일(1박 2일)	2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부산상고	남고부: 경남상고 여고부: 동래여고 남대부: 부산대A 여대부: 부산여대
1968년 05월 25 ~ 26일(1박 2일)	3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쌍계봉 불태령	남고부: 경남고 여고부: 동래여고 남대부:부산대 여대부: 부산여대
1969년 11월 15 ~ 16일(1박 2일)	4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고부: 경남고 여고부: 동래여고 남대부: 한국해양대 여대부: 부산여대
1970년 05월 22 ~ 24일(2박 3일)	5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신불산 취서산 시살등 염수봉	남고부: 경남상고 여고부: 덕명여상 남대부: 동아대 여대부: 부산여대
1971년 05월 14 ~ 16일(2박 3일)	6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신불산, 취서산 시살등 염수봉 일원	남고부: 동성고 여고부: 동래여고 남대부: 수산대 여대부: 부산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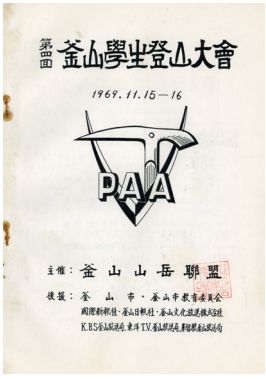
연 월 일	대 회 명	대 상 산	수 상
1972년 05월 04 ~ 06일(2박 3일)	7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취서산, 시살등, 염수봉	남고부: 경남고 여고부: 동래여고 남대부: 동아대 여대부: 부산여대
1973년 5월 25.~ 27일(2박 3일)	8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취서산, 시살등일원	남고부: 동성고 여고부: 선화여상 남대부: 동아대 여대부: 부산여대
1974년 06월 04 ~ 06일(2박 3일)	9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신불산, 취서산, 영취산, 염수봉 일원	남고부: 경남고 여고부: 선화여상 여대부: 부산여대
1975년 05월 10 ~ 12일(2박 3일)	10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신불산 영축산 원동 일원	남대부: 한국해양대 여대부: 부산대
1976년 05월 08 ~ 10일(2박 3일)	11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신불산 영축산 원동 일원	남대부: 수산대 여대부: 부산대
1977년 05월 14 ~ 16일(2박 3일)	12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신불산, 취서산, 염수봉 일원	남대부: 동아대
1978년 05월 13 ~ 14일(1박 2일)	13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경남공전
1979년 05.19 ~ 20일(1박 2일)	14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한국해양대
1980년 10월 24. ~ 26일(2박 3일)	15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신불산 영축산 원동 일원	
1981년 06월 12 ~ 14일(2박 3일)	16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신불산 영축산 원동 일원	남대부: 한국해양대 여대부: 부산여전
1982년 06월 12 ~ 14일(2박 3일)	17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신불산 영축산 원동 일원	남대부: 경남공전
1983년 06월 11 ~ 13일(2박 3일)	18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경남공전 여대부: 동주여전
1984년 06월 09 ~ 10일(2일간)	19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일원	남대부: 경남공전 여대부: 동주여전
1985년 06월 08 ~ 09일(2박 3일)	20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경남공전 여대부: 동주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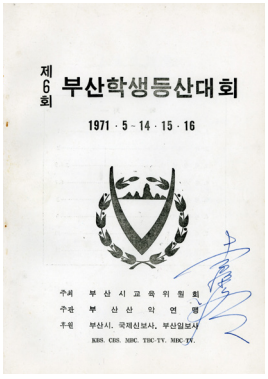
연 월 일	대 회 명	대 상 산	수 상
1986년 05월 24 ~ 25일(1박 2일)	21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수산대 여대부: 동래여전
1987년 05월 30 ~ 31일(1박 2일)	22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경남전문대학 여대부: 동래여전
1988년 06.11 ~ 12일(1박 2일)	23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부산교대
1989년 05월 13 ~ 14일	24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경남전문대학 여대부: 동래여전
1990년 05월 12 ~ 13일(1박 2일)	25회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동아대 여대부: 부산여전
1991년 05월 25 ~ 26일(1박 2일)	26회 부산학생등산대회 대학부:KBS부산방송본부장기 고등부:부산직할시 교육청 교육감기	금정산	여대부: 부산여전
1992년 05월 23 ~ 24일(1박 2일)	27회 부산학생등산대회 대학부:KBS부산방송본부장기 고등부:부산직할시 교육청 교육감기	금정산	남대부:경남전문대학 여대부: 동래여전
1993년 05월 14 ~ 15일(1박 2일)	28회 부산학생등산대회 대학부:KBS부산방송본부장기 고등부:부산직할시 교육청 교육감기	금정산	남대부: 경남전문대학 여대부: 동주여전
1994년 05월 14 ~ 15일(1박 2일)	29회 부산학생등산대회 대학부:KBS부산방송본부장기 고등부:부산직할시 교육청 교육감기	금정산	남대부:부산외국어대학 여대부: 동주여전
1995년 05월 20 ~ 21일(1박 2일)	30회 부산학생등산대회 대학부:KBS부산방송총국장기 고등부: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기	금정산	
1996년 05월 20 ~ 21일(1박 2일)	31회 부산학생등산대회 대학부:KBS부산방송총국장기 고등부: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기	금정산	남대부: 동의공전
1997년 05월 24 ~ 25일(1박 2일)	32회 부산학생등산대회 대학부:KBS부산방송총국장기 고등부: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기	금정산	남대부:경남전문대학 여대부:춘해간호대학
1998년 05월 23 ~ 24일(1박 2일)	33회 KBS기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동의공업대학 여대부:춘해간호대학
1999년 11월 2 ~ 3일(1박 2일)	34회 KBS기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동의공업대학 여대부:부산여자대학
2000년 06월 3 ~ 4일(1박 2일)	35회 KBS기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부산외국어대학 여대부: 동아대
2001년 09월 22 ~ 23일(1박 2일)	36회 KBS기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부산교대 여대부: 부산교대

연 월 일	대 회 명	대 상 산	수 상
2002년 05월 25 ~ 26일(1박 2일)	37회 KBS기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부산교대
2003년 05월 31 ~ 6월 1일(1박 2일)	38회 KBS기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부경대 여대부: 부산교대
2004년 09월 04 ~ 05일(1박 2일)	39회 KBS기 부산학생등산대회	금정산	남대부: 부경대 여대부: 부산교대
2005년 10월 01 ~ 02일(1박 2일)	40회 부산시장기 등산대회 1회 산악문화축제	금정산 외대운동장	남대부: 부경대 여대부: 동아대
2006년 09월 23 ~ 24일(1박 2일)	41회 부산시장기 전국등산대회 2회 산악문화축제	금정산 외대운동장	남대부: 한국해양대 여대부: 춘해대학
2007년 09월 01 ~ 02일(1박 2일)	42회 부산시장기 전국등산대회 3회 산악문화축제	금정산 외대운동장	남대부: 한국해양대
2008년 09월 20 ~ 21일(1박 2일)	43회 부산시장기 전국등산대회 4회 산악문화축제	금정산 외대운동장	남대부: 한국해양대 여대부: 부산대
2009년 10월 10~ 11일(1박 2일)	44회 부산시장기 전국등산대회 5회 산악문화축제	금정산 외대운동장	남대부: 부산대A 여대부: 부산대
2010년 10월 16~ 17일(1박 2일)	45회 부산시장기 전국등산대회 6회 산악문화축제	금정산	여대부: 부산교대
2011년 9월 24 ~ 25일(1박 2일)	46회 부산시장기 전국등산대회 7회 산악문화축제	금정산	남대부: 동아대 여대부: 동아대B











1967년 등산대회



1968년 5월 25일 등산대회



1971년 5월 14일 등산대회개회식



1971년 부산학생등산대회(동아대)



1971년 5월 14일 등산대회개회식(동아대)



1972년 5월 부산학생등산대회(부산대, 동아대)



1973년 5월 원동국민학교에서의 줄말타기



1973년 5월 14일 부산학생등산대회개회식



1990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우승기(동아대)



1990년 부산학생등산대회



1990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출발전



1990년 부산학생등산대회(금정산)



1992년 부산학생등산대회(춘해보건대)



1994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출발전



1994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우승(부산외대)

제3장

- 역대 합동 동계 훈련
- 역대 합동 하계 훈련
- 단대 동·하계훈련



1993년 동계합동 훈련(설악산)

1. 역대 합동 동계 훈련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75년 01월 10~20일	9박10일	지리산 (1915m)	합동훈련 및 변형극지법 등반	김동인 회장	
대 원	김중환(부산대72), 조해래(부산대72), 김태원(부산대74), 이기석(부산대74) 배병수(동아대72), 김용국(동아대73), 옥재수(동아대74), 한계희(동아대74), 김선기(동아대71), 곽문영(동아대74), 이운석(동아대74), 이은희(동아대72), 정의철(수산대, 현 부경대), 박동기(수산대74, 현 부경대)				
운 행	부산역-진주-의탄-칠성동-옥녀탕-칠선폭포-마폭-톱날능선-정상-등선폭포- 추성리-함양-부산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75년 12월 29일~ 01월 19일	21박22일	설악산 (1708m)	설상훈련 및 설동훈련, 각 단위산악부간의 팀웍강화	김동인 회장	
지도위원	성산, 트레이너 송준송				
학생대장	이기석(부산대74)				
대 원	김두억(동아대71), 김태권(수산대73, 현 부경대), 이승렬(부산대74), 신수정(부산대74) 문갑순(부산대74), 배상보(부사대75), 신양수(부산대75), 하재규(동아대75) 김치근(부산대75), 박영도(부산대75), 정민규(부산대75), 이성욱(수산대75, 현 부경대)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77년 01월 20~30일	9박10일	덕유산 (1574m)	덕유산종주, 설상훈련 및 설동훈련, 각 단위산악부간의 팀웍강화	이효문 (부산대74)	이운석(동아대) 이기석(부산대74)
지도위원	성산(대륙산악회), 김부갑(청봉산악회)				
조 장	길광호(동아대70), 김두억(동아대71), 김종환(동아대75), 배옥근(수산대)				
대 원	배병수(동아대72), 김승대(동아대70), 남희갑(동아대7), 김태원(부산대) 이수열(수산대74, 현 부경대)				
운 행	부산역-진주-함양-영각사-남덕유-북덕유-백련사-무주-영동-부산				

일 시	기 간	장 소	목 적	대 장	부대장
1978년 01월 18~26일	8박9일	지리산 (1915m)	I.C 및 내한훈련, 설상훈련 각 단위산악부간의 팀웍훈련	신양수 (부산대)	김치근 (부산대)
지도위원	김옥배 지도위원				
대 원	정홍덕(해양대74), 권헌태(동아대77), 이종민(해양대76), 이장한(부산대77), 이창규(부산대77)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79년 01월 08~23일	15박16일	설악산 (1708m)	다양한 루트파인딩 고산등반을 위한 체력훈련 내한훈련,하중훈련 국산장비와 식량의 활용검토 및개선방안		
단 장	최 욱(부회장)				
대 원	이창규(부산대77),이남국(경남공전77,현 경남정보대),이정구(부산교대77) 김윤대(동아대73),조광호(해양대75),김영선(부산여대78,현 신라대) 이장한(부산대77),하문근(부산대79),주시정(동아대74),강영희(부산여대78,현 신라대) 우성만(부산교대76),신호진(부산교대74),김영현(부산대77),박광효(동아대78) 조영인(경남공전, 현 경남정보대).박영도(부산대75),강점식(경남공전78,현 경남정보대),박승태(부산교대),조인호(경동공전,현 동의대)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80년 01월 18~30일	12박13일	한라산 (1950m)	제3차 히말라야원정 훈련	김두억 (동아대)	이승렬 (부산대)
강 사	단장 김동인, 부단장 최욱, 지도위원 곽수웅,권경업,전명찬				
조 장	이승렬(부산대74),주시정(동아대74),김태원(경남공전74, 현 경남정보대) 정홍덕(해양대74)				
대 원	이기석(부산대74),정기태(경남공전79, 현 경남정보대),이종민(해양대76), 이남국(경남공전74,현 경남정보대),성환균(성지공전77,현 부산과기대), 강영희(부산여대78,현 신라대), 정민규(동아대75), 배한일(수산대78,현 부경대)				
운 행	부산-페리호-제주-탐라계곡B.C-장구목-한라산-백록담-페리호-부산				

일 시	기 간	장 소	목 적	대 장	부대장
1981년 01월 09~31일	12박13일	한라산 (1950m)		최 욱	
지도위원	곽수웅지도위원, 권경업지도위원. 김두억(동아대71)				
대 원	주시정(동아대74),박찬일(해양대79),김태용,홍보성(부산공전74, 현 부경대), 정기태(경남공전79,현 경남정보대),이행윤(동원공전,현 동명대),정민규(동아대75), 임광섭(해양대78),최태식(성지공전80,현 부산과기대),임영철(해양대77), 강미진(부산여대78,현 신라대),강영희(부산대78,현 신라대)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82년 01~02월		지리산 (1915m)	연맹동계훈련		
대 원	주시정(동아대74),정홍덕(해양대74),이승렬(부산대74),정민규(동아대75), 이남국(경남공전77,현 경남정보대),성환균(성지공전,현 부산과기대), 임광섭(해양대78),강영희(부산여대78,현 신라대)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84년 12월 29일~1985년 01월 08일	9박10일	설악산 (1708m)	I.C 및 종주훈련	김영학 (수산대)	엄주상 (해양대)
대 원	임두희(부산교대81), 송일영(부산여전, 현 부산여대), 최무순(부산여전), 김영순(부산여전), 전정호(해양대82)				
운 행	부산역-십이선녀탕-막탕-I.C-대승령-수렴동-쌍폭-I.C-봉정암-희운각-죽음의계곡-I.C-천불동-잦은바위골-I.C-부산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86년 01월 02~05일	3박 4일	천황산 표충사 일원	기초 I.C 및 각단대별 우호증진	박천수 (동아대)	정찬도
대 원	최태신(부산교대86), 최미순(부산여전), 송일영(부산여전), 허둘남(부산여전), 최윤선(부산여전), 정기일, 신숙경, 김호관(수산대81, 현 부경대), 임두희(부산교대81), 우성만(부산교대76), 이창호(부산대80), 이성규(수산대80)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87년 02월 08~11일	3박 4일	밀양 석골사	기초 및 각 단대별 우호증진	박천수 (동아대)	이반형 (동아대)
지 도	박천수(동아대80)				
대 원	박화룡(수산대81, 현 부경대), 최태신(부산교대86), 박기정(수산대, 현 부경대) 김호관(수산대81, 현 부경대)				
운 행	부산-밀양-석골사-선녀폭-운문산-남명리-밀양역-부산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90년 01월 05~11일	6박7일	설악산 (1708m)	저학년들의 기초 설상 및 빙폭훈련 연맹합동 등반을 통한 팀웍 강화	강승구 (부경대)	
강 사	조대현				
대 원	목태임(춘해대88), 김인숙(동아대82), 백진국(동아대85), 성기진(동아대86) 손근형, 조벽래(동아대88). 이행순(동아대88), 고문희(동아대88), 김달현(동아대89) 이석호(동아대80) 등				
운 행	죽음의 계곡-용소골-잦골-대청봉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91년 01월 08~15일	7박 8일	설악산 (1708m)	저학년들의 기초 설상 및 빙폭훈련 연맹합동 등반을 통한 팀웍 강화	백진국 (동아대85)	
강 사	최태신(부산교대86), 김석수(부산교대86), 강성식(부산교대87), 민영도(부산대82), 안선철(해양대87), 차광훈(부산교대87)				
조 장	고문희. 이상수				
대 원	김혜은(동아대92), 정광호(부산공업대88, 현 부경대), 김후성(부산교대89) 하태웅(인제대88), 정태권, 조대현(동아대86), 차광훈(부산교대87)조벽래(동아대88) 오우섭(해양대88)				
운 행	죽음의 계곡-용소골-잦골-대청봉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92년 01월 07~14일	7박 8일	설악산 (1708m)	기초 설상 및 빙벽 훈련 연맹 합동 등반을 통한 TeamWork 강화		
강 사	정광용(해양대88), 이윤현(해양대88), 고문희(동아대88), 김석수(부산교대86) 남현욱(부산공업대86, 현 부경대)				
대 원	이행순(동아대88), 김형준, 손상진, 정대성, 장선희, 정영숙, 이재규, 강윤경 하태웅(인제대88)				
운 행	죽음의 계곡-용소골-잦골-대청봉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93 01월 05~11일	6박7일	설악산 (1708m)	각 대학 간 기술 교류 및 합동 등반을 통한 팀웍강화, 연맹의 균형적 발전		
운 행	1조 B.C-희운각-공룡능선-마등령-비선대-B.C 2조 B.C-만경대-화채능-대청봉-봉정암-희운각-B.C 2조 B.C-설악골-공룡능선-희운각-B.C 4조 B.C-죽음의 계곡-대청-봉정암-수렴동-마등령-비선대-B.C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94 01월 07~12일	5박6일	설악산 (1708m)	각 대학 간 기술 교류 및 합동 등반을 통한 팀웍강화, 연맹의 균형적 발전		
대 원	서은영(동아대92), 박종민, 류보현(동아대89), 김병진(동아대88), 류혜련(동아대92) 전미영, 조벽래(동아대88), 김달현(동아대89), 조규성(동아대91)				
운 행	죽음의계곡-용소골-토막골-토왕폭				

일시	기간	대상산	목적	대장	부대장
1994년 12월 23일~ 1995년 1월 1일	9박10일	백두산 (2744m)	백두산 천문봉 및 천지등반 전대원 장백폭포 등반 백두산 자연보호 및 생태계 연구 용정동포 마을방문 금정산과 백두산의 만남	정민규 (동아대75)	이상헌 (경남공전77, 현 경남정보대)
지도위원	황순철(부산여전 지도교수)				
대 원	하태웅(인제대88), 정지택(경정대77), 최화영(부산공업대89, 현 부경대) 박준범(부산공업대89, 현 부경대), 초라미(부산교대92), 박범식(동아대92) 박용호(부산정보대93, 현 부산과기대), 전윤주(부산공업대90, 현 부경대) 박선희(춘해보건대92), 구희정(춘해보건대92), 최가현, 한달권(부산외대88)				
운 행	부산-서울-북경-연길-백두산-두견산장-기상대-장백폭포-천지-송하-연길- 북경-서울-부산				

일시	기간	대상산	목적	대장	부대장
1995년 1월 5~12일	7박8일	설악산 (1708m)	연맹인 간의 팀웍강화,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벽기술 전파 및 습득		
강 사	박준범(부산공업대89, 현 부경대), 구진국(부산공업대89, 현 부경대), 류보현(동아대89) 최현(수산대89, 현 부경대), 김근영(부산공업대89, 현 부경대) 정광호(부산공업대88, 현 부경대), 김부근(해양대90), 김대성(부산공업대82, 현 부경대)				
대 원	최화영 외 65명				
운 행	토왕골-죽음의계곡-잦골-토막골-육담폭				

일시	기간	장 소	목적	대장	부대장
1995년 12월 21~23일	3일	동의 과학대	95동계등산학교 이론교육		
강 사	오점량(고문), 정민규(동아대75), 차광훈(부산교대87), 하정호(부산대82) 구진국(공업대89, 현 부경대), 조벽래(동아대88), 김규태(동아대82), 황순철(고문) 유영수(부산산악회)				
교육내용	등산예절, 등반사(부산지역해외원정사), 동계막영법(식량장비), 기술등반(픽켈, 아이젠 등) 매듭법, mixed climbing동계조난 및 대책, 산악사진과 기록, 스키강의				

일시	기간	대상산	목적	대장	부대장
1996년 1월 5~11일	6박7일	설악산 (1708m)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벽 기술전파 및 습득 극기훈련을 통한 정신력 강화 대학산악인의 자질 향상 연합을 통한 등반목적 달성	김부근 (해양대90)	
대 원	박범식, 황태웅, 김병진, 조용식, 장수영, 조은혜, 정현주, 김태완, 이재규, 정대성, 황인철				
운 행	죽음의계곡-용소골				

일시	기간	장소	목적	대장	부대장
1996년 12월 22~23일	2일	동의 공업대			
강 사	정민규(동아대75), 차광훈(부산교대87), 구진국(부산공업대89, 현 부경대) 류보현(동아대890, 이남국(경남공전77, 현 경남정보대)				

일시	기간	대상산	목적	대장	부대장
1997년 1월 5~11일	6박7일	설악산 (1708m)	96동계등산학교 실기 연맹훈련을 통한 결속력 강화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벽 기술전파 및 습득 대학산악인의 자질향상 극기훈련을 통한 정신력 강화	정경두 (동의 과학대92)	
강 사	박종규(부산대90), 박종화(부산교대90), 김대성(부산공업대92, 현 부경대) 진동철(동아대92), 최가현(부산여전93, 현 부산여대), 박상희(수대91, 현 부경대) 성낙윤(공업대92, 현 부경대), 유영재(부산전문대89, 현 부산과기대), 김부근(해양대90) 박기표(해양대92), 김근영(부산공업대89, 현 부경대)				
조 장	박광범, 박신중, 배홍, 장명운, 박용진, 박근찬, 우윤영				
대 원	**동주대 :**유향미, 김미성, 박성미, 박미숙 **부여전:**이현경 **동래여전:**강은화 **해양대:**박종철, 조선경, 곽재웅, 이진용, 김연승, 이치원 **지산:**김명주(95), 김선경 **교대:**배홍, 이진희, 서동업, 박신중(95), 이종해(95), 장병재, 배효일, 김수진, 서진희, 정혜진(95), 우윤영(93), **동의공전:**강명균, 김효종, 배미란, 박용진(93)박광범, 김일형(93) **동아대:**고현선, 박현주, 조은혜, (95), 장수영(95), 박종민(93), 엄동환(93), 박종환(93), 조규선(93) **부산전문대:**최철영, 강정훈 **부산외대:**남유정, 김민정(95), 임현주(95), 손종욱(91), 오상현(92) **수산대:**장명, 오주영, 김선호, 박주현(93) **부산대:**이진민, 김정이, 강문희, 하원춘(95), 신미순, 최혜정, 김선희, 류성진(92) **부산공업대:**장정석, 이동진, 김면조, 박정영, 장은성, 최경진, 김정아, 박근찬(92), **춘해간전:**김유희, 김은영, 이승화(95), 이언화(95), 정은희(95)				
운 행	초급 A, B, C, D, E, F반여자, 중급반남자, 중급반 운영 양폭산장B.C-죽음의 계곡-용소골-잦은바위골-칠선골-소토왕골-설악골-토왕골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99년 01월 06~12일	6박7일	설악산 (1708m)	연맹훈련을 통한 결속력 강화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벽 기술전파 및 습득 대학산악인의 자질향상	장종욱 (부경대93)	
강 사	한달권(부산외대88), 조규성(동아대93), 김대성(부산공업대92, 현 부경대) 박주현(수산대92, 현 부경대), 임동한(동아대93), 이성원(부산외대94) 구동회(부산공업대94, 현 부경대), 이병석(부산외대91), 남정모(동아대94) 정경두(동의과학대92), 이상무(동의과학대), 김영찬(부산공업대93, 현 부경대) 박용진(동의과학대93)				
대 원	배병철, 오희진, 박수정, 김보영, 문병현, 오지철, 서성호, 이미현, 이동철, 이지연, 박영옥 박진화, 진영기, 이예진, 오종일, 박정아, 김하정, 강은주, 구정회, 이영화, 김성배, 권오종 정은경, 유희대, 이영학, 박현주, 이은실, 배상일, 조혜진, 김희대, 조윤정, 최상진, 박중하 박희순, 김태훈, 유현진, 유인식, 배동훈, 김종현, 이승룡, 김병진, 임성오, 변주영, 이시엽 김석환, 서덕교, 김환세, 이수석, 유향미, 김지연, 이정숙				
운 행	부산-양폭산장-죽음의계곡-용소골-잦은바위골-토왕골-토막골-대청봉-속초-부산 초급반 1 ~ 6조 운영, 초급반훈련A, B팀 훈련, 중급반 1, 2, 3조 운영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00년 01월 07~23일	6박7일	설악산 (1708m)			
강 사	구진국(부산공업대89, 현 부경대), 김환세(해양대95), 김재연(수산대93, 현 부경대) 정경두(동의과학대92)				
대 원	이시엽, 김병진, 박희순, 김경아, 박현주, 박수정, 유승식, 임동한, 황선희. 신혜진, 한미숙				
운 행	죽음의계곡-용소골-대청봉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01년 01월 08~16일	7박8일	설악산 (1708m)	연맹훈련을 통한 결속력 강화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상 기술전파 및 습득 대학 산악인의 자질향상	손석용 (부산외대96)	
강 사	김인숙(동아대82), 장종욱(부경대93), 이성원(부산외대94), 허기용(부경대95) 윤종호(동아대84), 김재연(부경대93), 김선호(부경대96)				
조 장	박대영, 소진호, 장재용				
대 원	이정은, 김태환, 조민우, 안소현, 정형순, 김남구, 김동구, 전혜영, 최정호, 이동철, 백광윤, 최낙현, 박중하				
운 행	죽음의 계곡-용소골-잦골-대청봉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01년 12월 26~28일	3일	외대	동계등산학교를 위한 IndoorClimbing		
대 원	15명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02년 01월 08~16일	8박9일	설악산 (1708m)	초급, 중급반 합동훈련		
대 원	19명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04년 01월 29일 ~02월 05일	8박9일	설악산 (1708m)	동계합동등반을 통한 동계기술 습득과 유대강화		
강 사	전상은(교대85),조벽래(동아대88),김재연(부경대93)				
대 원	김성배,김주성,방성훈,장재용 외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05년 01월 05~13일	7박8일	설악산 (1708m)	연맹훈련을 통한 결속력 강화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상 기술전파 및 습득 대학 산악인의 자질향상	전상은 (교대85)	
강 사	전상은(교대85),조벽래(동대88). 김재연(부경대93)				
조 교	강대희(부경대99), 변정훈(동의공대99)				
대 원	이형탁(교대04),오세인(동대04),김도현(동의공대04),박수경(동대04),정대영(교대00), 김동구(동의공대01),임정아(교대03),김태환(부경대00),김태철(부경대00), 전혜영(부경대01),김남구(동아대01),강대희(부경대99),김재현(춘해00), 최준백(춘해00)				
운 행	소토왕골-토왕골-비룡폭포-토막골-잣은바위골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06년 01월 08일~01월 15일	7박8일	설악산 (1708m)			
강 사	김규태(부산대82),전상은(교대85),최태신(교대84),김태철(부경대00), 김재연(부경대93),백광윤(부대98),김석수(교대86),배홍(교대96),최민수(96), 배효일(교대96),소진호(부경대98)				
조 장	박영남(해대04),조명훈(해대04),이성환(부경대00),김성배(동아대98),				
대 원	주형철(동과대05),박아람(해대05),김경친(부경대05),안선영(교대05), 김진정(츤헤대05),이호주(부경대05),김보연(해대05),박기헌(부경대05), 구수연(춘해대05),박하나(동아대05),조창렬(부산대00),김수원(부경대00), 최정호(해대01),이형탁(교대04),김태환(부경대00),김남구(동아대01)				
운 행	부산-양폭산장B.C-건폭-토막-비선대산장-잣골-토왕-성림산장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07년 01월 21~29일	8박9일	설악산 (1708m)	연맹훈련을 통한 결속력 강화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상 기술전파 및 습득 대학 산악인의 자질향상 합동 등반을 통한 각 단대간 교류		
강 사	차광훈(부산교대87), 김규태(부산대82), 이성환(부경대00), 최정호(해양대00) 소진호(부경대00), 김태철(부경대98)				
조 장	홍정의, 박정태				
대 원	조광운, 문은지, 이득선, 황지연, 윤선환, 박양희, 조정형, 박용주, 이세현, 구수학, 박아람				
운 행	용소골-죽음의계곡-대청-토막골-잦은바위골-칠선골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08년 01월 27~ 02월 03일	7박8일	설악산 (1708m)	연맹훈련을 통한 결속력 강화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상 기술전파 및 습득 대학 산악인의 자질향상 합동 등반을 통한 각 단대간 교류		
강 사	김재연(부경대93), 백광윤(부산대98), 김태철(부경대00), 김남구(동아대01)				
대 원	박정태, 윤정민(부산대03), 이세현(해양대04), 오세인(동아대04), 이영민, 정장현, 배태건				
운 행	잦은바위골B.C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09년 01월 18~23일	5박6일	설악산 (1708m)	연맹훈련을 통한 결속력 강화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상 기술전파 및 습득대학 산악인의 자질향상	하태웅 (인제대88)	
강 사	백광윤(부산대98), 김재연(부경대93), 서성호(부경대98), 최정호(해양대01)				
대 원	부산대:윤정민(03), 구수학(03), 김양현(04), 장병길(06), 고은빈(06), 정진희(08) 해양대:홍정의(06), 최진호(07), 이윤석(08) 교대:서상호(07), 지혜진(08) 부경대:홍정의(06), 최진호(07), 이윤석(08) 인제대:소기선(03) 동아대:오세인(04) 동의과학대:주형철(05)				
운 행	부산-설악산-소공원-양폭-죽음의계곡-대청-양폭-비선대-토막골-C지구-부산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0년 01월 23~31일	8박9일	설악산 (1708m)	연맹훈련을 통한 결속력 강화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상 기술전파 및 습득 대학 산악인의 자질향상 합동 등반을 통한 각 대학간 교류	김도현 (동과대 04)	
강 사	전상은(교대85), 오세인(동아대04), 김석수(교대86), 윤정민(부산대03), 소기선(인제대03), 이세현(해양대04), 김재연(부경대92)				
대 원	문지현(부산대09), 허문철(부산대09), 장동호(동아대09), 조미희(인제대09), 김시라(동아대09), 이경영(동아대09), 박성환(부산대06), 송경빈(부경대08), 심현섭(해양대08), 정진희(부산대08), 이종록(부산대06), 이명종(해양대07), 배성룡(해양대08), 지혜진(교대08)				
운 행	부산-설악산-소공원-양폭-죽음의계곡-대청-양폭-비선대-토막골-C지구-부산				

일 시	기 간	장 소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1년 01월 16~23일	7박8일	설악산 (1708m)	연맹훈련을 통한 결속력 강화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상 기술전파 및 습득 대학 산악인의 자질향상 합동 등반을 통한 각 대학간 교류		
강 사	전상은(부산교대85), 김재연(부경대93), 백광윤(부산대98), 서성호(부경대98) 김도현(동과대04)				
대 원	이동열(해양대06), 윤하석(해양대08), 최민수(해양대100, 김시라(동아대09), 이경영(동아대09), 박수진(동아대09), 최상우(동아대10), 조형석(동아대10), 박진화(부산교대08), 백은진(부산교대10), 한혜정(부산교대10), 정룡(부산대07), 김여정(부산대08), 김민성(부산대09), 김기풍(부산대10), 김현미(부산대10)				
운 행	버스로 이동-소공원-양폭-죽음의 계곡-잦은바위골-속초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2년 01월 26~ 02월 02일	7박8일	설악산 (1708m)	연맹훈련을 통한 결속력 강화 올바른 산악정신의 정립 빙벽, 설상 기술전파 및 습득 대학 산악인의 자질 향상 합동 등반을 통한 각 단대간 교류		
강 사	김재연(부경대93), 백광윤(부산대98), 김동구(동의과학대01), 박성환(부산대06)				
대 원	유창윤(동아대11), 이경영(동아대09), 김시라(동아대09), 조현영9동아대11), 서수민(동아대11), 이유리(동아대11), 강승희(동과대11), 이상일(부산대08), 김현미(부산대10), 이우람(부산대11), 박준영(부산대11), 이경직(부산대11), 조현정(부산대11), 조수아(부산대11), 이정은(부산대11), 박동익(인제대08), 김민지(춘해보건대11), 김민정(춘해보건대11), 박정현(한국해양대11)				
운 행	소공원-소토왕골-토왕폭-잦은바위골-50폭-100폭-속초				
대 원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4년 01월 18~27일	8박10일	밀양 얼음골 한라산 일원	단결,협동, 인내를 통한 바람 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OB&YB 합동 등반을 통한 여러 대학별 선,후배간의 교류 활성화 한라산 장기등반을 통한 설산 경험으로 흰 산에 대한 열망 고취 및 대학 산악부원 으로서의 긍지 공유 얼음골 폭포 등반을 통한 빙벽등반에 대한 열망 고취		
강 사	김재연(부경대93),이호주(부경대05),최진호(부경대07),백광윤(부산대98)				
대 원	한성희(경성대120,김난희(경정대14) 김연주(동아대11),맹규노(동아대11) 박희진(동아대12),정봉준(동아대12) 김은총(부산교대14),박종흥(부경대11) 강도욱(부경대11),김인엽(부경대13) 민인덕(부경대14),김민성(부산대09) 김세훈(부산대14),박지훈(부산대14) 황원정(동의대14),강은진(동의대14) 한태수(동의대14),김민철(인제대13) 안효진(한국해양대13),이규철(한국해양대14)				
운 행	얼음골-선녀폭-용진각대피소-장구목-관음사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5년 01월 20~28일	8박9일	설악산 (1708m)	단결,협동, 인내를 통한 바람직한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OB&YB 합동 등반을 통한 여러 대학별 선,후배간의 교류 활성화 폭포 등반을 통한 빙벽등반에 대한 열망 고취	이재훈 (부경대 12)	
강 사	김규태(부산대82),백광윤(부산대98),김민성(부산대09),전상은(부산교대85) 김재연(부경대93),송경빈(부경대08)				
대 원	이혜정(경성대15),황유경(경성대15) 김난희(경정대14),임기영(동의대12) 강은진(동의대14),이재훈(부경대12) 김인엽(부경대13),민인덕(부경대14), 서정화(부산대12),박지훈(부산대14) 김건하(부산대15),최형택(부산대15) 이규철(해양대14),권경래(해양대15)				
운 행	소토왕골-잦은 바위골-비선대-하이디 밸리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6년 01월 20~28일	8박9일	설악산 (1708m)	단결,협동, 인내를 통한 바람직한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OB&YB 합동 등반을 통한 여러 대학별 선,후배간의 교류 활성화 폭포 등반을 통한 빙벽등반에 대한 열망 고취	이재훈 (부경대 14)	
대 원	12이재훈,서정화,임기영,13김인엽,14강은진,김난희,민인덕,박지훈,이규철,15권경래,김건하,이혜정,최형택,황유경				
운 행	부산-속초(설악산)-설악산 소토왕골-잣은바위골-50폭-100폭-속초(설악산)-부산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7년 02월 03~13일	5박6일	얼음골 한라산	결,협동, 인내를 통한 바람직한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OB&YB 합동 등반을 통한 여러 대학별 선,후배간의 교류 활성화 폭포 등반을 통한 빙벽등반에 대한 열망 고취	이재훈 (부경대 14)	
대 원	맹규노(동아대12),김태진(동아대16),박상준(동아대16),최지현(동의대16), 박종흥(부경대11),김가형(부경대16),김강민(부경대16),이지환(부경대16), 이재희(부산대09),박동구(부산대16),이두영(부산대16),김희석(해양대12), 김지현(해양대15),배성은(해양대16)				
운 행	밀양 얼음골 일원, 용진각-장구목일원				

동계합동등반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동계합동등반은 때론 합동훈련으로, 때론 동계등산학교로 지리산과 설악산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던 우렁찬 함성과 함께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학 간 간극을 좁히고 엄청난 결속력을 만들어 준 동계합동등반은 대학산악부라면 당연히 해야 할 통과의례였다.

1970년대

이 시기 6, 70년대 창립 대학산악부들은 자체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았다. 연맹의 발전과 단합을 위하여 합동등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김동인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연맹합동훈련이 태동하는 시기였다.

1975년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9박 10일 동안 지리산일원에서 부산대, 동아대, 수대 산악부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코스는 칠성동, 옥녀탕, 칠선폭포, 정상, 등선폭포 등이었다. 김동인회장을 위시하여 곽수웅, 조남철 지도위원, 대원으로는 부산대 김중환, 조해례, 김태원, 이기석이 참가하였고, 동아대 배병수, 김용국, 옥재수, 한계희, 김선기, 곽문영, 이운석, 이은희가 참가하였고, 수산대 정의철, 박동기, 조정호가 참가하였다.

1977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덕유산 일원에서 부산학생산악연맹 적설기훈련이 실시되었다. 훈련계획서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훈련이 실시되었다. 성산을 지도위원으로 대장 부산대 이효문, 부대장 동아대 이운석, 조장 동아대 길광효, 김두억, 김종환, 수산대 배옥근, 조원 수산대 이수열, 동아대 김승대, 남희갑, 부산대 김태원, 이수열, 아주공대 이정필, 기록촬영 동아대 배병수가 참가하였다. 코스는 영각사, 남덕유, 북덕유, 백련사였다.

1978년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지리산 일원에서 집중식 등반 및 I.C 훈련, 내한훈련, 설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코스는 백무동계곡, 장터목산장, 천왕봉이었다. 대장 부산대 신양수, 부대장 동아대 김종환, 운행, 기획 수산대 배옥근, 장비 부산공전 김영택, 식량 동아대 이운석, 기상 부산대 이



1975년 1월 18일 정상 공격 후 중봉골로 하산 중 심설에 묻혀서



1978년 1월 16일 사태골 전진캠프에서의 저녁

장한, 기록 해양대 이종민, 회계 부산대 이창규, 대원 부산대 김치근이 참가하였다.

1979년부터는 히말라야 파빌봉원정을 위한 훈련을 겸해 동계훈련이 실시되었다. 1월 8일부터 23일까지 설악산일원에서 다양한 루트파인딩, 고산등반을 위한 체력훈련, 내한훈련, 하중훈련, 국산장비와 식량의 활용검토 및 개선방안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대원으로는 부산대 박영도, 이장한, 이창규, 김영헌, 하문근, 동아대 김윤대, 주시정, 배병수, 박광효 등이 참가하였다.

1980년대

초기 김동인 회장의 공약으로 히말라야 파빌봉 원정 훈련과 겹쳐 동계 합동훈련이 활성화되던 시기였으나 안타깝게도 파빌봉 원정 후유증으로 중반기 침체를 거쳐 하반기 새로운 빙벽등반 기술과 장비의 발전으로 제2의 도약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1980년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제3차 히말라야 원정훈련이 한라산에서 실시되었다. 단장 김동인회장, 부단장 최욱, 지도위원 곽수웅, 권경업, 전명찬, 대장 동아대 김두억, 부대장 부산대 이승렬, 조장 동아대 주시정, 경남공전 김대원, 해양대 정홍덕, 수송 부산대 이기석, 장비 경남공전 이남국, 의료 부산여대 강영희, 연료 동아대 정민규, 식량 수산대 배한일, 대원 경남공전 정기태, 해양대 이종민, 성지공전 성환균이 참가하였다.

1984년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설악산 일원에서 기초 IC 및 종주



훈련 목적으로 대장 수산대 김영학, 부대장 해양대 엄주삼, 의료 및 식량 교대 임두희, 기록 교대 송일영, 기록 및 촬영 부산여전 최미순, 식량 교대 김영순, 장비 해양대 전정효가 참가하였다.

1986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기초 I.C 및 각 단대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대장 동아대 박천수, 부대장 수산대 정찬도, 지도 교대 우성만, 부산대 이창호, 수산대 이성규, 장비 교대 최태신, 의료 부산여전 최미순, 운행, 기획 교대 송일영, 기록 부산여전 허둘남, 식량 수산대 정기일, 대원 부산여전 신숙경, 최윤선, 수산대 김호관, 교대 임두희가 참가하였다.

1987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밀양 석굴사 일원에서 기초 및 각 단대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지도 동아대 박천수, 대장 동아대 이반형, 기획 수산대 박화룡, 장비 교대 최태신, 식량 수산대 박기정, 기록의료 수산대 김효경이 참가하였다.

1989년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설악산 일원에서 황순철 지도교수, 대장 부산대 안호덕, 부대장 교대 김대홍, 지도 신남식, 황덕윤, 전상은, 장비 동아대 조대현, 의료 춘해 이상주, 기록 교대 신병건, 대원 춘해 임정순 등 OB 8명, YB 40여 명이 참가하였다.







1990년대

이 시기 부산학생산악연맹 동계합동등반이 꽃을 피운 시기이며,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등산학교의 틀을 갖추어 갔다. 많은 참가 인원으로 인해 타 시도 학생산악연맹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으며, 연맹합동훈련이 끝나도 대부분 가맹대학들이 남아 연맹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층 발전된 기술을 연마하여 봇물 터지듯 토왕폭을 완등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해외원정이라는 큰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저학년들의 기초 설상 및 빙폭훈련과 연맹합동등반을 통한 팀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설악산일원에서 실시하였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세분화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후 우수교육생에게 시상하는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93년 이해에는 강사 11명, 교육생 70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급 등반이었다. 양폭산장 캠프사이트에 자리가 없어 화장실 옆에까지 베이스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엄격한 강사들에게 교육받은 92학번 초급반 중 글리세이딩을 하다 용소골에서 낙상사고가 났었다. 꽤 높은 곳에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과인지 활락정지를 잘 해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이 두 교육생은 그해 최우수 교육생과 우수 교육생을 수상하였다.



합동등반의 전성기는 또 다른 결실을 가져왔다. 1994년 연맹합동 동계



백두산등반이었다. 황순철교수, 정민규회원이 주도하여 1982년 파빌봉 이후 연맹의 이름을 걸고 등반을 준비했다. 히말라야는 아니지만 연맹의 발전과 단결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1995년은 연맹합동등반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론교육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동의과학대 강의실에서 강사로 등산예절에 관해 오점량 한국산악회 고문, 등반사에 관해 정민규 동아대OB, 기술등반에 관해 차광훈 교대OB, 동계막영법에 관해 하정호 경남정문대OB, 매듭법에 관해 구진국 부산공업대, Mixed Climbing에 관해 조벽래 동아대OB, 동계조난 및 대책에 관해 김규태 부산대OB, 산악사진과 기록에 관해 황순철 부산여전 지도교수이자 본 연맹 고문, 스키에 관







해 유영수 부산스키협회 전무를 초빙하여 유익한 내용들을 강의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동계등산학교 출신들의 자원이 풍부해져 연맹행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 시기 행사들이 풍성해지기도 했고 자원해서 후배들을 교육하는 강사로 참가하는 전통이 굳어져 갔다.

2000년대

이 시기는 1990년대의 황금기를 이어받아 동계등산학교의 맥을 이어오고자 했다. 이 시기도 설악산 일원에서 대부분 실시하였다. 타 단체들은 줄어드는 신청 인원으로 인해 동계등산학교가 하나둘 사라질 때도 우리 연맹은 꾸준히 실시하였다. 각 단위 대학산악부에 신입생 모집이 힘든 시기였고 설악산 통제로 인해 산장에 베이스를 차릴 수밖에 없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동계합동등반의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2001년 12월 26일부터 3일간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동계등산학교를 위한 Indoor Climb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기도 했다. 2002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동계산간학교를 개최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2007년 공거얼원정을 떠나게 되어 한 번의 실패를 딛고 2009년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보았다. 또 한 번 연맹합동등반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였다.



2010년대

이 시기는 지난 시기보다 더 어려워진 신입생 모집이 큰 발목을 잡던 시기이다. 연맹이 지원금을 늘리면서까지 노력하였지만 점점 줄어드는 참가자로 인해 동계등산학교의 규모가 반 토막 난 시기이다. 하지만 연맹에서는 계속해서 합동 산행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시하여 명실공히 대학 산악부의 자존심을 건 명백을 유지하였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계합동등반을 이수 한 교육생은 오지탐사대나 한중일 대학생교류등반, 국제캠프에 활발히 참석하였다.

2014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밀양 얼음골과 한라산 일원에서 실시한 동계합동등반은 적설량을 맞출 수 없는 설악산의 대안으로 실시하였다. 목적은 단결, 협동, 인내를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OB&YB 합동등반을 통한 여러 단대 선,후배간의 교류 활성화, 한라산 장기등반을 통한 설산 경험으로 흰 산에 대한 열망 고취 및 대학산악부원으로서의 긍지 공유, 얼음골 폭포 등반을 위한 빙벽등반에 대한 열망 고취이다.



연맹 동계 합동 훈련 사진

















2009년 부산학생산악연맹 동계합동등반





연맹 동계 합동 훈련 사진











역대 합동 하계 훈련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75년 08월 19~26일	7박8일	울릉도	하계 학술조사		
강 사	김동인, 염정간, 성 산, 김부갑, 허 종, 유종목				
대 원	문덕규(동아대), 김두억(동아대71), 배병수(동아대72), 김용국(동아대73), 이운석(74) 한계희(동아대74), 주시정(동아대74), 정민규(동아대75), 남희갑(동아대75) 황정환(동아대), 이효문(부산대74), 문갑순(부산대74), 손이화(부산대), 이경옥(부산대) 강성중(해양대), 신호진(부산교대74), 김양자(부산여전, 현 부산여대), 장정렬(부산여전, 현 부산여대), 정화석(부산여전, 현 부산여대), 김명희(부산여전, 현 부산여대)				
운 행	부산-포항-도동항-우산초등학교-성인봉-봉래폭포-포항-부산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78년 07월 25일~ 08월 05일	11박12일	천황산 가지산 백운산 운문산	합숙을 위한 팀원강화 강의를 통한 이론적 체제정립 개인의 체력과 기술향상 등반 방식의 일률화	이동본 (부산교대75)	
대 원	이종민(해양대76), 문봉수(동아대77), 이남국(경남공전77, 현 경남정보대), 장문일 박광효(동아대78), 문승춘, 강영희(부산여대78, 현 신라대)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79년 08월 06~20일	14박15일	영남 알프스			
대 원	23명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80년 08월 04~13일	9박10일	백운산		장종욱	
지도위원	권경업(지도위원)				
대 원	주시정(동아대74), 이기석(부산대74), 이승렬(부산대74), 정민규(동아대75) 성환균(성지공전77, 현 부산과기대), 배한일(수산대78, 현 부경대) 강영희(부산여대78, 현 신라대)				
운 행	좌, 우벽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86년 08월 04~07일	3박4일	금정산			
대 원	12명				
운 행	암벽훈련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87년 07월 07~19일	12박13일	설악산 (1708m)	파트별 운행 각 단대별 기술교류 하절기 암벽등반 문제점 검토 각종 장비의 활용방안 및 개선점	장종욱	최태신 (교대)
조 장	김대홍(동의과학대85), 안호덕(부산대82, 임용일(수산대85, 현 부경대) 정찬도(수산대83, 현 부경대)				
대 원	최철원(수산대83), 정복년(부산대83), 류현상(해대84), 김두련(부여전85), 김재열(해대86), 윤영숙(춘해86), 이상철(수산대87), 우소영(부여전87), 최태신(교대84), 박용표(수산대86), 김석환(수산대86), 정태권(부산대86), 김정희(춘해86), 이정현(부여전86), 김영진(수산대87), 김미애(춘해87), 김철훈(해양대87), 형성용(해양대87), 황순철(부여전 지도교수), 안진환(해양대84), 박용길(수산대86), 민애란(부여전86), 김인순(춘해86), 이은주(춘해86), 심진용(부산대87), 강정영(부여전87), 김종서(해양대87), 김호경(수산대86), 윤희장(해양대86), 신경임(춘해86), 반정숙(부여전86), 주묘희(춘해87), 정은남9부여진87), 김만석(부산대87), 한성훈(해양대87)				
운 행	설악골, 천화대, 염주골, 흑범길, 서북주봉, 화채봉, 칠선골, 울산암, 용아장성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89년 07월 07~13일	6박7일	영남 알프스 백운산	연맹인의 구심점 배양 하계 하중훈련 강화 및 독도법 신입생 기초훈련 및 리더십배양 각 단대별 등반기술 교류	김석수 (부산교대 86)	차광훈 (부산교대 87)
조 장	신병건(부산교대86), 박태원(부산대88), 김일영(부산교대87), 강성석(부산교대87)				
부조장	김윤정, 이은정, 김영희, 이상주(춘해88)				
대 원	권광호(부산공대88), 김경태(부대88), 김상민(경남89), 박순희(부여전89), 정우근(교채86), 황춘조(경남89), 강은지(동주89), 박상현(부대88), 신용철(교대86), 진영선(부여전88), 백순녀(동주89), 박진규(교대86), 서정동(교대88) 임정순(춘해88), 원선희(교대89)				
운 행	A조 석골사-운문재-가지산-백운산 B조 영취산-간월재-석남재-백운산 C조 표충사-능동산-가지산-백운산 D조 석남사-쌀바위-가지산-백운산				

일 시	기 간	장 소	목 적	대 장	부대장
1990년 07월 07~17일	10박11일	설악산 (1708m)	단결, 협동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이상수 (수산대, 현 부경대)	
조 장	김경원(수대85,현 부경대),김종서(해양대87),박용표(수대86,현 부경대) 임정순(춘해대88),이상주(춘해대88)				
대 원	박미선(부조장 부여전89,현 부산여대),김희영(운행 부여전89,현 부산여대), 이경희(의료 춘해88),원선희(기록 부산교대89),강미영(식량 춘해90), 한영숙(장비 춘해90),손소영(총무 부여전90,현 부산여대),박소영(식량보조 부여전90, 현 부산여대),강수영(장비보조 인제대90),이순애(총무보조 춘해90), 이상수(지도 수산대86,현 부경대)				
운 행	영주-물치-소공원-내원골 상단-황철봉-저항령-마등령-공룡능선-희운각- 설악골-B.C-천화대-마등령-수렴동-용아장성-봉정암-희운각-칠형제봉 릿지- 장군봉-소공원-강릉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90년 07월 07~17일	10박11일	설악산 (1708m)	단결, 협동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이상수 (수산대, 현 부경대)	
조 장	김경원(수대85,현 부경대),김종서(해양대87),박용표(수대86,현 부경대) 임정순(춘해대88),이상주(춘해대88)				
대 원	김주식(인제86,장비), 최현(수대89,운행), 박동석(인제89,식량), 최석민(수대90,장비보조), 임원록(해대90,운행보조), 정원섭(해대90,기록), 신상수(해대90,의료), 박종화(교대90)				
운 행	십이선녀탕, 귀때기청봉,칠형제릿지,적벽,천화대,석주길,흑범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90년 07월 07~17일	10박11일	설악산 (1708m)	단결, 협동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이상수 (수산대, 현 부경대)	
조 장	김경원(수대85,현 부경대),김종서(해양대87),박용표(수대86,현 부경대) 임정순(춘해대88),이상주(춘해대88)				
대 원	장소라(춘해88), 박순희(부여전89,운행), 배현주(부여전89,기록), 최봉금(부여전89,총무),권숙경(부여전90,장비), 박경은(춘해90,의료), 박미정(부여전90,식량),유상희(인제90,식량), 우경애(춘해90,총무보조), 강승구(수대84,지도)				
운 행	십이선녀탕, 대청봉, 천화대, 용아장성,공룡능선,저항령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90년 07월 07~17일	10박11일	설악산 (1708m)	단결, 협동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이상수 (수산대, 현 부경대)	
조 장	김경원(수대85,현 부경대),김종서(해양대87),박용표(수대86,현 부경대) 임정순(춘해대88),이상주(춘해대88)				
대 원	박용길(수대86 부조장),김후성(교89 장비),강정웅(해대89 식량),주상일(수대90 장비보), 김부근(해대90 기록촬영), 임만식(부대90 식량보), 박종규(부대90 의료)				
운 행	천화대, 화채봉,장군봉, 적벽, 울산암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1995년 07월 01~02일	1박2일	황령산	제1회 하계산간 학교		
강 사	김정실(고문,부산대67),정민규(동아대75),이상주(춘해보건대88),이기석(부산대74), 김규태(부산대82),권경업(전 지도위원),정오철(동과대88)				
운 행	입교식 강의, 비디오상영, 분임토의, 캠프파이어, 설문조사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08년 08월 18~21일	3박4일	북한산	공거얼 원정 훈련	김규태 (부산대82)	
대 원	최태신(부산교대84),전산은(부산교대85),김정희(춘해86),손대익(동의대91) 김재연(부경대93),백광윤(부산대98),윤정민(부산대03),박정태(인제대03) 소기선(인제대03),구수학(부산대06),김양현(부산대04),주형철(동의대05) 서상호(부산교대07),김태원(부산대08)				
운 행	부산-서욱-인수야영장-대슬랩-인수A-패시-벗길-취나드B-부산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1년 07월 22~24일	2박3일	영남 알프스			
대 원	김정희(춘해86), 구희정(춘해92), 최준백(춘해00), 권유진(춘해11), 김민지(춘해11) 김민정(춘해11),김다영(춘해11), 김정은(춘해11)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2년 07월 29일~ 08월 04일	6박7일	설악산 (1708m)	단결,협동인내를 통한 바람직한 대학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OB. YB 합동 등반을 통한 연맹 선후배간의 교류활성화		

대 원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3년 08월 04~11일	7박8일	문수산 영남알프스 백운산 신반암	단결, 협동인내를 통한 바람직한 대학산악, 인의 가치관 확립 OB. YB 합동 등반을 통한 연맹 선후배간의 교류활성화 접근성이 좋은 근교 산에 대한 이해도 향상	김민성 (부산대09)	
대 원	윤종철(경정대13), 류정현(경정대13), 안창남(경정대13), 배찬수(경정대13), 김윤희(경성대11), 한성희(경성대12), 정승목(경성대13), 김유진(경성대13), 박지헌(교대12), 김현수(교대13), 박석민(교대13), 안소연(교대13), 서민기(교대13), 김연주(동대11), 이유리(동대11), 박상수(동대12), 정현수(동과대13), 임기영(동의대12), 임지원(동의대13), 정장현(부경대07), 이재희(부산대09), 전재민(부산대08), 한진석(부산대13), 김형은(부여대13), 이혜미(부여대13), 윤지윤(춘해보건대12), 홍유원(춘해보건대12), 박기완(춘해보건대13), 김희석(해양대12), 최민수(해양대12), 박기원(동아대12)				
운 행	문수산-영취산-신불산-아리랑, 쓰리랑릿지-간월산-능동산-백운대-신반암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4년 8월 03~10일	7박8일	영남알프스 신반암	단결, 협동, 인내를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강 사	정진열(경정대)				
대 원	임기영(동의대12), 임지원(동의대13), 이창욱(동의대14), 강은진(동의대14), 안상민(동의대14), 황원정(동의대14), 김난희(경정대14), 오원탁(해양대12) 민인덕(부경대14), 김성수(부경대14), 박수현(동주대14)				
운 행	석골사,운문산,가지산,능동산,간월산,신불산,아리랑릿지,쓰리랑릿지,영축산,신반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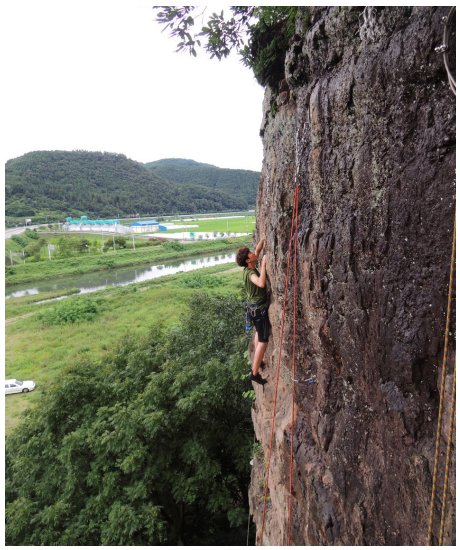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5년 08월 01~09일	8박9일	영남알프스 신반암	단결, 협동, 인내를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OB. YB 합동 등반을 통한 연맹 선후배간의 교류활성화		
대 원	이혜정(경성대15), 임기영(동의대12), 임지원(동의대13), 강은진(동의대14), 황원정(동의대14), 이재훈(부경대12), 민인덕(부경대14), 서정화(부산대12), 박지훈(부산대14), 김건하(부산대15), 김희석(해양대12), 이규철(해양대14), 권경래(해양대15), 김지현(해양대15),정인권(해양대15)				
운 행	영축산,아리랑릿지,쓰리랑릿지,신불산,간월산,능동산,백운슬랩,의령,신반암,병풍암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6년 08월 08~16일	8박9일	대둔 산일원	단결,협동,인내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연맹 YB합동등반을 통한 연맹 선호배간의 교류 활성화	이재훈 (부경12)	
대 원	차지환(경성대14),황선재(경성대16),김난희(경정대14),박수민(과기대16), 맹규노(동아대12),박용만(동아대16),황원정(동의대14),박준형(동의대16), 변기환(동의대16),최지현(동의대16),한진석(부산대13),오진욱(부산대16), 권경래(해양대15),김지현(해양대15),배성은(해양대16),염문식(해양대16)				

운 행	전주-대둔산주차장-신선암-신선암장;RC-동심정 휴게소-금산-운임암, 반일암계곡-대둔산휴게소-신선암R.C-칠성봉전망대-구름다리-마천대-오계천계곡-전주-부산



일 시	기 간	대상산	목 적	대 장	부대장
2017년 07월 24일~ 08월 01일	8박9일	영남알프스 신반암	단결,협동인내를 통한 바람직한 대학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OB. YB 합동 등반을 통한 연맹 선후배간의 교류활성화 접근성이 좋은 근교 산에 대한 이해도 향상		
대 원	이창욱(동의대14),최지현(동의대16),이규철(해대14),박지훈(해대17),한진석(부대13), 이두영(부대16), 지혜민(부대17)				



하계합동등반

동계합동등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계합동등반은 간간이 맥을 이어오다 1990년대, 2000년대 들어 많이 활성화되었다. 동계합동등반은 단대의 기술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많은 반면 하계합동등반은 단대 자체적으로 충분히 등반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1970년대

1975년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김동인 회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울릉도 하계학술조사도 큰 틀에서 하계합동등반으로 볼 수 있겠다. 연맹가맹 대학별로 많은 대원이 참석해 7박 8일 동안 울릉도 성인봉 등반을 하였다. 1979년 8월 6일부터 20일까지 15박 16일 동안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23명의 대원이 참가하였던 기록이 남아있다.

1980년대

80년대 초기에는 파빌봉 원정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이루어졌다. 파빌봉 원정 후유증으로 침체를 겪다가 단대별 활성화가 되던 중반에는 하계합동등반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1987년 하계 설악산 합동등반이라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1980년 8월 4일부터 13일까지 밀양 백운산 일원에서 파빌봉원정 훈련을 겸해 김동인 단장을 위시해 대장 최욱, 지도위원 권경업, 재무섭외 주시정, 장비 이기석, 수송 이승렬, 운행 정민규, 장비 성환균, 수송식량 배한일, 의료 강영희 대원이 참가하였다. 1986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금정산 일원에서 12명이 암벽훈련을 하였다.

1987년 7월 7일부터 19일까지 12박 13일동안 설악산 일원에서 대장 부산대 김규태, 부대장 교대 최태신, 조장으로 교대 김대홍, 부산대 안호덕, 수산대(현 부경대) 임용일, 수산대(현 부경대) 정찬도, 황덕윤, 류현상, 대원 정영화외 54명이라는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체계적인 합동등반의 틀을 갖추었다.

1990년대

1990년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설악산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대장 수산대(현 부경대) 이상수를 필두로 1조 조장 수산대(현 부경대) 김경원, 부조장 수산대(현 부경대) 박용길외 대원 6명, 2조 조장 한국해양대 김종서, 부조장 인제대 정병화외 대원 7명, 3조 조장 수산대(현 부경대) 박용표외 대원 8명, 4조 조장 춘해간전(현 춘해보건대) 임정순외 대원 10명, 5조 조장 춘해간전(현 춘해보건대) 이상주, 부대장 부산여전(현 부산여대) 박미선외 대원 9명이 참가하였다. 각 조별로 운행하였고 조안에서 장비나 식량, 운행, 총무담당을 정했으며 경험 많은 고참 선배들이 조별 고문이나 지도로 참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1995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황령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1회 하계 산간학교를 개최하였다. 하계합동등반을 가기 전 회원들을 상대로 이론수업을 실시하였다. 김정실 연맹부회장이 자연보호와 대학산악인의 자세, 정민규(동아대 OB)가 등반사, 이상주(춘해보건대 OB)가 등산의학, 이기석(부산대 OB)가 스포츠클라이밍, 김규태(부산대 OB)가 산악조난과 대책, 권경업 초빙강사가 산악문학과 산시의 세계, 정오철(동의공전 OB)가 산노래를 강의하였다.

1998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연맹합동으로 백두대간을 구간으로 나눠 동시에 종주하는 시도를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초기에는 공거얼 원정이 대두되어 원정훈련이 하계합동등반과 같이 한 경우가 많았고 중반기 이후 줄어드는 대학산악부원들로 인해 하계등반 일정도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짧은 경우가 많았다. 대상산도 영남알프스 일원이나 의령 신반암을 등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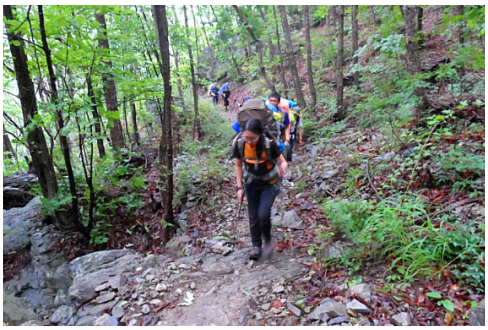


2014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영남알프스와 의령 신반암에서 단결, 협동, 인내를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OB&YB 합동등반을 통한 여러 대학별 선,후배간의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진열 강사(경남정보대 OB)를 위시하여 실시하였다.

연맹 하계 합동 훈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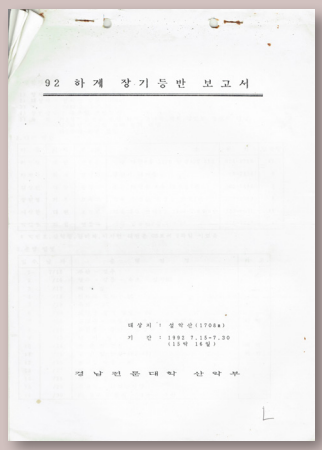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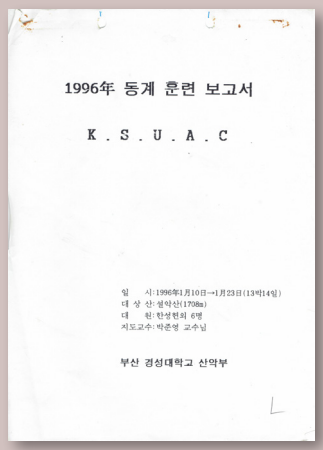
연맹 가맹 대학 동·하계 장기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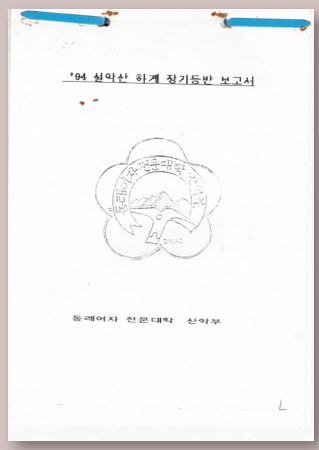
학 교	일 자	대상산	참여인원	내 용
경남정보 대학교 동계 장기훈련	1996년 1월 10~23일 (13박14일)	설악산 (1078m)	대장 :한성현 김원학,조찬욱, 고경덕,제해영, 류현덕,여찬명,	속초로 야간버스를 이용하여 소토왕골에 .B.C설치 후 소토왕골과 토막골에서 I.C훈련 후 9일째 대청봉과 희운각으로 W.K 도착 희운각에서 천불동으로 이동 B.C 소토왕골과 토막골서 I.C훈련과 토왕성폭포에서 I.C 훈련
경성대학교 1996년 동계 장기훈련	1996년 1월 10~23일 (13박14일)	설악산 (1078m)	대장:한성현 김원학,조찬욱, 고경덕,제해영, 류현덕,여찬명	속초 저항령 소토왕골 B.C 소토왕골, 토막골 잣골 I.C 대청봉 희운각 천불동 W.K 소토왕골, 토막골, 토왕성폭포 I.C
동부산대학교 (구 동래여자 전문대학교) 1994년도 하계장기등반	1994년 8월~16일 (14박 15일)	설악산 (1078m)	대장:문지환 송미화,오주연, 전형정,김혜원	영주 소공원 울산암 B.C 울산암릿지, 등반, 토왕성폭포 B.C 설악동, 천화대릿지. 비선대 마등령 공룡능선, 용아장성, 희운각 대청봉 비선대, 설악동
동아대학교 1995년 동계 장기등반	1995년 12월 31~ 1995년 1월 21일 (21박 22일)	설악산 (1078m)	대장:정광호 이시엽,남정모, 박범식,서은영, 이재규,김태완, 정대성	원주에서 남교리 십이선녀탕 대승령을 지나 대청 희운각 저항령 까지 W.K후 B.C 설치 8-12일 연맹 훈련 참여후 칠선골, 토막골, 잦골,, 50폭, 100폭에서 I.C 등반훈련, 토왕폭 I.C 훈련 실시
동의과학대학교 2001년 하계 장기등반	2001년 7월 8일~ 8월 10일 (33박 34일)	낙동정맥 태백(피제)에서 부산(몰운대) 405Km	대장 :김성규 주경철,이매화, 김동구,정규환, 조민우,박영옥, 이효진,이성도, 이형민.김형석, 정영록,오정근	태백 피제로 버스로 이동 태백통리-면산아래-묘봉밑임도-애매랑재-발리재-즉피제-921봉-자라목쉼터-OK목장-황장재-대둔산-746봉-이현분교-가시령-서당골재-이래재-옥산초등하강분교-남사고개-생식마을-고헌산 밑-석남터널입구-영취산-원효산-고당봉-개림초등학교-엄광산-구덕산-다대포-몰운대
동의대학교 1996년 하계 장기등반	1996년 8월 4~18일 (14박 15일)	설악산 (1078m)	대장:정대억 상일,문용기, 이승백,방태균, 박경환,정남실, 이강희,강희숙, 지도:이용호, 권태현,김훈, 이종희,천 OB 손기호, 강찬돈,서태수	설악동 저항령 B.C 공룡능선 용아장성 희운각 장군봉 R.C 울산암릭시 천화대릿지 장군봉 R.C 형제봉정찰, 마등령 수렴동계곡 가양동계곡 구곡당계곡 희운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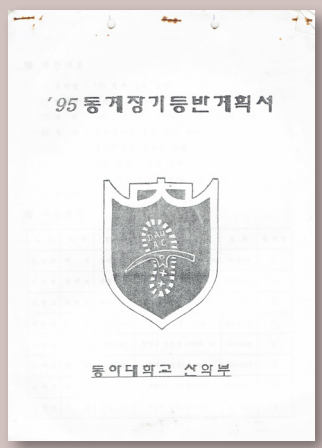
학 교	일 자	대상산	참여인원	내 용
동주대학교 1994년 하계 장기등반	1994년 07월 15일~ 07월 31일 (16박 17일)	설악산 (1078m)	대장:전정보 김남희, 김영희.이은경, 김소연,정현정	영주에서 소공원, 저항령 B.C 저항령,마등령,수렴동계곡 W.K 석주길,천화대 릿지등반 희운각, 공룡능선, 마등령, 조괄, 가야동계곡, 수렴동계곡, 용아장성, 봉정암, 희운각 W.K 흑범길, 장군직벽 R.C 울산암 토왕폭 W.K
부경대학교 (구.수산 대학교) 1997년 하계 장기등반	1997년 07월 10일~ 08월 10일 (31박 32일)	낙동정맥 (태백매봉산- 다대포 몰운대) 도상거리 37.05Km	대장:정영훈 강문희,김지성, 류성진,김선희, 김태진,위정아, 윤병희,정민정, 김태균,최해정	태백-패작-매봉산-통리-토산령- 광평-삿갓봉-한나무재인근-답운채- 통고산-광배령-추령-삼승령-자래목 이-명동산-황장재-왕거암-질고개- 점안지부근-422봉-이리재-안강휴 게소-380봉-당고개-호호고개-백운 산-은문령-쌀바위-가지산-간월산- 신불산-정족산부근-천성산-금정산 북문-백양산-엄광산-구덕산-몰운대
부경대학교 (구.용당 산악부) 1998년 하계 장기등반	1998년 08월 04일~ 08월 18일	한라산 (1950m) 선운산 (444m)	대장:구동회 김태훈,이지연, 강기천,소진호, 강은주,김회대, 이예진,서성호, 김하정,정은정, 정은경,박진화, 이강식,손직상, 김정아,박정영	제주 성산일출봉 성판악 사라대피소 한라산 윗세산장 영실입구 수월봉 제주대 광령계곡 별도봉 해벽 R.C 제주항 고창 선운산 할매바위 선운산 R.C(4일)
부경대학교 (구.대연 산악부) 1994년 하계 장기등반	1994년 07월 15일~ 08월 01일 (17박 18일)	오대산 (1563m) 설악산 (1708m) 북한산 인수봉	대장:하해규 이영기,최현, 하정훈,박승일, 김재연,김미경, 변주영,김성득, 김세나,정진육, 임용일,박용표, 이상수	영주 강릉 사원사 비로봉 상왕봉 북대 사 수로봉 웅복산 심마니쉼터 1126고지 약수산 구룡령 1100고지 갈천리 쇠나드리 조침령 북암령 단목령 대청봉 희운각 비선대 저항령 천화대 왕관봉 용소골B.C 장군봉 선녀봉 토왕폭 R.C 북한산 인수봉 R.C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1993년 하계 장기훈련	1993년 08월 02~18일 (16박 17일)	설악산 (1078m)	대장:송주현 유영제,박영태 김동규,이상호, 성경진,박은정, 윤승필,임상영, 이상무,전익도, 동옥자,박용호, 김옥현,한경화, 김현주	부전역에서 영주역을 거쳐 강릉, 물치에서 울산암DP B.C설치 울산암릿지 6일 등반함 울산암릿지에서 공룡능선 종주 칠형제봉, 천화대 릿지등반 B.C에서 공룡능선 수렴동대피소 용아장성 봉정암 대청봉 BC로 W.K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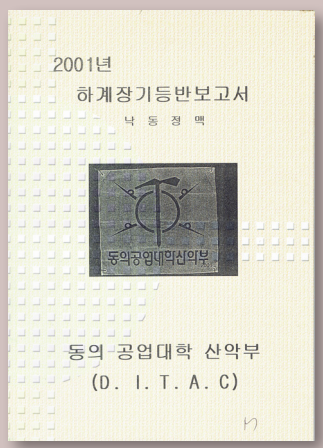
학 교	일 자	대상산	참여인원	내 용
부산교육 대학교 1994년 하계 장기등반	1994년 08월 03~18일 (16박 17일)	설악산 (1078m) 북한산 인수봉	대장:박종화 초라미,우윤영, 배상태,백호정 배홍,한유희, 김영미 OB 차광훈, 이재천	영주 소공원 저항령 마등령 마등령 공룡능선 희운각 대청봉 천화대, 염라길 R.C 장군봉, 적벽 R.C 희운각 봉정암 수렴동 대피소 울산암(의대길, 64길)R.C 강릉 북한산 인수봉R.C
부산여자 대학교 90년 동계 장기등반	1991년 01월 01~15일 (14박 15일)	설악산 (1078m)	대장:박미선 지도:황순철 염미선,박순희, 최봉금,홍선면, 권숙경,박소영, 손소영,이형순,	강릉에서 양폭, 공룡능선,마등령, 비선대,양폭 B.C설치 죽음의계곡, 용소골, 건폭 I.C 훈련실시. 대청봉,양폭 W.K 훈련
부산 대학교 1982년 하계 장기등반	1982년 07월 05일~ 08월 13일 (19박20일)	설악산 (1078m)	대장:신용상 부대장:김병달 김종정,박만교 신종철,양경희 강양훈,김규태 김대중,하정호 장기섭,안호덕 김광섭,이경훈	설악골 울산암 R.C, 범봉 ,RC 설악골 천화대 범봉, 마등령, 황철령 울산암 비룡폭포 토왕폭 좌벽 R.C, 화채봉 대청봉 끝청 귀청대 승령 장수대 강릉
부산외국어 대학교 1996년 동계 장기산행	1995년 12월 30일~ 1996년 01월 18일 (19박 20일)	설악산 (1078m)	대장:손병철 이미란,김민정, 임현주,이종호, 강구언,곽동인, 한태호,문희원, 엄춘섭,구성현, 한달권	원주에서 남교리 십이선녀탕으로 이동. 대승령 끝청을 거쳐 희운각에서 저항령에 B.C 7-12일 연맹 I.C훈련 참석 토막골 I.C, 잣골 I.C, 토왕폭 I.C 훈련
춘해보건 대학교 2002년 하계 장기등반	2002년 7월 23일~ 08월 01일 (11박 12일)	설악산 (1708m)	대장:구희정 이언화,김유희, 이연화,조혜진, 백정숙	영주 소공원 B.C 한편의 시를 위한길 장군봉 천화대 릿지등반 및 R.C 소공원 마등령 공룡능선 희운각 가야 동계곡 용아장성 봉정암 대청 한계령 귀떼기청봉 대승령 백담계곡 길골 저항령 소공원 W.K
한국해양 대학교 1986년 한국 해양대학교 하계훈련 등반	1986년 08월 12~25일 (13박 14일)	설악산 (1708m) 북한산	대장:신기석 유현상,김명선, 차종채.신남식, 김재열,윤희장, 이동진,송동주	원주 남교리 십이선녀당 대승령 서북 주능, 대청 희운각 B.C 희운각 공룡능선,수렴동 희운각 봉정암 용아능선 가야동 설악골 비룡폭포 토왕폭 설악동에서 서울 인수봉 B.C 22-25일 인수봉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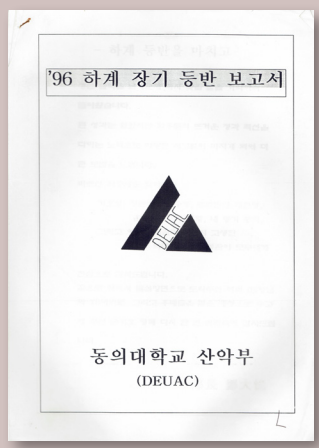

92 하계 장기등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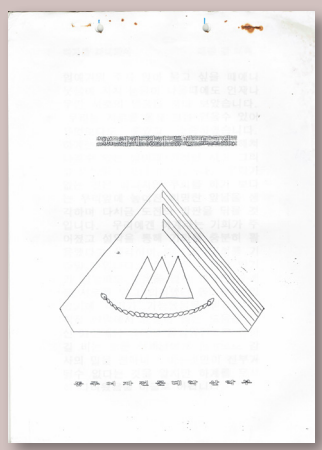

1996年 동계 훈련 보고서
K . S . U . A . C
부산 경성대학교 산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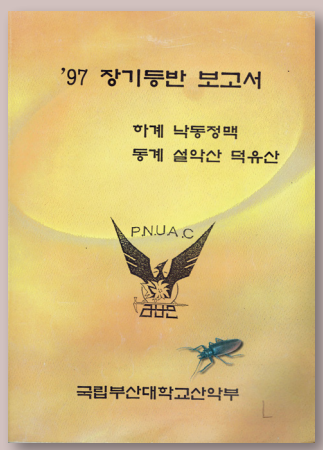

'94 설악산 하계 장기등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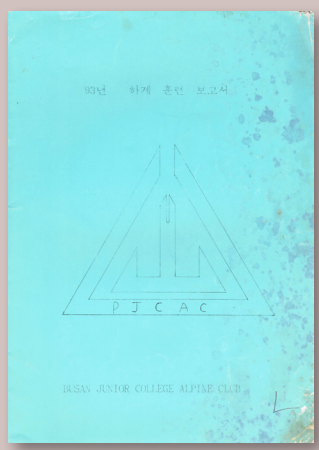

'95 동계장기등반계획서
동의대학교 산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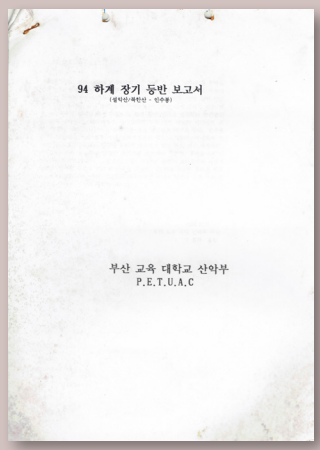

2001년
하계장기등반보고서
낙 동 정 맥
동의공업대학산악부
동의 공업대학 산악부
(D. I. T. A.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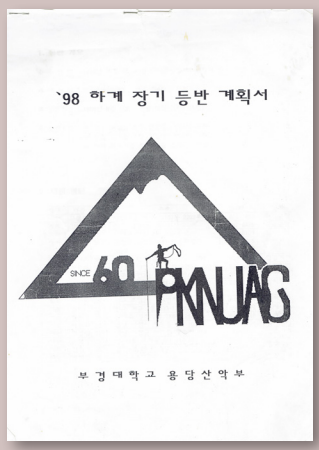

'96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동의대학교 산악부
(DEU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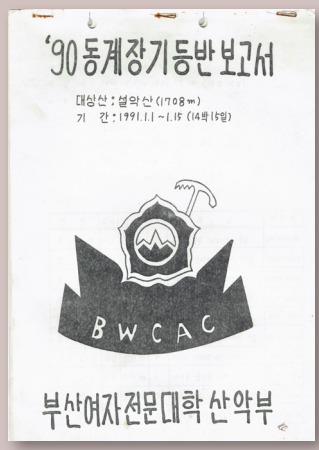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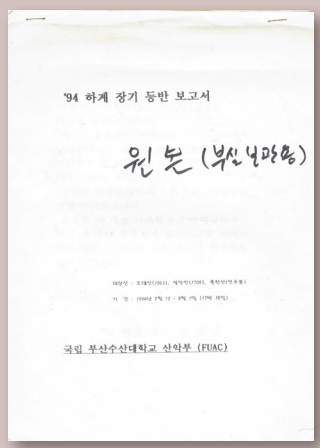

'97 장기등반 보고서
하계 낙동정맥
동계 설악산 덕유산
PNUAC
극립부산대학교산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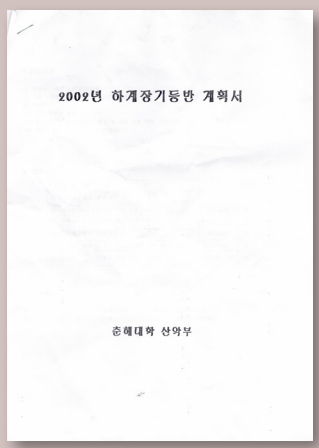

93년 하계 훈련 보고서
PJCAC
PUSAN JUNIOR COLLEGE ALPINE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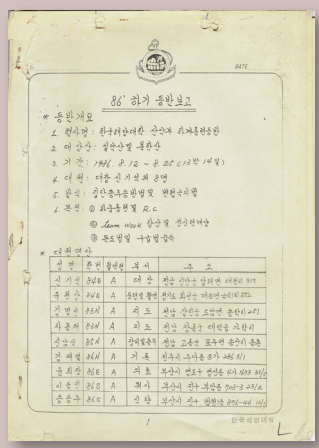

94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부산 교육 대학교 산악부
P.E.T.U.A.C


`98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SINCE 60
PKNUAC
부 경 대 학 교 용 당 산 악 부


'90 동계장기등반 보고서
대상산 : 설악산 (1708m)
기 간 : 1991.1.1 ~ 1.15 (14박 15일)
BWCAC
부산여자전문대학 산악부


'94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원 본 (부산남자용)
국립 부산수산대학교 산악부 (FU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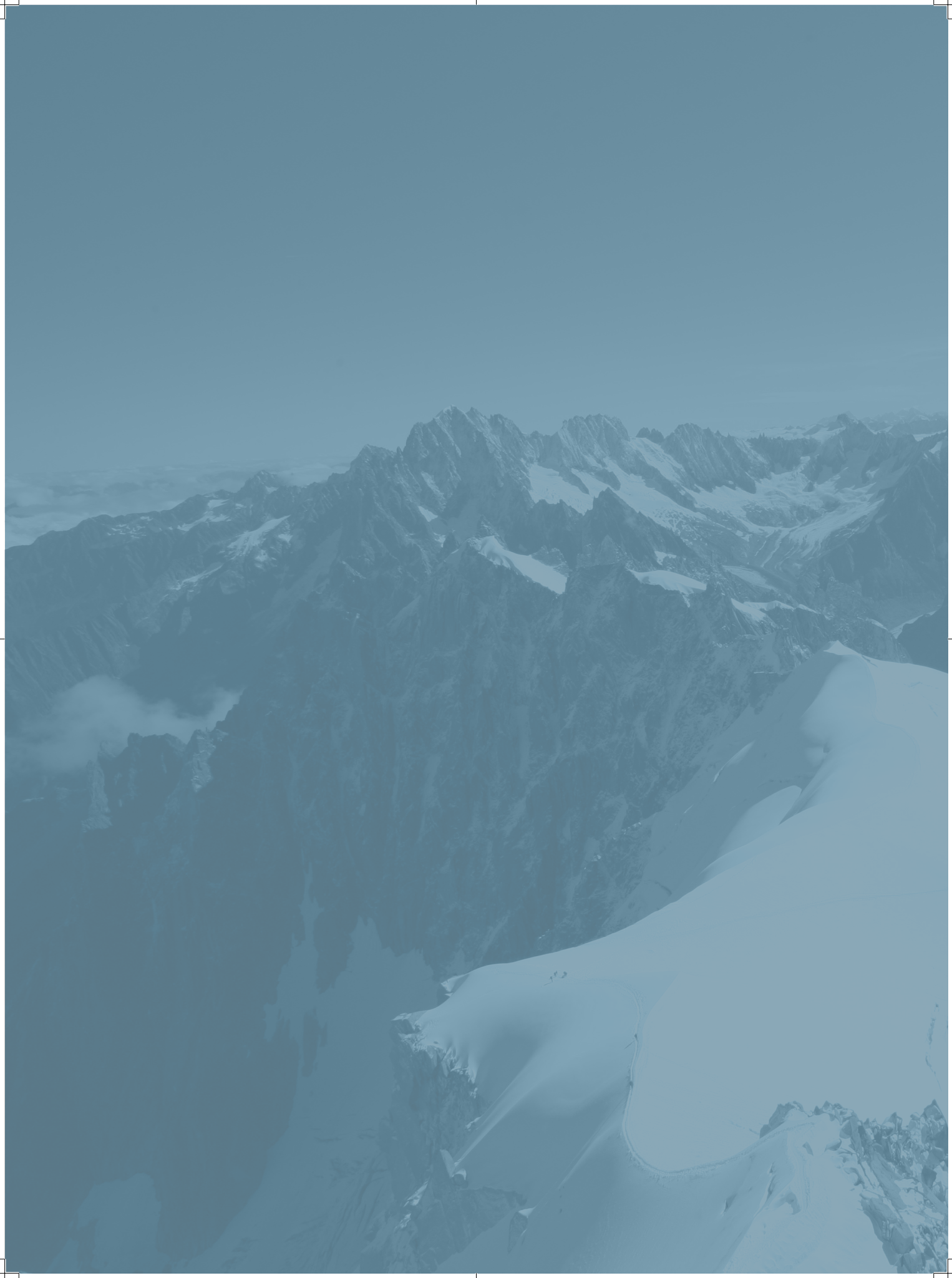

2002년 하계장기등반 계획서
춘해대학 산악부


86' 하기 등반보고
* 등반개요
* 대원연산


BSAA


BSAA


BSAA



PART 4

부산학생산악연맹 소개

- 제1장 가맹대학 소개
- 제2장 가맹대학 회원 명부 및 정관

제 1 장

가맹 대학 소개





2018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역대 연맹 가맹 대학 및 고등부 명단

연 도	가맹대학교
1968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수산대학, 국립해양대학교, 경남고, 부산고, 동래고, 배정고, 부산공고, 경남상고(5대학,6개고등부)
1969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수산대학, 국립해양대학교, 경남고, 부산고, 동래고, 배정고, 부산공고, 경남상고(5대학,6개고등부)
1970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공업전문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수산대학, 국립해양대학교, 동성고, 낙산고, 덕명여상, 배정고, 영남상고, 금성고, 동래고, 경남상고, 부산상고 (7대학,9개고등부)
1971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공업전문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수산대학, 국립해양대학교, 동성고, 낙산고, 덕명여상, 배정고, 영남상고, 금성고, 동래고, 경남상고, 부산상고 (7대학,9개고등부)
1972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공업전문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수산대학, 국립해양대학교, 동성고, 낙산고, 덕명여상, 배정고, 영남상고, 금성고, 동래고, 경남상고, 부산상고 (7대학,9개고등부)
1973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수산대학, 부산실업전문학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고등부탈퇴 (8대학)
1974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학교, 부산수산대학, 부산실업전문학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9대학)
1975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학교, 부산수산대학, 부산실업전문학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9대학)
1976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학교, 부산수산대학, 부산실업전문학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9대학)
1977	경남공업전문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학교, 부산수산대학,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성지공업전문학교 (10대학)
1978	경남공업전문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학교, 부산수산대학,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성지공업전문학교 (10대학)
1979	경남공업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의대학, 동원공업전문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대학교, 부산수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성지공업전문학교 (12대학)
1980	경남공업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원공업전문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대학교, 부산수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성지공업전문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12대학)
1981	경남공업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원공업전문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대학교, 부산수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성지공업전문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12대학)
1982	경남공업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원공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산수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산업대학,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성지공업전문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14대학)

연 도	가맹대학교
1983	경남공업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원공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 부산수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산업대학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성지공업전문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14대학)
1984	경남공업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원공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개방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수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산업대학교, 국립해양대학교, 성지공업전문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14대학)
1985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개방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수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산업대학교, 부산전문대학, 국립해양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14대학)
1986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개방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수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산업대학교, 부산전문대학, 국립해양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14대학)
1987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개방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수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산업대학교, 부산전문대학, 국립해양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14대학)
1988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공업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수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산업대학교, 부산전문대학, 인제대학교, 국립해양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15대학)
1989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공업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수산대학,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산업대학교, 부산전문대학, 인제대학교, 국립해양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15대학)
1990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공업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수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전문대학, 인제대학교, 국립해양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14대학)
1991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공업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수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전문대학, 인제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4대학)
1992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래여자전문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공업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수산대학교,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전문대학, 인제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5대학)
1993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래여자전문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공업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수산대학교,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전문대학, 인제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5대학)
1994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래여자전문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공업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수산대학교,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전문대학, 인제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5대학)

연 도	가맹대학교
1995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래여자전문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대학교, 부산공업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수산대학교,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전문대학, 인제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5대학)
1996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래여자전문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경대학교(대연,용당),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전문대학, 인제대학교, 춘해간호전문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4대학)
1997	경남전문대학, 동아대학교, 동래여자전문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경대학교(대연,용당),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전문대학, 인제대학교, 지산전문대학, 춘해간호전문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5대학)
1998	경남정보대학,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주대학, 부경대학교(대연,용당),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지산대학, 춘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5대학)
1999	경남정보대학,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주대학, 부경대학교(대연,용당),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부산카톨릭대학교, 춘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5대학)
2000	경남정보대학,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주대학, 부경대학교(대연,용당),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부산카톨릭대학교, 춘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5대학)
2001	경남정보대학,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명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의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대연,용당),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춘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6대학)
2002	경남정보대학,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명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의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대연,용당),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춘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6대학)
2003	경남정보대학,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명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의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춘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6대학)
2004	경남정보대학,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명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동의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춘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6대학)
2005	경남정보대학,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명대학, 동의과학대학, 동의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춘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06	경남정보대학,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 동의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춘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07	경남정보대학,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 동의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춘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연 도	가맹대학교
2008	경남정보대학,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 동의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09	경남정보대학,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 동의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10	경남정보대학,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 동의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11	경남정보대학,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12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13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14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15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명대학,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16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17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2018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17대학)

경남정보대학교

소개글



부산 사상구 주례 엄광산 자락에 위치한 경남정보대학교는 1977년에 경남공업전문대학 산악회라는 이름으로 산악회를 창단하였습니다. 그 시절 2년제 전문대학 산악회가 흔치 않던 때, “근면”,“자립”,“협동”,“신앙” 이 네 가지 교훈으로 자주적으로 산악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부산학생산악연맹 산하 가맹단체로 장, 단기산행과 해외 원정 산행을 함께하였습니다. 연맹성장과 더불어 성장한 경남정보대학산악회는 아쉽게도 2000년대 이후 지속된 부원 감소로 2014년 2월 동계 산행 끝으로 정식 폐지된 학교 동아리가 되어버린 반면, 활발한 OB회원의 활동으로 경남정보대학교 산악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 피운 아리따운 에델바이스 꽃잎 같은 나의 20대 청춘을 보낸 나의 경남정보대학교 산악부여! 영원하길!

부기

SINCE 1974
K N A C
경남정보대학 산악회

연혁

날 짜	내 용
1974년	부산 실업전문대학 산악부 발족 및 대통령기 등산대회 우승
1975년	대학산악연맹 주최 계룡산기 등산대회 우승 및 산악부 해체
1977년	부산실업전문대학 산악부 부활. 경남공업전문대학으로 개명

날 짜	내 용
1978년	부산시장기 쟁탈 등산대회 우승
1979년	대한산악연맹 주최 대통령기 등산대회 우승
1982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우승 알프스 마테호른 북벽등반(74학번 김흥수), 히말라야 파빌봉 원정참여(77학번 이남국)
1983년~85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우승
1987년	부산학생등산대회 남대부 우승, 여대부 우승
1988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준우승
1989년	부산학생등산대회 남대부,여대부 우승
1990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여대부 준우승
1991년	부산학생등산대회 남대부 우승, 일본북알프스 조가사키해벽 등반(이민수,온재륜,정진열)
1992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준우승
1993년	부산학생등산대회 우승
1995년 08월 12일	카자흐스탄 천산산맥 칸텡그리(7010m) 등정 – 김기형
1996년 09월 22일	인도 히말라야 쉬블링(6543m) 등정 – 김영진, 최호승, 정진열
1997년 05월	유럽 알프스 아이거(3970m), 마테호른(4478m), 몽블랑(4807m) 등반–정진열
1997년 07월 26~27일	밀양 재약산 적벽 개척 시작 – 산악회
1997년 10월 18~19일	개척 자체 중간 보고회
1999년 05월	제8회 대한산악연맹회장배 전국등반경기대회 속도 2위 – 정진열
2004년 02월	제1회 청송주왕산 전국빙벽등반대회 난이도 2위 – 정진열
2005년 07월	네팔 히말라야 푸모리(7161m) 등정 – 김명수
2012년 04월	고창 선운산 오토메틱 5.14a 완등 – 김명수
2012년 10월	전국체전 스포츠클라이밍 난이도 2위 – 김명수
2013년 09월	노스페이스컵 스포츠클라이밍 난이도 3위 – 김명수
2014년 07월	스페인 로데야르 지역 헐크 5.14a 완등 – 김명수
2014년 07월	스페인 로데야르 지역 welcome to tijuana 5.14b 완등 – 김명수
2014년 09월	고창 선운산 파워파워 5.14b/c 완등 – 김명수
2014년 09월	고창 선운산 하드코어 5.14a 완등 – 김명수








경성대학교

소개글



경성대산악부는 산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 각각의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이 산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유구한 역사를 갖지는 못하나, 젊음의 결의와 패기로 뭉쳐진 예비 산악인들이 이 동아리에 있습니다. 산은 이들 젊은이에게 무한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애(愛), 협(協), 인(人)이라는 슬로건 아래 20여 명의 순수 아마추어 산악인들이 모여 1차 가지산 창립 산행을 시작한 이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며 자신들의 삶을 사랑하기를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행사로 산신제와 산악장비전시회, 산정이라는 회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하계 장기산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냥 높이 오르려 했던 외로운 갈매기의 고귀한 꿈도 산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껏 누군가 가보지 못했던 암벽길을 개척하고 다른 이들이 이미 올랐던 산길들도 새로운 의미로서 다가가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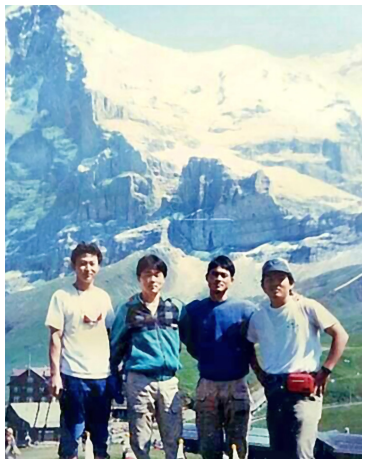
부기

KYUNG SUNG UNIVERSITY SINCE1955
KSUAC
KYUNGSUNG UNIVERSITY
SINCE1982

연혁

날 짜	내 용
1982년 03월	부산산업대학교 산악부로 창립
1988년 02월	설악산 토왕폭 완등
1988년 05월	경성대산악부로 개칭
1989년 02월 07일~03월 13일	일본 북 알프스원정
1989년 08월 01일~08월 31일	알프스 3대북벽원정
1991년 07월 01일~08월 14일	태백산맥종주(금정산~미시령)
1993년 07월 20일~08월 27일	미국 yosemite 원정
1999년 11월 7 일	제1차 장애아동 동반 산행









동명대학교

소개글

동명대학교 산악부는 1979년 남구 용당동에서 동원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2006년 동명대학과 동명정보대학교가 통합하여 종합대학교로 발돋움했다. 개교 당시부터 산악부를 발족하여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나 부산학생등산대회에 참가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한 기록이 있다. 1989년 11월 18일 200차 기념 산행을 시행하였으며, 정식으로 OB회를 발족시켰다. 2002년말에는 인공암장을 개장하였으며 86학번 하태석회원은 매년 개최되는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에 강사로 참여하여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

부기

연혁

날 짜		내 용
80년 03월 20일	재약산	신입생환영등반
80년 09월 13~14일	금정산	제13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등산대회 참가
80년 11월 29~30일	금정산	부산학생연맹제 참가, 줄다리기 우승
80년 12월 28~ 81년 01월 19일	설악산	동계적설기 등반, 부산등반구락부, 알파인 합동등반
81년 01월 19~31일	한라산	부산학생산악연맹 제 5차 훈련 참가
81년 06월 12~14일	영남알프스	제 16차 부산시 교육감기 쟁탈전 참가
81년 10월 10~11일	팔공산	김동회장 팔공대상 시상식 및 합동훈련 참가
82년 04월 03~05일	이천산장	신입생 환영등반 및 워킹
82년 06월 12~14일	영남알프스	부산학생등산대회 참가
82년 11월 13~14일	금정산	부산학생산악연맹제 참가
83년 04월 23~24일	이천산장	신입생 환영등반 및 워킹
83년 06월 11~13일	영남알프스	부산 교육감기 등반대회
84년 06월 9~10일	금정산	부산 교육감기 쟁탈 등반대회
85년 05월 18~19일	무명암	연맹합동등반 참가
86년 05월 24~25일	금정산	부산학생등산대회 참가
86년 09월 13~14일	천태산	동명 동주대 합동등반
87년 05월 30~31일	금정산	제22회 부산학생등반대회 참가
89년 11월 18~19일	금정산	200차 기념산행 및 O.B 산악회 창단
94년 05월 22일	맥킨리	이상명 회원 조난사
00년 05월 27~28일	대륙암	고 이상명회원 추모 산행
02년 10월 20일	부산역	신종현, 황수빈, 정기식 회원 볼더링대회 참가
02년 10월 26일	장애인대회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개막식 스턴트 참가
02년 11월 09~10일	광주	대통령기 등산대회 참가
02년 11월 20일		인공암장 공사
02년 12월 18일		인공암장 개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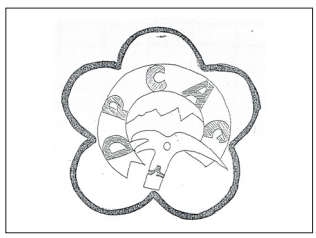
동부산대학교

소개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위치한 동부산대학은 1979년 동래여자전문대로 개교한 이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산악회를 만들고, 부산에서는 드물게 근 20여 년간 여성이 주체가 되어 산악회를 이끌고 성장시켜 나갔다. 우무신 지도교수님을 중심으로 생기발랄하고 씩씩한 아가씨들은 "칭게이"-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오르자는 뜻과 산이 너무 좋아 산에 미친 사람? 이란 뜻」라는 ECHO를 사용하며 의미 있는 산행을 통해 내실을 다졌다. 또한 부산학생산악연맹에 소속되어 동, 하계 훈련과 백두대간 종주 등 연맹과 함께 산악회의 전성시대를 함께 하였으나 지속된 부원 감소로 2003년을 마지막으로 폐지 되었으나 뜻을 같이하는 OB회원들의 꾸준한 활동으로 "칭게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부기



연혁

날 짜	내 용
1979년 03월	산악회 창립(설봉산악회)
1981년 04월 22일~08월 02일	하계훈련(설악산)
1981년 12월 27일~82년 01월 02일	동계훈련(설악산)
1982년 07월 26일~08월 08일	하계훈련(설악산)
1983년 01월 21~29일	동계훈련(지리산)
1985년 09월 07~08일	창립산행(신불산)

날 짜	내 용
1986년 05월 24~25일	제21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여대부 우승
1987년 05월 30~31일	제22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여대부 우승
1988년 07월 08~15일	하계훈련(설악산)
1989년 04월 09일	신입생환영등반(신불산)
1989년 05월 13~14일	제24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여대부 우승
1990년 05월 19~20일	신입생 환영등반(금정산)
1991년 08월 11~19일	하계훈련(지리산)
1992년 05월 23~24일	제27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여대부 우승
1992년 10월	제25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여대부 2위
1993년 01월 13~18일	동계훈련(지리산)
1993년 05월 22~23일	제28회 부산학생등산대회 여대부 준우승
1999년	제32회 대통령기 등산대회(박선영,이은애,조류미,이미라)여자부2위
2000년	제33회 대통령기 등산대회(이지훈,서경훈,조류미,이주호)혼성팀 3위
2001년	제34회 대통령배 등산대회 연맹연합팀참여(이현태.이지훈,서경훈,최준백)

동아대학교

소개글



1958년 산을 좋아하던 동아대 학생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산행을 하면서, 1961년 학기초인 4월에 동아대학교산악부 창립총회를 하고 그달 영취산 창립등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악회의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1960년.70년대엔 전국 각지의 등산대회에 참여하여 수상으로 산악회의 근실을 다졌으며 1968년도부터는 매년 “동아산맥”이라는 회지를 통하여 다우악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대학산악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결성 시 일원으로 참여하여 초대회장에 김택진 동아대 교수와 초대 상임위원에 동아대 김근태선배님과 최해곤선배님을 배출하여

교류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부산에서의 해외원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82년도 부산산악연맹 히말라야 파빌봉 원정대에 동아대 주시정선배님. 김두억선배님 두 분이 참여하여 고무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함을 토대로 86년 일본 북알프스를 시작으로 해외원정의 꿈을 싣기 시작하여 다우악 회원들의 열정으로 많은 원정을 시도하여 2006년에는 히말라야 8000m급 고봉인 갸셔브롬 1.2봉의 연속 등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또한 2008년에 엘브루즈 등정을 시작으로 2010년 에베레스트, 2012년 킬리만자로, 2014년 아콩카쿠아, 2016년 칼츠텐츠, 2017년 데날리 등정에 이르는 6대륙 최고봉 등정을 다우악 전 회원들의 열렬한 관심과 참여 속에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쾌거는 긴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다우악 회원 개개인의 협심과 내심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부산학생산악연맹의 모든 선후배님과 내통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발전할 수 있으리가 자부한다.

동아대학교 산악회
DONG-A UNIVERSITY ALPINE CLUB

부기 / 로고

Dong-A University Alpine Club의 Initial인 DAUAC(다우악)을 Echo로 사용하며, 한자로도 多友岳-벗이 많다는 좋은 의미가 있어 친근하지 않는가?

정기 출간지


동아산맥 9호(1971년)



동아산맥 11호(1979년)



동아산맥 12호(1980년)


동아산맥 13호(1982년)



동아산맥 14호(198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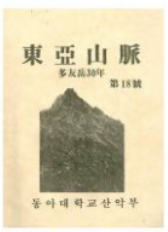
동아산맥 15호(1984년)



동아산맥 16호(1985년)



동아산맥 17호(1986년)



동아산맥 18호(1987년)

각종 기념 팬던트



연혁

날 짜	내 용	비 고
1958년	동아대학교 산악부 창립	
1958년 06월 10일	동아대학교 산악부 회칙 7장 30조 제정	
1961년 04월 15일	산악부 정기 총회(1호 다우악 회기 도안:배경수)	
1961년 04월 30일	산악부 창립 기념 등반(영취산)	
1961년 12월 03일	재부학생산악부 합동 등산(무척산)	박영수외 4명
1962년 03월 17일	산악부정기총회(학교 및 총학생회에서 산악부허가)	
	2호 다우악 회기 도안 배경수	
1966년 06월 25~26일	제1회 부산학생등산대회(금정산) 준우승	A팀:이재문외5명
1966년 11월 01~03일	제1회 장비전시회(개교기념)	
1966년 12월 01일	고등부 5개교와 대학부(부대,동대,수대,해대,부여대) 부산학생산악연맹 발기 모임	
1968년 03월 31일	부산학생 산악 연맹 결성(동아대,부산대,수산대,해양대, 부산여대)	회장 : 김택진
	부산학생 산악 연맹 초대회장 김택진 동아대교수	
	부산학생 산악연맹 초대 대표상임위원 김태근(61:1학기), 최해곤(64:2학기)	
1979년	제1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회장 정병은(60) 취임	
1981년 07월 01일	파빌봉 정찰(1981.7.27~9.13)	주시정
1982년 07월 01일	파빌봉 원정대 출발	지도위원:김두억
1982년 10월 01일	82 히말라야 파필원정대 정상등정	대장 주시정
1986년 08월 11~20일	개교 40주년 기념 일본 북알프스 1차 해외 원정	정민규,박병환,조규진 이영주,정명교
1987년 07월 17일~ 8월 10일	동아대학교산악부창립30주년기념산행 태백산맥종주(승학산~진부령)	이용수외 9명
1988년 01월 26일~27일	동계 토왕폭 상 하단 연장 등반	최태동, 김인철, 정명교

날 짜	내 용	비 고
1988년 10월	동아산맥 19호 발간	
1989년 09월 30일~ 10월 09일	일본 북알프스 등정	성기진,백진국,송근형,이행순
1990년 08월 10일~09월 26일	히말라야 그레이샤돔(7193m) 원정 등반	등정:백진국
	(정민규,이석호,김인숙,윤종호,백진국)	
1992년	제2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회장 최해곤(64) 취임	
1993년 09월~11월	승학암 개척 등반	
1994년	제3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회장 강윤칠(69) 취임	
1994년	천산 산맥 칸텡그리(7010m) 원정 등반	조벽래, 황인철
1994년 12월 01일	부산학생산악연맹 백두산 동계등반 참여	대장 정민규(75), 박범식(92)
1995년	천산 산맥 칸텡그리(7010m) 원정 등반	김인숙, 류보현
1995년 08월 04~10일	말레이시아 키나발루(4101m) 원정 등반	정광호, 이재규
1996년	제4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회장 길광호(70) 취임	
1996년 08월 10일~09월 23일	인도 마나파르밧 1, 2봉 원정 등반	조벽래, 이재규 2봉등정
	길광호(70),정민규(75),이석호(80),박병환(80), 이종언(84)	
	조벽래(88),정광호(90),이재규(91),김태완(91), 진동철(92)	
1998년 07월 01~09일	부산학생산악연맹 백두대간 1~7구간 종주	임동한외 10명
2000년	제5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회장 배병수(72) 취임	
2001년 07월 06일~ 08월 09일	낙동정맥 종주(장재용, 이정숙, 박희순, 오종일,김경아, 김남구, 김경희, 김인숙)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	박희순(98)
	초오유(8021m) 원정 등정(향암산악회) 9/16	류보현(89)
2002년	제6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회장 정민규(75) 취임	
2003년 01월 12~23일	동계 일본 북알프스 등반(오종일,장재용,전승주,박수정, 김인숙)	
	부산학생산악연맹 여성합동대 맥킨리 원정등반	김인숙(82)
2003년 05월 31일~ 06월 01일	제38회 부산학생등산대회 남대부 준우승(김성배,오종일, 김주성,방성훈)	
2005년 07월 22일~ 08월 10일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 타지키스탄 마운틴 판	이석호(80), 김남구(01)
2006년 06월 10일~ 08월 20일	가셔브룸1봉(8068m), 2봉(8035m) 등반	1봉: 조벽래 등정
	정민규,이석호,김정곤,김인숙,백진국,조벽래,김남구	2봉:백진국,김남구 등정
2006년 07월 21일~ 08월 09일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파미르고원	박하나
2008년	제7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회장 이석호(80) 취임	
2008년 06월 14~15일	제41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여자대학부 우승(박하나, 이영민)	

날 짜	내 용	비 고
2008년 07월 23일~ 8월 03일	유럽최고봉 엘브루즈원정(정순천, 이석호, 조광제, 성기진, 조벽래, 김태완, 김남구, 이영민, 차월준)	이석호, 조벽래, 김태완, 김남구 등정
2009년 07월 01일~ 08월 11일	한국공거얼(7719m)원정대참여	박병환, 오세인 (등정)
2010년 03월 26일~05월 29일	2010 동아대학교 에베레스트 원정(8848m)	조벽래, 장재용, 김남구 등정(5/17)
	원정대장: 성기진(85), 등반대장 : 조벽래(88), 장재용, 김남구	
2010년 07월 19일~08월 10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 K2 곤도고르 파키스탄 히말라야	이경영(09)
2011년 08월 21~27일	GlobalYouthSummit2011. International Youth Climbing and Trekking Camp(마케토니아 국제청소년갬프) 참여	김나원(09)
2012년 01월 07~19일	세계6대륙 제3차 킬리만자로 원정 김정곤, 이석호, 조광제, 김성배, 김남구	김정곤, 이석호, 조광제, 김남구 등정
2012년	제8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회장 조광제(82) 취임	
2012년 07월 18일~ 08월 20일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 중국 사천성, 몽골 알타이 산맥	백진국(85), 조형석(10)
2012년 08월 07~14일	한중일 대학생 교류 등반대 중국 우한	유창윤(11)
2013년 07월 19일~ 8월 10일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중국 곤륜산맥(6000m)' 참가	김나원(09)
2013년 07월 25일~ 08월 15일	'국제 청소년 산악캠프' Global Youth Summit 2013 ' 키르키스탄 레닌피크(7134m) 참여	조형석(10)
2013년 12월 26일~ 01월 21일	세계 6대륙 제4차 아콩가구아 원정 (등정일: 2014.01.08) 김남구(01), 김인숙(82), 윤중수(82), 김나원(09), 조형석(10), 유창윤(11)	김남구(01), 김인숙(82), 윤중수(82), 조형석(10), 유창윤(11) 등정
2014년	제9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회장 백진국(85) 취임	
2014년 07월 24일~ 08월 15일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 '카자흐스탄 천산산맥(4000m)' 참가	정봉준(13)
2015년 07월 13일~ 08월 02일	세계 6대륙 제5차 칼스텐츠 원정 (등정일: 2015.07.22.) 조벽래(88)	조벽래(88)
2015년 07월 23일~ 08월 13일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 '카라코람산맥' 참가	박희진(12)
2015년 07월 24일~ 08월 03일	UIAA국제청소년 캠프 Mt.Kazbek 참가	맹규노(12)
2016년	제10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회장 정순천(80) 취임	
2016년 05월 18일~ 06월 11일	세계 6대륙 제6차 데날리 원정(등정일:2016.06.04) 정순천(80), 성기진(85), 조벽래(88), 이행순(88), 김태완(91), 진동철(92), 황태웅(92), 장재용(97), 맹규노(12)	정순천(80), 조벽래(88) 이행순(88), 김태완(91) 진동철(92), 황태웅(92) 장재용(97), 맹규노(12) 등정
2018년	제11대 동아대학교 산악회 회장 김인숙(82) 취임	

동의대학교

소개글



동의대학교산악부는 동의대학교 설립과 함께 시작된 산악부로 현재까지 39년 전통을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창설 40주년을 맞는다. 정의 울림으로 이어진 동의대학교 산악부는 1993년 요세미티 하프돔 등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산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강한 의지로 원정에 대한 높은 이상과 원대한 꿈을 이뤄냈다. IMF로 인해 10년간의 큰 공백기가 있었으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2012년 새로운 YB들의 비상을 시작으로 현재 정기적으로 YB와 OB모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5미터 높이의 실내인공암장을 이용하여 각종 볼더링과 스포츠클라이밍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여비되어 부산학생산악연맹 볼더링대회를 매년 이곳에서 열고 있다. 또한 신입생 교육과 리딩훈련 및 개인 클라이밍 연습을 통해 무한한 역량을 키워내어 다양한 난이도의 자연바위를 오르내릴 수 있는 준비된 클라이머들이 되어가고 있다.

부기



젊은이로서의 이상과 젊음을 불태우는 광장인 본 산악부(D.E.U.A.C)의 영문자 표기는 Dong Eui University Alpine Club의 약자이다. 전체 그림은 山(산)을 상징하고 DEUAC의 명칭이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산에서 활동함을 나타

낸 것이다. 바탕의 흰색은 대학 생활에서의 순수성과 윤택함을 나타내며, 검은색은 젊은 이로서의 미지의 세계에 강한 의지로서 보다 높은 이상과 원대한 꿈을 나타낸다.

연혁

날 짜	내 용
1979년	창설 1기 손기호
1988년	일본북알프스 동계 원정등반 - 7기 강창돈, 방덕윤
1993년 6월 17일 ~ 8월 3일	엘케피탄의 살라테월, 노즈, 이스트버트레스 등정 하프돔의 다이렉트 노스웨스트페이스 16p 등정
2013년 7월 6일	동의대학교 실내인공암장 개소식
2013년	전국체전 남자부 2위 - 34기 임기영 (김민성,박종홍)
2014년	천고지종주대회 여자부 2위 - 36기 황원정,강은진 (김현수)
2017년	대통령기전국등산대회(분성산) 남자부 3위 – 이창욱,안상민 (김성수) 여자부 3위 – 최지현 (안정희,김가형)





동의과학대학교

소개글





동의공업전문대학 산악부로 처음 창설되었으며 1991년 식품공학과 재학 중이던 정오철(88), 손대익(91), 양저용(91) 이렇게 세 명이서 M.T를 갔다가 우연히 생각이 맞아 산악부를 창설하게 되었다. 더더욱 식품공학과 교수 중 허성호 교수님이 산을 좋아하셔서 산악부 창설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장비부족과 동아리 방이 없는 것이었다. 안전벨트가 없어서 슬링으로 대신하고 자일이 없어서 빨랫줄을 가지고 등반을 했다고 한다. 또 동아리 방이 없어서 학교 본관 뒤 등나무에서 회의를 하고 비라도 내리면 화장실에 들어가 회의를 했다고 한다.

그 후 1991년 부산학생산악연맹에 가입을 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고, 틈틈이 돈을 모아 장비도 구입하여 하나씩 늘려나갔다. 그러던 와중에 한우리산악회 오희수(동의공전 81)선배님을 알게 되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고 92년도 제 2기 신입생 9명을 모집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99년도 당시만 하여도 산악부는 1년에 23~27회의 산행과 2회의 장기등반을 실시하였고, 다른 산악부와 비교하여 내세울 점은 산악부 선후배 사이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고 사생활도 서로 터놓고 지내며 어려운 일도 서로 도와주려 노력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제 동아리 방도 생겼고, 장비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산악부를 만들어 좋은 환경에서 후배들이 활동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부기









동주대학교

소개글



우리 동주대 산악부는 1981년에 발족하여 36년간 산을 사랑하면서 대자연과 호흡하며 젊은이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우고 젊음과 도전정신으로 산악활동을 하면서 선후배들과 돈독한 인연을 맺어온 인생의 동반자 모임입니다.

학창시절 산악부 활동이 중요한 것은 산악활동을 통하여 불굴의 근성과 인내심을 배울 수 있었고 인생의 체험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사회인으로 출발 시 어려움의 극복과 도전정신의 발로는 그간 선배님들께 배운 산악부활동의 근본바탕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1990~2000년대의 활약상으로 95, 96학번들의 일본 북알프스 다테야마 원정과 유향미회원의 미친 자기개발과 선후배들의 도움으로 푸모리 원정대 등정, 맥킨리 원정대 등정, K2 원정대 참가, 요세미티 원정 등 왕성한 활동 시기도 있었답니다.

2·3년제 학과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재학생들의 발전적인 활동을 무한히 꿈꾸고 있지만 작금의 현실에 무한 반복의 안타까움을 안고 20여명의 열정적인 악우님들의 적극적인 연대감으로 뫼띠앗의 산사랑은 OB·YB의 끈끈한 정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부기

동주대학산악부
D.J.C.A.C

연혁

날 짜	내 용
1981년	동주여자전문대학 산악부 창단
1982년	부장 : 김경옥(1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1983년	부장 : 이민자(2기) 하계 : 지리산(불일폭포등반), 삐올레 라마쎄 등반훈련, 등산대회 우승
1984년	부장 : 김미련(3기) 하계 : 지리산, 등산대회 우승
1985년	부장 : 박향숙(4기) 하계 : 지리산, 등산대회 우승
1986년	부장 : 박미선(5기) 하계 : 지리산
1987년	부장 : 이기남(6기) 동계 : 설악산
1988년	부장 : 정용둘(7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1989년	부장 : 이은정(8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1990년	부장 : 강은지(9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1991년	부장 : 김선옥(10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1992년	부장 : 이상엽(11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1993년	부장 : 김지영(12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1993년	동주여자전문대학 OB산악회 창단 초대회장 김재숙(8기), 회칙 제정
1994년	부장 : 김미옥(13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1994년	OB회장 김재숙(8기)
1995년	부장 : 정현정(14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1995년	OB회장 안명선(2기), 회칙 1차 개정
1996년	부장 : 이미옥(15기) 하계 : 일본 다테야마, 동계 : 설악산
1996년	OB회장 안명선(2기), 기술부산행실시 (OB,YB)
1997년	부장 : 박성미(16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1997년	OB회장 안명선(2기), 기술부산행실시 (OB,YB)
1998년	부장 : 전소영(17기) 하계 : 백두대간 종주, 동계 : 설악산
1998년	OB회장 박향숙(4기), 기술부산행실시 (OB,YB)
1999년	부장 : 황선희(19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1999년	OB회장 박향숙(4기), 기술부산행실시 (OB,YB) 동주대학으로 명칭 변경 (남녀공학)
2000년	부장 ; 김현영(20기) 하계 : 설악산, 동계 : 설악산
2000년	OB회장 정인숙(8기), 기술부산행실시 (OB,YB)
2001년	부장 : 박수진(20기) 하계 : 설악산
2001년	OB회장 정인숙(8기), 기술부산행실시 (OB,YB)
2002년	부장 : 이인애(22기) 동계 : 설악산
2002년	OB회장 백순여(9기), 기술부산행실시 (OB,YB)
2003년	OB회장 정인숙(8기), 하계산행 (지리산)

날 짜	내 용
2004년	부장 : 이인애(22기) 동계 : 설악산
2004년	OB회장 정인숙(8기), 하계산행(영남알프스)
2005년	OB회장 정인숙(8기), 하계산행(지리산종주)
2006년	부장 : 장지호(25기) 하계 : 지리산
2006년	OB회장 정인숙(8기), 하계산행(지리산종주)
2007년	OB회장 백순여(9기), 하계산행(지리산종주)
2008년~2013년	OB회장 백순여(9기) 하계산행(지리산), 제주도 한라산
2011년	부장 : 오용희, 오서빈(31기), 학생연맹 등산학교
2012년	부장 : 장세영(32기), 학생연맹 등산학교,
	하계 : 설악산, 동계 : 한라산, 밀양 얼음골(빙벽)
2013년	부장 : 강나루(33기) 학생연맹 등산학교
2014년~2015년	OB회장 정인숙(8기)
2016년~현 재	OB회장 문재원(11기)











부경대학교

소개글



부산의 산악문화 초창기부터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던 (구)부산공업대학교 산악부(회)와 (구)수산대학교 산악부(회)가 2003년 5월 통합총회(초대회장 서승일, 63학번)를 거쳐 공식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1963년과 1964년에 창립된 두 산악부는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 산악단체 및 연맹과 교류하며, 수준 높은 기술을 도입하고, 기량을 습득하여 걸출한 산악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훌륭한 선배로부터 교육받은 80년대와 90년대 학번까지 각 각의 개성이 강한 산악부로서 1996년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하였다.

1996년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가 많은 반대와 산고 끝에 부경대학교로 행정적인 통합을 한 이후도 2000년대 초반까지 용당캠퍼스와 대연캠퍼스로 이분화되어 산악활동을 이어갔으나, 시대의 흐름과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OB와 YB 모두 하나가 되는 약속으로 2003년 통합총회를 개최하였고, 창립기념등반과 이듬해 제1차 통상총회를 거쳐 공식적인 부경대학교 산악부(회)로 조직이 정비되었다.

또한, 통합 기념 해외 원정 등반과 전 회원이 참여하는 백두대간 종주행사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모든 OB와 YB 회원들은 통일된 산악활동으로 하나의 색깔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부경대학교 산악회는 뿌리 깊은 선후배 간의 정으로 산과 사회활동 전반에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헤쳐 나가는 진정한 산악인들의 모임이며, 인간적인 교류는 물론, 끊임없는 자기도전과 해외원정등반, 개척으

로 알피니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속된 단체와 연맹과 사회에 항상 봉사를 할 줄 아는 젠틀맨들의 집단이다.

80년대 초중반부터 역량있는 회원들은 히말라야 고산 해외원정등반에 도전하기 시작하여, 파빌봉, 푸모리 정찰, 자누봉 동계초등, 캉첸중가 등반 등이 이어졌고, 93년 단대원정 인도 히말라야 팝수라, 다람수라등반을 기점으로 2017년도까지 수많은 해외원정등반 도전이 이어졌고, 기본적인 산악활동으로 장기 암.빙벽등반, 국토종주, 장기산악종주활동을 하고 있다.

홍보성대장, 김창호대원, 그리고, 안타깝게 고인이 된 서성호대원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다이나믹부산 희망원정대 활동으로 8000m 14개 봉우리 단독팀등정의 쾌거와 한국 산악문화에 큰 획을 다시 쓰기도 하였다.

부경대학교 산악회와 회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됨과 동시에 진정한 산악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리더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 참고. 부경대학교 통합연혁

1996년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가 통합해 새로 출범했다.

부산수산대학교는 1941년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인 부산고등수산학교에서 출발했다. 1964년 부산대학교에서 분리되어 부산수산대학이 되었으며, 199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부산수산대학교가 되었다.

부산공업대학교는 1924년 근대식 공업기술교육기관으로 설립된 2년제 부산공립공업보습학교에서 출발했다. 1963년 부산공업전문학교(5년제), 1973년 국립 부산공업전문학교를 거쳐 1984년 4년제 부산개방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88년 부산공업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 뒤 1993년 부산공업대학교로 학교 이름을 바꾸었다. 1996년 대연동에 캠퍼스를 둔 부산수산대학교와 용당동에 캠퍼스를 둔 부산공업대학교가 통합해 부경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후 두 개의 캠퍼스에 새로 건물을 준공하고 각종 부속시설을 설립했다.

부기/로고

부경대학교 산악회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부경대학교 산악회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부경대학교 산악회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釜慶大學校 山岳會



연혁

날 짜	내 용
1963년 03월	부산공업고등 전문학교 산악부 창립
04월	창립 기념 등반
1964년 03월	부산수산대학교 산악부 창립
1968년 03월	부산학생산악연맹 가입(수대)
1970년 03월	부산학생산악연맹 가입(공대)
1972년 01월	동계 장기 등반 (지리산)
1973년 10월	팔공산기 전국 등산 대회 (준우승)
1974년 01월	동계 장비 등반 (한라산)
04월	O.B산악회 창립(수대, 초대회장 이원영 66)
05월	제7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 대회 (모범상)
10월	계룡산기 전국 등산 대회 (우승)
1975년 01월	O.B산악회 창립(공대, 초대회장 서승일 63)
1975년 05월	제8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 대회 (우승)
10월	계룡산기 전국 등산 대회 (우승)
	교내 등반 대회 개최 (취서산)
1976년 05월	제9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 대회 (준우승)

날 짜	내 용
10월	계룡산기 전국 등산 대회 (우승 3연패)
1978년 10월	계룡산기 전국 등산 대회 (우승 4연패)
12월	북극 탐험대 초청 강연회
1979년 10월	히말라야 닐기리봉(7134m) 정찰
1980년 09월	제13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 대회 (준우승)
1981년 10월	히말라야 파빌봉(7102m) 정찰
1982년 11월	히말라야 푸모리(7145m) 정찰
1984년 11월	히말라야 쟈누봉(7710m) 동계 초등. (안진현83)
1988년 02월	히말라야 칸첸중가(8598m) 등반 (이종연82)
10월	제21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 대회 (우승)
1989년 10월	제22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 대회 (준우승)
	제2회 금정 암벽 대회 입상 (1위:정대길82, 2위:권광호88)
1990년 10월	제23회 전국 등산 대회 (준우승)
1991년 05월	북미 데날리(6194m) 등반 정대길(82)
1992년 01월	동계 토왕성 폭포 등정(남현욱85,권광호88)
07월	하계 장기 등반(설악산) 및 동해안 국토종주(522km)
10월	인도 히말 쿨루산군 정찰 (홍보성74, 남현욱86, 권광호88)
1993년	인도 히말라야 다람슈라(6645m), 팝슈라(6451m) 원정
	원정대장 홍보성(74) 총인원 9명 OB(5명), YB(4명)
1994년 01월	동계 토왕성 폭포 등정(박준범89)
12월	연맹 백두산 동계 등반 (박준범89, 최화영89, 전윤주90)
1999년 10월	아이거(3970m) 등정 (박준범89)
2000년 07~08월	하계 장기 등반 (낙동정맥) – 27박 28일
2001년 05월	북미 알라스카 데날리(6194m) 등정 (구진국89, 김태훈93, 홍춘표93, 허기용95)
2003년 05월	부경대학교 산악부(회) 통합총회 (초대회장 서승일)
06월	통합기념산행 – 경주 단석산
2004년 05월	북미 알라스카 데날리 (6194m) 등반 (박준범89, 장종욱93, 소진호98, 서성호98, 강대희99, 안소현01)
2004년 04월 ~ 2005년 02월	통합기념 백두대간 전회원 구간이어받기 완주.
2005년 03월	히말라야 푸모리(7145m) 등정 (단장 서승일, 대장 홍보성, 등정 서성호)
2006년 03월	부산 에베레스트(8848m) 원정대 등정 (대장 홍보성, 등정 서성호)
2007년 06월	다이나믹부산 2007 K2(8611m), 브로드피크(8051m)원정대(대장 홍보성)
2008년 03월	다이나믹부산 2008 마칼루(8485m),로체(8516m)원정대 (대장 홍보성, 무산소등정 서성호)
2009년 03월	다이나믹부산 2009 희망원정대.마나슬루(8163m),다울라기리1봉(8167m) 안나푸르나1봉(8091m 실패) (대장 홍보성, 무산소등정 서성호)
2010년 03월	다이나믹부산 2010 희망원정대. 캉첸중가(8586m),낭가파르바트(8125m), 시샤팡마(8012m). (대장 홍보성, 무산소등정 서성호)
2011년 03월	다이나믹부산 2011 희망원정대. 안나푸르나1봉(8091m), 가셔브룸1봉(8068m), 가셔브룸2봉(8035m), 초오유(8021m). (대장 홍보성, 무산소등정 서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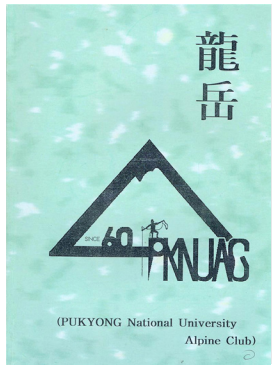
날 짜	내 용
2012년 09월	킬리만자로(5895m) 등정 (김태철00)
2013년 03월	From 0 to 8848 에베레스트 원정대 (대장 김창호, 서성호 무산소등정)
2014년 01월	남미최고봉 아콩가구아(6962m) 등반 (최진호07, 신창용12)
2014년 07월	UIAA 국제청소년캠프 참가 (박종홍 11)
2016년 06월	2016 5개시도 합동 거니에(Ge'Nyen, 6,204m)원정대 (이재훈12, 김인엽13)
2017년 04월	코리안 웨이 인도 원정대 다람수라(6446m) 북서벽 신루트 등정 (대장 김창호, 이재훈12)
2017년 07월	하계 백두대간 일시 종주산행완주(38일-680km) (박종홍11, 박혜문12, 김성수14, 이재훈12합류, 김가형16합류)

간행물
























부경대학교산악회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부경대학교 산악회



부산대학교

소개글



부산대산악부의 시작은 부산청년등산구락부 (현 부산산악회 전신)에서 활동하던, 최상훈(59학번), 박진(60학번)이 1960년 10월 공대산악부를 발족하여 1960년 12월 6일 공대 강의실에서 최상훈, 박진, 김승치, 김영순, 김념 외 10명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부장으로 최상훈을 선임한 것이 그 시작이다.

창립기념 산행은 영남 알프스의 영취산(취서산)으로 정하고 12월 10일 첫 산행을 가졌다.

1961년에 공대산악부의 구미 금오산 등산에 참가한 김재도, 김일암을 주축으로 상대 산악부를 발족하여 10월에 창립을 위한 집회를 학내 강의실에서 가진 후 초대 부장에 김재도를 선임하고, 그해 10월 16일 가야산에서 14명이 참가하여 상대산악부의 공식 산행이 시작되었다.

당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19혁명 이후에 사회적으로 대체로 어려웠으며 대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가 열악해 등산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예상외로 많았다고 한다. 또한 국내 등산서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외국서적 취급 서점에 가서 일본 서적을 주문하여 주위 분께 번역을 부탁했다고 한다.

또한 대학산악부의 등산이 맹목적이고 알맹이가 없는 무모한 행위가 아닌, 체계적이며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행해지는 산악운동이라는 것을 내외에 보이는 기회로 삼으려고, 1963년부터 5월 대학 축제 기간에 산악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악전시회는 사진전에서 시작하여 장비전시회로 점점 내용이 발전하다가 1990년대 중반이후 사라지게 되었다.

상대산악부가 1961년 창립한 이후, 공대산악부와 선의의 경쟁을 거듭하

던 중 1962년 5월 다시 영취산에서 두 산악부 회원 57명이 합동산행을 하게 된다. 그 후 1964년에 각자의 색깔과 전통을 가지는 것에서 통합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게 되어 그해 부산대학교 산악부로 합쳐지게 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964년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한라산 하계등반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6월 2일 금정산에서 1,000차 산행을 진행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50주년 기념으로 50년 행사 및 부산대학교 산악부 50년사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신입 회원의 모집은 항상 큰 고민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축제때에 지리산 안내 종주 등반 등의 여러 시도와 1991년도에 실외 운동장에 인공암장 설치, 2006년도에는 실내에 인공암장을 설치하여 회원들의 실력 향상 및 스키 산행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회원간의 연락 및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는 1999년 4월 6일을 기점으로 산악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정호(82) 회원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관리자로서 유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내의 동아리로서 학교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된 데에는 정년퇴임시까지 몇십 년간을 지도교수로서 자리매김해 주신 최상문교수님의 노력도 있었다. 그 덕에 많은 동아리가 동아리 방이 없음을 힘들어하고, 동아리방이 옮겨지는 수모를 겪음에도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옆 동아리가 사라질 때 그 자리에 실내 인공암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초 부산대와 동아대가 각종 등산대회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는데, 등산을 점수로 견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동아대 길광호(70), 부산대 성경직, 이희태(이상 70) 회원이 71년 격년으로 축구 시합을 주최하였는데 시합 조건은 일정한 무게의 룩색과 등산화를 신고 뛰는 것이었는데, 이후 주축이 입대 하면서 흐지부지되다가 1999년 다시 부활하여 현재 매년 합동 산행 및 축구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축구선수는 부산대가 훨씬 젊은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동아대가 이기고 있으니 젊은패기보다는 연륜과 경험이 압도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해 본다.

부산대학교 산악부의 부훈은 성실하며, 검소할 것이며, 순(順)하지 말자이다.

끝으로 한 회원의 글로 맺고자 한다. '각자가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 산을 찾고 그리고 그 나름에 한계를 그어 두고 쉬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그리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희열을 얻을 수 있다면 산을 전제로 한 모든 행위는 알피니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산은 그대로며 물은 옛물이 아니듯이 거기에 산이 있는 한 우리의 오르는 행위 역시 계속되지 않을까?

부기











연혁

날 짜	내 용
1960년 10월 17일	부산대 공대 산악회 창립
1960년 12월 10일	부산대 공대 산악회 창립 기념산행
1961년 04월	부산대 상대 산악회 창립
1961년 10월	부산대 상대 산악회 창립 기념산행
1963년 01월	적설기 한라산 부산지역 초등
1964년 05월	부산대 문리대 산악회 창립 기념산행
1964년 06월 05일	공대, 상대 문리대 산악회 통합
1966년 02월	적설기 지리산 칠선계곡 부산지역 초등
1967년 01월	적설기 덕유산 종주 부산지역 초등
1967년 05월 18일	학사산악회 창립(OB)
1969년 06월	영남알프스 (7개산 종주)
1971년 11월 21일	200차 기념전 및 산행
1972년 07월~08월	태백산맥, 소백산맥 구간 종주 시작
1981년 03월	부산대학교 OB산악회 (OB 재발족)
1982년 07월~10월	부산학생산악연맹 히말라야 파빌봉(7052m)원정 참여
1984년 04월 29일	500차 기념 산행
1988년 01월~02월	동계 태백산맥 종주 (51일, 542km)
1989년 07월~08월	아이거, 마타호른, 그랑조라스 ALPUS 3대 북벽 원정
1991년 12월~1992년 01월	CHO OYU(8201m) 서릉, ISLAND PEAK 남서벽(6189m) 예비정찰
1993년 07월~08월	일본 북알프스 및 조가시키 해벽 원정
1997년 07월~08월	낙동정맥 종주(태백산맥), (태백 천의봉-다대포 몰운대) (27일, 370km)
2000년 07월~08월	백두대간 종주 (46일, 484km)
2001년 07월	코타키나발루 (4099m) 등정
2002년 07월~08월	중국 황산 등정
2003년 08월	후쿠오카 일대 원정 (히라오다이 석회동굴, 소보산)
2006년 07월~08월	중국 무즈타그아타(7546m) 원정 참여 (울산. 산울림 산악회 주체)
2007년 06월	1000차 기념 산행
2007년 08월	중국쓰구냥산 (5355m)등정
2008년 07월~08월	유럽 최고봉 엘브르즈(5642m) 등정
2009년 07월	부산학생산악연맹 2009 한국공거얼(7719m) 원정 참여








PNUAC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개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악부는 1976년 성지공업전문학교 개교 1년 후 1977년 '산을 사랑하며, 산을 배우고, 산을 지킨다.'는 부훈으로 초대부장 성환균(76학번) 외 6명이 발족하여 금정산으로 첫 산행을 하였다.

1985년, 1998년, 2012년 교명이 부산전문대학, 부산정보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산악부 이름도 함께 변경하여 현재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악부(이하 과기대 산악부)로 활동하고 있다.

과기대 산악부는 1977년 당시 국내산악인들의 각축장이었던 토왕성빙벽을 두 번째로 오른 부산합동대의 배종순, 김원겸, 김문식, 한성진이 속한 엑셀시오 알파인클럽으로부터 암벽과 빙벽등반기술뿐만 아니라 막영, 취사, 장비사용법 등 등산에 관련된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전수받았으며,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엑셀시오 알파인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86년 엑셀시오 알파인클럽의 동계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대장 배종순)에 최태식(80학번), 박병량(80학번)이 대원으로 참여하였다. 원정대는 배종순, 김원겸 대원이 아이거북벽 등정 후 실종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귀국하였고, 두 대원은 이듬해 시신 수습을 위해 아이거(3970m)를 올랐다.

과기대 산악부는 매년 설악산에서 설상등반과 빙벽등반을 연마하는 동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87년 동계훈련 때는 최태식과 홍종표(82학번)가 토왕성 빙벽 상.하단을 올랐으며, 이후 동계훈련 중에는 꾸준히 토왕성 빙

벽을 오르고 있다.

1988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다울라기리 1봉(8167m) 부산합동대 원정 대원으로 최태식이 참여하여 국내초등의 쾌거를 이뤘으나, 안타깝게도 고소에서의 비박으로 인하여 발가락 8개를 잃고 말았다. 이후 최태식은 강철 같은 체력과 곰 같은 우직함으로 산에 대한 열정 대신 사업으로 눈을 돌려 인조잔디 설치 전문업체인 스포케믹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학생산악연맹의 부회장직을 맡아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 과기대 OB산악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에 박병량을 선임하여 YB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였고, 강한진(81학번) 회장 임기 중인 1996년 드디어 순수 과기대 산악부 출신으로만 구성된 해외원정대를 꾸리게 되었다. 대상지는 국제캠프가 열린 천산산맥의 포베다(7439m)이며, 대장 이만수(88학번)를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었다. 대원 모두 해외원정 경험이 전무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김인호(92학번)대원이 정상 등정에 성공하였다.

포베다 원정대장이었던 이만수는 2000년 울산산악연맹 원정대에 참가하여 등정 성공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재 울산에서 늘오름 산악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과기대 산악부는 2000년 이후 YB가 유입되지 않아 긴 침체의 길을 걷다가 2014년부터 김재형(90학번) 회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몇 명의 Y.B 회원이 입회 후 산악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OB 회원들을 중심으로 년 4회 정기산행을 하고 있고, 매년 동계시즌에는 토왕성 빙벽을 등반하고 있다.

2017년 현재 OB 회장을 맡고 있는 홍종표 회원은 국내 최대 인공암벽 전문업체인 Climb Korea의 전무로서 인공암벽 분야 개발, 설계 및 국내.외 설치를 담당하고 있고 각종 대회를 후원하여 산악인의 등반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기



연혁

날 짜	내 용	비 고
1977년 3일	성지공전 산악부 창립	부장 성환균
1980년 9일	금정산 대통령배 참가	박병량, 최태식, 최명원
1981년	팔공산 대통령배 참가	박병량, 최명원
1981년 9일	금정산 부산학생산악회장배 참가 / 준우승	최태식, 박병량, 박호천
1986년 11일	동계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 참가	최태식, 박병량
1987년	아이거(3970m) 등정	최태식, 박병량
	토왕성 빙벽 상.하단 등반	최태식, 홍종표
1988년	다울라기리 부산합동원정대 참가	최태식 등정(국내 초등)
1990년	에베레스트 남서벽 원정대 참가	최태식
	과기대 O.B 산악회 창립	회장 박병량
1996년	포베다(7439m) 원정	이만수(대장)외 5명 김인호 등정
1997년	지리산 등산 대회 참가	성경진외 3명 혼성부 1등
2000년	에베레스트(8848m), 로체(8516m) 울산원정대 참여	이만수





부산교육대학교

소개글



부산교육대학교 산악부는 1967년부터 개인적으로 등반 활동을 하던 회원들이 1969년 10월 3일 임원규(67학번)외 8명이 영취산에서 창립기념 산행을 시작으로 부산교육대학 알파인 클럽(BTCAC : Busan Teacher College Alpine Club)로 출범하였다. 1971년 10월 부산학생등산대회 여자대학부 우승을 했고, 1983년 재학생 중심으로 산악회지 '산놀'을 창간하여 10여 년간 발행하다가 홈페이지개설로 중단되었다.

주말과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 OB, YB합동 산행을 꾸준히 하여 해외 첫 원정을 1982년부터 준비하여 1985년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산군 투쿠체 피크(6920m)원정대(대장 신호진 등반대장 이동본 대원 임두희, 양정환)가 9월 4일 임두희, 양정환 대원이 정상등정을 했다. 1988년 김석수(86학번)가 60여 일의 동계 태백산맥 단독 종주를 했다. 두 번째 해외 원정으로 1992년 파미르고원 원정대(대장 신호진외 10명) 코르제네프스카야(7105m)와 포봉(6400m) 등정을 하였고, 1995년 한국산악회부산지부 포베다 캉덴그리 원정대(대장 신호진 대원 차광훈, 박종화)에 참가하여 박종화 대원 캉덴그리 등정, 1997년 일본 북알프스 산행 등 1980~1990년대 국내외 활발한 등반활동을 했다.

신호진(74학번)회원의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장과 한국산악회부산지부장, 이동본(75학번)회원의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장, 대한산악연맹부산연맹회장직을 맡아 산악단체를 이끌었고, 재학생 부산학생산악연맹 대표상임의원으

로 OB, YB모두 산악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했다.

2001년 미국 요세미티, 엘캡 “노즈”, “이스트 버트레스”, 하프돔 “북서벽” 거벽을 등반했고 중국 사천성 쥬산(6410m)을 2004년 1차, 2005년 2차, 2007년 3차에 걸쳐 도전하여 결국 세계 초등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외 원정 후 2~5년 정도 활동이 저조한 시기에 재학생 신입생 모집이 안 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80년, 90년대는 장비 전시회, 안내 등반을 통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고, 부실에 인공암장을 마련하여 암벽기술과 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2010년부터 재학생 부장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하고 있다.

2015년 8월 유럽 알프스 원정대(대장 신병건외 10명)를 파견하여 이탈리아 돌로미테 치마 그란데 북벽 코치미 루트, 치마 오베스트 데무스 루트, 치마 피콜라 옐로우 엣지 루트 등반, 스위스 알프스 아이거 미텔레기릉 등반, 뮌히 등반, 프랑스 알프스 몽블랑 등정을 하였다. 2016년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여대부 우승(YB 안소연, 김현수, 이한결)을 이루었다.

매월 정기산행(2회), 비정기 산행으로 꾸준히 암벽(빙벽)등반과 구간별 종주등반(백두대간)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등반 활동을 위해 실내암장에서 초크를 묻히며 좀 더 어려운 곳을 오르기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다.

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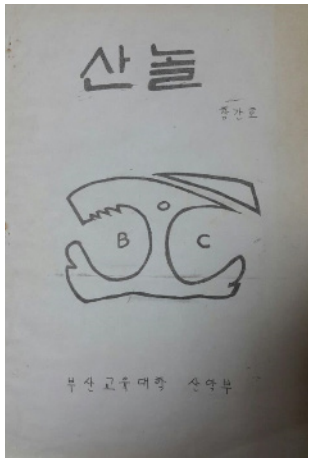




연혁

날 짜	내 용	대 원
1968년	부산교육대학 산악부 창립 초기 자생 모임	
1969년 10월 03일	부산교육대학 산악부 창립 기념 등반(영취산)	
1971년 10월	부산학생등산대회 여자대학부 우승(금강폭, 신불산, 영취산, 토곡산, 원동교)	이숙옥(대장), 유영진, 유제순, 김홍숙, 성정순
1982년	해외원정 준비 (다울라기리 산군 투쿠체봉(6920m)	
1983년	부산교육대학 산악회지 "산놀"창간	
1983년 01월 ~ 1985년 01월	해외원정훈련(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1983년 08월 01~30일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산군 투쿠체 피크(6920m) 정찰(신호진)	
1985년 07월 25일~ 09월 10일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산군 투쿠체 피크(6920m) 원정	신호진(대장), 이동본(부대장), 임두희, 양정환
1985년 09월 04일	투쿠체 피크(6920m) 등정	
1988년 10월 17일 ~1989년 02월 28일	동계 태백산맥 단독종주	
1990년 08월 03~11일	소백산맥 구간종주	김정규, 신호진, 최상룡, 양정환, 김수진, 김정수, 김대홍, 김석수, 박진규, 정우근, 차광훈, 김일영, 강성석, 박종화
1990년 10월	금정암벽대회 2위 입상(신병건86)	
1991년 01월	설악산 토왕폭 상하단 1일 등반, 소승폭 등반 성공	
1992년 07월 20일~08월 23일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 원정	신호진(대장), 최상룡(등반대장), 임두희, 양정환, 최태신, 김대홍, 김석수, 차광훈, 강성석, 박진규, 이재천
1992년 08월 09일	파미르 고원 코르제네프스카야르봉(7105m) 등정	
1992년 08월 16일	파미르 고원 코뮤니즘봉(7495m) 등반 -6,800m에서 눈보라로 하산	
1995년 08월	부산 한산지부 포베다, 캉덴그리 원정대 참가 (신호진, 차광훈, 박종화)	신호진(대장), 차광훈, 박종화
1985년 08월	박종화 캉덴그리 등정(부산한산지부 포베다, 캉덴그리 원정대)	
1997년 07월 23~27일	일본 북알프스 등반(이동본, 문진아, 전상은)	

날 짜	내 용	대 원
2001년 07월 25일~08월 20일	미국 요세미티 등반(엘캡-노즈, 이스트 버트레스, 하프돔-북서벽 등반)	신병건(대장), 이동본, 최태신, 김석수, 차광훈, 최민수, 배효일)
2002년 12월	부산교대 산악회가 제작 (작사 : 이동본, 작곡 : 신진수)	
2004년 01월 04일~1월 29일	중국 사천성 쥬산(Zhushan, 6410m) 1차 원정 등반 (5200m까지 진출)	신호진(대장), 김정규, 임두희, 양정환, 전상은, 김석수, 신병건, 차광훈, 배홍, 배효일, 장병재, 최민수
2005년 01월 02일~01월 18일	중국 사천성 쥬산(Zhushan, 6410m) 2차 원정 등반 (5920m까지 진출)	임두희(대장), 양정환, 김석수, 배홍, 장병재, 최민수
2006년 12월 28일~ 2007년 01월 29일	중국 사천성 쥬산(Zhushan, 6410m) 3차원 정 등반 (김석수, 서동업, 조창렬(부산대) 등정)	최태신(대장), 전상은(부대장), 김석수(등반대장), 김재연(부경대93),서동업, 조창렬(부산대90), 전혜영(부경대01), 이형탁
2007년 07월 24일~08월 28일	부산학생산악연맹 공거얼 1차 원정대 참가	최태신, 전상은, 김석수
2009년 07월 01일~08월 11일	부산학생산악연맹 공거얼 2차 원정대 참가 (서상호 정상 등정)	전상은, 김석수, 서상호
2015년 08월 04~24일	유럽 알프스 원정 등반	신병건(대장), 김정규, 양정환, 김수진, 김석수, 박종화, 서동업, 최민수, 배효일, 안소연, 김은총
2015년 08월 06~08일	돌로미테 산군(트리치메 데 라바레도) 등반 (신병건, 김수진, 김석수, 박종화, 서동업, 최민수, 안소연)	신병건, 김수진, 김석수, 박종화, 안소연, 서동업, 최민수
2015년 08월 11일	아이거 미텔레기릉 등반(김석수, 박종화, 서동업, 배효일, 최민수, 김은총)	
2015년 08월 11일	융프라우 뮌히봉 등정 (양정환, 김수진, 신병건, 안소연)	
2015년 08월 19~20일	몽블랑 등정	김석수, 박종화, 서동업, 최민수, 김은총
2016년 05월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여대부 우승(금메달)	안소연, 김현수, 이한결
2017년 01월 08일~16일	태국 크라비, 프라낭 해벽 등반	김정규, 김수진, 신병건, 김석수, 서동업
2017년 01월 08일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감사 재직	이동본


산놀
B C
부산교육대학 산악부


산 Ⅷ 슬
부산교육대학교 산악부


산 들
재 간 호.
B C
부산교대 산악부





부산외국어대학교

소개글



파릇한 봄기운이 나는 부산외대 산악부의 태동은 82학번 김영훈 선배님이 산악부를 84년 3월 신학기를 맞아 영남 알프스 영취산을 등산하고 창립하여 산악부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짧은 역사 속에서 웃고, 울었던 일이 엊그제 였는데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산악부의 일들을 우린 만들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 하며 이글을 쓴다.

1기 선배님부터 4기(87학번) 선배님들은 순수 워킹으로 산악부의 정을 만들어왔으며 부훈 “인내와 정열과 사랑으로 최후에 웃는 진실한 산악이이 되자”를 외치며, 꾸준한 장비전시회와 순수동아리로 활동하다 88년부터 부원들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등산방식을 도입하고,도전함에 이르러 90년에는 부산클라이머스에 암벽등반 교육을 받고,RC에 눈을 뜨게 되어 장기등반과 하계훈련을 실시 하고 이듬해 부산학생산악연맹을 알게되어 91년 준 가맹단체가 된 후 92년 연맹에 가입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에코는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하자라는 “자야”라 부르며,옆집 누나,동생 부르듯이 친근함을 자랑삼아 오늘도 산에 오르자, 내일의 더 높은 전진을 위해...

흰산과거벽에 대한 동경 기술습득에 대한 암벽과 워킹이라는 등산방식에 대해 선,후배들간은 조금 난처해 하였지만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체육대회로 슬기롭게 산악부를 연명하여 왔고,결속력을 다지는데 88학번 한 강수(구.달권)의 헌신이 산악부에 지대한 공으로 작용하였다.

92년 이후 매년 연맹 동·하계 훈련에 참가하여 기술 습득을 하고 94년 100차기념 등반으로 고종국(86학번)의 백두대간 종주로 산악부가 화합하는데 온 정을 기울이고, 94년 연맹 백두산 동계학술등반 한강수(구.달권88학번)가 참가하였으며, 96년 낙동정맥의 마루금을 긋고 이듬해, 97년 낙남

정맥을 종주하여 나름 워킹으로 다져진 산악회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사이 90학번을 주축으로 후배양성에 힘을 써 드디어 94학번 이성원회원을 중심으로 부산등산대회에서 남대부 우승이라는 괄목할 만한 활동도 하였다.

10여년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다 2000년도 부원 들의 급격한 감소로 동아리 활동이 명맥만 유지해오다 2002년에 문을 닫게된 산악부로 기억될 것이지만 언제가 OB들이 뭉쳐 산악부 재건하는 산악부를 재건하기를 바라고 있다.

부훈

忍耐와 情熱과 사랑으로 最後에 웃는 眞實한 山嶽人이 되자

부기



연혁

날 짜		내 용
1984년	03월 30일	부산외대 산악회 창립 회장:김영훈(82)
1985년	10월	제1회 산악 장비 전시회
1986년	05월	제2회 산악 장비 전시회
1988년	05월	제3회 산악 장비 전시회
1989년	04월	제4회 산악 장비 전시회
1990년	05월	제1회 OB-YB 춘계체전
		제5회 산악 장비 전시회
1991년	03월	산악회에서 산악부로개칭
	05월	5월 제6회 산악장비 전시회
		제2회 OB-YB 춘계체전
		제24회 한국등산대회 남대부 우승
	08월	제1차 하계훈련(지리산9박10일)
	10월	추계체전
1992년	02월	제1차 동계훈련(설악산10박11일)
	05월	제3회 OB-YB 춘계체전
	07월	제2차 하계훈련(설악산11박12일)

연혁

날 짜	내 용
1993년 01월	제2차 동계훈련(설악산16박17일)
1993년 05월	제4회 OB-YB 춘계체전
	제8회 산악장비 전시회
	제28회 부산학생등산대회 남재부 감투상 수상
1993년 07월	제3차 하계훈련(설악산)
1994년 01월	제3차 동계훈련(설악산)
1994년 05월	제5회 OB-YB 춘계체전
	제9회 산악장비 전시회
	제29회 부산학생등산대회 남대부우승,여대부 장려
1994년 08월	제4차 하계훈련(설악산 15박16일)
1994년 12월	부산학생산악연맹 백두산동계등반대 (대원:한달권 참여)
1995년 1월	제4차 동계훈련(18박19일)
1995년 05월	제6회 OB-YB 춘계체전
	제10회 산악장비 전시회
	제30회 부산학생등반대회 여대부 준우승,남대부 준우승
1995년 08월	제5차 하계훈련(설악산16박17일)
1996년 01월	제5차 동계훈련(설악산17박18일)
05월	제7회 OB-YB 춘계체전











부산여자대학교

소개글



부산 양정동에 위치한 부산여자대학은 1974년도에 산악부가 창립되었습니다. 낭만적인 이름과는 달리 여성 산악인으로서 남자 못지않은 강한 정신력과 계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단기 및 장기산행, 각종 등산대회 참가 그리고 연맹과 해외원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슴속에 들어있는 건 오직 산! 하루의 산행을 마치고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부르는 산노래에 선,후배 간의 깊은 애정과 자일로 맺어지는 신뢰로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당한 아름다움을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에코 "호 박"

부기

PWCAC

부산여자대학산악회

연혁

날 짜	내 용
1974년	부산여자전문대학 산악부 창립, 부산학생산악연맹 가입
1977년	행경축제 장비전시회
1978년	자연보호운동참가
1980년	지리산하계산행
1981년	천태슬리브등반 실시
1982년	KBS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장려상),하계 지리산 등반, 교육감기학생대회 우승

날 짜	내 용
1983년	하계 지리산 등반, 부산여자전문대학 OB산악회 창립 KBS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준우승)
1984년	정기총회, KBS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우승), 하계 설악산 등반
1985년	교육감기학생대회 준우승, 설악산하계등반(9박10일) 동계 영남알프스 (2박 3일),정기총회 1차개정
1986년	등산학교실시 4월6일~6월14일 OB,YB 친목도모 및 등산전문기술양성 하계 설악산 (9박10일), 정기총회 (회칙수정보완) 하계 덕유산 종주, 교육감기 등반대회 준우승, 동계 영남알프스 (2박 3일)
1987년	정기총회 OB,YB 100회 산행기념등반(금정산 1박2일), 하계 설악산(9박10일) 동계 지리산(4박5일)
1988년	정기총회,일일찻집 (불우이웃돕기) 산정통권 4호 발간 제1회 OB회장기 등산대회 (영남알프스 1박 2일) 하계 설악산 등반 (12박 13일), 동계 지리산 비박산행(4박5일), 동계 설악산 (9박 10일)
1989년	정기총회
1989년	제2회 OB회장기 등산대회 영남알프스 당일 하계 야유회
1990년	정기총회, 제3회 OB회장기 등산대회 천성산 (1박 2일) 한산련 주최 KBS기 쟁탈등반대회 여자대학부 우승, 제1회 호박의 밤 행사 제1, 2회 YB 전반기 및 후반기 감사
1991년	정기총회, 제4회 OB회장기 등산대회 금정산 OL경기 해외원정 일본 북알프스 연맹 합동산행 (12박 13일), 하계 설악산(13박 14일) 한산련 KBS기 쟁탈등반대회 여자대학부 우승, 제2회 호박의 밤 행사 산정 통권 7호 발간
1992년	동계 설악산 등반 (14박 15일), 정기총회 제5회 OB회장기 등산대회 금정산 100차 월례회 기념 및 호박의 밤 행사 YB 전,후반기 감사, 산정 통권8호 발간, 산정 통권9호 발간
1993년	정기총회, 제6회 OB회장기 등산대회 황령산 제26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모범상, YB 전,후반기 감사
1994년	제4회 호박의 밤 행사 정기총회, 제7회 OB회장기 등산대회 황령산 바위의 전당, 오름터 산악회 자매결연 YB 전,후반기 감사 제5회 호박의 밤 행사, 정기총회, KBS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우승) 해외원정 대만옥산, 용동암장 연맹합동산행
1995년	제8회 OB회장기 등산대회 금정산, 제6회 호박의 밤 행사, YB 전·후반기 감사, 기술부산행 (OB, YB합동산행), 지리산 하계(2박 3일), 경남전문대학 제3회 인공암벽대회 참가, 동계 설악산 (7박 8일), KBS배 부산학생등산대회 우승)
1996년	정기총회
1997년	하계 설악산 등반, 동계 설악산 등반
1998년	하계 백두대간 구간별 종주 제9회 OB회장기 등산대회 금정산 한산련 등산대회 우승
1999년	동계 설악산 등반, KBS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우승)

날 짜	내 용
2000년	정기총회 제31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참가 치악산 일대 제7회 암벽대회 참가 (금정산 자연암)
2001년	정기총회 KBS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준우승) 제1회 볼더링대회 참가
2002년	정기총회
2003년	정기총회
2004년	정기총회
2005년	정기총회
2006년	정기총회
2007년	정기총회
2008년	정기총회, 강원도지사배 제1회 아시안컵산악스키대회 차월준 5위
2009년	정기총회











인제대학교

소개글



경남 김해시 신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인제대학교는 본래 1979년 부산 개금동에서 백병원을 모태로 의과대학으로 개교하였다. 1984년 지금의 장소에 학과를 증설하여 김해캠퍼스를 만들었다. 이에 1986년도에 창단기인 85학번 9명과 1기인 86학번 6명이 의기투합하여 인제대학교 산악부 카첸다를 창립하였다. 에코인 '카첸다'는 산과 사람과 술에 취한다는 의미이다.

지역은 경남이지만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다닐 정도로 부산생활권이라 회원들의 의견으로 1988년 부산학생산악연맹에 가입하였다. 이후 부산학생산악연맹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면서 신생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기술등반을 배워나갔다. 학교의 특성상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많아 산악부는 학기 초 신입회원들이 30여 명이나 가입할 정도로 인기있는 동아리였다.

80년대 후반부터 부산학생산악연맹 동·하계 합동등반 및 춘·추계R.C와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92년도에 3기 하태웅회원과 2000년대 초 13기 손기성회원이 대표상임위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창단기 85학번 이만성회원은 산악부와 별개로 자일클럽과 교류하여 1990년 일본 북알프스 동계등반을 하여 산악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밀알이 되었다.

1995년도에는 2개의 해외등반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4기 정병화, 주지철 회원외 1명이 일본 북알프스 동계등반을 하였으나 조난을 당하여 부상을 입은 끝에 구조되었고 3기 하태웅회원은 학생연맹 합동등반대로 백두산 동계등반에 참가하였다.

1996년도에는 동주대학 일본 북알프스 다테야마, 쯔루기다께 하계등반에 3기 하태웅회원이 참가하였다.

1999년도에는 3기 하태웅회원이 부경대 박준범 회원과 합동으로 유럽알

프스 아이거 서릉 등반을 하였다. 또한, 묀히봉을 단독으로 등반하였다.

2001년도에는 10기 김종현 회원이 양산합동대의 일원으로 동계 일본 북알프스 등반을 하였다.

2002년도에는 13기 이은실회원이 하계 일본 북알프스 등반을 하였고 17기 김윤영회원이 코오롱 오지탐사대 대원으로 선발되어 참가하였다.

2003년도에는 14기 김동천회원이 동계 백두대간 단독 종주를 하였다.

2006년도에는 18기 박정태회원이 오지탐사대 대원으로 선발되어 중국 리엔칭탕굴라를 등정하였다.

2008년도에는 18기 박정태회원이 아프리카 르웬조리를 오지탐사대 대원으로 선발되어 참가하였다. 박정태회원은 남들이 한번 가기도 힘든 오지탐사대를 두 번이나 선발되어 다녀오는 행운아가 되었다.

2012년도에는 27기 전재민회원이 중국 옥주봉에 오지탐사대 대원으로 선발되어 참가하였다. 전재민 회원은 가을시즌 로체등반에 대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2014년도에는 27기 전재민회원이 합동대의 일원으로 파키스탄 가셔브롬 2봉 등반에 나서 등정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가을시즌 계속 도전하는 로체남벽 등반에 나서기도 했다. 등반 이후 27기 김진석, 28기 김민철 회원과 함께 일본 북해도 동계훈련 등반을 이어가기도 했다.

부기



연혁

날 짜	내 용
1986년	창단기(0기) 김민걸, 김정임, 노윤성, 송완길, 송영길, 이만성, 이석우, 이왕태, 조원재 산악부 창립
1986년	1기 강정호, 김주식, 김윤숙, 박기동, 정진흥, 조인석 가입
1987년	2기 박운용, 변기홍, 이현철, 장옥란, 정훈규 가입
1988년	3기 강철순, 전성호, 정유진, 최임숙, 하경남, 하태웅 가입, 부산학생산악연맹 가맹
1989년	4기 박동석, 주지철, 정병화 가입,설악산 연맹 합동등반 참가

날 짜	내 용
1990년	5기 강성관, 강수영, 신용철, 양승인, 정상천, 허대영, 류상희 가입 이만성 회원 일본 북알프스 등반
1991년	6기 김유식, 이재근, 정두선, 최경미, 하영인, 이경륜 가입
1992년	7기 황정선 가입, 설악산 하계 장기등반
1995년	10기 김종현, 이은주, 김정화, 박일규 가입 정병화, 주지철 회원외 1명 일본 북알프스 동계등반(조난 구출) 하태웅 회원 동계 백두산, 장백폭포 등반
1996년	11기 장미진 가입 하태웅 회원 일본 북알프스 하계등반
1997년	12기 박소영, 정경미, 김은정, 오병두 가입
1998년	13기 이은실, 한윤경, 손기성 가입
1999년	14기 박정숙, 김동천, 남선진, 손병주, 류혜경, 김승국 가입 하태웅 회원 유럽 알프스 아이거, 묀히봉 등반
2001년	16기 김성민 가입, 김종현 회원 일본 북알프스 동계등반
2002년	17기 김윤영, 유민수, 리현유 가입 이은실 회원 일본 북알프스 등반, 김윤영 회원 오지탐사대 참가
2003년	18기 김범철, 박정태, 소기선 가입 김동천 회원 동계백두대간 단독 종주(2003년 12월 6일~ 2004년 2월 25일)
2004년	19기 김경록, 정의화 가입
2005년	20기 장효정 가입
2006년	박정태 회원 오지탐사대 중국 리엔칭탕굴라 참가 등정
2007년	22기 박은철, 손진영, 인현주, 이경민 가입
2008년	23기 박경표, 박용형, 이정용, 박동익, 윤솔, 이기현, 김민호, 김나래 가입 박정태 회원 오지탐사대 아프리카 르웬조리 참가 등정(최우수 탐사대 선정)
2012년	27기 김진석, 전재민, 전용민, 정재훈, 정교식, 서성호, 김준, 김성겸, 손창식 가입 전재민 회원 청소년 오지탐사대 중국 옥주봉 참가
2013년	28기 김민철, 김상우, 조호준 가입 , 김민철 등산학교 참가 산악 대통령기 참가 전재민 회원 가을시즌 로체 등반
2014년	29기 정다운, 강종무 가입 조호준, 김상우 등산학교 참가, 김민철, 김상우 부산연맹 볼더링대회 참가 김민철 한국산악회 한중일 합동등반 참가, 김민철 학생연맹 동계등반 참가 김민철 제주 전국체전 산악 참가 전재민 회원 여름시즌 파키스탄 가셔브롬 2봉 등정, 가을시즌 로체남벽 등반 전재민, 김진석, 김민철 회원 일본 북해도 동계훈련 등반





춘해보건대학교

소개글



SINCE 1980! 춘해보건대학교 산악부는 1977년 문학동아리 “우림회” 가 1980년 3월 금정산줄기 만덕산을 오르며 산악부로 재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거친 토양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넓고 튼튼한 밑둥을 가지게 된 10년... 매끄러운 나무결과 하늘로 힘차게 뻗어 올라가는 나뭇가지들을 가지게 된 10년... 그리고 파릇파릇 생기 넘치는 무성한 푸른 잎들을 가지게 된 10년... 이 모두를 합한 시간들이 굵고 촘촘한 나이테를 가진 수목(樹木)으로 우뚝 자라게 하였습니다.

권위 있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힘든 산행을 안전하게 등반하고, 해외등반의 특별한 기쁨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춘해보건대학 산악부는 특유의 끈끈함과 포용력으로 새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상황에 부딪히고 순간순간 스스로의 힘과 판단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든 산생활이든 어디서에서든 오롯이 자유롭고 새롭게 “나”를 발견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춘해보건대학교의 에코처럼 “아지락”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산과 함께 영원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기 / 로고

CHCAC
춘해보건대학교 산악부

산악부의 산 모양을 테두리로 하여 처음 춘해간호전문대학 산악부로 간호학과 학생으로 시작한 산악부로 가운데 나이팅게일의 램프로 산과 간호사의 조화를 이루는 산악부로 상징을 표현하고 있다.

연혁

날 짜	내 용
1977년 03월 01일	문학 동아리 '우림회'로 창립
1980년 03월 05일	우림회에서 '산악부'로 재창립
1980년 03월 30일	제1차 정기산행 (대상산: 만덕산 석불사 뒷산, 참가인원 : 7명)
1980년 05월 19일	부산학생산악연맹(BSAA)가입
1980년 09월 24일	제1회 정기총회 개최
1980년 10월 19일	산향 창간호 발행
1981년 03월 25일	첫 신입생 환영등반 (대상산 : 금정산, 23명 참가)
1982년 01월 13~17일	첫 동계장기산행 (대상산 : 설악산)
1985년 01월 02~04일	제 100차 정기산행 (대상산 : 기백산)
1988년 12월 17~24일	'88 태백종주(대상지 : 금정산-울진 불영사, 참가인원: 6명, 등반방식: 구간별 종주방식)
1989년 05월 05~07일	제 200차 정기산행 (대상산 : 백운산)
1990년 05월 12~13일	KBS기 제 25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참가 (협동상 수상)
1990년 07월	일본 북알프스 원정등반 (84유용미外 3명)
1991년 05월 25~26일	KBS기 제 26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준우승, OL우승)
1992년 05월 23~24일	KBS기 제 27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OL우승)
1994년 05월 16~17일	제 300차 정기산행 (대상산 : 금정산)
1994년 05월 14~15일	KBS기 제 29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준우승)
1994년 12월 26일~ 1995년 01월 01일	부산학생산악연맹 '94 백두산 동계등반 참가 (92박선희,구희정)
1997년 05월 24~25일	KBS기 제32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준우승)
1998년 03월 20일	춘해대학 산악부(C.H.C.A.C)로 개칭
1998년 05월 23~24일	KBS기 제 33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우승)
1998년 07월 01~08일	부산학생산악연맹 '98백두대간 구간종주 (1, 3, 6 구간, 3명)
1999년 01월 04~13일	제 400차 정기산행 (대상산:설악산, 3명 참가)
2000년 10월 07~08일	제33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BSAA합동대 여대부 1위, 00김재현)
2003년 01월 03~07일	코타키나발루(4101m) 원정등반 (81정금이84유용미92김명선92구희정98조혜진00최준백)
2004년 05월 04~06월 06일	데날리(6194m) 부산여성원정대 참가 (92구희정)
2005년 05월 21~22일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참가 (여대부 3위 2팀 참가 총 6명)
2006년 09월 23~24일	제41회 부산시시장기 전국 등산대회 참가 (05김진정06조아라)
2007년 06월 09~10일	제40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참가 (BSAA합동대 여대부 2위 02백정숙)
2012년 03월 24일	춘해보건대학교 산악부(C.C.H.S.A.C)로 개칭
2012년 10월 06~07일	제47회 부산시시장기 전국 등산대회 참가 (11김민지11김민정11김다영)
2013년 05월 25~26일	제46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참가(BSAA합동대 여대부 11윤지윤)
2016년 05월 21~22일	제49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참가 (15전미하 15성유진 15이소명)

수상내역

날 짜	내 용
1982년 06월 13일	광주 전국 크로스칸츄리 대회 참가(여대부 2등 수상)
1990년 05월 12~13일	KBS기 제 25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참가 (협동상 수상)
1991년 05월 25~26일	KBS기 제 26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준우승, OL우승)
1992년 05월 23~24일	KBS기 제 27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OL우승)
1994년 05월 14~15일	KBS기 제 29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준우승)
1997년 05월 24~25일	KBS기 제32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준우승)
1998년 05월 23~24일	KBS기 제 33회 부산학생 등산대회 (여대부 우승)
2000년 10월 07~08일	제33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BSAA합동대 여대부 1위, 00김재현)
2005년 05월 21~22일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참가 (여대부 3위 2팀 참가 총 6명)
2007년 06월 09~10일	제40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참가 (BSAA합동대 여대부 2위 02백정숙)

각종 기념 팬던트


1980년 10월 19일


1981년 9월 29일


1985년5월 29일


1986년


1987년


1990년 5월


1991년 6월 28일


1995년 2월 25일


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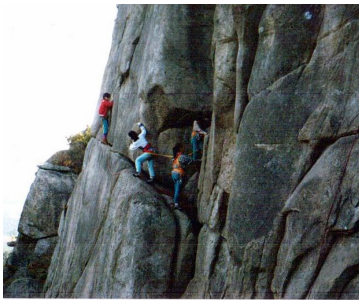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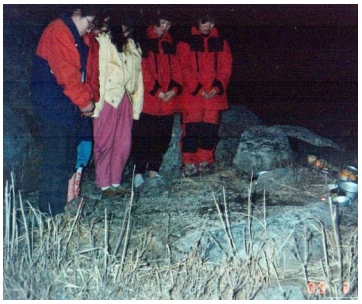

1996년


1997년


1999년 10월 1일


2000년 12월 1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소개글



한국해양대학교는 1970년대 당시 항해학과 및 기관학과 각 기수 학생수가 각 50명이었을 때, 전교생이 학군단 소속으로 산악 훈련을 겸해 학년별로 전국의 유명산을 찾아 등산 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1975년 본교가 영도의 2송도(현재 남고)에서 현재의 동삼동(조도)으로 이전되던 해에 평소에 산에 열정이 가득한 선배님들의 의기투합으로 그해 5월 25일 회칙을 제정하고 공식적으로 한국해양대교의 산악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초대 회장은 29기 안상현선배, 부회장에는 30기 정홍덕선배가 취임하였으며 수많은 산악인을 배출하였다.

"성실한 산행자세", "산악부에 대한 애착심", "산행 가치관 확립"의 부훈을 바탕으로 주말 산행과 방학 기간을 통한 하계 및 동계 장기 등반을 이어오고 있으며, 천해의 암벽(해벽-마켄나)을 개척하여 해대 산악부의 훈련장 및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여러 악우님들과 암벽 훈련 및 실력 배양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산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해대도 산악부가 있어요?" 질문에 당당하게 "바다 사랑 만큼이나 산도 사랑합니다" 외치고 다녔다.

오늘도 바다 만큼이나 순수한 마음으로 산을 오르고 자랑스러운 한국해양대 산악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기



연혁

연 도	날 짜	연 혁
1975년	05월 25일	'한국해양대교 산악부' 발족 – 한국해양대 산악부 회칙 제정
	05월 02~04일	제 1회 산악 장비 전시회
	09월 27일~07월 28일	금정제 참가
	주요 활동	해벽 ' 마켄나' 개척
1976년	05월 08~10일	부산시 학생 등반 대회 참가
	05월 22~24일	제 2회 산악 장비 전시회
	09월 12일	부산시 산악 연명제 참가 (금정산 북문)
	10월 23일	제 4회 부산 학생 연맹제 참가
	주요 활동	해벽 ' 마켄나' 개척
1977년	01월 25일~02월 04일	동계 적설기 장기 등반 (치악, 설악산 일원의 종주 등반)
	05월	제 3회 산악장비 전시회 가짐 / 해벽 ' 마켄나'의 등반 사진 전시
	05월 14~16일	부산 학생 등반 대회 참가.
	08월 06~12일	하계등반 (설악산 일원)
	주요 활동	해벽 '마켄나' 코스 개척
1978년	04월 22~23일	제 11회 전국 대통령기 등반대회 (경기도 축형산) – 장려상 수상
	05월	제 4회 산악 장비 전시회 가짐.
	07월 20~27일	하계 장기 등반 (설악산 일원)
	09월 30일~10월 03일	지리산 종주 등반
	주요 활동	해벽 '마켄나' 트래바스 코스 개척
1979년	05월 02~06일	춘계 등반 (백운 능동 가지 운문산 일대)
	05월	제 5회 산악 장비 전시회 가짐.
	07월 28~8월 07일	하계등반 (설악산 일원)
1980년	05월 17일	휴교 조치로 인한 학내 활동 중지
	05월 18~28일	제주 한라산 등반 대장 임영철 외 9명
	11월 04~06일	제 6회 장비 전시회.
	01월 15~22일	단대 동계등반 –설악산 일원
	01월 19~31일	연맹 동계등반 (부산 산악 연맹 활동) – 한라산 일원
	주요 활동	해양대학교 산악부 OB회 결성 (80년 3월, 회장 안상현)
1981년	05월 02~05일	춘계등반 –지리산 종주
	06월 12~14일	부산시 교육감기 등반대회 참가 – 영취산, 신불산 일원 / 우승
	07월 20~28일	라. 하계등반 – 설악산 일원
	09월 30~10월 04일	마. 추계등반 – 밀양군 일원

연 도	날 짜	연 혁
1982년	04월 30일~05월 05일	춘계등반 – 밀양군일원
	06월 12~14일	부산 학생 등반대회 – 영취, 신불, 풍어대 일원 / 준우승
	07월 15~22일	하계등반 – 설악산
	주요 활동	해대 산악부 회지 발간 (창간호)
1983년	01월 31일~02월 05일	동계등반 –한라산 일원
	05월	중기산행 – 백운slap, 금정산, 영남알프스
	08월 03~15일	하계등반 – 설악산, 북한산
1984년	01월 06~27일	동계등반– 설악산
	05월	중기산행 – 백운slap, 영남알프스
	08월 12~20일	하계등반 – 설악산
	주요 활동	해벽 '마켄나' 재 개척 (8코스)
		제10회 산악 장비 전시회.
1985년	01월 10~18일	동계등반 – 한라산
	05월	중기등반 – 영남알프스, 지리산
	08월 13~25일	하계등반 – 설악산, 북한산
	주요 활동	해벽 통권 4호 발간.
		제11회 산악 장비 전시회
1986년	01월 16~25일	활동상황 : 가. 동계등반 (지리산) 1월 16일–25일 대장 이종영외 4명
	08월 12~25일	하계등반–설악산, 북한산 일원
	주요 활동	연맹 체육대회 개최.
		제 12회 장비 전시회.
		해벽 제 6호 발간.
1987년	01월 06~25일	동계등반 – 설악산
	07월 07~19일	하계등반 – 설악산
	주요 활동	해벽 제 7호 발간.
		제 13회 장비 전시회.
		아치제 : 해벽 연맹 합동 등반
1988년	01월 01~21일	동계등반 –설악산
	07월 15~25일	하계등반 –설악산
	주요 활동	제 14회 장비 전시회
		적도제중 해벽 등반 시범.
		해벽 제 8호 발간
1989년	01월 07~24일	동계등반 – 설악산

연 도	날 짜	연 혁
1989년	07월 03~23일	하계등반 – 설악산
	주요 활동	제 15회 장비 전시회.
		부산 학생 연맹 등반 기술 교류.
		해벽 제 9호 발간
1990년	12월 29~18일	동계등반 – 설악산
		하계등반 – 설악산/ 연맹 합동 하계 (조별운행)
	09월 24일	해벽에서 등반 대회 개최.
	주요 활동	제 16회 장비 전시회.
1991년	01월 14~31일	동계등반 – 설악산
	07월 02~20일	하계등반 – 설악산
	주요 활동	제 17회 장비 전시회.
		인공 암장 설치.
		해벽 제 10호 발행
1992년	01월 01~24일	동계장기등반– 설악산
	주요 활동	해벽 11호 발간
1993년	12월 30~01월 19일	동계등반 – 설악산
	8월 3~15일	하계등반 – 설악산
	주요 활동	해벽 제 12호 발행
1994년	01월 05~23일	동계등반 – 설악산 일원
	08월 03~16일	하계등반 – 설악산, 북한산 일원
	주요 활동	해벽 제 13호 발행
1995년	01월	동계등반 – 설악산
	08월 02~15일	하계등반 – 설악산, 북한산 일원
1996년	01월	동계등반 – 백두대간
	08월	하계등반 – 설악산, 북한산 일원
1997년	12월 30~01월 11일	동계등반 – 설악산 일원
	08월 02~15일	하계등반 – 설악산, 북한산 일원
1998년	01월	동계등반 – 설악산 일원
	08월	하계등반 – 설악산, 북한산 일원
2000년	01월	동계등반 – 설악산 일원
	08월	하계등반 – 설악산, 북한산 일원
	주요 활동	부산학생산악연맹 재학생회장
2001년	01월 08~27일	동계등반 – 설악산

연 도	날 짜	연 혁
2001년	08월 09~22일	하계등반 – 설악산
	주요 활동	제 36회 부산광역시 학생등산대회 준우승 입상
2002년	01월	동계등반 – 설악산
	07월 08~08월 27일	하계등반 – 백두대간
2003년	01월	동계등반 – 설악산
	08월	하계등반 – 지리산
2004년	01월	동계등반 – 설악산
	08월	하계등반 – 설악산
2005년	02월 13~22일	동계등반 – 설악산
	08월 03~15일	하계등반 – 설악산, 북한산 인수봉
	주요 활동	해벽 '마켄나' 코스 보수
2006년	01월 07~15일	연맹 동계등반 – 설악산
	01월 15~24일	단대 동계등반 – 설악산
	08월 08~22일	하계등반 – 낙남정맥 지리산(영신봉) ~ 동신어산
	주요 활동	제 41회 부산광역시장기 등산대회 1위 입상
2007년	01월 15~21일	단대 동계등반 – 설악산
	01월 21~29일	연맹 동계등반 – 설악산
	07월 30~08월 07일	하계등반 – 설악산, 북한산 인수봉
	주요 활동	마켄나의 날 (본교 부실& 해벽, 故이신강 선배 추모비)
		해벽지 14호 발간
		제 40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3위 입상
		제 42회 부산광역시장기 등산대회 1위 입상
		제 88회 전국체육대회 〈산악〉 일반 등산 1위 입상
2008년	02월 13~21일	단대 동계등반 – 설악산
	02월 08~17일	연맹 동계등반 – 한라산
	07월 28~08월 06일	하계등반 – 설악산
	주요 활동	제 42회 부산 시장기 1위 ,2위 ,3위
		전국체전 1위 – 05'성준 , 05'권용석 , 05'배현석
		제 41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1위 입상
2009년	01월 19~24일	연맹 동계등반 – 한라산
	02월 09~20일	단대 동계등반 – 설악산

제2장

가맹대학 회원 명부 및 정관



2014년 합동 하계 훈련 쓰리랑릿지

경남정보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74	김대원	82	임채환	89	김상민
77	정지택	83	김학철	89	김은숙
77	이상헌	83	김미자	90	오용조
77	故 이남국	83	김대권	90	김상태
78	부창성	83	박민호	91	최호승
79	하정호	85	박원형	91	김기형
79	김수재	85	박상희	95	정현국
79	곽창호	86	장호건	95	김영진
79	박동열	87	최환영	97	김명수
79	정기태	88	정성용	97	홍성환
79	진해일	88	하재웅	14	김난희
82	정진열	88	안남주		



경성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80	주학도	85	김윤희	91	조금희
80	하호근	85	정은경	91	문형숙
80	김성규	85	이미옥	91	송정숙
80	정태일	85	김희선	91	조찬욱
80	노상민	86	김남곤	91	박경숙
82	황상옥	86	김성희	91	김춘희
82	최정희	86	강일호	91	장윤호
83	신은규	86	김숙희	91	한성현
83	고영성	87	강석훈	92	고경덕
83	윤동훈	87	김철수	92	이정호
83	이동균	87	황경도	93	이선경
83	박상호	87	설성희	93	김명자
83	구봉준	88	노태희	94	지철홍
83	이말희	88	임현섭	94	황보현
83	김옥경	88	손종우	95	위종호
83	이찬영	88	김명희	96	류현덕
84	박세일	89	주경식	97	심성래
84	노재일	89	박종국	98	김양호
84	장봉갑	90	김원학	00	송유선
85	박종대	90	강승수	10	한승상
85	박기수	91	남순정	11	김윤희

동명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79	옥주수	86	임재희	96	이미화
79	하상헌	86	송순철	97	김병목
79	조진화	86	허기주	97	김장호
79	정유인	88	조양화	97	오동석
79	서규영	88	고형우	97	오성우
79	정재훈	88	이병두	97	최극호
80	이후근	88	이권영	97	김선종
81	김중배	88	최영우	97	이혜진
81	김재성	88	홍기영	97	주 희
81	박원일	89	윤동민	98	최성민
82	공영식	89	장순남	98	염광호
82	유석준	90	이일원	98	신중현
82	박강태	90	권광오	98	황수빈
82	이진호	90	강희진	99	박성영
82	김영규	90	차상현	99	정홍구
82	김영규	90	김화수	99	김은희
83	손홍성	91	정원자	99	이은희
83	김상만	92	박경민	99	최상용
83	이상대	92	신한성	99	김지훈
84	김상훈	92	박창식	99	염정호
84	정희섭	92	오숙희	00	장은정
84	하현호	93	조성호	01	정기식
84	이동철	94	김효정	02	김은주
84	김상관	94	이향숙	02	김재현
85	김학진	95	손영득	02	박진근
85	하태문	95	윤태진	02	손지선
85	이성기	95	김중민	02	이용숙
86	하태석	95	김병구	02	정영진
86	김민수	95	김성준	02	김정희
86	김찬규	96	배우열	03	이시형
86	박성원	96	윤호남	03	홍원봉
86	신현진	96	김철수	03	김현렬

동부산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92	김명희	97	임광주	98	김연주
92	정혜임	97	이현태	99	서경훈
92	배지현	97	이지훈	99	조광수
92	박성영	97	변재원	99	윤영미
93	문지환	97	서문진	99	박애련
93	박은희	97	임경혁	99	이미라
94	김혜경	97	이언정	99	조규미
95	김선미	98	배병철	00	이주호
96	강은아	98	박선영		
96	강성애	98	김민경		

동의과학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88	정오철	93	박광범	98	박영옥
91	손대익	94	오정근	99	변정훈
91	이형석	94	정성철	99	이효진
92	박명오	94	최수성	01	김동구
92	박상용	95	이수석	01	정영록
92	윤계욱	96	김운라	01	박옥심
92	정경두	96	배미란	01	이매화
92	이규동	96	김기태	05	장민진
93	김일형	97	김성규	12	문상기
93	박용진	97	주경철	12	박형진

동아대학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60	정병은	68	故윤종식	82	김인숙
61	지두업	68	심경보	82	조광제
61	故허정부	68	강윤칠	82	유영근
61	손성모	68	변점수	82	故전종용
61	故배경수	69	구흥수	82	최태동
61	백동수	69	이정희	82	김영란
61	故이재문	69	김용구	82	박순영
61	한이수	70	길광호	83	최두영
61	김태근	70	박경병	83	황태수
61	주정돈	71	이태곤	83	문현옥
62	박길호	71	김선기	84	윤종호
62	故안영배	71	김진호	84	이상두
62	박영석	71	여상수	84	故이종언
62	故이곤석	71	김길봉	84	이용수
63	故강용기	71	곽점곤	84	윤석조
64	최해곤	72	배병수	84	김인철
65	김형대	72	박영철	85	백진국
65	정이수	73	김윤대	85	송근형
65	이상화	74	주시정	85	정명교
66	故김일수	75	정민규	85	성기진
66	양희욱	75	조용섭	86	배만진
66	박광	75	하재규	86	성낙삼
66	故주부영	75	남희갑	86	조대현
67	김덕곤	75	김종환	86	곽미옥
67	구장호	77	권헌태	88	조벽래
67	김두석	78	박광효	88	황인철
67	故김종효	78	이용두	88	김병진
67	故김춘식	79	박명성	88	고문희
67	김옥선	79	서종갑	88	이행순
67	김영귀	79	이동수	88	홍연희
67	백낙용	80	이석호	88	박정선
67	이임수	80	정순천	88	양인석
67	서익제	80	박천수	89	김달현
67	신환생	80	박병환	89	류보현
67	배건호	81	이반형	90	정광호
67	전대은	81	조규진	91	김태완
67	백태준	82	김정곤	91	정대성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91	이재규	95	조은혜	09	김시라
92	진동철	96	고현선	09	박수진
92	박범식	96	박현주	11	김연주
92	황태웅	97	장재용	11	이유리
92	서은영	98	박희순	11	조현영
92	류혜련	98	박수정	12	맹규노
93	임동한	98	김성배	12	박희진
93	박종한	98	오종일	16	박상준
93	박종민	99	남경철	16	박용민
93	유승식	99	김경아	17	내윤환
93	조규성	01	김남구	17	강동욱
94	이시엽	04	오세인	17	윤건우
94	남정모	05	박하나		
95	김병진	07	이영민		



동의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79	박종대	92	장봉갑	98	이정은
80	주경식	92	강일호	00	최효정
80	남순정	92	김남곤	12	임기영
83	김성규	92	김성희	13	김보현
85	김현수	93	강석훈	13	임지원
85	정태일	93	김철수	14	강은진
85	주학도	93	황경도	14	안상민
86	최정희	93	설금진	14	이창욱
86	하호근	94	노태희	14	한태수
86	황상옥	94	손종우	14	황원정
86	고영성	94	임현섭	16	박준형
87	박상호	94	박종국	16	최지현
88	신은규	95	강희숙	17	박주성
89	윤동훈	96	박경환	17	조동기
89	이동균	96	방태균	17	황지선
90	노재일	97	류태호		
91	박세일	98	김대중		



동주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82	안명선	91	문재원	96	김미성
83	이미재	91	이상엽	96	김주영
83	김양숙	92	김운정	96	박성미
87	김현희	92	김지영	96	이미숙
87	김미화	93	김영희	96	유향미
88	김재숙	93	이은경	12	장세영
88	정인숙	93	김남희	12	박세호
89	백순여	94	정현정		
90	김선옥	95	이미옥		



부경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60	장영덕	77	안종욱	83	김희정
63	故 서승일	77	이황우	83	김영호
66	이원영	78	김기호	83	문철호
70	김영배	78	김종국	83	정찬도
71	정성호	78	임상록	84	강승구
71	태경영	78	배한일	84	안광수
72	이병식	78	박영길	84	정기일
72	손찬현	78	김인걸	84	최명현
72	차용준	78	옥삼일	84	서영희
72	송택기	78	최환교	85	임용일
72	이원진	79	구정본	85	김경원
73	김태권	79	김면식	85	오치연
73	이종익	79	권수근	86	남현욱
73	김봉철	79	박명애	86	박용표
73	강강지	79	최미선	86	이상수
73	김계철	79	김영학	86	박용길
73	김경환	80	하영관	86	김석환
73	구광모	80	이성규	87	채봉섭
74	이우설	80	이경화	87	김석환
74	홍보성	81	김행구	87	채봉섭
74	정진육	81	이선경	87	정용진
74	이영태	81	김종완	87	김택수
74	조진호	81	박화룡	87	김영진
75	김동언	81	김호관	88	서대원
75	김정권	82	이원준	88	권광호
75	이수열	82	이창우	88	한정협
75	이성욱	82	이남수	88	이중환
76	김익상	82	이상우	88	조선래
76	故 김영택	82	이종연	89	최주성
76	김진걸	82	정대길	89	박준범
76	김광수	83	박용식	89	최화영
76	배옥근	83	안진현	89	김근영
77	원귀현	83	송영찬	89	구진국
77	故 송장복	83	장영미	89	이경순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89	최 현	94	변주영	00	김태철
89	하해규	94	조정민	00	김수원
90	최규원	95	허기용	00	김태환
90	전윤주	95	손직상	00	이성환
90	이영기	96	오주영	01	전혜영
92	김대성	96	김선호	01	안소현
92	박근찬	96	박정영	01	전혜영
92	성낙윤	96	장정석	05	이호주
93	황기중	96	최경진	06	홍정의
93	김영찬	98	조윤정	07	정장현
93	김미경	98	故 서성호	07	최진호
93	김재연	98	소진호	08	송경빈
93	장종욱	98	김하정	11	박종홍
93	변무환	98	박진화	12	박혜문
93	박주현	98	이지연	12	신창용
93	장명운	98	정은경	12	이재훈
94	홍춘표	98	강기천	12	이해광
94	이강식	99	백지은	13	김인엽
94	김태훈	99	강대희	14	김성수
94	구동회	99	변창우		
94	유현진	00	문지은		



부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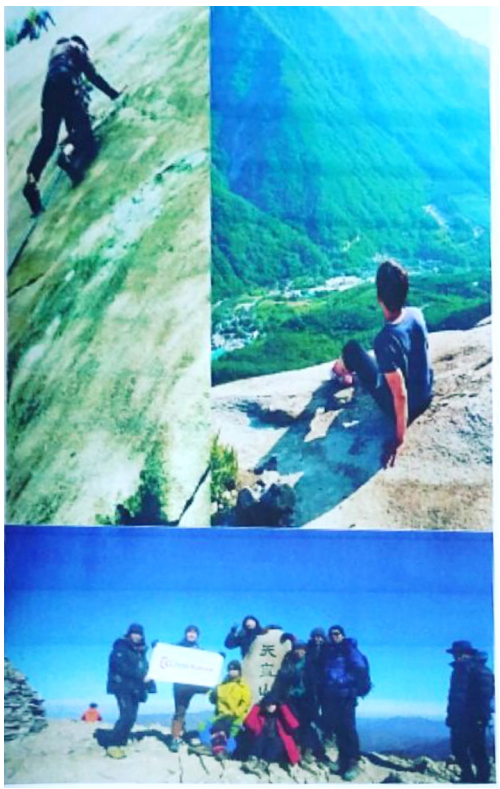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60	김재도	74	이효문	83	김기곤
60	최순일	74	박홍식	84	민영도
60	김정헌	75	김치근	84	정복년
60	구철은	75	박영도	85	김흥국
60	박 진	75	이정희	86	정태권
63	임송봉	75	신양수	87	심진용
63	김무부	75	박영도	87	김홍균
63	이광식	76	이승호	87	김만석
64	김준연	77	이창규	88	박태원
64	최상문	77	김영헌	88	서정동
65	이상보	78	허문근	88	박상현
67	김정실	79	박성배	88	김경태
68	정상태	79	노화정	89	김지성
68	박문옥	79	류해평	89	여만구
68	김치중	79	이채신	90	임동호
69	차동주	79	이미연	90	박종규
69	서정해	79	김영진	91	김태군
70	이희태	80	김강태	91	박동관
70	故이충한	80	이창호	92	정영훈
70	성경직	80	신용상	92	류성진
70	차기섭	81	양경희	94	김영근
71	강정웅	81	신종철	94	임성오
71	이동윤	81	박만교	95	이승용
71	노진식	81	이경훈	97	김태진
72	조해래	81	이문기	97	윤병희
72	김중환	81	문현곤	98	백광윤
72	안홍석	82	김광섭	98	문병현
72	류완식	82	하정호	98	박중하
73	남기진	82	강양훈	98	최낙현
73	남기진	82	김규태	99	최호승
73	이득범	82	문수근	00	조창렬
73	김명수	82	인허닥	03	구수학
74	이승렬	82	김대중	03	윤정민
74	김태원	83	김남수	06	고은빈
74	신수정	83	김태호	06	이종록
74	이기석	83	박판출	06	박성환
74	이영석	83	이화장	06	이창선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06	장병길	09	문지현	11	이경직
07	정 용	09	허문철	11	조수아
08	정진희	10	김현미		
09	김민성	11	박준영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77	김명진	82	박정원	91	최재웅
77	성환균	83	전정길	91	홍석빈
79	이홍성	83	오영식	91	장정배
79	김광열	86	조성봉	92	송주현
80	최태식	87	배락환	92	이상호
80	박병량	87	장태걸	92	김경진
80	최대영	87	장수복	92	김동규
80	박명기	88	전병화	92	전익도
80	박명철	88	이만수	93	임상영
81	강한진	88	정인철	93	박용호
81	박호천	89	박종일	93	김옥현
81	백석인	89	김종길	14	한지훈
81	김봉기	89	김경옥	14	이다연
82	홍종표	89	유영재	14	권현수
82	정종구	89	김홍기	15	박수민
82	동형수	90	김재형	16	조민규



부산교육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67	임원규	89	이재천	05	임정아
71	김정규	90	박종화	07	서상호
74	신호진	90	초라미	08	박나래
75	이동본	90	이승훈	08	박진화
76	우성만	93	우윤영	08	지혜진
77	최상룡	94	배홍	08	황유진
81	임두희	95	서동업	10	정재영
81	문진아	96	배효일	12	박석민
82	양정환	96	최민수	13	안소연
84	최태신	96	장승우	13	김현우
84	김수진	97	김지연	13	김현수
85	전상은	00	천은정	13	김태경
86	신병건	00	김은애	13	이정섭
86	김석수	00	정대영		
87	차광훈	02	공종호		



부산외국어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82	김영훈	87	유형재	91	손정욱
84	김호란	87	정미선	91	신성일
84	곽상락	87	진경주	91	이병석
84	심향숙	87	최성이	92	김성진
84	주철오	88	김재영	92	오상헌
85	최선호	88	김정숙	93	문희원
86	구성현	88	노현정	94	엄춘섭
86	고종국	88	서영주	94	이 미란
86	권향엽	88	장태상	94	이 성원
86	김영숙	88	한강수	95	김 민정
86	김영일	89	박인숙	95	임 현주
86	박성찬	89	박주영	96	손 석용
86	배 헌	90	김수진	96	남 유정
87	김상수	90	남창미	97	정 형순
87	문용길	90	곽동인	02	박 용주
87	노충기	90	한태호	91	박 영해
87	이병훈	90	장형환	91	김 연희
87	김인철	91	김봉섭	91	허 정희
87	이경은	91	손병철		



부산여자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74	김양자	85	최윤선	89	염미선
79	허귀숙	85	김두련	89	최봉금
79	조복례	85	장희자	89	홍선면
79	하혜선	85	허두남	89	박순희
79	한임련	85	조외분	89	배현주
80	이채경	85	조삼덕	90	박소영
80	천향자	85	이미선	90	권숙경
80	황금숙	85	윤경희	90	손소영
81	김유미	85	박영아	90	이형순
81	박미숙	85	박경리	91	강유경
82	차월준	85	김영옥	91	박은미
82	조정우	86	권미경	91	박진숙
82	김덕순	86	故반정숙	91	정영숙
82	김경화	86	인애란	92	이동현
82	김옥희	86	강옥순	92	김기화
83	큰 김미애	86	백영숙	93	오수미
83	작은 김미애	86	이정현	93	최가현
83	이영숙	87	우소영	94	김현영
83	이덕희	87	강정영	94	김혜임
83	서경은	87	전선영	94	최영리
83	정은경	87	조경숙	97	서은숙
83	반은숙	87	정은남	97	장경미
84	김숙경	88	정명화	99	박양정
84	김현주	88	정명선	00	이이영
84	최미순	88	김선희	13	김형은
84	조말선	88	김윤경	13	김가영
84	박경선	89	박미선	13	김은진



인제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85	김민걸	88	하태웅	97	김은정	07	인현주
85	이만성	89	주지철	97	오병두	07	이경민
85	김정임	89	박동석	98	이은실	08	이정용
85	노윤성	89	정병화	98	한윤경	08	박동익
85	송완길	90	강성관	98	손기성	08	윤 솔
85	송영길	90	강수영	99	박정숙	08	이기현
85	이석우	90	신용철	99	김동천	08	김민호
85	이왕태	95	김종현	99	남선진	08	김나래
85	조원재	90	양승인	99	손병주	12	김진석
86	강정호	90	정상천	99	류혜경	12	전재민
86	김주식	90	허대영	99	김승국	12	전용민
86	김윤숙	90	류상희	01	김성민	12	정재훈
86	박기동	91	김유식	02	김윤영	12	정교식
86	정진흥	91	이재근	02	유민수	12	서성호
86	조인석	91	정두선	08	박경표	12	김 준
87	박운용	91	최경미	08	박용형	12	김성겸
87	변기홍	91	하영인	02	리현유	12	손창식
87	이현철	91	이경륜	03	소기선	13	김민철
87	장옥란	92	황정선	03	박정태	13	김상우
87	정훈규	95	이은주	03	김범철	13	조호준
88	강철순	95	김정화	04	정의화	14	정다운
88	전성호	95	박일규	04	김경록	14	김종무
88	정유진	96	장미진	05	장효정		
88	최임숙	97	박소영	07	박은철		
88	하경남	97	정경미	07	손진영		



춘해보건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78	이영옥	92	엄일화	11	김다영
80	김수분	92	황수경	12	윤지윤
80	정경희	93	서춘경	12	김남희
80	주미혜	94	송혜진	12	홍유원
80	이규실	94	이성영	12	이다솜
80	곽희경	95	정은희	12	이성애
80	김희숙	95	정현숙	12	유정아
81	최영미	95	이언화	13	박기완
81	문현주	96	김유희	13	이수경
81	정금이	96	김은영	13	곽진영
83	김복선	98	조혜진	13	이준상
83	이순미	98	오희진	13	진은희
84	유용미	98	이연화	13	조은진
84	류미숙	00	최준백	13	최유희
84	염희경	00	故김재현	13	최혜정
85	문해필	01	김혜경	14	전현후
85	류선희	01	김혜숙	14	이태인
86	김정희	01	김영희	14	김학기
86	윤영숙	02	백정숙	14	조수민
87	주묘희	02	손민호	14	황소희
88	목태임	03	김희진	14	전이정
88	박복남	03	장재희	14	장지은
88	이경희	05	구수연	14	이지은
88	이상주	05	문민영	14	조현지
88	임정순	05	문송이	15	전미하
90	강미영	05	장소희	15	이소명
90	박경은	06	조아라	15	성유진
90	우경애	07	정병욱	15	이슬혜
90	이순애	10	이보권	15	이유정
90	한영숙	10	권유진	15	이다해
91	김현진	11	김정은	15	이승미
92	구희정	11	김민지	15	이효빈
92	김명선	11	김민정	16	박주휘
92	박선희	11	강신실	17	김아영
92	이현미	11	김선경		



한국해양대학교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71	민경태	77	김응래	85	허정용
72	김봉일	77	조준형	85	황덕윤
72	변희옥	77	박수영	86	송동주
72	김의배	77	송근곤	86	김재열
72	심승보	77	조성룡	86	윤희장
72	김연걸	77	임영철	87	김종서
72	허 종	78	임광섭	87	선민수
72	하병진	78	정창명	87	김철훈
73	방윤배	78	서호상	87	형성룡
73	전영일	78	김경훈	87	안선철
73	이수영	78	김병일	88	이윤현
73	남명진	79	손봉락	88	정광용
73	조내석	79	정승오	88	오우섭
73	윤진봉	79	강인근	89	소자호
73	권해국	79	강영훈	89	김치돈
73	안상현	79	박찬일	90	신상수
74	신흥모	80	김홍근	90	김부근
74	정홍덕	80	전창렬	90	이 규
74	강성중	80	이동민	90	임원록
74	강성택	81	엄주삼	91	조선경
74	김휘동	81	이종형	91	이효건
75	곽상봉	81	전정호	92	박기표
75	임상현	81	김병진	92	이상영
75	이윤구	81	팽현섭	93	김연승
75	오동혁	82	변진규	94	이호식
75	정영섭	82	이영중	94	이치원
75	조현흠	82	임강현	95	서덕교
76	원장연	83	김영석	95	김환세
76	신형승	83	김정균	96	박종철
76	조광호	83	김명선	97	김성준
76	황의섭	83	임용혁	99	김교진
76	이철환	83	차종채	99	허영진
76	고한석	84	김석희	99	이동규
76	김윤호	84	류현상	99	정동희
76	이종민	84	안진환	01	최정호
77	김재욱	85	신남식	02	김민규
77	박세룡	85	정대율	02	정승우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학 번	이 름
04	이세현	06	박양희	08	윤하석
04	박영남	06	윤성환	08	조영규
04	조명훈	06	이동열	09	최민수
04	조명훈	07	이명종	11	오원탁
04	박은란	08	박정현	11	유선혜
05	배현석	08	배성룡	12	김희석
05	박아람	08	심재섭	13	안효진
05	성 준	08	심현섭		



부산학생산악연맹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단체는 부산학생산악연맹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B.S.A.A)으로 표기한다.

제2조 (주 소)

본 연맹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 연맹은 각 대학 산악회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아울러 회원 단체를 통괄 지도하고, 등산과 산악운동 전반에 걸쳐 제반 기술개발 및 보급은 물론, 우수한 산악인을 양성하여 건전한 산악운동의 풍토를 확립시켜 지역사회 산악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토 애호, 환경보존 및 계승에 관한 제반 활동
2. 지역사회의 건전한 산악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3. 등산과 산악에 관한 각종 학술적 연구 활동
4. 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및 제작
5. 등산과 산악운동의 발전과 등반경기 및 등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
6. 등산의 안전과 교육에 관한 활동
7. 회원단체의 사업과 운영의 지원 육성
8.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필요한 사업

제5조 (구 성)

본 연맹은 부산광역시 소재 정규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산악단체로서 구성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연맹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부산학생산악연맹 정관

1. 재학생회원 : 재학생으로 구성된 각 대학산악회로서 재학생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2. 일반회원 : 각 대학산악회의 졸업생회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3. 명예회원 : 본 연맹의 활동에 공헌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한 단체나 개인

제7조 (회원의 가입)

본 연맹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대의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
2. 본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가
4.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 및 후원

제9조 (회원단체의 의무)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맹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의 준수
2.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3. 기타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본 연맹에 보고할 의무

제10조 (자격상실)

본 연맹의 회원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단체의 해산 또는 개인의 사망
3. 본 연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을 당하였을 때

제11조 (재 가입)

제10조에 의한 자격상실 후 재 가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및 징계)

1. 본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반 산악운동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2.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라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약간인
3. 이 사 :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사무국장 : 1인
5. 재학생 회장 : 1인
6. 감 사 : 2인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재학생회장은 1년 단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산은 통상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에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정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5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본 연맹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이사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이사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부회장 및 일반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추천된 이사중 회장이 임명한다.
5. 재학생 회장은 전임 재학생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산학생산악연맹 정관

②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1월 이내에 보선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필요에 따라 업무를 분장 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의 회무를 의결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연맹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연맹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본 연맹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19조 (총 회)

①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등록된 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통상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원(회장,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연맹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⑤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에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호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적이사 괴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제반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
9.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⑥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위원회)

① 본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운영위원회 : 본 연맹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홍보, 재정, 총무운영에 관한 사항.
2. 등반기술위원회 : 본 연맹의 국내외 원정등반, 제반산악활동의 운영·지도관리, 국내외 기술교류, 재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술정보위원회 : 본 연맹의 등산 및 산악활동의 학술적 연구조사, 간행물 제작, 문헌정보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위원회 : 국내외 산악단체 및 산악인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⑥ 각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⑦ 각 위원회는 업무진행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재학생회)

재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 (재산의 구분)

①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본 연맹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금
3. 지적 소유권
4.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5.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본 연맹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연맹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24조 (재 정)

본 연맹의 재정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입회비
2. 특별회비 및 임원 분담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본 연맹의 수익사업 수입금
5. 기타의 수입금

제25조 (재산의 관리)

1. 본 연맹의 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다만, 본 연맹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2. 본 연맹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에 한하여서는 본 연맹의 재정에서 보조한다.
3. 본 연맹의 수지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재산목록,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수지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부산학생산악연맹 정관

제 6 장 보 칙

제27조 (정관의 변경)

본 연맹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8조 (해 산)

본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29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2004. 3. .)

① 본 정관은 총회에 있어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에 준한다.

부 산 학 생 산 악 연 맹
1969년 03월 31일 제정
1973년 11월 16일 1차 개정
1978년 04월 24일 2차 개정
1993년 03월 23일 3차 개정
2004년 03월 일 4차 개정

정관 시행 세칙 제 1 호 재학생회 운영규정

제1조 (목 적)

이 시행 세칙은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연맹 재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학생회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재학생회장 1명
2. 재학생부회장 2명
3. 재학생총무 1명

제3조 (재학생회 임원선출 및 직무)

1. 재학생회장은 재학생회 대표로 재학생회 회무를 총괄하며, 재학생회 집회와 재학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재학생회부회장은 재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재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재학생회장의 유보시 연장자순으로 재학생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재학생이사는 재학생부회장 또는 회원단체의 추천을 거쳐 재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재학생이사회를 구성하고 재학생회의 회무를 의결 집행한다.

제4조 (재학생회 분과위원회)

재학생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재학생 이사회에서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이사가 겸임한다.

1. 기획분과위원회
2. 학술분과위원회
3. 기술분과위원회

제5조 (재학생회 임원의 임기)

1. 재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산은 통상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산학생산악연맹 정관

제6조 (재학생회 임원의 보선)

1. 재학생회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재학생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단, 재학생회장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증원 또는 보선된 재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타 재학생 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재학생회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의 취임이 있을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7조 (징 계)

재학생회 임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하거나 비위사실이 있을때에는 재학생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시킬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소집)

재학생회의 회의는 집회 및 재학생 이사회로 하고 재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9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재학생 이사회의 결의와 본 연맹이사회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 (시 행)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일 2004년 제1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정관 시행 세칙 제 2 호 회비규정

제1조 (목 적)

이 시행 세칙은 정관 제23조에 의거 본 연맹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 비)

본 연맹의 회비종류와 액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학생회원단체의 회비는 재학생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일반회원단체의 회비는 1단체 년 200,000원으로 매년 5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③ 임원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년 2,000,000원
2. 부 회 장 : 년 500,000원
3. 자문위원 : 년 200,000원
④ 회비를 2년이상 연속으로 체납하였을때에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제3조 (시 행)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일 2004년 제1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정관 시행 세칙 제 3 호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B.S.A.A.Fun Climbing School)

제 1조 (명칭) : 부산 학생 산악 연맹 등산 학교(B.S.A.A.Fun Climbing School)+연도(약칭 BFC+연도)라 한다.

제 2조 (목적) : 등산학교는 본 연맹의 등산 교육과 등반기술발전 및 학술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조직) : 학교장, 학감, 책임 강사, 회계, 감사 및 강사들로 구성한다.

제 4조 (임명)

1항 : 학교장, 감사는 당해연도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장(이하 회장)이 임명하며 학감, 책임강사, 강사, 회계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2항 : 홍보, 장비, 기록, 편집 등 등산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은 학감 및 책임강사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지명한다.

3항 : 학교장은 당해 등산학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자문또는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정관

제 5조 (임기) : 공식 임명직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6조 (직책)

1항(학 교 장) : 연맹을 대신하여 등산 학교를 대표하며 등산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항(학　　감) : 학교장을 보좌하여 모든 행정부문을 총괄하며 학교장 유고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3항(책임강사) : 강사 및 보조 강사들을 통솔하여 교육 부문을 총괄한다.

4항(강　　사) : 책임 강사를 도와 모든 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5항(회　　계) : 교육기간 모든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6항(감　　사) : 공식 일정이 끝나면 회계 및 일반 행정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운영) : 등산 학교는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모든 직책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 8조 (교육)

1항 : 당해 연도 연맹 신입생 교육에 최우선을 둔다.

2항 : 공식 일정은 년 1회에 한하며 세부일정 및 기간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3항 : 공식 일정외 필요시 2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재학생회의와 연맹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회장과 학교장이 협의·결정한다.

4항 : 2차 교육의 시행은 등산 학교 시행 세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9조 (회계)

1항 : 수입은 연맹 지원비, 학생회비, 각종 물품 및 현금, 그 외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2항 : 수익금이 남을 경우 당해연도 등산학교의 운영계획에 따르며 회장과 차기 등산학교에 이월한다.

3항 : 회계 담당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계획으로 수입 부문에 반영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 10조 (상벌) : 상벌 규정은 등산 학교 운영진에 의해 결정한다.

제 11조 (결산) : 공식 일정이 끝나면 감사를 통해 연맹 이사회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한다.

제 12조 (기타)

1항 : 시행 세칙 이외의 상황은 연맹 회칙에 준하여 판단한다.

2항 : 2011년 6월 7일에 작성한 본 세칙은 연맹 이사회의 결의와 동시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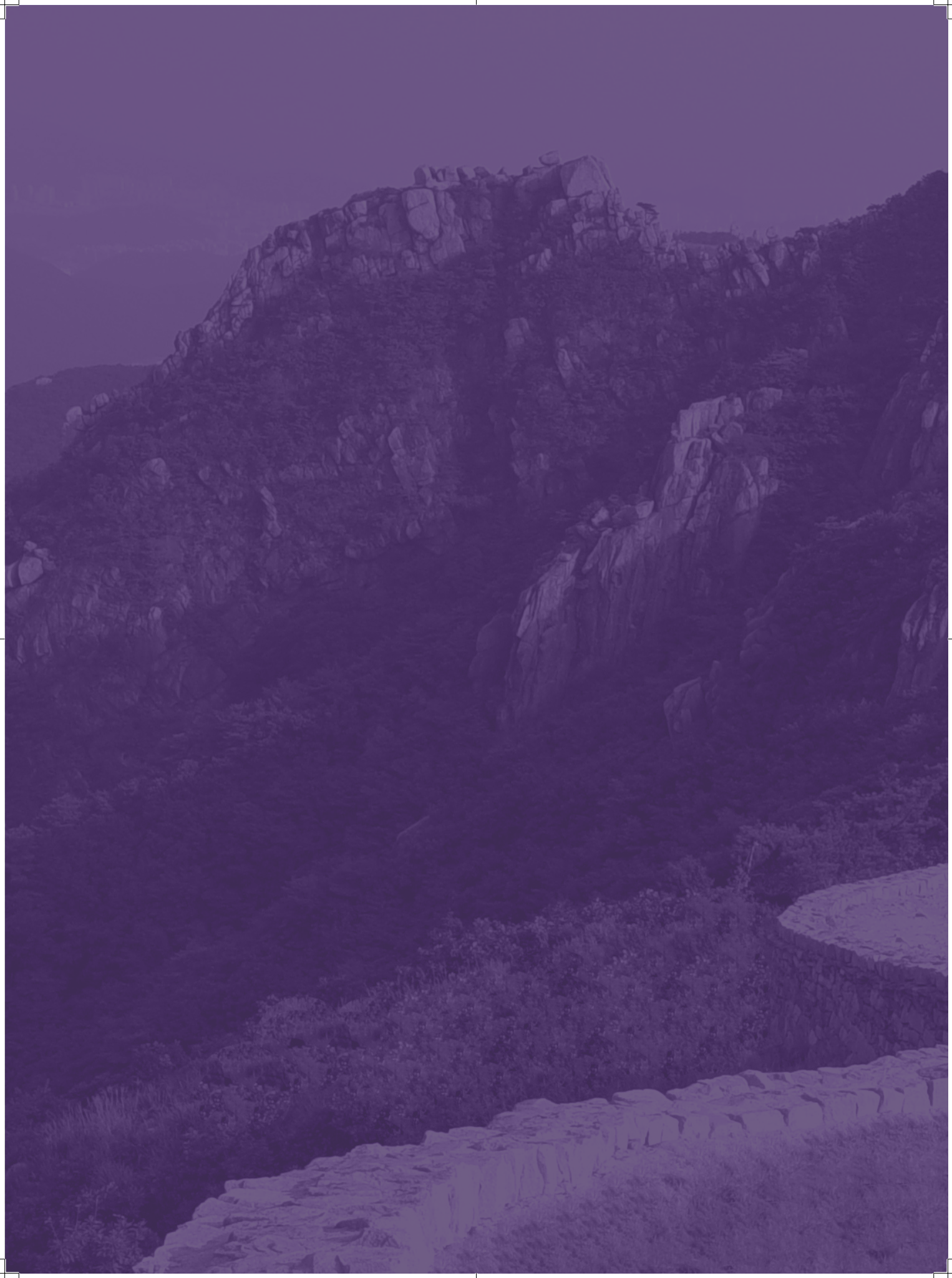
3항 : 세칙의 개정은 연맹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 지며, 개정 효력은 차기 등산학교부터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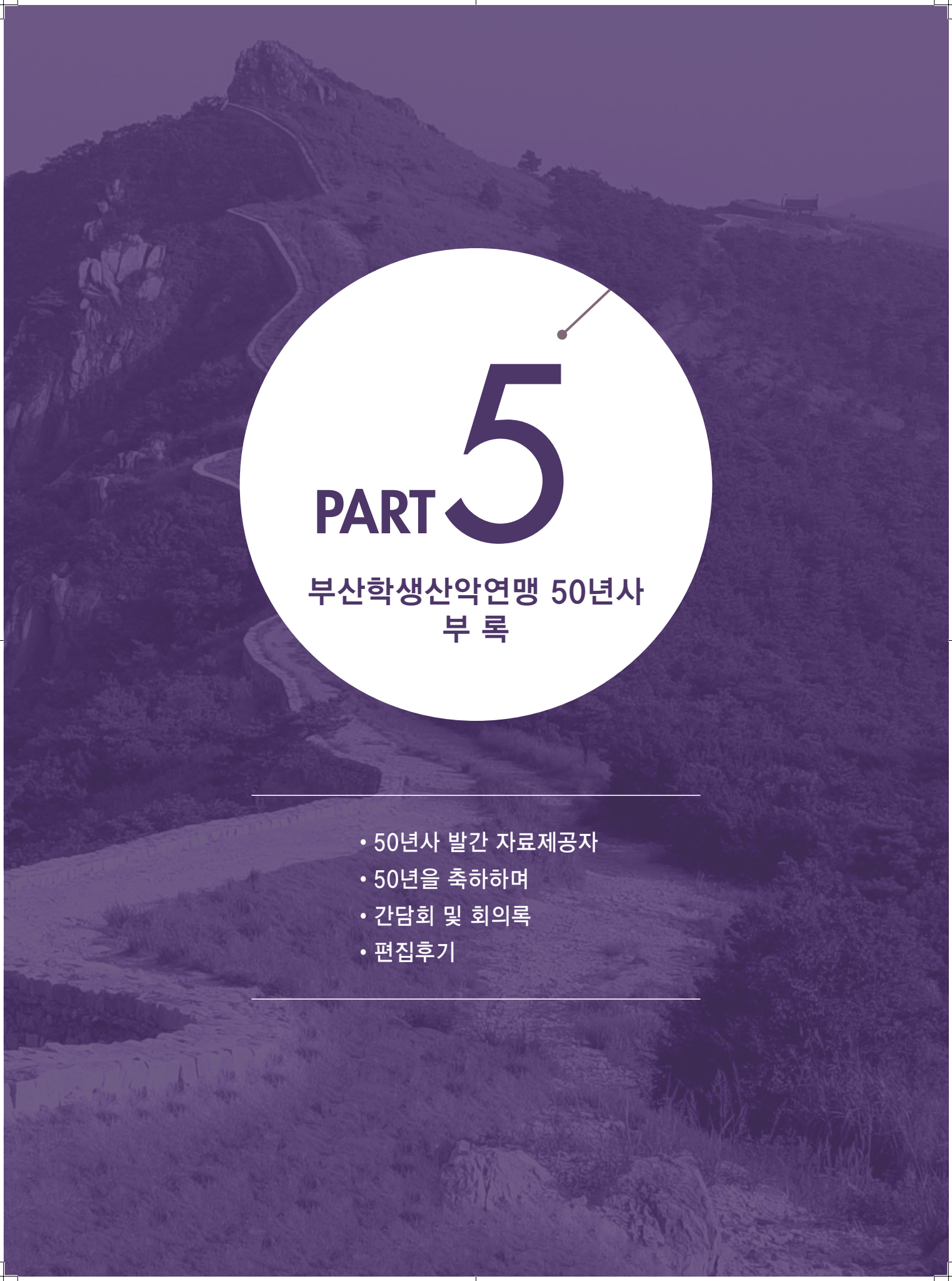
1979년도 회칙개정

현 안		개 정 안	
제6절	자문위원회	제6절	자문위원회
제35조	자문위원회는 산악지식이 월등한 분으로서 항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이 되는 분을 추대한다.	제35조	자문위원회는 학생 산악 연맹의 산악활동을 이해하고 적극 찬조하는 사회 저명인사로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분을 추대한다.
제36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6조	자문위원회는 학생상임위원회와 회장단 연석 하에 추대하고 그 인원은 20명 내외로 하며 연맹의 산악활동을 학생들이 자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1980년도 회칙개정

현 안		개 정 안
2장 5조 3항		명예회원에 관한 규정을 삽입, 본 연맹에 공헌을 한 사람 중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장 5조 2항	연맹산하 각 학교 졸업자	연맹 산하 각 학교 산악부 졸업자 (수정)
2장 7조	가맹된 각 학급 산악부 및 그 부원	전회원은 (수정)
2장 9조	금 품	금품은 회비 및 장비 등을 포함 (수정)





PART 5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
부 록

- 50년사 발간 자료제공자
- 50년을 축하하며
- 간담회 및 회의록
- 편집후기

부록

- 50년사 발간 자료제공자
- 50년을 축하하며
- 간담회 및 회의록
- 편집후기





1984년 연맹합동 체육대회(금정산)

50년사 발간 자료제공자 명단

자료제공자 : 부산학생산악연맹 사무실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산소식 제 162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4	
간행물	산소식 제 164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7	
간행물	산소식 165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9	
간행물	산소식 167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0	
간행물	산소식 168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1	
간행물	산소식 169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2	2권
간행물	산소식 170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3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93	
간행물	금정산맥 창간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5	
간행물	금정산맥 제 2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9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77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80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70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87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79	
책	악우명부	부산학생산악연맹	1967	
자료	15회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1984	
복사본	부산등산학교 교재	부산학생산악연맹		
계획서	78년 하계훈련계획서 “82년도 해외 원정을 대비”	부산학생산악연맹	1978	
계획서	79년 하계훈련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79	
계획서	제 1차 훈련계획서 “82년 히말라야원정”	부산학생산악연맹	1979	
계획서	제 4차 훈련계획서 “82년 파빌 원정대”	부산학생산악연맹	1980	
계획서	제 5차 훈련계획서 “82년 파빌 원정대”	부산학생산악연맹	1981	
계획서	82년 파빌봉 원정대 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82	
보고서	백두대간 구간 종주산행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16	
자료	49회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2016	
보고서	동계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05	

자료제공자 : 동아대학교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보고서	90년 한국 히말라야 그레이샤돔 원정대	동아대학교	1990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93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97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97	
계획서	동계합동 I.C 및 동계등산학교 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96	
계획서	제 28차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1995	
계획서	제 30차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1997	
계획서	제 38차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2005	
계획서	동계합동 I.C 및 동계등산학교 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97	
간행물	산소식 창간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7	

자료제공제공자 : 동의과학대교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베이스 캠프 창간호	동의공업대학교	1998	원본파일보관집

자료제공자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하이어 제 1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2	
간행물	하이어 제 5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5	하계보고서
간행물	하이어 제 6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5	동계보고서
간행물	하이어 제 7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6	
간행물	하이어 제 8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7	하계
간행물	하이어 제 10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8	하계
간행물	하이어 제 11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9	동계
간행물	하이어 제 12.13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9	하계,동계
간행물	하이어 제 14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000	하계
인쇄자료	하이어 제 15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002	하계

자료제공자 : 부산대학교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산소식 102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78	
간행물	산소식 13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70	
간행물	산소식 121	부산학생산악연맹	1979	봄
간행물	산소식 131	부산학생산악연맹	1980	여름
간행물	산소식 164	부산학생산악연맹	1987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93	2권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산소식 창간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7	5권
간행물	산소식 2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7	
유인물	제 15회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1982	
유인물	제 28회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1995	
유인물	제 30회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1997	
유인물	제 38회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2005	
유인물	부산등산학교 교재	부산학생산악연맹		
유인물	제 1회 하계 산간학교	부산학생산악연맹	1995	
계획서	86년 동계 장기등반계획서	부산대학교	1987	
계획서	96년 동계합동 I.C 및 동계 등산학교	부산학생산악연맹	1996	
계획서	78년 하계훈련계획서 “82년도 해외 원정을 대비”	부산학생산악연맹	1978	
계획서	79년 하계훈련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79	
계획서	제 1차 훈련계획서 “82년 히말라야원정”	부산학생산악연맹	1979	
계획서	제 4차 훈련계획서 “82년 파빌 원정대”	부산학생산악연맹	1980	
계획서	제 5차 훈련계획서 “82년 파빌 원정대”	부산학생산악연맹	1981	
계획서	82년 파빌봉 원정대 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82	
신문	파빌봉 등정 보도	일간스포츠, 부산일보	1982	

자료제공자 : 부경대학교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보고서	97년 장기등반보고서	부산대학교	1997	
보고서	원정등반보고서 85년도 히말라야 원정 92년 파미르 원정	부산교육대학교	1993	
보고서	93년 요세미티 등반보고서	경성대학교	1993	
보고서	93년 동의대학교요세미티 원정	동의대학교	1993	
보고서	2009년 한국 공거얼 원정 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09	
보고서	부산대 동계 아마다블람 등반	부산대학교	2010	
계획서	93년 동의대학교 요세미티 원정	동의대학교	1993	
계획서	96년 동아대학교 마나파르바트 Ⅰ, Ⅱ 원정대	동아대학교	1996	
계획서	96년 인도 히말라야 쉬블링 원정대	경남전문대학교	1996	
계획서	96년 포베다 원정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6	
계획서	알프스 3대 북벽 등반 계획서	경성대학교	1989	
간행물	베이스 캠프 창간호	동의과학대학	1998	
간행물	산정 창간호	부산여자전문대학	1985	
간행물	호박 제 9호	부산여자전문대학	1995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산소식 167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0	
간행물	산소식 168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1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93	
간행물	산놀 제 4호	부산교육대학교	1991	
간행물	산놀 제 3호	부산교육대학교	1990	
간행물	산놀 제 5호	부산교육대학교	1992	2권
간행물	산향 제 8호	춘해간호전문대학	1992	2권
간행물	산향 제 10호	춘해간호전문대학	1994	
간행물	산향 제 11호	춘해간호전문대학	1995	
간행물	산향 제 14호	춘해간호전문대학	1999	
간행물	하이어 제 1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1	
간행물	하이어 제 6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5	2권
간행물	하이어 제 8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7	
간행물	하이어 제 10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8	
간행물	해벽 제 12호	한국해양대학교	1993	
간행물	해벽 제 13호	한국해양대학교	1994	
간행물	정의 울림 제 5호	동의대학교	1990	
간행물	정의 울림 제 6호	동의대학교	1992	
간행물	정의 울림 제 7호	동의대학교	1994	
간행물	동아산맥 제 18호	동아대학교	1987	
간행물	동아산맥 제 28호	동아대학교	1999	
간행물	용악 1호	부산공업대학교	1992	
간행물	용악 2호	부산공업대학교	1994	
간행물	용악 3호	부산공업대학교	2000	
간행물	금정산맥 3호	부산학생산악연맹	2012	
간행물	금정산맥 4호	부산학생산악연맹	2014	
간행물	금정산맥 5호	부산학생산악연맹	2016	
책	1960년 한국의 산악 운동	조선일보사	2003	
책	부산산악인 열전	부산산악포럼	2016	
책	부산대학교 산악부 50년사	부산대학교	2010	
책	부산산악계 히말라야 원정등반 약사	부산학생산악연맹	2012	
계획, 보고서	부산대,경성대,부산여대,부산과기대, 부경대,동의과학대 등 파일	각 단대		

자료제공자 : 부산여자대학교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계획서	연맹 춘계합동 R.C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96	
계획서	연맹 춘계합동 R.C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97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계획서	연맹 춘계합동 R.C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00	
계획서	연맹 춘계합동 R.C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02	
계획서	제4회 암벽등반대회	부산학생산악연맹	1997	
계획서	백두대간 구간 종주 계획서(3.4구간)	부산학생산악연맹	1998	
계획서	연맹제 및 추계합동산행 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98	
계획서	동아대학교 칸텐그리 등반계획서	동아대학교	1994	
보고서	백두대간 구간 종주 산행 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98	
보고서	2008년 전반기 사업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08	
보고서	부산대학교 일본 북알프스 등반 보고서	부산대학교	1990	
보고서	부산공업대 동계장기산행보고서	부산공업대학교	1995	
보고서	부경대학교 용당 하계 장기등반보고서	부경대학교	1999	
보고서	수산대학교 토왕성 폭포 사고 보고서	수산대학교	1997	
보고서	사업 및 회계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92	
자료	홈페이지 현 현황 및 향후 운영회의 자료	부산학생산악연맹		

춘해보건대학교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보고서	86 하계 훈련 등반 보고서	한국해양대학교	1986	
계획서	96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한국해양대학교	1996	
계획서	95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한국해양대학교	1995	
보고서	94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한국해양대학교	1994	
계획서	93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한국해양대학교	1993	
보고서	92 동계 장기 등반 보고서	한국해양대학교	1992	
계획서	91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한국해양대학교	1991	
보고서	91 동계 장기 등반 보고서	한국해양대학교	1991	
계획서	89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한국해양대학교	1989	
간행물	해벽 창간호	한국해양대학교	1982	
간행물	해벽 제 2호	한국해양대학교	1983	봄호
간행물	해벽 제 3호	한국해양대학교	1983	가을호
간행물	해벽 제 4호	한국해양대학교	1985	여름
간행물	해벽 제 5호	한국해양대학교	1985	가을
간행물	해벽 제 7호	한국해양대학교	1987	여름
간행물	해벽 제 8호	한국해양대학교	1988	봄
간행물	해벽 제 9호	한국해양대학교	1986	
간행물	해벽 제 10호	한국해양대학교	1991	
간행물	해벽	한국해양대학교	1993	
간행물	해벽 제 14호	한국해양대학교	2007	
간행물	산향 제 3호	춘해간호전문대학	1985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산향 제 5호	춘해간호전문대학	1989	
간행물	산향 제 6호	춘해간호전문대학	1990	
계획서	제 1회 부산학생산악연맹 전국 볼더링 대회	부산학생산악연맹	2001	
계획서	2002년 춘계 합동 R.C 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02	
계획서	2002년 동계 산간학교 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02	
계획서	2004년 동계 등산학교 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04	
계획서	제 4회 부산학생산악연맹 전국 볼더링 대회	부산학생산악연맹	2004	
간행물	산소식 165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9	
간행물	산소식 168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1	
간행물	산소식 161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3	가을/2권
간행물	산소식 162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4	
간행물	산소식 163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5	
팜플렛	제 7회 장비전시회	인제대학교	1992	
보고서	춘해보건대학교 88 태백종주	춘해보건대학교	1988	
계획서	91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의대학교 산악부	1991	
보고서	91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동의대학교 산악부	1991	
계획서	92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의대학교 산악부	1992	
보고서	93 동계 장기 등반 보고서	동의대학교 산악부	1993	1992.12~
보고서	93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동의대학교 산악부	1993	
보고서	93 동계 장기 등반 보고서	동의대학교 산악부	1994	1993.12~
계획서	93 동의대학교 요세미티 원정 계획서	동의대학교 산악부	1993	
보고서	96 하계장기 등반 보고서	동의대학교 산악부	1996	
간행물	산사랑 6호	부산외국어대학교	1992	
간행물	산사랑 8호	부산외국어대학교	1995	
계획서	92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외국어대학교	1992	
보고서	94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부산외국어대학교	1994	
계획서	94 백두대간 종주 계획서	부산외국어대학교	1994	
계획서	96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	
계획서	96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	
계획서	97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외국어대학교	1997	
계획서	85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경남전문대학 산악부	1985	
보고서	92 하계장기 등반 보고서	경남전문대학 산악부	1992	
계획서	96년 인도 히말라야 쉬블링 원정대	경남전문대학	1996	
보고서	95 하계 훈련 보고서	경성대학교 산악부	1995	
계획서	94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경성대학교 산악부	1994	
보고서	88 하계 훈련 보고서	경성대학교 산악부	1988	
계획서	91 태백산맥 종주 계획서	경성대학교 산악부	1991	
보고서	96 동계 훈련 보고서	경성대학교 산악부	1996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계획서	97 동계 훈련 보고서	경성대학교 산악부	1997	
간행물	하이어 제 9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8	
보고서	93년 하계 훈련 보고서	부산전문대 산악부	1993	
계획서	94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전문대 산악부	1995	
간행물	하이어 제 5호	부산전문대 산악부	1995	
계획서	95년 하계 훈련 계획서	부산전문대 산악부	1995	
계획서	96 동계장기 산행 계획서	부산전문대 산악부	1996	
보고서	96년도 하계 산행 보고서	부산전문대 산악부	1996	
계획서	97 동계 산행 계획서	부산전문대 산악부	1997	
계획서	92 하계 훈련 계획서	동의공전 산악부	1992	
계획서	96 동계 장기산행 계획서	동의공전 산악부	1996	
보고서	96 동계 장기 산행 보고서	동의공전 산악부	1996	
계획서	96 하계장기등반 훈련 계획서	동의공전 산악부	1996	
계획서	97 하계장기등반 훈련 계획서	동의공전 산악부	1997	
계획서	97 동계 훈련 계획서	동의공전 산악부	1997	
보고서	98 동계 장기등반 훈련 보고서	동의공전 산악부	1998	
계획서	93 하계 장기등반 계획서	동래여전 산악부	1993	
보고서	93 하계 장기등반 보고서	동래여전 산악부	1993	
계획서	94 하계 장기등반 계획서	동래여전 산악부	1994	
보고서	94 설악산 하계 장기등반 보고서	동래여전 산악부	1994	
계획서	91 하계 등반 계획서	동주여전 산악부	1991	
계획서	93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주여전 산악부	1993	
보고서	94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동주여전 산악부	1994	
보고서	95 동계 장기 등반 보고서	동주여전 산악부	1995	
계획서	95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주여전 산악부	1995	
계획서	96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주여전 산악부	1996	
계획서	97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주여전 산악부	1997	
보고서	00 동계 장기 등반 보고서	동주대학 산악부	2000	
간행물	백경산장 2호	부산수산대학교	1985	
간행물	백경산장 3호	부산수산대학교	1986	
간행물	백경산장 5호	부산수산대학교	1989	2권
간행물	백경산장 6호	부산수산대학교	1993	
보고서	86 하계 등반 보고서	부산대 산악부	1986	
계획서	95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대 산악부	1995	
계획서	94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대 산악부	1994	
보고서	93 하계일본 북알프스, 조가사키원정	부산대 산악부	1993	
계획서	93 하계일본 북알프스, 조가사키원정	부산대 산악부	1993	
보고서	92 하계장기 등반 보고서	부산대 산악부	1992	
보고서	92 동계장기 등반 보고서	부산대 산악부	1992	
계획서	91 하계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대 산악부	1991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계획서	88 동계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대 산악부	1988	
계획서	87 동계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대 산악부	1987	
계획서	86 동계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대 산악부	1986	
보고서	89 하계 아이거 북벽 등반 보고서	부산대 산악부	1989	
계획서	96 하계 산행 계획서	부산대 산악부	1996	
보고서	96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부산대 산악부	1996	
계획서	96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대 산악부	1996	
보고서	96 동계 장기 등반 보고서	부산대 산악부	1997	
보고서	97 장기등반 보고서	부산대 산악부	1997	
보고서	98 2차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부산대 산악부	1998	
계획서	00 동계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대 산악부	2000	
계획서	83 하계 설악산 장기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83	
계획서	84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84	
계획서	85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84	
계획서	86 동계 훈련 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86	
계획서	86 일본 북 알프스 계획서	동아대학교	1986	
계획서	87 태백산맥 종주 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87	
계획서	88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88	
계획서	89 설악산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89	
계획서	90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90	
계획서	91 동계 등반 계획	동아대학교	1991	
계획서	93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93	
계획서	95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95	
계획서	96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96	
계획서	96년 동아대학교 마나파르바트 Ⅰ, Ⅱ 원정대	동아대학교	1996	
보고서	96년 동아대학교 마나파르바트 Ⅰ, Ⅱ 원정대	동아대학교	1996	
계획서	99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동아대학교	1999	
간행물	동아산맥 19호	동아대학교	1988	
간행물	동아산맥 22호	동아대학교	1992	
간행물	동아산맥 37호	동아대학교	2009	
간행물	산정 창간호	부산여자전문대학	1985	
간행물	산정 3호	부산여자전문대학	1987	
보고서	86 하계 장기등반 보고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86	
보고서	88 하계 장기등반 보고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88	
보고서	91 동계 장기등반 보고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1	
보고서	91 일본 북알프스 보고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1	
보고서	92 동계 장기등반 보고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2	
보고서	93 하계 보고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3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계획서	93 동계 장기등반 계획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3	
계획서	94 동계 장기등반 계획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4	
보고서	94 하계 장기등반 보고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4	
보고서	95 동계 장기등반 보고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5	2부
계획서	95 하계 장기등반 계획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6	
보고서	95 하계 장기등반 보고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5	
계획서	95년 부산여자전문대학교 제 2차 대만혹산 해외원정	부산여자전문대학	1995	
계획서	97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7	
보고서	97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7	
계획서	97 동계 장기 산행 계획서	부산여자전문대학	1997	
간행물	산 2호	부산공업전문대학	1980	
계획서	86 후반기 동계 계획서	부산교육대학교	1986	
간행물	산놀 창간호	부산교육대학교	1987	
보고서	88학년도 동계 장기등반 보고서	부산교육대학교	1988	
계획서	89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교육대학교	1989	
계획서	92 동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교육대학교	1992	
보고서	94 하계 장기 등반 보고서	부산교육대학교	1994	
계획서	96 하계 장기 등반 계획서	부산교육대학교	1996	
간행물	춘해보건대학교 산악부 33년사	춘해보건대학교	2013	
계획서	2004년 맥캔리 원정 계획서 부산여성원정대	부산학생산악연맹	2001	
보고서	파빌등정 보고서(일본원정대 번역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0	
간행물	금정산맥 제2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9	
보고서	77년 토왕성빙폭 완등 보고서	77년 토왕성빙폭합동등반대	1977	
바인더자료	자료모음집			

자료제공자 : 김재도(부산대60)

자료종류	자료명	주최	시기	비고
신문자료	82년 파빌봉 원정성공보도	부산일보사	1982	10장
사진	60~70년대 사진 63장			

자료제공자 : 황순철(고문)

자료종류	자료명	주최	시기	비고
사진	80~90년대 사진 15장			

자료제공자 : 최해곤(고문)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복사본	발기총회 자료	부산학생산악연맹	1967	
사진	1967~69년 활동사진			

자료제공자 : 배병수(동아대72)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앨범	2권, 사진 자료 270장			
보고서	울릉도하계학술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자료제공자 : 손찬현(부경대72)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앨범	70년대 사진자료 6점	부산공전		
펜던트	부산공전 83년 동계 푸모리(7183m) 정찰(82년8월~12월) 펜던트	부산공전		

자료제공자 : 홍보성(부경대74)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팜플렛	82 PABIL EXPEDITION RECONNALSSANCE	부산학생산악연맹	1981	
계획서	파빌봉 정찰 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81	5월
계획서	파빌봉 정찰 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81	6월
보고서	PABIL 등정보고서 원명: 동경하는 흰여신	부산학생산악연맹		
보고서	PABIL 원정 보고서(일본원정대 번역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0	
	히말라야 원정대 추진위원회 규약	부산학생산악연맹		
계획서	78년 하계 훈련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78	
계획서	79년 하계 훈련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79	
계획서	82년 한국 PABIL 원정대 제 4차 훈련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82	
계획서	82년 한국 PABIL 원정대 제 5차 훈련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82	
간행물	산소식 102호	부산학생산악연맹		
간행물	산소식 112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78	여름호
간행물	산소식 121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79	봄호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산소식 131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0	여름호
책	연세산악80년사	연세대산악부		
책	한국산악회50녀사	한국산악회		
책	고대산악70년사	고려대산악부		
책	한국외국어대산악50년사	한국외대산악부		
책	양정산악70년사	양정산악회		
책	동국산악50년사	동국대산악회		
책	대한산악연맹50년사	대한산악연맹		
책	성대산악50년사	성균관대산악회		

자료제공자 : 정민규(고문)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보고서	90 한국히말라야 그레이샤돔 원정 보고서	동아대학교	1991	
팜플렛	제 2회 부산학생산악연맹 볼더링 대회	부산학생산악연맹	2002	

자료제공자 : 정승오(해양대79)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보고서	2009 한국 공거얼 원정 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09	CD포함
간행물	한국해양대학교 산악부 40년사	한국해양대학교	2012	CD포함
간행물	산향 제 11호	춘해보건대학교	1995	
간행물	춘해보건대학교 산악부 33년사	춘해보건대학교	2013	
간행물	하이어 제5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5	하계보고서
간행물	하이어 제6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995	동계보고서
간행물	호박 제9호	부산여자전문대학	1995	

자료제공자 : 박병환(고문)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자료	제42차 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2009	
자료	제43차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2010	
자료	제47차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2014	
자료	제48차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2015	
자료	제49차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2016	
책	부산산악회 히말라야 등반약사	부산학생산악연맹	2012	
간행물	동아산맥11호	동아대학교	1979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12호	동아대학교	1980	
간행물	15호	동아대학교	1984	
간행물	16호	동아대학교	1985	
보고서	2008동계합동장기등반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08	
간행물	금정산맥 3호	부산학생산악연맹	2010	
간행물	금정산맥 4호	부산학생산악연맹	2013	
간행물	금정산맥 5호	부산학생산악연맹	2016	
간행물	산소식 131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0	여름호
간행물	산소식 132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0	가을호
간행물	산소식 163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86	
간행물	산소식 168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91	
보고서	파빌봉 정찰 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간행물	산정 2호	부산여자전문대학	1986	
보고서	2009 한국 공거얼 원정 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09	CD 포함
계획서	2014년도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2014	

자료제공자 : 이석호(동아대80)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자료	팬던트 사진 및 사진 자료 60점			

자료제공자 : 이종연(부경대82)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산정6월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75	
계획서	적설기 훈련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77	
계획서	제8회 부산학생등산대회		1973	
계획서	제8회 부산학생등산대회		1974	
계획서	제8회 부산학생등산대회		1976	
계획서	제8회 부산학생등산대회		1977	
책	규약	부산학생산악연맹	1968, 1973	
계획서	제1차 울릉도 학술조사계회거	부산학생산악연맹	1975	
계획서	5차훈련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82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82	
팜플렛	제 14회 전국 60km극복등행대회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	1972	
팜플렛	제 17회 전국 60km극복등행대회	부산학생산악연맹	1975	
팜플렛	제 18회 전국 60km극복등행대회	부산학생산악연맹	1976	
보고서	울릉도 답사 보고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75	

자료제공자 : 차월준(부산여대82)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사진	스키개요와 기술자료	부산학생산악연맹		
자료	대만옥산사진	부산여자대학교		

자료제공자 : 정진열(경남정보대82)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자료	볼더링대회 자료 (팜플렛, 보고서, 운영 자료 등)	부산학생산악연맹	2001~2016	
사진	디지털사진 400여장	부산학생산악연맹	2001~2016	
사진	원정자료 디지털 사진10보고서	경남정보대학교		
보고서	원정자료 다수 이메일	경남정보대학교		

자료제공자 : 홍종표(부산과기대82)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팜플렛	2007 부산학생산악연맹 공거얼 원정대	부산학생산악연맹	2007	
책	대한산악연맹 부산연맹 30년사	대한산악연맹 부산연맹	1998	
신문	인물광장(정민규 77학번)	국제신문	1989	
복사자료	부산학생산악연맹 탄생	대한산악연맹 부산연맹 33년사	1998	2장

자료제공자 : 최윤선(부산여대85)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사진	산행사진6장			

자료제공자 : 김석수(부산교대 86)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보고서	요세미티 등반보고서	부산교육대학교	2001	
보고서	한국 주산 원정보고서	부산교육대학교	2004	
보고서	Kongur 1. 보고서가 있나? 아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교육대학교	2007	
보고서	보고서를 발간되지 못한 비운의 기록들	부산교육대학교	2007	
보고서	한국 주산 원정보고서	부산교육대학교	2005	
보고서	알프스 등반 보고서	부산교육대학교	2015	

자료제공자 : 김나원(동아대09)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사진	청소년오지탐사 사진			
사진	연맹합동산행 사진			

자료제공자 : 최욱(전 부회장)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팬던트	파빌봉 정찰 팬던트	부산학생산악연맹		
팬던트	파빌봉 등정 팬던트	부산학생산악연맹		
사진	파빌원정 정찰 및 훈련사진 다수	부산학생산악연맹		

자료제공자 : 윤완석(전 경남공고 산악회 지도교사)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자료	고등학교 학생연맹 자료 다수			

자료제공자 : 강덕형 (청봉산악회)

자료종류	자 료 명	주 최	시 기	비 고
간행물	산소식 통권13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70.11	
간행물	산소식 통권14호	부산학생산악연맹	1970.12	
간행물	산소식	부산학생산악연맹	1973	
간행물	산정	부산학생산악연맹	1975	
간행물	동아산맥 제6호	동아대학교	1969	
간행물	동아산맥 제7호	동아대학교	1970	
자료	적설기 훈련등반 계획서(한라산)	부산대학교	1972	
계획서	적설기 훈련계획서	부산학생산악연맹	1976	
자료	제21회 정기총회	부산학생산악연맹		
자료	규약	부산학생산악연맹		
자료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칙	부산학생산악연맹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을 축하하다

2017년 부산학생산악연맹 임원진

고　　문 : 최상문,황순철, 최해곤, 김정실, 정성호, 신호진, 이동본, 정민규, 김치근, 정지택, 박병환

자 문 위 원 : 정금이(춘해보건대81), 안명선(동주대82), 안호덕(부산대82), 유영근(동아대82) 이남수(부경대82), 정진열(경남정보대82), 차월준(부산여대82), 최태신(부산교대84), 임용일(부경대85), 신병건(부산교대86)

회　　장 : 이창호(부산대80)

부 회 장 : 강양훈(부산대82), 조광제(동아대82), 박상희(경남정보대85), 전상은(부산교대85), 정대율(해양대85), 하태석(동명대86),이상주(춘해보건대88), 한강수(부산외대88), 손대익(동의과학대91)

이　　사 : 권태현(동의과학대89-사업), 백순녀(동주대89-환경보전), 김재형(부과대90-기획) 정경두(동과대92-교육), 김병진(동아대-재무), 백광윤(부산대98-재학생) 정기식(동명대01-기술), 최정호(해양대01-홍보), 김동구(동과대01-대외협력) 김남구(동아대01-자연보호), 백정숙(춘해보건대02-의학), 권용석(해양대05-정보웹)

OB 회 장 : 정진열(경남정보대82), 박종대(경성대85), 허기주(동명대86), 정순천(동아대80) 박명오(동과대92), 이광희(동의대85), 문재원(동주대91), 정진육(부경대74) 신병건(부산교대86), 홍종표(부산과기대82), 하정호(부산대82), 최윤선(부산여대85) 한강수(부산외대88), 하영인(인제대91), 이상주(춘해보건대88), 신기석(한국해양대84)

감　　사 : 김규태(부산대82), 김석수(부산교대86)

재학생 회장 : 이재훈(부경대12)
부 회 장 : 김민철(인제대13), 전미화(춘해대15)
YB 부 장 : 차지환(경성대14), 박상준(동아대16), 이창욱(동의대14), 김성수(부경대14), 조민규(부산과기대16), 안정희(부산대16), 김민철(인제대13), 이소명(춘해보건대15), 이규철(한국해양대14)

경남정보대학교
OB회장 정진열
회원 일동

경성대학교
OB회장 박종대
회원 일동

동명대학교
OB회장 허기주
회원 일동

동부산대학교
OB회장 임경혁
회원 일동

동아대학교
OB회장 김인숙
회원 일동

동의과학대학교
OB회장 박광범
회원 일동

동의대학교
OB회장 이광희
회원 일동

동주대학교
OB회장 문재원
회원 일동

부경대학교
OB회장 정진육
회원 일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OB회장 홍종표
회원 일동

부산교육대학교
OB회장 신병건
회원 일동

부산대학교
OB회장 하정호
회원 일동

부산여자대학교
OB회장 최윤선
회원 일동

부산외국어대학교
OB회장 한강수
회원 일동

인제대학교
OB회장 하영인
회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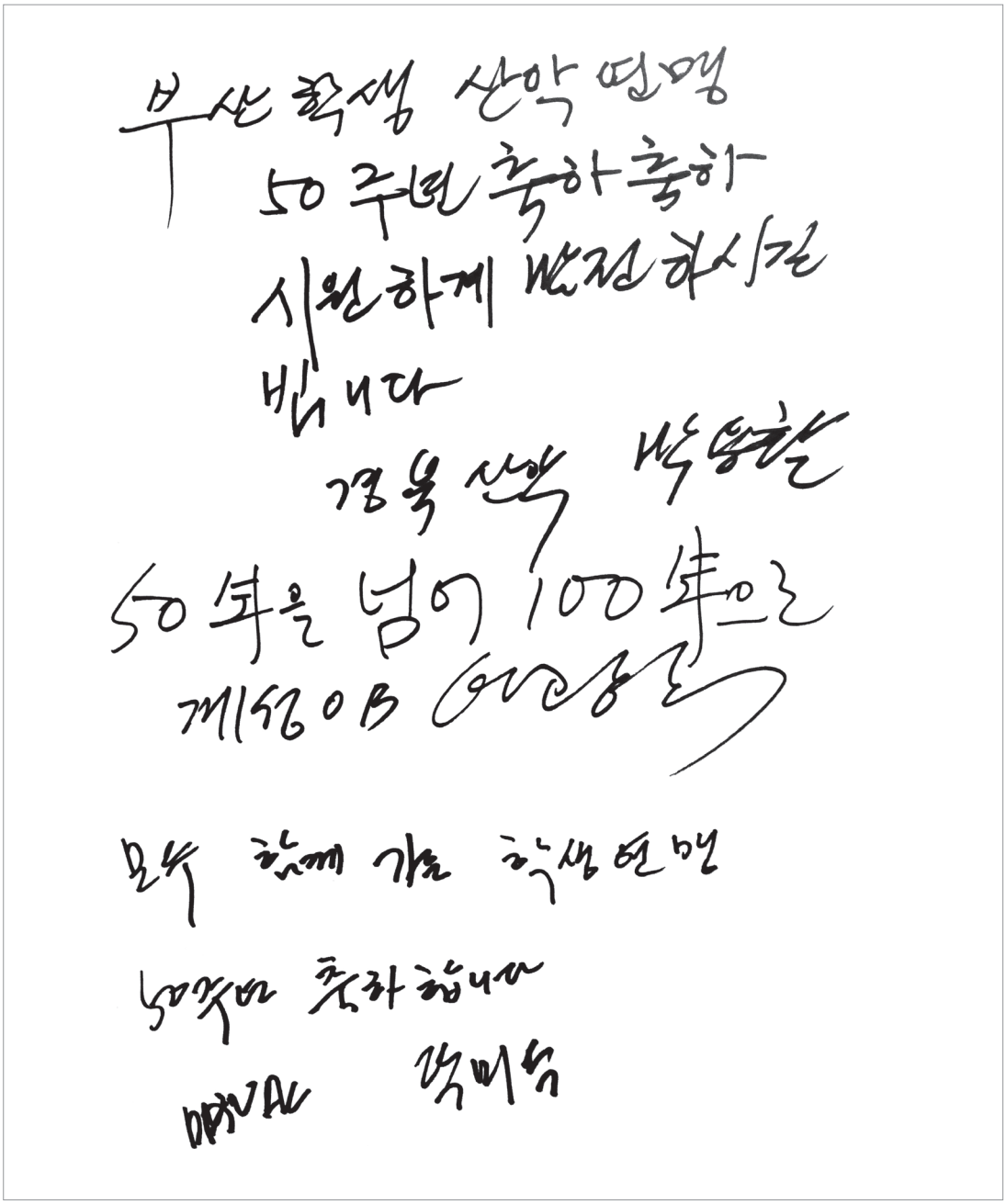
춘해보건대학교
OB회장 유용미
회원 일동

한국해양대학교
OB회장 신기석
회원 일동

BSAA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을 축하하다

2017년 5월 14일 창립 50주년 기념 산행 및 영호남 합동산행 시 축하 메세지



반갑습니다.

50주년 축하합니다

얼굴보니 좋네요^^

화이오!!

다음에 또 볼 수 있는거죠? ㅎㅎ

50주년 축하드립니다

영호남 자주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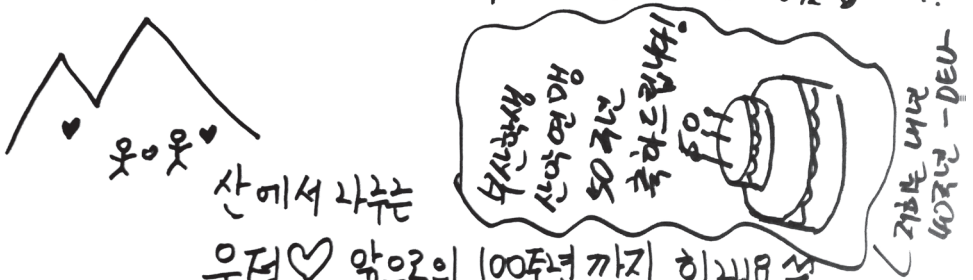
부산학생산악연맹 5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부산학생산악연맹 50주년 축하드리고 영호남 합동 산행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을것 같아요 - 부산대 16 00

부산학생산악연맹 50주년 축하드리오. 100주년까지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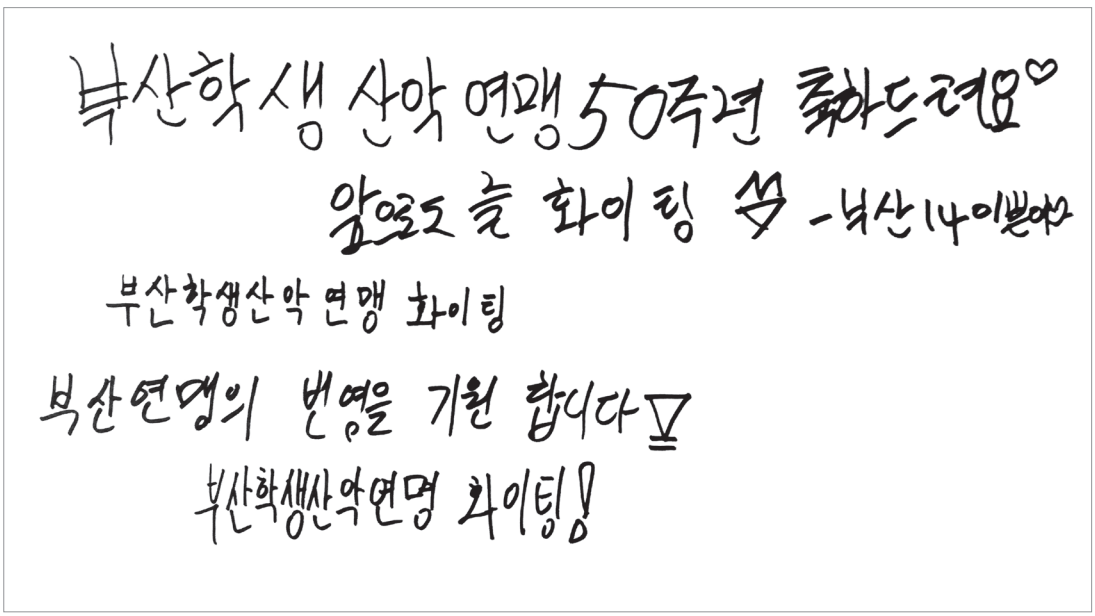
백년만년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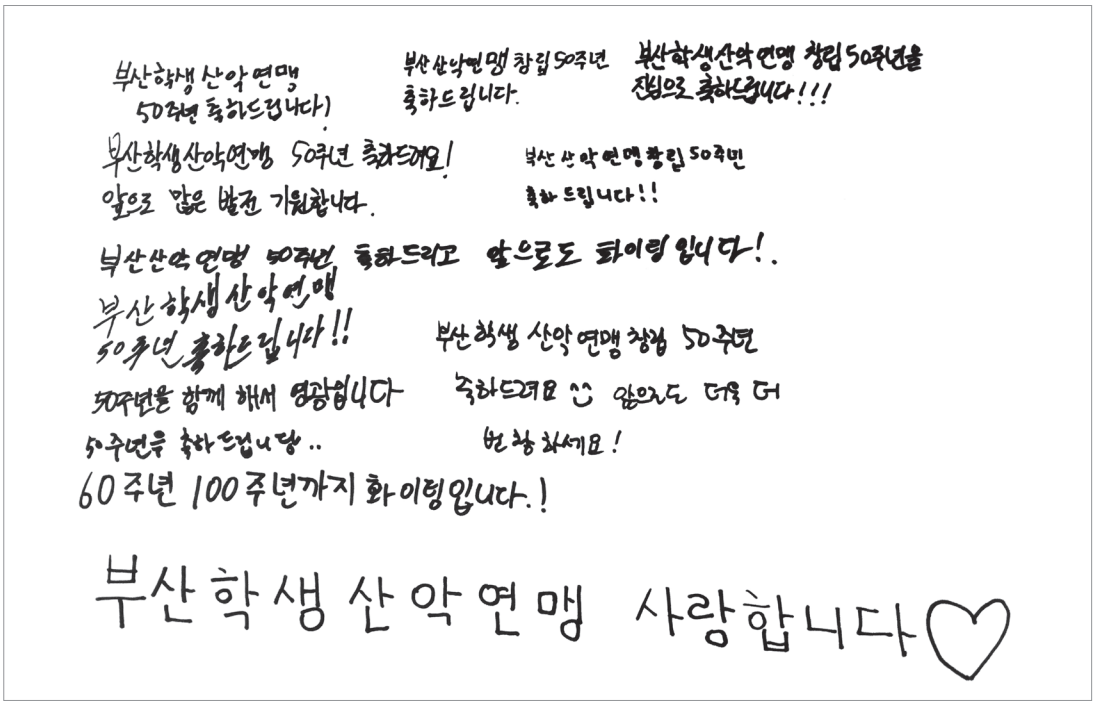
부산학생산악연맹 50주년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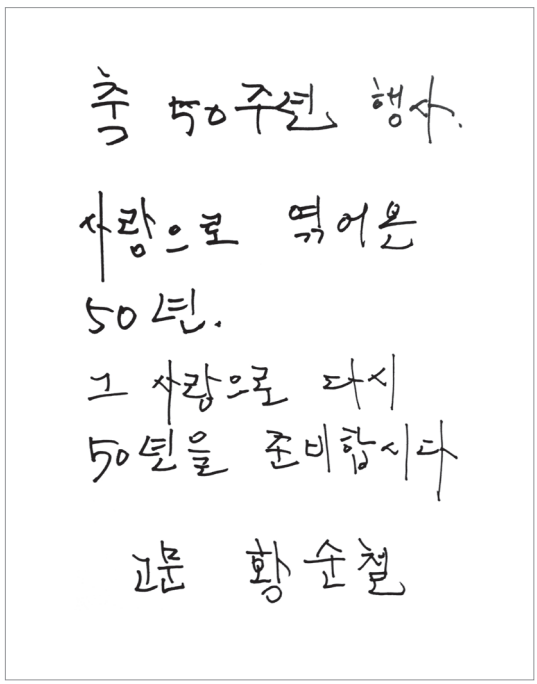


산에서 자주는 우정♡ 앞으로의 100주년까지 힘내요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을 축하하다







축 50주년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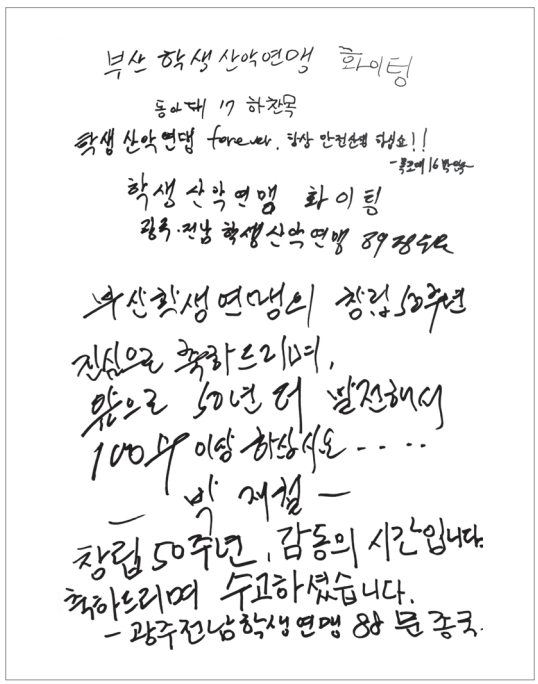
사랑으로 엮어온

50년.

그 사랑으로 다시

50년을 준비합시다

고문 황순철



부산 학생산악연맹 화이팅

동아대 17 하찬목

학생 산악연맹 forever. 항상 안전산행 하십요!!

-북조예 16박연수-

학생 산악연맹 화이팅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89 정수요

부산학생연맹의 창립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50년 더 발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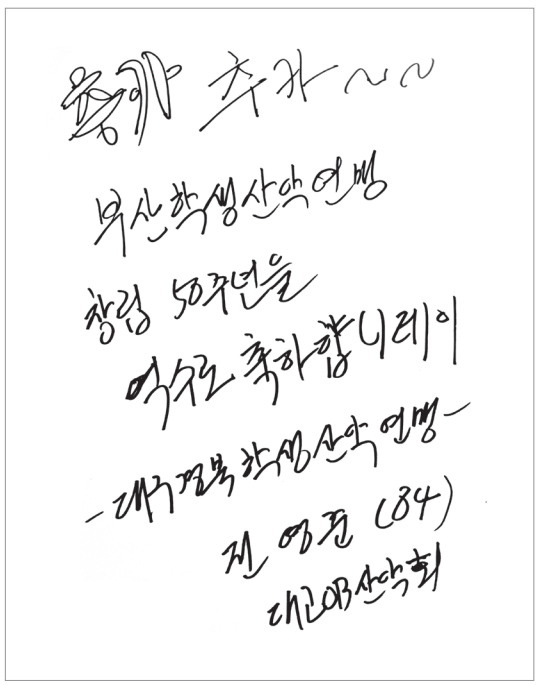
100주 이상 하십시오 . . . .

— 박 재철 —

창립 50주년, 감동의 시간입니다.

축하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 광주전남학생연맹 88 문종국.



축하 추카~~

부산학생산악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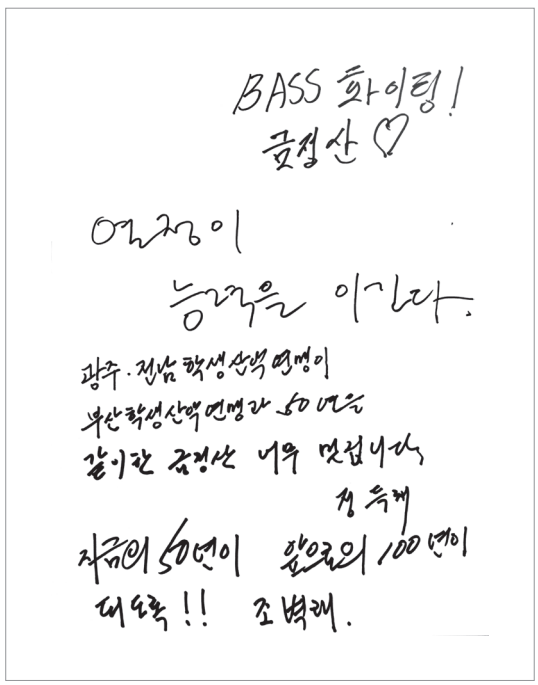
창립 50주년을

억수로 축하합니데이

-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 -

전 영준 (84)

대고OB산악회



BASS 화이팅!

금정산 ♡

열정이

능력을 이긴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

부산학생산악연맹과 50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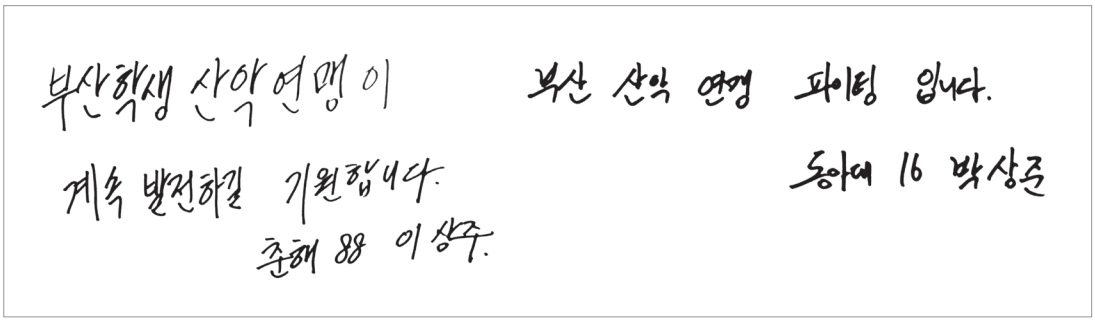
같이한 금정산 너무 멋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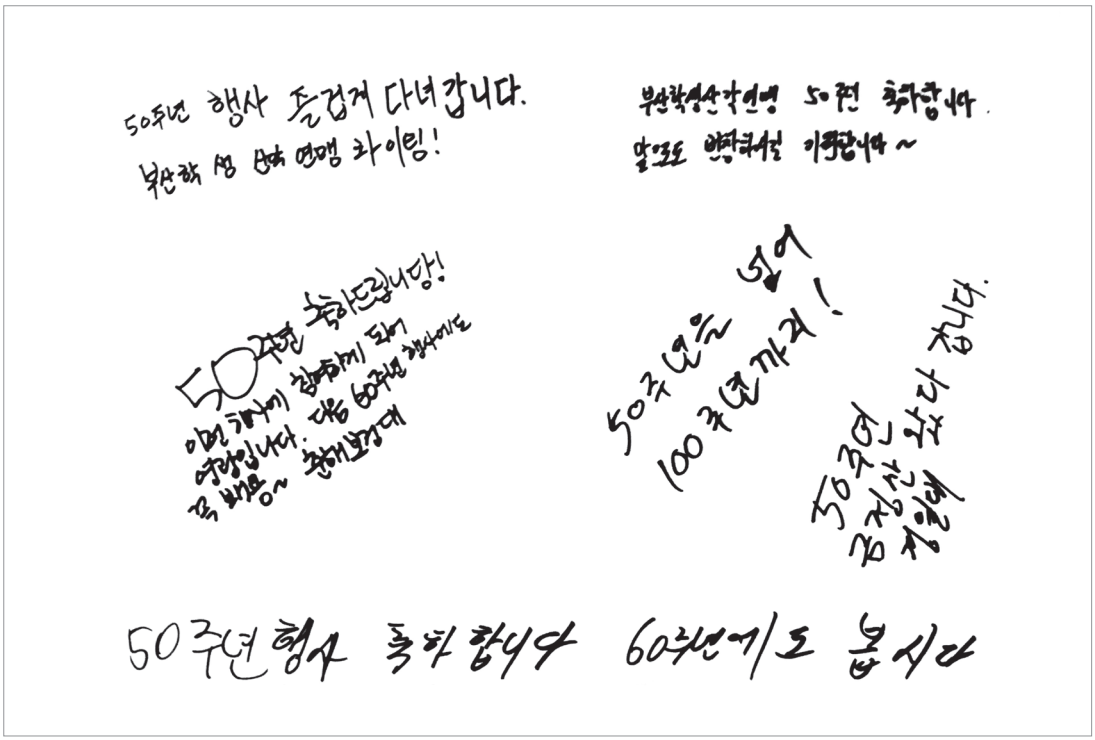
정 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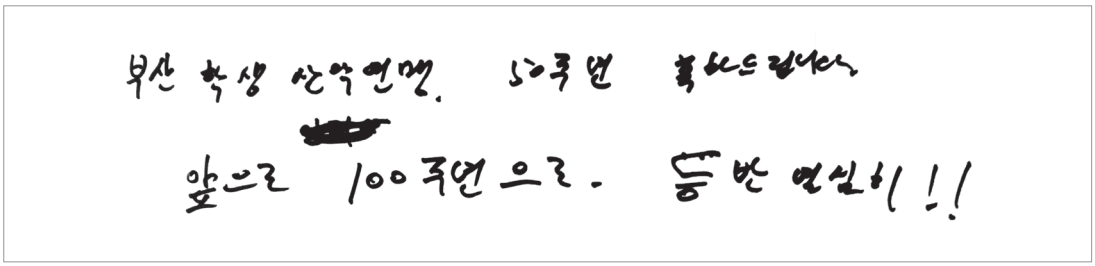
지금의 50년이 앞으로의 100년이

되도록!! 조벽래.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을 축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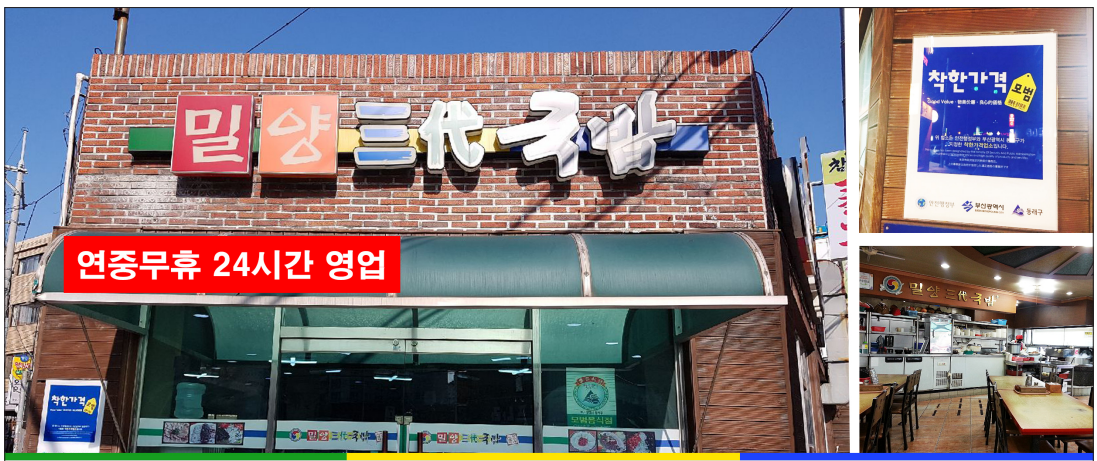

Climb Korea
endless challenges
대한민국 대표 인공암벽 설계 시공 전문업체
클라임코리아(주)는 스포츠클라이밍 발전에 기여하고자 인공암벽
디자인에서 설계 · 시공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인공암벽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의
50년사를 축하합니다.
TRUST
HONEST
ENDLESS
CHALLENGES
head rush
technologies
AUTHORIZED SERVICE CENTER
헤드러쉬 공식 서비스센터 OPEN!
CLIMB KOREA
스피드오토빌레이(SpeedAutoBelay)
오토빌레이(AutoBelay)
퀵 점프 (QUICKjump)
짚라인 (ZipLine)
고객과의 신뢰와 믿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클라임코리아(주)의 끊임없는 도전이 시작된다.
ClimbKorea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7-22
TEL. 031.945.4064
FAX. 031.945.4065
ck@skwall.com
COPYRIGHT © http://www.climbkorea.com

홍종표(부산과기대82)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을 축하하다



성기진(동아대)



三代를 이어온 국밥종가집!

삶아 기름뺀 돼지고기는 세계최고의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 충렬사역 2번출구 TEL. 051-529-9825 주차장지원

밀양삼대국밥(박민호 경남정보대84)

ST TECH (주)에스티테크코리아

대표이사 하 태 웅

CEO Thomas T. W. Ha

mobile. 010 9637 8848

email. twh88@naver.com

phone. 051 757 8848 fax. 051 761 5302

우 482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5번길 24, 더샵파크리치상가 204호

하태웅(인제대88)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을 축하하다

Like a Tachyon

타키온 파워 퀵 & 플라워



퀵 서비스

1800-

(부산/양산/김해/서울 및 전국 배송, 일/공휴일접수)

8505



화환/꽃배달

051-950-9090

(경조사 화환, 꽃화분 전문, 전국 배송, 일/공휴일접수)

타키온 파워 퀵 서비스 & 로지스틱스

대표 유영근 (동아대학교 산악회 82학번)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09 불이빌딩 11층
유선) 051-929-8500
무선) 010-5588-4296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425-136244, 타키온 파워 퀵

유영근(동아대82)

세무법인 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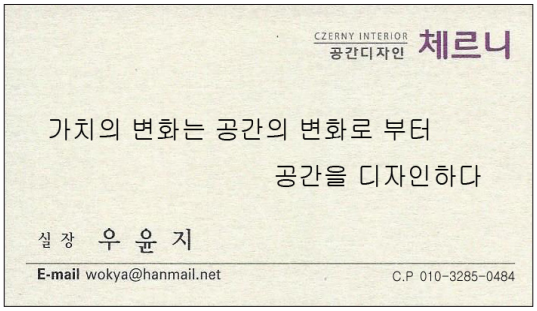
대표세무사 진 경 옥.정 영 훈

(주)47213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9 (양정동 한들빌딩 4층)
Tel. 051. 868. 0443 Fax. 0507. 716. 0332
E-mail. ctajyh@hanmail.net

정영훈(부산대92)



박정태(인제대03)



우윤지(춘해보건대90)



이만성(인제대85)



정금이(춘해보건대 81)



김상민(경남정보대89)



한강수(부산외대88)



김재형(부산과기대90)



백진국(동아대85)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을 축하하다



더디벨로퍼와 LH가 만나

주거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좋은 집을 짓는 것을 넘어서,
누구나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LH와 함께 로렌하우스를 탄생시킨 더디벨로퍼는
거주 가치를 우선하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갑니다

THE DEVELOPER

로렌하우스 : ZERO와 RENTAL HOUSE의 합성어로 에너지 사용량 제로를 추구하는 임대형 주거공간입니다.

www.rorenhouse.co.kr

조규진(동아대81)


대한민국
행복꿈틀
행복꿈틀은 농업인과 국민의 꿈을 키우는 틀이 되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H농협의 약속입니다
신나라! 땀 흘린 농업인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여는
꿈을 키우는 틀
피어나라! 새로운 미래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꿈을 키우는 틀
힘나라! 생활의 모든 순간
누구나, 어디서나 스마트한 금융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틀
NH 부산농협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공판장 NH개발 농협사료부산바이오 농협목우촌 농협자산관리회사 NH농협캐피탈

이창호(부산대80)

간담회

<table>
<tr><th>회차</th><th>일시</th><th>장소</th><th colspan="2">참석자</th></tr>
<tr><td rowspan="2">1</td><td>2016년
12월 22일</td><td>밀양삼대돼지국밥집
  </td><td>김재도(부산대60)
최욱(전 부회장)</td><td>정민규, 정승오, 정금이,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
신기석, 권용석</td></tr>
<tr><td colspan="4">학사산악회의 양대축, 김재도, 박진 선배님과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당시상황 간담회
60~70년대 산행흐름 및 파빌봉 원정당시 활동내용 등</td></tr>
<tr><td rowspan="2">2</td><td>2017년
01월 24일</td><td>밀양삼대돼지국밥집</td><td>최해곤고문
(동아대 64)
김정실 고문(부산대67)</td><td>정민규, 정승오. 정금이
박민호,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 신기석, 권용석</td></tr>
<tr><td colspan="4">학생연맹 창립당시 및 60~70년대 연맹활동 내용 등</td></tr>
<tr><td rowspan="2">3</td><td>2017년
03월 07일</td><td>밀양삼대돼지국밥집
  </td><td>신호진
(부산교대 74)</td><td>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박민호, 한강수, 하태웅
김재형, 배효일, 김난희
이재훈</td></tr>
<tr><td colspan="4">학생연맹 70년대 활동사, 김동인회장님의 헌신적인 지원과 사랑
파빌봉 원정 훈련대의 비사, 울릉도 학술탐사대의 이야기
영남알프스 학생연맹 산장의 추억 등</td></tr>
<tr><td rowspan="2">4</td><td>2017년
05월 02일</td><td>밀양삼대돼지국밥집
  </td><td>김태권(부경대73)
이상헌(경남정보대77)</td><td>정민규, 정금이, 박민호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td></tr>
<tr><td colspan="4">74년 대표상임위원 역임, 장두석회장에서 김동인회장으로 이임되는 시절
75년, 76년 동계산행, 70년대 학생연맹 활동 내용 등</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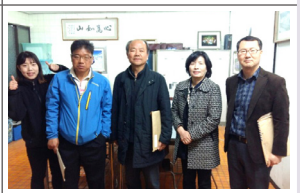
<table>
<tr><th>회차</th><th>일시</th><th>장소</th><th colspan="2">참석자</th></tr>
<tr><td rowspan="2">5</td><td>2017년
05월 09일</td><td>밀양삼대돼지국밥집</td><td>배병수(동아대72)
홍보성(부경대74)
정지택(경남정보대77)</td><td>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정영훈, 한강수, 박민호
김재형</td></tr>
<tr><td colspan="4">책발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 연맹의 해외원정에 대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 연맹제의 시작에 대한 문의 등</td></tr>
<tr><td rowspan="2">6</td><td>2017년
05월 24일</td><td>밀양삼대돼지국밥집
  </td><td>신호진(부산교대74)
이동본(부산교대75)
박병환(동아대80)</td><td>정민규, 정금이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 김재형
박민호</td></tr>
<tr><td colspan="4">이천산장 개관식/이천장으로 명명 .현판 대문 밑으로 기억.
76, 77년 당시 이슈사항, 79년도 백운슬랩 훈련
이동본회장님 당시 3단체 행사를 진행한 배경, 경남학생산악연맹과 조인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면 어떨지, 학생산악연맹이 아닌 대학산악연맹으로 이름 변경 등</td></tr>
<tr><td rowspan="2">7</td><td>2015년
06월 14일</td><td>밀양삼대돼지국밥집
  </td><td>신양수(부산대75)
이석호(동아대80)</td><td>정민규, 한강수, 하태웅
김재형, 정영훈, 임경혁
박민호</td></tr>
<tr><td colspan="4">자료 미흡한 경우 우선 작성에 들어가고 집필하면서 조금씩 보완,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될 수가 없더라, 집필진 구성이 최고 중요, 학번별 집필 가능한 회원 섭외 편집위원들의 의지와 자부심, 간담회 빨리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집필 시작해야 한다. 등</td></tr>
</table>

간담회

<table>
<tr><th>회차</th><th>일시</th><th>장소</th><th colspan="2">참석자</th></tr>
<tr><td rowspan="2">8</td><td>2017년
06월 29일</td><td>온천장 동래 맛진고기집
  </td><td>김규태(부산대82)
안호덕(부산대82)
정진열(경남정보대82)</td><td>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하태웅, 박준범, 김재형
정영훈</td></tr>
<tr><td colspan="4">연맹의 나아갈 길 및 80년대 활동사항 등</td></tr>
<tr><td rowspan="2">9</td><td>2017년
11월 03일</td><td>온천장 부산한정식
  </td><td>김인숙(동아대82)
차월준(부산여대82)
김덕순(부산여대82)
최윤선(부산여대85)
안명선(동주대82)
정인숙(동주대88)</td><td>정금이</td></tr>
<tr><td colspan="4">2000년대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여학생회의 발족과 활동사항, 2005년, 2007년 호프데이의 활동 및 의미, 2004년 맥킨리 등정 원정대, 기타 여학생회 자체활동사항(합동산행, 암벽등반, 체육대회, 정기총회, 단합회 등)</td></tr>
<tr><td rowspan="2">10</td><td>2018년
03월 02일</td><td>초량 노블리아 뷔페
  </td><td colspan="2">고문단:황순철, 신호진, 김치근, 정민규, 박병환
자문위원:정승오(해양대), 이석호(등산학교교장)
단대회장:하정호(부산대), 정진열(경남정보대)
유용미(춘해보건대), 최윤선(부산여대),
박종대(경성대), 신병건(부산교대), 한강수(부산외대),
문재원(동주대), 하태웅(인제대), 최정호(해양대)
편집위원:정금이, 박준범, 김재형, 이재훈
재학생:이창욱, 최지현, 김성수, 김건하, 권경래, 전현후
그 외:남순정(경성대총무), 정은경(경성대)
권용석(해양대 총무)</td></tr>
<tr><td colspan="4">50주년 창립기념사업 진행보고 및 50년사 책검정</td></tr>
<tr><td rowspan="2">11</td><td>2018년
03월 09일</td><td>온천장 부산한정식</td><td>김재도(부산대60)
최해곤(동아대64)
최욱(전 부회장)</td><td>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하태웅</td></tr>
<tr><td colspan="4">창립당시 상황 및 검증
50년사 책 시안 설명</td></tr>
</table>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비고
1	2016년 11월 18일	안락동 밀양삼대국밥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하태웅, 박준범, 김재형, 정영훈, 백광윤	
2	2016년 11월 29	부산학생산악연맹 회관	정민규, 조광제, 하태웅, 박준범, 김재형, 정영훈	
3	2016년 12월 08일	부산학생산악연맹 회관	정민규, 정금이, 박준범	
4	2016년 12월 22일	부산학생산악연맹 회관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박준범, 박준범, 김재형, 하태웅	
5	2017년 01월 12일	거제동 다채한정식	이창호,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박민호, 하태웅, 김재형, 정영훈, 이재훈, 권태현	
6	2017년 01월 24일	안락동 밀양삼대국밥	최해곤, 김정실, 정민규, 정금이, 박민호,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 신기석, 정승오, 권용석	
7	2017년 02월 09일	부산학생산악연맹 회관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하태웅, 김재형, 정영훈, 배효일, 김난희	
8	2017년 02월 21일	부산학생산악연맹 회관	정민규, 정금이,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 김재형, 김난희, 황원정	

편집위원회 회의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비고
9	2017년 03월 07일	안락동 밀양삼대국밥	신호진,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박민호, 한강수, 하태웅, 김재형, 배효일, 김난희, 이제훈	
10	2017년 03월 21일	부산학생산악연맹 회관	정민규, 정금이,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 김난희	
11	2017년 04월 12일	양정동 세무법인 양지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 김재형, 정영훈, 김난희	
12	2017년 05월 02일	안락동 밀양삼대국밥	정민규, 정금이, 박민호,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	
13	2017년 05월 09일	안락동 밀양삼대국밥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박민호, 한강수, 정영훈, 김재형	
14	2017년 05월 24일	안락동 밀양삼대국밥	정민규, 정금이,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 김재형, 박민호	
15	2017년 06월 14일	안락동 밀양삼대국밥	정민규, 한강수, 하태웅, 김재형, 정영훈, 임경혁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비고
16	2017년 06월 29일	온천동 동래 맛진고기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하태웅, 박준범, 김재형, 정영훈	
17	2017년 07월 13일	광안동 오륙도횟집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 김재형, 정영훈, 이재훈	
18	2017년 07월 26일	부산학생산악연맹 회관	정민규, 하태웅, 정영훈	
19	2017년 08월 23일	부산학생산악연맹 회관	정민규, 정금이, 하태웅, 박준범, 이재훈, 유영근	
20	2017년 09월 20일	부산학생산악연맹 회관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하태웅, 정영훈	
21	2017년 10월 19일	부산학생산악연맹 회관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박준범, 김재형, 송경빈	
22	2017년 11월 02일	삼락동 한강수회원 테마여행 사무실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한강수, 박준범, 김재형, 정영훈, 이재훈	
23	2017년 12월 13일	주례 위너스학원	정민규, 정금이, 하태웅, 박준범, 전현후(춘해14), 박주희(춘해16), 김아영(춘해17)	

편집위원회 회의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비고
24	2017년 12월 22일	주례 위너스학원	정민규, 정금이, 하태웅 박준범	
25	2017년 01월 03일	안락동 밀양삼대국밥	정민규, 정금이, 조광제 하태웅, 김재형, 정영훈 이재훈	
26	2017년 01월 16일	양정동 세무법인 양지	황순철, 정민규, 정금이 하태웅, 정영훈	
27	2018년 01월 26일	인쇄소 안락동 밀양삼대국밥	정민규, 정금이, 한강수 하태웅, 박준범	
28	2018년 03월 06일	연맹회관	정민규,정금이,하태웅 박준범,전상은,김병진 김재형,송경빈,백광윤	
29	2018년 03월 14일	서호병원	정민규,정금이,조광제 하태웅,박준범	

부산학생산악연맹 창립 50년사 발간위원

50년사 추진위원장	이창호 회장
발간위원장	정민규 고문
발간위원	정진열(경남정보대), 박종대(경성대), 신병건(부산교대), 정순천(동아대), 이광희(동의대), 박명오(동의과학대), 문재원(동주대), 정진육(부경대), 홍종표(부산과기대), 하정호(부산대), 최윤선(부산여대), 한강수(부산외대), 하영인(인제대), 이상주(춘해보건대), 신기석(해양대)
편집위원장	정금이(춘해보건대)
편집위원	조광제(동아대), 박민호(경남정보대), 신기석(해양대), 하태웅(인제대), 한강수(부산외대), 정영훈(부산대), 박준범(부경대), 배효일(부산교대), 김재형(부산과기대), 이재훈(부경대), 김난희(경남정보대), 황원정(동의대)

편집후기

정금이(편집위원장, 춘해보건대학교81)

부산학생산악연맹의 50년을 정리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50년이란 많은 시간을 함께 한 모든 회원들과 함께 묵혀둔 자료를 한번쯤 들추면서 그 시절을 느끼고, 활용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 단체나 조직의 역사도 개인의 삶의 행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들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자랑스러운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연혁은 그 면면이 참으로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또한 간단없이 이어져 온 시간의 갈피마다 선.후배님들의 땀과 열정, 악우의 정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허다한 모임도 많지만 스무살에 조우한 산과 그 산과 함께 맺은 인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축복의 구심점에는 부산학생산악연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 하든 긴 세월 동안 늘 존재해준 부산학생산악연맹이었기에 우리가 더욱 결속하여 성장 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한 50년 부산학생산악연맹, 그리고 함께 할 100년의 위대한 길 같이 동행하고자 합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50년사가 발간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편집위원들,

언제나 든든한 조광제위원, 어려운 자료를 공수해준 박민호위원, 마음이 늘 고마운 신기석위원, 큰일을 잘하는 한강수위원, 힘든 자료의 해결사 하태웅위원, 세무보다 어려운 50년사 살림을 해준 브레인 정영훈위원, 뭐든 해결하는 팔방미인 박준범위원, 중간 활력소 김재형위원, 함께 해주어 고마운 배효일위원, 그리고 재학생으로 이재훈, 김난희, 황원정 위원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책을 발간하기 위해 정신적,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선·후배님들,격려와 기대로 발간위원회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조광제(동아대학교82)

산은 아름답습니다. 웅장하고 거친 산도 그 선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 소박한 순수함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산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함과 강인한 건강을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제재된 활력을 되찾아 삶의 굴레로부터 자아를 해방하고, 자연에서 위안을 얻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웅대한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이지요.

2016년 10월 어느날.

정민규 선배님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연맹 50주년 기념 책자 편집위원 하라고...

처음에는 거리핑계로 고사를 해봤지만 재차 연락이 와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 했습니다.

동아대 50년 기념책자를 발간하면서 그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겁이 났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동아대에서 한명의 위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선후배님들을 믿고 편집 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2016년 11월4 일 연맹제에 참석하여 거기에 모인 연맹인들과의 격렬한 토론, 예산문제부터, 왜 책자를 발행 하느냐는 원론적인 문제 등 갑론을박을 통하여 정민규, 정금이 선배님의 뚝심과 할 수 있다는,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고 2017년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50주년 기념사업회가 추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연맹인들은 어떻게 평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 편집 위원들은 길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50주년 책자를 완성 하였습니다.
각 단대 자료수집부터 각 분야별 자료정리, 사전 스캔등, 그리고 선후배님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숨어있던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내고 정리 하면서 책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민규, 정금이선배님의 열정과 끈기 사명감, 그리고 편집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생각 합니다.
나 또한 부산학생산악연맹 50주년 기념책자 발간에 편집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을 가슴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마침표를 찍을 때 같이 모여 뜨거운 소주잔을 함께 기울이길 희망 하면서 이 기간 동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웅(인제대학교88)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난 자료에 주눅이 들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내가 하자는 식으로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진척이 없어 선배님들이 많이 고민하실 때 이제 와서 밝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부산학생산악연맹의 저력을 믿었으니까요. 세부 담당 위원이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는 보완할거라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하루하루 자료가 쌓일때마다 대표상임위원을 할 때 많은 행사를 했음에도 보유 자료가 적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던 故 오점량 선생님과 학산의 산파역을 하셨던 김재도 대선배님의 귀중한 옛자료에 정말 존경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50년사의 얘기를 학산인들에게 바칩니다. 60년사, 70년사는 후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장님, 편집위원들 사랑합니데이~~~

박준범(부경대학교89)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여전히 쉬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함께 준비하시고, 자료를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모든 선후배동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전합니다.
사람은 입장과 환경에 따라 의지와 색깔도 달라지고, 저작물은 시간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작물이 역사를 다룰 때에는 더 예민해지고, 부담스러워 지는 이유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글씨 하나하나와 지난 과정의 순간들이 묶어 놓고 보면 물 흐르듯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 다른 세대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부산학생산악연맹이 탄생 50년을 기점으로 더 너그럽고, 자신감 넘치는 단체가 되어 많은 연맹인들을 포용하고 함께 숨쉬는 커뮤니티가 되어주길 바라게 됩니다.
이 책과 기록속의 주인공들 모두 모두 존경합니다.

김재형(부산과학기술대학교90)

1년 넘게 여러선배님들이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 뭉치는 학생산악연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훈(부산대학교92)

나무도 크면서 옹이가 생기고 일년에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50년이란 시간의 나이테를 하나에 담기는 참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작업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작은 시작이 나중의 큰 발걸음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훈(부경대학교12)

검증자리에서 만난 신호진 고문님의 말씀처럼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년의 시간이 있기에 만들 수 있는 이 책의 편집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고 연맹의 모습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학생이라는 현 제 위치 때문에 50년사의 많은 부분을 모를뿐더러 많은 참여를 하지도 못하여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참여 그 이상의 배움을 얻을 수 있었어 저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이 책이 어떤 목적의식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애정과 편집위원들의 많은 시간이 들어가 있음을 모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원정(동의대학교14)

1년 가량의 기나긴 시간 동안 50년사의 일들을 돌아보고 정리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일은 무척이나 노고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도서 발간이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격스럽고,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편집위원님들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968~2018 만남, 우정, 희망

발행인 이창호
발행처 부산학생산악연맹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거제2동 1299), 실내체육관 215호
학산연 홈페이지 http://www.bsaa.kr
50년사 홈페이지 http://50.bsaa.kr
발행일 2018년 3월 30일
제 작 지애드컴(051-463-8770)